

METaverse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0th Conference on KCYPS(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일시 / 2021년 11월 19일(금)

10:00-17:00

개최방식 /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https://bit.ly/10th_Conference_on_KCYPs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 대한가정학회, 대한범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주최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후원 / 여성가족부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학술대회에 (사)대한가정학회가 공동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과 함께 비대면이지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막중한 책임을 갖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귀중한 종단적 차원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막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였고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연구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나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깊은 학술대회에 대한가정학회가 공동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아동청소년의 활동, 심리/발달, 학업/학교, 역량, 진로, 부모/양육, 미디어/스마트 폰이라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어, 대한가정학회에서 기존에 참여하였던 회원들 외에도 새롭게 참여하려는 회원들에게 큰 참여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계신 한국청소년연구원의 모든 분들께 그 노력과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 발전에 계속해서 큰 도움을 주십사 부탁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최근 예기치 못하였던 Covid 19 상황, 이로 인해 강화되는 비대면 상황 등은 아마도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코비드 기간 동안의 아동청소년의 발달, 심리, 활동, 역량 등의 변화에 대한 패널자료 및 연구발표도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 번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대한가정학회 회장 **손미영**

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고 대한범죄학회와 더불어 15개의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 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분들과 여러 학회 회원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는 인간의 생애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더불어 추적 조사를 통해 성인기로의 이행까지를 살펴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에 목적을 두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2020년까지 9회에 걸쳐 총 314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매우 생산적인 학술대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정책마련에 있어 학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19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에서 K-방역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성과가 아동과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자립을 도와주는 데에 있어 기여를 했다고 대외내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대한범죄학회 회장 **곽대경**

축사

안녕하세요.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오승근 교수입니다.

먼저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소년 분야의 종단연구자료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꾸준히 유지, 관리해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 양적조사 자체가 시행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패널을 유지하여 기초학술데이터를 조사공개하는 과정은 힘겨운 여정이었으리라 추정됩니다. 더욱이 청소년 분야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 궤적을 추적하여 성인기 이행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종단연구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동·청소년 패널학술대회 개최는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접분야 학회들과 제10회 아동·청소년 패널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함으로써 패널데이터에 대한 학술적인 활용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청소년 분야 학문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적 연구지원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사개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아동·청소년 패널학술대회를 주최하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님, 그리고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하형석 센터장과 소속 연구원들께도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메타버스(게더타운)라는 가상세계 플랫폼을 통해 이번 아동·청소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보다 많은 분야의 관련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교류하는 학술연구의 장이 구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회장 **오승근**

축사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사회학회장 김안나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라고 재촉하는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가 차질 없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 준비를 주관하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학술대회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큼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과 청소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매년 패널자료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300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대학원에서 패널자료를 활용한 석·박사학위논문이 630편 이상 제출될 만큼 학술연구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한국교육사회학회도 매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공유해왔습니다.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을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던 시대는 멀어졌습니다. 다양한 유관 학회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의 활발한 학술교류와 소통은 우리 아동과 청소년을 다양한 맥락과 층위에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 아동·청소년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교육의 성공과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열어주었습니다.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 없이 여러 연구자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의 하나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술대회를 주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연구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교육사회학 회장 김안나

축사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의 성대한 개최를 축하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청소년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정책보고서 발간 사업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수립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한국심리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심리학은 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아카이브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의미 있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학문인 동시에 실증과학으로서 그간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에서도 한국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변화양상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약 2년여에 걸친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연구 결과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자극받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퇴행적인 떼쓰기와, 수면장애, 악몽, 식욕저하, 초조, 분리불안 등의 양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격리 조치된 경우 28~33%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그리고 20%에서 공포를 보였으며, 그 외에도 우울, 기분 저하, 분노, 정서적 소진 등도 보고 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2021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도 코로나 이후 청소년이 겪는 주된 감정은 불안과 걱정 53.2%, 우울 30.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감사, 평온, 관심과 같은 긍정 정서의 경우, 각 12.2%에서 4.83%, 11.10%에서 4.46%, 15.9%에서 3.62%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로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으나, 우리 청소년들은 여전히 최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자료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코로나 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변화양상에 대한 기초연구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동시에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심리치료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드 코로나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처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다학제적 연구에 심리학은 적극 참여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책연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패널 연구가 하버드 대학교의 인간발달 기금연구나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가 수행하는 종단연구 이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산출하려면, 그만큼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10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진일보한 연구 방안과 결과들이 산출되는 과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에서 우리 심리학은 유기적인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면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심리학회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코로

나 19시대의 심리학》이라는 코로나 관련 연구발표회와 “위기의 지구: 재난, 심리학에서 길을 찾다”, “한국사회의 심리적 통증”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9일부터 2021년 11월30일까지 전 국민 대상 ‘코로나 무료전화심리상담’운영과 지속적으로 정신건강간편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심리학 연맹과 협력하여 유아와 아동을 위한 “내 영웅은 바로 너야(My Hero is You: How Kids Can Fight COVID-19!)” 라는 코로나 관련 동화책 영문원판을 질병관리본부의 지원 하에 한국판 동영상 버전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우리 한국심리학회는 ‘심리학자와 함께하는 일상회복’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전 국민을 위한 일상회복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며, 이러한 기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긍정적 경험률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년도 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다양한 심리건강의 실태와 관련된 사항들도 패널조사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학술대회 개최를 주관해 주신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님, 학술대회 준비위원님들,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와 경험들을 발표하고 나누어 주시는 강사님들, 그리고 도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된 학술대회에서 소중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사) 한국심리학회 제 50대 회장 **장은진**

축사

안녕하세요?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한유미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제10회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권리학회를 만드신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제10대 원장으로 재직하셨던 기관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아동권리학회와 인연이 깊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학회를 대표하여 축사를 전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저희 학회뿐 아니라 무려 16개 학회가 참여하고, 진로, 심리/발달, 학업/학교, 역량, 심리/발달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된 성대한 행사입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인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Zoom이나 유튜브 중계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온라인 학술대회에 비해 훨씬 생동감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집행부와 발표 및 토론을 맡으신 연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조사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한유미**

축사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 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뜻깊은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위원장님 이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학술대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메타버스(게더타운) 방식을 온라인 학술대회에 접목시켜 학술대회가 매우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하신 것에 대해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 이어 2018년에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으로 새롭게 코호트를 구축하고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길러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성인기로의 이행까지 그 변화를 파악하여 사회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데이터 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학술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미있는 학술 및 정책 연구가 활발히 교류되는 학술의 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아동학회 회장 **심미경**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사연구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의 축사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서, 또 한국에서 조사연구와 통계적 연구방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조사연구학회의 대표로서 느끼는 감회는 더욱 새롭습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한 우수한 연구를 발표하고 토의하며 학술적·정책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이 패널 데이터는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조사 자료로 평가합니다.

여러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의를 맡아주셨고, 또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동, 진로, 역량, 부모/양육, 심리/발달 1과 2, 학업/학교 1과 2, 그리고 미디어/스마트폰 등 아홉 개 세션에서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또한, 대학원생 포스터 발표도 있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을 익히고, 다른 연구자가 사용한 연구방법과 분석 결과, 새로 발견한 사실, 그에 대한 토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각 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발표와 토의를 경청하시고, 또 발표자에게 질의를 하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심포지엄은 학술 담론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그 성과 확산도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조사연구학 회장 **설동훈**

축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입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 공동주최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전 회원을 대표하여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는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대표적인 조사로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를 위해 활용 가치가 높은 패널데이터입니다. 저도 패널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 패널의 추적과 유지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구축된 귀한 자료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매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패널데이터 구축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자, 토론자, 좌장으로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가 연구를 넘어 증거기반 정책 개발 및 평가의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성장과 발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새롭게 시도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는 일상 회복과 미래 선도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다시 환류되어 향후 아동·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초가 되고 학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가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과 삶에 대한 생각과 열정을 나누는 진지하고 열띤 학술연찬의 장이 되어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를 개최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학술대회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정익중**

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의 뜻깊은 자리를 축하드립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이 학술대회를 아동·청소년 관련 여러 학회들과 함께 한국청소년시설환경 학회가 공동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도입니다.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바탕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안들이 국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반영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십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인문 사회 및 건축 등의 공학 분야에 있는 학계 종사자들과 청소년시설 관련 실무진들이 함께 학술적 법제적 연구를 해왔습니다. 국내의 청소년시설이 국제적 기준과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그 결과를 차분히 국내 청소년 시설 향상에 반영해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라는 상황을 겪으며 국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에 대해 다시 생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학교라는 기본 틀이 흔들릴 때 가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상황을 두 해 가까이 겪으며, 공공의 물리적 공간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점이 절실히 보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청년창업센터, 역세권청년주택 등의 익숙한 공간에 쉽게 접근 가능한 국내 일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드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로 예상되는 미래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곧 우리나라의 긍정적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함께 해 주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 길로 더 확실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회장 **윤혜경**

Session 1 | 10:30 ~ 12:00

|제1주제| 활동 | Room A

사회: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중학생의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 발표 : 김수진(서울교육대학교), 이윤희(한국교육개발원)
· 토론 : 김은애(한국교육개발원)
2.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그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간 구조분석 25
· 발표 : 조민규(경북대학교), 김춘경(경북대학교)
· 토론 :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중학생의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관계 연구 51
· 발표 : 한수정(충북대학교)
· 토론 : 민경훈(한국교원대학교)

|제2주제| 부모/양육 | Room B

사회: 김민(순천향대학교)

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그림과 자존감의 종단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에 따른 차이 79
· 발표 : 임효진(서울교육대학교), 이소라(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토론 : 박용한(충남대학교)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종단적 상호영향 관계: 성별 차이 103
· 발표 : 이화조(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 김세원(가톨릭관동대학교)
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그림의 매개효과 133
· 발표 : 이원례(계명대학교), 한천우(계명대학교)
· 토론 :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3주제| 미디어/스마트폰 | Room C

사회: 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161
· 발표 : 김경민(고려대학교), 최정원(고려대학교), 송지은(고려대학교)
· 토론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사교육 참여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 및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 2019년과 2020년
비교를 중심으로 183
· 발표 : 전하람(전남대학교), 이현주(전남대학교), 김가영(전남대학교)
· 토론 : 황영식(충남대학교)
3.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 및
성별 다집단 분석 203
· 발표 : 권미나(전북대학교), 이진숙(전북대학교)
· 토론 : 주동범(부경대학교)

Session 2 | 13:30 ~ 15:00

|제4주제| 진로 | Room A

사회: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보호자의 배경 변인이 학생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225
· 발표 : 김수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토론 : 박동현(서경대학교)
2. 중학생 진로정체감 변화 추이 탐색을 위한 문항반응이론의 종단적 확장 247
· 발표 : 박찬호(계명대학교), 서공주(대구미래교육연구원)
· 토론 :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대학원생 우수논문]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자녀 진로정체감의 관계 275
· 발표 : 이영광(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수료), 하재영(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수료)

|제5주제| 심리/발달 1 | Room B

사회: 조아미(명지대학교)

1. 청소년의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307
· 발표 : 성정혜(경북대학교), 김춘경(경북대학교)
· 토론 : 장윤선(대구교육대학교)
2.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의 매개 효과 분석 331
· 발표 : 박봉환(가톨릭관동대학교)
· 토론 : 이미애(대구가톨릭대학교)
3.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건강행태, 심리정서, 사회환경 351
· 발표 : 노미화(사과나무 의료재단), 신재은(사과나무 의료재단), 황인성((주) 닥스메디 기업부설연구소)
· 토론 : 정은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6주제| 학업/학교 1 | Room C

사회: 송성민(강원대학교)

1. 중학생들의 학업열정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과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변인의 영향 381
· 발표 : 하아영(경상국립대학교), 조한익(경상국립대학교)
· 토론 : 이은주(경북대학교)
2.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종단적 분석 405
· 발표 : 권순달(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 이현주(배재대학교)
3. 잠재전이분석을 통한 중학생의 학년별 학업 무기력 변화 및 영향요인 검증 429
· 발표 : 노연경(서울신학대학교), 송주연(한국교원대학교), 우연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토론 : 정 송(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Session 3 | 15:10 ~ 16:30

|제7주제| 역량 | Room A

사회: 유성렬(백석대학교)

1. 청소년의 그릿 종단적 변화 양상 및 영향 변인 탐색 459
· 발표 : 정혜원(충남대학교), 김아름(충남대학교), 백예은(충남대학교)
· 토론 : 김성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 487
· 발표 : 장은지(연세대학교), 김민석(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토론 :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대학원생 우수논문]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분석 : 부모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515
· 발표 : 강보은(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8주제| 심리/발달 2 | Room B

사회: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청소년의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청소년 활동,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 541
· 발표 : 정세영(계명대학교), 김지영(경남대학교), 김은지(부산대학교)
· 토론 : 강승희(부경대학교)
2. 주의집중과 우울 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업 열의에 미치는 교사 효과 573
· 발표 :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이동호(서울서래초등학교), 현유정(서울신월초등학교)
· 토론 : 박성호(한국교육개발원)
3.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 친구관계, 삶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599
· 발표 : 임선아(전북대학교)
· 토론 : 도승이(성균관대학교)

|제9주제| 학업/학교 2 | Room C

사회: 오승근(명지전문대학교)

1.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사교육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인과관계 종단분석 617
· 발표 : 곽수란(고구려대학교)
· 토론 : 이기종(국민대학교)
2. 규제화 MIMIC 모형을 통한 학업 무기력 예측 변수 탐색 637
· 발표 : 박빛나(부여초등학교), 유진은(한국교원대학교)
· 토론 : 함은혜(공주대학교)
3. 팬덤활동과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661
· 발표 : 이지수(서울시립대학교), 안현선(고려대학교)
· 토론 :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대학원생 최우수논문]지지하는 부모와 강요하는 부모가 중학생의 학업태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잠재
전이분석을 활용한 종단 연구 685
· 발표 : 박준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수료), 이희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Session 1

제1주제

활동

중학생의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수진*·이윤희**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3차년도(중3)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고, 학생활동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의 선택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경향점수매칭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향점수매칭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봉사활동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자아존중감, 경향점수매칭 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leeyoonhee@kedi.re.kr

I. 서론

청소년기는 개인이 자아상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단계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생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특정 지식을 갖추는 것 이상으로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생활 전반에서 길러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교육과정에서 학생활동에 해당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구체적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학생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는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은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교육활동은 입시에 대한 강조로 인해 학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활성화로 최근에는 학습 또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발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러한 전인적 발달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 함양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외 사이버학교(Chicago, Virtual High school, Interhigh)들에서는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진로, 학업과 관련된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합, 봉사, 프로젝트, 세미나 등의 교과 외 활동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강성국 외, 2020: 39).

이러한 점에서 학업 외에도 학생활동이 함께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것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수업 이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나영, 황혜영; 2019, 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안재진, 김숙, 이경상, 2017; 이경혜, 김혜인, 2018; 전명순, 김태균, 2014; 장덕희, 이명옥, 양점도, 2011; 전현정, 정혜원, 2019a; 진은설, 임영실, 2009). 이처럼 학생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자아개념, 공동체의식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생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 또는 신념(Coopersmith, 1967; Rosenberg, 1979)으로 성취,

동기, 적응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유진이, 2007). 즉,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업, 학교생활 적응, 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학생활동에 대해 활동 시간의 부족, 학업 방해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과 적응에 기반이 되는 자아존중감에 학생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의 학생활동 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한 연구들은 선택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검증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학생활동 참여 여부 자체가 결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기존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향점수매칭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중학생의 학생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향점수매칭 분석 방법은 선택편의로 인한 분석결과의 왜곡을 줄일 수 있어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나영, 황혜영, 2019).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생활동 중에서도 국가 교육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온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들 활동에의 참여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학생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 운영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 경향점수매칭 이후 봉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자아존중감 차이는 어떠한가?
- 2)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 경향점수매칭 이후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자아존중감 차이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생활동(봉사, 동아리)의 효과

학생활동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학생활동 전반이나 봉사활동 또는 동아리활동 등과 같은 개별 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김윤나와 박옥식(2009)은 청소년활동의 맥락에서 학생활동 전반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주목할 만하다. 해당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범주를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의 세 가지로 설정하고, 그것이 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까지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이 스트레스를 제외한 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비

행, 학업성취,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이 중에서도 중학생의 경우 동아리활동이 직업성숙도와 학업성취에, 봉사활동은 학업성취와 삶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윤나, 박옥식, 2009: 96). 이러한 결과는 세부 학생활동별로 학교급에 따라 변인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학생활동 전반보다는 봉사활동 또는 동아리활동과 같이 개별 활동에 초점을 두고 그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봉사활동 참여가 사회성(김태준, 이미라, 2017; 이경혜, 김혜인, 2018), 공동체의식 또는 진로 관련 의식(안재진 외, 2017; 전현정, 정혜원, 2019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 이경혜와 김혜인(2018)은 스스로 계획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와 학교봉사를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학교생활적응, 사회공동체성, 다문화수용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봉사만 참여한 경우에는 사회공동체성과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안재진 외(2017)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따라 진로성숙도와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 교육과정으로 계획한 봉사활동에서는 캠페인활동만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모든 활동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 의식은 지역사회봉사와 자연환경보호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학교 주도와 학생 주도로 구분하여 봉사활동 유형에 따라 학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현정과 정혜원(2019a)은 봉사활동 참여가 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참여 동기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즉, 참여 여부 자체보다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보다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것이다(전현정, 정혜원, 2019a: 321). 특히, 이 연구는 경향점수매칭 전에는 고등학생의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향점수매칭 후에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방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역시 학생활동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데 있어서 경향점수매칭 분석을 활용하였다.

한편, 동아리활동과 관련해서는 동아리활동 참여가 자아개념(김나영, 황혜영, 2019; 송수지 외, 2012), 자아존중감 또는 자아효능감(유진이, 2007; 허철수, 강옥련, 2010), 학교생활적응(유진이, 2007), 협업능력(전자배, 2020)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송수지 외(2012)는 동아리활동 참여 시점에 따라 네 개 집단(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비참여)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학업 자아개념과 사회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김

나영과 황혜영(2019) 역시 동아리활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교내동아리 활동 참여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 대비 학업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이 모두 유의하게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학교생활 변수와 학교특성이 동아리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경향점수매칭을 활용하여 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한 후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표본 선택의 편의를 줄이고자 한 점에서 방법적으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에 주목한 연구는 유진이(2007)와 허철수, 강옥련(2010)이 있다. 두 연구 모두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유진이, 2007),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음을(허철수, 강옥련, 2010) 제시하였다. 다만 두 연구 모두 학생들의 다른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만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후 그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포함하여 학생활동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변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만, 그 변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활동별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으나 분석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생활동의 효과가 대체로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 협업 등 사회성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진로 개발, 생활 적응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경향점수매칭 분석을 활용하여 관련 공변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 또는 신념이다. Coopersmith(1967) 역시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표현되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자 신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Branden(1969)은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을 통합한 개념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더욱 중요하다(Rosenberg, 1979). 이러한 점에서 삶에 중요한 주요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이 잘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 뿐만 아니라 삶 전반의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아존중감에 주목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이주재와 김순규(2019)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환경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개인 요인은 건강상태, 여가·체험활동으로, 가족 요인은 경제적 수준,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환경은 학교 환경으로 성적, 또래관계, 교사관계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해당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 요인인 부모의 양육 방식이며, 다음으로 건강상태(개인 요인), 성적(환경 요인) 순임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학생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환경 요인은 학교 요인으로 설정하고 해당 연구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성적, 부모 양육태도, 교사 및 교우관계를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또 다른 연구로는 박선희(2014)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적, 외모 만족도, 컴퓨터 유능감, 사회적지지(부모, 교사, 친구)를 주요한 변인으로 설정하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과 학년에 따라 분석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남학생은 외모 만족도와 컴퓨터 유능감이, 여학생은 외모 만족도와 성적, 부모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 순서가 다르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송영주(2021)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 능력과 사회적 능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자아존중감에 다르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는데, 두 요인 모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나 사회적 능력은 초등학교 입학 전과 다르게 입학 후에 자아존중감을 의미 있게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두 연구들은 각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성별, 학년,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와 함께 일부 요인들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김시현(2020)은 다양한 요인 가운데 성별,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의 개인변인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별과 학업수행능력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변화율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통제변인으로서 월 가구소득 역시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적 변인 외에 김지영과 이형실(2010)은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은 또래괴롭힘이, 여학생은 친구관계의 질이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두 연구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성별에 주목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데 있어서 개인, 가정, 학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주요한 변인들을 고려하였다. 개인 변인으로는 성별과 학업성취도를, 가정 변인으로는 부모 학력과 가구 소득, 부모와의 관계 측면에서 부모와의 대화 시간, 부모 양육 태도를, 학교 변인으로는 교사관계, 교우관계와 함께 학교 소재지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중학생의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3차년도 중학생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 및 발달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종단연구로 2018년 기준, 초4, 중1 각 2,500여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추적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분석자료에서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개인특성, 가정특성, 학교특성 항목들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학생의 자아존중감 분석에 필요한 변인 가운데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 총 2,139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 자료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변인 설명

이 연구는 중학생의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가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표1>과 같이 종속변인, 처치변인, 공변인(통제변인)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은 학생이 응답한 자아존중감 관련 10개 문항(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고, 처치변인인 학생활동 참여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과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로 구성하였다. 동아리활동의 경우, 중학생은 교외 동아리 활동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외 동아리는 제외하고, 교내 공식 동아리 참여 여부로 한정하였다.

또한, 공변인(통제변인)은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개인특성(성별, 학업성취도), 가정특성(부학력, 모학력, 가구소득,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양육태도), 학교특성(학교 소재지, 학교생활만족도,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생의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학생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변인 구성 및 설명

구분	변인명	변인설명 및 변인처리	신뢰도
종속 변인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10개 문항의 평균값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0.837
처치 변인	학생활동 참여 여부	·자원봉사활동 참여=1 미참여=0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 참여=1 미참여=0	
공변인 (통제 변인)	개인 특성	·성별 ·남학생=1 여학생=0	
		·학업성취도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 (매우 못함=1 ~ 매우 잘함=5)	
		·부학력 ·아버지, 어머니가 응답한 최종 학력 학교 안 다님=1 초등학교 졸업=2	
		·모학력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 졸업=4 2~3년제 졸업=5 4년제 졸업=6 대학원 졸업=7	
	가정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1=소득 없음 2=100 미만 3=100 이상~200 미만 4=200 이상~300 미만 5=300 이상~400 미만 6=400 이상~500 미만 7=500 이상~600 미만 8=600 이상~700 미만 9=700 이상~800 미만 10= 800 이상~900 미만 11=900 이상~1,000 미만 12=1,000 이상	
		·부모와의 대화 시간(주중/주말 평균값) 1=전혀 안 함 2=30분 미만 3=30분~1시간 미만 4=1~2시간 미만 5=2~3시간 미만 6= 3~4시간 미만 7=4시간 이상	
		·부모양육태도(파스함) 4개 문항의 평균값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884
		·부모양육태도(자율성지지) 4개 문항의 평균값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865
		·부모양육태도(거부) 4개 문항의 평균값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806
		·부모양육태도(강요) 4개 문항의 평균값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797
		·학교 소재지 ·대도시=1 중소도시, 읍면지역=0	
		·학교생활 만족도 ·지난 학기 학교생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 5=매우 만족)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14개 문항의 평균값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898
		·교우 관계 긍정적 ·긍정적인 교우관계 8개 문항의 평균값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858
		·교우 관계 부정적 ·부정적인 교우관계 5개 문항의 평균값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816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 및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공변인(통제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사이에서 종속변인(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으로 비교 대상인 학생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최대한 유사하게 표본을 추출하였다. 경향점수매칭 방법은 사회과학연구에서 표본 추출에 있어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보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Rosenbaum & Rubin, 1983). 경향점수매칭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공변인(통제변인)으로 통제하고, 실험집단(학생활동 참여)과 통제집단(학생활동 미참여)을 1:1로 매칭하여 연구표본을 추출하였다. 매칭 방법은 실험집단의 학생과 가장 가까운 경향점수를 갖는 통제집단의 학생을 찾아서 매칭하는 최근린법 방식으로 경향점수매칭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향점수매칭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변인을 중심으로 경향점수매칭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결합표집된 집단은 집단 간의 유사성(동등성)이 확보된 상태이고 경향점수매칭 이후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 차이는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로 인한 순수 효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향점수매칭 이후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사이에서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향점수매칭과 학생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해 SPSS 25.0과 R3.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비교

1)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특성 비교

중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봉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한 t-test를 실시하고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영향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중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봉사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특성 변인들을 선정하고,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두 집단 간에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영향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학업성취도), 가정특성(부학력, 모학력,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거부, 강요)), 학교특성(교사와의 관계, 긍정적 교우관계)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중학생들의 개인 및 가정, 학교특성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두 집단 간 사전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공변인을 통제하여 봉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의 동등성을 확보한 후에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박종석, 김준엽, 2014; 전현정, 정혜원, 2019b).

표 2.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비교

변인명		봉사활동 참여 집단 (n=840)	봉사활동 미참여 집단 (n=1,299)	평균 차이	t	
개인	자아존중감	2.958	2.895	0.063	3.096	***
	성별	0.513	0.544	-0.031	-1.410	
	학업성취도	3.379	3.256	0.122	2.975	***
가정	부학력	5.389	5.228	0.161	3.531	***
	모학력	5.224	5.058	0.166	3.886	***
	가구소득	6.964	6.857	0.107	1.135	
	부모와의 대화 시간	4.340	4.036	0.304	5.225	***
	따스함	3.332	3.213	0.119	4.992	***
	자율성지지	3.296	3.189	0.106	4.466	***
	거부	1.765	1.878	-0.113	-4.106	***
	강요	2.140	2.231	-0.092	-3.170	***
학교	소재지	0.410	0.420	-0.011	-0.495	
	학교생활 만족도	3.281	3.284	-0.003	-0.070	
	교사와의 관계	2.824	2.752	0.072	3.713	***
	교우 긍정적	3.099	3.029	0.070	3.428	***
	관계 부정적	1.823	1.788	0.035	1.434	

*p < .05, **p < .01, ***p < .001.

2) 경향점수매칭 전·후 집단 간 차이 비교

중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비교를 위해 경향점수매칭 방법으로 두 집단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공변인(통제변인)의 표준화 차이 계수는 0.25 표준편차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경향점수매칭 이후 봉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경향점수매칭 이전·이후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중학생 집단의 경향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경향점수매칭 이전에는 봉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의 경향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매칭 이후에는 경향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경향점수매칭 전·후의 봉사활동 참여 여부 집단 간 경향점수 차이 분석

	봉사활동 참여 집단	봉사활동 미참여 집단	t
경향점수매칭 이전	0.430	0.369	11.609***
경향점수매칭 이후	0.417	0.413	0.719

경향점수매칭 이후 히스토그램 분포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경향점수매칭 이전에는 히스토그램 분포 형태의 차이가 있었지만, 경향점수매칭 이후에는 두 집단 간 유사한 분포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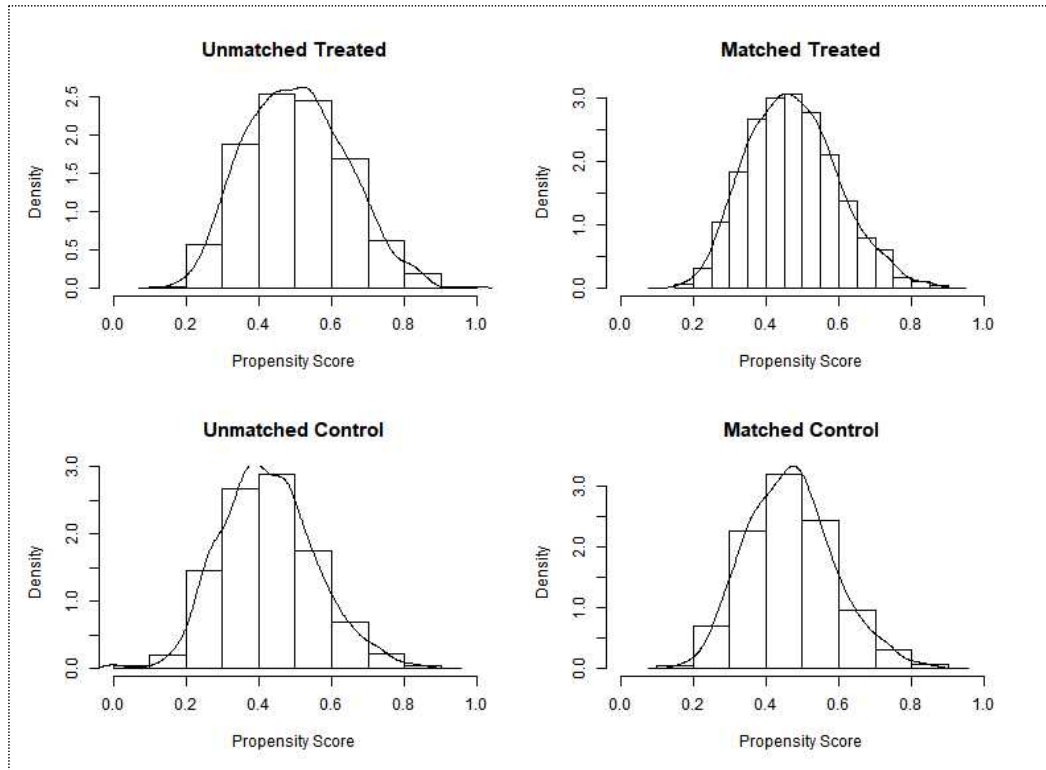


그림 1.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경향점수매칭 전·후 히스토그램

또한, 경향점수매칭 이후 통제변인인 봉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성별, 학업성취도), 가정특성(부학력, 모학력, 가구소득,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양육태도), 학교특성(학교 소재지, 학교생활만족도,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경향점수매칭 이후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비교

변인명		봉사활동 참여 집단 (n=791)	봉사활동 미참여 집단 (n=791)	평균 차이	t
개인	성별	0.521	0.517	0.004	0.151
	학업성취도	3.336	3.314	0.023	0.483
	부학력	5.358	5.348	0.010	0.197
	모학력	5.198	5.187	0.011	0.238
	가구소득	6.942	6.882	0.059	0.547
가정	부모와의 대화 시간	4.271	4.243	0.028	0.433
	따스함	3.310	3.291	0.019	0.724
	자율성지지	3.277	3.247	0.030	1.117
	거부	1.786	1.805	-0.019	-0.618
	강요	2.160	2.166	-0.006	-0.197
학교	소재지	0.406	0.401	0.005	0.205
	학교생활 만족도	3.272	3.221	0.051	0.973
	교사와의 관계	2.805	2.803	0.002	0.077
	교우 긍정적	3.081	3.068	0.013	0.589
	관계 부정적	1.821	1.849	-0.028	-1.003

2. 동아리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비교

1)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집단 간 차이 비교

중학생의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자아존중감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t-test를 실시하고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영향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중학생 집단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아리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특성 변인들을 선정하고,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두 집단 간에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영향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성별, 학업성취도), 가정특성(가구소득,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거부, 강요)), 학교특성(학교소재지,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긍정적, 부정적))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서도 학생의 개인 및 가정, 학교특성 변인들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변인을 통제하여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의 동등성을 확보한 후에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5.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비교

변인명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 (n=988)	동아리활동 미참여 집단 (n=1.151)	평균 차이	t		
개인	자아존중감	2.973	2.875	0.098	5.103	***	
	성별	0.506	0.554	-0.048	-2.229	*	
	학업성취도	3.420	3.205	0.215	5.486	***	
	부학력	5.329	5.259	0.070	1.560		
	모학력	5.162	5.089	0.072	1.726		
가정	가구소득	7.018	6.797	0.222	2.420	*	
	부모와의 대화 시간	4.356	3.983	0.373	6.697	***	
	파스함	3.295	3.229	0.065	2.789	**	
	자율성지지	3.259	3.207	0.052	2.242	*	
	양육 태도	거부	1.771	1.888	-0.117	-4.329	***
	강요	2.158	2.227	-0.069	-2.435	*	
	소재지	0.480	0.361	0.118	5.556	***	
학교	학교생활 만족도	3.327	3.245	0.082	1.907		
	교사와의 관계	2.817	2.749	0.068	3.652	***	
	교우 관계	긍정적	3.082	3.034	0.047	2.413	*
	부정적	1.740	1.854	-0.113	-4.646	***	

2) 경향점수매칭 이후 집단 간 차이 비교

중학생의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비교를 위해 경향점수매칭 방법으로 두 집단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공변인의 표준화 차이 계수는 0.25 표준편차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최근린법매칭을 활용한 경향점수매칭 이후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동등성이 잘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경향점수매칭 전·후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중학생 집단의 경향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경향점수매칭 이전에는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의 경향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경향점수매칭 이후에는 경향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경향점수매칭 전·후의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 집단 간 경향점수 차이 분석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	동아리활동 미참여 집단	t
경향점수매칭 이전	0.504	0.426	13.408***
경향점수매칭 이후	0.474	0.467	1.117

경향점수매칭 이후 히스토그램 분포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경향점수매칭 이후에는 두 집단 간 유사한 분포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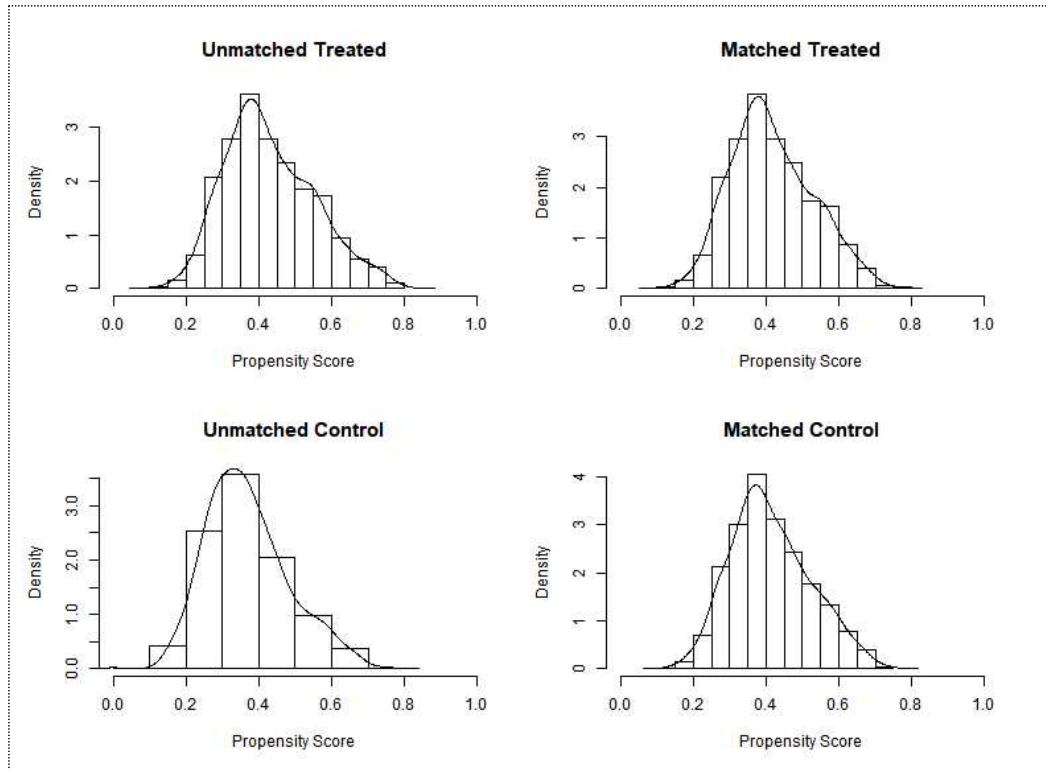


그림 2. 동아리활동 참여에 따른 경향점수매칭 전·후 히스토그램

또한, 경향점수매칭 이후 통제변인인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동등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성별, 학업성취도), 가정특성(부학력, 모학력, 가구소득, 부모와의 대화시간, 부모양육태도), 학교특성(학교 소재지, 학교생활만족도,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7. 경향점수매칭 이후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비교

변인명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 (n=827)	동아리활동 미참여 집단 (n=827)	평균 차이	t
개인	성별	0.528	0.527	0.001	0.049
	학업성취도	3.339	3.287	0.052	1.168

변인명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 (n=827)	동아리활동 미참여 집단 (n=827)	평균 차이	t
가정	부학력	5.277	5.293	-0.016	-0.309
	모학력	5.120	5.150	-0.030	-0.642
	가구소득	6.907	6.942	-0.035	-0.338
	부모와의 대화 시간	4.204	4.174	0.030	0.478
	따스함	3.273	3.257	0.016	0.608
	자율성지지	3.243	3.226	0.016	0.626
	거부	1.800	1.808	-0.008	-0.262
	강요	2.166	2.193	-0.028	-0.868
	소재지	0.429	0.426	0.004	0.149
학교	학교생활 만족도	3.322	3.294	0.028	0.571
	교사와의 관계	2.776	2.775	0.001	0.046
	교우 긍정적	3.059	3.058	0.001	0.027
	관계 부정적	1.777	1.788	-0.011	-0.435

3.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향점수매칭 이전에는 중학생의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모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향점수매칭 이후 결과를 살펴보면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미참여 집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는 않았다. 동아리활동의 경우, 경향점수매칭 이후에도 동아리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학생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분석

구분	경향점수매칭 이전			경향점수매칭 이후		
	참여	미참여	t	참여	미참여	t
봉사활동	2.958	2.895	3.096**	2.941	2.921	0.841
동아리활동	2.973	2.875	5.103***	2.943	2.898	2.070*

V. 결론 및 논의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는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 향상,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학생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동아리활동과 같은 학생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3차년도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활동(봉사,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들의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단 간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을 실시한 이후 분석 결과에서는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경향점수매칭 분석을 통해 공변인을 통제하여 학생활동(봉사, 동아리)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대체로 학생활동이 학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들을 보고하고 있으나, 해당 결과가 학생활동의 직접적 효과인지 혹은 학생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의 특성 차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경향점수매칭 분석으로 두 집단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여 학생활동의 직접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분석의 엄밀성을 높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생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시기에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극 개발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경향점수매칭을 실시한 후에도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과 관계없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동아리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활동을 발굴,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진로 탐색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아리활동과 달리 봉사활동은 경향점수매칭 이후 참여한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다소 높았으나 참여하지 않은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전현정과 정혜원(2019a)의 연구에서도 경향점수매칭 이전에는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향점수매칭 후에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봉사활동 참여 자체가 개인 및 가정, 학교특성 등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 참여 자체보다는 선행연구(안재진 외, 2017; 전현정, 정혜원, 2019a)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봉사활동의 참여 동기를 높여주고, 본 연구에서 경향점수매칭 전 확인된 영향 변인들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 강화, 또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 기회 제공 등의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생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아리활동은 경향점수매칭 전과 후에 동일하게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봉사활동은 경향점수매칭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학생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개인, 가정, 학교특성이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향점수매칭 이전의 결과에서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가정특성의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 지지)와 함께 봉사활동은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가정특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이 이에 관계없이 적극 학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독려하고 적극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2020년도에 진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로 해당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었던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봉사, 동아리활동 참여가 전면 등교수업이 실시되던 이전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학생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참여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활동의 참여 동기나 세부 활동 유형 등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경향점수매칭 후에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국, 김수진, 김은영, 도재우, 장혜승, 정재원, 황준성, 박상수, 하봉운. (2020).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2015).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 교육부. (2020).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일부개정 포함.
- 김나영, 황혜영. (2019). 경향점수를 활용한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학업 및 사회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혁신연구**, 29(3), 291-308.
- 김시현. (2020). 성별,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분석. **교육문화연구**, 26(6), 423-440.
- 김윤나, 박옥식. (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 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청소년복지연구**, 11(1), 79-99.
- 김지영, 이형실. (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2(1), 21-32.
- 박선희. (2014).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지발달장애학회지**, 5(1), 17-34.
- 박종석, 김준엽. (2014). 경향점수를 활용한 남녀공학 효과 분석. **열린교육연구**, 22(1), 139-162.
- 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청소년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21-147.
- 송영주. (2021). 학업 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입학 전·후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455-473.
- 안재진, 김숙, 이경상. (2017).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유형이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9(1), 85-107.
- 유진이. (2007). 학교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9-144.
- 이경혜, 김혜인. (2018).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가 사회공동체성,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25(9), 179-202.
- 이준재, 김순규. (2019). 개인, 가족, 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5), 659-667.
- 장덕희, 이명옥, 양점도. (2011). 청소년의 자원봉사 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포항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9), 121-146.

- 전명순, 김태균. (2014).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 학습습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8, 71-90.
- 전자배. (2020).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협업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유능감의 매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1(1), 101-127.
- 전현정, 정혜원. (2019a). 봉사활동 참여가 고등학생의 공동체 의식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향점수 매칭과 이중차분 추정기법 활용. **아시아교육연구**, 20(2), 321-347.
- 전현정, 정혜원. (2019b).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개발효능감의 분석 : 2006년과 2016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7(1), 49-80.
- 진은설, 임영실. (2009). 청소년활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4), 211-234.
- 허철수, 강옥련. (2010).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2(3), 25-46.
- Branden, N. (1969).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Bantam, New York.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Rosenbaum, P. R., & Rubin, D. B.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41-55.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중학생의 학생활동(봉사, 동아리)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문

김은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경향점수매칭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와 학교 교육 전반에 걸친 학생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의 맹점을 찾아 선택편의로 인한 분석 결과의 왜곡을 줄이고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경향점수매칭 분석 방법을 활용한 것이 인상적이다. 본 토론문에서는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학생활동을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으로 설정하였다. 서론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교과수업 이외에 다양한 학생활동이 청소년기에 가지는 중요성이 크며 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활동에 해당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만을 설정하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 또는 신념’으로 정의되므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도 충분히 변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론에서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온’ 것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근거도 추가되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특히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크대거나,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연구마다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등으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더 풍부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학생 활동으로 보고 있는 봉사활동과 교내 공식 동아리활동 경험을 단순 경험으로만 구분하였는데 학생활동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른 구분이 추가된다면 연구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스스로 계획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공동체익식, 진로성숙도, 학교생활적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경향점수매칭 분석 이후에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인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경향점수매칭 분석을 실시할 때, 봉사활동 참여여부와 동아리활동 참

여여부를 처치변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처치변인이 다른 처치변인의 공변인(통제변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히 동아리활동 참여여부는 경향점수매칭 분석 이후에도 참여여부가 다른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봉사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효과 분석에서 동아리활동 참여여부가 공변인으로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따라서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학생활동 또한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참여 방법, 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코로나19 시기를 구분하여 비교 연구를 실시한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2020년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생활동 참여여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생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효과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이전 자료도 함께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간 구조분석

조민규*·김춘경***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그릿, 행복감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과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결과분석을 위해 SPSS 18.0,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05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팬덤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팬덤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릿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에서 더 높은 평균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릿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팬덤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팬덤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릿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외래교수

***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kckyoung@knu.ac.kr

I.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미디어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미디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타나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 팬이 된다. 팬덤(fandom)이란 어떤 대상의 팬이 모이는 하나의 집단이자 팬 문화를 일컫는 용어로,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광신도를 의미하는 fanatic을 줄여서 팬(fan)이라 명칭한 것에 영지를 뜻하는 접미사(-dom)을 붙인 합성어이다(Jenkins, 2012). 이를 시작으로 19세기 텔레비전의 보급과 함께 대중문화가 확산되면서 언론에서는 스포츠 추정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오윤선, 황인숙, 2020), 팬덤문화라는 용어를 자리잡게 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팬덤 활동은 1990년대이며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오빠부대라는 용어로 팬덤이 지칭되었다(강진숙, 1998; 오윤선, 황인숙, 2020). 2020년대에 이르러 팬덤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인플루언서 등의 셀럽뿐 아니라 브랜드나 기업,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BTS 와 맥도날드의 콜라베레이션 매장의 30%가 팬대믹으로 운영되지 않음에도 기업 전체 순매출이 57%나 증가하였으며, BTS의 한국 GDP의 기여도는 0.3%(약 47억달러)에 이르고 있다(CNC News, 2021). 팬덤활동은 K-pop 아이돌, 특정 스포츠팀, 영화가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넘어선 연예인 활동지, 발자취를 따른 관광산업, 기업 서포터즈 등으로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팬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팬덤활동은 일방적이고 의존적, 추종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있으며, 현실도피와 중독,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일으키는 행위 즉 일탈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대부분이었다(김선숙, 2013; 안은미, 김소희, 전선율, 진성미, 정익중, 2012).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이 팬덤문화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새로운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정민, 정혜원, 2018; 조안나, 이은경, 장미경, 2016).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팬덤활동이 가진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팬덤활동은 청소년기 정체성 확립 및 성취감 증진,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을 구성하는 진취성과 끈기, 지속성 요인을 향상시키는데 팬덤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한다(Duckworth & Gross, 2014; Hodge, Hong, & Choi, 2019). 그것은 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한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목표달성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고난,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재시도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팬덤활동은 그 자체가 흥미롭고 즐거운 것으로 여기고 외부적 보상이 없더라도 지속되는 행동이다(Lynch, 2020). 즉, 경험 그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 자체가 목표가 되

어 깊은 몰입상태에 빠짐으로써 내재적 동기, 지속성이 높아지게 된다(Bennett, 201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그릿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 팬덤활동 유형에 따라 행복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는 팬덤활동과 행복감 간 관련성을 제안하고 있다(김기숙, 2012). 행복감이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서 얻어지는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으로(Park, Peterson, & Seligman, 2004), 이러한 행복감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 의도적으로 삶의 계획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행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높아지게 된다(김소리, 2004). 적절한 여가활동이 부족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 겪게 되는 스트레스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팬덤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러한 팬덤활동을 즐기고 몰입하게 되며,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그들의 행복감은 높아지게 된다(지양슈에진, 살여라, 황하성, 2020). 팬덤활동을 공유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Lieser, 2017)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 팬덤활동은 창의적 성격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김수정, 2018). 팬덤활동을 통해 스타와 팬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 속 다양한 경험은 그들의 창의적 사고를 확산시키게 한다(안은미, 김지선, 전선율, 정익중, 2013). 창의적 성격특성이란 인간의 창의적 사고기능이 최종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내적 동기나 태도 등을 의미하는 것(장성희, 2010)으로, 창의적 성격특성은 애매모호함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 위험감수, 자기신념과 믿음에 대한 용기를 통해 형성된다(Sternberg & Lubart, 1996). 팬덤활동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은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개방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장현석, 2020), 팬덤활동을 통해 정해진 한계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로 자신의 개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정재민, 2010). 이처럼, 팬덤활동은 창의적 성격특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유무에 따라 창의적 성격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요인은 팬덤활동 참여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관련 변인들 간 인과관계 또한 존재한다. 먼저, 창의적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그릿을 살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과정 내에서 청소년기 창의적 성격특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기 창의적 성격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그들이 가진 그릿에 주목하고 있다(김경민, 2021). 창의적 성격특성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생각과 시

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호기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Grohman, Ivcevic, Silvia, & Kaufman, 2017). 즉, 창의성이 실현되기 위한 과정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태도, 새로운 사고와 문제해결 방식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ternberg, 2012). 이처럼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열정, 노력, 끈기가 요구되며, 개인적 동기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는데(임효진, 2017), 이는 그것이 창의적 성격특성을 예측하는 원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청소년기 행복감 또한 창의적 성격특성을 예측하는 원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3대 조건으로 즐거움, 몰입, 삶의 의미를 꼽았다(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그러한 조건들 중 하나인 몰입(flow)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제안되고 있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14). 몰입상태에 빠질 경우 외적 보상이 없어도 목표를 향한 행동, 집중, 통제감, 자기 목적적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몰입상태에 빠져본 사람들은 그 당시 경험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Csikszentmihalyi, 1997). 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무언가에 깊이 빠져드는 상태, 즉 가치 있는 몰입은 행복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복감을 살펴보았을 때 몰입을 통한 호기심은 즐거움을 유발시키며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희재, 1999). 또한, 창의적 성격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 자기 신념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Galang, Castelo, Santos III, Perlas, & Angeles, 2016), 높은 행복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높아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행시키고자 한다는 측면(Ali, 2019)은 창의적 성격특성의 예측변수로 행복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행복감은 그릇을 통해 높아질 수 있다(Jiang et al., 2020). 그릇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 피드백이나 도움 없이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 열정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끈기를 바탕으로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룰 경우 행복감의 필수요건인 삶의 의미가 높아질 수 있다(Duckworth, Kirby, Tsukayama, Berstein, & Ericsson, 2011). 즉, 자기개발을 위한 끈임없는 도전을 통해 무언가를 이룸으로써 행복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릇이 높은 사람은 동기부여를 통해 창의적 행동을 실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대한 높은 성취감을 보인다(Myers, Wang, Black, Bugescu, & Hoeft, 2016). 성취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즐거움 높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Muenks, Yang, & Wigfield, 2018)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행복감을 향상 시키기 위한 예측변수로 행복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팬덤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그릇

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변인들 간 인과관계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의 차이를 검증한 후,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성한 후 변인들 간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집단 별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팬덤활동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따른 인터넷을 활용한 팬덤활동은 인터넷 중독 및 정신건강, 학업무기력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면서 팬덤활동이 가지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오현정, 장유나, 홍세희, 2020; 최미원, 조현희, 김영아, 201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요인을 선정한 후,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기 팬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 별 영향력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는 팬덤활동 참여에 따라 어떠한 요인이 더욱 의미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지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할 AMOS 프로그램은 기존의 SPSS 프로그램에서 통제할 수 없는 오차를 고려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보다 객관적인 결과도출을 가능하게 하며,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또한, 전국규모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는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연구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창의적 성격특성 및 행복감 요인은 주로 주 양육자의 행복감과 성격특성을 기반으로 그들과 관련된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나종혜, 손승희, 김수정, 2020). 하지만, 창의적 성격특성과 행복감의 경우 청소년기 학교적응능력 향상 및 학습능력을 높이는 요인이자 성인기 직무만족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이영란, 한기순, 2019; 이소윤, 201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변인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그릿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그릿과 행복감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그릿과 행복감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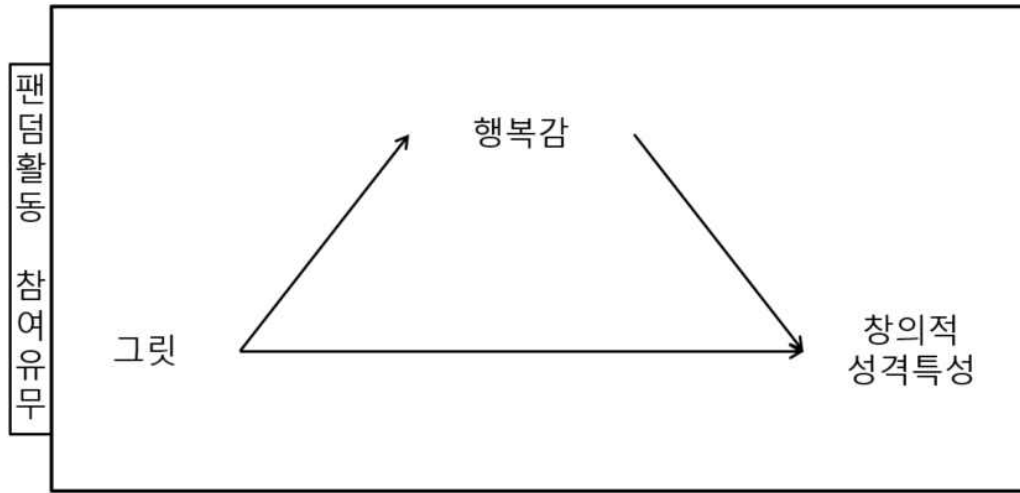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KCYPS 2018)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기 자신을 둘러싼 주변환경에 영향을 성장·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목적에서 2018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2,607명, 중학교 1학년 재학생 2,59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시작되어 3차년도(2020년)까지 수집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자료들 중 2020년 수집된 자료들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중학교 3학년 2,384명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 2,384)

배경변인	구분	빈도(비율 %)	
		팬덤 참여	팬덤 미참여
성별	남자	532(46.0)	746(60.7)
	여자	624(54.0)	482(39.3)
거주지역	서울	211(18.3)	179(14.6)
	부산	53(4.6)	72(5.9)
	대구	50(4.3)	53(4.3)
	인천	92(8.0)	102(8.3)
	광주	34(2.9)	32(2.6)
	대전	20(1.7)	49(4.0)
	울산	21(1.8)	26(2.1)
	세종	11(1.0)	30(2.4)
	경기	289(25.0)	305(24.8)
	강원	42(3.6)	32(2.6)
	충북	41(3.5)	59(4.8)
	충남	45(3.9)	50(4.1)
	전북	62(5.4)	46(3.7)
	전남	37(3.2)	40(3.3)
	경북	58(5.0)	55(4.5)
	경남	79(6.8)	83(6.8)
	제주	11(1.0)	15(1.2)
	첫째	651(56.3)	674(54.9)
	둘째	422(36.5)	469(38.2)
	셋째	73(6.3)	78(6.4)
	넷째	5(.4)	7(.6)
	다섯째	5(.4)	0(.0)
전체		1,156(100)	1228(100)

2. 측정도구

1) 팬덤활동 참여 유무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김지경과 백혜정, 임희

진, 이계오(2010)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으며, 팬덤활동에 1회이상 참여한 청소년을 참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없는 경우와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더라도 팬덤활동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은 비참여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창의적 성격특성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창의적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Gough와 Heilbrun(1983)의 창의적 성향척도(Creative Problem Solving: CPS)를 최인수와 표정민(2014)이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경우 창의적 성격특성과 관련된 단어들 중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은 창의적 성향문항과 비창의적 성향 문항으로 되어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창의성의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따라 창의적 성향 18문항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창의적 성향 척도는 단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측정변수로 인과관계를 검증할 경우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 확보 및 적합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Hau & Marsh, 2004) 반복주축분해법과 직교회전을 활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변수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1, 2, 3, 5, 7, 9, 19, 27, 29번 문항(.305 ~ .567), 요인 2는 4, 6, 11, 13, 15, 17, 21, 25번 문항(.210 ~ .311)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이상이면 해당요인과 상관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2요인의 대부분 값이 .3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문항꾸러미를 실시하지 않고 관측변수로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방식은 Likert식 1점 척도로 각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창의적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분석한 결과, .730으로 나타났다.

3) 그릿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경우 단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도가 낮은 2번과 5번 문항을 제외한 후 잠재변수화를 위해 반복주축분해법과 직교회전을 활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1, 3, 6번 문항(.565 ~ .705), 요인 2는 4, 7, 8번 문항(.567 ~ .679)로 구분되었다. .3 이상이면 해당요인과 상관이 높다는 점에서 그릿을 그릿1, 그릿2로 잠재변수화 하였다.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

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730, 그릿1 .705, 그릿2 .669로 나타났다.

4) 행복감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립 등(2015)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경우 단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도가 낮은 4번 문항을 제외한 후 다변량 정규성 확보 및 적합도를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1은 1, 2번 문항(.670 ~ .699), 요인 2는 3번 문항(.585)으로 구분되었다. .3 이상이면 해당요인과 상관이 높다는 점에서 행복감을 행복1, 행복2로 잠재변수화하였다.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804, 행복1 .81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변인들 간 각각의 영향력 및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집단차이 검증을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집단에 따라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간 인과관계에서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전,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그릿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이 차이를 보이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2. 청소년기 팬덤활동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변인		M(SD)		t	p
		팬덤활동 참여	팬덤활동 미참여		
그릿	그릿1	2.576(.601)	2.487(.614)	3.613	.001
	그릿2	2.642(.578)	2.536(.583)	4.430	.001
행복감	행복감1	3.134(.537)	3.025(.564)	4.830	.001
	행복감2	2.955(.619)	2.883(.678)	2.681	.007
창의적 성격특성		.226(.170)	.165(.126)	10.077	.001

p < .05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팬덤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그릿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 별 집단 간 차이 값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을 참여 유무로 분류하여 각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 및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2.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각각의 집단에서 측정변수 간 상호상관행렬 및 왜도, 첨도를 검증해 보았다. <표 3>을 통해 검증해본 결과 Hong, Malik와 Lee(2003)가 제안한 정상분포조건(왜도 2, 첨도 7 이하)을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본 연구결과는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행렬

측정변인	그릿1	그릿2	행복감1	행복감2	창의적 성격특성
그릿1	1	.217*	.262*	.303*	.263*
그릿2	.334*	1	.456*	.385*	.375*
행복감1	.247*	.414*	1	.355*	.354*
행복감2	.332*	.331*	.310*	1	.704*
창의적 성격특성	.329*	.316*	.266*	.659*	1
왜도	.200(-.041)	.051(-.310)	-.603(-.937)	-.515(-.634)	1.084(1.452)
첨도	.016(.251)	-.014(.410)	1.421(1.876)	.799(.463)	1.151(3.926)

p < .05

Note1. 대각선 아래는 팬덤활동 참여 집단이며, 위는 팬덤활동 비 참여 집단임

Note2. ()안의 왜도와 첨도는 팬덤활동 비 참여 집단의 수치임

3.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변인 간 구조관계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t검증)을 통해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는 경로모형을 활용하여 집단에 따른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동일하고 고정한 경로모형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df = 8) = 14.542$, TLI = .994, CFI = .998, RMSEA = .019).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경로계수는 <표 4>, [그림 2], [그림 3]과 같다.

표 4.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모수 추정치

모수			팬덤활동 참여 집단		팬덤활동 비참여 집단	
			B(S.E.)	β	B(S.E.)	β
그릿	→	창의적 성격특성	.164*(.026)	.331	.078*(.019)	.224
행복감	→	창의적 성격특성	.076*(.016)	.214	.047*(.012)	.195
그릿	→	행복감	.815*(.069)	.585	.929*(.066)	.645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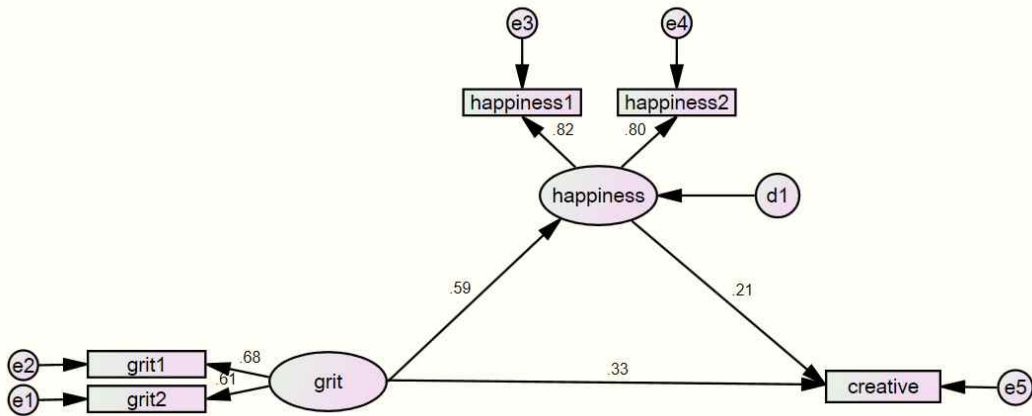


그림 2. 팬덤활동 참여 집단의 모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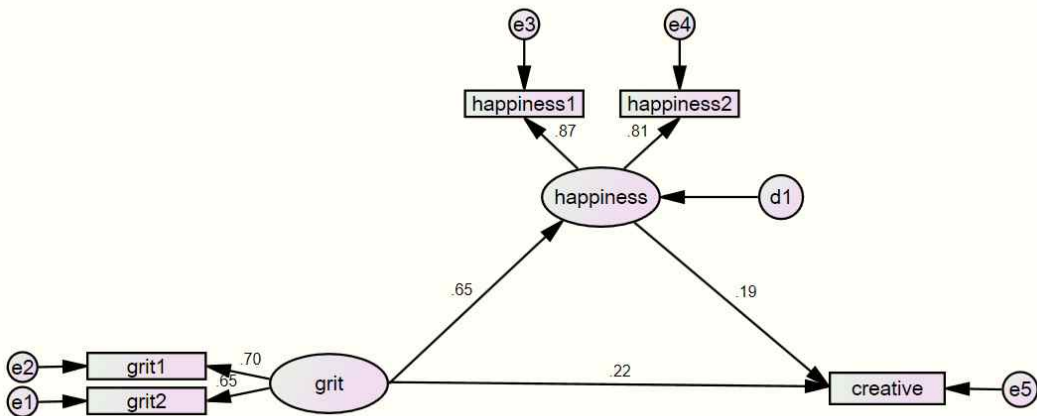


그림 3. 팬덤활동 비참여 집단의 모수 추정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덤활동 참여유무와 관계없이 그릿과 행복감이 높을수록 창의적 성격특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릿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 분석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 내 존재하는 3개의 경로계수 각각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3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더라도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다.

표 5.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델 간 차이비교(팬덤활동 유무)

모수			Δdf	$\Delta \chi^2$	ΔTLI
그릿	→	창의적 성격특성	1	7.503*	.004
행복감	→	창의적 성격특성	1	2.087	.000
그릿	→	행복감	1	1.648	.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3	39.230	.021

p < .05

〈표 5〉를 통해 살펴본 결과 그릿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경로($\Delta \chi^2(df = 1) = 7.503$, $p < .05$)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1가지의 경로는 〈표 4〉를 통해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최종경로는 그릿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이르는 경로로 나타났다. 즉, 팬덤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팬덤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릿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그릿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집단에 따른 그릿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간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 나아가, 집단에 따른 변인들 간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그릿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그릿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팬덤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팬덤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그릿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팬덤활동에 참여할수록 그릿이 높아질수 있다는 Mitchell(2001)의 연구결과와 팬덤활동 참여를 통한 자발성은 그들의 끈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Simone(2016)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팬덤활동에 대한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는 목표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시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팬덤활동의 특성은 개인이 가지는 끈기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Barnhill, Smith, & Oja, 2021). 즉, 팬덤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팬덤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자발성과 지속

성을 가지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좌절 및 역경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팬덤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팬덤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행복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팬덤활동을 통한 스타와의 동일시로 인해 스타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고한 전주연(2017)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는 그들이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김기숙(2012)의 연구는 팬덤활동 참여유무에 따라 행복감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 또한 지지하고 있다. 팬덤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는 삶에서 즐거움 및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정재민, 2010). 또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팬덤활동은 높은 몰입감을 유발 시키는데, 몰입감은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측면(Reysen & Branscombe, 2010)에서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행복감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창의적 성격특성의 차이를 검증한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팬덤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팬덤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그릿을 바탕으로 창의적 성격특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기 연예인 팬클럽 활동을 통해 정서적 특성 및 창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전종희(2005)의 연구와 온라인을 통한 팬덤활동 참여가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 MA(2019)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는 정서적 위로 더불어 삶의 활력소 및 자율성 향상, 개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중, 팬덤활동을 통한 개방성은 확산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창의적 성격특성이 높아지게 한다(Al Ganideh & Good, 2015). 자신의 선택에 따른 능동적인 여가활동 참여는 창의적 성격특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개인이 가져야 할 내적동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Cason, Lee, Lee, Yeo, & Arner, 2020)은 청소년기 창의적 성격특성 향상을 위해 그들의 팬덤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며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팬덤활동 참여를 통해 청소년기 끈기와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팬덤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그들의 끈기와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그릿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간 영향력 및 영향력에서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집단 별 각각의 변인들 간 인과관계는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 간 영향력 차이검증에서는 그릿이 행복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별 특성이 아닌 각각의 요인 별 영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그릿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영향력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그릿이 높아질수록 창의적 성격특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높을수록 그들의 창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김숙미와 구광현, 김보현(2020)의 연구결과와 청소년기 그릿이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유옥민과 조규판(2020)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한 높은 열정과 인내를 가지기 특성을 보이는데,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역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시도 함으로써 그릿을 향상시켜 나간다(Tang, Wang, Guo, & Salmela-Aro, 2019).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목표를 위한 꾸준한 노력은 상위인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Gutierrez, 2012). 즉, 상위인지의 활성화는 창의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Pitts, Anderson, & Haney, 2018).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 성격특성 발달을 위한 접근으로 그들이 가진 그릿을 향상시키는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면 4차산업혁명시대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실제적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행복감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영향력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창의적 성격특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행복감이 높을수록 확산적 사고와 행위, 일반적 지식과 사고, 동기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 오현숙(2013)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행복감이 높을수록 전문성과 성취감 창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한 고경미와 이선경, 심성경(2014)의 연구 또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행복감이 높아질 경우 자신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적극성이 향상되고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개인이 가진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Pannells & Claxton, 2008). 높은 행복감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과 적극성은 개인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그들이 최종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즉, 내적 동기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창의적 성격특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역할수행에 대한 창의적 능력 및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Liu, Pan, Luo, Wang, & Pang, 2017). 또한 행복감이 창의적 성격특성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요약하면, 청소년기 즐거움, 몰입, 삶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면 그들의 창의적 성격특성은 개발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끝으로, 그릿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그릿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한 Singh와 Jha(2008)의 연구와 장기적 목표달성 과정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과 흥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감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김정은과 이수란, 양수진(2018)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그릿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미래지향성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미래지향성이 높은 청소년은 꿈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실현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정익중, 조윤희, 오은찬, 2018). 또한, 높은 내재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삶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의미를 축적시키기 때문에 높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Kleiman, Adams, Kashdan, & Riskind, 2013)에서 행복감의 원인변수로 그릿이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릿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청소년기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기 팬텀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그릿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간 영향력 차이를 검증한 결과, 그릿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텀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팬텀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그릿을 바탕으로 창의적 성격특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팬텀활동이 가진 주요 특성인 자발성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팬텀활동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자발적인 행위 자체에서 흥미 및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보상이 없어도 지속될 수 있다(Burroughs, 2020). 팬텀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가 그릿의 주요 특성인 끈기와 인내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Barnhill, Smith, & Oja, 2021). 또한, 팬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를 활성화시켜 그들의 창의적 사고를 증가시킨다(Harrington, 2018). 즉, 팬텀활동 참여를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강화됨으로써 끈기와 인내력, 내재적 동기가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창의적 성격특성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창의적 사고기능과 자기신념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Denison, 2011). 이처럼, 팬텀활동 참여함으로써 그릿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팬텀활동 참여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팬텀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는데, 팬텀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팬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그릿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팬텀활동 참여를 통한 더 높은 그릿과 창의적 성격특성을 동반하여 두 요인 간 영향력을 증

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팬덤에 대한 관심과 비즈니스에 활용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팬덤활동에 따른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보고자료, 팬덤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을 선정한 후 탐색적 분석을 활용한 질적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을 실증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변인을 탐색하고, 집단에 따른 변인들 간 차이와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영향력 차이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다집단 분석 방법의 경우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전국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 또한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는 자주 활용되지 않은 창의적 성격특성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창의적 성격특성을 높이기 위한 원인 변수로 그릿을 선정하여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릿과 창의적 성격특성의 경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청소년기에 발달시켜야 할 덕목이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릿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창의적 성격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접근으로 그릿을 향상 시킬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차이 검증을 실시할 때,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한 잠재평균분석이 아닌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SPSS 프로그램의 경우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AMOS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잠재평균분석의 경우 잠재변수가 존재할 경우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창의적 성격특성 요인의 경우 단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잠재평균분석 실시를 위해 문항꾸러미화를 시도하였으나, 적합도를 충족시키지 못해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잠재변수로 구성된 요인을 활용하여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변인 별 차이 및 관련 요인들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지만 팬덤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연구 또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에 참여 중인 청소년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관련변인 간 영향력 및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다.

셋째, 본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팬덤활동에 대한 참여유무를 파악한 후, 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팬덤활동의 경우 연예인, 스포츠스타, 기업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참여 종류에 따라 분류한 후 연구를 실시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숙. (1998). 팬덤(Fandom)문화의 생산과 아비투스 - 한국 록키호러픽쳐소 팬클럽 '더블 피쳐스'의 생산활동 분석 -. **언론연구**, 7(1), 91-105.
- 고경미, 이선경, 심성경. (2014). 유아교사의 교수몰입도와 행복감 및 전문성 발달수준과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31(1), 69-94.
- 김경민. (2021). 어머니의 창의성과 청소년의 창의성 관계: 긍정적 양육태도로 조절된 그릿의 매개효과. **창의력교육연구** 21(2), 47-62.
- 김기숙. (2012). **중·고등학교 팬 활동유형과 일상생활 및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 서울지역 거주 학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 (2013). 청소년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167-176.
- 김소리. (2016). **유치원 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과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2018). 팬덤과 페미니즘의 조우: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팬덤 연구의 성과와 쟁점. **언론정보연구**, 55(3), 47-86.
- 김숙미, 구광현, 김보현. (2020). 영유아교사의 인성, 그릿, 창의성 간의 구조적 관계: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20(3), 91-104.
- 김정은, 이수란, 양수진. (2018). 한국형 그릿(Grit) 특성에 대한 고찰-높은 그릿 집단의 다차원적 유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4(2), 131-151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 나종혜, 손승희, 김수정. (2021).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 창의성

- 간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생활과학회** 30(2), 227-239.
- 안은미, 김소희, 전선율, 진성미, 정익중. (2012).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2), 421-446.
- 안은미, 김지선, 전선율, 정익중. (2013).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4(2), 149-175.
- 오윤선, 황인숙. (2020). **청소년 문화론**. 파주: 양서원.
- 오현숙. (2013). **어린이집 교사의 교수몰입 및 행복감에 따른 교사의 교수효능감 및 교수창의성의 차이: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정, 장유나, 홍세희. (2020).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한 청소년의 팬덤 활동 유형 분류 및 학업태도의 차이. **교육연구논총**, 41(4), 91-116.
- 유옥민, 조규판. (2020). 중국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2), 219-245.
- 이영란, 한기순. (2019). 창의적 성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학습전략의 매개 및 조절 효과. **창의력교육연구**, 19(3), 47-66.
- 이정림,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신경. (2015). **한국아동패널2015**.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임효진. (2017). 그릿 (Grit) 과 창의적 성향, 창의적 사고의 구조적 관계. **사고개발**, 13(2), 45-65.
- 장성희. (2010). 부모의 창의적 성격 특성, 가족기능성,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행동 특성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현석. (2020). 디지털 팬덤의 미디어 이용이 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아미(BTS팬덤)의 수평적 동일시 개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종희. (2005). **연예인 팬클럽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정서특성에 관한연구: 가수 '비'의 팬클럽 우박패밀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주연. (2017). 대중문화 속 '아이돌-팬 관계'에 대한참여관찰 연구: 포토보이스의 적용. **마케팅논집**, 25(1), 85-109.
- 정익중, 조윤희, 오은찬. (2018). 빈곤-비빈곤 아동청소년집단별 행복감에 이르는 꿈 관련 변인 탐색: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42, 209-236.
- 정재민. (2010). 청소년 팬덤 현상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1(3), 91-119.
- 조안나, 이은경, 장미경(2016).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40, 201-226.

- 지양슈에진, 살여라, 황하성(2020). 한· 중 BTS 여성 팬덤 비교 연구: 팬덤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21(4), 59-68.
- 최미원, 조현희, 김영아. (2016).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팬덤활동, 공동체 의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4(9), 349-358.
- 최인수, 표정민. (2014).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27-47.
- 한겨레. (2012.4.19). **중학생 ‘자살위험’ 가장 높다 불안감 낮아도 극단적 행동**.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965.html (2012. 04. 19. 인출).
- Al Ganideh, S. F., & Good, L. K. (2015). Cheering for Spanish clubs: Team identification and fandom of foreign soccer clubs (the case of Arab fan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46(4), 348-368.
- Ali, I. (2019). Personality traits, individual innovativen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Journal of Innovation & Knowledge*, 4(1), 38-46.
- Barnhill, C. R., Smith, N. L., & Oja, B. D. (2021). *Motivations of Individuals*. In *Organizational Behavior in Sport Management* (pp. 127-136). Cham: Palgrave Macmillan.
- Bennett, L. (2014). Texting and tweeting at live music concerts: Flow, fandom and connecting with other audiences through mobile phone technology. *Coughing and clapping: Investigating audience experience*, 89-100.
- Burroughs, B. (2020). Statistics and baseball fandom: Sabermetric infrastructure of expertise. *Games and Culture*, 15(3), 248-265.
- Cason, D., Lee, M., Lee, J., Yeo, I. S., & Arner, E. J. (2020). The Impact of Legalization of Sports Gambling: How Motivation, Fandom, and Gender Influence Sport-Related Consum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Communication*, 13(4), 643-654.
- CNC News. (2021.08.22). **소비자를 집중시키는 ‘팬덤 비즈니스’**. <https://www.cncnews.co.kr/mobile/article.html?no=6142> (2021. 8.31. 인출).
- Csikszentmihalyi, M. (1997). *Finding Flow*, NY: Brockman, Inc.
- Denison, R. (2011). Anime fandom and the liminal spaces between fan creativity and pira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4(5), 449-466.
- Duckworth, A. L., Kirby, T. A., Tsukayama, E., Berstein, H., & Ericsson, K.

- A. (2011). Deliberate practice spells success: Why grittier competitors triumph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2), 174-181.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ckworth, A., & Gross, J. J. (2014).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19-325.
- Galang, A. J. R., Castelo, V. L. C., Santos III, L. C., Perlas, C. M. C., & Angeles, M. A. B. (2016). Investigating the prosocial psychopath model of the creative personality: Evidence from traits and psychophysi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0, 28-36.
- Gough, H. G., & Heilbrun, A. B. (1983).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la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Grohman, M. G., Ivcevic, Z., Silvia, P., & Kaufman, S. B. (2017). The role of passion and persistence in creativity.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11(4), 376-385.
- Gutierrez, P. (2012). Beyond obsession: Movie fandom and critical thinking. *Screen Education*, 67, 54-61.
- Harrington, C. L. (2018). Creativity and ageing in fandom. *Celebrity Studies*, 9(2), 231-243.
- Hau, K. T., & Marsh, H. W. (2004). The use of item parcel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Non-normal data and small sample siz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57(2), 327-351.
- Hodge, D. R., Hong, P. Y. P., & Choi, S. (2019). Spirituality, Employment Hope, and Grit: Modeling the Relationship among Underemployed Urban African Americans. *Social Work Research*, 43(1), 43-52.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Jenkins, H. (2012). *Textual poachers: Television fans and participatory culture*. London: Routledge.

- Jiang, W., Jiang, J., Du, X., Gu, D., Sun, Y., & Zhang, Y. (2020). Striving and happiness: Between-and within-person-level associations among grit, needs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5*(4), 543-555.
- Kleiman, E. M., Adams, L. M., Kashdan, T. B., & Riskind, J. H. (2013). Gratitude and grit indirectly reduce risk of suicidal ideations by enhancing meaning in life: Evidence for a mediated moderation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7*(5), 539-546.
- Lieser, M. (2017). *“My life is Taiyō Kōmute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ed football fandom and happiness in Japan*. In Happiness and the Good Life in Japan (pp. 195-210). London: Routledge.
- Liu, W., Pan, Y., Luo, X., Wang, L., & Pang, W. (2017). Active procrastination and creative ideation: The mediating role of creative self-effic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9*, 227-229.
- Lynch, K. S. (2020). *Fans as transcultural gatekeepers: The hierarchy of BT S’Anglophone Reddit fandom and the digital East-West media flow*. New media & society, 1461444820962109. <https://doi.org/10.1177/1461444820962109>.
- MA, N. (2019). **온라인 팬덤활동의 참여정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Mitchell, T. (2001). Memorializing Dusty Springfield: Millennial Mourning, Whiteness, Fandom, and the Seductive Voice. *Topia: Canadi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6*, 83-97.
- Muenks, K., Yang, J. S., & Wigfield, A. (2018). Associations between grit,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high school students. *Motivation Science, 4*(2), 158-176.
- Myers, C. A., Wang, C., Black, J. M., Bugescu, N., & Hoeft, F. (2016). The matter of motivation: Striatal resting-state connectivity is dissociable between grit and growth mindset.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1*(10), 1521-1527.
- Pannells, T. C., & Claxton, A. F. (2008). Happiness, creative ideation, and locus of control.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0*(1), 67-71.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03-619.

- Pitts, C., Anderson, R., & Haney, M. (2018). Measures of instruction for creative engagement: Making metacognition, modeling and creative thinking visible. *Learning Environments Research*, 21(1), 43-59.
- Reysen, S., & Branscombe, N. R. (2010). Fanship and fandom: Comparisons between sport and non-sport fans. *Journal of Sport Behavior*, 33(2), 176-193.
-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 (2014).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In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pp. 279-298). Dordrecht: Springer.
- Seligman, M. E.,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 Simone, A. (2016). *Madonnaland: And Other Detours into Fame and Fandom*.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 Singh, K., & Jha, S. D. (200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grit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4(2), 40-45.
- Sternberg, R. J. (2012). The assessment of creativity: An investment-based approach.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4(1), 3-12.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6). Investing in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1(7), 677-688.
- Tang, X., Wang, M. T., Guo, J., & Salmela-Aro, K. (2019). Building grit: The longitudinal pathways between mindset, commitment, grit, and academic outcom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5), 850-863.

Abstract

Structural Analysis of Adolescence Grit, Happiness, and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Fandom Activities

Minkyu Cho and Choonkyu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dolescent grit and happiness on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influenc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participate in fandom activities.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KCYPS(2018)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For analysis of the collected results, SPSS 18.0 and AMOS 18.0 programs were used, and significance was verified at the .05 lev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it, happiness, and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participation in fandom activities. That is, the group that participated in fandom activities showed higher average values in grit, happiness, and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an the group that did not participate in fandom activitie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grit on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participated in fandom activities.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group that participated in fandom activities had a higher influence on the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grit compared to the group that did not participate in fandom activities.

Key word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CYPS 2018, Grit, Happiness,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간 구조분석’에 대한 토론문

연보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그릿, 행복감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이러한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청소년 팬덤(fandom)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있었습니다. 기존 청소년기 팬덤활동에 대한 논의는 일방적 추종으로서 학교부적응, 일탈 등의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미치는 팬덤활동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 사회적 관계, 학교생활적응, 삶의만족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팬덤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팬덤활동이 미래 핵심역량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그릿(grit)과 창의성 함양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본 연구는 그릿과 행복감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팬덤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창의성에 미치는 다면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의 수정 및 보완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영향력 차이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간의 구조적 관계에 팬덤활동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여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문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기존 연구와도 차별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집단분석을 수행하게 된 연구배경이나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청소년이 팬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여러 긍정적 측면은 언급되고 있으나, 팬덤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팬덤활동 참여가 그릿이 창의적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향상시키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충분하게 해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결론의 해석에서 언급한 Denison(2011)의 연구결과는 팬덤활동 참여가 끈기 인내력, 내재적 동기를 향상하고 이것이 창의적 사고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는 팬덤활동이 그릿을 통해 창의적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팬덤활동 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은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연구 전반적으로 조절변인으로서 팬덤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팬덤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그릿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선행연구와 결론의 논의에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으나, 구조방정식 모형과는 별도로 t검증의 결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측정오차 통제 등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점을 고려하여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뿐 아니라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은 다양한 개인 및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제변인을 추가로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그릿,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으로 투입된 측정변인이 각각의 요인점수로 투입되었는데, 측정문항이 아닌 요인점수로 투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다집단분석에서 경로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 이전에 그릿과 행복감, 창의적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모형이 팬덤활동 여부에 따른 집단 간 형태가 동일한지(configural invariance),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검증 결과가 누락되어 있어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학생의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관계 연구

한수정*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YCPS) 2018, 3차 중학생 데이터 2,38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남녀중학생 630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 연구모형의 참여만족도에서 협동의식 변인, 협동의식에서 자아존중감 변인, 자아존중감에서 삶의 만족 변인에 이르는 경로는 각각 정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만족도에서 삶의 만족 변인 간에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 변인은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이 인식하는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자아존중감, 협동의식, 삶의 만족 변인 간의 인과관계와 매개요인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더 나은 삶의 만족을 위한 실천적 방법의 제고 마련과 정보 및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중학생,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외래교수, aspray2000@hanmail.net

I. 서론

최근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에 관한 사회적 이슈는 다양한 연구의 관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질적인 활동 및 시간은 삶의 만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고관우, 남진열, 2011)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할 수행과 함께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경험을 확장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Diener(2000)에 의하면 행복은 긍정적인 정서와 삶의 만족을 토대로 한다. 청소년의 체험활동은 청소년활동의 하나로 활동에 참여해 배움을 실천하는 것으로써(황진구, 허효주, 2014),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여러 연구(김남정, 임영식, 2012; 이은택, 곽현, 이은경, 2016; Lewis, et. al., 2011)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우 및 교사관계, 자아존중감 등이 보고된 바 있다(정윤희, 봉초운, 홍세희, 2018).

청소년의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Lewis, et. al., 2011), 문화·예술, 스포츠, 봉사활동, 과학·정보, 모험·개척, 환경보호, 직업능력, 교류, 문화강좌수강, 청소년 단체 활동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하고 삶의 만족감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정, 임영식, 2012). 또한,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게 하며,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음(류시영, 강방훈, 2012)이 보고되었다. 한편, 문화예술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하미경, 윤동열, 2013)에서는 문화예술학습활동의 체험학습활동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예술적인 감수성을 발견할 수 있고, 향유 능력을 향상하는 활동으로서 이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문화예술학습활동 참여도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효과성을 나타냈음을 밝힌 바 있다.

공동체의식은 집단의 소속감, 헌신 등을 의미하며(고관우, 남진열, 2011), 청소년의 협동 역량 함양과 관련해 그룹활동에서 주변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고 집단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개인의 내적 역량 함양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력 및 자질을 향상하여 미래사회를 위한 팔로워십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신이 개인의 삶을 관리, 보호하는 역량 개발과 청소년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과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역량은 개인의 발전과 함께 필요하며, 이러한 역량은 집단의 발전,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성은모 외, 2015).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로 개인적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자아존중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 개인은 심리적·정서적인 문제를 겪기 쉽다(Coopersmith, 1967).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며, 자신감에 있어 문제해결능력도 높아 자아존중감과 개인적응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임선희, 명재신, 2016), 개인의 성장 및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영향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박우람, 2015). 이와 관련해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장승옥, 한선혁, 2004)에서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참여는 일반적·사회적·학교 차원의 자아존중감에서 모두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문화활동은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청소년이 주도하여 참여하는 활동 중 자아존중감과 관계성이 높은 문화활동을 우선 제공하도록 하고 문화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봉사활동은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참여 경험으로 성인기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발달에 도움을 주며,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허정철, 2005). 청소년의 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지혜, 2012)에서는 봉사활동 참여 시간과 봉사활동 만족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중학생의 삶의 만족에 있어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변인들에 관한 효과성과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학생들의 삶의 만족을 향상하는 중요한 해결방안과 관련 정보 및 이론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들(고관우, 남진열, 2011; 김지혜, 2012; 류시영, 강방훈, 2012; 이윤택, 광현, 이은경, 2016; 허정운, 이봉민, 2017; 이경혜, 김혜인, 2018; 정윤희, 봉초운, 홍세희, 2018)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자의 방법 적용 및 연구의 결과 차이가 상이하며, 최근 양질의 청소년 체험활동 연구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양적 부분과 만족도를 고려한 질적 부분의 중요성에 대한 규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체험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와 체험활동 참여만족도를 구분하여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중학생 시기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체험활동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매개요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영역 중 중학생이 인식하는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삶의 만족에 효과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체험활동 참여만족도로 구분하여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

감, 삶의 만족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해보고, 체험활동 및 참여만족도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의 2018, 3차 중학생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더 나은 삶의 만족을 위한 실천적 방법의 제고 마련과 정보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삶에 관한 인지적·정서적인 평가로서(Schalock & Felce, 2004), 일상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고 긍정적 태도와 감정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Shin & Johnson, 1978).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삶에 관한 개인의 기준, 지각하는 삶의 차이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Valois, et. al., 2004), 개인의 내적·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변화하는 개인의 삶에 관한 안녕감으로서 다양한 변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다차원성을 지닌 변인이다(조형정, 윤지영, 2015).

특히, 청소년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의 관계로부터 친구 및 학교와의 사회적인 관계로 집중하게 되는 시기로서(성은모 외, 2015), 청소년의 삶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특성과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과 관련해 체험활동은 청소년 스스로에게 통제권이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났음(김남정, 임영식, 2012; 이은택, 박현, 이은경, 2016; Lewis, et. al., 2011)이 보고되었다. 즉, 청소년의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wis, et. al., 2011), 문화·예술, 스포츠, 봉사활동, 과학·정보, 모험·개척, 환경보호, 직업능력, 교류, 문화강좌수강, 청소년 단체활동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하며, 삶의 만족감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정, 임영식, 2012). 그리고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게 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연구(류시영, 강방훈, 2012)도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체험활동은 문화예술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예술학습활동 참여는 개인의 육체적·심리적인 안녕감 증진에 효과성이 있으며, 자본 축적 및 공동체의 목표달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효과를 나타낸다(Guetzkow, 2002). 또한, 문화예술참여활동은 사회 전반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부분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McCarthy, 2002). 문화예술스포츠교육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연

구(한수정, 2017)에서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공동체를 육성하여 학습자의 감수성 및 창의성의 발현을 도와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관해 이해하도록 하고, 공동체의식과 소통이 확대되어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하미경, 윤동열, 2013)에서 문화예술학습활동 참여도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영향이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문화예술학습활동과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개방성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은 자아실현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을 의식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주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Cohn, 2008).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헌신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느끼고(Debats, Drost & Hansen, 1995),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으며(김윤나, 박옥식, 2009),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허성호, 정태연, 2010). 한편, 자원봉사활동 및 수련활동은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였을 때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낸 연구(박재숙, 2010)도 있었다. 이에 문화예술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변인과 유의한 효과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의 기존 연구(고관우, 남진열, 2011; 이경혜, 김혜인, 2018)에 따르면,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교에 더 잘 적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학교 변인에 관한 연구(박진화, 2017)에서는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6년 7차년도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이용택, 오승근, 2019)에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는 공동체의식 및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체험활동 참여 시간 등의 양적 부분보다 체험활동 만족도가 학교적응뿐만 아니라 모든 요인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체험활동 참여 시간보다 체험활동의 만족도가 높을 때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학교적응에도 영향력을 나타내어 체험활동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류시영, 강방훈, 2012)에서는 체험활동 만족이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게 하며,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 및 참여 수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이용택, 박현, 이은경, 2016)의 결과에서는 청소년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시간보다는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다. 즉,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활동에 만족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하는 활동

을 통해 협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되어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고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협동학습 및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허정운, 이봉민, 2017)에서 학습자는 협동적인 학습을 통해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이나 관계의 향상, 심리적인 건강 측면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인관계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연구(손경숙, 2017)에서 협동능력은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인지 및 학교생활의 전반에서 중요한 요인으로서 타인과 공존하여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신 건강과 사회성 발달, 동료의 관점 채택 능력, 그리고 자존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협동의식은 여러 연구(김창환 외, 2013; OECD, 2003)에서 대인관계와 상호작용 역량의 하위요인으로 그룹 내 타인과의 협력 및 협동으로 상호작용하여 그룹 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 및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협동의식의 발달은 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Constantinescu, 2015), 협동의식은 협력적인 문제해결학습과 관련된 청소년의 활동에서 요구되는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협동의식은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집단촉진은 타인을 격려하고 도와주며,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으로서 구성원의 장점 및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를 돕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즉,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을 독려하고 역할과 맡은 바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성은모, 최창욱, 2014). 팔로워십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정에서 리더를 지지하고, 집단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써, Kelley(1992)는 팔로워의 성과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독립적·비판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갈등문제해결은 자신과 타인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갈등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협동하는 행동 및 방안(성은모 외, 2013; 손경숙, 2017)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어떤 집단이나 조직,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상호의존성, 상호헌신 등을 의미하며(고관우, 남진열, 2011), 청소년활동 만족도와 학교적응 사이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주계순, 권일남, 2018)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으로 얻은 만족감이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는 연속적 과정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체험활동의 참여시간은 공동체의식에 영향력을 나타냈으며(이정민, 정혜원, 2017), 그 외 선행연구(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2018)에서는 이러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활동 공동체가 조직되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지

원 기반을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가에 관한 정도를 의미하며(Rosenberg, 1979), 자신이 형성하여 습관적으로 지속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적인 비교, 자기 귀속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Rosenberg, 1986).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며(Arseneault, 2017), 개인의 기술 및 능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 소속감에 관한 인식과도 관련된다(Tajfel, 1982).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Tan, et. al., 2017), 자기 자신을 집단의 한 부분으로 느끼는 소속감, 어떤 일을 성취했거나 실패했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 대한 능력감, 자신이 집단 내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가치감이 상호적 연계로 나타나므로(Felker, 1974)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등을 포함하는 협동의식과 연관성이 있으며, 의미 있는 효과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판단 및 능력에 자신감이 있고, 집단 내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집단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판단 및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Coopersmith, 1967) 집단 내 적극적인 행동과 함께하는 과제의 수행 협업 역량 증진을 위해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관련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지혜, 2012)에서 봉사활동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정적효과를 나타냈으며, 이와 동시에 두 변인을 매개로 하여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협업능력과 관련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 1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전자배, 2019)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동아리활동과 협업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세밀한 방안 모색을 주장하였으며,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는 교수학습 진행 등 협력적인 학급 공동체 형성을 통해 학생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공동의 성과를 위해 기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참여만족도를 중심으로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 변인에 주목하여 중학생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에 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체험활동 및 참여만족도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YCPS) 2018, 3차 중학생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2018년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다단계화집락표집 방식(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추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2,38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체험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인의 결측치를 제외한 후 최종 분석 대상자는 남녀 중학생 630명으로서 남학생은 50.8%(320명), 여학생은 49.2%(310명)이다.

2. 측정도구

1) 체험활동 및 참여만족도

체험활동 변인은 청소년의 활동 영역에서 9개의 유형별 참여 횟수를 조사한 문항 중 문화예술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영역에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 경험이 없는 대상은 제외하였다. 체험활동과 관련된 문항은 체험활동 참여 경험 유무, 체험활동 참여 횟수, 체험활동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항의 내용은 연간 참여 횟수 정도를 묻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측정 점수는 1~2회는 1점, 3~4회는 2점, 5회 이상은 3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2개 활동 영역의 문항은 각 평균으로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참여만족도는 참여한 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1점~'매우 만족한다'의 4점 리커르트 척도 구성이다. 참여만족도에서도 두 활동 영역의 활동 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체험활동 및 참여만족도의 점수가 높으면 활동 참여 횟수가 많고, 참여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협동의식

협동의식은 학생이 인식하는 협동심 정도를 묻는 것으로써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 측정되었다. 측정 문항은 집단축진(6문항), 팔로워십(3문항), 갈등문제해결(5문항)

등 모두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 구성이며, 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집단축진의 Cronbach’s α 계수는 .875, 팔로워십은 .767, 갈등문제해결은 .858, 그리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26이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학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묻는 것으로써 Rosenberg(1965)의 도구를 바탕으로 한 총 10개의 문항 구성이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5문항(2, 5, 6, 8, 9)은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 구성으로써 측정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 계수는 .836,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 계수는 .78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63이었다.

4) 삶의 만족

삶의 만족감 정도를 측정하는 삶의 만족 변인은 학생이 자신의 삶에 관해 인식하는 내용을 대변하는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의 내용으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측정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 구성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 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전체 5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839이었다.

표 1. 연구에 사용된 구성 변인

영역	요인	구성 변인	신뢰도
체험활동	문화예술 및 자원봉사활동	· 문화예술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연간 횟수 정도(2문항)	[합산]
참여만족도	만족도	· 문화예술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만족 정도(2문항)	[합산]
협동의식	집단축진	·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합산] Cronbach’s α 계수 .875

영역	요인	구성 변인	신뢰도
	팔로워십	·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6문항)	[합산] Cronbach's α 계수 .767
		·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3문항)	
	갈등문제 해결	·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5문항)	[합산] Cronbach's α 계수 .858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5문항)	[합산] Cronbach's α 계수 .836
	부정적 자아존중감	·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5문항)	[역산] (2, 5, 6, 8, 9) [합산] Cronbach's α 계수 .786
삶의 만족	이상적·상황적·개인적·성취 및 자신의 만족감	·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5문항)	Cronbach's α 계수 .839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YCPS) 데이터 중 중학생이 인식하는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과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중학생의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을 반영하는 변수를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 및 기존 문헌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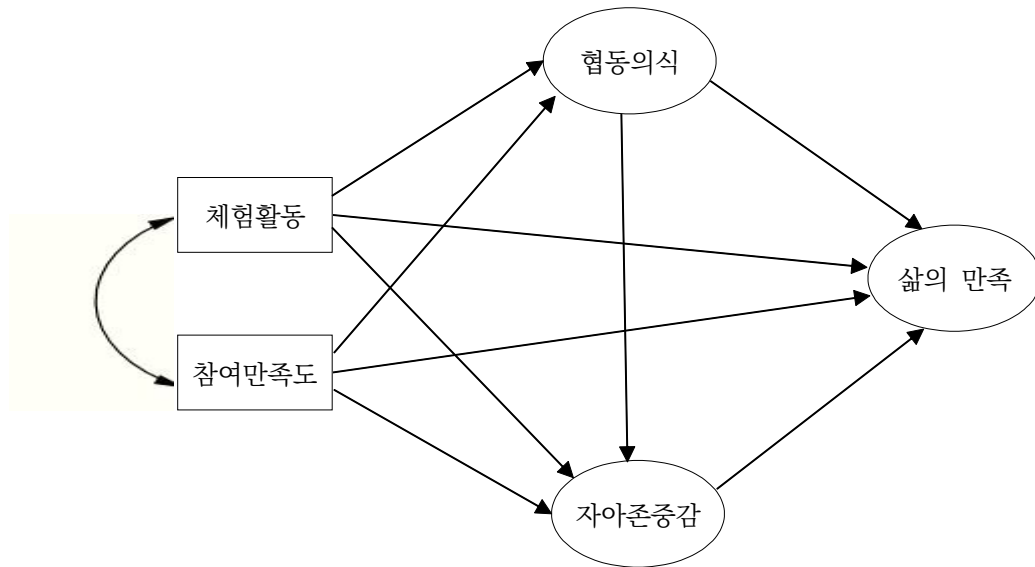


그림 1. 중학생의 삶의 만족 연구모형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표본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과의 인과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23.0 program과 AMOS 23.0 progra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χ^2 값과 TLI(Tucker and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χ^2 통계량은 표본 수에 민감하여 표본 크기가 큰 경우에 속할 수 있어 TLI, CFI, NFI, RMSEA 등의 지수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에서 TLI, CFI, NFI는 .90 이상일 때 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Hu & Bentler, 1999), RMSEA는 .08 이하일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개인특성배경

본 연구대상의 개인특성배경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비율은 남학생은 320명의 50.8%, 여학생은 310명의 49.2%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들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의 응답이 358명의 56.8%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 정도는 ‘보통이다’의 응답이 211명의 3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제시한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개인특성배경

(N=630)

		빈도(%)
성별	남학생	320(50.8)
	여학생	310(49.2)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않다	4(.6)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55(8.7)
	건강한 편이다	358(56.8)
	매우 건강하다	213(33.8)
학업성취만족	매우 불만족한다	28(4.4)
	불만족한다	112(17.8)
	보통이다	211(33.5)
	만족한다	194(30.8)
	매우 만족한다	78(12.4)
	잘 모르겠다	7(1.1)
전체		630(100.0)

2.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주요 변인 자료의 결측치를 제외한 총 630명의 남녀 중학생 응답 자료이며, 연구에서 사용된 중학생 자료의 구성 변인과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의 기술통계값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모든 변인은 단변량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모든 변인의 왜도에 관한 절댓값은 2를 넘지 않고 첨도에 관한 절댓값은 7을 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Curan, West & Finch, 1996).

표 3. 분석에 활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체험활동	1.00	3.00	1.62	.59	.67	-.40
참여만족도	1.00	4.00	3.19	.44	-.07	1.19
협동의식	1.14	4.00	3.03	.46	-.20	1.22
자아존중감	1.20	4.00	2.97	.47	.00	-.12
삶의 만족	1.00	4.00	2.66	.57	-.09	.30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는 다음 제시한 <표 4>의 내용과 같다. 투입된 측정 변인 간 상관계수는 체험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 변인 간 일부를 제외하고, $p < .05$,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 인	A	B	C	D	E
A	1.000	-	-	-	-
B	.264**	1.000	-	-	-
C	.095*	.213**	1.000	-	-
D	.060	.136**	.417**	1.000	-
E	-.010	.131**	.333**	.615**	1.000

체험활동(A), 참여만족도(B), 협동의식(C), 자아존중감(D), 삶의 만족(E)

* $p < .05$, ** $p < .01$

3. 연구모형 적합도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변인 간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연구모형의 평가지수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Chi-square 적합도는 $\chi^2 / df = 2.550$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NFI(표준합치도지수), CFI(비교적합지수), TLI(비표준적합지수) 값에 관해 양호한 모형평가 유의수준을 .9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NFI는 .962, CFI는 .977, TLI는 .966으로 양호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균제곱 잔차제곱근인 RMSEA 값은 유의수준을 .08을 기준으로 할 때, 그 값은

.05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5. 삶의 만족 연구모형 적합도

모형	χ^2 / df	P	NFI	CFI	TLI	RMSEA
삶의 만족	2.550	.00	.962	.977	.966	.05

4.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관계 분석

다음의 [그림 2]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 연구모형의 추정결과를 표준화값으로 제시한 것이다.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변인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학생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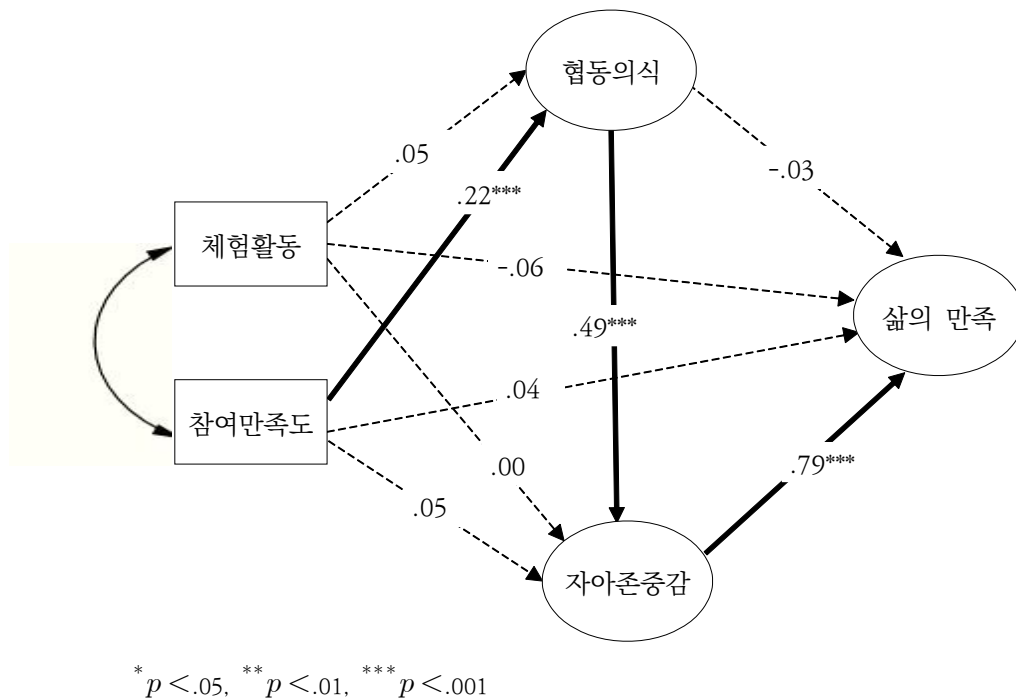


그림 2. 중학생의 삶의 만족 연구모형 추정결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 연구모형의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험활동에서 협

동의식 변인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050, C.R=.1.153), 체험활동에서 자아존중감 변인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001, C.R=.027), 체험활동에서 삶의 만족 변인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065, C.R=-1.938)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만족도에서 협동의식 변인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222, C.R=5.105, $p < .001$)는 유의한 효과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참여만족도에서 자아존중감 변인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050, C.R=1.205), 참여만족도에서 삶의 만족 변인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037, C.R=1.078)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협동의식에서 자아존중감 변인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488, C.R=9.077, $p < .001$)는 유의한 효과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의식에서 삶의 만족 변인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033, C.R=-.705)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에서 삶의 만족 변인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789, C.R=11.657, $p < .001$)는 유의한 효과성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참여만족도에서 협동의식 변인 간, 협동의식에서 자아존중감 변인 간, 그리고 자아존중감에서 삶의 만족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효과의 정적관계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의 <표 6>은 중학생의 삶의 만족 연구모형에 관한 추정결과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표 6. 삶의 만족 연구모형 추정결과

(N=630)

경로	삶의 만족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체험활동 → 협동의식	.036	.050	.031	1.153
체험활동 → 자아존중감	.001	.001	.024	.027
체험활동 → 삶의 만족	-.053	-.065	.027	-1.938
참여만족도 → 협동의식	.218	.222	.043	5.105***
참여만족도 → 자아존중감	.040	.050	.033	1.205
참여만족도 → 삶의 만족	.041	.037	.038	1.078
협동의식 → 자아존중감	.397	.488	.044	9.077***
협동의식 → 삶의 만족	-.037	-.033	.052	-.705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	1.079	.789	.093	11.657***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의 <표 7>에서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Bootstrapping 방법(Bias-Corrected Percentile)을 사용하여 경로계수의 추정값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중학생의 삶의 만족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참여만족도에서 협동의식 변인, 협동의식에서 자아존중감 변인, 자아존중감에서 삶의 만족 변인에 이르는 경로는 각각 정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체험활동에서 협동의식 변인, 체험활동에서 자아존중감 변인, 체험활동에서 삶의 만족 변인, 참여만족도에서 자아존중감 변인, 참여만족도에서 삶의 만족 변인, 협동의식에서 삶의 만족 변인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효과의 분석결과에서는 참여만족도에서 협동의식 변인 간의 전체효과는 .222, 참여만족도에서 자아존중감 변인 간은 .158(직접효과 .050, 간접효과 .108), 참여만족도에서 삶의 만족 변인 간은 .154(직접효과 .037, 간접효과 .117), 협동의식에서 자아존중감 변인 간은 .488, 협동의식에서 삶의 만족 변인 간은 .352(직접효과 -.033, 간접효과 .385), 자아존중감에서 삶의 만족 변인 간은 .789로서 각각의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영향력이 나타났다. 한편, 체험활동에서 협동의식 변인 간의 전체효과는 .050, 체험활동에서 자아존중감 변인 간은 .025, 체험활동에서 삶의 만족 변인 간은 -.047이었으며,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만족도에서 자아존중감 변인 간, 참여만족도에서 삶의 만족 변인 간, 협동의식에서 삶의 만족 변인 간은 모두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표 7.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치

(N=630)

삶의 만족				
변인	효과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체험활동	체험활동 → 협동의식	.050	-	.050
	체험활동 → 자아존중감	.001	.024	.025
	체험활동 → 삶의 만족	-.065	.018	-.047
참여만족도	참여만족도 → 협동의식	.222**	-	.222**
	참여만족도 → 자아존중감	.050	.108**	.158**
	참여만족도 → 삶의 만족	.037	.117**	.154**
협동의식	협동의식 → 자아존중감	.488**	-	.488**
	협동의식 → 삶의 만족	-.033	.385**	.35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	.789**	-	.789**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 2018, 3차 중학생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생들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삶의 만족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함의 및 결과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가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결과, 체험활동에서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변인에 이르는 각각의 경로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연구의 결과에서 중학생의 체험활동의 횟수가 많을수록,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시간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정민, 정혜원, 2017),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유의하며(황수영, 2019),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삶의 만족감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남정, 임영식, 2012), 그리고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난 연구(김윤나, 박옥식, 2009), 체험활동과 삶의 만족 사이에서 정적관계의 효과성을 보고한 연구(류시영, 강방훈, 2012)의 결과와는 다른 차이를 보였다. 이에 체험활동의 시간보다는 개인의 만족도가 더 유의하다는 기존 연구들(이용택, 광현, 이은경, 2016; Lewis, et al., 2011)의 견해를 고려하여 체험활동 영역의 유형, 연간 참여 횟수, 주관적인 만족도 등과 관련된 측정도구의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험활동 변인은 여러 체험활동 영역 중 문화예술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등 일부 활동영역을 중점으로 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양한 성격의 체험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다차원적인 분석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관해 좀 더 면밀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만족도가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결과, 참여만족도에서 협동의식 변인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나, 참여만족도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 변인에 이르는 각각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만족도에 대한 효과성이 학생들의 협동의식을 향상하게 하며, 영향력이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체험활동 만족도는 공동체의식 및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체험활동 참여 시간 등 양적 부분보다 체험활동 만족도가 모든 요인에 있어 중요함을 강조한 연구(이용택, 오승근, 2019)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활동 만족도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의 정

적 관계성을 보고한 연구(류시영, 강방훈, 2012),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의 양보다 체험활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삶의 만족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응택, 곽현, 이은경, 2016),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Lewis et al., 2011)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삶의 만족감에 기여하는 체험활동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함에 있어 체험활동과 관계된 여타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투입하도록 하고, 다각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협동의식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결과, 협동의식이 자아존중감 변인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나, 협동의식에서 삶의 만족 변인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에서 삶의 만족 변인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협업능력과 관련해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활동과 협업능력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전자배, 2019)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동의식의 효과적인 향상과 개인적인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하여 학생들의 삶의 만족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은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학습될 수 있다. 청소년의 체험활동은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하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상황 및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교육실습 및 여건에 따른 참여 환경을 개선하여 상호적 소통능력과 협력적 대인관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참여 효과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타인의 평가와 자신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인정과 칭찬, 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참여만족도가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결과, 참여만족도에서 자아존중감 변인 간, 참여만족도에서 삶의 만족 변인 간, 그리고 협동의식에서 삶의 만족 변인 간은 모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만족도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봉사활동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정적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두 변인을 매개로 하여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음을 보고한 연구(김지혜, 2012),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으로 얻은 만족감은 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는 학교적응에의 연속적 과정이라고 보고한 연구(주계순, 권일남, 2018)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체험활동을 통한 외적 자산이 학생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만족감이 부여되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깊이 탐색하여 가치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협업능력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을 향상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의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증진을 위해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을 함양할 수 있는 교우들과의 상호적 협동활동과 자기계발 및 자아탐색을 연계하는 활동프로그램을 운영, 확장하여 진행해 볼 것을 권면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관련 주요 변인으로 체험활동의 참여 횟수 정도보다는 체험활동의 참여만족감 정도, 그리고 이와 연계된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변인 역할이 긍정적인 효과성을 보이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함에 있어 협력심과 자아존중감 관련 자원들이 중요한 변인임을 함의한다. 즉, 중학생의 삶의 만족에는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만족감을 부여하는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프로그램의 지원과 실천적·제도적 개선을 제안한다. 그리고 학생 개인의 특성과 체험활동에서의 요구, 가정 및 학교 배경이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체험활동의 참여만족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했을 때만 유의한 효과성이 있었으므로 삶의 만족 제고에 있어 학생이 인식하는 체험활동 변인의 횟수, 시간 등 양적 부분에 대한 반복적 검증과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학생들의 가정 및 학교에서의 관계,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증진과 함께 더 나은 삶의 만족을 위해 대인관계 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력, 사회적·정서적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며, 학생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내적 자산의 형성을 도와 학생이 속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성숙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동체활동의 구성 및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중점으로 하였으므로 체험활동을 담당하는 실천 현장의 교육기관과 지역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요구되며, 학습공동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 학습활동의 인식도를 확장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적성에 적합한 배치 및 활동으로 다양한 학습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국내외 우수 체험활동 사례들을 교육 현장의 대상에게 적절히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활동영역에서의 특수성과 교육활동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확보 및 인력 풀의 구축으로 효율성 있는 교육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업 및 입시 준비에 따른 경쟁적 환경과 스트레스 속에서 학생들의 정서 완화와 심리적인 갈등문제 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교육의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지지되어야 한다. 단순한 참여 위주의 체험활동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학습과정과 평가, 사후관리를 통해 참여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고, 양적·질적 부분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방법을 통해 중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체험활동 참여만족도는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 변인을 통해 중학생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음을 검증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삶의 만족에 효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한 실천적 방법의 제고 마련과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데이터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에 대한 차이와 성별에서의 차이 등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개인 및 가족변인 특성, 심리적 요인, 가정배경 및 학교생활 만족 등 다양한 측정변인과 체험활동영역의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YCPS) 2018, 3차 자료만을 활용하였으므로 차후 삶의 만족과 관련된 패널 데이터의 적용에서 주요 변인 및 매개변인의 변화궤적과 상호적·중단적 관계 분석 등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응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김남정, 임영식. (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 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윤나, 박옥식. (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79-99.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창환, 엄문영, 박현정, 노지윤, 김기현, 이광현, 박레아, 김종민, 이상돈, 박소연, 박종효, 황혜정. (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I):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RR2013-2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시영, 강방훈. (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아시아태평양잼버리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4), 27-50.
- 박우람.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3), 237-257.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진화. (2017).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활동연구**, 3(1), 29-50.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연구보고 11-R5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최창욱. (201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13-R50)**. 서울: 여성가족부.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117-144.
- 손경숙. (2017).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4(1), 1-27.
- 이경혜, 김혜인. (2018).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가 사회공동체성,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25(9), 179-202.
- 이정민, 정혜원.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변화와 체험활동의 시간효과. **중등교육연구**, 65(3), 573-599.
- 이용택, 오승근. (2019).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용택, 곽현, 이은경. (2016). 청소년의 체험활동만족 및 참여수준과 삶의 만족에 대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23(2), 345-370.
- 임선희, 명재신. (2016).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2), 327-347.
- 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V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연구보고 18-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춘옥, 박갑준, 김승환. (2015). 중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2), 109-126.
- 장승옥, 한선혁. (2004). 청소년 문화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칠곡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11(1), 193-217.
- 조형정, 윤지영. (2015). 초등 고학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4(1), 167-197.
- 주계순, 권일남. (2018).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4(2), 1-25.

- 전자배. (2019).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협업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윤희, 봉초운, 홍세희. (201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5(1), 181-210.
- 최경옥. (2017).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3), 231-261.
-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9(1), 23-45.
- 하미경, 윤동렬. (2013). 문화예술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및 개방성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0(5), 157-177.
- 한수정. (2017). 평생교육 맥락에서 본 성인학습자의 문화예술스포츠교육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5), 295-312.
- 허성호, 정태연. (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58, 143-164.
- 허정윤, 이봉민. (2017). 협동학습에서 청소년이 인지한 긍정적 상호의존성에 따른 공동체의식 차이. **청소년문화포럼**, 50, 113-141.
- 허정철. (2005).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71(1), 19-40.
- 황수영. (2019). **청소년의 체육활동과 체험활동이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seneault, L. (2017). The long-term impact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mental health. *World Psychiatry*, 16(1), 27-28.
- Cohn, S. (2008). Making objective facts from intimate relations: the case of neuroscience and its entanglements with volunteers.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21(4), 86-103.
- Constantinescu, L. A. (2008). *Efficient management of cooperative banks in a modern Romania, the European*, Ed. Lux Libris, Brasov.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F: W. H. Freeman.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bats, D. L., Drost, J., & Hansen, P. (1995). Experiences of meaning in life: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British*

- Journal of Psychology*, 86, 359-375.
- Felker, D. W. (1974). *Building Positive Self-concepts. Helping Children to Like Themselves*.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elley, R. E. (1992). *The power of followership: How to create leaders people want to follow, and followers who lead themselves*. Broadway Business.
- Lewis, A. D., Huebner, E. S., Malone, P. S., & Valois, R. F. (2011). Life satisfaction and student engage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3), 249-262.
- OECD. (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Paris: OECD Publishing.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chalock, R. L., & Felce, D. (2004). Quality of life and subjective well-being: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International Handbook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61-279.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1-4), 475-492.
- Tajfel, H. (1982). Social-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n, V., Quoquab, F., Ahmad, F. S., & Mohammad, J. (2017). Mediating effects of students' social bonds between self-esteem and customer citizenship behaviour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university branch campuses.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29(2), 305-329.
- Valois, R. S., Zullig, K. J., Huebner, E. S., & Drane, J. W. (2004). Life satisfaction and suicide among high school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81-105.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학교 급에 따른 차이’에 대한 토론문

민경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중학생이 지각하는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협동의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생이 인식하는 체험활동, 참여만족도, 자아존중감, 협동의식, 삶의 만족 변인 간의 인과관계와 매개요인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더 나은 삶의 만족을 위한 실천적 방법을 제고 하는데 정보 및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가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체험활동의 횟수가 많을수록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효과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차이를 보였다. 이점에서 체험활동 영역의 유형, 연간 참여 횟수, 주관적인 만족도 등과 관련된 측정도구의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만족도가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만족도가 학생들의 협동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체험활동 참여 시간과 같은 양적 부분보다는 체험활동 만족도가 모든 요인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셋째, 협동의식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협동의식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나,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동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적인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 삶의 만족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타인의 평가와 자신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인정과 칭찬, 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삶의 만족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참여만족도가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만족도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그리고 협동의식이 삶의 만족에 모두 유의미한 간접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만족도와 삶의 만족에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매우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의 체험활동 참여와 참여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협동의식과 자아존중감을 함양할 수 있는 교우들과의 상호적 협동 활동과 자기계발 및 자아탐색을 연계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체험활동 변인은 여러 체험활동 영역 중 문화예술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등 일부의 활동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음의 후속 연구는 다양한 성격의 체험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관해 보다 더 면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Session 1

제2주제

부모/양육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그릿과 자존감의 종단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에 따른 차이

임효진*, 이소라+**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의 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그릿과 자존감의 종단 관계 및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무선절편 교차지연 패널모형(RI-CLPM)을 사용하여 잠재특성의 개인 내 변화와 개인 간 차이를 구분한 뒤 경로계수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모형에서 모두 무선절편 요인을 추가한 것이 더 좋은 모형으로 나타나, 특성의 개인 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흥미유지와 자존감, 노력지속과 자존감의 무선절편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개인 간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 내 변화를 살펴본 결과 흥미유지, 노력지속, 자존감 모두 이전 시점 변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 변인의 수준 또한 높았다. 셋째, 초등학교급에서는 자존감→노력지속의 일방향 교차지연 효과가, 중학교 급에서는 이에 더하여 자존감↔흥미유지의 양방향 교차지연 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양육태도가 그릿의 흥미유지, 노력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시점별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자존감과 흥미유지의 자기회귀 효과가 중학교급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양육태도가 그릿, 자존감에 미치는 예측력은 초등학교급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주제어 : 그릿, 자존감, 긍정적 양육태도, KCYPS 2018, 무선절편 교차지연 패널모형(RI-CLPM)

* 서울교육대학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slee486@kice.re.kr

I. 서론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열정과 인내”로 정의될 수 있으며(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학업성취(이혜영, 임효진, 2020; Credé, Tynan, & Harms, 2017; Duckworth et al., 2007)를 비롯하여 대인관계(Lan, 2020), 직업적 성공(Eskreis-Winkler, Duckworth, Shulman, & Beal, 2014; Ting & Datu, 2020), 적응과 행복(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5; Culin, Tsukayama, & Duckworth, 2014; Disabato, Goodman, & Kashdan, 2019; Li, Fang, Wang, Sun, & Cheng, 2018; Vainio & Daukantaitė, 2016)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릿이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최적의 적응 상태 즉 행복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험 연구에서는 그릿이 행복의 지표인 긍정 정서(Singh & Jha, 2008)나 심리적 안녕감(Akbag & Ümmet, 2017)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행복의 가장 큰 부분을 설명하는 또다른 개인 특성은 자존감(self-esteem)이다.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가치와 능력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며(Harter, 1983) 여러 문화권에서 행복의 지표인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이 밝혀졌다(Diener & Diener, 1995). 또한 자존감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삶의 만족을 가장 크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Zhang & Leung, 2002).

이러한 자존감과 그릿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며, 일반적으로 자존감 수준이 높을수록 그릿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임효진, 2021). 다른 연구에서도 그릿은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동시에 자존감은 다른 자기 참조(self-reference) 체제인 자기통제, 자기효능감, 자기인식 등을 통제하고도 그릿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한다는 결과가 있다(Li et al., 2018).

최근 그릿의 특성 중 기질에 의한 것과 환경에 의한 것을 구분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연구에서는 그릿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류현숙, 김지영, 2019; 이선형, 최자은, 2019; 최정윤, 임효진, 2021; Howard, Nicholson, & Chestnut, 2019), 학교에서는 교사관계나 교우관계(임효진, 이소라, 2020; Lan, 2020; Lan, & Radin, 2020)가 그릿을 예측한다고 하는 결과들이 있다. 이 중 특히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Duckworth, 2016)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선주, 임효진, 2018; 정문경, 오은주, 2016;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이하 KCYPS) 2018의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그릿과 자존감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과 예측력을 알아봄에 있어서 무선절편 교차지연 패널모형(RI-CLPM)을 적용하였다. 이 모형을 통해 특성의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변화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그릿과 자존감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과 자존감의 수준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초등학교급과 중학교급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그릿과 자존감의 관계 및 종단 연구

그릿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열정과 인내를 나타내는 개인 특성이며, 열정과 인내는 각각 그릿의 하위요소인 흥미유지(consistency of interest)와 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으로 측정된다(Duckworth & Quinn, 2009). 초기 연구에서는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을 합쳐 하나의 요인으로 다루었으나(Duckworth et al., 2007) 점차 각 요인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고됨에 따라 특히 다른 변인(성취,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경우 두 요인을 구분하여 다루는 연구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임효진, 2019; Credé et al., 2017).

자존감은 스스로의 가치, 능력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 긍정적인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은 긍정 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박은민, 2010) 학교생활을 비롯한 각종 영역에서 만족감과 적응도가 높다고 보고된다(Aspelmeier, Love, McGill, Elliott, & Pierce, 2012).

그릿과 자존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지만 몇몇 연구를 통해 두 변인이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임효진(2021)에서는 중학생 집단에서 자존감이 그릿과 학업열의의 지표로 도출되는 잠재집단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릿과 학업열의가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의 수준 또한 높아졌다. 다음으로 Li 등(2018)은 성인 집단에서 그릿이 자존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예측력을 가짐과 동시에 그릿이 자존감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를 보임을 밝혔다.

최근에는 KCYPS 자료의 그릿과 자존감 및 관련 변인들을 사용한 종단 분석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임효진, 황매향, 최희철(2021)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그릿, 자존감,

학습시간과 삶의 만족의 두 시점에 걸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에서는 이전 시점의 그릿과 자존감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그릿과 자존감 사이에 직접적인 교차지연 효과는 없었으나 그릿과 삶의 만족, 자존감과 삶의 만족 사이에 교차지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2.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릿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의 기준이나 실패를 수용하는 태도 등을 암묵적으로 학습하며 이를 통해 그릿을 형성하게 된다(Duckworth, 2016).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자녀에게 적절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면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김태명, 이은주, 2017),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지각한 아동은 높은 수준의 그릿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 중 이선행, 최자은(2019)에서는 초등학교 집단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기본심리욕구 및 성장 마인드셋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임효진, 이소라(2020)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의 그릿에 대해 긍정적 양육태도는 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 예측력을 보였으며 이 결과는 그릿의 하위요인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류현숙, 김지영(2019)에서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양육태도와 그릿이 동시에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가 있었다. Howard 등(2019)에서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 관여와 같은 민주적 양육태도는 그릿에 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같은 헬리콥터형 양육태도(overparenting)는 그릿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또한 자존감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자존감이 높다는 결과(정익중, 2007)와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아개념 수준이 높았던 결과(정문경, 오은주, 2016)는 이를 반영한다. 또한 Milevsky 등(2007)에서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존감, 삶의 만족을 정적으로, 우울을 부적적으로 예측한 결과가 있었으며, 이선희, 임효진(2018)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교 집단에서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존감을 정적으로,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존감을 부적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는 또래애착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연령과 학년에 따른 그릿과 자존감의 차이 혹은 변화를 보고한 연구(임효진,

류재준, 2020; 최정미, 김미란, 2003; Block & Robins, 1993; Robins & Trzeniewski, 2005)나, 학교급에 따라 양육태도와 자존감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이선주, 임효진, 2018)에 근거하면 그릿과 자존감의 종단 관계에서 양육태도의 예측력 또한 학교급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3. 무선절편 교차지연 패널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무선절편 교차지연 패널모형(Random Intercept Cross-Lagged Panel Model, 이하 RI-CLPM; Hamaker, Kuiper & Grasman, 2015)으로 각 관찰점수의 분산이 개인 내 변화(within-person fluctuations)와 개인 간 안정적인 특성(between-person stable traits)에 의해 설명된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이는 기존의 교차지연 패널모형(Cross-Lagged Panel Model, 이하 CLPM)이 개인 내의 변화만 고려했던 한계를 보완하는 모형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많은 패널자료의 분석 방법이 그러하듯이 RI-CLPM은 세 시점 이상의 측정 결과가 있으면 적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개인 특성에 기반한 차이가 무선절편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도 기존의 CLPM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rghuis et al., 2020; Keijsers, 2016). Mulder와 Hamaker(2021)는 RI-CLPM의 다양한 확장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를 기반으로 (1) 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공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고 (2) 다집단 모형 비교를 위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변인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의 1차년도(2018년)부터 3차년도(2020년)까지 초등학교급(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급(중학교 1-3학년)에서 수집된 그릿 8문항(YPSY7A01-08), 자존감 10문항(YPSY3A01-10),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12문항(파스함: YFAM2A01-04, 자율성 지지: YFAM2C01-04, 구조 제공: YFAM2E01-04)의 4점 Likert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중 그릿의 4문항과 자존감의 5문항은 부정문으로 서술되어 있어, 역코딩한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릿의 하위요소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은 많은 연구에서 구분하여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모형에 따로 투입하였다.

표 1. 연구변인 문항 예시

변인	하위요인	문항내용 (예)
그릿	흥미유지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노력지속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자존감	-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양육태도	자율성 지지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구조제공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따스함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릿의 흥미유지, 노력지속, 자존감, 양육태도는 각 시점별로 문항묶음(parceling)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표 2>는 1-3차년도 데이터 특성에 관한 기초통계치를 나타낸다. 초등학교급과 중학교급 모두 3차년도로 갈수록 변인의 평균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중학교급의 평균값이 전체적으로 더 낮으며, 초등학교급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는 시간불변 공변인(time-invariant predictor)으로 전 시점에 걸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세 시점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초등학교급: $m=3.34$, $SD=0.33$, 중학교급: $m=3.19$, $SD=0.32$).

표 2. 1-3차년도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교 (N=2607)	흥미유지	2.82	.60	2.69	.55	2.56	.57
	노력지속	2.87	.56	2.78	.53	2.72	.50
	자존감	3.22	.47	3.08	.47	3.00	.46
	양육태도	3.46	.45	3.31	.48	3.23	.43
중학교 (N=2590)	흥미유지	2.62	.55	2.59	.52	2.53	.54
	노력지속	2.70	.53	2.67	.48	2.61	.50
	자존감	2.99	.50	2.93	.45	2.92	.45
	양육태도	3.26	.49	3.14	.47	3.16	.45

2. 연구모형

1) RI-CLPM 기본 모형

RI-CLPM은 CLPM에 무선절편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측정변인의 분산을 개인 내 변화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안정적인 특성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준다. [그림1]은 기본적인 형태의 RI-CLPM을 나타낸 것으로 그릿과 자존감 각각의 측정 변인에 대해 무선절편 요인을 추가하였다. 이 때 무선절편 요인과 측정변인 사이의 요인부하는 1로

고정하였으며 측정변인의 분산은 0으로 고정하여 관찰점수의 분산이 개인 내, 개인 간 잠재변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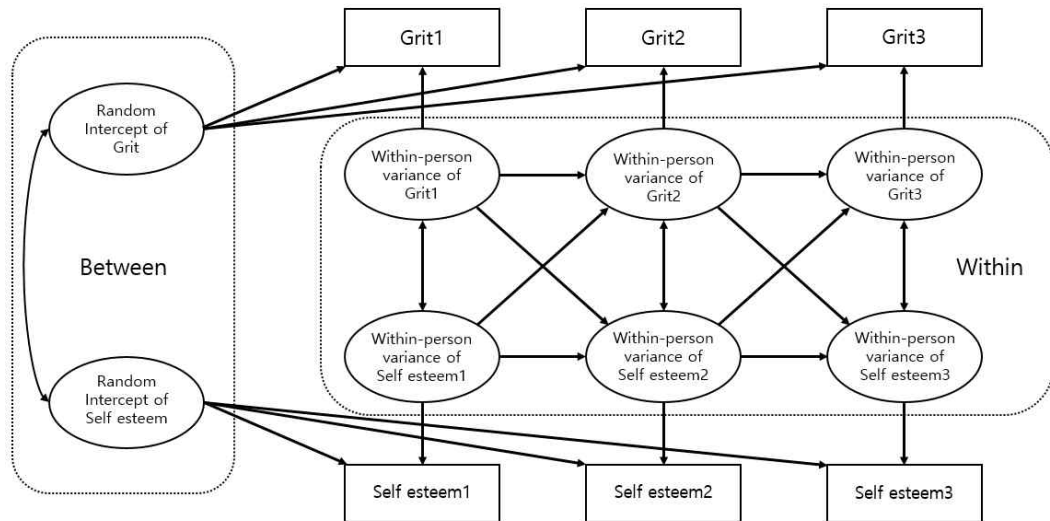


그림 1. 세 시점의 그릿과 자존감에 관한 RI-CLPM

2) RI-CLPM 확장 모형

[그림2]와 [그림3]은 그릿과 자존감의 예측변인으로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포함하는 모형을 나타낸다. [그림2]는 공변인이 측정변인이 아닌 무선절편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으로 양육태도가 무선절편 요인을 통해 그릿과 자존감의 측정변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가정한다. [그림3]의 경우, 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의 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는 모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 시점 자료의 경우 모수의 수가 많아지면 판별(identification)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 시점의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두고 시점별로 같은 영향력을 가정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그림 3]의 양육태도와 세 시점의 측정변인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둔 모형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림 2]의 모형과 통계적으로 동치 관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모형들을 분석하기 위해 Mplus(version 8.4)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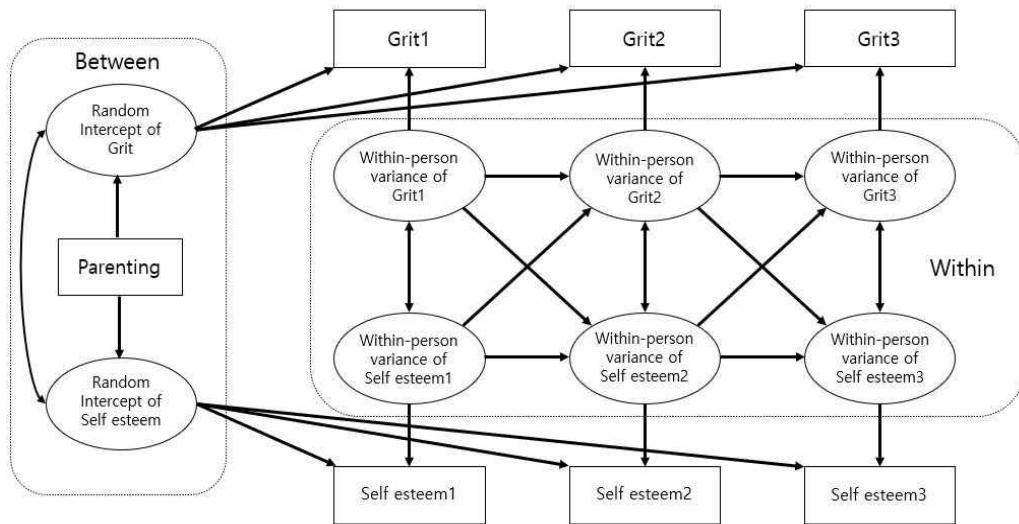


그림 2. 공변인이 간접적으로 측정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RI-CL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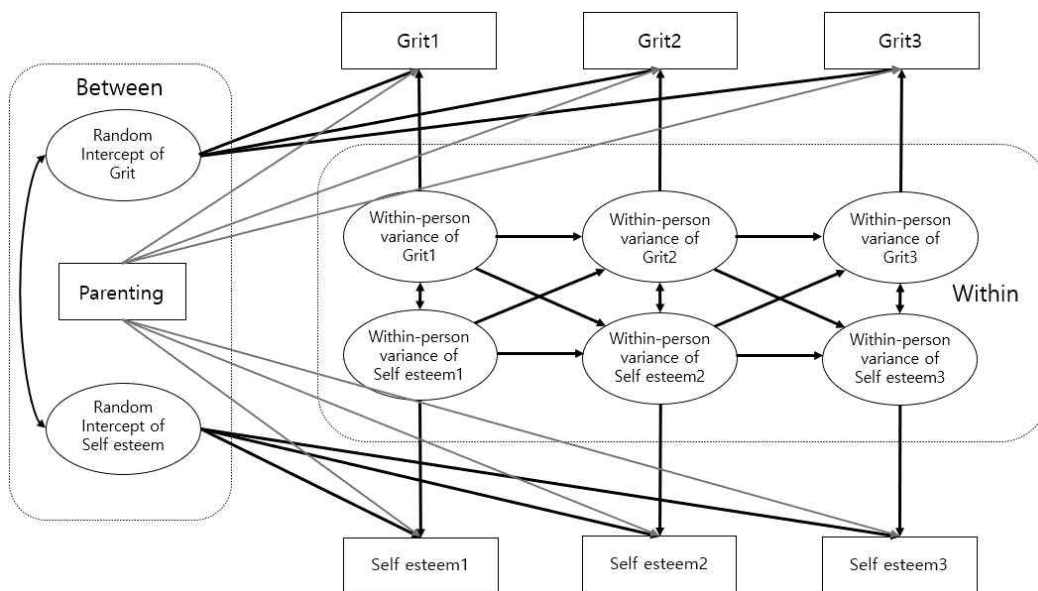


그림 3. 공변인이 직접적으로 측정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RI-CLPM

IV. 연구결과

1. 그릿과 자존감의 종단 관계

1) 최종 RI-CLPM 선정

그릿과 자존감의 종단 관계에 무선절편 요인을 삽입한 모형, 즉 개인 간의 안정적인 특성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LPM과 RI-CLPM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CLPM은 RI-CLPM에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χ^2 차이 검정을 통해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급에서 두 모형을 비교한 $\Delta\chi^2$ 검정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흥미유지 모형에서는 $\Delta\chi^2=41.47$, $\Delta df=2$ 로 자유도가 2인 χ^2 분포에서 $p<.001$ 이므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노력지속-자존감 모형 역시 $\Delta\chi^2=31.38$, $\Delta df=2$ 로 자유도가 2인 χ^2 분포에서 $p<.001$ 이므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RI-CLPM이 보다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개인 간의 특성 차이가 충분히 존재하며, 이 차이는 그릿과 자존감의 분산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CLPM과 RI-CLPM의 모형 비교

	CLPM	RI-CLPM	$\Delta\chi^2$ 검정 결과
흥미유지-자존감	$\chi^2=72.01$, $df=4$	$\chi^2=30.54$, $df=2$	$p<.001$
노력지속-자존감	$\chi^2=51.82$, $df=4$	$\chi^2=20.44$, $df=2$	$p<.001$

RI-CLPM의 최종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점별 경로계수 및 요인 공분산이 모두 추정되도록 하는 무제약 모형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의 경로씩 제약을 주면서 적합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세 시점 종단자료의 경우 무제약 모형을 추정할 때에 주어진 시점에 비해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많아, 극단적으로 작은 χ^2 와 자유도가 산출되어 적합도 비교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 모수를 무제약 모형으로 추정했을 때에는 위계적 관계에 있는 모형과의 비교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먼저, 그릿과 자존감이 각 시점에서 일정한 평균값을 갖는지 아니면 변화하는지 RI-CLPM의 각 시점에 평균값이 같도록 제약(constraint to grand mean)을 준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변인의

* CLPM과 RI-CLPM의 비교 시 그릿과 자존감의 무선절편 요인 간 상관과 그릿과 자존감의 첫 번째 시점 요인 간 상관이 0이 되도록 고정하고 모형적합도를 산출하였다.

시점별 평균을 같도록 제약하면 χ^2 값이 급격하게 늘어나 적합도를 크게 떨어지게 하므로 시점별 평균을 다르게 추정하는 모형을 선정하였다.

표 4. 측정변인 평균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준 모형과 비교

	제약된 RI-CLPM	RI-CLPM	$\Delta\chi^2$ 검정 결과
흥미유지-자존감	$\chi^2=470.40, df=6$	$\chi^2=30.54, df=2$	$p<.001$
노력지속-자존감	$\chi^2=364.85, df=6$	$\chi^2=20.44, df=2$	$p<.001$

다음으로 자기회귀 효과(autoregressive effects), 교차지연 효과(cross-lagged effects)가 각 시점에 걸쳐 일정한지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RI-CLPM의 1차년도→2차년도, 2차년도→3차년도 경로계수가 같도록 제약을 준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표 6>의 결과를 보면, 경로계수가 시점에 걸쳐 다르다고 상정한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5>의 χ^2 차이에 비해 <표 6>의 χ^2 차이가 작아 모형 선정 조건에서 시점별 다양한 효과크기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에 대해 시점별 동일성 제약을 준 모형과 비교

	제약된 RI-CLPM	RI-CLPM	$\Delta\chi^2$ 검정 결과
흥미유지-자존감	$\chi^2=68.92, df=6$	$\chi^2=30.54, df=2$	$p<.001$
노력지속-자존감	$\chi^2=51.67, df=6$	$\chi^2=20.44, df=2$	$p<.001$

앞서 제시한 모형들에서는 판별의 문제 때문에 그릿과 자존감의 무선절편 요인 간 상관을 추정하지 않았으나, RI-CLPM에서 이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상관을 추정하되 다른 모수를 고정하여 모형적합도를 산출한 뒤 이 모형을 앞선 모형들과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적합도를 비교했을 때 RMSEA, CFI, SRMR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자기회귀, 교차지연 경로계수를 모든 시점에 대해 고정하고 무선절편 요인 간 상관을 추정하는 모형이 더 자료에 부합하고, 무선절편 간 상관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적합도와 해석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적합도 비교를 통한 최종 모형 선정 절차는 중학교급의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 무제약 RI-CLPM의 안정적인 추정을 위해 그릿과 자존감의 무선절편 요인 간 상관과 그릿과 자존감의 첫 번째 시점 요인 간 상관이 0이 되도록 고정하고 모형적합도를 산출하였다.

표 6. 다양한 제약에 따른 RI-CLPM의 적합도 지수

모형	모형 제약 조건	χ^2	RMSEA	CFI	SRMR
흥미유지-자존감	무선절편 요인 간 상관 0으로 고정 & 평균 및 경로계수 추정	$\chi^2=30.54$, $df=2$	0.063	0.974	0.056
	무선절편 요인 간 상관 추정 & 시점별 경로계수 고정	$\chi^2=35.39$, $df=5$	0.048	0.987	0.042
노력지속-자존감	무선절편 요인 간 상관 0으로 고정 & 평균 및 경로계수 추정	$\chi^2=20.44$, $df=2$	0.059	0.994	0.022
	무선절편 요인 간 상관 추정 & 시점별 경로계수 고정	$\chi^2=30.54$, $df=5$	0.044	0.992	0.045

2) 최종 모형 해석

앞서 설명한 방식에 의해 선정된 최종 모형의 모수에 기반하여 그릿과 자존감의 종단 관계를 해석하였다*. 초등학교급의 최종 모형 결과인 <표 8>의 상단 부분은 흥미유지와 자존감, 하단 부분은 노력지속과 자존감 관계의 모수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표 7. RI-CLPM의 모수 추정치(초등학교급)

	모수	B	SE	p_B	β
흥미유지-자존감	흥미유지1→흥미유지2	0.064*	0.031	$p<.05$	0.073
	흥미유지2→흥미유지3				0.063
	자존감1→자존감2	0.242***	0.032	$p<.001$	0.244
	자존감2→자존감3				0.259
	흥미유지1→자존감2	-0.033	0.020	$p=0.093$	-0.043
	흥미유지2→자존감3				-0.041
	자존감1→흥미유지2	0.047	0.033	$p=0.157$	0.041
	자존감2→흥미유지3				0.040
	흥미유지1, 자존감1 요인공분산	0.083***	0.007	$p<.001$	0.359
	흥미유지2, 자존감2 오차공분산	0.049***	0.007	$p<.001$	0.247
	흥미유지3, 자존감3 오차공분산	0.057***	0.005	$p<.001$	0.305
	무선절편 요인공분산	0.037***	0.006	$p<.001$	0.638
노력지속-자존감	노력지속1→노력지속2	0.120***	0.030	$p<.001$	0.129
	노력지속2→노력지속3				0.128

* Mulder와 Hamaker(2020)에 따르면 RI-CLPM에서 각각의 개인은 (1)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과 (2) 전체 시점에 걸친 표본의 평균적인 특성 수준에 기반한 기대점수를 갖는다. 그러므로 개인 내의 분산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각 개인별 기대점수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회귀 모수(autoregressive parameter) 또는 안정성(stability) 계수는 각각 그릿 또는 자존감이 이전 시점의 변량에 의해 기대되는 수준에서의 개인 내 차이를 나타낸다. 교차지연 모수(cross-lagged parameter)는 하나의 변인에서의 개인 내 변화가 이전 시점에 측정된 또 다른 변인의 기대 점수로부터 떨어진 정도에 의해 예상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낸다. 즉, 교차지연 모수가 유의하다는 것은 한 변인에 대한 개인 내 변화가 다른 변인에서의 개인 내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뜻한다.

자존감1→자존감2	0.213***	0.033	$p<.001$	0.214
자존감2→자존감3				0.230
노력지속1→자존감2	0.041	0.022	$p=.056$	0.050
노력지속2→자존감3				0.050
자존감1→노력지속2	0.123***	0.030	$p<.001$	0.109
자존감2→노력지속3				0.117
노력지속1, 자존감1 요인공분산	0.104***	0.007	$p<.001$	0.468
노력지속2, 자존감2 오차공분산	0.084***	0.006	$p<.001$	0.431
노력지속3, 자존감3 오차공분산	0.050***	0.005	$p<.001$	0.300
무선절편 요인공분산	0.030***	0.006	$p<.001$	0.660

먼저 흥미유지 모형의 개인 간 수준을 보면 흥미유지와 자존감의 무선절편 요인 간 상관은 0.64로, 이는 전체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흥미유지를 보이는 학생일수록 높은 자존감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 간 특성 차이를 통제했을 때 흥미유지와 자존감의 교차지연 효과는 양방향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흥미유지($\beta_s=.063\sim.073$, $ps<.05$)와 자존감($\beta_s=.244\sim.259$, $ps<.001$)의 자기회귀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이전 시점에서 기대되는 정도보다 높은 수준의 흥미유지(또는 자존감)를 지닌 학생은 이후 시점에서도 기대되는 정도보다 더 높은 흥미유지(또는 자존감)를 지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은 흥미유지보다 자존감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노력지속 모형의 개인 간 수준을 보면, 노력지속과 자존감 사이의 무선절편 요인 간 상관은 0.66으로, 이는 전체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노력지속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자존감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 간 특성 차이를 통제했을 때 자존감이 노력지속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eta_s=.109\sim.117$, $ps<.001$), 이전 시점에서 기대되는 정도보다 높은 수준의 자존감이 있는 학생은 이후 시점의 노력지속도 기대되는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력지속이 자존감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이전 시점에서의 노력지속 수준이 이후 시점의 자존감의 상승 또는 하락 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력지속($\beta_s=.128\sim.129$, $ps<.001$)과 자존감($\beta_s=.214\sim.230$, $ps<.001$)의 자기회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전 시점에서 기대되는 정도보다 높은 수준의 노력지속(또는 자존감)을 지닌 학생은 이후 시점에서도 기대되는 정도보다 더 높은 노력지속(또는 자존감)을 지님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먼저 초등 학교급에서 분석하였다. 공변인인 양육태도는 세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그림2]와 같이 공변인이 무선절편에 미치는 영향과 [그림3]과 같이 공변 인이 각 시점의 측정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때 공변인과 측정변인의 관 계를 각 시점에서 모두 같도록 제약하였다. 흥미유지 모형의 적합도는 $\chi^2=18.60$, $df=5$, RMSEA=.032, CFI=.996, SRMR=.035, 노력지속 모형의 적합도는 $\chi^2=39.48$, $df=5$, RMSEA=.051, CFI=.992, SRMR=.049로 공변인을 투입한 모형이 자료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흥미유지와 자존감 역시 전 체 시점($\beta_{\text{흥미}}=.486$, $\beta_{\text{자존}}=.844$, $ps<.001$) 그리고 각 시점별($\beta_{\text{흥미}}=.215\sim.234$, $\beta_{\text{자존}}=.427\sim.446$, $ps<.001$)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력지속 과 자존감 전체 시점($\beta_{\text{노력}}=.730$, $\beta_{\text{자존}}=.848$, $ps<.001$) 그리고 각 시점별($\beta_{\text{노력}}=.311\sim.338$, $\beta_{\text{자존}}=.425\sim.444$, $ps<.001$)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8. 공변인을 추가한 RI-CLPM의 모수 추정치(초등학교급)

모형	모수	B	SE	p_B	β
흥미유지- 자존감	[그림2] 양육태도→무선절편(흥미유지)	0.389***	0.024	$p<.001$	0.486
	양육태도→무선절편(자존감)	0.612***	0.017	$p<.001$	0.844
	양육태도→흥미유지1				0.215
	양육태도→흥미유지2	0.389***	0.024	$p<.001$	0.234
	양육태도→흥미유지3				0.228
	[그림3] 양육태도→자존감1				0.427
	양육태도→자존감2	0.612***	0.017	$p<.001$	0.446
	양육태도→자존감3				0.438
	[그림2] 양육태도→무선절편(노력지속)	0.522***	0.021	$p<.001$	0.730
	양육태도→무선절편(자존감)	0.609***	0.017	$p<.001$	0.848
노력지속- 자존감	양육태도→노력지속1				0.311
	양육태도→노력지속2	0.522***	0.021	$p<.001$	0.336
	양육태도→노력지속3				0.338
	[그림3] 양육태도→자존감1				0.425
	양육태도→자존감2	0.609***	0.017	$p<.001$	0.444
	양육태도→자존감3				0.437

3. 학교급 간 차이

이상에서는 초등학교급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 절에서는 중학교급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두 학교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즉, 경로 계수에 대한 집단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9. RI-CLPM 모형의 모수 추정치(중학교급)

	모수	B	SE	p_B	β
흥미유지-자 존감	흥미유지1→흥미유지2	0.155***	0.031	$p<.001$	0.157
	흥미유지2→흥미유지3				0.160
	자존감1→자존감2	0.313***	0.028	$p<.001$	0.315
	자존감2→자존감3				0.359
	흥미유지1→자존감2	0.042*	0.021	$p<.05$	0.045
	흥미유지2→자존감3				0.051
	자존감1→흥미유지2	0.089**	0.027	$p<.01$	0.085
	자존감2→흥미유지3				0.087
	흥미유지1, 자존감1 요인공분산	0.109***	0.008	$p<.001$	0.379
	흥미유지2, 자존감2 오차공분산	0.099***	0.008	$p<.001$	0.381
	흥미유지3, 자존감3 오차공분산	0.065***	0.006	$p<.001$	0.306
	무선절편 요인공분산	-0.009	0.007	$p=.215$	-
노력지속-자 존감	노력지속1→노력지속2	0.167***	0.033	$p<.001$	0.174
	노력지속2→노력지속3				0.173
	자존감1→자존감2	0.312***	0.029	$p<.001$	0.314
	자존감2→자존감3				0.357
	노력지속1→자존감2	0.042	0.024	$p=.074$	0.044
	노력지속2→자존감3				0.048
	자존감1→노력지속2	0.100***	0.027	$p<.001$	0.101
	자존감2→노력지속3				0.105
	노력지속1, 자존감1 요인공분산	0.143***	0.008	$p<.001$	0.514
	노력지속2, 자존감2 오차공분산	0.111***	0.007	$p<.001$	0.460
	노력지속3, 자존감3 오차공분산	0.069***	0.006	$p<.001$	0.345
	무선절편 요인공분산	-0.013	0.007	$p=.067$	-

-추정오차가 커 수렴이 되지 않음.

〈표 10〉에서 먼저 흥미유지 모형의 집단 간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중학교급에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수 추정 결과는 초등학교급과 비슷한 결과가 산출되었으나, 흥미유지에서 자존감으로의 교차지연 효과에서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났다. 즉, 흥미유지1→자존감2($\beta_{elm} = -.043$, $\beta_{mid}=.045$, $p_{diff}<.01$)와 흥미유지2→자존감3($\beta_{elm} = -.041$, $\beta_{mid}=.051$, $p_{diff}<.01$) 경로는 초등학교급에서는 부적인 교차지연 효과가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중학교급에서는 유의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로는 흥미유지1→흥미유지2($\beta_{elm}=.073$, $\beta_{mid}=.157$,

$p_{diff} < .05$)와 흥미유지2→흥미유지3($\beta_{elm} = .063$, $\beta_{mid} = .160$, $p_{diff} < .05$)으로 중학교급에서 흥미유지의 정적 자기회귀 효과가 초등학교급에 비해 유의하게 더 컸다.

다음으로 노력지속 모형에서는 자존감1→자존감2($\beta_{elm} = .214$, $\beta_{mid} = .314$, $p_{diff} < .05$)와 자존감2→자존감3($\beta_{elm} = .230$, $\beta_{mid} = .357$, $p_{diff} < .05$) 경로계수에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중학교급에서 자존감의 정적 자기회귀 효과가 초등학교급에 비해 유의하게 더 컸다.

표 10. 공변인을 추가한 RI-CLPM의 모수 추정치(중학교급)

모형	모수	B	SE	p_B	β
[그림2]	양육태도→무선절편(흥미유지)	0.250***	0.022	$p < .001$	0.694
	양육태도→무선절편(자존감)	0.524***	0.017	$p < .001$	-
흥미유지- 자존감	[그림3]	양육태도→흥미유지1			0.145
		양육태도→흥미유지2	0.250***	$p < .001$	0.152
		양육태도→흥미유지3			0.148
	[그림3]	양육태도→자존감1			0.330
		양육태도→자존감2	0.524***	$p < .001$	0.376
		양육태도→자존감3			0.371
노력지속- 자존감	[그림2]	양육태도→무선절편(노력지속)	0.362***	$p < .001$	-
		양육태도→무선절편(자존감)	0.523***	$p < .001$	-
	[그림3]	양육태도→노력지속1			0.218
		양육태도→노력지속2	0.362***	$p < .001$	0.242
		양육태도→노력지속3			0.230
		양육태도→자존감1			0.329
		양육태도→자존감2	0.523***	$p < .001$	0.375
		양육태도→자존감3			0.370

-추정오차가 커 수렴이 되지 않음.

마지막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그릿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학교급 간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11>에는 중학교급에서 양육태도가 그릿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이 역시 초등학교급에서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2]의 흥미유지 모형의 경우 양육태도→흥미유지($B_{elm} = .389$, $B_{mid} = .250$, $p_{diff} < .001$), 양육태도→자존감($B_{elm} = .612$, $B_{mid} = .524$, $p_{diff} < .001$)으로 초등학교급에서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중학교급에 비해 유의하게 더 컸다. [그림 2]의 노력지속 모형에서 조절효과를 보인 경로는 양육태도→노력지속($B_{elm} = .522$, $B_{mid} = .362$, $p_{diff} < .001$), 양육태도→자존감($B_{elm} = .609$, $B_{mid} = .523$, $p_{diff} < .001$)으로 초등학교급에서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중학교급에 비해 더 컸다. 마지막으로 [그림 3]의 모형은 양육태도가 그릿과 자존감의 각각의 시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같다고 제약을 준 모형이므로, 동치모형인 [그림 2]의 결과와 같고 학교급별 차이의 유의성 결과도 동일하였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의 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그릿과 자존감의 개인 간 특성의 차이와 개인 내 변화를 알아보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본 뒤, 초등학교와 중학교급에서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선절편 교차지연 패널모형의 결과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 자존감과 같은 안정적인 개인 특성의 전체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통제하고도 시간에 따른 개인 내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교차지연 패널모형에서 개인 내 변화만을 확인한 것에서 확장된 모형을 검증한 것으로, 종단 자료의 분석방법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의 시기 이전 시점의 그릿과 자존감은 1년이 지난 이후 시점의 그릿과 자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이는 이전 시점에서 그릿과 자존감의 상대적 서열의 차이가 이후 시점에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그릿의 종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 대학생(임효진, 2018)과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임효진 외, 2021)을 두 시점에 걸쳐 반복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자존감 역시 중-고등학교(황매향 등, 2016)와 초-중학교(임효진, 최희철, 황매향, 2017)의 두 시점 동안 유지되었던 결과가 있다.

교차지연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생의 경우 이전 시점의 자존감은 이후 시점의 노력지속에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유의한 예측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체로 그릿과 자존감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임효진, 2021)와 연결된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 흥미유지와 자존감 간에 양방향 교차지연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자존감을 예측하고 이어서 삶의 만족까지 예측하였던 결과(Li et al., 2018)와 일부 연결된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열정과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Culin et al., 2014). 연구결과는 꾸준히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이 또한 목표의 지속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릿의 두 요소와 자존감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그리고 시점 별로 달라지는 개인 특성인 그릿, 자존감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긍정적 양육태도와 그릿 간의 정적인 관계(류현숙, 김지영, 2019; 임효진, 이소라, 2020; Howard et al., 2019)와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존감의 정적인 관계(이선주, 임효진, 2018; 정익중, 2007; Milevsky et al., 2007)와 맥

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지지하면서도 적절한 구조를 제공하는 등의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그릿과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넷째,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교급에 비해 중학교급에서 흥미유지와 자존감의 자기회귀 계수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청소년기의 시작부터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개인 특성들이 비교적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황매향 등(2016)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은 초4에서 초6보다 중1에서 중3까지의 자기회귀 계수가 더 높았다. 또한 중학교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업에 열중하게 되어 흥미유지가 가진 ‘하나의 관심사를 꾸준히 유지하는’ 특성이 누적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릿과 자존감의 관계는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위요소별로 그리고 학교급별로 예측의 방향과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의 결과가 복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존감이 노력지속을 예측하는 경우는 초등학교급에서만, 흥미유지가 자존감을 예측하는 경우는 중학교급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흥미유지와 자존감의 교호적 관계도 중학교급에서만 나타나 이 두 변인의 종단 관계가 중학교급에서 더 강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릿의 하위요소 각각이 자존감과 관계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기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릿과 자존감의 관계가 일방적인지 아니면 교호적인지를 밝힘으로써 두 구인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같은 패널자료를 분석한 임효진 등(2021)의 연구에서도 두 시점의 그릿과 자존감 간에 교차지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모형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시점의 추가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육태도가 그릿,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는 중학교급에 비해 초등학교급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비교한 연구들 중 임효진, 이소라(2020)에서는 양육태도와 그릿의 관계가 초등학교급에서 그 영향력이 더 강했던 결과가 있었고, 최정윤, 임효진(2021)에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초등학교급에서 더 크게 나타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양육태도의 효과는 아동기 자녀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청소년기 자녀들은 또래나 기타 사회적 관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애착이나 정서적, 심리적 친근함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된다(Hazan, Zeifman, & Middleton, 1994). 이선주, 임효진(2018)에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존감을 정적,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이 관계가 또래애착에 의해 조절되는 정도가 초등학교급과 중학교급에서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설명과 연결된다.

이어서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시점에 걸쳐 측정된 자료의 특성 상 모형에 따라 판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모형 변수의 수에 비해 자료가 보유한 정보가 부족하여 극단적으로 작은 χ^2 값과 자유도가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종단 자료를 분석할 때 이론상으로는 세 시점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시점 이상의 자료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와 같은 모형의 판별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변인들의 종단 변화를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후 시점을 추가한 자료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양육태도는 오히려 그릿의 수준을 낮추게 한다는 결과(Howard et al, 2019)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부정적 양육태도(강요, 거부, 비밀관성)의 효과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그릿, 자존감의 형성에 가정 환경 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 즉 교사-학생관계나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작용 등이 이러한 특성의 형성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모형 분석 결과를 중학교 이상 학교급의 다른 집단들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릿, 자존감과 같은 개인 특성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학교급의 변화 혹은 발달 단계의 전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후속 연구는 특히 그릿과 자존감의 관계가 하위요소에 따라 그리고 학교급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심층 해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 양육태도 척도 (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류현숙, 김지영. (2019).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릿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2), 261-269.
- 박은민. (2010). 청소년의 교사에착, 또래에착, 모에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75-88.
- 이선주, 임효진.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존감의 관계에서 학교급에 따른 또래에착의 조절효과. **한국초등교육**, 29(3), 1-18.
- 이선형, 최자은. (2019). 학령기 아동의 그릿, 성장 마인드셋, 기본심리욕구,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 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3), 155-168.
- 이혜영, 임효진. (2020). 성향점수매칭법을 활용한 그릿과 학업성취의 인과관계 연구. **교육과학연구**, 51(4), 63-86.

- 임효진. (2018). 단기 종단자료를 이용한 그릿 요인구조의 안정성 연구. **교육학연구**, 56(4), 77-102.
- 임효진. (2019). 그릿 개념의 재정립: 목적, 열정, 인내의 재검토. **교육심리연구**, 33(3), 317-339.
- 임효진. (2021). 그릿과 학업열의의 유형 및 자존감의 예측력. **교육학연구**, 59(1), 79-104.
- 임효진, 류재준. (2020). 그릿의 요인 및 성차와 연령차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58(4), 25-54.
- 임효진, 이소라. (2020). 그릿을 매개로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부모, 교사, 교우 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초등교육**, 31(1), 109-127.
- 임효진, 최희철, 황매향. (2017). 초기 청소년기 포래애착, 자존감 및 삶의 만족의 종단적 교호적 예측력: 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8(3), 151-172.
- 임효진, 황매향, 최희철. (2021). 자존감, 삶의 만족, 그릿, 학습시간 사이의 종단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22(3), 537-566.
- 정문경, 오은주.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2), 83-93.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6-166.
- 최정미, 김미란.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최정윤, 임효진. (2021).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 그릿과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921-950.
-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5). 끈기와 자기통제 집단수준에 따른 성격요인의 예측력 및 학교 부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11(3), 145-166.
- Akbag, M., & Ümmet, D. (2017). Predictive role of gri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for young adults. *Journal of Education & Practice*, 8(26), 127-135.
- Aspelmeier, J. E., Love, M. M., McGill, L. A., Elliott, A. N., & Pierce, T. W. (2012). Self-esteem, locus of control, college adjustment, and GPA among first-and continuing-generation students: A moderator model of generational statu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3(7), 755-781.
- Block, J., & Robins, R. W. (1993). A longitudinal study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self-esteem from early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4(3), 909-923.
- Borghuis, J., Bleidorn, W., Sijsma, K., Branje, S., Meeus, W. H., & Denissen, J. J. (2020).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rait neuroticism and negative daily experiences in adolescence.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8(2), 348-363.
-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 Culin, K. R., Tsukayama, E., & Duckworth, A. L. (2014). Unpacking grit: Motivational correlates of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9(4), 306-312.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Disabato, D. J., Goodman, F. R., & Kashdan, T. B. (2019). Is grit relevant to well-being and strengths? Evidence across the globe for separating perseverance of effort and consistency of interests. *Journal of Personality*, 87(2), 194-211.
- Duckworth, A. L.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NY: Scribner.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Eskreis-Winkler, L., Duckworth, A. L., Shulman, E. P., & Beal, S.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5, 1-12.
- Hamaker, E. L., Kuiper, R. M., & Grasman, R. P. (2015). A critique of the cross-lagged panel model. *Psychological Methods*, 20(1), 102-116.
- Harter, S. (1983). Development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275-385). New York: Wiley.
- Hazan, C., Zeifman, D., & Middleton, K. (1994). Sex and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Attachment process in adulthood* (pp. 151-177). London, UK: Jessica Kingley.
- Howard, J. M., Nicholson, B. C., & Chesnut, S. R. (2019). Relationships between positive parenting, overparenting, grit, and academic succ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60(2), 189-202.

- Lan, X. (2020). Grit and peer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ces: A person-centered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37(7), 2250-2269.
- Lan, X., & Radin, R. (2020). Direct and interactive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grit on mitigating problem behaviors among urban left-behind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1), 250-260.
- Li, J., Fang, M., Wang, W., Sun, G., & Cheng, Z. (2018). The influence of grit 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s a mediator. *Psychologica Belgica*, 58(1), 51-66.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1), 39-47.
- Mulder, J. D. & Hamaker, E. L. (2021). Three extensions of the random intercept cross-lagged panel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8(4), 638-648.
- Keijsers, L. (2016).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How much do we really know?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0(3), 271-281.
-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2005).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3), 158-162.
- Singh, K., & Jha, S. D. (200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grit and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4(2), 40-45.
- Ting, L. C., & Datu, J. A. D. (2020). Triarchic model of grit dimensions as predictors of career outcom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8(4), 348-360.
- Vainio, M. M., & Daukantaitė, D. (2016). Grit and different aspects of well-being: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via sense of coherence and authentic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5), 2119-2147.
- Zhang, L., & Leung, J. P. (2002).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ife-satisfaction in mainland Chinese. *Journal of Psychology*, 37(2), 83-9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그림과 자존감의 종단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 대한 토론문

박용한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KCYPS 2018의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 고학년(4~6학년) 집단과 중학생(1~3학년) 집단을 대상으로 그림의 두 가지 하위요인, 즉 흥미유지 및 노력지속, 그리고 자존감 간의 종단적 관계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이러한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근래 교육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주제이자 중요한 심리적 특성인 ‘그림’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출판된 국내학술지논문 중에서 ‘그림’을 논문 제목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연구만 하더라도 500편에 이르고 그 수도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학술연구정보서비스, 2021년 10월 26일 검색), 여전히 그림의 요인구조, 측정도구, 문화적 보편성 등에 대한 연구 기반의 논쟁(예, 임효진, 2018; Morell et al., 2021)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처럼 그림의 본질과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그림과 함께 ‘자존감’을 주요 연구 변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림과 자존감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무선절편간 .60 이상의 상관) 둘 다 긍정심리를 대표하는 개인의 정의적 특성이지만, 그림은 의지적이고 자기통제적인 특성이 큰 반면 자존감은 정서적인 특성이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르면서도 보완하는 점이 있어 함께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점, 연구에 대한 제안, 질문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토론자로서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가 기여하는 시사점으로 무선절편 교차지연 패널모형(RI-CLPM)이란 새로운 분석 방법을 통해 개인내 변화와 함께 개인간 안정적인 특성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기존에 많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교차지연 모형보다 더 융통성 있는 분석에 기반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종단적 분석에 기초하여 변인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모

형간 비교를 통해 최종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과 절차가 매우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있어 그릿의 두 하위요인뿐만 아니라 자존감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확인해주었다. 이는 그릿과 자존감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화할 수 있는 특성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연구에 대한 제안으로서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학교급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가설적인 차원에서라도 설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릿과 자존감 간의 교차지연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노력지속은 이전 시점의 자존감으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지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흥미유지와 자존감은 중학교 집단에서만 서로 유의한 양방향 교차지연효과를 보여주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흥미유지와 자존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 진로 등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연령적·학교환경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는 그릿 및 자존감에 대하여 학교교육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정환경 특성인 부모 양육태도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학교환경 특성인 교사의 지지나 지원 등이 청소년의 그릿과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의 영향을 얼마나 보완하는지를 확인한다면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크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본 연구의 모델에서는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을 분리하여 별도의 모델로 분석하였는데 흥미유지, 노력지속, 자존감을 하나의 모델에서 분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둘째, <표10>을 통해 살펴보았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간 조절효과 분석 결과에서 ‘자존감’ 변인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흥미유지 모형에서는 자존감의 자기회귀 효과에 대한 조절효과가 없는 반면, 노력지속 모형에서는 자존감의 자기회귀 효과에 대한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중학교)초등학교) 이유는 무엇일까?

◎ 참고문헌

- 임효진 (2018). 단기 종단자료를 이용한 그릿 요인구조의 안정성 연구. *교육학연구*, 56(4), 77-102.
- Morell, M., Yang, J. S., Gladstone, J. R., Turci Faust, L., Ponnock, A. R., Lim, H. J., & Wigfield, A. (2021). Grit: The long and short of i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3(5), 1038-1058.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종단적 상호영향 관계: 성별 차이

이화조*·정익중**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적,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 간의 종단적 상호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KCYPS 2018의 중1 패널 2018년도(중1), 2019년도(중2), 2020년도(중3)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청소년 2,242명과 그 보호자이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RCLM)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긍정적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고 반대로 부정적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학년이 증가함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스마트폰 의존도가 이후 시점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 종단적 상호영향 관계에 성별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적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 부모양육태도, 스마트폰 의존도, 상호영향 관계, 성별차이

* 이화여자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ichung@ewha.ac.kr

I. 서론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의 역할을 넘어 일상생활에 버릴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장성화, 조경덕, 2010).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이미 전체 청소년의 약 95%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노충래, 김소연, 2016).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온택트(Online+Contact) 수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량이 크게 늘었으며(동아일보, 2020. 10. 29), 주의가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127만 29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019년 123,607명, 2020년 136,538명, 2021년 129,543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있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의존 위험군이란 스마트폰 이용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위험사용자군 청소년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 청소년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5.20.). 또래집단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친구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청소년기에는(노충래, 김소연, 2016), 문자나 전화를 민감하고 중요하게 여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보다 더 스마트폰 중독의 가능성이 크다(장석진, 2012).

스마트폰은 삶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장성화, 조경덕, 2010).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은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가 성인기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광숙, 신경실, 이훈민, 2017; Dimonte et al. 2006). 선행 연구들에서는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의존이 청소년의 신체·정서적 건강, 대인관계, 학교생활적응, 사회성 발달 등 여러 면에서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하는 구조적 관계를 밝혀오고 있다(김병년, 2013; 최진오, 2014; 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노연경, 2018; 신혜영, 2020; 이준형, 최응렬, 2020; Muhammad & Tariq, 2013).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 중심의 애착관계는 친구 중심의 애착관계로 점차 확장되는(이인정, 최해경, 2008; 이미숙, 민하영, 2013; 김은경, 김순규, 2015; 배민영, 2017; 정익중, 오정수, 2021) 한편, 독립시기 이전 단계에 있으므로(김광숙 외, 2017) 여전히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발달,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권미아 외, 2017). 또한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발달과 정신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남희, 윤영숙, 2017).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데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김영숙, 2019).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도를 높이며, 긍정적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병년 외, 2013; 김대명 외, 2015; 노충래 외, 2016; 김영숙, 2019). 다만 지금까지 연구는 이 두 변인 간에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여러 요인들과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부정적·긍정적 양육태도를 평행선으로 놓고 각각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횡단적 관계를 검증하거나(김광숙 외, 2017; 박혜정, 2020; 이영민, 권성연, 2021), 수용적, 따뜻함, 과잉간섭, 과잉기대 등으로 부모양육태도를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김남희, 윤영숙, 2017; 조강원, 임영식, 2020; 김혜준, 임규연, 2021) 주를 이루어왔다. 한편, 역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주목하여 이 요인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며(박영숙, 2018),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김수정 외, 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지속성과 변화 추이를 추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이지연, 정익중, 2016), 변인 간 관계에서 어떠한 변인이 원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김소영, 2016).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단기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김영숙, 2019), 이 둘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며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중학생은 초등학생, 고등학생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이 높은 학급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독립시기 이전 단계에 있으므로 부모가 성장·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광숙 외, 2017; 권미아 외,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 간의 종단적 상호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청소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는가?
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간에는 종단적 상호 영향 관계가 있는가?
3.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종단적 상호 영향 관계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스마트폰(converged phone)은 무선인터넷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PC처럼 애플리케이션을 받고 개인의 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으며,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정의는 어렵다(최원석, 2010). 다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로 미디어, 비즈니스 기능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휴대전화(feature phone)와는 차별성을 갖는다(김동일 외, 2012).

스마트폰은 네트워킹 어플을 통해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한다(김남희 외, 2017; Ogata, Izumi, & Kitaike, 2006).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통해 또래 친구와 소통하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 또래관계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 스마트폰에 의지하게 된다(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우수정,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에 스마트폰 이용은 소지하기 쉽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김해성, 조미숙, 2019), 게임, 인터넷 강의, 음악 듣기, 모바일 웹툰, 동영상, 타인과 정보공유 등 청소년의 오감을 자극하는 매체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유용한 정보검색 등 스마트폰의 용도가 확대되면서 기존 휴대전화와는 차원이 다른 의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노미정, 김진화, 이재범, 2010; 전상민, 2014). 따라서 최근 인터넷, 휴대전화, 온라인 게임 등과는 다른 새로운 중독의 형태로 스마트폰 중독을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김동일 외, 2012). 이와 같은 흐름을 타고 2010년 이후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 혹은 중독과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시력저하, 수면장애 등 신체건강과 우울, 불안, 공격

성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초래하고(노연경, 2018; Muhammad & Tariq, 2013), 자기통제력, 자아탄력성, 자기조절능력,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신혜영, 202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을 악화시킨다(최진오, 2014). 또한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병년, 2013) 사이버 비행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이준형, 최응렬, 2020)이 된다. 또한 스마트폰의 존은 청소년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며(김금순, 김은미, 2015),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이 감소하며 소외감이 증가하는 등(조수연, 2014; 정귀임, 김장희, 2016)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조수연, 2014)이 되기도 한다. 소외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에 의존하지만 대인관계에서 불화나 따돌림을 경험하게 되고, 소외와 고독감이 증가하는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이다(김남희 외, 2017).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들은 스마트폰의 크고 작은 역기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또래관계 등 대인관계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해 스마트폰을 제공하게 된다(김남희 외, 2017).

한편 스마트폰 의존도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김남희와 윤명숙(2017)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과잉간섭과 방임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더 높았으며,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이는 이용 용도를 살펴본 이하나와 양승목(2018)의 연구에서는 게임·오락이 남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이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사진촬영과 동영상 보기가 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중독실태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중독현상을 보였다(박혜진, 2013; 문두식, 최은실, 2015). 반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성별 차이는 중학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윤영숙, 2013).

스마트폰 이용률과 의존도 증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역기능적인 측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적 변화, 성별 차이 등을 생각해볼 때, 시간의 흐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스마트폰 의존도가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김소영(2016)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우울, 공격성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스마트폰 사용 정도와 정서문제는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서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 인과적 상보관계를 나타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 상/하위 25%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에 주목하여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2.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우울, 공격성 등 청소년 개인의 심

리·정서(노충래, 김소연, 2016; 박혜정, 2020), 협동심 등 행동양상(정철상, 2020), 부모의 양육태도(노충래, 김소연, 2016; 김남희, 윤명숙, 2017; 김광숙 외, 2017; 이영민, 권성연, 2021), 가족기능, 부모애착과 같은 가족 요인(이충효, 2015), 또래관계(김광숙 외, 2017; 최은영, 2020), 학교생활적응(이영민, 권성연, 2021) 등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행동양상, 대인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된다(노충래, 김소연, 2016; 김남희, 윤명숙, 2017; 전영준, 남태우, 2020; 조강원, 임영식, 2020; 이영민, 권성연, 2021).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게 나타나며, 반대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증가시킨다(노충래, 김소연, 2016; 김광숙, 신경실, 이훈민, 2017). 예를 들어 관심, 애정, 합리적 설명 등 긍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비일관적 양육태도, 과잉간섭, 방임 등 부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김남희, 윤명숙, 2017; 전영준, 남태우, 2020; 조강원, 임영식, 2020; 이영민, 권성연, 2021). 또한 부모가 자녀를 애정으로 대하고, 생활에 대해 적절한 지도와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낮추어준다(김광숙 외, 2017). 김남희와 윤명숙(2017)의 연구에서 부모의 과잉간섭, 방임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방임보다 과잉간섭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하나와 양승목(2018)의 연구에서 중학생은 부모의 감독과 관심, 애정, 합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를 지각할 때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아지며 반대로 과잉간섭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증가시켰다. 조강원과 임영식(2020)은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적절 하면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공간을 도피처로 삼아 심리적 만족과 정서적 지지를 얻으려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장미경, 이은경, 2007; 정인경, 김정현, 2017; 김남희 외, 2017). 반면 일부이긴 하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박혜정, 2020; 권성연, 2021). 박혜정(2020)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거부, 강요, 비일관성 등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영민과 권성연(2021)의 연구에서도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였으나 긍정적 양육태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원인으로 인지하여 접근한다.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로 이원화하거나, 구조제공, 파스함, 애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과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원화하여 살펴본 연구로는 구체적으로 김광숙 외(2017)는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박혜정(2020)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이영민과 권성연(2021)도 스마트폰 의존도,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면서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모양육태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남희와 윤명숙(2017)은 부모의 과잉간섭과 방임이 청소년의 또래소외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조강원과 임영식(2020)은 부모 양육태도를 일관적/비일관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의존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김혜준과 임규연(2021)은 학교급에 따라 양육태도의 일관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원인으로 놓고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구조적 경로를 탐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김남희 외, 2017). 역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원인으로 설정하여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우울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며(박영숙, 2018), 이들의 정서문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김수정 외, 2017), 스마트폰 의존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부정적 양육태도-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간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 변인의 지속성과 상호 영향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간 종단적 상호영향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연구모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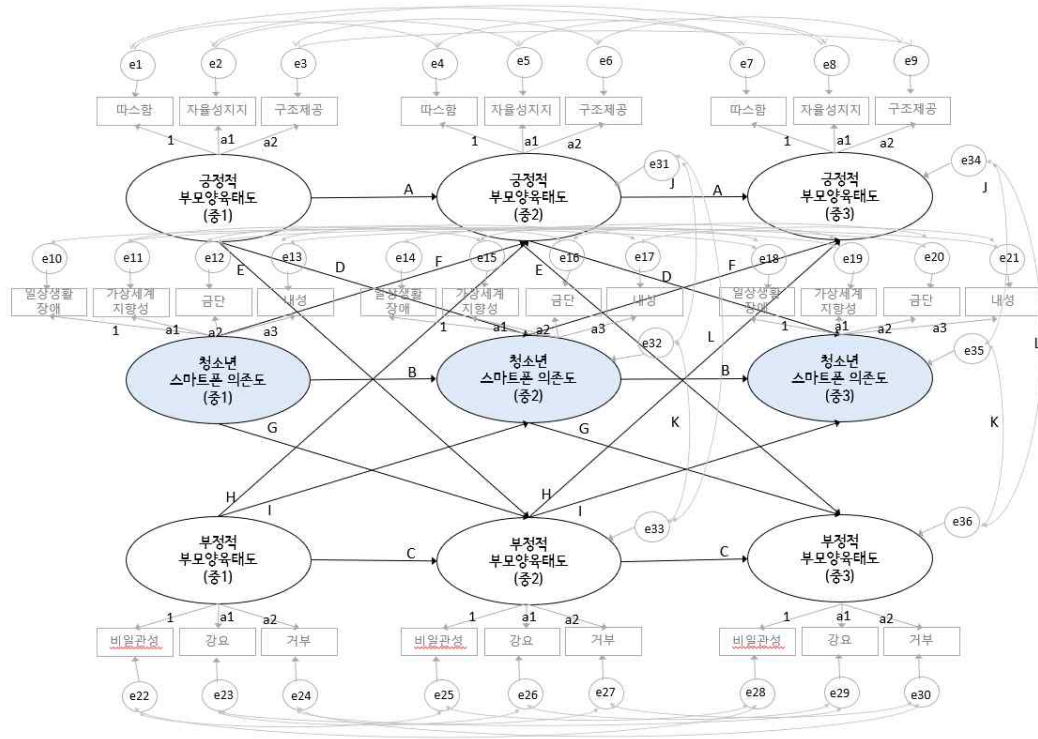


그림 24. 연구모형

3개의 주요 변인 간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으며, 16개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비교하여 모형적합도가 최적인 모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 모형1[기본모형] :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 모형2[측정동일] : 잠재변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측정변수 요인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a1, a2)
- 모형3[측정동일] : 잠재변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측정변수 요인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b1, b2, b3)
- 모형4[측정동일] : 잠재변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측정변수 요인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c1, c2)
- 모형5[경로동일] : 잠재변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A)
- 모형6[경로동일] : 잠재변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B)
- 모형7[경로동일] : 잠재변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C)
- 모형8[경로동일] : 잠재변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잠재변수 긍정적 부모

- 양육태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D)
- 모형9[경로동일] : 잠재변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잠재변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E)
 - 모형10[경로동일] : 잠재변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잠재변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F)
 - 모형11[경로동일] : 잠재변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잠재변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G)
 - 모형12[경로동일] : 잠재변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잠재변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H)
 - 모형13[경로동일] : 잠재변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잠재변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I)
 - 모형14[오차공분산] : 잠재변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오차공분산 사이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J)
 - 모형15[오차공분산] : 잠재변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간의 오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K)
 - 모형16[오차공분산] : 잠재변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간의 오차공분산 사이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L)

2. 연구대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패널 조사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간 종단적 상호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KCYPS 2018 중1 패널 1차~3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1차 조사인 2018년 대상자는 중1이며, 2차 조사인 2019년에 중2, 3차 조사인 2020년에 중3이다. 청소년기는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또래 집단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갖는데(장석진, 2012; 노충래, 김소연, 2016), 특히 중학생은 다른 학급 청소년에 비해 스마트폰 위험군에 속할 위험이 가장 높으며, 부모가 성장·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김광숙 외, 2017; 권미아 외,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21), 본 연구는 특별히 중학생에 초점을 맞춰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8-2020년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2,590명 중,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

존도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708명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2,2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청소년 2,242명과 그 보호자 2,242명이다.

3. 측정변수

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개발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 24문항 사용하였다.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이렇게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로, 거부, 강요, 비밀관성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이며, 각 4개 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평균이 높을수록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스함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겨신다' 4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2018(중1) .914, 2019(중2) .885, 2020(중3) .884 이다.

자율성 지지는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4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2018(중1) .885, 2019(중2) .864, 2020(중3) .863 이다.

구조제공은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4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2018(중1) .794, 2019(중2) .749, 2020(중3) .742 이다.

(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거부, 강요, 비밀관성이며, 각 4개 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평균이 높을수록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거부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4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2018(중1) .795, 2019(중2) .796, 2020(중3) .808이다.

강요는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4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2018(중1) .775, 2019(중2) .757, 2020(중3) .799 이다.

비밀관성은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4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2018(중1) .806, 2019(중2) .791, 2020(중3) .796 이다.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스마트폰 의존도는 김동일 외(2012)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일상생활 장애 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평균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역코딩 하여 투입하였다.

일상생활 장애는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2018(중1) .732, 2019(중2) .741, 2020(중3) .770 이다.

가상세계 지향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2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2018(중1) .553, 2019(중2) .663, 2020(중3) .657 이다.

금단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4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2018(중1) .754, 2019(중2) .760, 2020(중3) .735 이다.

내성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4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2018(중1) .798, 2019(중2) .764, 2020(중3) .776 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간 종단적 상호영향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주요 변인들의 변화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RCLM: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통해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의 종단적 상호영향관계 검증을 진행하였다. 가설 검증에 앞서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경로동일성(path coefficient invariance), 오차동일성(error covariance invariance)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았다(김원표, 2017). ① 측정동일성 검증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요인적재치를 동일하게 제약을 하여 시간의 변화에도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 살펴봄(김원표, 2017). ② 경로동일성 검증은 잠재변수 간 두 시점의 경로를 동일하게 제약을 하여 이전 시점의 잠재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와 이후 시점의 잠재변인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전현정, 정혜원, 2015; 송민영, 유성연, 이분새, 2017). 다시 말해 이전 시점인 [t-1]이 [t] 시점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t] 시점이 다음 시점인 [t+1]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유사한지 확인하는 것이다(김원표, 2017). ③ 오차공분산 동일성 검증은 오차항의 공분산(covariance)에 제약을 가함으로써(김원표, 2017) 오차의 독립성을 가정하여 잠재변인들의 연관성이 우연이 아닌 것임을 확인한다(김주환 등, 2009; 김원표, 2017; 송민영 외, 2017). 다음으로, 이 3가지 동일성 검증이 만족된 모형들 중, RMSEA(절대적합지수) 및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지수를 확인하여 경쟁모델 간 적합성을 비교하고 최적모형을 선정한다.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한 TLI, CFI, RMSE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백승희 외, 2014). TLI, CFI는 .90 이상을 나타낼 때 적합성이 좋음을 의미하며(홍세

희, 2000), RMSEA는 .05 이하일 때 매우 좋은 적합도, .05~.08 사이에 있을 때 양호한 적합도임을 의미한다(홍세희, 2000; 송민영 외, 2017; Browne & Cudeck, 1993; Schmaker & Lomax, 1996; Hu &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선정된 최적모형의 회귀계수를 추정하여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세 가지 요인의 시간에 따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각 경로에 대한 회귀계수를 확인하였다. 기술통계, 상관분석은 SPSS를 활용하였으며,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RCLM)의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 최적모형의 회귀계수 추정은 AMOS를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분석대상은 아동 2,242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여자 청소년이 53.5%, 남자 청소년이 46.5%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거주지역은 대도시 44.2%, 중소도시 40.9%, 읍면지역 14.9%로 80% 이상의 학생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응답이 91.9%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8.1%)보다 많았으며, 사교육은 받는다는 응답이 85.9%로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약 6배 많았다. 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월 평균 가구 소득은 500만 원 이상이 47.1%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미만이 1.4%로 가장 적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퍼센트)	구분		빈도(퍼센트)
성별	남자 청소년	1,308(46.5)	지역 규모	대도시	991(44.2)
	여자 청소년	1,502(53.5)		중소도시	916(40.9)
청소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못함	182(8.1)	월 평균 가구 소득	읍면지역	335(14.9)
	건강함	2,060(91.9)		100만원 미만	31(1.4)
				200만원 미만	113(5.0)
사교육	받음	1,926(85.9)		300만원 미만	192(8.6)
				400만원 미만	374(16.7)
				500만원 미만	475(21.2)
	받지 않음	316(14.1)	600만원 이상	1,054(47.1)	

n=2,242, 2018년(중1) 기준으로 작성함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인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3가지이다. 먼저, 청소년이 중1인 2018년 조사부터 중3이 되는 2020년 조사까지 측정된 주요변인은 왜도(skewness) 3 이하, 첨도(kurtosis) 7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송민영 외, 2017). 다음으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018년~2020년 측정된 3가지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간의 관계는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요인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변수		2018(중1)			2019(중2)			2020(중3)		
		1	2	3	4	5	6	7	8	9
2018 (중1)	1.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	1								
	2. 스마트폰 의존도	-.527***	1							
	3.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	-.259***	.334***	1						
2019 (중2)	4.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	.404***	-.289***	-.094***	1					
	5. 스마트폰 의존도	-.159***	.213***	.445***	-.284***	1				
	6.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	-.292***	.377***	.166***	-.562***	.366***	1			
2020 (중3)	7.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	.351***	-.240***	-.117***	.414***	-.128***	-.276***	1		
	8. 스마트폰 의존도	-.121***	.167***	.357***	-.136***	.481***	.180***	-.244***	1	
	9.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	-.208***	.281***	.130***	-.311***	.227***	.376***	-.500***	.353***	1
왜도		-.347	.210	.394	-.150	-.075	.223	-.150	-.100	.295
첨도		-.179	-.073	.116	-.111	-.095	-.300	.187	-.318	-.131
M(SD)		3.27 (.483)	2.04 (.488)	1.99 (.530)	3.16 (.468)	2.13 (.468)	2.01 (.527)	3.16 (.447)	2.18 (.491)	2.02 (.543)
M(SD) : 남자 청소년		3.28 (.478)	1.99 (.472)	2.02 (.538)	3.16 (.471)	2.10 (.456)	2.02 (.521)	3.15 (.447)	2.16 (.482)	2.04 (.546)
M(SD) : 여자 청소년		3.25 (.487)	2.09 (.501)	1.97 (.520)	3.16 (.466)	2.16 (.480)	2.00 (.534)	3.17 (.447)	2.20 (.500)	2.01 (.539)

n=2,242, *p<0.05, **p<0.01, ***p<0.001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1) 모형 적합도 검증

긍정적·부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종단적 상호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포함된 16개의 모형 각각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모형 적합도는 RMSEA 값이 .08 이하, CFI, TLI는 .90 이상으로 16개 모두 양호한 모형적합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RMSEA, CFI 차이를 비교하여 최적 모형을 선정하였다. 모형 간의 CFI 차이가 .01 이상이 아닌 경우 동일성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RMSEA 차이가 .015 이상이 아닌 경우 적합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Cheung & Rensvold, 2002; Chen, 2007; 송민영 외, 2017).

첫째, 측정동일성 검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도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 살펴보았다. 기본모형(모형1)과 측정동일성모형(모형2, 모형3, 모형4) 간의 적합도를 단계별로 비교한 결과, 모형2는 모형1에 비해 카이제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5$), TLI는 0.001 증가하였고, CFI와 RMSEA는 동일하였다. 전체적으로 모형 1에 비해 적합도가 좋아졌으며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다. 모형3은 모형2와 비교하여 카이제곱의 차이가 유의했으나($p<.001$), CFI의 변화량이 크지 않고 TLI와 RMSEA는 동일하여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4도 모형3과 비교하여 카이제곱의 차이가 유의했으나($p<.001$), CFI, RMSEA의 변화량이 크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즉,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시간의 변화에도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경로동일성 검증을 통해, 이전 시점의 잠재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와 이후 시점의 잠재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경로동일성은 자기회귀 경로동일성과 교차회귀 경로동일성으로 구분된다. 자기회귀(auto regression) 경로동일성 검증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잠재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며, 교차회귀(cross regression) 경로동일성 검증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김원표, 2017). 본 연구에서 자기회귀 경로동일성 검증은 모형5(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경로동일성), 모형6(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경로동일성), 모형7(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경로동일성)에서 이루어졌으며, 교차회귀 경로동일성 검증은 모형8(긍정적 부모양육태도 →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 모형9(긍정적 부모양육태도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모형10(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 →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모형11(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모형12(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모형13(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도 →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을 통해 확인하였다. 경로동일성검증을 살펴본 결과 모형6만 모형5와 비교하여 카이제곱의 차이가 유의했으며($p < .001$), 나머지 모형에서는 카이제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 > .05$). 또한 경로동일성을 살펴본 모형5에서 모형13의 TLI, CFI, RMSEA의 변화량이 크지 않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동일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잠재변인의 연관성이 우연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오차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모형14는 카이제곱의 차이가 유의했으나($p < .001$), 모형15, 모형16에서는 카이제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 > .05$). 또한 모형14~16 모두 TLI, CFI, RMSEA의 변화량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모형의 RMSEA, CFI, TLI 지수를 비교한 결과,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카이제곱 차이의 유의성이 없으면서 TLI, CFI, RMSEA 값이 기준에 적합한 모형16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지수는 $\chi^2=3066.786$ ($p < .001$), TLI=.902, CFI=.916, RMSEA=.057로, TLI와 CFI 값이 .90 이상이고 RMSEA도 .05~.08의 값을 나타내어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표 3.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적합도 검증

모형	χ^2	TLI	CFI	RMSEA	$\Delta\chi^2$	Δdf	ΔCFI	$\Delta RMSEA$
모형1	2965.834***	.898	.918	.058	-	-	-	-
모형2	2972.338***	.899	.918	.058	6.504	4	0	0
모형3	3023.791***	.899	.917	.058	51.453***	6	0.001	0
모형4	3038.463***	.900	.916	.057	14.672**	4	0.001	-0.001
모형5	3039.468***	.900	.916	.057	1.005	1	0	0
모형6	3049.803***	.900	.916	.057	10.335**	1	0	0
모형7	3049.893***	.900	.916	.057	0.090	1	0	0
모형8	3050.809***	.901	.916	.057	0.916	1	0	0
모형9	3050.869***	.901	.916	.057	0.060	1	0	0
모형10	3050.878***	.901	.916	.057	0.009	1	0	0
모형11	3052.599***	.901	.916	.057	1.721	1	0	0
모형12	3054.688***	.902	.916	.057	2.089	1	0	0
모형13	3055.138***	.902	.916	.057	0.450	1	0	0
모형14	3065.154***	.902	.916	.057	10.016**	1	0	0
모형15	3065.713***	.902	.916	.057	0.559	1	0	0
모형16	3066.786***	.902	.916	.057	1.073	1	0	0

n=2,242, * $p < .05$, ** $p < .01$, *** $p < .001$

2) 최종모형의 회귀계수 추정

본 장에서는 앞에서 선정된 최적모형(모형16)의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시간 경과에 따른 세 가지 주요 변인의 종단적 상호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각 경로에 대한 회귀계수를 확인하였다(표4, 그림2).

먼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중1→중2 $\beta=.384$, 중2→중3 $\beta=.384$, $p<.001$)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이후 시점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중1→중2 $\beta=.481$, 중2→중3 $\beta=.471$, $p<.001$),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역시 이후 시점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중1→중2 $\beta=.274$, 중2→중3 $\beta=.269$, $p<.001$).

다음으로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한 잠재변수 간의 교차회귀계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간 관계를 보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부적으로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중1→중2 $\beta=-.172$, 중2→중3 $\beta=-.161$, $p<.001$),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중1→중2 $\beta=-.110$, 중2→중3 $\beta=-.115$, $p<.001$).

또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상호 간 교차지연 효과를 비교해보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시점별로도 교차지연 효과의 차이가 상이하였는데,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는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시점에 큰 반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는 중학교 2학년 →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이후 시점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중1→중2 $\beta=.080$, 중2→중3 $\beta=.077$, $p<.001$). 그러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교차지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4. 최종모형의 회귀계수 추정치

경로	B	β	S.E	C.R
긍정적 부모양육태도(2018) → 긍정적 부모양육태도(2019)	.371	.384	0.024	15.276***
긍정적 부모양육태도(2019) → 긍정적 부모양육태도(2020)	.371	.384	0.024	15.276***
스마트폰 의존도(2018) → 스마트폰 의존도(2019)	.476	.481	0.019	24.477***
스마트폰 의존도(2019) → 스마트폰 의존도(2020)	.476	.471	0.019	24.477***
부정적 부모양육태도(2018)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2019)	.278	.274	0.030	9.331***
부정적 부모양육태도(2019)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2020)	.278	.269	0.030	9.33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2018) → 스마트폰 의존도(2019)	-.011	-.014	0.020	-0.546
긍정적 부모양육태도(2019) → 스마트폰 의존도(2020)	-.011	-.013	0.020	-0.546
부정적 부모양육태도(2018) → 스마트폰 의존도(2019)	.031	.037	0.023	1.348
부정적 부모양육태도(2019) → 스마트폰 의존도(2020)	.031	.037	0.023	1.348
스마트폰 의존도(2018) → 긍정적 부모양육태도(2019)	.033	.027	0.023	1.450
스마트폰 의존도(2019) → 긍정적 부모양육태도(2020)	.033	.028	0.023	1.450
스마트폰 의존도(2018)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2019)	.097	.080	0.024	3.987***
스마트폰 의존도(2019)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2020)	.097	.077	0.024	3.987***
긍정적 부모양육태도(2018)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2019)	-.166	-.172	0.025	-6.52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2019) → 부정적 부모양육태도(2020)	-.166	-.161	0.025	-6.52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2018) → 긍정적 부모양육태도(2019)	-.112	-.110	0.028	-4.070***
부정적 부모양육태도(2019) → 긍정적 부모양육태도(2020)	-.112	-.115	0.028	-4.070***

n=2,242,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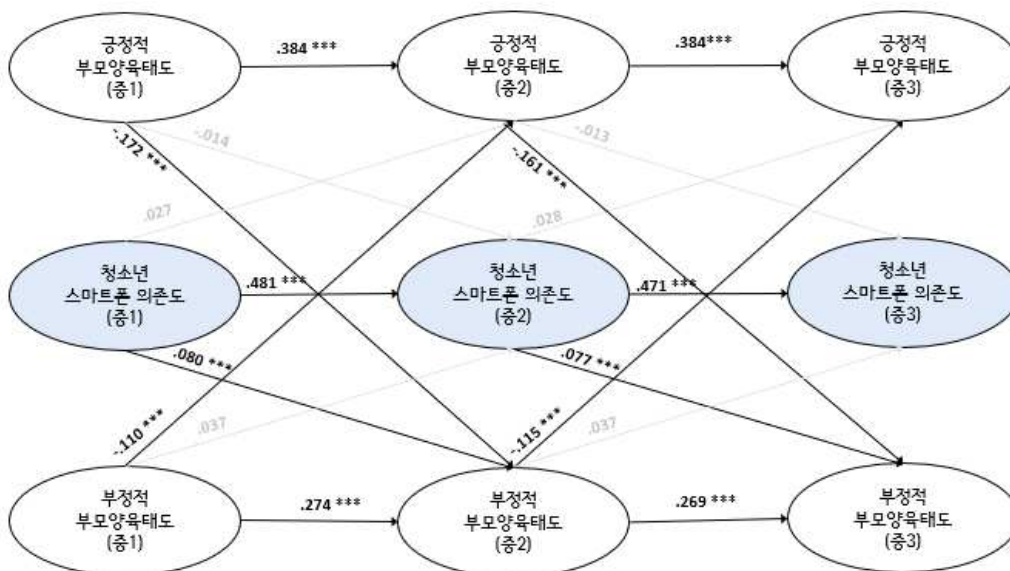


그림 25. 최종모형 회귀계수(남자·여자 청소년 전체)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의 성별차이

본 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시간 경과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의 상호영향관계에 대한 성별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남자 청소년은 1,308명(46.5%), 여자 청소년은 1,502명(53.5%)이다.

먼저,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모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이후 시점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교차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모두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간 교차지연 효과를 비교하면,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이후 시점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컸으나, 반대로 여자 청소년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컸다. 시점별로 비교하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이후 시점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시점에 크게 나타난 반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이후 시점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상호영향 효과를 확인한 결과 성별 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에서는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가 이후 시점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로만 유의하였다($\beta = -.087$, $\beta = -.082$, $p < .001$). 즉,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남자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 외의 다른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반대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가 이후 시점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이후 시점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적인(+) 교차지연 효과가 나타났다.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이후 시점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를 높였으며($\beta = .063$, $\beta = .062$, $p < .05$),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도 강화하였다($\beta = .108$, $\beta = .105$, $p < .001$). 다만 이 외의 다른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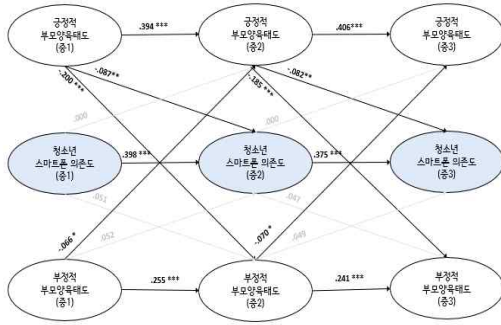


그림 26. 남자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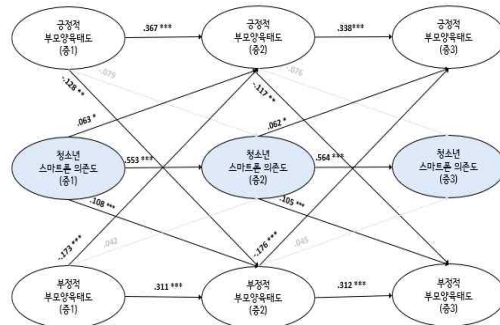


그림 27. 여자 청소년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간 종단적 상호영향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함이다. 자기회귀교차지연 검증을 통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 가지 주요 변인의 상호영향을 확인하였다. 의미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자기회귀효과가 나타났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고, 부정적 양육태도 역시 이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이성희와 윤지영(2016), 고은선과 전한성(2021)의 연구에 일치하는 결과이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요인이므로 부정적 양육태도를 낮추기 위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가 이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고 반대로 부정적 양육태도가 이후 시점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교차지연효과도 확인되었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개입의 방향성을 제안하면, 부정적 양육태도를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긍정적 양육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부정적 양육태도를 상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력이 있음을 안내하고 이런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부모가 가진 강점을 파악

하고 부정적면을 감소하기 위한 개별 부모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태도가 시간의 흐름에도 안정적인 속성을 보이므로 학교 내 사회복지사, 상담교사 등 복지전문 인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이창숙, 2021) 장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중1→중2 시점에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가 큰 반면, 중2→중3 시점에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부모 교육과 상담의 시점은 부정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커지는 중2→중3 시기보다는 긍정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큰 중1→중2 시점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에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양육태도의 역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학년이 증가함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자기회귀효과를 보였으며, 스마트폰 의존도가 이후 시점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한 번 형성되면 학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하며,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밝힌 김소영(201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이후 시점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다른 학급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 의존과 중독이 심화될 위험이 높은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여기에 더해 스마트폰 의존도가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속성이 있어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는 스마트폰 의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미 의존성이 확인된 경우 과의존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도록, 또한 스마트폰 의존의 결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외에도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적, 신체적 어려움과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노충래, 김소연, 2016; 김광숙 외, 2017; 박혜정, 2020; 최은영, 2020; 이영민, 권성연, 2021). 따라서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청소년 행동문제에 다면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두 변인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어 부정적 측면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사회 청소년미디어센터, 심리치료센터와 연계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 종단적 상호영향 관계에 성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남자 청소년보다 컸으며,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하다(김도연, 양혜정, 2014; 김소영, 홍세희, 2014; 김남희 외, 2017).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스마트폰 의존도가 이후 시점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회귀효과에도 성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됨을 의미하므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교차지연효과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남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었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강화하였으며,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으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도 높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면 남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긍정적 양육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지원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여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양육태도 보다는 학업에 대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거나 관계중심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등(최경일, 김미영, 2016) 기존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요인들에 개입함으로써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이므로 이 두 개의 변인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어 강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게임과 오락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남자 청소년과 달리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관계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특성의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사하게,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의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최경일, 김미경, 2016). 하나는 대인관계의 폭이 좁은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므로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다는 의견이고(박지영 등, 2012), 다른 하나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이 사교적인 성품으로 타인과의 교류를 위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다는 관점이다(이해경, 2006; 한승수, 오경수, 2006; 최경일, 김미경, 2016). 본 연구 결과 중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이는 결과가 나타난 것도, 청소년기의 외로움 등 심리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혹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교류를 위해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이러한 경향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이는 결과로 도출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

의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원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적합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장신재, 양혜원, 2015), 이런 내용이 부모교육과 상담, 훈련 등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를 원인으로 놓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해 온 기존의 연구 방향성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행동문제가 원인이 되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를 하나의 모형 안에 포함하여 청소년기의 성장에 따른 상호영향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 차별화된 사회복지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청소년의 가정 내 거주 시간이 길어지고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다만 부모의 양육태도 외에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된 또래관계, 심리·정서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여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방임과 과잉간섭, 방임/학대 등 부모 양육태도를 세분화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와의 상호영향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패널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을 전제로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도 집단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거나,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비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빈곤가정 청소년까지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고은선, 전한성.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간의 종단 관계 연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학부모연구**, 8(1), 95-1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김광숙, 신경실, 이훈민. (2017). 융복합시대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

- 문지, 7(4), 139-149.
- 김금순, 김은미. (2015).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8, 33-57.
- 김남희, 윤명숙. (2017). 과잉간섭과 방임이 청소년의 또래 소외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지역과 세계**, 41(2), 283-312.
- 김도연, 양혜정. (2014). 청소년기 휴대폰 의존의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169-197.
-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민, 남지은.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 김병년. (2013). 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4), 208-217.
- 김병년, 최홍일. (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1-25.
- 김소영.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우울, 공격성의 종단적 관계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적용. **중등교육연구**, 64(2), 315-336.
- 김소영, 홍세희. (2014). 중학생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추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3), 101-123.
- 김원표. (2017). **다시 쓰는 통계분석 구조방정식모델분석**. 와이즈인컴퍼니.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pp.313-333.
- 김해성, 조미숙. (2019). 청소년의 결속적 사회자본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7, 129-154.
- 노미정, 김진화, 이재범. (2010). 스마트폰과 서비스 컨버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5(4), 59-77.
- 노언경.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문제연구**, 31, 141-168.
- 노충래, 김소연. (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이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4), 87-114.
- 동아일보. (2020. 10. 29.) “코로나로 스마트폰 중독 늘었다”...‘2020 중독 치유 해법 포럼’ 열려.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01029/103703631/1>.
- 류미숙, 권미경. (2011). 휴대폰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차이 비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4(2), 76-83.
- 문두식, 최은실.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0), 213-236.
- 박금식, 김현지, 허두진. (2013). **부산지역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위탁보호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순진, 최서래. (2019). 부모양육태도가 신입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융복합시대에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융복합정보논문지**, 9(6), 121-129.
- 박주나, 전종설.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0, 127-160.
- 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151-169.
- 박혜정. (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406-416.
- 박혜진. (2013). **청소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과 중독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소진, 오홍석.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5), 31-54.
- 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5(4), 167-188.
- 성은모, 진성희. (201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휴대폰 활용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4), 389-415.
- 송민영, 류성연, 이분새. (2017).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내재화문제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효과 검증. **육아지원연구**, 12(4), 65-93.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5. 20).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
- 오혜진, 지연경. (20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여자 청소년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알파결과 일반 여자 청소년 집단 간의 비교. **열린부모교육연구**, 10(2), 159-181.
- 우수정. (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6), 583-590.
- 윤영숙. (2013).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라, 전향신. (2020). 부모의 양육태도(파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릿,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와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779-805.
- 이미숙, 민하영. (2013).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

- 아탄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1-9.
- 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9(2), 69-102.
- 이성희, 윤지영. (2016).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학생의 정서문제와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461-480.
- 이어리, 이강이.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1(2), 27-39.
- 이영민, 권성연. (202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의존도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1(1), 308-324.
- 이왕원, 민혜영. (2015). 고교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구관여의 완화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2(4), 49-79.
- 이인정, 최해경. (200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
- 이준형, 최응렬. (2020).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 부모 · 교사 · 또래애착의 병렬적 다중매개효과 검증.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0(3), 23-40.
- 이지언, 정익중. (2016). 청소년기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간 상호적 영향관계. **학교사회복지**, 33, 75-93.
- 이창숙. (2021). 학교 내 복지 전문 인력의 직무특성과 사례관리수행에 관한 연구 : 학교사회복지사와 교육복지사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3, 81-106.
- 이충효. (2015). **초·중·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나, 양승목.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영향 변인의 관계에 대한 학령 및 성별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62(5), 175-214.
- 이해경. (2006).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2), 291-321.
- 장미경, 이은경. (2007).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욕구와 부모관련변인이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125-1138.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장성화, 조정덕. (2010). 청소년의 우울, 대인불안, 학교적응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285-293.

- 장신재, 양혜원. (2015). 부모의 방임과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관계에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2), 133-156.
- 전상민. (201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3), 301-312.
- 전영준, 남태우. (2020).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 온·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8(12), 139-151.
- 정귀임, 김장희. (2016). 중학생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3(3), 599-614.
- 정문경, 오은주.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2), 83-93.
- 정영준, 남태우. (2020).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 온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8(12), 139-151.
- 정익중, 오정수. (2021). **아동복지론**. 학지사.
- 정인경, 김정현. (2017). 중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8(2), 289-300.
- 정철상. (2020). 청소년의 협동심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 활동 참여 만족도, 자율성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219-239.
- 조강원, 임영식. (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의존도의 매개효과와 친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2(4), 159-181.
- 조수연. (2014).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대인불안의 매개 효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황정은. (201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4), 27-52.
- 차지은, 홍상황. (2017).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 자기자비를 통한 우울의 매개된 조절효과. **초등상담연구**, 16(3), 261-284.
- 최경일, 김미영. (2016).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친구관계와 학업태도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109-133.
- 최원석. (2010). **스마트폰 기능적 속성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은영. (2020).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5), 433-459.

- 최태산, 김자경. (2016). 부모의 과잉간섭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3), 393-414.
- 한승수, 오경수. (2006). 대인관계 유형과 사용경향에 따른 이동전화 중독 성향 연구: 대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4), 371-405.
- Dimonte, M., & Ricchiuto, G. (2006). Mobile phone and young people. A survey pilot study to explore the controversial aspects of a new social phenomenon. *Minerva pediatrica*, 58(4), 357-363.
- Muhammad, S., & Tariq, R. S. (2013). Impact of smartphone's on society. *European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98(2), 216-226.
- Ogata, Y., Izumi, Y., & Kitaike, T. (2006). Mobile phone e-mail use, social networks, and loneliness among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Japanese Journal of Public Health*, 53(7), 480-49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종단적 상호영향 관계: 성별 차이’에 대한 토론문

김세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본 논문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 및 부정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종단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일방적으로 인과관계를 결정하지 않고 변인 간의 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해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했고, 스마트폰 의존 양상이 남녀 청소년이 다르게 나타난(여성가족부, 2021) 것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증적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실천적 및 정책적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러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같은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불안, 애착 등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특성과 같은 관련 요인을 포함, 분석하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의 종단적 상호영향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 연구 문제이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는데 있어 남녀 전체를 모두 포함하여 적합도를 비교한 후 최적의 연구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남녀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선택한 연구모형이 반드시 남자와 여자 집단별로도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집단별로 경쟁모형을 분석 후 선택한 최적의 모형이 남녀 집단 모두에서 동일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동일한 모형이 남녀 집단에 모두 적절해야만 추정치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성별에 따라 부모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에 있어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부모양육 태도 간 교차지연 효과 비교 결과,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부모양육 태도가 이후 시점의 부정적 부모양육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은 긍정적 부모양육 태도가 이후 시점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가 이후 긍정적 부모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 부모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적인 교차지연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가 이후 긍정적 및 부정적 부모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두 정적인 교차지연효과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밝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국의 만 15~18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사용 그룹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38%에서 코로나19 이후 63.6%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2021). 최근 들어 스마트폰 과사용 청소년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청소년이 과의존이나 중독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습환경이나 놀이문화, 또래관계 등의 변화로 인해 스마트폰 이용은 청소년의 생활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반적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이 있는 변인을 찾기보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 및 성별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스마트폰 과의존 또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지나친 스마트폰 의존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습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은 일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입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별에 따라 부모의 효과적인 양육 태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그릿의 매개효과

이원레*, 한천우**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업열의와 그릿을 매개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의 중1 패널 1차년도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574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초통계 분석과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와 설정한 가설모형이 적합한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그들의 학업열의와 그릿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부모양육태도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그릿 수준은 모두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업열의와 그릿은 모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긍정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닌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부모양육태도, 그릿, 학업태도, 자아존중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과정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chan@kmu.ac.kr

I. 서론

청소년기는 사회와 현상을 지각하는 능력이 성인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달해가고, 가족, 친구, 교사 등과의 관계를 통해 작게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크게는 사회 전반에 대한 태도를 다지고 확고히 해나가는 시기이다. 또한, 내면적으로는 학업 및 대인관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학교 내에서 소속감과 가치감을 경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 탐색 혹은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생각해보는 시기이다. 많은 내면적 가치들이 유기적·통합적으로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은 여러 내적 가치들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도록 돕는 심리정서 요인이며, 계속적인 발달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김기승과 함혜수(2019)는 자아존중감이 아동·청소년기 성장발달을 돕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중심적 발달 요소라 하였으며, 이순희와 허만세(2014)는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 학습동기, 학교적응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에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이해되며, 학업 및 성격 발달, 대인관계, 자기 통제, 자아실현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임선희, 명재신, 2016).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심리사회적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며(김경수, 김화경, 2011; 박혜숙, 2019),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우울, 비행, 공격성 등의 문제들과 관련된다고 보고된다(김기승, 함혜수, 2019).

이처럼, 자신에 대한 가치 이해로부터 전생애적 삶의 태도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변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고되어 왔다. 예컨대, 가영희, 조민자와 임성우(2008)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경수와 김화경(2011)은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정적으로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정미선(2010)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 부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모의 성취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 변인 간에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개인의 비인지적 요인들이 두 변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최근 10여 년 동안, 학업성취와 진로, 결혼, 행복 등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정서적 변인으로서 그릿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주로 그릿은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 김진아(2020)는 그릿이 학습시간,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함을 밝혔고, 임효진(2019)은 그릿이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함에 있어 하위요인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가 차별적인 예측력을 가짐을 보고했

다. 이와 함께 학업적 성취 이외에도 그릿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성취(진로, 직업, 행복, 삶의 만족)를 예측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 정철상(2020)은 그릿이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박상미, 박응임(2019)의 연구와 박진주, 김은정, 이슬이(2020)의 연구에서는 각각 그릿이 청소년의 행복감과 대학생의 행복감을 정적으로 예측함을 보고했다. 또한 그릿 수준을 예측하는 환경적 변인들 중 부모변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그릿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수준이 높아지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송홍정, 2020; 엄태순, 윤미선, 2020). 그릿이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신의 가치감에 대한 이해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기에,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그릿의 유의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와 그릿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고등학생의 성장신념 및 부모양육태도가 그릿을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예측함을 확인한 연구가 있지만(하정혜, 한천우, 2021),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과 학업적 노력 및 흥미유지 면에서 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초기 청소년기에서의 관계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학업열의는 학업성취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학업태도 변인 중 하나이다. 유선옥과 박혜영(2016)은 대학생의 학업열의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이영, 정지은, 박미란과 어윤경(2021)은 중학생의 학업열의가 그릿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함을 보고하였다.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사회적 요인(부모관계, 교사관계, 또래관계) 중 부모 맥락에서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열의 수준을 높이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열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진, 최려나 2020, 최영미 2020).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화, 2015)과 그릿(하정혜, 한천우, 2021)이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매개함을 보고하고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김아영, 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릿 또한,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으로 정의되며, 그릿이 높은 학습자는 장기적인 목표에 관심이 많고,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Duckworth & Quinn, 2009; 임효진, 2019). 학업 수행과 관련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그릿이 가진 목표 지향적이며 노력 지속적인 특성은 학업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자신감을 갖고 학업에 몰두하는 학업열의의 특성과 맥을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학업열의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예상하여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열의와 그림이 매개하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태도 및 그림이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태도와 그림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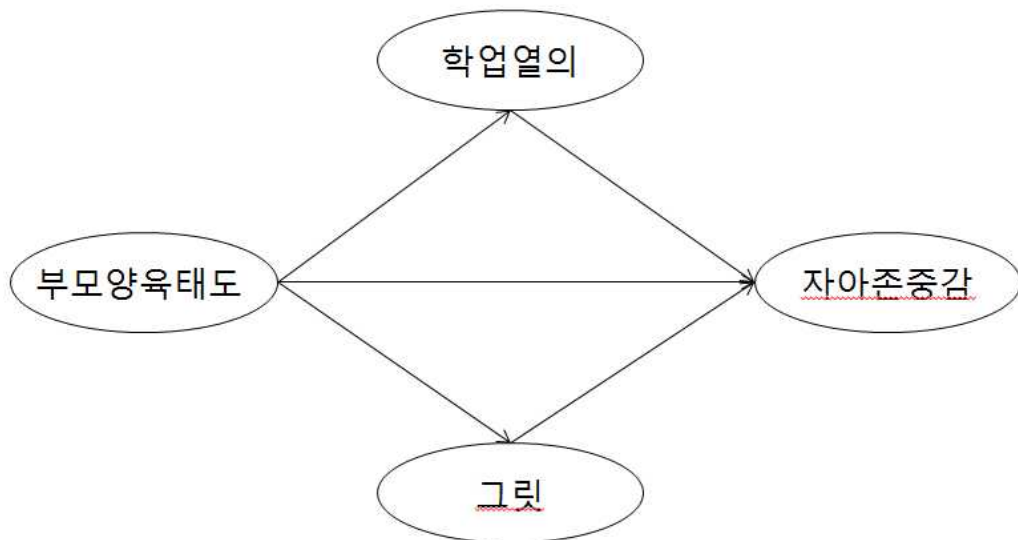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가설 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 양육에 나타나는 부모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 및 태도이자 반응양식이며(정미선, 2010),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심리적·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양식이다(임선희, 명재신, 2016).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적, 정의적, 인성적 특성들뿐만 아니라, 성취 및 학업동기,

성장신념, 자아존중감에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예측하고(고미숙, 2016; 김민형, 2018; 차한솔 등, 2019),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 우울,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아란, 심석, 유진희, 김상하, 신성만, 2020; 반지윤, 오인수, 2020; 이의빈, 권서영, 김유이, 임수지, 2021).

1980년대 이후부터, 부모양육태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적용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를 기초로 하며, 이 욕구들이 충족될 때 개인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적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Deci & Ryan, 1985; Deci & Ryan, 2000). 자녀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재적 동기를 함양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맥락이 되는 부모는 적절한 수준에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행동지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하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Grolnick, Deci & Ryan, 1997). 국내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이론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김소현과 김아영(2012)은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하여 자율성지지, 관여, 구조제공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김태명과 이은주(2014)는 부모의 자율성 부여가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파스함과 거부, 자율지지와 강요, 구조제공과 비일관성의 6요인으로 구성된 양육태도척도를 타당화 하였다(김태명, 이은주, 2017b).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부모의 파스함은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서로 따뜻한 정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Grolnick & Ryan, 1989). 부모의 파스함을 통해 관계성 욕구가 충족된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와 기대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rolnick, Deci & Ryan 1997). 또, 학교생활과 성취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Hill & Tyson, 2009; Jeynes, 2005), 이미라와 전향신(2020)은 부모의 파스함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부모의 파스함은 자녀의 적응행동과도 관련되며, 부모의 파스한 양육을 높게 지각하는 자녀는 학업에 더욱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유능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Gonzales, Willems & Holbein, 2005).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자녀의 관점과 시각을 수용하고 가능하면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녀의 개인적인 가치나 흥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양육특성을 의미한다(Grolnick, 2002).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적을 높이

고(Grolnick, Ryan & Deci, 1991), 정서조절, 학습문제 등의 부적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rolnick, Deci & Ryan, 1997). 비슷한 맥락에서 최수진과 김명숙(2019)은 부모의 자율성지지 학업지원행동이 자녀의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부모의 구조제공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포함한 일관된 지침을 주고 분명한 피드백을 제공(Farkas & Grolnick, 2010)함으로써, 과제수행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Skinner & Belmont, 1993). 구조제공은 자녀의 유능감, 통제감, 학교 참여 및 학업수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rolnick & Ryan, 1989), 높은 수준의 구조제공은 피드백을 통해 도전과 자기조절학습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ierens, Vansteenkiste, Goossens, Soenens & Doch, 2009). 김태명과 이은주(2017a)의 연구에서 부모의 구조제공적 양육태도는 학업, 정서, 행동, 사회적 적응의 모든 영역에 대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명숙(201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구조제공은 자녀의 자율적 동기와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학업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업열의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동기적인 마음 상태로, 학업으로부터 열정과 가치, 의미를 느껴 학습에 높은 집중을 하게 하는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을 의미한다(Schaufeli, Martez, Pinto, Salanova & Bakker, 2002a). Schaufeli et al.(2002a)은 학업열의를 헌신, 활기, 몰두의 3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자영과 이상민(2012)은 효능감 요소를 더하여 4요인(헌신, 활기, 몰두, 효능감)의 한국형 학업열의척도를 개발하였다. 학업열의의 4요인 중, 헌신은 공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관련되며, 활기는 공부를 할 때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인 에너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업에 대한 열정과도 관련된다. 효능감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몰두는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잊을 정도의 고도의 집중을 의미한다.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해 흥미와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훈희, 황영신, 2019; 이시혜, 하문선, 2021; 이은경, 이선희, 2021). 또한, 학업열의와 관련된 환경적 변인 중, 부모 맥락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한 자녀는 학업열의 수준이 높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한 자녀는 학업열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하람, 2021; 이승진, 최려나, 2020; 최영미, 2020). 부모의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은 모두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미라, 전향신, 2020), 특히, 자녀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는 부모의 구조제공은 높은 학업열의를 가지

게 해주고, 이것은 다시 높은 학업성취를 이끈다고 하였다(이은경, 이선희, 2021). 이러한 학습에 대한 열정과 집중이 가져오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는 학업 수행 중에 있는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자아존중감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백예은, 정혜원, 2021) 중학생의 교사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학업열의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연구(남지영, 정혜원, 2021)와 같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 또, 학업적 높은 성취를 예상하게 해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화, 2015)과 그릿(하정혜, 한천우, 2021)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통해 학업열의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예상되어 본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3. 그릿

그릿은 Duckworth, Peterson, Matthews and Kelly(2007)에 의해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열정과 인내"로 소개된 이후, 학업성취와 진로, 행복 등 다양한 결과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적인 요인으로 연구·발전되어 왔다(임효진, 2017). 그릿은 개념적으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의 두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는데, 흥미유지는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특성을 말하며, 노력지속은 목표달성을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긴 시간동안 노력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특성이 다(Duckworth & Quinn, 2009).

그릿은 대학생들의 평점과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Duckworth et al., 2007) 중·고등학생들의 성적을 정적으로 예측함으로써(Duckworth & Quinn, 2009), 교육학적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국내 연구에서도 그릿은 높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이수란과 손영우(2013)는 고등학생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했으며, 임효진(2019)은 대학생의 그릿 수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보고했다. 그릿 발달의 영향요인과 결과요인을 검증한 김진아(2020)의 연구에서도 그릿이 높을수록 학습시간과 학업성취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그릿이 높은 학생은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높고, 학교적응력이 뛰어나며,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및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정혜, 한천우, 2021; 한천우, 2021; Duckworth, Kirby, Tsukayama, Berstein & Ericsson 2011).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인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은 그릿이 진로, 직업

유지 및 직업성취, 회복탄력성,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 다양한 영역을 정적으로 예측함을 보고하고 있다. 한천우(2020)는 전문대 대학생들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짐을 보고했다. 한미라와 김광수(2018)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유아 교사들의 직업적 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했으며, 장봉석과 김진철(2020)은 교사들의 그릿 수준이 그들의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함을 보고했다. 최영미(2020)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예측하는 그릿이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라 기대하고 모형을 설정하였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각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는가의 정도이며(Rosenberg, 1965),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요하고 유능하며 성공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정도이다(Coopersmith, 1967). 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적 의미가 부가된 것이며(장연심, 2003), 자기 자신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특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말한다(배인수, 2004).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삶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 학교적응,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 건강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적 기제이다(박혜숙, 2019; 최미경, 2010; 하정혜, 한천우, 2021).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안정된 정서와 함께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여 열등감을 느끼거나 위축되어 있으며, 자신감 저하로 인해 문제해결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숙, 장은희, 2006; Chubb, Fertman & Ross, 1997; 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기 평가 및 타인의 평가와 관련된다. Coopersmith(1967)는 객관적인 개인의 성취와 중요한 타인들의 수용 및 관심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조절 요인이라 하였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윤희봉(2003)은 사회적 비교를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주변 인물들로부터의 반응과 평가는 자아존중감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타인에는 부모가 필연적으로 포함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과 관심, 평가,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예측함을 보고하고 있다(가영희 등, 2008; 김경수, 김화경, 2011; 하정혜, 한천우, 2021). 박혜숙(2019)은 자아존중감이 부모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김기승과 함혜수(2019)는 부모의 애정적·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예측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을 설정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개인의 비인지적 요인인 학업열의와 그릿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중1 코호트의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KCYPS 2018은 교육부의 2017 교육기본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통해 패널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총 5,197명(초4 2,607명, 중1 2,590명)이 학생 패널로 선정되었으며, 그들의 부모 중 한 명도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중학교 1학년 2590명의 자료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57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부모양육태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kinner, Johnson and Snyder(2005)가 개발한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_A)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b)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6가지 하위요인 중,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의 4점 Likert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

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 Chronbach α 값은 타스함 .91, 자율성지지 .89, 구조제공 .80으로 나타났다.

2) 학업열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학업열의를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Salanova, González-romá and Bakker(2002b)가 개발한 학생용 학업열의척도를 이자영과 이상민(2012)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의 4가지 하위요인이 각각 4문항씩, 총 16문항의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Chronbach α 값은 .93, 하위요인별로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는 각각 .84, .88, .91, .83으로 나타났다.

3) 그릿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와 Quinn(2009)이 개발한 Grit-s 척도를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번역한 한국판 아동용 그릿 척도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 하위요인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이 각각 4문항씩 총 8문항의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유지의 4문항은 부정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문항 처리하였다. 신뢰도 Chronbach α 값은 전체 .72, 하위 요인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은 각각 .70과 .64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원문항(Self-Esteem Scale)을 변안하여 활용한 KCYPS(2010)의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였다.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총 10문항의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부정 질문은 역문항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신뢰도 Chronbach α 값은 .87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열의 및 그릿 수준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SPSS 2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인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상관관계 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연구변인의 속성을 살펴보고 변인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Amos 2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연구모형 적합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어서,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개인의 학업열의와 그릿이 성공적으로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초통계량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 측정 변인들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1.과 같다. 모든 변인들에 대해서 왜도는 절댓값 2, 첨도는 절댓값 7을 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Kline, 2015).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16에서 .87 사이의 값을 가지며,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분포를 보였다. 각 변인의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는데, 부모양육태도, 학업열의, 그릿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은 각각 .54~.73, .50~.62, .33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파스함과 자율성지지는 .73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1. 기초통계량과 상관분석 결과

연구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부모양육태도	-												
따스함	.87*	-											
3. 자율성지지	.87*	.73*	-										
4. 구조제공	.80*	.54*	.54*	-									
5. 학업열의	.36*	.33*	.32*	.27*	-								
6. 헌신	.37*	.36*	.36*	.28*	.81*	-							
7. 활기	.29*	.25*	.26*	.23*	.83*	.62*	-						
8. 효능감	.26*	.27*	.23*	.18*	.81*	.50*	.51*	-					
9. 몰두	.27*	.24*	.23*	.21*	.84*	.58*	.61*	.60*	-				
10. 그릿	.35*	.31*	.32*	.26*	.50*	.41*	.41*	.41*	.41*	-			
11. 흥미유지	.22*	.20*	.21*	.16*	.36*	.26*	.32*	.29*	.31*	.82*	-		
12. 노력지속	.34*	.31*	.32*	.26*	.45*	.41*	.35*	.37*	.37*	.81*	.33*	-	
13. 자아존중감	.49*	.46*	.44*	.36*	.44*	.40*	.32*	.41*	.29*	.54*	.38*	.50*	-
평균	3.26	3.37	3.35	3.06	2.47	2.89	2.17	2.43	2.40	2.66	2.62	2.70	2.99
표준편차	0.49	0.58	0.58	0.54	0.55	0.63	0.67	0.73	0.65	0.44	0.55	0.53	0.50
첨도	0.04	0.10	0.14	0.71	0.30	0.38	0.07	0.28	0.25	0.37	0.17	0.38	0.20
왜도	0.39	0.55	0.54	0.28	0.05	0.34	0.31	0.01	0.03	0.33	0.24	0.01	0.21

**p<.01

2.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2단계 구조방정식 방법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먼저 각 측정 문항들이 잠재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b)가 타당화한 부모양육태도척도의 긍정적 하위요인들을 2차 요인(second-order factor)으로 측정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학업열의 또한 이자영과 이상민(201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4가지 하위요인을 2차 요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그릿은 2차 요인 모형이나 2요인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최근의 연구를 따라(한천우, 2020) 원 척도의 모형인 2차 요인 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측정 모형 검증 후 필요시에 모형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CFI=.93, TLI=.93, RMSEA=.04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Kline, 2015). 자아존중감의 8번째 측정 문항에 대한 표준화 계수 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응답자들에게 다소 모호하게 느껴진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 측정 문항을 제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측정모형은 CFI=.93, TLI=.93, RMSEA=.04로 앞선 측정모형과 동일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각 잠재 요인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35 이상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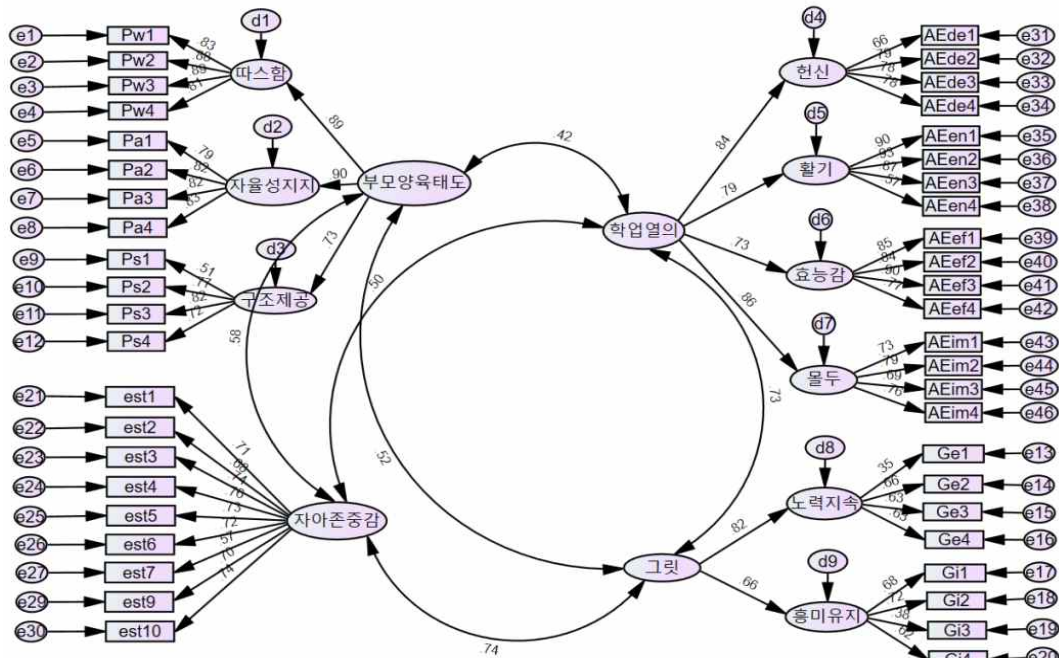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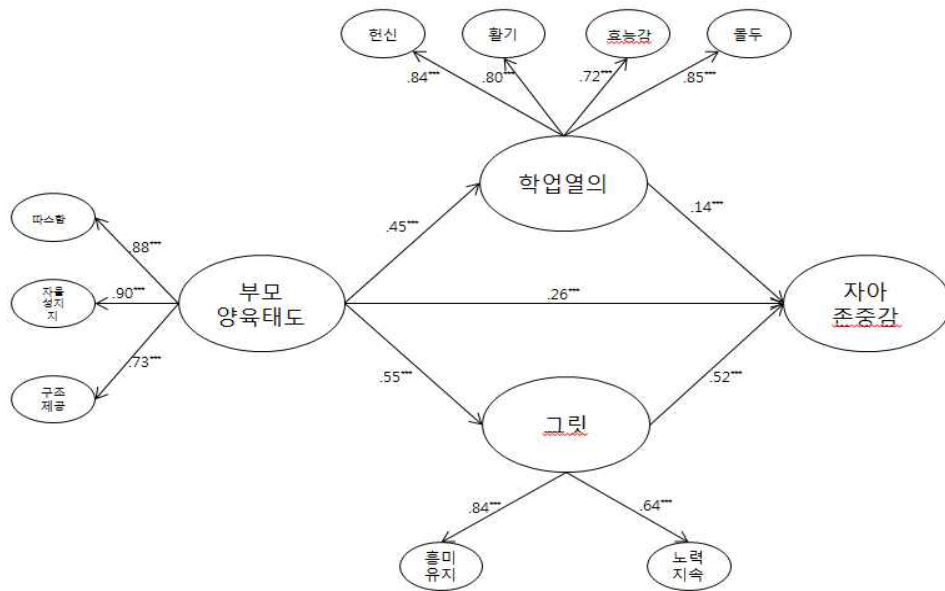


그림 2. 측정 모형과 표준화 계수 부하량

수정된 측정모형에 잠재 요인 간의 인과 관계를 추가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CFI=.93, TLI=.92, RMSEA=.05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본 구조방정식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연구모형의 모든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그림3.에 제시된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에 나타나는 것처럼, 부모양육태도는 중학생 연구 참가자의 학업열의와 그림, 자아존중감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1SD 높아지면 자녀의 학업열의와 그림, 자아존중감은 각각 0.45SD, 0.55SD, 0.26SD 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의 학업열의와 그림도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열의와 그림이 각각 1SD만큼 증가하면 자아존중감은 0.14SD와 0.52SD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	χ^2	df	CFI	TLI	RMSEA
측정 모형	5561.522	974	.93	.93	.04
수정된 측정 모형	5317.220	930	.93	.93	.04
구조방정식 모형	5796.886	931	.93	.92	.05
선택된 최종모형	5796.886	931	.93	.92	.05



*** $p < .001$

그림 3.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

마지막으로, 중학생들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열의와 그림이 매개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하여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Amos 26에서는 매개효과의 총효과만 나타날 뿐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기에, 팬텀 변수 방법을 사용하여 학업열의와 그림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3>에 나타나는 것처럼 학업열의와 그림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표 3. 잠재변인간의 간접효과 검증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모양육태도 → 학업열의 → 자아존중감	.07***	.06	.01	.04	.09
부모양육태도 → 그릿 → 자아존중감	.30***	.29	.03	.24	.37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그들의 비인지적 특성인 학업열의와 그릿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KCYPS 2018 1차년도, 중학교 1학년 2574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전 기초통계 분석과 구조모형 방정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그들의 학업열의와 그릿을 정적으로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한 자녀의 학업열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사전 연구들과(김하람, 2021; 이미라, 전향신, 2020; 이승진, 최려나, 2020; 최영미, 2020)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그릿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사전 연구 결과들(송홍정, 2020; 엄태순, 윤미선, 2020)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지지해주며,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적절한 설명과 도움을 제공해준다고 느낄수록 자녀는 학업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느껴 학습에의 열정과 집중이 높아지며, 목표에 대한 흥미가 유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켜 학습활동에 집중하고 노력해나갈 힘을 갖게 하며 학습에 대한 동기적인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부모양육태도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유능하다고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는 모든 경험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자신을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긍

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부모 양육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가영희 등(2008)의 연구와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정적으로 예측함을 보고한 김경수와 김화경(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구 참가자의 학업열의와 그릿 수준은 모두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학업열의 수준이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예측한 결과는 학업에 대한 높은 열정과 가치 및 집중력이 학업을 이어가는 신분에 있는 청소년들을 더욱 가치 있고 유능하게 느끼도록 함을 의미한다. 또, 중학생의 그릿 수준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결과는, 그릿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영미, 2020)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차 변인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을 통한 높은 성취의 결과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개인이 스스로 흥미와 노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내적 판단 기준이 되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넷째, 학업열의와 그릿은 모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열의가 부분적으로 매개한 결과는 부모의 따뜻하고 지지적이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양육태도의 영향이 클수록 자녀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학업에 대해 더욱 집중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며, 학업열의로 가득 찬 스스로의 모습이나 그로 인한 높은 학업성취의 결과가 자신을 향한 평가를 더욱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부분매개한 결과는 역시 부모의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의 영향이 클수록 자녀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것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그 모습 자체로나 혹은 높은 성취 결과로 인해 자신을 더욱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의 성장신념과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부분매개함을 보고한 사전 연구(하정혜, 한천우, 2021)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적응적인 학습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와 교육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그들의 학업열의, 그릿,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결과를 확인하였기에,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 사회적·교육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시기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적인 관심 증가와 자녀의 육체적·심리적 변화(사춘기 시기) 진행으로 인해, 가정 내 부모-자녀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사춘기 자녀 이

해와 갈등 해소 전략들에 대한 교육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부모-자녀 간의 소통 방법을 찾고 대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금까지의 부모 교육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자녀 교육과 실제적 부모-자녀 소통 기술이 가미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효과적인 부모-자녀 간의 대화와 갈등 해소의 경험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관심, 학업, 진로 등의 변화와 고민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다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피드백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둘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중학생의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그릿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릿은 가정 및 학교 환경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한수연, 박용한, 2018), 그릿 증진을 위한 교육적 개입이 추가될 때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한수연, 유향은, 박용한, 2021). 실제로, 그릿 향상을 목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교육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그릿 수준을 높이고, 부적응적 학습동기를 가진 학생들을 보다 적응적인 학습태도를 갖도록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오경화, 탁진국, 2020; 한수연 등, 2021). 또한, 그릿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는 개인의 그릿 수준과 비인지적 특성들(성장신념, 성취목표, 학습동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인차를 고려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그릿의 하위요인 중 노력지속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는 노력지속 향상 전략 프로그램을, 흥미유지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는 흥미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그릿은 삶의 다양한 영역(학업성취, 진로, 직업, 행복감,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을 예측하는 개인차 변인으로 알려졌기에, 그릿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향상도 역시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열의 또한 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학업열의를 함양시키는 환경적·지원적 도움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기존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학업열의를 유의하게 예측했던 연구들(남지영, 정혜원, 2021; 백예은, 정혜원, 2021)과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상반된 본 연구는, 적응적인 학습태도 및 학업열의가 갖는 개인의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있어 그릿이 가지는 매개효과에 비해 그 영향이 크지 않지만, 학업에 대해 열정적이고 집중하는 태도는 학업이 주된 발달과업의 하나로 여겨지는 청소년기에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이미 주어져 있는 연구대상과 측정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때

널 자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주제에 대한 타당도가 결여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을 띤 측정 문항을 사용한다면 더욱 타당도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KCYPS 2018의 1차년도 자료만 활용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 및 그릿 수준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변할 수 있는 내적 기제이다(박미정, 유난숙, 2017; 한수연, 박용한, 2018). 이에 따라, 후속 자료들을 함께 활용·분석하여 종단적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을 고려한 보다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가영희, 조민자, 임성우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시설환경**, 6(4), 31-42.
- 고미숙 (2016).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5(3), 295-306.
-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151-158.
- 김경수, 김화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 김기승, 함혜수 (201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9), 440-450.
- 김명숙 (2019). 부모의 구조제공이 중학생 자녀의 자율적 동기와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3(1), 27-50.
- 김민형 (2018).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45-349.
- 김소현, 김아영 (201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개발과 타당화: 자기결정성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6(3), 717-738.
- 김아란, 심석, 유진희, 김상하, 신성만 (2020).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21-221.
- 김아영 (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론과 현장연구**. 서울: 학지사.
- 김이영, 전지은, 박미란, 어윤경 (2021).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그릿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 101-115.
- 김진아 (2020). 청소년 초기의 그릿(Grit) 발달의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1), 93-116.
- 김태명, 이은주 (2014). 지각된 부모의 자율부여가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차이. **교육심리연구**, 28(3), 477-499.
- 김태명, 이은주 (2017a). 지각된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31(1), 121-143.
- 김태명, 이은주 (2017b).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하람 (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또래관계 및 학업열의의 구조적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훈희, 황영신 (2019).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발달자산 내적 발달자산 및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인문사회** 21, 10(5), 1607-1622.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 남지영, 정혜원 (2021). 중학생의 친구 및 교사관계와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1279-1298.
- 박미정, 유난숙 (2017).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2), 67-84.
- 박상미, 박응임 (2019). 부모애착과 그릿(Grit)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88-188.
- 박진주, 김은정, 이슬이 (2020). 대학생의 행복과 그릿의 관계. **인문사회** 21, 11(6), 3021-3036.
- 박혜숙 (2019).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에 관한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907-928.
- 반지윤, 오인수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31(1), 129-156.
- 배인수 (200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예은, 정혜원 (202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열의의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9(5), 275-304.
- 송홍정 (2020).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엄태순, 윤미선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그릿,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1151-1176.
- 오경화, 탁진국 (2020). 그릿향상 그룹코칭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태도성숙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4(1), 21-46.
- 유선옥, 박혜영 (2016). 대학-학생 공중 관계, 대학생의 학업 열의, 학업 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홍보학연구**, 20(3), 173-200.
- 윤희봉 (2003). **정신지체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란, 손영우 (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 이미라, 전향신 (2020).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릿,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와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779-805.
- 이승진, 최려나 (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릿(Grit)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79-981.
- 이시혜, 하문선 (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간 관계에서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169-181.
- 이은경, 이선희 (2021).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관계: 그릿에 의해 조절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1), 17-30.
- 이의빈, 권서영, 김유이, 임수지 (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2(1), 87-115.
- 이자영, 이상민 (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 이화 (201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선희, 명재신 (2016).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2), 327-347.
- 임효진 (2017). 그릿의 최근 연구동향과 재개념화의 필요성. **교육심리연구**, 31(4), 663-681.
- 임효진 (2019). 대학생의 학업성취에서 그릿과 인지전략, 과제도구성 지각의 역할. **교**

- 육과학연구, 50(3), 33-54.
- 장봉석, 김진철 (2020). 고등학교 교사의 그릿과 직무스트레스 대응행동 간의 관계. **산업융합연구**, 18(4), 9-14.
- 장연심 (2003).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40-170.
- 정철상 (2020). 청소년의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 675-684.
- 차한솔, 김주일, 이호수 (2020).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4), 41-55.
- 최미경 (2010).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10), 65-75.
- 최수진, 김명숙 (2019). 부모의 자율성지지 학업지원행동이 자녀의 자율적 동기와 학습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자기조절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8), 315-341.
- 최영미 (2020). 아동의 그릿,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아동복지연구**, 18(2), 1-17.
- 하정혜, 한천우 (2021). 고등학생의 성장신념,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641-663.
- 한미라, 김광수 (2018). 유아교사의 그릿과 회복탄력성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3), 411-427.
- 한수연, 박용한 (2018). 중학생의 그릿 변화와 관련된 가정·학교 환경요인 탐색. **열린교육연구**, 26(4), 175-201.
- 한수연, 유향은, 박용한 (2021). 그릿 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끈기와 흥미유지에 미치는 효과: 숙달목표 수준에 따른 차이. **교육방법연구**, 33(1), 1-28.
- 한천우 (2020). 전문대학생의 성장신념, 그릿, 메타인지 및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문제연구**, 33(4), 191-215.
- 한천우 (2021). 대학생의 그릿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교육연구논총**, 42(2), 115-138.
- Chubb, N., Fertman, C., & Ross, J. (1997). Adolescent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dolescence*, 32(125), 113-129.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W. H. Freeman

- and Co.(1981, Reprint Edition).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 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NY: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within embedded social contexts: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R. M. Ryan (Ed.), *The Oxford handbook of human motivation* (pp. 85-1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uckworth, A. L., Kirby, T. A., Tsukayama, E., Berstein, H., & Ericsson, K. A. (2011). Deliberate practice spells success why grittier competitors triumph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2), 174-181.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Farkas, M. S., & Grolnick, W. S. (2010). Examining the components and concomitant of parental structure in the academic domain. *Motivation and Emotion*, 34, 266-279.
- Gonzales, A. R., Willems, P. P., & Holbein, M. F. (2005). Examining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7(2), 99-123.
- Grolnick, W. S. (2002). *The psychology of parental control: How well-meant parenting backfir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Mahwa, NJ.
- Grolnick, W., & Ryan, R.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154.
- Grolnick, W. S., Deci, E. I., & Ryan, R. M. (1997). Internalization within the family: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n J. E. Grusec & L. Kuczynski (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handbook of contemporary theory*. New York: Wiley.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517.
- Hill, N. E., & Tyson, D. F. (2009). Parental involvement in middle school: A meta-analytic assessment of the strategies that promote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3), 740-763.
- Jeynes, W. H. (2005).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to urban elementary school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Urban Education*, 40(3), 237-269.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s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NY: Basic Book.
- Schaufeli, W. B., Martez, I. M., Pinto, A. M., Salanova, M., & Bakker, A. B. (2002a).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64-481. DOI: 10.1177/0022022102033005003
- Schaufeli, W. B., Salanova, M., González-romá, V., & Bakker, A. B. (2002b).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1), 71-92. DOI: 10.1023/A:1015630930326
- Sierens, E., Vansteenkiste, M., Goossens, L., Soenens, B., & Doch, F. (2009). The synergistic relationship of perceived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in the predic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57-68.
- Skinner, E. A., & Belmont, M. J. (1993). Motivation in the classroom: Reciprocal effects of teacher behavior and student engagement across the school yea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4), 571-581.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그릿의 매개효과’에 대한 토론문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논문은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사회성, 행복감 등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본 토론문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모형 및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 중 일부는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효과 또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지만, 이 논문은 반대로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할 때 중요한 전제는 이론적 근거가 충분한가에 있다. 그런데 이론적 배경에서 발표자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관계를 매개한다는 이화(2015)의 연구만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열의는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내에 관련 선행연구가 없다면 해외 선행연구들을 제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설정의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이론적 배경에서 부모양육태도(→학업열의, 그릿, 자아존중감), 학업열의→자아존중감, 그릿→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가 선행연구와 지닌 차별성은 학업열의 변수의 투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림 3]에서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학업열의와 그릿이 측정하는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업열의는 ‘공부’에 한정된 열의로 볼 수 있지만 학업열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헌신’과 ‘몰두’는 그릿의 하위요인인 ‘노력지속’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릿과 유사한 학업열의를 추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이 분석결과가 학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셋째, 발표자들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결론 장에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지원의 중요성, 그것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 학업열의를 향상시키는 환경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분석결과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이 논의들은 보기에 따라 다소 당위적인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다.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정책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학문적 연구로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의 분석 결과가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석 모형에 변화를 줄 것을 제안하고 싶다. 예컨대, 청소년의 가정배경에 따라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남녀 청소년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는 어떤 교육적 개입이 있을 때 매개변인들이 자아존중감에 끼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론에는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한 선행연구 결과가 중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서론에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의 경향성이나 한계점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 통상적으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표 2〉) 외에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를 표로 제시해 주므로, 각 경로의 추정계수를 정리한 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해 준다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Session 1

제3주제

미디어/스마트폰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김경민*·최정원***·송지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따른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하위집단별 학업관련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제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3학년 2,379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평일과 주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등을 지표로하여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의 3가지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하위집단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집중사용형은 뉴미디어고사용형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며 학업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뉴미디어고사용형은 스마트폰집중사용형보다 학업 무기력 수준이 높고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의 여가시간에 따른 하위집단을 밝혔고, 하위집단에 따른 학업관련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미디어활용 여가시간, 청소년, 학업관련 요인, 잠재프로파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고려대학교 4단계 BK21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연구교수

***+ 고려대학교 생활과학과 박사수료, hippojw@gmail.com

*** 고려대학교 생활과학과 박사수료

I.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워라벨에 상응하는 용어로 스라벨(Study and 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는 공부와 삶의 균형을 뜻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도 공부와 휴식의 균형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여가시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과도한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기도 한다(김예성,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가시간은 축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 수준을 높여주며 삶의 원동력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홍록, 이광욱, 2009; 전태준, 한우진, 2007). 또한 여가시간은 불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삶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Crone, Smith & Gough, 2005).

통계청(2021)의 청소년 여가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3.7시간이었고 51.6%만이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절반의 청소년들은 학업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에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상생활 시간활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송유진, 2013, 윤나래, 2021)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청소년의 경우 여가시간이 있어도 시·공간의 제약이 비교적 적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최영준, 고은지, 2015), 이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쉽게 미디어를 통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 매체를 접할 시간이 증가했을 것이다(이기연, 최성광, 2021). 어떠한 원인에서든 요즘 청소년들은 IT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기기 활용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는 청소년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업과 여가시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가시간이 가지는 중요성과 미디어와 함께 하는 일상생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내는 여가시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다. 청소년기의 여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보거나(김현동, 2008), 여가활동 유형을 파악하거나(김예성, 2011; 김호순, 김청송, 2011), 여가시간 및 활동이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권민혁, 김성호, 2009)이나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서우석, 2007)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제는 청소년의 여가생활을 연구함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시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때, 평일과 주말 청소년이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내는 여가시간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자 한다. 어떤 특성에 대해 집단을 구분하는 연구 방법으로는 변인중심 분석방법(a variable-centered approach)과 사람중심 분석방법(a person-centered analysis)이 있다. 변인중심 분석방법의 경우 분류된 집단에서 개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어 사람중심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특히 사람중심 분석방법을 활용할 경우 측정 문항에 응답한 패턴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된 각 계층에 소속될 확률을 계산하여 계층 간의 차이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성은모, 최홍일, 2017; Geiser & Lockhart, 2012; Tuominen-Soini, Salmela-Aro & Niemivirta,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중심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평일과 주말 청소년이 스마트폰, 컴퓨터와 TV라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내는 여가시간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유형화 결과로 나온 각 집단별 학업관련 요인(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주의집중)에서의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 학업은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며, 현재 수행해야할 주요 과업이기도 하고, 여가를 제외한 생활시간을 보내는 영역이기(김성은, 김준엽, 2019), 미디어 활용 여가시간과 학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양상을 이해하는데뿐만 아니라 향후 효과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에도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기(Hoghugh, 1992), 청소년의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시간과 관련된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초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시간에 따른 하위집단을 도출하고, 청소년의 학업관련 요인들(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주의집중)에 있어 각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따른 하위집단은 몇 개로 구분되며, 각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따른 하위집단별 학업관련 요인(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주의집중)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미디어활동 여가시간

여가란 노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으로(Murphy, 1974), 휴식, 오락, 지식함양, 공동체 생활에의 자발적인 참여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다(Dumazedier, 1962). 여가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치관 형성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김진경, 한유진, 2008).

문화체육관광부(2019)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스마트폰기기를 사용한 취미 및 오락활동이 여가시간의 2/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의 70% 가까이를 혼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여가시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손진희, 김지민, 2020),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비용부담과 시설 및 장소 부족으로 주로 집에서 여가활동을 하며, 여가시간 대부분을 컴퓨터, 게임,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미디어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학업, 오락 및 휴식, 의사소통 등 다양한 용도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은 약 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모바일 휴대폰이나 PC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하거나 TV 시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귀옥과 이미리의 연구(2015)에 따르면, 실제로 청소년들은 주로 여가 시간에 TV나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사용하여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의 문화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영역은 매우 넓고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그들의 일상에서부터 사회생활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이상에서와 같이,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여가활동이 그들 여가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만큼, 청소년의 삶에서 여가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여가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중점을 두어 청소년의 여가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많은 연구들은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및 의존과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게임이나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을 청소년들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하여 스마트폰 및 게임중독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심혜선, 전종설, 2018; 오윤

선, 2008). 그러나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으며(윤진영, 김유미, 소재환, 김연형, 2019; 임정훈, 한승연, 김세리, 성은모, 2010),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는 관계형성의 장이라는 점에서 미디어의 다각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가생활이 주는 장단기적 긍정적 효과에 비추어 본다면, 청소년들의 주된 여가시간 활용 매체인 미디어와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시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발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과 학업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은 여가시간뿐만 아니라 학업관련 요인과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COVID-19로 인해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학업 간의 관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별 학업관련 요인에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 실태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학업관련 실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의 미디어활용과 학업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미디어사용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게임이나 오락적인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성은모, 진성희, 2012),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고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학업성취가 낮고 학교에 대한 친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itzpatrick, Burkhalter, & Asbridge, 2019) 인터넷중독 역시 학업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연, 전종철, 2015).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생활에 대한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매체를 활용하여 오락을 즐기는 여가집단의 경우, 운동이나 독서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단보다 학업열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원, 주지선, 2021).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종류별로 학업 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TV와 인터넷의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조윤경, 김영석, 2009), TV 시청은 학업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인터넷의 경우 학업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의 경우 공동시청이 가능하고 TV 시청과정에서 주의가 분산될 수 있는 반면 인터넷은 개인매체로 몰입하기가 더 쉽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간을 이용하더라도 학업에 집중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와 학업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단순히 미디어 이용시간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미디어 종류와 시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관련 요인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 학업열의, 학업무력감 그리고 주의집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 없이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학업에 몰두하는 시간으로 내적동기에 의한 학습활동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학업적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업 열의란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높은 에너지 수준과 정신적 회복력을 의미하는 것으로(Schaufeli, Salanova, Ganzalez-roma, & Bakker, 2002), 헌신, 활기, 효능감 그리고 몰두로 구성되어 있다. 헌신은 공부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활기는 공부에 대한 에너지 및 즐거움, 효능감은 공부를 잘한다고 인식하는 것, 몰두는 공부에 집중을 잘하는 것이다. 학업 열의를 갖게 되면 학업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집중력이 강해지며, 새롭거나 어려운 과제 도전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며 학업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김훈희, 황영신, 2019; 오희정, 김갑성, 2020; Xia & Kimmel, 2004).

학업 무기력(academic helplessness)은 학생들이 공부, 시험, 수업 등과 같이 학업 상황에 국한되어 경험하는 학습된 무기력으로(노시언, 2013; 박병기 외, 2015), 통제신념결여, 학습동기결여, 긍정정서결여 그리고 능동수행결여로 구성된다. 통제신념결여는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배우거나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며, 학습동기결여는 학습 관련 상황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학업의욕이 저하되어있는 상태, 긍정정서결여는 학업상황과 관련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느끼는 긍정 정서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 능동수행결여는 학업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저하되어있는 상태이다. 학생들이 학업상황에서 무기력감을 경험하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컴퓨터 게임중독에 빠지기도 한다(강혜원, 김영희, 2004; 권순희, 권순녀, 2008; 김희수, 2006; 박시현, 2014).

주의집중이란 부적절한 자극을 차단하여 지속적인 정신을 기울이며 정확하고 빨리 분석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Ryan et al., 2013).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학업능력이 저하된다(Dawson, Hallahan, Reeve, & Ball, 1980).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따른 집단 구분에 따라 학업관련 요인(스스로 학습하는 시간, 학업열의, 학업무력감, 주의집중)에 있어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 실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미디어활용과 학업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도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의 제 3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미디어를 활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시간에 모두 응답한 청소년들 중 미디어를 활용하여 여가를 전혀 즐기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제외한 2,37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학생은 1,276(53.6%), 여학생은 1,103명(46.4%)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부: 38.2%, 모: 32.0%), 고등학교 졸업(부: 27.3%, 모: 30.3%), 2~3년제 대학졸업(부: 19.9%, 모: 28.1%)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은 500만 원대(20.0%), 400만 원대(19.8%), 700만 원 이상(18.9%) 순으로 많았으며, 77%가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379)

변인		n	%
성별	남	1,276	53.6
	여	1,103	46.4
부(모)학력	중졸 이하	42(52)	1.3(1.5)
	고등학교 졸업	899(998)	27.3(30.3)
	2~3년제 대학 졸업	655(927)	19.9(28.1)
	4년제 대학 졸업	1259(1054)	38.2(32.0)
	대학원 졸업	303(181)	9.2(5.5)
	모름/해당 없음	137(83)	4.2(2.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52	4.6
	200만원~299만원	244	7.4
	300만원~399만원	567	17.2
	400만원~499만원	654	19.8
	500만원~599만원	659	20.0
	600만원~699만원	396	12.0
	700만원 이상	623	18.9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최하	22	.7
	하	422	12.8
	보통	2536	77.0
	상	306	9.3
	최상	9	.3

주. 부(모)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의 무응답은 210명이었음.

2. 측정도구

본 연구에는 KCYPS 2018에서 사용한 설문문항들을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모든 측정도구에는 청소년이 응답하였다.

1) 미디어활용 여가시간

미디어를 활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배상률 외(2013)에서 하루 일과 중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을 활용하여 노는 시간을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안함(1점)’부터 ‘4시간 이상(7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미디어를 활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은 총 6문항이었다.

2) 학업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관련 요인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주의집중을 측정하였다. 먼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배상률과 동료들의 연구(2013)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평일과 주말 각각 하루일과 중에 학교 및 학원 숙제를 포함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묻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안함(1점)’부터 ‘4시간 이상(7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음을 의미한다.

학업 열의는 이자영과 이상민(2012)의 한국형학업열의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업 열의 척도는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 총 4요인 16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헌신은 공부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활기는 공부에 대한 에너지 및 즐거움, 효능감은 공부를 잘한다고 인식하는 것, 몰두는 공부에 집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학업에 활기를 가지고 몰두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공부란 도전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헌신 .81, 활기 .90, 효능감 .89, 몰두 .84, 전체 .93로 나타났다.

학업 무기력은 박병기 외(2015)가 개발 및 타당화한 학업 무기력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신념결여, 학습동기결여, 긍정정서결여, 능동수행결여 총 4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통제신념결여는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학업성취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배우거나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며, 학습동기결여는 학습 관련 상황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학업의욕이 저하되어있는 상태, 긍정정서결여는 학업상황과 관련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느끼는 긍정 정서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 능동수행결여는 학업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저하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된 무기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으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통제신념결여 .85, 학습동기결여 .88, 긍정정서결여 .75, 능동수행결여 .83, 전체 .9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의집중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중 주의집중 하위척도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총 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주의집중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으로는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수행하여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여가시간에 따른 하위집단을 분류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연속형 변수의 다변량 분포를 기반으로 응답패턴의 유사성에 따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잠재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통계기법으로 사람 중심적(person-oriented)접근에 기반한다(Bergman & Magnusson, 1997).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해서는 집단의 수를 늘려가면서 정보지수(AIC, BIC, ABIC), 모형비교 검증, 분류의 질을 기준으로 모형을 비교하고, 자료에 가장 부합하는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정보지수들은 작은 값을 가질수록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모형 간 차이검증은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k개인 모형을 평가할 때 잠재프로파일 수가 (k-1)개인 모형과 비교하는 것으로, 검증에서의 p값이 유의하면 k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택하고, 유의하지 않으면 (k-1)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택한다. 모형 간 차이검증은 조정된 카이제곱차이검증(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 LRT)과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Parametric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을 사용하였다. 분류의 질은 엔트로피(Entropy)를 이용하였다. 엔트로피는 하나의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값으로 0.8 이상일 때 모형이 적절하

다고 볼 수 있다(Muthén, 2004). 다음으로, 분류된 하위집단별 학업관련 요인(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주의집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하여 Mplus 6과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따른 하위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에 각각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지표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지수(AIC, BIC, ABIC), 모형 간 차이검증 결과(LMR- LRT, BLRT), 분류의 질(Entropy)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정보지수는 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프로파일 수가 많을수록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간 차이검증 결과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k-1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기각하고 k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잠재프로파일 수가 많아질수록 더 나은 모형으로 볼 수 있었다. 분류의 질은 모든 모형에서 양호한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인 0.8 이상의 값을 보였으나 잠재프로파일이 3개일 때 가장 높았고, 잠재프로파일이 4개가 되면 값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지표와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이 3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에서 각 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살펴보면 프로파일1은 98.5%, 프로파일2는 93.5%, 프로파일3은 93.7%로 나타났다. 잠재프로파일 할당확률이 0.7 이상 일 때 집단이 정확하게 분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Nagin, 2005), 최종모형의 프로파일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2 .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및 3집단 프로파일 모형 정보 (N=2,379)

k	df	AIC	BIC	ABIC	Entropy	LMR-LRT p	BLRT p
2	19	51389.25	51498.96	51438.60	.860	<.001	<.001
3	26	49865.29	50015.42	49932.81	.899	<.001	<.001
4	33	48870.81	49061.37	48956.52	.861	<.001	<.001
5	40	48363.77	48594.75	48467.66	.866	<.05	<.001

	잠재프로파일 할당확률			n	%
	1	2	3		
잠재프로파일1	0.985	0.015	0.000	945	39.72
잠재프로파일2	0.030	0.935	0.034	1015	42.67
잠재프로파일3	0.000	0.063	0.937	419	17.61

주) k= 잠재프로파일 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s compared with a (k-1) class model.

최종 결정된 잠재프로파일별 특징은 표 3과 그림 1과 같다. 모든 집단이 평일보다 주말에 미디어를 활용하여 노는 시간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1의 경우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은 1시간 미만 수준이었고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이 30분 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은 평균 1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1을 ‘스마트폰집중사용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집단에는 945명(39.72%)의 청소년이 해당되었다. 집단 2는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n=1015, 42.67%)이 포함되는 유형으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높거나 낮지 않고 전체 표본 평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집단 2를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여가시간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가장 많았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 3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들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이 가장 많고,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집단 3을 ‘뉴미디어고사용형’으로 명명하였고, 이 집단에는 가장 적은 수의 청소년(n=419, 17.61%)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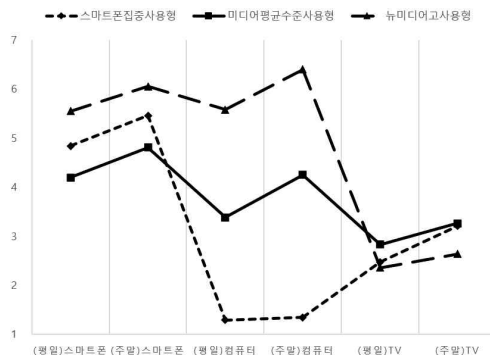


그림 36.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원점수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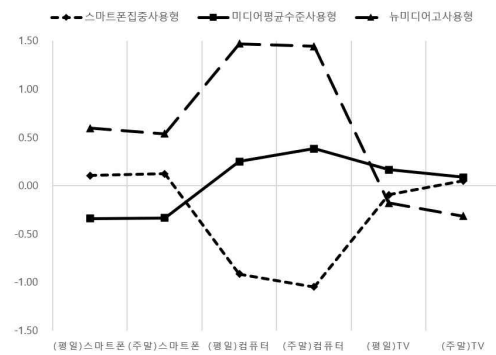


그림 37.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표준점수 그래프

표 4. 집단별 미디어활동 여가시간 지표 추정평균 (N=2,379)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평일 M(SE)	주말 M(SE)	평일 M(SE)	주말 M(SE)	평일 M(SE)	주말 M(SE)
집단1	4.84(1.48)	5.46(1.47)	1.29(.58)	1.34(.58)	2.47(1.34)	3.20(1.61)
집단2	4.19(1.28)	4.81(1.29)	3.38(1.08)	4.25(.89)	2.83(1.32)	3.26(1.41)
집단3	5.55(1.30)	6.05(1.20)	5.58(1.09)	6.40(.70)	2.36(1.51)	2.63(1.69)

주: 미디어활동 여가시간은 해당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정도를 1~7점 척도(1점: 전혀 안함, 2점: 30분 미만, 3점: 30분~1시간 미만, 4점: 1시간~2시간 미만, 5점: 2시간~3시간 미만, 6점: 3시간~4시간 미만, 7점: 4시간 이상)로 측정되었음.

2. 미디어활동 여가시간에 따른 하위집단별 학업관련 요인의 차이

각 유형별 청소년의 학업 관련 요인들(스스로 학습하는 시간, 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주의집중)의 수준은 표 5과 같다. 또한 표 6과 같이,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 관련 요인들(스스로 학습하는 시간, 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주의집중)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 잠재프로파일별 결과변인의 양상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비교 검증 결과인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였다.

표 6에서와 같이,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종속변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 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주의집중의 일부 하위요인에서 스마트폰집중사용형과 뉴미디어고사용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일과 주말 모두 스마트폰집중사용형이 뉴미디어고사용형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고, 학업열의 중에서도 헌신에 있어서 스마트폰집중사용형이 뉴미디어고사용형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학업무기력에서는 학습무기력 전체뿐만 아니라 학습동기결여, 긍정정서결여, 능동수행결여의 하위요인에서도 뉴미디어고사용형이 스마트폰집중사용형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집중에서도 뉴미디어고사용형이 스마트폰집중사용형보다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업 관련 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2,379)

학업 관련 요인	스마트폰집중사용형 (n=945)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n=1,015)	뉴미디어고사용형 (n=419)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평일	3.91(1.48)	3.64(1.36)	3.26(1.54)
주말	3.85(1.69)	3.60(1.47)	2.89(1.59)
학업열의 전체			
헌신	2.45(.53)	2.42(.52)	2.22(.54)
헌신	2.88(.59)	2.75(.56)	2.66(.63)
활기	2.14(.68)	2.21(.68)	1.93(.65)

학업 관련 요인	스마트폰집중사용형 (n=945)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n=1,015)	뉴미디어고사용형 (n=419)
효능감	2.37(.67)	2.38(.64)	2.10(.71)
몰두	2.41(.63)	2.35(.63)	2.18(.68)
학업무기력 전체	1.85(.51)	2.00(.49)	2.10(.51)
통제신념결여	1.83(.57)	1.97(.57)	1.90(.61)
학습동기결여	1.89(.69)	2.01(.64)	2.18(.74)
긍정정서결여	1.89(.57)	2.04(.55)	2.08(.59)
능동수행결여	1.80(.64)	1.99(.62)	2.25(.69)
주의집중	2.06(.58)	2.11(.53)	2.37(.53)

표 6.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업 관련 요인들의 차이 검증 결과 (N = 2,379)

학업 관련 요인	기준집단	비교집단	차이 검증 χ^2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 평일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1.17
		뉴미디어고사용형	4.31*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0.85
	overall test		1.88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 주말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2.12
		뉴미디어고사용형	7.05**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1.30
	overall test		3.05
학업열의 전체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1.09
		뉴미디어고사용형	3.60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0.46
	overall test		1.90
학업열의 - 헌신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1.01
		뉴미디어고사용형	4.32*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0.87
	overall test		1.90
학업열의 - 활기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0.46
		뉴미디어고사용형	1.02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0.05
	overall test		0.6.
학업열의 - 효능감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0.93
		뉴미디어고사용형	2.39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0.26
	overall test		1.17
학업열의 - 몰두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0.72
		뉴미디어고사용형	2.80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0.43
	overall test		1.23
학업무기력 전체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1.64
		뉴미디어고사용형	7.25**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1.47

학업 관련 요인	기준집단	비교집단	차이 검증 χ^2
	overall test		3.12
학업무기력 1 - 통제신념결여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0.13
		뉴미디어고사용형	1.29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0.53
	overall test		0.65
학업무기력 2 - 학습동기결여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1.15
		뉴미디어고사용형	4.12*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0.69
	overall test		1.78
학업무기력 3 - 긍정정서결여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0.78
		뉴미디어고사용형	4.31*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1.02
	overall test		1.88
학업무기력 4 - 능동수행결여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3.00
		뉴미디어고사용형	11.97*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2.14
	overall test		5.30
주의집중	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1.86
		뉴미디어고사용형	5.69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	0.98
	overall test		2.48

* $p < .05$. ** $p < .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따른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하위집단별 학업관련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일과 주말에 각각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 등을 분류지표로 하여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따른 하위유형을 도출한 결과, 뉴미디어고사용형(17.61%), 스마트폰집중사용형(39.72%),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42.67%)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뉴미디어고사용형은 다른 집단들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집중사용형은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은 1시간 미만 수준이었고 컴퓨터를 하며 노는 시간은 30분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속했던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높거나 낮지 않고 전체 표본의 평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처럼 하위집단들은 각 매체를 사용하는 시간 패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한 가지 미디어의 사용 시간을 중심으로 밝히기 어려웠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의 유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세 집단 모두 스마트폰을 평일과 주말 하루일과 중 1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점이다. 즉, 어떤 집단에 속하건 하루에 평균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로 나타난 결과(한국언론진흥재단, 2019)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매체들 중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따른 하위유형별로 청소년의 학업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과 학업 열의 중 헌신, 학업 무기력, 주의집중에서 스마트폰집중사용형과 뉴미디어고사용형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집중사용형은 뉴미디어고사용형보다 평일과 주말 모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며 공부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미디어고사용형은 스마트폰집중사용형보다 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긍정정서를 느끼지 못하며, 학업에 대한 자발적인 활동이 저하되어 학습된 무기력이 높고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미디어고사용형과 스마트폰집중사용형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컴퓨터 사용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즉, 여가시간에 스마트폰이나 특히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여 노는 뉴미디어고사용형의 경우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나 관심이 적고 주의집중에도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할수록 학업성취가 낮고(Fitzpatrick, Burkhalter, & Asbridge, 2019), 여가시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학업 열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성원, 주지선, 2021)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여가시간을 보낼 때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대한 특성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각 집단별 학업관련 요인에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상의 연구는 청소년의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며 특히 COVID-19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생활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이 청소년의 학업관련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가정 및 학교의 차원에서 이들의 건전한 미디어활용 여가생활을 위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등과 같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시간을 분류지표로 사용하여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미디어매체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용도에 따라 그 특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여가시간뿐만 아니라 해당 미디어매체를 통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 개인의 특성을 측정한 횡단연구이다.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과 학업관련 요인 간의 관련성을 연속선상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수행하여 미디어활용 여가시간 유형이 학업관련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 김영희 (2004). 학업스트레스 및 성적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883-897
- 권민혁, 김성호 (2009).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사회자본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157-165.
- 권순희, 권순녀 (2008). 부모의 양육태도, 학습된 무기력이 컴퓨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3(4), 59-69.
- 김성은, 김준엽 (2019).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X: 데이터분석보고서 -청소년 생활시간 유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예성 (2011). 청소년의 여가활동유형과 개인 및 가족 관련 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115-138.
- 김진경, 한유진 (2008). 초기 및 중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95-105.
- 김현동 (2008). 고등학생의 주말 여가 활동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0, 10-35.
- 김호순, 김청송 (2011).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 유형의 통합모형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311-340.
- 김훈희, 황영신 (2019).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발달자산 내적발달자산 및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인문사회** 21, 10(5), 121-140
- 김홍록, 이광욱 (2009). 대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웰니스 지수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3), 85-94.

- 김희수 (2006).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이 정신건강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4(2), 77-93.
- 노시언 (2013).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 박시현(2014). 청소년의 학습된 무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과의 관계. **청소년 행동연구**, 0(19), 99-125.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서우석 (2007).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사회경제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1), 273-302.
- 성은모, 진성희(201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휴대폰 활용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4), 441-467.
- 성은모, 최홍일 (2017). 잠재계층분석 (LCA) 을 활용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집단 유형 및 특징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3), 295-318.
- 손진희, 김지민 (2020).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71-94.
- 송유진 (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5(3), 31-53.
- 심혜선, 전종설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 275-300.
- 오윤선 (2008).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6(4), 3-15.
- 오히정, 김갑성 (2020). 학생의 수업 몰입과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열린교육연구**, 28(2), 135-153.
- 윤나래 (2021).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청소년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만족도: 생활시간조사자료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7(1), 33-63.
- 윤진영, 김유미, 소재환, 김연형 (2019).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융합인재교육 (STEAM) 프로그램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7(5), 265-276.
- 이귀옥, 이미리 (2015). 청소년기 일상생활시간 사용에 대한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양육태도의 영향. **생애학회지**, 5(2), 57-75.

- 이기연, 최성광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초·중·고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학교생활, 가정생활, 일상적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5(3), 171-182.
- 이성원, 주지선 (2021).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예측요인과 학업열의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2), 23-46.
- 이자영, 이상민 (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 이주연, 전종철 (201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287-303.
- 임정훈, 한승연, 김세리, 성은모 (2010). IPTV 의 교육적 활용이 초, 중등학생들의 교과태도, 만족도, 학습몰입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공학연구**, 26(2), 307-334.
- 전태준, 한우진 (2007). 직장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이득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1(1), 195-207.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윤경, 김영석 (2009). 청소년의 TV · 인터넷 이용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가족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능력, 미디어 능력의 중재효과. **한국방송학보**, 23(5), 380-417.
- 최영준, 고은지 (2015).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여가경험이 일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의 뉴미디어 기기 이용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3(1), 169-192.
- 통계청 (2021). **국민 삶의 질 2020**.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 Crone, D., Smith, A., & Gough, B. (2005). 'I feel totally alive, totally happy and totally at one': A psycho social explanation of the physical activity and mental health relationship from the experiences of participants on exercise referral schemes. *Health Education Research*, 20(5), 600-611.
- Dawson, Hallahan, Reeve & Ball(1980). *Handbook of cognitive, social, and neuropsychological aspects of learning disabilities*. Oxon, UK:

Routledge.

- Dumazedier, J.(1962). *Vers une civilization du loisir?*. Paris : Ed. du Seuil.
- Fitzpatrick, C., Burkhalter, R., & Asbridge, M. (2019). Adolescent media use and its association to wellbeing in a Canadian national sample. *Preventive Medicine Reports*, 14, 100867.
- Geiser, C., & Lockhart, G. (2012). A comparison of four approaches to account for method effects in latent state-trait analyses. *Psychological Methods*, 17, 255-283.
- Hoghughi, M. (1992). *Assessing child and adolescent disorders: A practice manual*. London: Sage Publication.
- Murphy, L. B. (1974). Coping,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G. V. Coelho, D. A. Hamburg, & J. E. Adams (Eds.), *Coping and adaptation*. (pp. 69-100) New York: Basic Books.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345-368). CA: Sage Publications.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Ryan, J. P., Williams, A. B., & Courtney, M. E.(2013). Adolescent neglect,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risk of recidivis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 454-465.
- Schaufeli, W. B., Salanova, M., Ganzalez-roma, V., & Bakker, A. B. (2002). The measure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1), 71-92.
- Tuominen-Soini, H., Salmela-Aro, K., & Niemivirta, M. (2008).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subjective well-being: A person-cantered analysis. *Learning and Instruction*, 18(3), 251-266.
- Xia, S. Y., & Kimmel, J. R. (2004). Visior's flow experience while browsing a web site: Its measurement, contributing factors and consequen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0(30), 403-422.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에 대한 토론문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여가시간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세 집단(스마트폰집중사용형, 미디어평균수준사용형, 뉴미디어고사용형)으로 분류하고 집단별 학업관련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미디어 이용 패턴과 학업관련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논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제목을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이라고 제시했는데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여가시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학업관련 요인 차이 분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집단간 차이는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스마트폰집중사용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고 공부를 중요하고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논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내용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학교 1학년 자료를 선택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의 말미에 가정 및 학교차원에서 이들의 건전한 미디어활용 여가생활을 위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연구에서는 매체별 여가시간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령,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보는 학생들과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 간의 차이를 보면 보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교육 참여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 및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 2019년과 2020년 비교를 중심으로

전하람+*, 이현주**, 김가영***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의 중1코호트와 초4코호트의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여부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 및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향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사교육이 학업성취 제고의 목적 이외에 방과후 시간 관리 및 감독을 보조하거나 대신하는 역할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가정 하에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 및 생활태도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참여경험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 확산 이전의 2019년에는 사교육 효과가 다른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에서도 유의미했으나 2020년에는 사교육의 총 효과는 유의미했지만, 변수 통제 이후에는 그 유의성이 사라졌다. 둘째, 스마트폰 의존도에 있어서 사교육 참여 효과는 2019년 총 효과와 순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사교육의 총 효과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컴퓨터 사용 시간에 있어서 사교육 효과는 코호트별 상이한 결과가 2019년 확인된 반면, 2020년에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효과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여와 지원, 그리고 여가시간에서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와 제언을 더 하고 후속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교육,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haraming@jnu.ac.kr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I.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확산 및 보편화를 보이고 있는 사교육(shadow education) 현상은 교육팽창의 흐름을 반영하는 실증적인 결과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aker, Akiba, LeTendre & Wiseman, 2001). 일반적으로 사교육에의 참여는 학교교육에서의 학업성취를 보완하거나 강화함으로써 학교교육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전하람, 심재휘, 2018; Baker et al., 2001; Bray, 2009; Byun, Chung & Baker, 2018). 이에 따라 사교육 현상에 대한 연구 중 사교육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주로 사교육의 학업성취 제고 효과에 대해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 현상의 보편화를 넘어 포화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비단 학업성취 향상의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방과후 시간에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하게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사교육 참여는 학교교육을 보조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학업성취 이외의 보육, 친구 교제 등의 목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전체 사교육 참여 집단의 10%를 상회하고 있다(통계청, 교육부, 2021). 사교육은 학교교육과 함께 교육과 양육을 담당하는 제도로써 자리잡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의 돌봄 기능이 강조되어 온 바 있다. 비단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자녀의 방과후 시간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육 제도에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의 운영, 사교육 기관에서의 방과후 시간 관리 및 보육기능을 위한 부가적 역할 담당 등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교육 참여가 보편화되고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방과후 시간 중 사교육에 할애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있어서의 계층 간 격차를 설명한 Lareau(2011)의 논의에서 등장하는 집중 양육(concerted cultivation)이라는 용어는 미국 중산층 부모를 중심으로 한 사적 투자를 통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자녀의 방과후 시간 관리를 의미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다수의 부모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양육 방식으로 사교육은 이러한 적극적인 부모 주도의 양육을 실현하는 간편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사교육이 한국의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에 있어서의 사교육 효과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시간 활용과 관련된 다른 결과변수(outcome variabl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 시간 및 의존도, 그리고 컴퓨터 사용 시간을 종속변수로 고려하여 사교육 참여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세 변수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 및 이와 관련된 생활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서 스마트폰 과사용과 과의존, 컴퓨터 과사용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 상황을 예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세 변수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을 반영하는 사교육 참여는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 시간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 및 태도를 중심으로 생활태도 및 여가시간 활용에 있어서의 사교육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이 학교교육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주었고 그에 따라 사교육 효과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는 추가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교육 참여 경험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사교육 참여 경험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 및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코로나 확산 이전(2019년)과 이후(2020년)에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 자료 중 중1코호트와 초4코호트의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경험이 여가시간에서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는 학교교육을 통한 인지적 성취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다른 교육종단연구 자료와는 차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삶 전반에 주목하면서 인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함께 생활태도와 학교 안팎의 시간 활용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한국 사회에서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의 사교육 참여가 일상화된 아동·청소년들에게 사교육 참여 경험이 인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가 시간 활용 및 생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는 최적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대상은 중1코호트의 경우 2019년 중학교 2학년 학생 2,045명, 2020년 중학교 3학년 학생 2,021명이었고, 초4코호트의 경우 2019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937명, 2020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965명이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의존도의 경우에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 때 분석 최종대상의 학생 수는 중1코호트의 경우 2,014명(2019년), 1,998명(2020년)이었고, 초4코호트의 경우 1,777명(2019년), 1,884명(2020년)이었다.

2. 변수설명

1) 종속변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

사교육 참여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 및 생활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의존도, 그리고 컴퓨터 사용 시간을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학생에게 여가시간을 묻는 문항 중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을 하루 평균 시간으로 산출한 값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묻고 있고 7개의 범주(①전혀 안함, ②30분미만, ③30분~1시간미만, ④1시간~2시간미만, ⑤2시간~3시간미만, ⑥3~4시간미만, ⑦4시간 이상)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이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각각의 범주를 분 단위로 변환하였다. 이를 범주 순서대로 나열하면 0분, 15분, 45분, 90분, 150분, 210분, 270분이다. 그다음 평일 기준 하루 평균값에 5를 곱하고 주말 기준 하루 평균값에 2를 곱한 후 다시 7로 나누어 하루 평균 시간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의존도는 설문 문항 중 스마트폰 의존도에 관련된 13개의 문항(예: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다)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고 13개 문항 중 3개 문항은 1점에서 4점으로 갈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도록 되어 있어 이 문항들은 역코딩을 하였다. 그 후 13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통해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인 표준화된 요인점수를 도출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컴퓨터 사용 시간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가시간을 묻는 문항 중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을 하루 평균 시간으로 산출한 값을 의미한다. 산출방식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같으며 단위 또한, 분으로 같다.

* 패널데이터의 특성 상 2019년과 2020년의 분석대상은 실질적으로 같은 학생으로서 연도에 따른 변화(학년의 승급, 시간의 변화에 따른 발달상황 변화, 자연 및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등)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현재 결측 데이터의 처리는 고려되는 변수 중 결측치가 하나라도 존재할 경우 그 케이스를 제거하는 완전 제거법(listwise deletion)을 따랐으나 이후의 최종 분석에서는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s)과 함께 두 개 연도를 비교 가능하도록 2019년과 2020년의 분석대상을 일치시켜 데이터 처리를 할 예정이다.

2) 처치변수

사교육 참여 여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성취와 함께 생활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처치변수로 고려되었다. 사교육 참여 여부는 자녀의 부모에게 묻는 설문문항 중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분변수로 변환한 값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교육 참여 경험에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의 형태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한편, 사교육 참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교육적 관심,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 지역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 변수로서 선택 편(selection bias)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 선택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사교육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로짓점수를 도출하여 이를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로 고려하였다. 최종분석에서는 이 경향점수를 사교육 참여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분석모형에 투입하여 경향점수 투입 전과 후의 회귀계수값과 통계적 유의성 변화를 비교하여 선택 편이가 가져올 수 있는 분석결과와 왜곡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3) 독립변수: 개인 특성, 가정배경 및 부모의 관심과 지원, 지역

학생의 여가시간 활용과 생활태도 중 스마트폰 사용 시간 및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서 개인 특성, 가정배경 및 부모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역을 고려함으로써 사교육 참여 여부의 독립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 패턴이 결정되는 양상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하고자 했다.

먼저 개인 특성으로는 성별과 학업성취가 고려되었다. 성별은 남학생은 0, 여학생은 1로 변환하여 더미변수의 형태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다음으로 학업성취는 지난 학기 전 과목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를 의미하는 변수로서 ‘① 매우 못함’부터 ‘⑤ 매우 잘함’의 5점 척도로 조사된 값을 연속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단,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값에 대해서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가정배경 및 부모의 관심과 지원 영역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분석에 고려되었다. 가구소득은 자녀가 속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13개의 범주(소득 없음 ~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로 응답한 값으로서 연속변수의 형태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부모

* 경향점수 도출 및 분석에의 투입보다 경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추후 연구를 수정·보완할 때 매칭 방식 적용을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경향점수를 구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1>에 정리되어 있다.

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학력 중 가장 높은 학력을 교육연한으로 변환한 값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학교 안 다님’은 0, ‘초등학교 졸업’은 6, ‘중학교 졸업’은 9, ‘고등학교 졸업’은 12, ‘2~3년제 대학 졸업’은 14.5, ‘4년제 대학 졸업’은 16, ‘대학원 졸업(석사·박사)’은 19로 변환하였고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 결측 처리하였다.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은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기대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지길 기대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구성되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자녀가 응답한 문항 중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의 하루 평균값을 시간 단위로 변환한 값이고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묻는 문항 중 ‘따스함’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단일점수이다. 가족구조는 양친가정의 경우를 1, 한부모 가정의 경우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서 부모가 모두 없거나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끝으로 지역 변수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사교육 참여 경험,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경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된 사회문화적 환경 변수다. 지역 변수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1,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0으로 코딩되었고 더미변수의 형태로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음 <표1>은 변수설명을 요약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1. 변수설명 요약

변수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스마트폰시간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의 하루 평균값(단위=분)
	스마트폰의존도	스마트폰 의존도 관련 15문항에 대한 요인점수
	컴퓨터시간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의 하루 평균값(단위=분)
처치변수	사교육참여	지난 1년간의 사교육 참여 경험 여부 (예=1)
독립변수	성별	여학생=1
	학업성취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 (5점 척도)
	가구소득	가구 월 평균 소득을 13개의 범주로 구분한 값
	부모교육수준	부모의 학력 중 가장 높은 학력을 교육연한으로 변환한 값
	부모기대교육수준	부모가 자녀의 최종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입력한 경우(=1)
	부모함께하는시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의 하루 평균값(단위=시간)
	부모정서적지원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스함’에 관한 4문항에 대한 요인점수
	가족구조	양친가정(=1)
	지역	읍면지역(=1)

2. 분석방법

사교육 참여 여부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 및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세 종속변수 모두 연속변수로 측정되었으므로 최소자승회귀(OLS) 모형을 적용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에서의 첫 번째 모형에서는 사교육 참여 여부 변수만을 투입하여 사교육 참여 경험의 총 효과(gross effect)가 유의미한지 살펴보았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이 효과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경우에도 유의미한 고유 효과(net effect)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과정은 연도와 코호트에 관계없이 동일한 구조로 진행하여 코호트별, 연도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표본의 표집방식 및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중치 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였고 STATA의 robust 옵션을 적용하여 강건 표준오차를 산출하여 분석결과를 구성하였다. 이를 포함한 본 연구의 분석은 STATA 17.0 SE를 통해 진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중1코호트와 초4코호트를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 비교를 중심으로 사교육 참여와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시간은 중1코호트의 경우 2019년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약 133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약 146분으로 13분 정도 사용 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4 코호트의 경우에도 2019년에 비해 2020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97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는 하루에 약 119분 정도로 사용 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의존도의 경우 각 표본마다 요인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점수로 구성했기 때문에 표본 간의 비교를 하지 못했다. 컴퓨터 사용 시간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증가 추세와 같이 중1코호트, 초4코호트 모두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사용 시간이 약 15분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여부의 경우, 4개의 표본 모두 약 90%에 달하는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

었다. 2019년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은 90%,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93%의 참여율을 보여주었고 2020년에는 중학교 3학년 88%, 초등학교 6학년 8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특성을 보면 중1코호트와 초4코호트 모두 성비는 1:1에 가깝게 표집된 것을 알 수 있고 평균적으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 평가는 보통과 잘함 사이를 기록하고 있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4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을 의미하는 6점대와 그 이상의 7점대 사이로 평균 점수가 나타났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약 15년 정도로 평균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3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졸업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녀의 대학교 졸업 이상을 기대하는 부모들은 코호트와 연도별로 약간 상이하지만 89%(중2)에서 95%(초6)로 조사되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의 하루 평균값은 중1 코호트의 경우 약 4.5시간 내외, 초4 코호트의 경우 약 6시간을 상회하는 값을 보여주고 있었다. 양친가정의 비율은 모든 표본에서 90% 이상이었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13%에서 15%로 나타났다.

표2. 기술통계

변수 구분	변수명	중1코호트				초4코호트			
		2019 (중2, N=2,045)		2020 (중3, N=2,021)		2019 (초5, N=1,937)		2020 (초6, N=1,965)	
		M	SD	M	SD	M	SD	M	SD
종속 변수	스마트폰시간	132.67	69.33	146.40	74.04	97.14	64.14	119.33	72.60
	스마트폰의존도	0.01	1.01	0.03	0.99	-0.01	1.01	-0.02	1.00
	컴퓨터시간	53.06	61.21	69.41	74.28	31.69	48.88	49.68	58.79
처리 변수	사교육참여 (예=1)	0.90	0.30	0.88	0.32	0.93	0.26	0.89	0.31
독립 변수	성별 (여학생=1)	0.49	0.50	0.49	0.50	0.49	0.50	0.48	0.50
	학업성취	3.33	0.92	3.30	0.91	3.90	0.76	3.73	0.80
	가구소득	6.80	2.13	6.86	2.21	6.62	2.08	6.83	2.06
	부모교육수준	15.07	2.26	15.24	2.17	15.31	2.19	15.57	2.10
	부모기대교육수준 (대졸이상=1)	0.89	0.31	0.90	0.30	0.94	0.23	0.95	0.23
	부모함께하는시간	4.45	2.52	4.73	3.31	6.12	2.90	6.41	4.41
	부모정서적지원	-0.01	1.01	0.00	0.98	0.04	0.97	0.06	0.97
	가족구조 (양친가정=1)	0.93	0.25	0.92	0.27	0.95	0.22	0.94	0.24
	지역(읍면지역=1)	0.13	0.33	0.13	0.34	0.15	0.36	0.15	0.36

2. 중1코호트 분석결과

중1코호트의 2019년 중학교 2학년 학생과 1년 후인 2020년의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의 분석결과를 <표3>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사교육 참여 경험 및 관련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2019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을 때, 사교육 참여만을 분석에서 고려한 첫 번째 모형(M1)에서는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약 28.86분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독립변수를 통제한 두 번째 모형에서도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효과의 크기는 약 46% 감소하였지만, 사교육 참여 경험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15.46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살펴봤을 때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길었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여가활동으로서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었다. 다음으로 가정배경 및 부모의 관심과 지원 변수 중에서는 부모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경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약 23분 정도 더 긴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 중학교 3학년이 된 동일 코호트 학생들을 상대로 사교육 참여경험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2019년과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교육 참여경험의 총 효과는 -17.0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관련 영향변수를 통제한 모형에서 사교육 참여의 순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교육 참여경험의 효과는 2019년과는 다르게 2020년에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반영한 간접적인 영향력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관련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성별, 학업성취, 부모교육수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지역은 회귀계수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은 2019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26.27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추론해 보자면, 2019년과는 달리 2020년에는 사교육 참여경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을 관리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반면, 교육적 관심과 지원 수준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녀를 사교육이 아니라 직접적인 시간 관리나 감독을 강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스마트폰 의존도의 경우 2019년에는 사교육 참여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분석결과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여부만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첫 번째 모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두 번째 모형에서도 같은 결과

였다. 이와 달리 성별, 학업성취, 가구소득,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부모의 정서적 지원, 가족구조는 스마트폰 의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친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정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사교육 참여 여부만을 고려한 첫 번째 모형에서 사교육 참여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관련 영향요인을 고려한 두 번째 모형에서 이 효과는 사라졌다. 한편, 다른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2019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부모의 기대교육수준과 지역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의존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3>의 맨 오른쪽 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사교육 참여 경험은 2019년 총 효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영향요인을 통제했을 때 사교육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성별, 학업성취, 가구소득,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모두 부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에는 컴퓨터 사용 시간과 사교육 참여는 총 효과에서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사교육 외 영향요인의 경우, 성별과 학업성취는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가구소득과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컴퓨터 사용 시간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 계층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 중1코호트 분석결과

2019 (중학교 2학년)												
변수명	스마트폰시간				스마트폰의존도				컴퓨터시간			
	M1		M2a		M1		M2a		M1		M2a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사교육참여	-28.86***	6.44	-15.46**	5.89	-0.07	0.12	0.01	0.10	-11.12*	5.56	-3.65	5.38
성별			14.64***	3.42			0.12*	0.05			-40.27***	2.84
학업성취			-10.98***	2.02			-0.22***	0.03			-4.86**	1.73
가구소득			-0.29	0.94			-0.03*	0.01			-2.26**	0.80
부모교육수준			-3.23**	0.92			-0.01	0.01			-1.37	0.70
부모기대교육수준			-1.38	6.01			0.02	0.09			-8.83	5.65
부모함께하는시간			2.52**	0.78			-0.05***	0.01			-1.26*	0.64
부모정서적지원			5.32**	1.85			-0.24***	0.03			-0.89	1.51
가족구조			3.88	7.10			0.26*	0.10			-7.11	6.86
지역			23.19***	5.46			0.04	0.08			6.33	5.03
상수	159.37***	6.16	210.80***	15.20	0.08	0.11	0.90***	0.21	63.02***	5.33	147.53***	13.51
R ²	0.016		0.092		0.0004		0.149		0.003		0.145	
N	2,014				2,014				2,045			
2020 (중학교 3학년)												
변수명	스마트폰시간				스마트폰의존도				컴퓨터시간			
	M1		M2a		M1		M2a		M1		M2a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사교육참여	-17.07*	7.01	-2.99	5.79	-0.22**	0.08	-0.13	0.08	-7.91	6.23	-5.06	5.60
성별			7.95*	3.67			0.13*	0.05			-53.88***	3.62
학업성취			-8.84***	2.31			-0.25***	0.03			-10.73***	2.31
가구소득			0.97	0.97			0.00	0.01			-1.35	0.92
부모교육수준			-2.51**	0.92			0.00	0.01			-2.32*	0.90
부모기대교육수준			-26.27***	6.98			0.21*	0.10			2.99	8.05
부모함께하는시간			4.45***	0.59			-0.02*	0.01			0.47	0.71
부모정서적지원			2.99	1.96			-0.17***	0.03			-1.91	2.15
가족구조			-11.91	7.14			0.17	0.10			-3.14	6.86
지역			18.41***	5.14			0.15*	0.07			-8.17	5.45
상수	161.86	7.01	217.38***	15.89	0.23**	0.07	0.63**	0.21	76.38***	5.86	179.49***	15.74
R ²	0.006		0.102		0.005		0.098		0.001		0.168	
N	1,998				1,998				2,021			

*p<0.05 **p<0.01 ***p<0.001

a. 모형2에서의 사교육참여 회귀계수는 경향점수를 통제하지 않은 분석에서의 값이다. 경향점수를 통제 한 후에도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회귀계수값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향점수 통제 후의 분석결과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3. 초4코호트 분석결과

〈표4〉는 초4코호트의 2019년과 2020년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초4코호트와 중1코호트를 비교했을 때 사교육 참여경험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중1코호트와 유사한 형태로 2019년과 202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있어서 사교육 참여경험은 2019년의 경우 모형 1과 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경험은 약 23.93분 정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유의한 효과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도 15.36분의 감소 효과를 유의미하게 보여주었다. 2019년의 초등학교 5학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는 사교육 참여경험 이외에도 학업성취, 부모교육수준, 가족구조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20년에는 사교육 참여경험의 총 효과는 여전히 유의했으나 관련 변수를 통제한 순 효과 추정에 있어서는 유의함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감소효과가 2019년과는 다르게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간접 효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중1 코호트와 비교했을 때 2019년과 2020년의 사교육 참여경험의 차이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관련 변수의 영향에 있어서는 학업성취, 부모교육수준, 가족구조가 여전히 유의함을 보여주었고 2019년과는 다르게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의 경우 대졸 이상을 희망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약 36.09분 적게 스마트폰을 여가 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이 역시 중1 코호트와 동일한 패턴으로서 부모기대교육수준이 사교육 참여 효과를 통제한 가운데도 유의함을 드러내는 점을 봤을 때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지원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있어서 직접적인 부적 효과를 보여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나 이어 설명할 스마트폰 의존도에 있어서는 부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 시간 증가가 부정적이라고만 해석하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의존도와 사교육 참여 간의 관계를 2019년과 2020년 비교를 해 보면, 사교육 참여경험은 2019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고 2020년에는 총 효과는 유의했지만 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중1코호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사교육 참여경험 이외의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학업성취, 가구소득,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부모의 정서적 지원 변수가 유의하게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9년과 2020년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사용 시간에 있어서는 2019년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사교육 참여경험은 총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순 효과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했고 컴퓨터 사용 시간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약 8.9분 정도 더 많았다.

표4. 초4코호트 분석결과

2019 (초등학교 5학년)												
변수명	스마트폰시간				스마트폰의존도				컴퓨터시간			
	M1		M2a		M1		M2a		M1		M2a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사교육참여	-23.93**	6.98	-15.36*	6.99	0.00	0.09	0.12	0.09	7.65	3.99	8.90*	4.07
성별			1.94	3.44			-0.05	0.05			-12.78***	2.61
학업성취			-10.59***	2.42			-0.22***	0.04			0.40	2.03
가구소득			0.27	0.87			-0.04**	0.01			-2.17**	0.71
부모교육수준			-3.10***	0.86			-0.01	0.01			1.26	0.65
부모가대교육수준			-8.58	6.89			-0.09	0.10			-11.63	7.31
부모함께하는시간			-0.17	0.63			-0.03**	0.01			-2.32***	0.43
부모정서적지원			-2.62	1.83			-0.27***	0.03			-6.71***	1.42
가족구조			-24.07**	7.68			-0.09	0.11			5.89	6.63
지역			-0.13	4.95			0.01	0.07			-1.15	3.58
상수	123.17***	6.75	232.91***	15.56	0.04	0.09	1.53***	0.24	24.59***	3.73	43.28**	12.92
R ²	0.009		0.062		0.000		0.151		0.002		0.079	
N	1,777				1,777				1,937			
2020 (초등학교 6학년)												
변수명	스마트폰시간				스마트폰의존도				컴퓨터시간			
	M1		M2a		M1		M2a		M1		M2a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사교육참여	-17.91**	6.83	-6.94	6.66	-0.21*	0.10	-0.05	0.09	-5.43	4.84	-5.92	4.56
성별			3.95	3.67			-0.05	0.05			-25.41***	2.87
학업성취			-9.80***	2.51			-0.37***	0.03			-5.89**	2.15
가구소득			0.50	1.04			-0.03*	0.01			0.02	0.89
부모교육수준			-3.07**	1.00			0.01	0.01			0.45	0.75
부모가대교육수준			-36.09***	8.78			0.08	0.11			1.26	7.16
부모함께하는시간			2.75***	0.53			-0.03***	0.01			-1.38***	0.38
부모정서적지원			-1.35	2.29			-0.21***	0.03			2.01	1.55
가족구조			-22.83*	9.12			-0.03	0.11			2.72	6.72
지역			0.66	4.87			-0.11	0.07			-5.06	3.57
상수	137.69***	6.54	244.78***	17.34	0.18	0.09	1.65***	0.23	54.54***	4.58	87.97***	13.23
R ²	0.006		0.076		0.004		0.200		0.0008		0.066	
N	1,884				1,884				1,965			

*p<0.05 **p<0.01 ***p<0.001

a. 모형2에서의 사교육참여 회귀계수는 경향점수를 통제하지 않은 분석에서의 값이다. 경향점수를 통제 한 후에도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회귀계수값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향점수 통제 후의 분석결과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가구소득과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컴퓨터 사용 시간에는 부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교육의 총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별은 여학생의 경우 컴퓨터 사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가구소득,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부모의 정서적 지원 등은 모두 2019년에 부적 효과를 보여주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한편, 2020년의 경우 사교육 참여경험은 총 효과, 순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 학업성취,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컴퓨터 사용 시간과 유의한 영향 관계에 있음이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사교육 참여와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 및 제언을 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참여경험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감소에 있어서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으나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에는 다소 다른 양상이 전개됨을 확인하였다. 2019년 중1코호트의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초4코호트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을 때, 관련 영향요인을 통제여부에 관계없이 사교육 참여의 총 효과와 순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가시간에 있어서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 참여가 방과후 또는 주말 등 여가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대면활동 및 원활한 학교교육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스마트폰 시간 감소 효과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가운데서는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전 연도에 존재하던 사교육 참여경험의 순 효과가 사라지고 개인특성과 가정배경 등에 따른 간접효과만 남게 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독립변수 중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이 2019년과 다르게 사교육 참여경험 효과를 고려한 두 번째 모형(M2)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 감소에 유의한 효과로 나타난 점을 주목해 볼만 하다. 다른 독립변수의 유의성과 회귀계수값이 2019년과 2020년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지원을 반영하는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의 유의한 부적 효과는 학교 및 학원 등 대면 교육이 제한된 상황에서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강화되고 특히 교육적 관심과 지원 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사교육 기관에 방과후 시간 관리를 위임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관리 및 감독을 행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스마트폰 의존도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모두 사교육 참여의 순 효과는 유

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2020년에서만 사교육 참여의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스마트폰 의존도를 다소 감소시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교육 참여가 독립적인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총 효과가 유의하다는 점은 사교육 참여의 의존도 감소 효과가 부분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 부모의 정서적 지원 등)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태도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녀의 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사교육 참여라는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생활태도 관리와 감독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부적 효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은 중1코호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의미한 정적 효과, 즉 스마트폰 의존도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초4코호트에서의 유의하지 않은 결과,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도 및 사용 시간에 있어서의 부모의 영향과는 반대되는 결과라 이 효과가 실재하는 결과인지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 및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생긴 누락 된 변수로 인한 왜곡(omitted variable bias)인지 엄밀한 분석을 진행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컴퓨터 사용 시간에 있어서는 사교육 참여가 어떤 효과를 실제로 미치고 있는지 코호트에 따라, 조사 차시에 따라 다소 혼재된 결과나 나타나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코호트에 따라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중1 코호트에서는 사교육의 총 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했고 초4코호트에서는 사교육의 순 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시기의 발달상황과 교육과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사 차시에 따라서는 코로나 확산 이후의 시점인 2020년에는 사교육 효과가 모든 코호트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대면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대안으로 채택된 가운데 여가시간 동안의 컴퓨터 사용이 교육 및 일상생활과 연계된 형태로 나타났을 수 있어 컴퓨터 사용 시간을 추정하는데 있어 사교육 참여 여부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아직 확정된 형태가 아닌 분석의 정교화 과정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와 그에 기반한 제언을 위해 연구자는 사교육 참여경험이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교육 참여 시간과 형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의 패턴은 일종의 제로섬(zero sum)으로서 사교육 참여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가시간 및 다른 유형의 학습시간, 수면시간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교육 형태 중 인터넷 강의 시청은 직접적으로 사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교육 비용 역시 사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고

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결측치 대체의 고려와 경향점수 매칭 등의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현재 분석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결과의 강건성 체크를 지속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전하람, 심재휘 (2018).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분석: 강화적 전략과 보완적 전략의 공존. **한국교육**, 45(3), 61-91.
- 통계청, 교육부 (2021).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세종: 통계청, 교육부.
- Baker, D. P., Akiba, M., LeTendre, G. K., & Wiseman, A. W. (2001).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3(1), 1-17.
- Bray, M. (2009). *Confronting the shadow education system: What
 governmental policies for what private tutoring?* Paris, France:
 UNESC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 Byun, S., Chung, H., & Baker, D. (2018). Global patterns of the use of
 shadow education: Student, family, and national influence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20, 71-105.
- Lareau, A. (2011).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부표1. 사교육 참여여부 경향점수 추정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중1코호트				초4코호트			
	2019 Coef.	S.E.	2020 Coef.	S.E.	2019 Coef.	S.E.	2020 Coef.	S.E.
성별 (여학생=1)	-0.06	0.18	-0.33	0.17	0.27	0.19	0.01	0.17
학업성취	0.40**	0.12	0.31**	0.11	0.25	0.13	0.19	0.12
가구소득	0.15*	0.07	0.13**	0.05	0.16*	0.06	0.20**	0.06
부모교육수준	0.03	0.04	0.04	0.04	0.15**	0.05	0.07	0.04
부모기대교육수준 (대졸이상=1)	1.03***	0.28	1.03***	0.24	0.59*	0.28	0.48	0.30
부모함께하는시간	-0.11**	0.03	0.00	0.02	-0.06*	0.03	-0.02	0.02
부모정서적지원	-0.02	0.11	0.07	0.09	-0.04	0.10	0.20*	0.09
가족구조 (양친가정=1)	0.96***	0.24	0.59*	0.28	0.01	0.34	0.58*	0.28
지역(읍면지역=1)	-0.85***	0.24	-0.61**	0.21	-0.53*	0.23	-0.45*	0.20
상수	-1.56*	0.62	-1.46*	0.62	-1.88*	0.78	-1.64*	0.66
Pseudo R2	0.126		0.100		0.071		0.075	
N	2,045		2,021		1,937		1,965	

*p<0.05 **p<0.01 ***p<0.001

‘사교육 참여가 스마트폰 사용기간 및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 2019년과 2020년 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황영식

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선임연구원

본 논문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 자료 중 중1코호트 및 초4코호트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 참여 경험이 여가 시간 동안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외생적 충격으로서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연구 결과는 사교육 참여 경험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의존도 및 컴퓨터 사용 시간에 있어서도 코로나 전·후 유의미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사교육 현장에서의 활동 변화와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수준을 중심으로 논의의 결론을 보여주는 점이 본 논문을 좀 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구의 의의와 함께 추가로 논의해나갈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교육 참여가 높으면 하루 중에 IT 기기의 활용 시간이 줄어드는 “당연한” 시간 활용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해석과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견 생각하기에도 사교육 참여가 많고, 다양한 방과 후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에 투자되는 시간이 많을 것이고 이에 따라 확보되는 여가 시간 및 IT 기기 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당연한 주제”를 “당연하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면 좀 더 유의미한 논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저자들도 제시하였듯이, 연구대상의 사교육 참여율이 약 90%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교육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나누어서 이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예 사교육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이 집단 내에서의 비교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로 다른 세 개의 종속변수(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의존도, 컴퓨터 사용 시간)로 나누어 세 번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세 개의 종속변수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연구자가 이 세 번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있다면 이를 비교 분석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분석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경향점수로 구성한 후 분석모형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은 흥미롭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서 비교적 단조롭게 비추어질 수 있는 현재 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줄인다면,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라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이 두 집단 간 나타난 차이점이나 특성들을 비교하는 단락도 추가로 제시한다면 좀 더 풍부한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 및 성별 다집단 분석

권미나*, 이진숙**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8 데이터 중에서 중1부터 중3까지 3년에 걸쳐 수집된 자료(2,242명)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변화궤적과 매개 및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중1부터 중3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성별집단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에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에서는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종단적으로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을 살펴보고, 관련 변인간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동시에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예방하고 중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 양육행동, 학업무기력, 잠재성장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jslee0820@jbnu.ac.kr

I. 서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4%로 10명 중 9명 이상이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전화 기능, 다른 사람과의 소통, 게임, 정보획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과도한 사용은 주의력 저하, 유해매체에 대한 노출, 학업 방해, 중독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권미나, 이진숙, 2020; 윤지현, 박근희, 홍혜영, 2020; Samaha & Hawi, 2016). 특히 발달상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중학생 청소년의 경우 약 34%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은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여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멀어질 때 고립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정서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박가화, 이지민, 2018).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위해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예방책 마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련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예측요인으로는 성별(권미나, 이진숙, 2020), 심리적 특성(이하나, 양승목, 2018), 학교생활적응(황소희, 이영애, 2018), 부모의 통제, 과잉간섭, 감독과 같은 양육태도(이선화, 이정수, 오인수, 2021), 또래관계(배성만, 2014) 등 개인과 사회 환경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횡단연구로 한 시점에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밝혀왔으며, 스마트폰 의존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측요인 탐색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양한 예측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의 추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자아정체감과 휴대전화 의존도와 관계(윤지현 외, 2020), 부모의 방임 및 양육행동과 휴대전화 의존도와 관계(김경민, 조은영, 송지은, 2018; 이영민, 권성연, 2020)를 살펴보았을 뿐 예측요인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어떠한 변화궤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예측요인으로 양육행동, 학업 무기력이라는 가정환경과 개인요인을 포함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와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가정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부모의 양육행동이다. 양육행동은 부모가 평소 자녀를 대하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자녀의 발달 및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온정과 애정 차원의 긍정적 양육행동, 통제 차원의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Schaefer, 1959). 이 중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고 통제하며, 예측할 수 없는 비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및 의존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권미경, 박현숙, 유주희, 한경옥, 2016; 노충래, 김소연, 2016; Xiuqin et al., 2010). 권미나와 이진숙(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거부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녀는 스마트폰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박소연과 유미숙(201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과보호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스마트폰 의존의 원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청소년의 개인변인은 학업 무기력이다.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기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 학업성취 압박 및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지속된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소진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조선화, 2019). 학업 무기력이란 학업상황에서의 반복된 실패경험으로 좌절감, 피로감 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학업에 부정적인 신념을 지닌 상태인 통제신념 결여, 긍정적인 학업 의욕이 저하된 학습동기 결여, 학업상황에서 느끼는 즐거움, 유쾌함, 행복감 등의 긍정 정서가 저하된 긍정정서 결여, 학업 및 과제 수행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인 능동수행 결여라는 4개의 구성요소가 포함된다(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이러한 학업 무기력은 실패를 먼저 예상하여 주어진 과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완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학업 부진, 학업성취 저하와 같은 학업 문제로 이어지며,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다고 느낌으로서 자존감이 상실되고, 의존적인 행동을 보인다(박경연, 2002; 박병기 외, 2015; 이정숙, 2013; Buzzai, Sorrenti, Tripiciano, Orecchio & Filippello, 2021). 뿐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반복된 학업 실패는 사회적 위축, 우울,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과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전혜숙, 전종설, 2019; Leung, Yeung & Wong, 2010), 최근 연구를 통해 학업 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도와의 정적인 관련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은경, 안지영, 김지신, 2019). 이를 통해 학업 상황에서 경험되는 심리적인 어려움인 학업 무기력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으나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 무기력이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편, 학업무기력과 같은 동기요인은 청소년의 물리적·정서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환경은 가정, 또래, 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이중 가정환경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중학생 자녀의 학업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 스스로의 선택을 방해하고, 행동을 지시하는 등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내적동기는 저하되며(Ryan & Deci, 2000), 학습된 무기력은 증가된다(금명자, 2008). 또한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표현을 무시하고 통제할수록 자녀의 학업 효능감은 낮아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Filippello, Harrington, Costa, Buzzai & Sorrenti, 2018). 이처럼 부모의 통제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일반적으로 보고되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업무기력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시사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중학생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권미나, 이진숙, 2020; 김경민 외, 2018; 최은영, 2020)를 통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더 높음이 확인되었으며,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 다집단 분석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연구에 참여한 중학생의 1차년도(2018년; 중학교 1학년)부터 3차년도(2020년;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가중시키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별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 S 2018)의 중1 패널 1~3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KCYP S 2018 중1 패널 자료는 2018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구축하였으며,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한 종단자료이다. 본 연구는 제1차(2018년), 제2차(2019), 제3차(2020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총 2,242명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 중 남학생은 1,204명(53.7%), 여학생은 1,038명(46.3%)이다.

2. 연구도구

1) 스마트폰 의존도

김동일 외(2012)가 개발한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등이 있으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스마트폰 의존도의 Cronbach's α 는 제1차부터 제3차까지 모두 .88로 나타났다.

2)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KA)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따스함(4문항), 자율성지지(4문항), 구조제공(4문항), 거부(4문항), 강요(4문항), 비밀관성(4문항) 총 6개 하위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해당되는 거부, 강요, 비밀관성의 3개 하위요인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평소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강요적이며, 비 일관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제1차년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Cronbach's α 는 .87이다.

3) 학업무기력

박병기 외(2015)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업 무기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업에 부정적인 신념을 지닌 상태인 통제신념 결여(4문항), 긍정적인 학업 의욕이 저하된 학습동기 결여(4문항), 학업상황에서 느끼는 즐거움, 유쾌함, 행복감 등의 긍정정서가 저하된 긍정정서 결여(4문항), 학업 및 과제 수행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인 능동수행 결여(4문항)라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6문항이다. 문항의 예로는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해 부정적이며, 의욕 및 동기가 낮아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제1차년도 학업무기력의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빈도분석, 주요 변수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 척도의 신뢰도 분석,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종단적 구조모형을 검증한 후 성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화궤적은 무변화와 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카이제곱 통계량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TLI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카이제곱 값이 유의미하여도 RMSEA가 .80이하이고, CFI, TLI가 .90이상이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또한 잠재성장모형에서는 결측자료와 비정규성 추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1과 같다. 전체 스마트폰 의존도 평균은 제1차에 2.04, 제2차에 2.13, 제3차에 2.18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차, 제2차, 제3차 스마트폰 의존도는 부정적 양육행동($r=.17\sim.33$) 및 학업 무기력($r=.20\sim.43$)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매개변인인 학업무기력과의 유의미한 정적상관($r=.4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인	1	2	3	5	6
1. 스마트폰의존도 1차	1				
2 .스마트폰의존도 2차	.45***	1			
3. 스마트폰의존도 3차	.36***	.48***	1		
5. 부정적 양육행동 1차	.33***	.21***	.17***	1	
6. 학업무기력 1차	.43***	.24***	.20***	.42***	1
전체 평균(표준편차)	2.04(.49)	2.13(.47)	2.18(.49)	1.99(.53)	1.89(.54)
남학생 평균(표준편차)	1.99(.47)	2.10(.46)	2.16(.48)	2.02(.54)	1.88(.54)
여학생 평균(표준편차)	2.09(.50)	2.16(.48)	2.20(.50)	1.97(.52)	1.90(.53)
t	-4.71***	-2.81**	-2.02*	2.30*	-1.56

*p<.05, **p<.01, ***p<.001

2)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 추정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을 비교하였다. 표 2에 제시한 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의 적합도가 TLI .99, CFI .99, RMSEA .02로 나타나 중학생의 스마트폰 변화궤적은 선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중학생 스마트폰 의존도의 무변화, 선형 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χ^2/df	TLI	CFI	RMSEA
무변화	180.33***	4	45.08	.89	.85	.14
선형	7.03+	3	2.34	.99	.99	.02

*p<.01, ***p<.001

다음으로 표 3에 제시된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선형변화모형 추정치에 의하면 중학생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의 평균이 2.05(p<.001)이고, 변화율의 평균이 .07(p<.001)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해마다 0.7정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치 분산이 .12(p<.001)이고, 변화율 분산이 .02(p<.001)로 나타나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에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공분산이 -.02(p<.001)인 음수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도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며, 증가폭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 중학생 스마트폰 의존도의 잠재성장모형 분석

변화모형	평균		분산		공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 변화율
스마트폰 의존도	2.05***	.07***	.12***	.02***	-.02***

*** p<.001

2.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최대우도법으로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잠재변인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학업무기력은 각각의 척도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을 측정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 의존도는 단일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추정오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스마트폰 의존도는 제1차, 제2차, 제3차 평균을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학업무기력 및 스마트폰 의존도 총 3개의 잠재변인과 10개의 측정변인이 선택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이 χ^2 는 304.17(df=32), TLI .95, CFI .97, RMSEA .06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χ^2/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304.17***	32	9.51	.95	.97	.06

*** p<.001

다음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중학생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모형을 설정하였으며(그림 1 참고),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이 χ^2 는 161.03(df=34), TLI .98, CFI .98, RMSEA .04로 매우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χ^2/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161.03***	34	4.74	.98	.98	.04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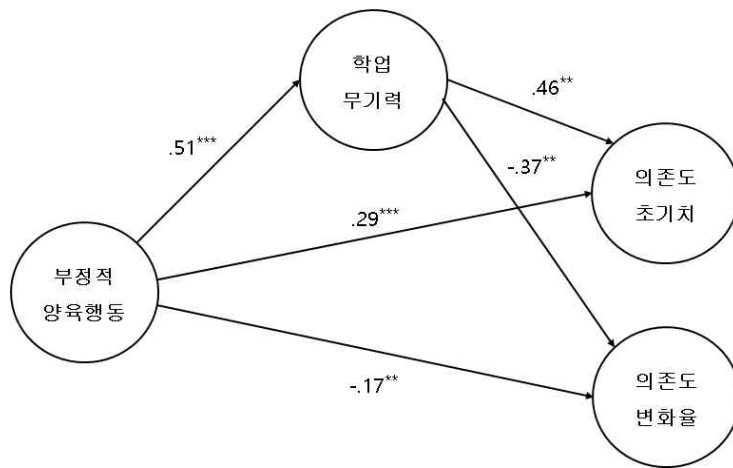


그림 1. 구조모형 경로계수

구조모형에 입각하여 각 변수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독립변인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학업 무기력($\beta=.51$, $p<.001$),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beta=.29$, $p<.001$),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율($\beta=-.17$, $p<.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학업 무기력 또한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beta=.46$, $p<.001$)와 변화율($\beta=-.37$, $p<.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학업무기력이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수이나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학업에 대한 무기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가 더 높으며,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율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구조모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부정적 양육행동 → 학업무기력	.51	.51	.03	18.70***
부정적 양육행동 →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	.20	.29	.03	7.98***
부정적 양육행동 →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율	-.04	-.17	.02	-2.78**
학업무기력 →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	.31	.46	.02	13.29***
학업무기력 →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율	-.10	-.37	.02	-6.51***

*** $p<.01$, ** $p<.001$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값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eta=.23$, 변화율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eta=-.19$ 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p < .05$)으로 확인되었다(표 7 참고).

표 7.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분해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부정적 양육행동 → 학업무기력 →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	.29	.23	.52
부정적 양육행동 → 학업무기력 →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율	-.17	-.19	-.36

3.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이용하였다.

1) 측정동일성 검증

먼저 다집단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 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 모형 간에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p=.92$)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에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표 8.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χ^2/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217.16***	69	3.15	.98	.98	.03
제약모형	218.64***	74	2.96	.98	.98	.03
모형간 차이검증 $\Delta\chi^2 = 1.49$ ($p=.92$, $p>.05$)						

*** $p < .001$

2) 구조동일성 검증

구조모형 변수들 간의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해 기저모형과 구조동일성 제약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표 9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 간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표 9. 구조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χ^2/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217.16***	69	3.15	.98	.98	.03
제약모형	288.93***	86	3.36	.97	.98	.03

모형간 차이검증 $\Delta\chi^2 = 71.78$ ($p=.000$, $p<.001$)

*** $p<.001$

먼저, 남학생 집단의 변수 간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독립변인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학업무기력($\beta=.49$, $p<.001$)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beta=.25$,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율($\beta=-.06$, $p>.05$)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학업무기력은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beta=.47$, $p<.001$)와 변화율($\beta=-.38$, $p<.001$)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에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학업무기력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율에는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업무기력이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수인 반면,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학업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고 무기력감을 느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가 높고,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율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 남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부정적 양육행동 → 학업무기력	.49	.49	.04	13.12***
부정적 양육행동 →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	.16	.25	.03	4.92***
부정적 양육행동 →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율	-.02	-.06	.02	-.75
학업무기력 →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	.29	.47	.03	9.59***
학업무기력 →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율	-.10	-.38	.02	-4.77***

*** $p<.001$

여학생 집단의 변수 간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독립변인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업무기력($\beta=.53$, $p<.001$),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beta=.34$, $p<.001$),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율($\beta=-.29$, $p<.001$)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무기력 또한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beta=.43$, $p<.001$)와 변화율($\beta=-.34$,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학생 집단의 경우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 집단에서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학업무기력이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수인 반면,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학업에 대한 무기력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는 높고,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율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1. 여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i>B</i>	β	S.E	C.R
부정적 양육행동 → 학업무기력	.54	.53	.04	13.60***
부정적 양육행동 →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	.26	.34	.04	6.80***
부정적 양육행동 →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율	-.08	-.29	.02	-3.41***
학업무기력 →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	.32	.43	.04	8.82***
학업무기력 →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율	-.09	-.34	.02	-4.15***

*** $p<.001$

다음으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으로 경로의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5개의 경로 중 부정적 양육행동이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경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경로계수 차이 검증을 이용한 구조동일성 모형 비교 결과

경로	남 β	여 β	$\Delta\chi^2$	df
부정적 양육행동 → 학업무기력	.49	.53	.64	1
부정적 양육행동 →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	.25	.34	3.99*	1
부정적 양육행동 →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율	-.06	-.29	4.13*	1
학업무기력 →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	.47	.43	.33	1
학업무기력 →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율	-.38	-.34	.002	1

* $p<.05$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3학년까지 3년간 측정한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을 분석하였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중학생 자녀의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 잠재성장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 모형 분석 결과 3개 시점에서 측정한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은 선형모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각 시점의 스마트폰 의존도 평균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시기 동안 스마트폰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며, 여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빈도 및 의존도가 더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경민 외, 2018; 최은영, 2020)와도 일치한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압박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스마트폰에 더욱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주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또래와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SNS,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시간 및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마트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수,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음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학생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는 높고,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율은 완만하게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경민 외, 2018)와 맥을 같이한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기보다 자율성을 저해하고,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불안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중학교 자녀에게 관계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을 유발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라는 가상세계에 더욱 의존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의 폭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은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값이 높아 상대적으로 변화율이 완만하게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영유아기,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비난·조롱·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거나, 심리적인 통제로 복종을 요구하는 등의 부정적인 양육보다 자녀가 주도적으로 지지해주고, 애정을 표현함으로써 편안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의존 경향성이 높은 중학생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행

동 개선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행동과 스마트폰 의존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권미나, 이진숙, 2020; 노충래, 김소연, 2016),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의존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은경 외, 2019)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입시위주의 경쟁체제로 중학교 시기부터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간섭하고,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녀의 학업동기를 감소시키고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환경변인과 개인변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발달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무기력과 같은 정서 경험이 스마트폰 의존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업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스스로 조절하고, 학업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스마트폰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관계 지향적이며, 남학생보다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을 좀 더 민감하게 받는다(장은비, 최현주, 하규영, 박은혜, 이상민, 2014, Agnew, 2009). 이에 여학생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가상현실인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처럼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율을 낮추기 위해 남학생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및 양육행동 개선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여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학업동기와 같은 개인변인에 초점을 둔 중재나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궤적을 종단적으로 탐색하였고,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동시에 탐색함으로써 향후 스마트폰 의존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탐색되지 않았으며, 양육행동에서도 부정적인 측면만을 검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예방 및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긍정요인들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직업, 학력과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여 모형을 설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학업무기력, 성별이 제 1차년도부터 제3차년도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미경, 박현숙, 유주희, 한경옥. (2016). 유아기 스마트폰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23(4), 121-138.
- 권미나, 이진숙.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행동과 그릿, 학업열의, 스마트폰 의존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및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29-44.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99-317.
- 김경민, 조은영, 송지은. (2018).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아동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변화에 미치는 영향: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1), 7-32.
-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 태도(PSCQ-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노충래, 김소연. (2016).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4), 87-114.
- 박가화, 이지민. (2018). 과잉양육과 또래소외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의존경향성의 매개효과 및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가정학회지**, 56(2), 145-156.
- 박경연. (2002). **학습된 무기력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 박소연, 유미숙. (2019). 방임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아탄력성 소외감의 매개효과. **재활치료과학**, 8(1), 27-39.
- 배성만. (2014). 중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 만족도가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1), 271-290.
- 윤지현, 박근희, 홍혜영. (2020).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휴대전화의존의 종단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7(7), 1-22.
- 이선화, 이정수, 오인수. (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가해 행동의 관계: 사회적 위축과 핸드폰 의존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미래교육학연구**, 34(1), 177-200.
- 이영민, 권성연. (2020).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휴대전화의존도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167-196.
- 이은경, 안지영, 김지신. (2020).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 사이에서 부정적인 친구관계와 학업 무기력의 직렬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5(3), 271-289.
- 이정숙. (2013). **여고생의 학업 무력감에 대한 현상학적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하나, 양승목.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영향변인의 관계에 대한 학령 및 성별 비교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스마트폰 이용 용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5), 175-214.
- 장은비, 최현주, 하규영, 박은혜, 이상민. (2014).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비공식 적인, 비행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185-205.
- 전혜숙, 전종설. (2019). 청소년 친구 및 학교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우울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1(1), 1-28.
- 조선휘. (2019).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 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7, 145-169.
- 최은영. (2020).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5), 433-459.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 한국정보화진흥원.
- 황소희, 이영애. (2018). 중학생 우울증상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21(3), 343-363.
- Agnew, R. (2009). The contribution of “mainstream” theories to the explanation of female delinquency. In M. A. Zahn (Ed.), *The delinquent girl*.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Buzzai, C., Sorrenti, L., Tripiciano, F., Orecchio, S., & Filippello, P. (2021). School alien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role of learned helplessness and mastery orientation. *School Psychology, 36*(1), 17-23.
- Filippello, P., Harrington, N., Costa, S., Buzzai, C., & Sorrenti, L. (2018).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chool learned helplessness: The role of frustration intolerance as a mediator factor.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9*(4), 360- 377.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Leung, G. S., Yeung, K. C., & Wong, D. F. (2010). Academic stressors and anxiety in children: The role of paternal suppor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9*(1), 90-100.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amaha, M., & Hawi, N. S. (2016).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stress,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life. Corrigendum.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7*, 321-325.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Xiuqin, H., Huimin, Z., Mengchen, L., Jinan, W., Ying, Z., & Ran, T. (2010). Mental health, personality, and parental rearing styles of adolescents with internet adiction disorder.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4), 401-406.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 및 성별 다집단 분석’에 대한 토론문

주동범
부경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변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존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이 매개하는지,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용도가 다양화되면서 스마트폰 사용 빈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좀 더 발전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이 잘 기술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지만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부모 양육행동, 스마트 의존도,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잘 기술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연구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은 연구자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 구축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직접 조사할 경우와는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 연구대상>이라는 제목은 기 구축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제목을 본문의 내용에 맞게 <1. 데이터 및 표본>으로 수정하기를 추천한다. 둘째, <2. 연구도구>라는 제목은 기 구축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직접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사가 완료된 문항들을 필요에 따라 추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목을 본문의 내용에 맞게 <2. 변인 또는 변수>로 수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변인 또는 변수를 설명할 때 어떤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척도를 사용한 주체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기관이다. 연구자는 척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해당 변인 또는 변수를 측정된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된다. 5쪽에서 6쪽 사이에 있는 세 개의 변인 또는 변수에 대한 설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는 연구문제에 맞게 잘 제시된 것 같다. 우선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증가폭은 낮다는 것이다. 비록 3년간의 결과이지만 스마트폰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가폭이 낮은 이유는 3년간의 결과때문일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더 긴 기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 및 변화 모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학업무력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학업무력감 및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교육 및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치 및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무력감을 매개로 한 영향은 성차가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결과라 생각된다. 자녀의 성별을 무시하고 부모교육을 운영하기보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부터 자녀의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과 및 논의에서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가 충실히 잘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논의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 다음을 참조했으면 한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그 결과가 후속 연구를 위해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등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주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Session 2

제4주제

진로

보호자의 배경 변인이 학생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수원²⁾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 제1~3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 보호자인 주로 학부모의 배경과 학생과의 진로 관련 대화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능적 가족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만족스럽고 바람직한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정리한 결과, 중등학교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에 비해 희망 학업수준과 교육수준은 다소 낮은 편인 반면, 학생의 장래 직업 결정은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진로 선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진로 관련 대화를 주로 하는 편이고 어머니의 진로 관련 대화는 학생의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진로 결정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는 ‘월평균 사교육비’와 ‘자녀의 희망 학업수준’, ‘거주지’,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는 ‘월평균 사교육비’,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로 관련 대화에는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가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빈부격차에 의한 문제로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보호자 배경, 진로 결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wkim@krivet.re.kr

I. 서론

인간의 삶은 일상의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관해 고민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개인적 삶의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중 하나가 진로 결정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정보수집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하며,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Erickson, 1968).

자아를 실현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청소년들에게 만족스럽고 바람직한 진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최미숙, 2010). 이에 청소년기는 전 생애에 걸친 진로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진로 관점에서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세심하게 지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아에 대한 정체감이나 존재감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학교 성적에 맞춰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김종운·최미숙, 2011).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정체성 혼란과 함께 대학 진학이나 취업 이후에도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이 많이 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게 되더라도 가족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우리 사회의 특성상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부모 관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불일치 정도가 클수록 심리적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갈등이나 가족으로부터의 관계 설정 그리고 사회적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 시기에 진로라는 복합적인 의사결정에 다양한 변인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Dinklage, 1996). 가족기능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지지와 격려, 대화가 충분해야 하며 가족 간의 규범과 기준을 세우고 일의 대처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조화경, 2006). 그 외 기존 선행연구(이소연, 2004; Carr, 2000; Santos & Coimbra, 2000; Whittaker & Marie, 1994; Bratcher, 1982)에서 부모 등 가족은 진로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능적인 가족일수록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8 제1~3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 보호자인 주로 학부모의 배경과 학생과의 진로 관련 대화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능적 가족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만족스럽고 바람직한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1. 보호자의 배경과 진로

최근의 진로이론에서는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서 진로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Carr, 2000), 진로 결정과 선택이 체계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Bratcher, 1982). Penick & Jepsen(1992)은 학생들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기능의 지각은 가족관계 및 유지, 체계수준에서 진로정체감을 미리 알려주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에 관계된 변량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증하였다.

이에 학생 개인이 진로 선택에 필요한 요구를 처리함에 있어 가족, 특히 학부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맥락을 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보호자의 배경과 관련한 진로 관련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구소득과 진로정체감

전통적으로 청소년기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요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 역시 대단히 크다고 알려진 주요 변인 중 하나는 바로 부모의 소득이다. 청소년은 가정 속에서 부모의 소득에 손쉽게 영향을 받는 수동적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 결정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가구소득에 따른 청소년기 진로정체감의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을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 선행연구(Saks & Shore, 2005; 문승태·김연희, 2003; 노혁, 2006; 조성연·민경석, 2011; 노법래, 2013; 변금선, 2013; 구인화·김정은, 2015; 박은정·이유리·이성훈, 2016)에서는 이러한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Saks & Shore(2005)는 1968~1993년 직종별 임금 통계를 통해 어떤 계층이 실패의 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직업을 선택하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 내 안정적인 부의 크기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보다 모험적인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사회 내에서의 직업적 성취를 통해 이룬 안정적인 소득의 크기는 또 다른 진로를 보다 폭 넓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빈곤한 계층의 자녀보다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진로를 보다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는 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과거 문승태·김연희(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진로결정 연구와 관련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더욱 애정을 갖고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다 조금 뒤에 진행된 노혁(2006)의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에 차이를 종단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진로성숙 수준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밀접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후 진행된 조성연·민경석(2011)의 연구에서도 역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진로정체감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고 반대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진로정체감도 낮은 이유를 원가족의 경제적 가용자원 부족, 진로모델 결핍 등으로 파악하고, 청소년의 가정 경제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진로상담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노법래(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패널조사(YP2007)의 2007년(고1)과 2008년(고1) 그룹을 결합한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 지위의 변동과 같은 경제적 불안정성이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후퇴를 예방하는 지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변금선(2013)은 한국노동패널자료(1999-2009년)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빈곤가구 청소년은 비빈곤가구 청소년에 비해 청년기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극빈층 집단에서 더욱 크며, 교육수준을 매개하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청소년기에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경쟁과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받고, 결국 가구빈곤이 자녀에게도 대물림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에 비해 비교적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구인화·김정은(2015)은 서울아동패널자료(2004-2014)를 활용한 종단연구를 통해 고교시절 가족의 소득이 대학 진학에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력은 학업성취도를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지속됨을 확인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득에 따른 학력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층 격차 현상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공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저소득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의 노력이 함께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박은정 외(2016)의 연구

에서도 역시나 소득계층이 상층인 청소년집단에 비해 중하층 청소년집단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반복 확인되었다. 이들은 연구결과에 대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 진로 및 직업체험, 많은 문화 활동 참여를 통해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 제도, 진로상담코칭, 1:1 진로멘토링 연계 프로그램 등 청소년 복지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기존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이명진·봉미미·권순구(2010)의 연구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Blau & Duncan(1967)의 주장을 빌어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원의 부족함이 궁극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낮은 진로포부로 이어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예상과 달리 중산층의 가계소득과 진로포부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진로에 대한 자기개발 포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가구소득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간에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한 시점에 한 번 조사가 이루어진 자료를 분석(문승태·김연희, 2003; 이명진 외, 2010; 조성연·민경석, 2011; 박은정·이유리·이성훈, 2016)한 연구와 여러 시점에 반복조사가 이루어진 자료의 분석(Saks & Shore, 2005; 노혁, 2006; 노법래, 2013; 변금선, 2013; 구인회·김정은, 2015)을 시도한 연구에서 이명진 외(2010)의 연구를 제외하고 모두 같은 관계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즉,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 비해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물질적 가용자원의 부족, 진로역할모델의 부재, 미래 직업에 대한 제한된 경험, 진로관련 정보의 부재 등의 이유로 진로정체감의 발달에서 취약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악조건은 빈곤가구 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경쟁과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 사회경제적 수준과 진로성숙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 정도 역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청소년의 내·외적 요인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하게 된다(원지영, 2019).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가정환경 변인, 그리고 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동아리활동, 독서 및 문화활동을 들고 있다(김희수·김옥희, 2007; 박미란·이지연, 2010). 이 외에도 부모-자녀 관계, 교사 또는 또래관계 역시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박미란·이지연, 2010). 특히,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 등과 같은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이제경·이승구, 2007). 예를 들면, 빈곤 경험이나 낮은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수준, 소득수준 등은 청소년의 진로발달 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따라서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진로성숙 정도의 차이는 청소년 자녀를 위한 가용자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원지영, 2019). 빈곤과 같은 경제적 불안정은 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의 결핍을 가져올 수 있다(노혁, 2006; 노법래, 2013; 김현주·김준영, 2010). 반면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에의 참여, 높은 사교육비 지출 등은 진로 성숙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노법래, 2013; 이자형, 2015).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성숙과 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 갈등,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방식, 부모의 무관심과 대화 부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청소년들의 진로성숙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현주·김준영, 2010). 이처럼 가정의 경제수준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이어왔으며, 연구 결과는 대체적으로 두 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현옥(1989)의 중·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권정숙(1992)의 실업계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진로성숙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경제적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능력은 중류층 중학생 및 상류층 중학생들이 하류층 중학생들보다 더 성숙하다고 하여 경제적 수준이 상위과 하위, 중위과 하위 간에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원소미, 2016), 김성환·전용석(2005)은 청소년의 가구소득, 가구자산, 사교육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변수가 대학진학과 취업의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청소년의 진로결정이 실제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수정(2007)의 연구에서도 진로 성숙의 변화율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에게 진로탐색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더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진로 성숙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 역시 살펴볼 수 있는데, 강경찬(1997)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가정배경 변인이 진로 성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던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가정

배경 변인들 중 가구소득이 진로 성숙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관(2003)의 연구에서는 부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와 자신감을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진로성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미(2011)의 연구에서 역시 가계소득과 진로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만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olbert(1980)은 개인이 선택한 진로에 따라서 능력 발휘의 기회, 거주지, 교우의 유형,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가족 간의 관계 등과 같은 생활의 모든 측면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결국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구소득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인 청소년 자녀에게 진로발달에 필요한 각종 여건과 자아정체감 형성 및 직업발달 영향 요소들의 부족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는 Schulenberg, Vondracek & Crouter(1984)가 직업 선택에 있어 가족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으로 제시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한다(SES begets SES)’는 문구와도 연결 지어 볼 때, 청소년들이 성장 후에도 다시 빈곤을 경험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노혁, 2006).

노법래(201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경제적 불안정이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 불안정이 직접적으로 자원의 부족상태로 이어져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의 결핍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둘째는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들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사회경제적인 배경은 현실적으로 부모의 진로 지지도에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더 원활하고 수월한 지지 여건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관심과 각종 물질적 심리적 지원들이 자녀의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여러 가지 매개요인을 통해 간접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 진로선택 영향 요인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앞의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직업선택의 일관성(시간, 현장, 수준, 가족), 직업선택의 지혜(능력, 흥미, 성격, 사회계층), 직업선택 능력(문제해결력, 계획성, 직업정보, 자아평가, 목표 선택), 직업선택 태도(선택과정에서의 개입, 일에 대한 방향성, 의사결정의 독립성, 직업태도 요인에 대한 선호도, 선택과정의 개념)등의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이기학, 1997. 재인용). 따라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성별, 연령, 자아관 등과 환

경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가족관계,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환경, 진로체험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진로발달 및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개인적인 요인에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배경 및 부모 요인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게 된다. 청소년은 여전히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부모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교육열이 높은 국내의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학문제에도 관여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가구의 사회적 배제 수준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다시 자녀의 자존감, 학교생활, 진로성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의 개인적 특성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현숙, 2015). 또한 진로발달은 실제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을 통해 일정부분 이루어지게 되므로 학교요인 역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변인으로는 학업성적과 교사와의 관계, 친구 관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진로준비활동과 진로성숙에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으로 송병국·박정배(2006)의 연구에서 진로 관련 활동 참여와 진로선택 준비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로 관련 강연과 수업, 진로검사와 상담, 독서 등은 진로선택 준비도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직업체험이나 직업 관련 집단활동 등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신희경·김우영(2005)의 연구에서도 적성검사와 특기적성 수업이 진로 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반면 실업계 학생들에게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진로성숙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Super(1990)는 한 개인의 진로유형이 그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수준과 그에게 주어진 기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김봉환 외(2000)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영향요인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진로의 발달과 선택과정 모두에서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이희영, 2003).

표 1. 진로 선택의 사회·환경적 영향요인

구분	영향 요인
가정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수입, 직업, 교육정도, 주거지역, 주거양식) - 가족 구성원의 규모와 형태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 형제·자매의 영향력 - 가족 구성원의 가치관 - 가정에 대한 개인의 태도 등
학교	- 교사의 구성(성별, 과목별 등) - 교사의 언행과 태도 - 교사의 직업 가치관 - 또래친구·선배와의 관계 등

구분	영향 요인
지역사회	- 지역의 주요 산업업종 - 지역의 경제수준 -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 - 지역 내 특수한 경험 - 최근의 기술 변화 등

Ⅲ. 연구방법

1.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가족기능에서 학생의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등을 통해 학부모의 배경, 학생의 진로 결정, 그리고 진로 관련 대화 등 관련 변수를 추출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학부모의 배경요인에는 ‘최종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가정 경제수준’, ‘월평균 사교육비’, ‘자녀의 희망 학업수준’ 등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학생의 진로 결정요인에는 ‘장래 희망 교육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 그리고 일종의 매개변수로서 ‘진로 관련 대화 상대/빈도’ 등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급별, 성별, 거주지별 등의 변수를 혼동(통제)변수로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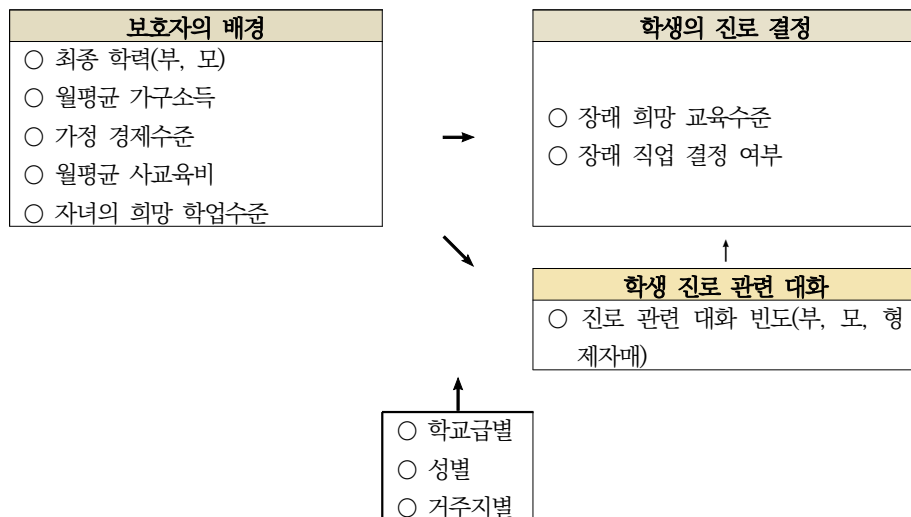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자료 중 2018 제1~3차(2018~2020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등학교 호버트의 경우 학생들이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기이다. 학생들의 진로에는 학생 자신 외 학부모, 학교 교사 그리고 주위의 친척·친구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획득하여 결정하거나 방황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급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을 비교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독립변수에서 학부모의 최종 학력은 7점 척도, 월평균 가구소득은 12점 척도, 가정 경제수준은 5점 척도, 월평균 사교육비는 금액 척도, 자녀에 대한 희망 학업수준은 4점 척도로 처리하였고, 종속변수에서 학생의 장래 희망 교육수준은 4점 척도, 장래 직업 결정 여부는 3점 척도로 처리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연계하는 매개변수는 학생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는 4점 척도로 처리하였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처리
보호자의 배경	최종 학력(부, 모)	1= 학교 안 다님,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2-3년제 대학 졸업, 6= 4년제 대학 졸업, 7= 대학원(석·박사) 졸업
	월평균 가구소득	1= 소득 없음, 2= 100만원 미만, 3= 100만-200만원, 4= 200만-300만원, 5= 300만-400만원, 6= 400만-500만원, 7= 500만-600만원, 8= 600만-700만원, 9= 700만-800만원, 10= 800만-900만원, 11= 900만-1000만원, 12= 1000만원 이상
	가정 경제수준	1= 최하, 2= 하, 3= 보통, 4= 상, 5= 최상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비 정도 (단위: 만원)
	자녀의 희망 학업수준	1= 고등학교 졸업, 2= 2-3년제 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석·박사) 이상
학생의 진로 결정	장래 희망 교육수준	1= 고등학교 졸업, 2= 2-3년제 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석·박사) 이상
	장래 직업 결정 여부	1=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2=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3=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진로 관련 대화	진로 관련 대화 빈도(부, 모, 형제·자매)	1=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3= 가끔 대화한다, 4= 자주 대화한다
혼동(통제) 변수	학교급별	1= 초등학교, 2= 중등학교
	성별	1= 남자, 2= 여자
	거주지별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3.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는 측정변수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한 일반적인 특성, 측정변수에 대하여 t-검증에 의한 학교급별 차이, 회귀분석에 의한 보호자 배경과 학생 진로 결정에 대한 인과성과 영향정도 등을 파악·분석하였다.

측정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고, 사용된 통계적 분석기법과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자인 학부모의 배경, 가족과의 진로 관련 대화 그리고 학생의 진로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보호자인 학부모의 배경, 가족과의 진로 관련 대화 그리고 학생의 진로 결정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보호자인 학부모의 배경, 가족과의 진로 관련 대화 관련 변수들과 학생의 진로 결정 관련 변수들 간 그리고 성별·거주지별 인과성과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응답자의 성별·거주지별 현황

응답자(학생)의 성별·거주지별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성별 비율은 ‘여자’(51.8%)가 ‘남자’(41.8%)보다 다소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학교와 비교해보면, 중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거의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비율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유사한 비율로 대부분(82.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학교와 비교해보면, 중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거의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성별·거주지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분류	중등학교	비교 대상 (초등학교)
성별	남자	48.2(441)	49.0(485)
	여자	51.8(474)	51.0(505)
	계	100.0(915)	100.0(990)
거주지별	대도시	41.2(376)	41.0(405)
	중·소도시	41.7(380)	43.8(433)
	읍·면	17.1(156)	15.3(151)
	계	100.0(912)	100.0(989)

2.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가. 독립변수(보호자의 배경)

보호자의 배경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표 4〉 참조), 중등학교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 최종학력은 대체로 2-3년제 학력 정도(5.28점, 5.09점)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대체로 400~500만원 정도(6.75점)이고, 주관적 경제수준은 보통 정도(2.95점)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월평균 51.43만원 정도이고, 자녀의 희망 학업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 정도(3.02점)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학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부모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학부모(3.45점, 3.28점)보다 높은 것으로, 월평균 가구소득과 주관적 경제수준도 초등학교 학부모(각 2.98점, 1.0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학부모(31.94만원)보다 높은 편이지만, 자녀의 희망 학업수준은 다소 낮은 편(3.12점)으로 나타났다.

표 4. 보호자의 배경

(단위: 점)

구분	중등학교	비교 대상 (초등학교)	평균 차이	t값(유의도)
최종학력(부)	5.28	3.45	-0.172	-6.761***
최종학력(모)	5.09	3.28	-0.186	-7.827***
월평균 가구소득	6.75	2.98	3.768	99.174***
주관적 경제수준	2.96	1.01	1.944	218.002***
월평균 사교육비	51.43	31.94	7.489	8.390***
자녀의 희망 학업수준	3.02	3.12	-0.108	-7.778***

주: * p<0.1, ** p<0.05, *** p<0.001.

나. 종속변수(학생의 진로 결정 여부)

학생의 진로 결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표 5〉 참조), 장래 희망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정도(2.91점)이고, 장래 직업 결정 여부는 ‘대강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1.91점)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학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장래 희망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학생(2.96점)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고, 장래 직업 결정 여부는 초등학교 학생(1.81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생의 진로 결정 여부

(단위: 점)

구분	중등학교	비교 대상 (초등학교)	평균 차이	t값(유의도)
장래 희망 교육수준	2.91	2.96	-0.055	-1.303
장래 직업 결정 여부	1.93	1.81	0.120	2.725**

주: * $p < 0.1$, ** $p < 0.05$, *** $p < 0.001$.

다. 매개변수(학생의 진로 관련 대화)

학생의 가족 간 진로 관련 대화에 대해 살펴보면(〈표 6〉 참조), 아버지와의 진로 대화 빈도는 가끔 대화하는 편(3.05점)이고, 어머니와의 진로 대화 빈도는 아버지와의 대화 빈도보다 다소 높은 편(3.49점)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와의 대화 빈도는 부모의 그것보다 낮은 편(2.83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학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와의 대화 빈도 모두 초등학교 학생에 비해 낮은 것(각 3.15점, 3.61점, 2.95점)으로 나타났다.

표 6. 학생의 진로 관련 대화

(단위: 점)

구분	중등학교	비교 대상 (초등학교)	평균 차이	t값(유의도)
진로 대화 빈도(부)	3.05	3.15	-0.093	-2.367**
진로 대화 빈도(모)	3.49	3.61	-0.113	-3.647***
진로 대화 빈도(형제·자매)	2.83	2.95	-0.117	-2.460**

주: * $p < 0.1$, ** $p < 0.05$, *** $p < 0.001$

3. 독립과 종속 변인 간의 인과성과 영향정도

보호자의 배경, 가족과의 진로 대화 빈도와 학생의 진로 결정과의 관계에 대해 회귀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를 살펴보면(〈표 7〉, 〈표 8〉 참조), 다음과 같다.

모형 1에서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는 ‘월평균 사교육비’와 ‘자녀 희망 학업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학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는 ‘아버지의 최종학력’과 ‘자녀에 대한 희망 학업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상황변수인 학생의 ‘성별’, ‘거주지별’을 투입한 결과,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는 모형 1에서의 변수 외에 ‘거주지별’이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학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는 모형 1에서의 변수 외에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보호자의 배경과 학생의 진로 결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

구 분	모형 1				모형 2			
	중등학교		비교 대상(초등학교)		중등학교		비교 대상(초등학교)	
	장래 희망 교육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	장래 희망 교육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	장래 희망 교육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	장래 희망 교육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
	회귀계수(B) (t검정 Sig.)				회귀계수(B) (t검정 Sig.)			
상수 계수	1.284***	1.717***	1.294***	1.585***	1.305***	1.812***	1.263***	1.502***
최종학력(부)			0.127**				0.123**	
최종학력(모)								
월평균 가구소득								
가정 경제수준								
월평균 사교육비	0.172***	0.192***		0.168***	0.157***	0.194**		0.161**
자녀의 희망 학업수준	0.469***		0.434***		0.469***		0.433***	
성별								0.089*
거주지별					-0.083*			
R2	0.281	0.035	0.233	0.026	0.284	0.033	0.229	0.031
F검정 Sig.	0.000	0.000	0.000	0.002	0.000	0.000	0.000	0.002

주: * $p < 0.1$, ** $p < 0.05$, *** $p < 0.001$.

모형 3에서는 독립변수로서 보호자의 배경 외에 학생의 진로 대화 빈도를 추가하여 학생의 진로 결정과의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는 모형 1에서의 변수 외에 ‘어머니와의 진로 대화 빈도’가 유의미한 경향을 미치는 것으로,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는 모형 1에서의 변수 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학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장래 희망 교육수준

에는 모형 1에서의 변수 외에 ‘어머니와의 진로 대화 빈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는 모형 1에서의 변수 외에 ‘형제·자매와의 진로 대화 빈도’가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보호자의 배경(+ 진로 대화)과 학생의 진로 결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2)

구 분	모형 3			
	중등학교		비교 대상(초등학교)	
	장래 희망 교육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	장래 희망 교육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
	회귀계수(B) (t검정 Sig.)		회귀계수(B) (t검정 Sig.)	
상수 계수	0.985***	1.727***	0.950***	1.768***
최종학력(부)			0.120**	
최종학력(모)				
월평균 가구소득				
가정 경제수준				
월평균 사교육비	0.172***	0.188***		0.161***
자녀의 희망 학업수준	0.461***		0.427***	
진로 대화 빈도(부)				
진로 대화 빈도(모)	0.097**		0.105**	
진로 대화 빈도(형제·자매)				-0.104**
R2	0.289	0.033	0.242	0.036
F검정 Sig.	0.000	0.000	0.000	0.001

주: * p<0.1, ** p <0.05, *** p<0.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 보호자인 주로 학부모의 배경과 학생과의 진로 대화 빈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능적 가족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만족스럽고 바람직한 진로지도할 수 있는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보호자의 배경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중등학교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 최종학력은 대체로 2-3년제 학력 정도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대체로 400~500만원 정도이고, 주관적 경제수준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월평균 51.43만원 정도이고, 자녀의 희망 학업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학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부모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학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월평

균 가구소득과 주관적 경제수준도 초등학교 학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학부모보다 높은 편이지만, 자녀의 희망 학업수준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의 진로 결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장래 희망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정도이고, 장래 직업 결정 여부는 '대강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학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장래 희망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고, 장래 직업 결정 여부는 초등학교 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의 가족 간 진로 관련 대화에 대해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진로 대화 빈도는 가끔 대화하는 편이고, 어머니와의 진로 대화 빈도는 송홍정(20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아버지와의 대화 빈도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와의 대화 빈도는 부모의 그것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학교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와의 대화 빈도 모두 초등학교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자의 배경, 가족과의 진로 대화 빈도와 학생의 진로 결정과의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모형 1에서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는 '월평균 사교육비'와 '자녀 희망 학업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는 '자녀에 대한 희망 학업수준',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 '월평균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상황변수인 학생의 '성별', '거주지별'을 투입한 결과,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는 모형 1에서의 변수 외에 '거주지별'이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는 모형 1에서의 변수 외에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독립변수로서 보호자의 배경 외에 학생의 진로 대화 빈도를 추가하여 학생의 진로 결정과의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는 모형 1에서의 변수 외에 '어머니와의 진로 대화 빈도'에 유의미한 경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는 모형 1에서의 변수 외에 '어머니와의 진로 대화 빈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중등학교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에 비해 희망 학업수준과 교육수준은 다소 낮은 편인 반면, 학생의 장래 직업 결정은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진로 선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진로 관련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고 어머니의 진로 관련 대화는 학생의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진로 결정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래 희망 교육수준에는 ‘월평균 사교육비’와 ‘자녀 희망 학업수준’, ‘거주지’, 장래 직업 결정 여부에는 ‘월평균 사교육비’, 아버지와와의 진로 관련 대화에는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가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빈부격차에 의한 문제로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보호자의 배경 변인과 학생의 진로 결정에 대한 변화와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호자 배경 환경에 따르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대한 영향 요인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다른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자의 배경 변인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학생 특성별 맞춤형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분석 자료의 특성과 방법상의 제약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중에서 극히 일부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불충분성과 해석상의 보편성을 지니기에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부모 관련 사항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제대로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찬(1997). **한국 중·고교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 관계 변인 탐색**.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인회·김정은(2015). 대학 진학에서의 계층 격차: 가족 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2(3), 27-49.
- 권정숙(1992).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정철영·김병석 공저(2000). **학교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성환·전용석(2005). 청소년 진로선택 결정요인 :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2005(1), 245-258.
- 김종운·최미숙(2011). 가족기능 및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0(3), 175-196.
- 김현숙(2015).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31(31), 281-309.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 성숙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김준영(2010). 청소년의 진로 이행과 청소년, 부모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2(2), 23-52.
- 김희수·김옥희(2007). 진로성숙의 변인 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57-68.
- 노법래(2013). 후기 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경제적 불안정과 여가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171-193.
- 노혁(200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 수준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305-327.
- 문승태·김연희(2003).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애착 및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16(2), 205-220.
- 박미란·이지연(2010). 진로성숙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학교교육의 효과 검증. **인간이해**, 31(1), 65-88.
- 박용관(200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이유리·이성훈(2016). 부모의 소득계층별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5), 237-263.
- 변금선(2013).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0(4), 345-373.
- 송병국·박정배(2006). 청소년의 활동 경험과 진로선택 준비도와의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19(2), 33-50.
- 신희경·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8(2), 307-336.
- 원소미(2016).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 진로지지, 학교 진로지도 경험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지영(2019). 가구 소득과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19(2), 638-649.
- 엄태영·김교연·한복남(2009). 빈곤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7(2), 69-85.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 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진·봉미미·권순구(2010). 저소득층과 중산층 청소년의 진로포부 예측변인 비교. **교육심리연구**, 24(2), 423-447.
- 이소연(2004).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및 진로 의사결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자형(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변화 영향 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 진

- 로계획성과 진로관심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0), 289-316.
- 이정규(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이제경·이승구(2007). 취업 청소년의 진로 기대 및 취업 준비 행동. **진로교육연구**, 20(8), 121-137.
- 이희영(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송홍정(2020).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그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연·민경석(2011). 성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차이 및 관계. **진로교육연구**, 24(3), 59-76.
- 조화경(2006).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기능과 진로태도 성숙도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성미(2011). 서울시 초·중·고교생의 진로성숙도 관련 변인별 집단 비교. **한국교육문제연구**, 29(2), 133-156.
- 최미숙(2010). **가족기능 및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의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정(2007). 중등단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과 진로성숙 변화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변화모형. **한국청소년연구**, 18(3), 31-57.
- Bratcher, W. E. (1982).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n career select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 87-91.
- Carr, A.(2000). *Family therapy: Concepts, process,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Dinklage, L. B. (1996). *Adolescent choice and decision-making: A review of decision making models and Issues in relation to some developmental stage tasks of adolescen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Penick, N. I., & Jepsen, D. A. (1992).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208-222.
- Saks, R. E. & Shore, S. H.(2005). Risk and Career Choice. *The BE Journal*

-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5(1), 1-45.
- Santos, P. J., & Coimbra, J. L. (2000).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in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346-362.
- Super, D. E. (1990).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SF: Jossey-Bass. relationship and offspring's positive mental well-being from adolescence to early older ag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 326-337.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Whittaker, K. M. (1994). *Career indecision and perception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Ph. D. thesis. Univ. of Pittsburgh.

‘보호자의 배경 변인이 학생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연구’ 에 대한 토론문

박 동 현

서경대학교 외래교수

‘보호자의 배경 변인이 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연구’는 초중등학생의 진로 결정에 있어 학부모의 배경이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였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이에 맞는 의사결정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실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 전념해야 하므로 진로 결정에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축적하여 이를 분석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변인들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주변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라는 점, 특히 보호자로서의 부모가 자녀의 진로선택에 다양한 자극을 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극과 영향이 실제 부모의 어떠한 배경요인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검토했다는 부분에서 학문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연구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진로선택의 현실성이 나타난다는 점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했고, 어머니와 진로대화 과정에서 청소년 본인의 장래 희망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교육비에 따라서 진로선택에 따른 영향력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빈부격차에 따라 진로선택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사회구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연구가 보호자의 배경 변인에 따라 진로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적한 점은 학문적 성과이나,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변수구성에서 부모의 학력을 구분하여 유의성을 측정하였으나, 어머니와의 진로 대화를 통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면 그 연관성을 측정하는 것이 좀 더 깊이 있는 논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진로선택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에 기준해 볼 때 부모의 직업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단, 제한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추후 유사 연구가 진행된다면 부모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세 번째, 진로 관련 대화에서의 ‘빈도’에 대한 한계이다. 실질적으로 본 연구에서 ‘자주’, ‘별로’, ‘가끔’이라는 용어가 빈도로서 설득력 있는 용어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빈도의 간극이 차이가 난다면 그 자체로 변수에 대한 신뢰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사교육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과연 학생이나 부모가 진로와 진학을 구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과에 대한 진학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한데, 이를 동일하게 파악하고 진학으로 통해 직업선택이 완결된 것처럼 판단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교정되어야 할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이 진로가치 형성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사교육에 대한 비용과 가구소득이나 경제수준에 대한 변수 등의 인과성을 좀 더 세밀하게 탐구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실제 사교육에 대한 비용이 경제 수준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보호자가 얼마나 자녀들의 진로 결정에 관심을 가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이상의 몇 가지 보완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한 것은 충분한 연구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 진로정체감 변화 추이 탐색을 위한 문항반응이론의 종단적 확장

박찬호*, 서공주+**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종단적으로 확장하여 성장 모수를 추정함과 동시에 문항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제안하고,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변화 추이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0: KCYPS 2010)의 중1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다. 3차년도(중3), 5차년도(고2), 6차년도(고3)의 1,991명(남학생 1,009명, 여학생 982명)을 대상으로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한 결과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은 원점수나 표준점수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에 비견되는 성장 경향성을 보이면서 동시에 모형적합도도 좋았다. 이와 함께 진로정체감 문항 중 어떤 문항이 문항변별도가 낮은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진로정체감 추이,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 서열형 다분문항, 잠재성장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0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계명대학교 박사, kjsuh70@korea.kr

I. 서론

2000년대 들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및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평생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이 발표될 당시 초·중등교육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있었고,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교육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고등학교 제도를 다양화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고, 진로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요구는 2010년 초·중등 진로교육 시행계획으로 이어졌다(교육부, 2010).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등 다양한 종단 조사에서 진로성숙도, 진로정체감 등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초1, 초4, 중1코호트를 대상으로 7년간 조사 설계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는 중1코호트를 대상으로 3차년도부터 2년 간격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시기의 진로정체감을 조사하였다(이경상,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진로정체감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김진아, 2019; 김해성, 조미숙, 2019; 이은경, 신아라, 김선경, 이응택, 2017; 이은경, 오소영, 곽현, 2019; 조영선, 장유나, 조영일, 2018; 조한익, 김영숙, 2016)은 이 시기의 진로정체감은 선형적으로 성장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연도별 진로정체감의 문항별 특성에 대해서는 분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변화에서 각 문항별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는 잠재성장모형의 측정변수에 주로 문항의 평균이나 총점 등 합산 점수(composite score)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박소영, 장승민, 2018). 합산 점수를 사용하게 되면 요인부하량과 문항 단위 편향 등 개별 문항의 정보가 사라지게 된다(Leite, 2007).

한편, 합산 점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서열형 다분문항(ordered polytomous items)으로 측정된 변수를 연속형으로 간주하는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리커트 척도는 측정 논리가 이론적이지만 수리적으로 확고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이순목, 2002). 리커트 척도의 반응점수 간 간격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표상론에서는 서열척도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일관행위론에서는 등간척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Bentler와 Chou(1987)는 서열형 자료의 범주가 네 개 이상이고 정규성을 만족한다면 연속형 변수로 가정하여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ML) 추정법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Muthén과 Kaplan(1985)은 서열형 자료(ordinal data)는 본질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Finney와 DiStefano(2006)는 서열형 자료는 성격상 이산 변수(discrete variable)이라고 하였다.

Edwards와 Wirth(2009), Forero와 Maydeu-Olivares(2009), Wirth와 Edwards(2007) 등은 여러 문항의 합산 점수로 사용하는 관행에 대한 대안으로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측정변수가 서열형 다분문항일 때의 요인분석모형은 문항반응이론 모형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Grimm, Ram, & Estabrook, 2016). Muthén(1983)은 이분문항(dichotomous items)에 대한 요인분석모형은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2모수 정규오자이브 모형(two-parameter normal ogive model)이며, 서열형 다분문항의 요인분석모형은 Samejima(1969)의 등급반응모형(graded response model)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심리 특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등급반응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모형에서 제공하지 않은 문항변별도와 문항난이도를 추정하여 문항이 특정한 연령대 혹은 특정한 집단 등 조사 대상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김경희, 손원숙, 2005; 김미숙, 김양분, 박희진, 나종민, 이윤선, 2017; 조한익, 김미점, 김영숙, 조은실, 2014; 추헌택, 손원숙, 2012; 한태희, 홍상황,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문항변별도와 범주별 난이도를 확인하고, 문항변별도가 양호하고 위치모수 간격이 일정하고 극단적 위치모수가 없는지 확인하여 척도를 개발하고 최종 문항을 결정하였다.

서열형 다분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은 모형의 복잡도로 인해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최대우도(ML) 추정법 대신 강건가중최소제곱(robust weighted least squares: robust WLS) 추정법을 사용한다. DiStefano(2002), Flora와 Curran(2004), Muthén과 Kaplan(1984) 등은 서열형 다분문항으로 측정된 자료의 추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비교하여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자료에 대해 ML 추정법을 쓰는 것보다 robust WLS 추정법을 사용할 때 안정적인 모수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Muthén(1983), Takane와 de Leeuw(1987) 등은 서열형 다분문항을 위한 요인분석모형과 문항반응이론모형이 수리적으로 동일한 모형임을 보였다.

서열형 다분문항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수척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Muthén과 Asparouhov(2002)는 서열형 다분문항의 종단적 분석에 세타척도화(theta parameterization)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다. 델타 척도화(delta parameterization)를 사용하면 시점 간 오차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타척도화는 기준 시점의 모든 잠재반응변수 Y^* 에 대한 오차분산을 1로 고정하고 다른 시점의 오차 분산은 자유모수로 추정한다(Newsom, 2015). LISREL과 같은 기존의 구조방정식 분석 프로그램은 서열형 다분문항을 다룰 수 없었지만, 최근 통계프로그램의 성능 향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등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서열형 다분문항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장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Muthén & Muthén, 2017). 여러 개의 서열형 다분문항으로 측정된 구인을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려면 측정모형과 성장모형을 분리하는 고차잠재성장모형(higher-order latent growth

model)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모형이 복잡하고 추정이 어려웠으나, 최근 서열형 다분 문항의 고차잠재성장모형의 분석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서열형 다분문항의 종단적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Grimm 등(2016)은 여러 개의 서열형 다분문항을 문항반응이론적 접근과 잠재성장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는 예를 보여주었고, Wang과 Wang(2012)은 세타척도화를 사용하여 서열형 다분문항의 잠재성장모형 분석의 예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두 연구에서 제안한 고차잠재성장모형과 세타척도화를 기반으로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longitudinal item response theory model)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이란 8개의 서열형 다분문항으로 측정된 진로정체감의 개별 문항이 가지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진로정체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이를 위해 3회에 걸쳐 측정된 진로정체감 문항에 대해 종단적 측정동일성을 적용한다. (Edwards & Wirth, 2009). 즉 시점별 문항변별도와 문항난이도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여 진로정체감의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 등 종단연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로정체감 등 학교교육의 성과로 변화하는 청소년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문항의 특성과 종단적 변화량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항반응이론의 종단적 확장을 시도하고, 원점수 및 표준점수의 잠재성장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장점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청소년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6편을 살펴본 결과, 초4 패널과 중1패널의 코호트를 연계해서 분석한 조영선 등(2018)의 연구를 제외한 5편 모두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측면에서는 다층모형을 사용한 연구 1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구 5편은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하고 사용한 표본 크기가 연구마다 달라 모형적합도나 성장 모수 추정치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았으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시기에 진로정체감이 감소한다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김진아(2019)는 중1 패널 1,831명의 3차, 5차, 6차 진로정체감의 시간변수를 0, 1, 2로 코딩하여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효과 절편 β_{00} 은 2.95(S.E.=.013), 기울기 β_{10} 은 0.33(S.E.=.007)이며, 절편과 기울기 상관은 -.031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개인 간 분산(τ_{00})은 .102(S.E.=.015)이었고, 시간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개인의 총분산(σ^2)은

.043(S.E.=.007)으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층모형의 고정효과 절편 β_{00} , 기울기 β_{10} 은 잠재성장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해당하며, 개인간 분산(τ_{00})은 초기치의 분산에 대응되고, 시간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개인의 총분산(σ^2)은 변화율의 분산에 해당한다. 성장모형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대표적 다층모형 프로그램인 HLM 7.0을 사용하였다.

김해성, 조미숙(2019)은 중1 패널의 진로정체감을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χ^2 , TLI, CFI, RMSEA를 기준으로 모형적합도를 기준으로 선형 성장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chi^2=42.895(df=3)$, TLI=.932, CFI=.966, RMSEA=.075로 무변화 모형에 비해 선형 모형의 적합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에 대한 선형 성장모형 분석 결과, 초기치 평균은 2.950(S.E.=.012), 변화율 평균은 .030(S.E.=.008),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041(S.E.=.006)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기치의 분산 .210(S.E.=.011), 변화율의 분산 .040(S.E.=.004)으로 개인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경 등(2017)은 중1 패널 2,272명에 대해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χ^2 , TLI, CFI, RMSEA를 사용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 성장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선형 성장모형을 선택하였다. $\chi^2=10.350(df=1)$, TLI=.952, CFI=.992, RMSEA=.064로 무변화 모형에 비해 선형 성장모형의 적합도가 더 양호하였다. 진로정체감에 대한 선형 성장모형 분석 결과, 초기치 평균은 2.950, 변화율 평균은 .018,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0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기치의 분산 .216, 변화율의 분산 .020로 개인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경 등(2019)은 중1 패널 2,259명을 분석하였는데, 모형적합도 및 성장 모수가 이은경 등(2017)과 거의 비슷하였다.

조한익, 김영숙(2016)은 중1 패널 2,258명에 대해 청소년의 미래지향적목표, 자아정체감, 공동체 의식과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원자료로 산출하였고, 기술통계와 잠재성장모형은 평균으로 분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초기치는 시점별로 1로 코딩하였고, 중1 패널의 진로정체감은 3차년, 5차년, 6차년에 측정되었기에 변화율은 1, 3, 4로 코딩하였다. χ^2 , CFI, RMSEA를 사용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 성장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선형 성장모형을 선택하였다. $\chi^2=10.350(df=1)$, CFI=.992, RMSEA=.064(.033~.102)로 선형 성장모형의 적합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에 대한 선형 성장모형 분석 결과, 초기치 평균은 23.606(S.E.=.102), 변화율 평균은 .145(S.E.=.040),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459(S.E.=.493)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기치의 분산 13.799(S.E.=1.323), 변화율의 분산 1.259(S.E.=.217)로 개인별 차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선 등(2018)은 초4 패널과 중1 패널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종단적 변화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호트 연계 설계 기법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코호트에서 조사된 진로정체감을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코호트 연계 설계를 적용하여 중학년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로정체감을 하나의 코호트 자료로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이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선형적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4 패널과 중1 패널의 코호트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기치는 중1 패널이 더 높았으나, 선형 변화율은 초4 패널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초4 패널 2,092명, 중1 패널 2,259명이었고, 모형의 적합도는 χ^2 , TLI, CFI, RMSEA, SRMR을 사용하였다. 무변화 모형, 선형 성장모형, 2차함수 성장모형을 비교한 결과 선형 성장모형의 모형적합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 성장모형은 $\chi^2=102.409(df=6)$, RMSEA=.050(.042~.059), CFI=.951, TLI=.951, SRMR=.134로 SRMR를 제외한 다른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 성장모형에서 초기치 평균은 2.825(S.E.=.008), 변화율 평균은 .041(S.E.=.0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잠재성장모형과 회귀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Mplus 8.0(Muthén & Muthén, 2017)를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6편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초기치와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초기치와 변화율은 부적 상관을 가지며, 초기치와 변화율의 개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공통점을 보였고, 진로정체감이 선형적으로 성장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진로정체감의 개별 문항에 대한 정보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표 1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표 1. 청소년 진로정체감 종단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선형 성장 모형)

연구	패널	통계적 모형	측정 변수	표본 크기	$\chi^2(df)$	TLI	CFI	RMSEA (90% CI)	SRMR	초기치		변화율		공분산 (S.E.)
										평균(S.E.)	분산(S.E.)	평균(S.E.)	분산(S.E.)	
A	중1	다층모형	평균	1,831	-	-	-	-	-	2.950 ^{***} (.013)	.192 ^{***} (.015)	0.033 ^{***} (.007)	.043 ^{***} (.007)	-.031 ^{***}
B	중1	잠재성장모형	평균	-	42.895 ^{***} (3)	.932	.966	.074	-	2.950 ^{***} (.012)	.210 ^{***} (.011)	0.030 ^{**} (.008)	.040 ^{***} (.004)	-.041 ^{***} (.006)
C	중1	잠재성장모형	평균	2,272	10.350 ^{***} (1)	.952	.992	.064	-	2.950 ^{***}	.216 ^{***}	0.018 ^{***}	.020 ^{***}	-.030 ^{***}
D	중1	잠재성장모형	평균	2,259	10.354 ^{***} (1)	.976	.992	.064	-	2.950 ^{***}	.216 ^{***}	0.018 ^{***}	.020 ^{***}	-.030 ^{***}
E	중1	잠재성장모형	총점	2,258	10.350 ^{***} (1)	-	.992	.064 (.033~.102)	-	23.606 ^{**} (.102)	13.799 ^{**} (1.323)	.145 ^{**} (.040)	1.259 ^{**} (.217)	-.459 ^{**} (.493)
F	초4+ 중1	코호트연계	평균	2,092 2,259	102.509 ^{***} (6)	.951	.951	.050 (.042~.059)	.134	2.825 ^{***} (.008)	-	.041 ^{***} (.003)	-	-

* $p < .05$. ** $p < .01$. *** $p < .001$.

주1. A: 김진아(2019), B: 김해성, 조미숙(2019), C: 이은경 등(2017), D: 이은경 등(2019), E: 조한익, 김영숙(2016), F: 조영숙 등(2018)

주2. 모형적합도와 성장 모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로 표시하였음.

주3. 표준 오차가 제시되지 않은 일부 연구의 표준 오차는 표 1에 제시하지 않았음

Ⅲ.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0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해서 다단계층화군집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으로 표집하였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 추적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중1 패널의 진로정체감의 3차년도(2012년-중3), 5차년도(2014년-고2), 6차년도(2015년-고3)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중1 패널 2,351명 중 성별 자료가 있고, 진로정체감 문항에 모두 응답한 대상을 분류하였으며, 결측값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중1 패널 1,991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1,009명(50.7%), 여학생 982명(49.3%)이다.

2. 측정도구

진로정체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공인규(2008)의 진로정체감 척도를 수정하여 보완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표 2 참조). 진로정체감은 ‘나는 장래에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내가 원치 않은 전공학과를 부모님이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난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1 = 매우 그렇다’, ‘4 =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어 모든 문항을 역코딩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진로정체감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 일관성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3차년도인 2012년(중학교 3학년) .89, 5차년도인 2014년(고등학교 2학년) .88, 6차년도인 2016년(고등학교 3학년) .89로 확인되었다.

표 2.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진로정체감 문항 내용

번호	설문문항	척도
1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2	부모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4점 리커트 척도
4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1=매우 그렇다
5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2=그렇다
6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3=그렇지 않다
7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4=전혀 아니다
8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역코딩 처리)

3. 분석모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세 개의 시점 간의 성장을 확인하는 고차잠재성장모형인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측정모형의 시점1, 시점2, 시점3은 다분문항반응모형의 능력 θ (theta), 즉 잠재특성이다. 등급반응모형은 능력 θ 와 함께 문항변별도와 문항난이도를 추정한다. 공통요인모형(common factor model)으로서 등급반응모형의 문항변별도 a 는 요인분석모형의 요인부하량 λ (lambda)가 되고, 문항난이도 b 는 서열형 다분문항을 위한 요인분석모형의 경계모수(threshold)인 τ (tau)에 대응된다(Forero & Maydeu-Olivares, 2009; Muthén & Asparouhov, 2002; Wirth & Edwards, 2007). 종단적 측정불변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각 시점의 요인부하량 λ 와 각 문항의 경계모수 τ 에 동일성 제약을 적용한다. 구조모형의 성장 모수는 제약 모수이다. 즉 초기치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은 1로 고정하고, 기울기의 요인부하량은 각각 0, 1, 2로 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이 3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에 각각 측정되었으므로, 측정 시점을 3차년도를 시점0, 5차년도를 시점2, 6차년도를 시점3으로 각각 고정하였다. 측정모형 구조모형을 통합하면 고차잠재성장모형이 되고, 측정한 문항의 합산 점수를 사용하는 대신 측정한 문항을 서열형 다분문항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측정모형은 문항반응이론모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 모형은 문항반응이론모형을 종단적으로 확장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모형을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이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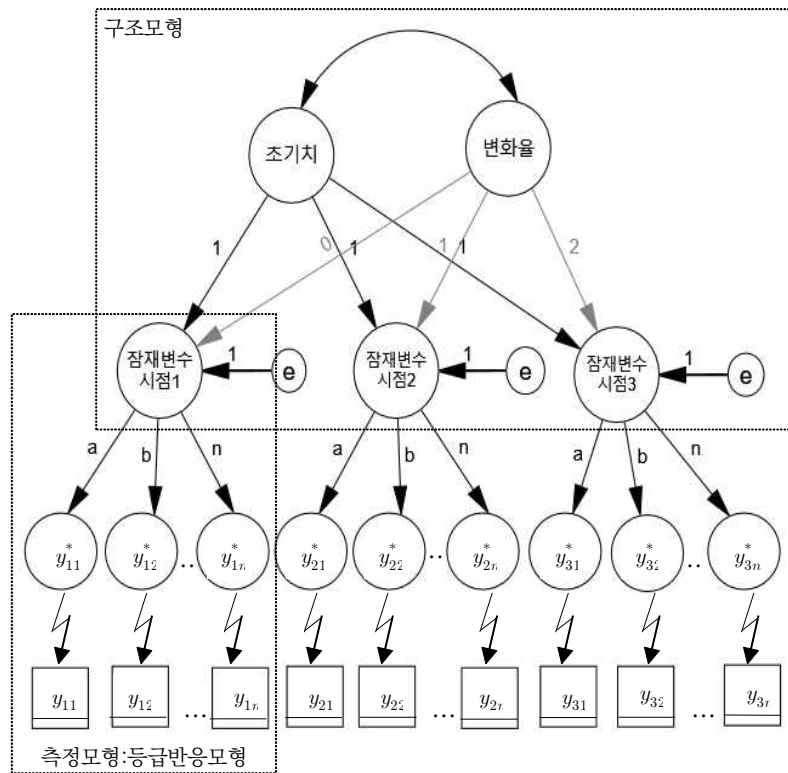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항의 기초 분석을 수행하였고, 연도별로 문항반응이론 분석을 통해 진로정체감에 대한 문항반응이론 모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후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도별 문항반응이론 분석을 위해서는 PARSCALE 4.1(Muraki & Bock, 2003)을 사용하였고,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 분석에는 Mplus 8.4(Muthén & Muthén, 2017)를 사용하였다.

*각주: 그래프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실제 측정된 서열형 다분문항의 측정변수, 서열형 다분문항의 잠재변수, 각 문항으로 측정된 잠재변수, 3개의 시점에서 측정된 잠재변수에 대한 초기치와 변화율을 의미한다. 그래프 하단의 사각형은 관찰된 서열형 다분문항을 의미한다. 사각형 내의 가로선은 범주를 의미한다(Muthén, 1984). 잠재변수와 하단의 관찰변수를 연결하는 지그재그 모양의 선은 관찰변수와 이에 상응되는 잠재변수 사이의 연결함수를 의미한다(Mehta, Neal, & Flay, 2004). y^* 는 관찰변수 기저에 있는 잠재변수를 의미한다. 두 번째 열의 원으로 나타난 시점1의 잠재변수는 n 개의 서열형 다분문항으로 측정된 척도를 의미한다. 가장 상단의 원은 초기치와 변화율이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a, b, \dots, n$)과 관찰된 서열형 다분문항의 경계모수는 시점간 동일성 제약을 적용한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먼저 표 3에서 진로정체감 연도별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중1 패널 진로정체감의 3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제시하였다. 정규분포에서 왜도와 첨도는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으로, 정해진 값은 없으나 왜도의 절댓값이 2,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Curran, West, & Finch, 1996). 이는 왜도 절댓값이 2를 넘거나, 첨도 절댓값이 7을 넘는 경우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단, SPSS는 첨도에서 3을 뺀 값을 계산해주므로, 첨도의 절댓값이 4를 넘으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여 진로정체감 문항의 합산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표 3. 중1 패널 진로정체감 연도별 기술통계

시기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3차년도(2012-중3)	2.95	0.61	.002	-.672
5차년도(2014-고2)	2.97	0.57	.085	-.602
6차년도(2015-고3)	3.02	0.59	-.010	-.671

표 4는 중1 패널의 3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진로정체감의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한 결과이다. 표 4의 진로정체감 문항별 기술통계에서도 왜도 및 첨도의 기준을 벗어나는 문항은 없지만, 문항별 왜도는 표 3의 진로정체감 연도별 기술통계에 제시된 왜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 중1 패널 진로정체감 문항별 기술통계

문항	3차년도(2012-중3)				5차년도(2014-고2)				6차년도(2015-고3)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1	3.15	0.80	-0.63	-0.28	3.16	0.76	-0.49	-0.50	3.17	0.77	-0.56	-0.33
2	2.95	0.83	-0.44	-0.39	3.06	0.74	-0.39	-0.25	3.06	0.77	-0.50	-0.11
3	2.91	0.82	-0.20	-0.75	2.94	0.74	-0.19	-0.48	3.00	0.76	-0.32	-0.40
4	2.88	0.89	-0.27	-0.84	2.96	0.83	-0.34	-0.65	3.07	0.82	-0.53	-0.38
5	3.25	0.63	-0.41	0.10	3.26	0.60	-0.29	0.01	3.28	0.62	-0.44	0.27
6	2.94	0.81	-0.24	-0.71	2.93	0.81	-0.14	-0.93	2.99	0.82	-0.27	-0.83
7	2.75	0.86	-0.04	-0.82	2.66	0.86	0.07	-0.80	2.72	0.87	-0.05	-0.81
8	2.79	0.88	-0.13	-0.87	2.75	0.86	-0.06	-0.81	2.86	0.85	-0.24	-0.71

그림 2와 3은 진로정체감 1번 문항의 3차년도와 6차년도 히스토그램으로 중간 응답보다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응답이 많아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적 편포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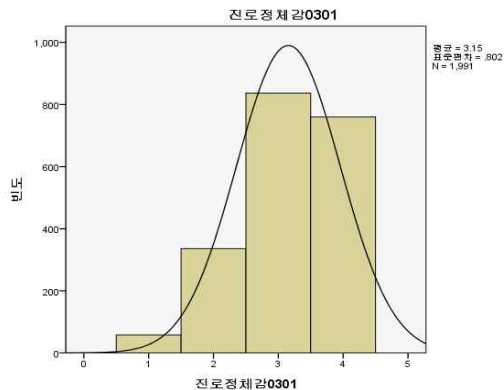


그림 46. 진로정체감 3차년도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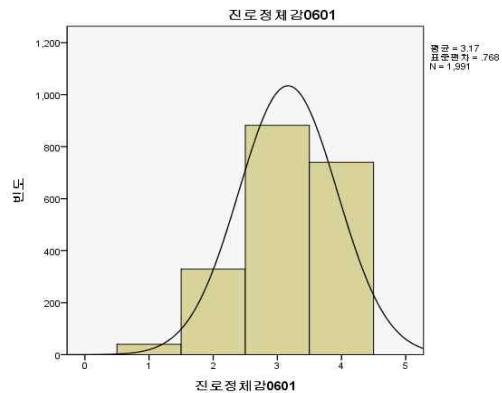


그림 47. 진로정체감 6차년도 1번

2. 원점수 및 표준점수 기반 잠재성장모형

1) 원점수를 사용한 잠재성장모형

표 5는 진로정체감의 문항반응이론 점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잠재성장모형의 모형 적합도이다. χ^2 검정은 영가설을 기각했으나, 이는 χ^2 가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MSEA가 .060으로 양호하였고(Brown & Cudeck, 1993), SRMR도

.01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Hu & Bentler, 1999). TLI와 CFI도 각각 .994와 .981로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표 5. 진로정체감 원점수 모형적합도

$\chi^2(df)$	RMSEA(90% CI)	TLI	CFI	SRMR
8.181 [*] (1)	.060 (.027~.101)	.994	.981	.014

^{*} $p < .05$. ^{**} $p < .01$. ^{***} $p < .001$.

표 6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이다. 각 시점의 측정변수에는 측정 시점별 진로정체감 8문항의 평균값을 투입하였다. 초기치 평균은 2.95(S.E.=.014), 변화율 평균은 0.020(S.E.=.005)로, KCYPS2010 조사에 응답한 학생의 4차년도 평균 진로정체감은 2.95이고 매년 .02 정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초기치 분산은 0.214(S.E.=.020), 변화율 분산은 0.020(S.E.=.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초기치와 변화율은 개인차가 있으며, 초기치의 분산은 0.13, 변화율의 분산은 0.03으로 개인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점수를 사용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의 결과는 이은경 등(2017), 이은경 등(2019)와 거의 일치하고, 김진아(2019), 김해성, 조미숙(2019) 등의 진로정체감 추정치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6. 진로정체감 원점수 초기치와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변화율
평균(S.E.)	분산(S.E.)	평균(S.E.)	분산(S.E.)	공분산(S.E.)
2.95 ^{***} (0.014)	0.214 ^{***} (0.020)	0.020 ^{***} (0.005)	0.020 ^{***} (0.003)	-0.030 ^{***} (0.008)

^{*} $p < .05$. ^{**} $p < .01$. ^{***} $p < .001$.

이처럼 중학교 3학년의 진로정체감은 2.95 정도로 매년 .02 정도의 폭으로 증가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이 부적 상관을 보이므로 중학교 3학년에서 진로정체감이 높은 학생은 상승하는 속도가 느린 반면, 중학교 3학년에서 진로정체감이 낮은 학생은 빠른 속도로 진로정체감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2) 표준점수를 사용한 잠재성장모형

심리검사의 경우 측정변수의 원점수에 대한 평균이나 총점 등 합산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점수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할 때 원점수는 시점별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매년 측정된 원점수를 표준화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각 시점에서 측정된 모든 측정의 상황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원점수로 측정된 진로정체감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대해 첫 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표준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면 시점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첫 번째 시점을 기준으로 표준점수를 환산하는 방법은 (식 4.1)과 같다.

$$z = \frac{(X_{t_i} - \overline{X_{t_1}})}{SD_{t_1}} \quad (\text{식 4.1})$$

원점수에서 표준점수로 변환하였을 때의 모형적합도를 표 7에서 비교하였다. χ^2 가 0.024 정도로 사소한 차이를 보였을 뿐, 모든 모형적합도가 동일하게 산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7. 진로정체감 원점수와 표준점수의 모형적합도 비교

학교급	$\chi^2(df)$	RMSEA(90% CI)	TLI	CFI	SRMR
원점수	8.181 [*] (1)	.060 (.027~.101)	.994	.981	.014
표준점수	8.205 [*] (1)	.060 (.027~.101)	.994	.981	.014

* $p < .05$. ** $p < .01$. *** $p < .001$.

표 8은 표준점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결과와 원점수를 사용한 모형의 추정치를 비교하였다. 진로정체감의 초기치는 -.011(S.E.=.009)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변화율 평균은 0.032(S.E.=.008)이고, 초기치-변화율의 공분산은 -.0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정체감 평균을 0으로 표준화할 때 진로정체감은 매년 0.03 정도로 증가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초기치 분산은 0.57(S.E.=.055), 변화율 분산은 0.052(S.E.=.009)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원점수와 표준점수를 비교할 때 통계적 유의성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원점수에 비해 표준점수의 분산과 표준 오차의 절댓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서공주(2021)의 연구에서 대구교육종단연구 초4패널의 진로성숙도의 원점수가 표준점수에 비해 과대추정된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표준점수의 절댓값이 원점수의 절댓값보다 크

게 추정된 결과와 유사하다.

표 8. 진로정체감 원점수와 표준점수 성장 모수 비교

학교급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변화율 공분산(S.E.)
	평균(S.E.)	분산(S.E.)	평균(S.E.)	분산(S.E.)	
원점수	2.95*** (0.014)	0.214*** (0.020)	0.020*** (0.005)	0.020*** (0.003)	-0.030*** (0.008)
표준점수	-0.011 (0.022)	0.570*** (0.055)	0.032*** (0.008)	0.052*** (0.009)	-0.080*** (0.021)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 진로정체감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 표준점수를 사용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공주(2021)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원점수와 표준점수의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를 비교할 때, 표준점수를 사용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대한 해석이 다소 용이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표준점수는 상대적 위치만을 비교할 수 있지만, 문항반응이론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문항변별도와 문항난이도 등에 문항에 대한 더 상세한 분석과 비교가 가능해진다.

3. 연도별 진로정체감 문항 모수 분석

진로정체감의 문항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ARSCALE 4.1(Muraki & Bock, 2003)을 활용하여 연도별 문항모수를 확인하였다. 문항반응이론은 능력 θ 라는 잠재변수에 따른 문항반응패턴을 확률로 나타낸 모형으로 문항별로 문항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 ICC)을 그려 분석할 수 있다. 문항반응이론의 강점은 측정불변성(measurement invariance)으로 검사에 따라 개인의 잠재 특성 추정이 변하지 않고, 집단의 능력에 따라 문항 모수 추정이 영향받지 않는다. 이는 문항 모수와 능력 모수를 표준화된 척도상에 표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Carlson, 2021). 문항반응이론은 사용하는 함수에 따라 로지스틱 모형이나 정규오자이브 모형으로 계산할 수 있다(Baker & Ki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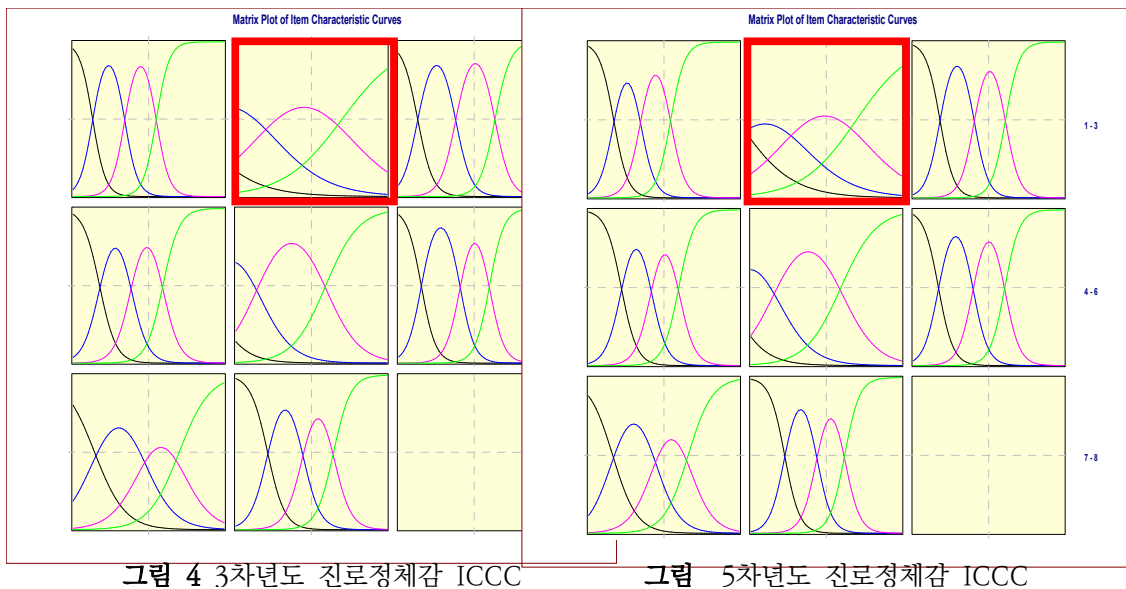
de Ayala(2009)는 로지스틱 모형을 기준으로 양호한 문항변별도 기준을 0.8~ 2.5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등급반응모형 분석을 위하여 문항반응이론 통계 프로그램인 PARSCALE 4.1을 사용하여 얻은 중1 패널 진로정체감의 연도별 문항 모수를 표 9에 정리하였다. 2번 문항 ‘부모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의 경우 3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3회의 측정에서 모두 변별도가 0.5 정도로 de Ayala(2009)의 양호한 변별도 기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번 문항의 경우 3차년도 변별도가 0.84였지만 5차년도와 6차년도에는 문항변별도가

약간 향상되었다. 등급반응모형의 경계모수는 모든 문항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극단적인 경계모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진로정체감 연도별 문항 모수(로지스틱 모형)

문 항	변별도(a_N)			경계모수(threshold)								
	3차	5차	6차	3차			5차			6차		
				1	2	3	1	2	3	1	2	3
1	2.09	2.39	2.11	-1.16	0.04	1.11	-1.26	-0.01	1.27	-1.23	0.05	1.18
2	0.55	0.51	0.58	-2.42	0.10	2.32	-3.04	-0.01	3.05	-2.55	0.13	2.41
3	2.14	1.95	1.90	-1.28	-0.03	1.32	-1.54	0.02	1.53	-1.44	0.07	1.37
4	1.91	1.81	1.69	-1.13	-0.03	1.15	-1.26	0.00	1.25	-1.25	0.08	1.17
5	0.84	0.90	1.10	-2.41	0.20	2.21	-2.49	0.21	2.27	-2.02	0.29	1.72
6	2.02	2.07	2.05	-1.39	-0.04	1.34	-1.29	-0.12	1.41	-1.23	-0.06	1.29
7	1.23	0.97	1.07	-1.44	-0.11	1.55	-1.60	-0.16	1.76	-1.50	-0.08	1.58
8	2.00	1.74	2.00	-1.17	-0.06	1.22	-1.28	-0.06	1.34	-1.24	0.02	1.22

그림 4에서 그림 6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시기의 연도별 진로정체감 문항에 대한 문항범주특성곡선(item category characteristic curve)이다. 문항변별도가 낮은 2번의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 그래프의 높이가 낮고 펼쳐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5번 문항과 7번 문항의 경우에도 다른 문항에 비해 문항변별도가 다소 낮으며, 그래프에서 곡선의 높이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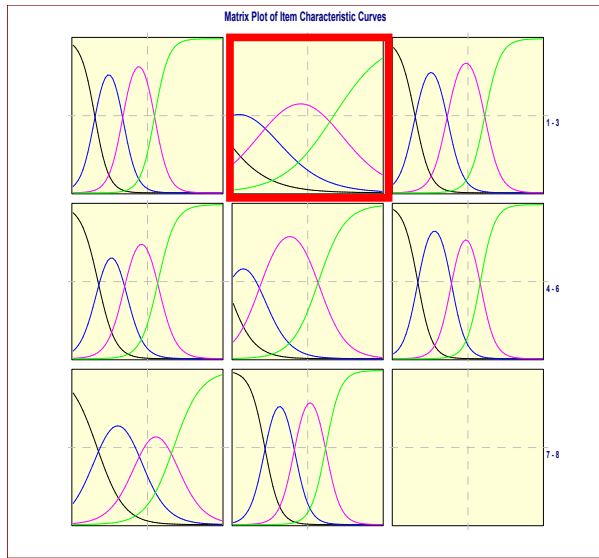


그림 6 6차년도 진로정체감 ICCC

4.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 분석 결과

1) 모형 비교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에서는 서열형 다분문항으로 측정된 8개 문항을 총점이나 평균 등의 합산 점수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측정변수에 사용한다. 측정모형인 등급반응모형에서는 8개 문항의 문항변별도에 시점별 동일성 제약을 추정하고, 각 문항의 경계모수에도 시점별 동일성 제약을 적용하여 문항변별도와 경계모수를 추정하였다. 구조모형인 성장모형에서는 첫 번째 시점의 오차분산을 1로 고정하고, 다른 시점의 오차분산은 추정하는 세타 척도화 방식을 적용하였다.

표 10은 원점수, 표준점수를 사용한 잠재성장모형과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모형 적합도의 비교이다. 원점수를 사용한 경우와 표준점수를 사용한 잠재성장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경향성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은 개별 문항의 정보와 함께, 각 문항의 경계 모수를 모두 정보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매우 증가하였다. χ^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영가설은 기각되었다. RMSEA는 원점수, 표준점수를 사용한 잠재성장모형보다 더 작은 값으로 모형이 더 양호하게 나타났고, 90% 신뢰구간이 0.052에서 0.057까지로 신뢰 구간의 폭이 매우 좁은 것을 확인하였다. CFI, TLI도 .95 이상으로 양호하며(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SRMR도 .4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Hu & Bentler, 1999).

표 10. 원점수, 표준점수 잠재성장모형과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모형적합도 비교

자료	$\chi^2(df)$	RMSEA	CFI	TLI	SRMR
원점수 잠재성장모형	8.181 [*] (1)	.060 (.027~.101)	0.994	0.981	.014
표준점수 잠재성장모형	8.205 [*] (1)	.060 (.027~.101)	0.994	0.981	.014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	2152.992(310) ^{***} (0.000)	0.055 (0.052-0.057)	0.976	0.979	.045

* $p < .05$. ** $p < .01$. *** $p < .001$.

2) 성장 모수 비교

표 11에서 진로정체감에 대하여 원점수 잠재성장모형, 표준점수 잠재성장모형,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성장 모수를 비교하였다. 원점수, 표준점수, 문항반응점수를 사용한 모든 분석 결과에서 값의 크기와 표준오차 차이는 있지만, 변화의 경향성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으로 추정된 성장 모수는 원점수나 표준점수를 사용한 잠재성장모형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초기치 평균은 0, 변화율 평균은 0.051(S.E.=.016)로 매년 0.051씩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기치 분산은 1.723(S.E.=.416), 변화율 분산은 0.160(S.E.=.050),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은 -.22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것은 출발점과 변화의 양상에서 개인별로 서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세 자료 모두 중학교 3학년에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시기에 진로정체감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며, 출발점과 변화 속도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관계는 음의 상관으로 초기치가 높은 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더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 초기치가 낮은 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분산과 표준편차는 원점수나 표준점수를 사용한 잠재성장모형보다 절댓값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열형 다분문항을 연속형 변수로 가정하고, 최대우도 추정을 사용할 때 표준오차가 과소추정되어 제1종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DiStefano(2002)와 Finney와 DiStefano(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또한 표준점수의 기울기 추정치가 0.054이고,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기울기 추정치가 0.062로 나타나,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변화율 절댓값이 표준점수 모형의 변화율 절댓값보다 크게 나타나 대구교육종단연구 진로성숙도에 대하여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한 서공주(202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표 11. 원점수, 표준점수, IRT 점수의 초기치와 변화율

자료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변화율 공분산(S.E.)
	평균(S.E.)	분산(S.E.)	평균(S.E.)	분산(S.E.)	
원점수	2.95 ^{***} (0.014)	0.214 ^{***} (0.020)	0.020 ^{***} (0.005)	0.020 ^{***} (0.003)	-0.030 ^{***} (0.008)
표준점수	-0.011 (0.022)	0.570 ^{***} (0.055)	0.032 ^{***} (0.008)	0.052 ^{***} (0.009)	-0.080 ^{***} (0.021)
IRT점수	0.000	1.723 ^{***} (0.416)	0.051 ^{**} (0.016)	0.160 ^{**} (0.050)	-0.224 [*] (0.093)

* $p < .05$. ** $p < .01$. *** $p < .001$.

3) 문항 모수

표 12는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에서 확인한 진로정체감 문항변별도와 경계모수이다. Mplus에서 세타척도화를 사용하면 강건가중최소제곱(robust WLS) 추정법으로 모수를 추정한다. 프로빗 연결함수를 사용하는 강건가중최소제곱 추정법으로 추정된 등 급반응모형의 문항 모수는 정규오자이브(normal ogive) 모형의 모수로 여기에 척도 상수 1.7을 곱하면 로지스틱 모형의 문항변별도를 구할 수 있다. 프로빗 연결함수로 얻어진 경계모수를 로지스틱 모형의 범주난이도로 전환하는 식은 (식 4.2)와 같다 (Wang & Wang, 2012). (식 4.1)에서 j 는 문항수, m 은 범주의 수를 의미한다. m 개의 범주를 가진 범주난이도 b_{jm} 는 정규오자이브 모형의 경계모수 τ 를 요인부하량 λ 로 나눈 값이다(Wang & Wang, 2012). 표 12의 정규오자이브에서 구한 문항 모수에 (식 4.1)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로지스틱 모형의 범주난이도 b_{jm} 를 구할 수 있다.

$$b_{jm} = \frac{\tau_{jm}}{\lambda_j} \quad (\text{식 4.2})$$

로지스틱 경계모수는 -6와 2.2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났으며,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값이다. 즉, 약간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중1 패널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진로정체감 문항 모수

추정방식	문항번호	변별도(a_N)	경계모수(threshold)		
			1	2	3
정규오자이브	1	1.124	-4.09	-1.71	0.77
	2	0.307	-2.01	-0.81	0.67
	3	1.060	-3.80	-1.10	1.43
	4	0.939	-2.99	-0.93	1.02
	5	0.522	-3.25	-1.78	0.55
	6	1.089	-3.81	-0.95	1.25
	7	0.637	-2.11	-0.19	1.24
	8	1.098	-3.09	-0.53	1.55
로지스틱	1	1.911	-3.64	-1.52	0.69
	2	0.522	-6.55	-2.64	2.18
	3	1.802	-3.58	-1.04	1.35
	4	1.600	-3.18	-0.99	1.09
	5	0.887	-6.23	-3.41	1.05
	6	1.851	-3.50	-0.87	1.15
	7	1.083	-3.31	-0.30	1.95
	8	1.867	-2.81	-0.48	1.41

그림 7은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한 잠재성장모형의 그래프이다. 측정모형의 지표 변수는 각 시점에서의 문항이고, 잠재변수는 각 시점의 능력 θ 이다. 구조모형인 성장모형에서 초기치 잠재변수에서 각 시점별 잠재변수로 향하는 요인부하량은 1로 고정되고, 변화율 잠재변수에서 3차년도(t_3)는 0, 5차년도(t_5)는 2, 6차년도(t_6)는 3으로 고정하였다. 측정모형은 단일요인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으로 등급반응모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모형의 요인부하량은 문항변별도, 경계모수는 문항의 경계난이도에 대응된다.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시점별 각 문항의 경계모수의 시점에 걸쳐 동일성 제약이 적용되었다. 그림에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다르지만, 시점별 요인부하량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부하량과 경계모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여 서로 비교가능한 상태에서 추정되는 기울기 변화량은 시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변화, 즉 성장으로 인한 진로정체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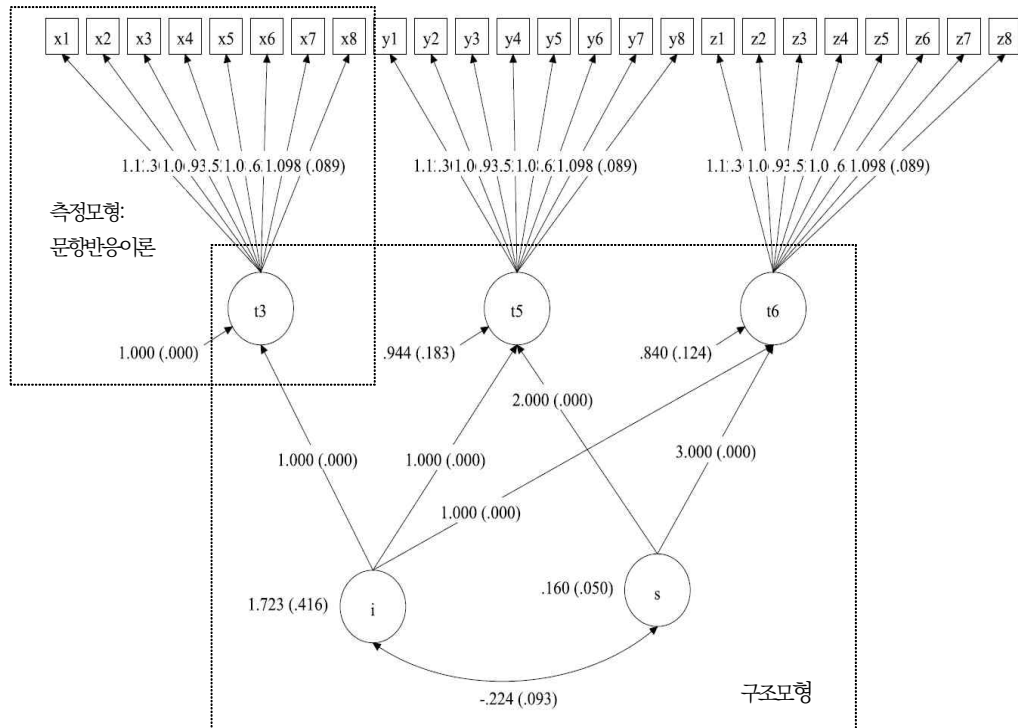


그림 7.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 분석 결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변화의 추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성장 모수와 문항 특성에 대해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제안하였다. 원점수 및 표준점수를 사용할 때의 잠재성장모형에서는 진로정체감이라는 구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진로정체감 구인의 개별 문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항을 3회 반복 측정한 진로정체감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 및 태도 특성에 대하여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사용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청소년 진로정체감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로정체감 문항 중 어떤 문항이 어렵고 쉬운지 그래서 어떤 문항이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정보를 더 잘 변별하고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KCYPS 2010의 진로정체감 8문항에 대한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에서 추정되는 성장의 경향성은 원점수를 사용한 선행연

구들(김진아, 2019; 김해성, 조미숙, 2019; 이은경, 신아라, 김선경, 이응택, 2017; 이은경, 오소영, 광현, 2019; 조영선, 장유나, 조영일, 2018; 조한익, 김영숙, 2016)의 결과와 비슷하지만, 측정모형과 성장모형을 통합한 모형이므로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종단 문항반응모형은 문항반응이론으로 문항 모수를 확인한 후 잠재성장모형으로 성장 모수를 추정하는 두 가지의 절차를 하나의 모형 안에 통합하였으므로 분석을 하나의 과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간편하다(박찬호, 서공주, 2020). 마지막으로 시점에 따라 달리 작동하는 문항이 나타나는 현상, 즉 item parameter drift(IPD)를 보이는 문항이 있어도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경계모수에 동일성제약을 가하여 성장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Edwards & Wirth, 2009).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시점 자료를 가진 KCYPS 2010의 진로정체감에 대하여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성장을 추정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시점 자료를 가진 진로 관련 문항에 대해서도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으로 성장을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공인규. (2008). **Holland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정체감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부. (2010). **2010 초·중등 진로교육 시행계획**.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2006).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11) 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희, 손원숙. (2005). 초·중·고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척도의 기준 개발. **교육과정평가연구**, 8(2), 81-97.
- 김미숙, 김양분, 박희진, 나종민, 이윤선. (2017).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 국제공동연구(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아. (2019). 청소년기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변화 및 예측요인 검증. **청소년학 연구**, 26(9), 217-246.
- 김해성, 조미숙. (2019). 청소년의 결속적 사회자본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7, 129-154.
- 박소영, 장승민. (2018). 다지표 잠재성장모형에서 요인동일성과 요인척도 설정의 문

- 제: 모형적합도와 모수 추정값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1), 153-183.
- 박찬호, 서공주. (2020). 종단 문항반응이론 혼합모형의 적용을 통한 자아존중감 변화 유형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31(3), 5-32.
- 서공주. (2021). **서열형 다분문항으로 측정된 잠재적 특성의 변화 분석을 위한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 탐색**.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상,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순목. (2002). **사회과학을 위한 측정의 원리**. 서울: 학지사.
- 이은경, 신아라, 김선경, 이은택. (2017). 청소년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종단연구. **청소년문화포럼**, 50(1), 91-112.
- 이은경, 오소영, 곽현. (2019).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32(4), 307-329.
- 조영선, 장유나, 조영일. (2018).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변화 모형: 코호트 연계 설계를 활용하여. **한국자료분석학회**, 20(1), 427-422.
- 조한익, 김미점, 김영숙, 조은실. (2014). 대학생용 스마트폰 의존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중등교육연구**, 26, 35-47.
- 조한익, 김영숙. (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0(4), 783-810.
- 추헌택, 손원숙. (2012). 대학생용 학업참여 척도(UWES-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485-503.
- 한태희, 홍상황. (2008).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교사용(KPRC-TRF)의 단축형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37-158.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ntler, P. M., & Chou, C. P.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6, 78-117.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in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rlson, J. E. (2021). *Introduction to item response theory models and ap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iStefano, C. (2002). The impact of categorization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3), 327-346.
- Edwards, M. C., & Wirth, R. J. (2009). Measurement and the study of change.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6(2), 74-96.
- Finney, S. J., & DiStefano, C. (2006). Non-normal and categorical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R. Hancock & R. O. Mueller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second course* (pp. 269-314). Greenwich, CO: Information Age Publishing.
- Flora, D. B., & Curran, P. J. (2004). An empirical evaluation of alternative methods of estimation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ordinal data. *Psychological Methods*, 9, 466-491.
- Forero, C. G., Maydeu-Olivares, A. (2009). Estimation of IRT graded response models: Limited versus full information methods. *Psychological Methods*, 14, 275-299.
- Grimm, K. J., Ram, N., & Estabrook, R. (2016). *Growth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and multilevel modeling approach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Leite, W. L. (2007). A comparison of latent growth models for constructs measured by multiple item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81-610.
- Mehta, P. D., Neale, M. C., & Flay, B. R. (2004). Squeezing interval change from ordinal panel data: Latent curve with ordinal outcomes. *Psychological Methods*, 9(3), 301-333.
- Muraki, E., & Bock, R. D. (2003). *PARSCALE(version 4.1.): IRT Item Analysis and Test Scoring for Rating-Scale Data*.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c.

- Muthén, B. (1978) Contributions to factor analysis of dichotomous variables. *Psychometrika*, 43, 551-560.
- Muthén, B. (1983).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categorical data. *Journal of Econometrics*, 22, 48-65.
- Muthén, B. (1984). A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dichotomous, ordered categorical, and continuous latent variable indicators. *Psychometrika*, 49(1), 115-132.
- Muthén, B., & Asparouhov, T. (2002). *Latent variable analysis with categorical outcomes: Multiple-group and growth modeling in Mplus*. Mplus Web Notes. Retrieved from <https://www.statmodel.com/download/webnotes/CatMGLong.pdf>.
- Muthén, B., & Kaplan, D. (1985). A comparison of some methodologies for the factor analysis of non-normal Likert variabl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38, 171-189.
- Muthén, L., & Muthén, B. (2019). *Mplus version 8.4* [Computer software].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Muthén, L., & Muthén, B. (1998-2017). *Mplus user's guide* (8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Newsom, J. T. (2015). *Longitud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 Ostini, R., & Nering, M. L. (2006). Polytomous item response theory models. Thousand Oaks, CA: Sage.
- Samejima, F. (1969). Estimation of latent ability using a response pattern of graded scores. *Psychometrika*, 34, 1-97.
- Super, D. E. (1969). Vocational development: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 2-9.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Takane, Y., & de Leeuw, J. (1987).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tem response theory and factor analysis of discretized variables. *Psychometrika*, 52(3), 393-408.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Wang, J., & Wang, X.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Chichester, UK: Wiley.

Wirth, R. J., & Edwards, M. C. (2007). Item factor analysis: Current approach and future direction. *Psychological Methods*, 12(1), 58-79.

‘중학생 진로정체감 변화 추이 탐색을 위한 문항반응이론의 종단적 확장’에 대한 토론문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진로정체감 등 학교교육의 성과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수행한 문항 특성과 종단적 변화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반응이론의 종단적 확장을 시도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기존의 원점수 및 표준점수의 잠재성장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이 어떠한 특징과 장점을 지니는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장모수와 문항특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종단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진로정체감과 같이 심리 및 태도영역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청소년 진로정체감의 변화를 파악하고 문항 난이도를 통해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에 대한 정보를 분별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해당 연구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연구자가 제시한 모델을 토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형성과 이를 토대로 진로교육에 어떠한 함의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연구모델 구조와 분석 방법을 설명함에 있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종단반응문항이론 모형을 통해 시점별 진로정체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 봅니다. 한편으로는 연구의 목적 및 논의 및 결론 파트에서 해당 분석을 통해서 기존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어떠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떠한 교육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 추가 논의가 다소 약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목적이나 교육적 함의에 있어 추가적으로 의견을 덧붙여 준다면 독자들이 본 연구논문을 참고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할 때 본 연구의 결과 활용에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 과정에 있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왜 중요하고,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변화 추이를 탐색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토대로

설명해주신다면 연구논문의 학술적 활용 가치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 봅니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높은 훌륭한 연구를 발표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연구에
서의 모형을 토대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진로정체감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
행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 참고문헌

·통계청 (2015).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자녀 진로정체감의 관계

이영광*, 하재영**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을 탐색하고 이 유형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활용하였으며, 특별히 4차년도(중1) 및 7차년도(고1) 총 2,09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모양육방식을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고,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항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1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의 유형은 총 4가지(긍정 관여형, 일반 관여형, 부정 관여형, 적극 관여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1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긍정 관여형’에 비해 ‘일반 관여형’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낮고, ‘긍정 관여형’에 비해 ‘부정관여형’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았으며 ‘긍정관여형’과 ‘적극 관여형’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셋째, 고1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의 유형은 총 5가지(긍정 관여형, 일반관여형, 이상적 관여형, 관여 부족형, 적극 관여형)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1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긍정 관여형’에 비해 ‘이상적 관여형’일수록, ‘적극 관여형’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았고, ‘긍정 관여형’에 비해 ‘관여 부족형’일 경우에는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았으며, ‘긍정 관여형’과 ‘일반 관여형’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상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부모양육방식 유형, 진로정체감, KCYPS 2010, 잠재프로파일 분석

〈대학원생 경진대회 우수논문 수상작〉

*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수료

**+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수료, chal0060@snu.ac.kr

I. 서론

진로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구체적이고 안정된 상을 형성한 개인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성인기에서도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직업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의 진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김선영, 2021; 정수경, 2018)에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들은 중학교 시기에는 자유학년(학기)제와 다양한 진로활동을 통해 진로교육을 경험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에 비로소 자신과 직업세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전공 선택,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및 고교학점제로 준비 등으로 급박하게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박나실, 2020). 이 시기에 안정적인 진로정체감을 형성한 개인은 진로 전환 시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어 진로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진로선택 및 발달 관련 연구 분야에서 학부모 영향은 오랫동안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특히, COVID-19는 교육의 공간을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동시켰고 이로 인해 자녀 발달에 대한 학부모의 영향을 더욱 강화시켰다(정철영, 이영광, 2020). 초기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t worldview)에 기반한 Roe의 이론(1956, 1957) 및 애착 이론(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58; Bowlby, 1969, 1982)부터 오늘날 진로구성이론(Savickas, 2002), 체제이론(Patton & McMahon, 2014) 등의 진로구성이론에 기반한 이론까지, 개인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에 관한 부모의 영향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국내 연구 또한, 지난 10년간 자녀 진로선택 및 발달에 관한 학부모의 영향을 구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이영광, 이승엽, 양인준, 2019).

진로정체감에 대한 부모 영향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은 맥락적 요인이 긍정적 지지일 수 있고 부정적인 장벽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허효연(2004)은 부모양육방식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감독, 애정과 같은 부모의 긍정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포함하였다. Dietrich & Kracke(2009) 또한, 부모진로관련행동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긍정적 요인인 지지뿐만 아니라 간섭과 관여부족 요인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자녀 진로선택 및 발달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지지, 애착과 같은 부모의 긍정적 영향 주로 초점을 두었고(이영광 외, 2019) 부정적 영향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진로정체감에 대한 부모 영향은 단일한 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진로구성이론(Savickas, 2002)과 체제이론(Patton &

McMahon, 2014)은 개인을 다양한 맥락 요인을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본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는 부모 영향을 유형화하는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신효정, 이지희, 2018; Spurk, Hirschi, Wang, Valero & Kauffeld, 2020) 그럼에도, 진로선택 및 발달에 관한 부모 영향을 구명한 국내 연구는 주로, 부모 변인 각각의 요인과 관련 변인 간 인과 관계를 구명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영광 외, 2019).

셋째, 부모 영향은 자녀가 발달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달리 자율성이 발달하여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개별화(individuation) 과정을 겪으며 과거, 전지전능(all-knowing and all-powerful)의 존재로 여겼던 부모를 불완전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탈이상화(deidealization) 과정을 겪는다(McELHANEY et al., 2009). 이 과정에서 부모는 혼란, 막막함, 불안을 느끼며(강연미, 김희수, 2020; 이양희, 조혜영, 2019) 자녀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유정이, 2009) 자녀와 소통, 상담전문가의 도움, 타인의 조언 등 외부 도움을 탐색함과 함께(소수연 외, 2014) 자녀 진로지도 방식을 수정해나간다(강연미, 김희수, 2020). 즉, 자녀 발달로 인한 부모자녀관계 변화, 이로 인한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방식 수정은 자녀 진로선택 및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진로선택 및 발달 관련 국내 연구는 주로 특정 대상에 대한 부모 영향에 초점을 두어 자녀 발달에 따른 학부모 영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기 논의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을 유형화하고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양육방식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양육방식과 진로정체감 간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방식

부모양육방식(parenting styles)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서(김지연, 이은주, 2017) 부모양육행동과 부모양육

태도를 포함한다.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지속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신효정, 이지희, 2018)를 의미하며 부모양육행동을 지속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허묘연, 2004)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는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행동, 부모양육방식 등으로 변인명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황혜영, 김나영(2018)은 부모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외적 태도나 행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김성경, 우연경, 최영민(2017)는 부모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신들의 가치관과 정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자녀의 인지와 정서발달에 미치는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즉, 선행연구는 부모양육태도를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부모양육방식,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의 개념이 혼재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지연 이은주(2017)와 이정표, 장진희, 권동택(2014)는 부모양육방식을 부모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정아, 조아미(2018)는 부모양육방식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지속해서 나타내는 긍정과 부정의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상기 논의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부모양육방식을 부모양육행동과 부모양육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2. 부모양육방식 유형 및 변화

최근 진로 연구는 구성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과거,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t worldview) 관점으로서 Roe(1956, 1957)의 이론은 아동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이후의 자녀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애착이론(Bowlby, 1969, 1982)은 부모와 안정적 애착 유형을 형성한 개인이 외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고 주장한다(Blustein et al., 1995).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진로이론은 부모가 자녀 진로선택 및 발달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 반면, 구성주의에 기반한 진로이론은 개인이 맥락 영향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진로구성이론(Savickas, 2002)은 개인을 다양한 맥락의 영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한다. 진로구성이론 관점에 따르면 맥락 영향은 항상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고 개인이 그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있다. 체제이론 프레임워크(System Theory Framework)은 진로구성이론의 관점과 맥을 같이하며 개인을 다양한 맥락 영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본다(McMahon & Patton, 2019).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 Brown, 2013) 또한, 맥락이 개인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자녀는 자신의 진로선택 및 발달과 관련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부모양육 관련 선행연구는 부모의 유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신효정, 이지희, 2018) 진로 연구 분야에서 또한, 자녀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Spurk et al., 2020) 그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관련 국내 연구가 주로 변인 간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였다는 사실(이영광 외, 2019)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아동가족학 분야는 부모양육방식을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다수 이루어졌다. 부모양육방식 유형은 주로 4개 유형이 도출되었고 모든 요인이 평균 수준을 보이는 일반형 또는 평균지향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긍정적 요인의 수준이 높은 바람직형 또는 합리-애정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정적 요인의 수준이 높은 과잉형 또는 학대형, 전반적으로 요인의 수준이 낮은 무관심형, 방임형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김지연, 이은주, 2017; 신효정, 이지희, 2018; 황혜영, 김나영, 2018).

부모양육방식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자녀가 발달함에 따라 변화한다(황혜영, 김나영, 2018). 황혜영, 김나영(2018)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일반형, 합리-애정형, 애정부족형, 애정만족/과잉기대형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일반형, 합리-애정형, 과잉기대/과잉간섭형, 애정부족형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황혜영, 김나영(2018)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대학 입시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부모의 양육태도를 기대나 간섭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시기에 학부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임소현, 이영광, 이승엽, 2020; 정철영, 이영광, 2020, 한상근 외, 2019)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자녀는 학부모의 영향을 복합적인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부모의 영향이 변화될 수 있다.

3. 부모양육방식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자아상(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을 의미한다. 진로정체감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특성과 맞는 진로를 결정, 준비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이응택, 최재혁, 2017).

진로정체감 발달에 관한 부모 및 가정의 관계를 구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현주, 201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진로선택 및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손보영, 윤민지, 박소현, 임제희, 2013; 이응택, 최재

혁, 2017) 진로정체감과 부모 영향 간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현주(2010)의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았고 부모의 진로지지 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았다. 이응택, 최재혁(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민주, 김민정, 이선희, 도현심(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연구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요인별로 각각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부모의 복합적인 영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령, 이현주(2010)는 의사소통, 간섭행동, 관여행동, 친밀감 등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각각 구분하여 진로정체감과 관계를 확인하였고 이응택, 최재혁(2017)은 부모와의 진로대화, 부모와의 관계를 각각의 변인으로 구분하여 진로정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김민주 외(2018)의 연구에서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단일 변인으로 상정하여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단일 요인으로 인식하기 보다 각 요인을 복합적인 유형으로 인식하나, 학부모 영향과 진로정체감 간 관계를 구명한 선행연구는 맥락 영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개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및 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NYPI)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2010(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을 활용하였다. KCYPS 2010에서는 각각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3개의 코호트로 구성하여 종단추적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급별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양육방식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연구 목적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의 관심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를 구체적인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특별히,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4차년도(중1) 자료와 7차년도(고1) 자료를 활용하여 중, 고등학교 시기의 부모양육방식을 유형화하고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단계에 걸쳐 선정된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4차년도(중1) 응답자 중 부모양육방식 관련 문항에 미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총 2,092명이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1,100명(52.6%), 여성 992명(47.4%)이었으며, 자택 지

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수도권 602명(29.8%), 1,417명(70.2%)로 나타났다. 형제자매 유무로 구분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있음 1,798명(89.1%), 없음 221명(10.9%)으로 나타났다으며 주택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단독주택 404명(20.0%), 아파트 1,239명(64.3%), 연립주택 143명(7.1%), 다세대(가구) 주택 143명(7.1%), 기타 30명(1.5%)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4차년도)

구분		빈도수(명)	비율(%)
성별	남자	1,100	52.6
	여자	992	47.4
주택 지역	수도권	602	29.8
	비수도권	1,417	70.2
형제자매 유무	있다	1,798	89.1
	없다	221	10.9
주택 형태	단독주택	404	20.0
	아파트	1,239	64.3
	연립주택	143	7.1
	다세대(가구) 주택	143	7.1
	기타	30	1.5
	총계	2,092	100

2. 분석 변수

1) 유형화 지표변수

이 연구에서 유형화 지표변수로는 부모양육방식을 활용하였다. 부모양육방식의 총 6가지 하위요인을 각각 독립적인 변수로 간주하여, 6개 하위요인간의 분포를 통하여 부모양육방식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부모양육방식은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감독(3문항), 애정(4문항), 비밀관성(3문항),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으로 구성된다. 원 설문문항은 동의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기는 방식(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고 있으나,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측정방식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표 2. 유형화 지표변수(부모양육방식) 문항구성

구분	변수명	측정방식
지표 변수	부모 양육 태도	감독 • 내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애정 •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 내가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신다 •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신다
		비일 관성 •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치신다 • 부모님(보호자)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
	과잉 간섭	과잉 기대 • 부모님(보호자)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 나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다 •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었다 •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과잉 간섭 •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며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다
		합리 적 설명 • 부모님(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 각 하위요인별 평균값 산출하여 활용		

2) 종속, 독립 및 통제변수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도출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활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종속변수는 진로정체감을 활용하였는데, 진로정체감은 '장래의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있다' 등의 총 8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원 설문문항에서는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연구 목적에 따라 역코딩하여 값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부모양육방식 유형을 투입하여 활용하였으며,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로그가구소득, 부모학력, 부모근로여부, 학업성취도, 또래애착, 교우관계, 교사 관계를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0 남성, 1 여성으로 더미화하여 활용하였으며, 로그가구소득은 가구 연간소득에 log를 씌워 산출하였다. 부모

학력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 자료를 조합하여 두분 모두 대졸 미만, 두분 중 한분 대졸, 두분 모두 대졸로 새롭게 범주화하여 활용하였다. 부모 근로여부의 경우 아버지의 근로여부와 어머니의 근로여부 자료를 조합하여 두분 모두 일을 하고 있음, 두분 중 한분 일을 하고 있음, 두분 모두 일하고 있지 않음으로 새롭게 범주화하여 활용하였다. 학업성취도는 과목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값으로 산출하되,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3개 교과에 대한 값을 평균내어 활용하였으며 값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또래애착의 경우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또래애착(3문항), 신뢰를 기반으로 한 또래애착(3문항), 소외를 기반으로 한 또래애착(3문항) 총 9문항의 값을 평균내어 활용하였다. 원 설문문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낮도록 측정되어있었으나 연구목적을 위해 역코딩하였다. 다만, 소외를 기반으로 한 또래애착은 역문항으로 역코딩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였다.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는 각각 5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원 설문문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어 역코딩하였다. 다만, 교우관계 1문항의 경우 역문항으로서 역코딩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였다.

표 3. 종속, 독립 및 통제변수 문항구성

구분	변수명	측정방식
종속 변수	진로정체감	•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한다 •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총 8문항의 평균값 산출하여 활용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독립 변수	부모양육방식 유형	•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한 부모양육방식
	성별	0. 남성 1. 여성
	로그가구소득	연속형 변수 $\log(\text{가구 연간 소득})$
통제 변수	부모학력	1. 두분 모두 대졸 미만 2. 두분 중 한분 대졸 이상 3. 두분 모두 대졸 이상
		• 부모님의 교육수준(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부, 모 학력에 대한 응답 재구성하여 '부모학력'으로 활용

부모 근로여부	• 부모님은 현재 일(직업)을 하고 계십니까? • ※ 부, 모 학력에 대한 응답 재구성하여 '부모근로여부'로 활용	1. 두분 모두 일을 하고 있음 2. 두분 중 한 분 일하고 있음 3. 두분 모두 일하고 있지 않음
학업성취도	• 과목별 주관적 평가 : 국어 • 과목별 주관적 평가 : 수학 • 과목별 주관적 평가 : 영어 • ※ 총 3문항의 평균값 산출하여 활용	1. 매우 못했다 2. 못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한 편이다 5. 매우 잘했다
또래애착	• 내 친구들은 나의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R) •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R) •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R) • ※ 총 9문항의 평균값 산출하여 활용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교우관계	•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R) •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 ※ 총 5문항의 평균값 산출하여 활용	
교사관계	•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 선생님과 인사하는 것이 편하다 •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 선생님을 찾아 뵙고 싶다 • ※ 총 6문항의 평균값 산출하여 활용	

주1: R은 역문항을 의미하며, 일부 문항의 경우 연구목적에 따라 원 설문문항 응답값을 역코딩하여 제시하였음.

3. 분석 방법

자료분석을 위하여 STATA 14.0 및 R을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총 2단계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부모양육방식 집단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R의 “tidyLPA”와 “mclust” 패키지(Oberski, 2016)를 사용하였다. 부모양육방식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을 적절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수를 증가시키면서 모형적합도 지수인 AIC, BIC, Sample-Size Adjusted BIC(saBIC), BLRT p-value 및 Entropy 값을 살펴보았다. AIC, BIC 및 saBIC 값의 경우, 수치가 적을 수록 더 우수한 모형임이 알려져있으며(Collins et al., 1993; Nylund et al., 2007), BLRT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Entropy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설명력이 좋은 것으로 판명된다. 또한, 잠재프로파일의 경우 각 집단 최소 비율이 1%이상(Jung & Wickrama, 2008) 되어야 하며, 위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잠재프로파일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해낸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양육방식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종속변인으로 진로정체감을 설정하고 통제변인을 설정하여, 부모양육방식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1, 2단계는 중1(4차년도) 및 고1(7차년도) 자료 각각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중1 1-2단계, 고1 1-2단계) 실시되었다.

4. 연구 모형

중1 및 고1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의 유형화 및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중1을 대상으로 부모양육방식을 유형화하고, 도출해낸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후 고1을 대상으로 부모양육방식을 유형화하고, 도출해낸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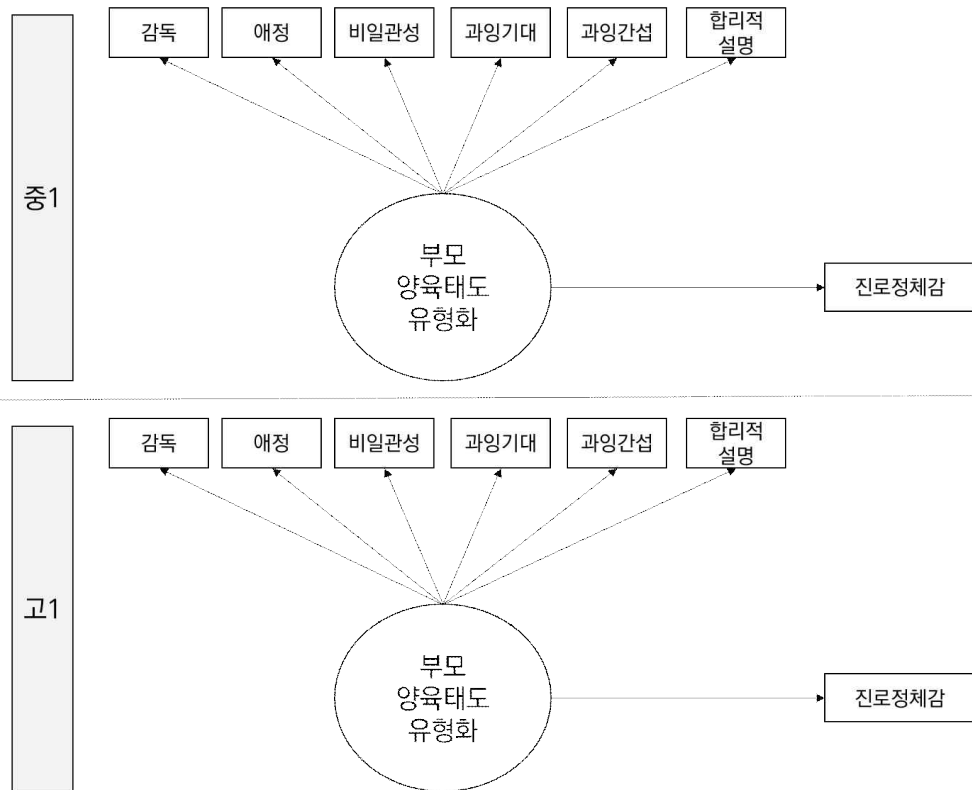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 결과

1. 중1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1) 상관분석 및 기초통계량

중1(4차년도) 기준 주요 변수들의 상관분석 및 기초통계량은 <표 5> 및 <표 6>에 제시되었다. 먼저 연속형 변수들의 변인 간의 상관을 확인하면, 상관분석 결과,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독, 애정, 과잉기대, 합리적설명, 진로정체감, 로그가구소득, 학업성취도, 또래애착, 교우관계, 교사관계는 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비밀관성, 과잉간섭은 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변수 집단 간의 상관관계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둘째로, 연속형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감독은 평균 3.31, 표준편차 0.56을 보였다. 애정은 평균 3.17, 표준편차 0.57, 비밀관성 2.34, 표준편차 0.69, 과잉기대 평균 2.60, 표준편차 0.63, 과잉간섭 평균 2.31, 표준편차 0.68, 합리적설명 평균 2.99, 표준편차 0.60을 보였다. 진로정체감은 평균 2.95, 표준편차 0.61, 로그가구소득은 평균 8.31, 표준편차 0.54를 나타냈다. 학업성취도는 평균 2.61, 표준편차 0.94를 나타냈고 또래애착은 평균 2.80, 표준편차 0.38을 나타냈다. 교우관계는 평균 2.91, 표준편차 0.40, 교사관계는 평균 2.94, 표준편차 0.65를 나타냈다. 왜도와 첨도 판단 기준은 절대값 기준 각각 2.0, 7.0을 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은 분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West et al., 1995). 신뢰도의 경우 대체로 0.70이상을 나타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Fleiss, 1986; Nunnally, 1978).

추가로 범주형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하였다. 부모학력의 경우 두분 모두 대졸 미만 984명(53.1%), 두분 중 한분 대졸 이상 293명(15.8%), 두분 모두 대졸 이상 576명(31.1%)으로 나타났다. 부모 근로여부의 경우 두분 모두 일하고 있지 않음 8명(0.4%), 두분 중 한분 일하고 있음 674명(37.5%), 두분 모두 일을 하고 있음 1,116명(62.1%)으로 나타났다.

표 4. 중1 코호트 주요변수 기초통계량(범주형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부모학력	두분 모두 대졸 미만	984	53.1
	두분 중 한분 대졸 이상	293	15.8
	두분 모두 대졸 이상	576	31.1
부모 근로여부	두분 모두 일하고 있지 않음	8	0.4
	두분 중 한분 일하고 있음	674	37.5
	두분 모두 일을 하고 있음	1,116	62.1

표 5. 중1(4차년도) 기준 주요변수 간 상관분석 및 기초통계량(연속형 변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sd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신뢰도
1. 감독	-												3.31	0.56	1	4	-0.62	3.54	0.76
2. 애정	0.539 ***	-											3.17	0.57	1	4	-0.44	3.42	0.83
3. 비일관성	-0.120 ***	-0.229 ***	-										2.34	0.69	1	4	0.13	2.78	0.70
4. 과잉기대	0.123 ***	0.004	0.542 ***	-									2.60	0.63	1	4	0.05	2.92	0.69
5. 과잉간섭	-0.058 **	-0.207 ***	0.641 ***	0.696 ***	-								2.31	0.68	1	4	0.22	2.80	0.76
6. 합리적 설명	0.423 ***	0.683 ***	-0.135 ***	0.035	-0.098 ***	-							2.99	0.60	1	4	-0.31	3.38	0.76
7. 진로정체감	0.260 ***	0.301 ***	-0.026	0.076 ***	-0.016	0.254 ***	-						2.95	0.61	1	4	-0.05	2.54	0.89
8. 로깅가늌소득	0.110 ***	0.078 ***	-0.074 **	-0.027	-0.031	0.033	0.041	-					8.31	0.54	5.30	10.8	-0.78	5.87	-
9. 학업성취도	0.114 ***	0.096 ***	-0.090 ***	-0.026	-0.070 **	0.054 *	0.082 ***	0.099 ***	-				2.61	0.94	1	5	0.40	2.82	0.72
10. 포래 애착	0.237 ***	0.292 ***	0.153 ***	0.235 ***	0.188 ***	0.256 ***	0.251 ***	0.041	0.055 *	-			2.80	0.38	1	4	0.41	4.90	0.82
11. 교우 관계	0.286 ***	0.323 ***	0.040	0.161 ***	0.066 **	0.288 ***	0.251 ***	0.071 **	0.056 *	0.444 ***	-		2.91	0.40	1	4	0.04	4.68	0.61
12. 교사 관계	0.338 ***	0.373 ***	-0.041	0.092 ***	-0.047 *	0.294 ***	0.279 ***	0.046 *	0.064 *	0.257 ***	0.425 ***	-	2.94	0.65	1	4	-0.26	3.02	0.85

주1: *** p<0.001, ** p<0.01, * p<0.05

2) 중1 부모양육방식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중1 대상 부모양육방식이 몇 개의 잠재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 집단 수를 1개에서 6개로 증가시키면서, 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수가 1개씩 증가함에 따라 AIC, BIC, saBiC 값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BLRT값이 모두 유의하여, 집단 6개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간 차이를 보였다. 즉, 5개 집단에 비하여 6개 집단이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분류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Entropy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0.8 이상으로 양호하였는데 4개 집단으로 분류한 경우 0.87로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각 잠재집단의 분류율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경우에서 잠재집단의 최소 표본크기가 전체 표본크기 대비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AIC, BIC, saBic, BLRT 값을 고려하는 경우 집단 6개가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 개수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Entropy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집단 4개가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 개수라고 생각될 수 있다. 부모양육방식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집단을 4-5개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 개수를 4개로 설정하였다.

표 6. 중1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잠재집단의 모형적합도

잠재 집단 수	AIC	BIC	saBIC	BLRT	Entr opy	잠재집단별 사례수					
						1	2	3	4	5	6
1	23756.51	23824.27	23786	-	1	2,092					
2	22073.68	22180.93	22121	1698**	0.74	1,320	772				
3	20435.41	20582.21	20500	1652**	0.84	1,245	225	622			
4	19834.09	20020.40	19916	396**	0.87	497	1,208	181	206		
5	19472.55	19698.38	19571	319**	0.78	872	404	155	180	481	
6	19119.45	19384.80	19235	366**	0.80	742	236	272	565	141	136

주1: ***p<0.001, ** p<0.01, * p<0.05

종합하면, 중1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방식을 유형화한 결과, 최종적으로 집단 4개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집단 4개의 잠재프로파일별 구성비율 및 하위요인의 평균을 제시하면 <표 8> 및 [그림 2]과 같다. ‘잠재 집단1’은 전체 표본의 23.8%(n=497)에 해당하였으며,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높고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 집단은 긍정적인 부모양육방식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부모양육방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긍정 관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 집단 2’의 경우, 전체의 약 57.7%(n=1,208)에 해당되며,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하위영역에서 평균점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 관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 집단 3’의 경우 전체의 8.7%(n=181)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긍정적 양육방식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부정 관여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4’의 경우, 전체의 9.8%(n=206)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하위영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적극 관여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7. 중1 부모양육행동 4개 유형별 구성비율 및 하위영역 평균점수

잠재집단	구성비율 (%)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긍정 관여형	23.8 (n=497)	3.73	3.77	1.67	2.18	1.67	3.50
2. 일반 관여형	57.7 (n=1,208)	3.13	3.00	2.42	2.61	2.37	2.83
3. 부정 관여형	8.7 (n=181)	2.73	2.08	2.62	2.59	2.58	2.00
4. 적극 관여형	9.8 (n=206)	3.76	3.67	3.26	3.59	3.33	3.55

주1: 중1 총 표본수 (n)은 2,092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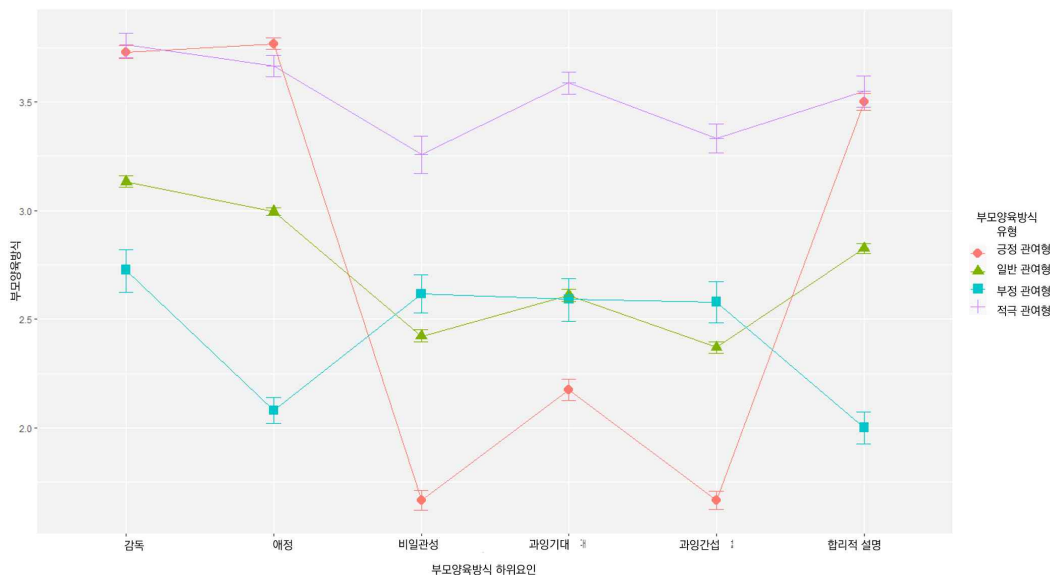


그림 2. 중1 대상 부모양육방식 잠재프로파일

3) 중1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중1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 유형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다른 주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회귀모형의 F값은 23.830으로 나타났으며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Adjusted R^2)은 14.7%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양육방식 유형 중 ‘긍정 관여형’에 비해 ‘일반 관여형’ 일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0.241 만큼 감소하며($p<0.001$), ‘긍정 관여형’에 비해 ‘부정 관여형’ 일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은 0.282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p<0.001$)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 관여형’에 비하여 ‘적극 관여형’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정체감 수준은 긍정관여형과 과잉관여형이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며, 일반 관여형, 부정 관여형 순으로 진로정체감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학업성취도, 또래애착,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진로정체감은 0.034만큼 증가하고($p<0.05$), 또래애착이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진로정체감은 0.191($p<0.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우관계가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진로정체감은 0.090($p<0.05$), 교사관계가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진로정체감은 0.153 증가하는 것으로($p<0.001$) 나타났다.

표 8. 중1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구분		Coef	S.E	t-value
성별 (ref. 남성)	여성	-0.039	0.028	-1.400
	로그임금	-0.006	0.033	-0.170
부모 학력 (ref. 두분 모두 대졸 미만)	두분 중 한분 대졸 이상	-0.003	0.039	-0.080
	두분 모두 대졸 이상	0.030	0.033	0.920
부모근로여부 (ref. 두분 모두 일하고 있지 않음)	두분 중 한분 일하고 있음	-0.009	0.203	-0.040
	두분 모두 일을 하고 있음	0.007	0.203	0.040
학업성취도		0.034*	0.015	2.320
또래 애착		0.191***	0.042	4.530
교우관계		0.090*	0.042	2.150
교사관계		0.153***	0.024	6.300
부모양육방식 유형 (ref. 긍정 관여형)	일반 관여형	-0.241***	0.035	-6.910
	부정 관여형	-0.282***	0.059	-4.740
	적극 관여형	-0.011	0.054	-0.200
상수		1.835***	0.339	5.410
사례수			1,719	
Adjusted R^2			0.147	
F			23.830***	

주1: *** $p<0.001$, ** $p<0.01$, * $p<0.05$

2. 고1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1) 상관분석 및 기초통계량

고1(7차년도) 기준 주요 변수들의 상관분석 및 기초통계량은 <표 10> 및 <표 11>에 제시되었다. 먼저 연속형 변수들의 변인 간의 상관을 확인하면, 상관분석 결과,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독, 애정, 합리적설명, 진로정체감, 로그가구소득, 학업성취도, 또래애착, 교우관계, 교사관계는 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변수 집단 간의 상관관계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둘째로, 연속형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감독은 평균 3.23, 표준편차 0.56을 보였다. 애정은 평균 3.12, 표준편차 0.56, 비밀관성 2.03, 표준편차 0.65, 과잉기대 평균 2.32, 표준편차 0.61, 과잉간섭 평균 2.14, 표준편차 0.61, 합리적설명 평균 2.90, 표준편차 0.58을 보였다. 진로정체감은 평균 2.96, 표준편차 0.61, 로그가구소득은 평균 8.39, 표준편차 0.51를 나타냈다. 학업성취도는 평균 2.41, 표준편차 0.82를 나타냈고 또래애착은 평균 2.78, 표준편차 0.33을 나타냈다. 교우관계는 평균 2.94, 표준편차 0.35, 교사관계는 평균 3.03, 표준편차 0.56를 나타냈다. 왜도와 첨도 판단 기준은 절대값 기준 각각 2.0, 7.0을 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은 분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West et al., 1995). 신뢰도의 경우 대체로 0.70이상을 나타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Fleiss, 1986; Nunnally, 1978).

추가로 범주형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하였다. 부모학력의 경우 두분 모두 대졸 미만 984명(53.1%), 두분 중 한분 대졸 이상 293명(15.8%), 두분 모두 대졸 이상 576명(31.1%)으로 나타났다. 부모 근로여부의 경우 두분 모두 일하고 있지 않음 8명(0.4%), 두분 중 한분 일하고 있음 674명(37.5%), 두분 모두 일을 하고 있음 1,116명(62.1%)으로 나타났다.

표 9. 고1 코호트 주요변수 기초통계량(범주형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부모학력	두분 모두 대졸 미만	782	49.4
	두분 중 한분 대졸 이상	250	15.8
	두분 모두 대졸 이상	550	37.8
부모 근로여부	두분 모두 일하고 있지 않음	1	0.1
	두분 중 한분 일하고 있음	556	33.8
	두분 모두 일을 하고 있음	1,086	66.1

표 10. 고1(7차년도) 기준 주요변수 간 상관분석 및 기초통계량(연속형 변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sd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신뢰도
1. 감독	-												3.23	0.56	1	4	-0.50	3.50	0.79
2. 애정	0.553***	-											3.12	0.56	1	4	-0.40	3.46	0.83
3. 비밀관성	-0.230***	-0.370***	-										2.03	0.65	1	4	0.35	2.98	0.74
4. 과잉기대	-0.063**	-0.200***	0.528***	-									2.32	0.61	1	4	0.14	3.09	0.73
5. 과잉간섭	-0.142***	-0.300***	0.615***	0.732***	-								2.14	0.61	1	4	0.25	3.06	0.73
6. 합리적 설명	0.394***	0.632***	-0.177***	-0.118***	-0.184***	-							2.90	0.58	1	4	-0.33	3.60	0.79
7. 진로정체감	0.337***	0.312***	-0.105***	-0.018	-0.048*	0.251***	-						2.96	0.61	1	4	0.03	2.33	0.90
8. 로그가구소득	0.073**	0.125***	-0.029	0.042	0.005	0.068**	0.087***	-					8.39	0.51	5.30	9.90	-1.03	5.73	-
9. 학업성취도	0.077**	0.083***	-0.056*	-0.004	-0.064**	0.024	0.062**	-0.022	-				2.41	0.82	1	5	0.69	3.34	0.54
10. 또래 애착	0.268***	0.330***	0.034	0.109***	0.064**	0.254***	0.246***	0.046	0.056*	-			2.78	0.33	1	4	0.38	4.81	0.84
11. 교우 관계	0.291***	0.352***	-0.058*	0.070**	-0.002	0.258***	0.302***	0.083***	0.055*	0.400***	-		2.94	0.35	1	4	0.24	3.96	0.63
12. 교사 관계	0.338***	0.399***	-0.139***	0.005	-0.100***	0.318***	0.323***	0.060*	0.056*	0.311***	0.496***	-	3.03	0.56	1	4	-0.08	3.02	0.81

주1: ***p<0.001, ** p<0.01, * p<0.05

2) 고1 부모 양육방식 잠재 프로파일 수 결정

고1 대상 부모양육방식이 몇 개의 잠재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 집단 수를 1개에서 6개로 증가시키면서, 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집단의 수가 1개씩 증가함에 따라 AIC, BIC, saBiC 값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BLRT값이 모두 유의하여, 집단 6개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간 차이를 보였다. 즉, 5개 집단에 비하여 6개 집단이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분류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Entropy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0.8 이상으로 양호하였는데 5개 집단으로 분류한 경우 0.82로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각 잠재집단의 분류율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경우에서 잠재 집단의 최소 표본크기가 전체 표본크기 대비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AIC, BIC, saBic, BLRT 값을 고려하는 경우 집단 6개가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 개수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Entropy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집단 5개가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 개수라고 생각될 수 있다. 부모양육방식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집단을 4-5개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 개수를 5개로 설정하였다.

표 11. 고1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잠재집단의 모형적합도

잠재 집단수	AIC	BIC	saBIC	BLRT	Entropy	잠재집단별 사례수
1	21751.24	21818.33	21780	-	1	2,092
2	19811.15	19917.37	19857	1954**	0.74	1281+698
3	19003.41	19148.75	19066	822**	0.80	1188+517+273
4	18529.41	18713.89	18609	488**	0.80	1094+198+446+241
5	18175.92	18399.53	18272	367**	0.82	996+398+415+67+103
6	17852.58	18115.33	17966	337**	0.77	796+455+373+61+247+47

주1: ***p<0.001, ** p<0.01, * p<0.05

종합하면, 고1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방식을 유형화한 결과, 최종적으로 집단 5개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집단 5개의 잠재프로파일별 구성비율 및 하위 요인의 평균을 제시하면 <표 13> 및 [그림 3]과 같다. ‘잠재 집단1’은 전체 표본의 50.3%(n=996)에 해당하였으며,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높고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 집단은 긍정적인 부모양육방식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부모양육방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긍정 관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 집단 2’의 경우, 전체의 약 20.1%(n=398)에 해당되며, 다른 집

단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하위영역에서 평균점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 관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 집단 3’의 경우 전체의 21.10%(n=415)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긍정 관여형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감독, 애정, 합리적설명의 수준이 긍정관여형보다 높고 과잉기대, 과잉관여, 비밀관성의 수준은 긍정관여형보다는 낮았다. 긍정적 양육방식의 수준이 강화되고 부정적 양육방식의 수준은 완화되었으므로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상적 관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 집단 4’의 경우 전체의 3.4%(n=67)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양육방식의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이를 ‘관여 부족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5’의 경우, 전체의 5.2%(n=103)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하위영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적극 관여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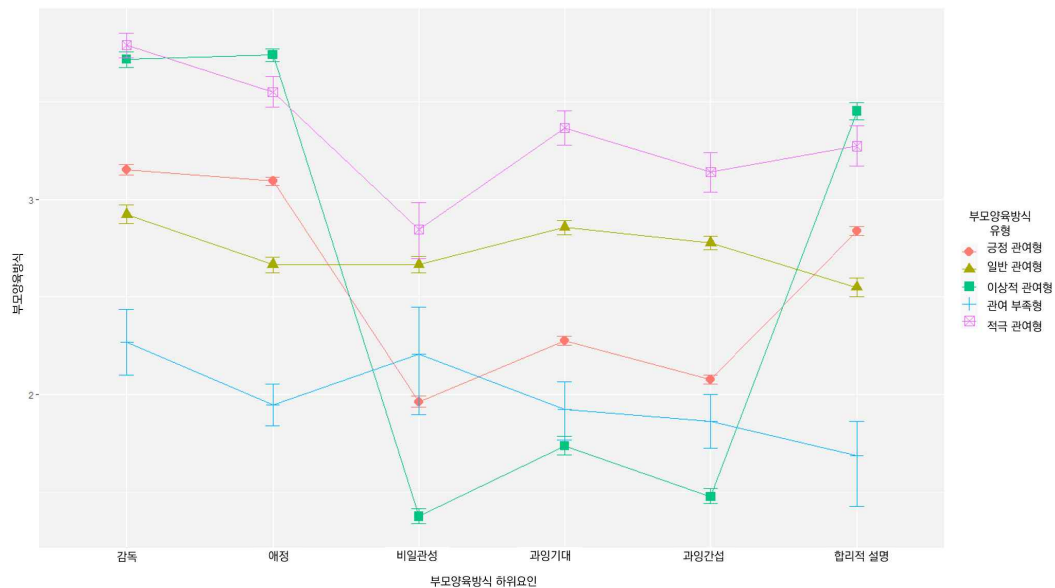


그림 3. 고1 부모 양육방식 잠재프로파일

표 12. 고1 부모양육방식 5개 유형별 구성비율 및 하위영역 평균점수

잠재 집단	구성비율 (%)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1. 긍정 관여형	50.3 (n=996)	3.15	3.09	1.96	2.28	2.08	2.84
2. 일반 관여형	20.1 (n=398)	2.92	2.67	2.67	2.86	2.78	2.55
3. 이상적 관여형	21.0 (n=415)	3.72	3.74	1.38	1.74	1.48	3.45
4. 관여 부족	3.4 (n=67)	2.27	1.95	2.21	1.93	1.87	1.69
5. 적극 관여형	5.2 (n=103)	3.79	3.55	2.84	3.36	3.14	3.27

주1: 고1 총 표본수 (n)은 1,979명임.

3) 고1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고1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 유형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다른 주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회귀모형의 F값은 23.390으로 나타났으며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Adjusted R^2)은 16.6%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양육방식 유형 중 ‘긍정 관여형’과 ‘일반 관여형’의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긍정 관여형’에 비해 ‘이상적 관여형’ 일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은 0.230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p<0.001$)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 관여형’에 비하여 ‘관여 부족형’인 경우에는 진로정체감 수준은 0.218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p<0.05$)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 관여형’에 비하여 ‘적극 관여형’인 경우에는 진로정체감 수준은 0.225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p<0.05$)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정체감 수준은 이상적 관여형인 경우 가장 높고, 적극 관여형, 긍정 관여형/일반적 관여형, 관여 부족형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또래애착,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이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진로정체감은 0.125($p<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우관계가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진로정체감은 0.192($p<0.001$), 교사관계가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진로정체감은 0.197 증가하는 것으로($p<0.001$) 나타났다.

표 13. 고1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구분		Coef	S.E	t-value
성별 (ref. 남성)	여성	-0.014	0.029	-0.490
	로그입금	0.040	0.036	1.100
부모 학력 (ref. 두분 모두 대졸 미만)	두분 중 한분 대졸 이상	-0.001	0.041	-0.030
	두분 모두 대졸 이상	0.013	0.034	0.380
부모근로여부 (ref. 두분 모두 일하고 있지 않음)	두분 중 한분 일하고 있음	-0.149	0.561	-0.270
	두분 모두 일을 하고 있음	-0.136	0.560	-0.240
학업성취도		0.025	0.018	1.430
또래 애착		0.125*	0.049	2.560
교우관계		0.192***	0.050	3.810
교사관계		0.197***	0.030	6.470
부모양육방식 유형 (ref. 긍정 관여형)	일반 관여형	-0.044	0.038	-1.180
	이상적 관여형	0.230***	0.039	5.930
	관여 부족	-0.218*	0.086	-2.540
	적극 관여형	0.225*	*0.071	3.180
상수		1.169	0.667	1.750
사례수			1,573	
Adjusted R^2			0.166	
F			23.390***	

주1: *** $p<0.001$, ** $p<0.01$, * $p<0.05$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을 잠재프로파일을 활용하여 유형화하고, 이 유형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확인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방식 유형을 살펴보면 중1의 경우, 총 4가지(긍정 관여형, 일반 관여형, 부정 관여형, 적극 관여형)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고1의 경우, 총 5가지(긍정 관여형, 일반 관여형, 이상적 관여형, 관여 부족형, 적극 관여형)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중1과 고1 모두에서 긍정관여형, 일반 관여형, 적극 관여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유형이었다. 반면, 중1 유형에 비해 고1 유형에서는 부정 관여형은 도출되지 않았고, 긍정 관여형의 강화된 형태인 ‘이상적 관여형’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관여 수준이 낮은 ‘관여 부족형’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진학 후 학업이나 입시 부담을 늘면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감소하고 기대와 간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황혜영, 김나영(2018)의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으로서 이상적 관여형과 관여 부족형이 도출된 점은 대학 입시 및 취업이라는 복잡한 진로결정을 앞둔 우리나라 고등학생 시기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는 자녀 학업과 진로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나 중학생 시기에 자녀는 사춘기를 경험함으로써 부모의 영향을 부정적인 간섭으로 인식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인식한 부모 간섭이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유의하지 않은 선행연구 결과(윤지영, 2017; 윤홍경, 2015; 추희선, 2014)와 중,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 간섭이 진로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조아라, 윤성근, 양은주, 2013; 이상무, 박관성, 2019; 최동민, 2015)는 중1 유형으로 도출된 부정 관여형이 도출된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녀 진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일부 부모는 자녀 진로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함으로 인해, 자녀 진로를 지도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박나실(2020)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조심스럽게 자녀 진로에 관심을 보이거나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정이(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강연미, 김희수(2020), 이양희, 조혜영(2019)의 연구에서도, 자녀 진로지도에 혼란, 막막함 및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부모양육방식 유형으로서 도출된 부정 관여형은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겪는 중학생 시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부모양육방식 유형으로 도출된 이상적 관여형과 관여 부족형은 고등학생 자녀에

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는 부모의 노력의 결과인 반면, 자녀의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느껴 소극적인 양육방식을 취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1의 경우, ‘긍정 관여형’에 비해 ‘일반 관여형’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낮고, ‘긍정 관여형’에 비해 ‘부정관여형’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았으며 ‘긍정관여형’과 ‘적극 관여형’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수준은 긍정관여형과 과잉관여형이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며, 일반 관여형, 부정 관여형 순으로 진로정체감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1의 경우, ‘긍정 관여형’에 비해 ‘이상적 관여형’일수록, ‘적극 관여형’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았고, ‘긍정 관여형’에 비해 ‘관여 부족형’일 경우에는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았으며, ‘긍정 관여형’과 ‘일반 관여형’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진로정체감 수준은 이상적 관여형인 경우 가장 높고, 적극 관여형, 긍정 관여형/일반적 관여형, 관여 부족형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양육방식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민주 외, 2018; 박찬미, 조현경, 김재철, 2020; 백승아, 김정희, 2020; 정해영, 2019)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적극 관여형의 경우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또한,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임정아, 조아미(2018)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도출된 적극 관여형과 유사한 유형인 애정만족/비일관형이 삶의 목표 수준이 두 번째로 높았고 권미나, 이진숙(2020)의 연구에서는 애정·통제 상위 집단의 학업만족,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열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이영광, 정철영(2021)의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관여 유형 중 적극 관여형의 진로탐색행동 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가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영광, 정철영(2021)은 부모의 적극적인 진로 관여가 자녀의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을 함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 적극 관여형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은 부모님의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이 자녀의 진로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양육방식으로서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 자녀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자아상이 개인의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가 아닌 타율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 동기에 기반한 진로탐색이 진로발달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김태환, 2019; Paixao & Gamboa, 2021)을 고려할 때, 추후의 연구에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진로정체감 간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진로 동기 또한 함께 고려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적 제

언으로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구명함에 있어 자율적 동기를 가진 집단과 타율적 동기를 가진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양육방식 유형 중 적극 관여형이 진로정체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동기 유형 및 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 자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방식으로서 적극 관여형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부와 모의 영향을 구분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부모양육방식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유형화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자녀 진로결정 및 발달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이영광, 정철영, 2021; Grossmanns, Grossmann, Winter & Zimmermann, 2002; Leidy, 2013)의 주장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는 부와 모를 구분하여 부모양육방식을 유형화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천적 시사점으로서 셋째,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진로지도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 유형으로서 이상적 관여형과 관여 부족형이 도출되었다. 두 개 유형은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양육방식 유형에는 나타나지 않은 유형으로서 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는 부모 노력의 결과인 반면, 자녀의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느껴 소극적인 양육방식을 취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결과로 이해된다. 자녀 진로와 관련한 부모의 능동적인 정보 수집이 자녀 진로발달을 함양할 수 있음(이영광, 2020)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진로지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학부모 진로소식지로서 드림레터의 내용 구성 시,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부모 친화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 단위에서 온·오프라인 학부모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연미, 김희수. (2020). 어머니의 청소년기 자녀 진로관여 경험 연구. **학부모연구**, 7(1), 21-47.
- 권미나, 이진숙. (2020).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화와 아동의 학교 적응 및 문제행동 비교. **한국아동권리학회**, 24(2), 179-195.
- 김민주, 김민정, 이선희, 도현심. (2018).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

- 연구, 10(2), 273-296.
- 김선영.(2021). 진로역량 중심의 교과통합형 초등학교 진로 교육과정 및 수업 설계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313-338
- 김성경, 우연경, 최영인. (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주도성 및 학업 성취의 종단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23(3), 199-223.
- 김지연, 이은주. (2017). 부모 양육방식 군집유형에 따른 학습습관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4(4), 153-178.
- 김태환. (2019).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나실. (2020).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찬미, 조현경, 김재철. (2020).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진로관련 대화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2), 467-492.
- 백승아, 김정희. (2020).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학교적응의 이중매개효과. **사회심리발달연구**, 1(1), 49-60.
- 소수연, 안지영, 양대희, 김정민. (2014).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 부모 FGI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2(1), 247-279.
- 손보영, 윤민지, 박소현, 임제희. (2013).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 다중역할계획태도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189-1208
- 신효정, 이지희. (2018).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차이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3(4), 161-173.
- 유정이. (2009).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 척도개발. **아시아교육연구**, 10(4), 85-104.
- 윤지영. (2017).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관련행동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홍경. (2015). **부모의 진로관련행동과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발달의 관계에서 외향성의 조절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무, 박관성. (2019).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 부모진로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9), 269-297.
- 이양희, 조혜영. (2019). 중학생의 진로탐색과 부모의 진로지지를 둘러싼 부모-자녀 상호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32(3), 1-29.
- 이영광. (2020).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부모 진로 모니터링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진로일치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2), 23-47.
- 이영광, 양인준, 이승엽. (2019).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4), 101-126.
- 이영광, 정철영. (2021).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각한 학부모의 자녀 진로의사결정 관여 유형과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학부모 자녀 의사소통의 관계. **농업교**

- 육과 인적자원개발**, 53(2), 게재 예정 논문.
- 이응택, 최재혁. (2017). 고등학생의 보무와의관계 및 부모와의진로관련대화와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1), 67-90.
- 이정표, 장진희, 권동택(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에서 학습습관이 미치는 매개 효과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323-34
- 이현주. (2010).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 교육연구**, 23(1), 41-59.
- 임정아, 조아미. (2018).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이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삶의 목표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9(1), 323-346.
- 정수경. (2018).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학논총**, 39(2), 85-104.
- 정철영, 이영광 (2020). 부모 진로지지 관련 변인과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3(4), 125-151..
- 정해영. (2019).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 (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의 한국판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89-408.
- 최동민.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관련행동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추희선. (2014).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부모진로관련행동, 진로성숙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황혜영, 김나영.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잠재프로파일 특성 및 변화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3), 679-702.
- Ainsworth, M.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16-432.
- Bowlby, A. (1969). *Recollections of Rifleman Bowlby*. Pen and Sword.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orton & Co.
- Collins, L. M., Fidler, P. L., Wugalter, S. E., & Long, J. D. (1993). Goodness

- of-fittesting for latent class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8(3), 375-389.
-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9-119.
- Fleiss, J. L. (1986). Analysis of data from multiclinic trials. *Controlled clinical trials*, 7(4), 267-275.
- Grossmann, K. E., Grossmann, K., Winter, M., & Zimmermann, P. (2002).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ppraisal of partnership: From early experience of sensitive support to later relationship represen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land, J. L., Dan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ling Psychologists Press.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Leidy, M. S. (2013). *Fathers' contributions to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pp. 158-174). Routledge.
- Lent, R. W (2013).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mt and couu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115-146). John Wiley & Sons.
- McMahon, M., & Patton, W. (2019). The Systems Theory Framework: A Systems Map for Caree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J., A. Athanasou & N., P., Harsha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areer Guidance* (2nd ed., pp. 97-114). Springer.
- McMLHANEY, K. B., Allen, J. P., Stephenson, J., C, & Hare, A. L. (2009).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 Nylund, K., Asparouhov, T., & Muthe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 535-569.
- Oberski, D. (2016). *Mixture models: Latent profile and latent class analysis*. In *Modern statistical methods for HCI* (pp. 275-287). Springer, Cham.
- Paixao, O., & Gamboa, V. (2021). Autonomous Versus Controlled Motivation on Career Indecisi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0894845321992544.
- Patton, W., & McMahon, M. (2014). *Career development and systems theory A*

new relationship. Sense Publishers

- Roe, A. (1956). The psychology of occupations. John Wiley & Sons.
- Roe, A. (1957). Early determinants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 212-217.
- Savickas, M. L. (2002). Career construction: A developmental theory of vocational behavior. In D. Brown (Ed.),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49-205). Jossey-Bass.
- Spurk, D., Hirschi, A., Wang, M., Valero, D., & Kauffeld, S. (2020). Latent profile analysis A review and “how to” guide of its application within vocational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3445.
- West SG, Finch JF, Curran PJ.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Hoyle RH, edit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ery Park, Sage; 1995. pp. 56-75.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Session 2

제5주제

심리/발달 1

청소년의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구조적 관계 :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성정혜*·김준경***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잠재평균분석 및 다집단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과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다집단 분석

*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외래교수

***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kckyoung@knu.ac.kr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은 사회활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세대로서, 사이버상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며, SNS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여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쉬우며, 시·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든지 행해질 수 있고,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 죄책감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점(오인수, 2011)에서 쉽게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교육부(2021)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도 대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이버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3%로 전년도(8.9%)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별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18.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15.4%, 초등학교 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은 청소년기의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온라인의 활용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대면 사회의 물리적 기능이 사이버공간으로 대체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에서 실시한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일주일 평균 27.6시간이었는데, 이는 전년도(2019년)에 비해 10시간이 증가한 시간이다. 이러한 온라인의 활용은 비대면 시대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지만, 사이버상에서의 지능형 범죄가 심각화되고, 저연령화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ichman 등(2009)의 연구에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인식은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진과 하문선(2020)은 사회적인 재난이 아이들의 발달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사이버폭력이라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코로나 19와 건물 붕괴 사고, 화재 사고 등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재난은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 생명의 위협에 직접 노출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Barnes, Treiber, & Ludwig, 2005).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되고, 대인관계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 위축감이 증가하

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72%)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힘든 점으로는 ‘외출 자제로 인해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갑갑함(62.2%)’이라고 답하였다(이기순, 2020). 이처럼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정서적·행동적으로 많은 제약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등 사회 전반에서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Imran과 Zeshan, Pervaiz(202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되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황성현과 이강훈(201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양상은 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행동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초등학생의 경우 이전 발달단계로의 퇴행이나 애착 행동, 공격성 등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 비행과 공격적인 행동, 이유 없는 폭력성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전혜영, 2020.09.10.). 이와 관련하여 Al Majali와 Alghazo(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불안과 우울 그리고 공격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박영숙과 임안나(2017)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공격성을 표출하기 위한 분출구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이 사회적 위축뿐만 아니라 공격성은 사이버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성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 이로 인해 사회환경의 변화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 양성평등과 양성적인 성 역할 행동에 대한 주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성 역할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더욱 높으며(이민지, 정건희, 2020), 사회적으로도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청소년기의 성차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가 높으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비행 행동이 감소하게 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적 유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gnew et al., 2009).

이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재훈과 이병도(2017)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사건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은영(202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위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조민규와 김춘경, 송현정(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더욱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김경호와 차은진(2012)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사이버폭력에 더 높은 가담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사회적 안전체감도와 공격성, 사이버폭력 수준이 더욱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위축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근 많은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코로나 19나 건축물 붕괴, 화재,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사건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과 함께 고려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성별에 따라 변인들 간 인과관계의 영향력 차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적절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차이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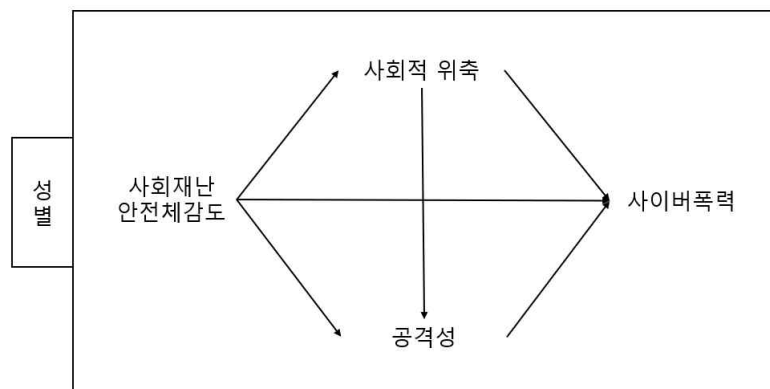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2018년(1차년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2,607명과 중학교 1학년 재학생 2,59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2020년(3차년도)까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 중 2020년(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3학년 2,384명(남학생: 1,278명, 여학생: 1,10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 2,384)

배경변인	구분	빈도(비율 %)	
		남학생	여학생
스마트폰 사용 여부	나의 스마트폰이 있음	1,251(97.9)	1,084(98.0)
	나의 스마트폰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함	11(0.9)	13(1.2)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	16(1.3)	9(0.8)
형제자매 중 본인 순위	첫째	712(55.7)	613(55.4)
	둘째	468(36.6)	423(38.2)
	셋째	88(6.9)	63(5.7)
	넷째 이상	10(0.8)	7(0.4)
거주지역	서울	191(14.9)	199(18.0)
	부산	73(5.8)	52(4.7)
	대구	59(4.6)	44(4.0)
	인천	106(8.3)	88(8.0)
	광주	42(3.3)	24(2.2)
	대전	51(4.0)	18(1.6)
	울산	33(2.6)	14(1.3)
	세종	20(1.6)	21(1.9)
	경기	311(24.3)	283(25.6)
	강원	54(4.2)	20(1.8)
	충북	53(4.1)	47(4.2)
	충남	55(4.3)	40(3.6)
	전북	50(3.9)	58(5.2)
	전남	35(2.7)	42(3.8)
	경북	54(4.2)	59(5.3)
	경남	75(5.9)	87(7.9)
	제주	16(1.3)	10(0.9)
	전체	1,278(100)	1,106(100)

2. 측정도구

1)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원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연재난(폭염·한파, 지진, 산불 등)과 사회재난(감염병 유행, 건축물 붕괴, 화재 및 폭발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매우 안전하지 않다(1점)’, ‘안전하지 않다(2점)’, ‘안전하다(3점)’, ‘매우 안전하다(4점)’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위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원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81로 나타났다.

3) 공격성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원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8로 나타났다.

4) 사이버폭력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승현과 강지현, 이원상 (2015)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행위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누군가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해서 말, 글, 그리 등을 보내 스토킹한 적이 있다.”, “인터넷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싫다는데 반복적으로 초대해온 적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 없다(1점)’, ‘1년에 1~2번(2점)’, ‘한 달에 1번(3점)’, ‘한 달에 2~3번(4점)’, ‘1주일에 1번(5점)’, ‘1주일에 여러 번(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1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변인이 타당화를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추정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변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의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을 검증하였고, 변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인과관계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LI .996, CFI .998, RMSEA .022로 나타나 이러한 적합도 기준을 토대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모수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수백(2009)의 기준에 근거하여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85이하로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존재하며, 요인부하량이 평균 .05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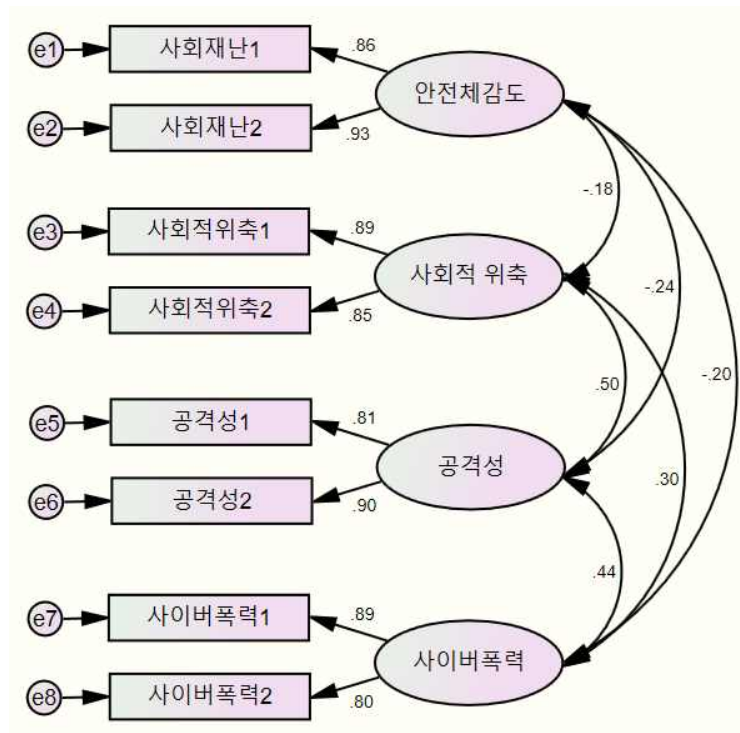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결과

2.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각각의 집단에서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행렬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그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는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 사이버폭력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은 사이버폭력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947	.945	-.212	-.189	-.207	-.228	-.209	-.208	-.225	-.221	-.201
2	.947*	1	.794	-.201	-.178	-.197	-.196	-.173	-.187	-.224	-.223	-.200
3	.949*	.802*	1	-.194	-.172	-.189	-.231	-.221	-.203	-.190	-.188	-.167
4	-.114*	-.099*	-.118*	1	.930	.936	.432	.348	.441	.279	.273	.249
5	-.102*	-.095*	-.099*	.939*	1	.744	.411	.336	.415	.273	.266	.245
6	-.113*	-.091*	-.122*	.943*	.772*	1	.396	.313	.409	.244	.239	.218
7	-.212*	-.189*	-.213*	.435*	.421*	.399*	1	.913	.923	.297	.308	.252
8	-.197*	-.172*	-.203*	.404*	.387*	.373*	.939*	1	.687	.258	.263	.222
9	-.202*	-.185*	-.198*	.413*	.403*	.375*	.933*	.765*	1	.287	.302	.240
10	-.172*	-.153*	-.173*	.260*	.247*	.243*	.414*	.378*	.401*	1	.944	.928
11	-.148*	-.128*	-.153*	.244*	.231*	.229*	.400*	.370*	.383*	.931*	1	.757
12	-.167*	-.153*	-.164*	.233*	.222*	.218*	.358*	.321*	.352*	.900*	.686*	1

* $p < .05$

1.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2. 사회재난 1 3. 사회재난 2 4. 사회적 위축 5. 사회적 위축 1,
6. 사회적 위축 2, 7. 공격성 8. 공격성 1, 9. 공격성 2, 10. 사이버폭력,
11. 사이버폭력 1, 12. 사이버폭력 2

Note. 대각선 아래는 남학생 집단이며, 위는 여학생 집단임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변인 간 동일성 검증을 위해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변수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41.512	28	.997	.999	.014
모형2: 측정동일성	53.216	32	.996	.998	.017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204.123	40	.975	.982	.042
모형4: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동일성	244.559	44	.972	.978	.044

먼저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 비행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저모형(모형1)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2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의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으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모형1과의 χ^2 값 차이 [$\Delta\chi^2(df=4)=11.704$,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기각되지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RMSEA가 모형1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따라서 모형2의 측정동일성 모형은 성립된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어 모형3에서 각 측정변인이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모형2와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χ^2 값 차이 [$\Delta\chi^2(df=8)=150.907$,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절편동일성이 기각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모형 3의 절편동일성 모형이 성립된다.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에서 측정 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관찰된 평균값의 차이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평균은 Cohen(1988)의 효과크기(d)를 통해서 일반적 측정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제시할 수 있다. d값을 산출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에서 산출된 요인분산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모형4)을 실시한 결과, 모형3과의 χ^2 값 차이 [$\Delta\chi^2(df=4)=40.436$, $p<.05$]가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산동일성이 기각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아 모형4의 요인분산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다. 요인분산동일성이 성립됨에 따라 효과크기(d)를 산출하기 위해 공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효과크기(d)가 .8 이상이면 큰 것, .5이면 중간 수준, .2 이하이면 작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의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표 4. 각 변수에 대한 청소년의 성별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변수	여학생	남학생	p	효과크기(d)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0	.133	.000	.409
사회적 위축	0	-.088	.003	.196
공격성	0	.051	.046	.162
사이버폭력	0	.031	.000	.704

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공격성, 사이버폭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잠재평균의 차이는 Cohen의 효과크기(d)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매우 높은 수준의 평균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재난 안전체감도는 중간 정도의 차이를,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낮은 수준의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구조관계

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에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chi^2(df=32)=53.216$,

TLI= .996, CFI=.998, RMSEA=.017],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의 경로계수는 <표 5>, [그림 3], [그림 4]와 같다.

표 5.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모수 추정치

변수		남학생		여학생	
		B	β	B	β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회적 위축	-.149*	-.130	-.287*	-.236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공격성	-.187*	-.179	-.143*	-.150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이버폭력	-.034*	-.086	-.049*	-.142
사회적 위축	→ 공격성	.430*	.473	.380*	.487
사회적 위축	→ 사이버폭력	.029*	.083	.045*	.158
공격성	→ 사이버폭력	.166*	.429	.087*	.240

*p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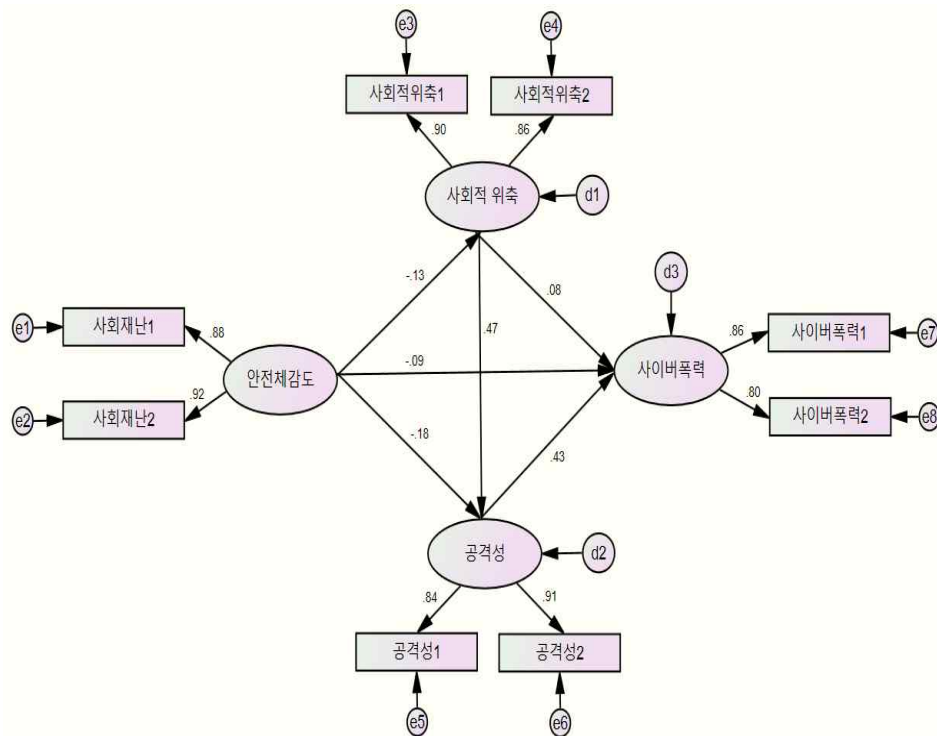


그림 3. 남학생 집단의 모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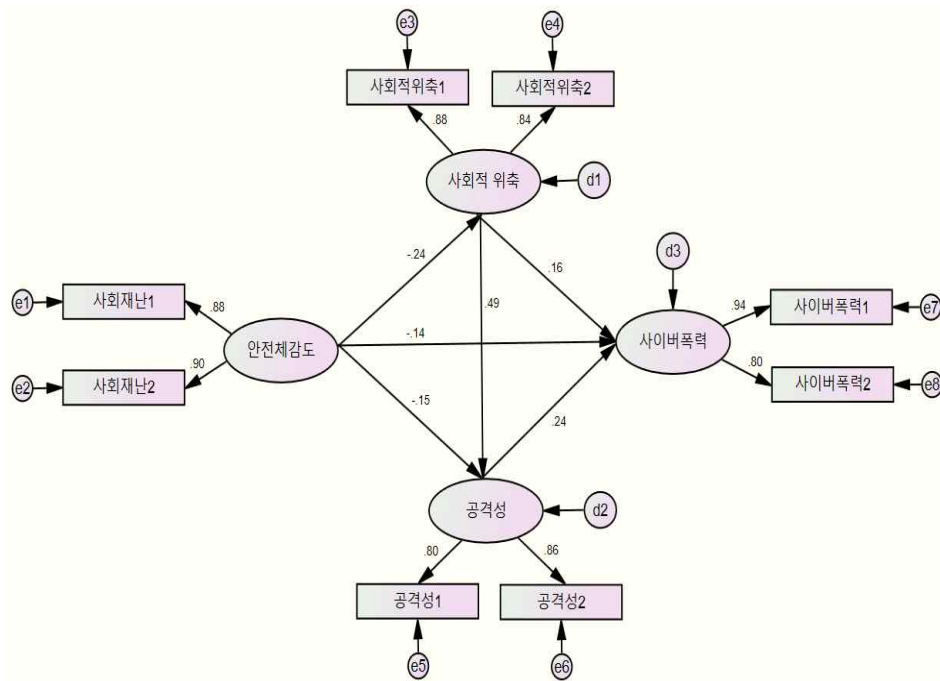


그림 4. 여학생 집단의 모수 추정치

그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사이버폭력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공격성과 사이버폭력이 높아지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 분석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6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6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집단 간 등가제약).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다($\chi^2(df=38)=79.386$, $TLI=.993$, $CFI=.995$, $RMSEA=.021$).

표 6.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델 간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Δdf	$\Delta \chi^2$	ΔTLI	ΔCFI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회적 위축	1	6.305*	-.001	-.001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공격성	1	1.078	.000	.000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이버폭력	1	.735	.000	.000
사회적 위축 → 공격성	1	1.818	.000	.000
사회적 위축 → 사이버폭력	1	.835	.000	.000
공격성 → 사이버폭력	1	14.472*	-.002	-.002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6	26.170	-.003	-.003

* $p < .05$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경로 [$\Delta \chi^2(df=1)=6.305, p < .05$]와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경로 [$\Delta \chi^2(df=1)=14.472, p < .05$]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2가지의 경로 모두 〈표 5〉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2가지 경로(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회적 위축, 공격성 → 사이버폭력)에서의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변인들 간 인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재훈과 이병도(2017)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더욱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재난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공포감을 확산시키게 됨으로써 외출의 자제,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망 철회, 사회적 정체감의 붕괴 등의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는 특히, 타인지향적인 여학생에게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기의 경우 또래 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타인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성을 토대로 살펴보면 (Rose & Rudolpf, 2006), 사회재난의 발생은 사회적인 관계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불안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같은 수준의 사회재난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이를 더욱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공격성과 사이버폭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공격성과 사이버폭력의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은옥(2017)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공격성이나 폭력성,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집단이 여자 청소년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배우게 되는데, 남학생들은 공격성이나 비행 등과 같은 거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Snell & Englander, 2010). 이를 통해 힘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더욱 폭력적인 행위들을 저지르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폭력성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축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현주(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내면화된 어려움을 더 많이 겪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더욱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특히 여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친구들의 지지 속에서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사회적 위축은 낮은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주위와 어울리지 못하는 정서적 상태로 (Rubin, Coplan, & Bowker, 2009), 청소년기 여학생의 관계 지향적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여 자신을 고립시키게 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 사이버폭력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들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문제행동의 유형과 성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2가지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기 여학생 집단이 남학

생 집단에 비해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oey와 Coplan, Kingsbury(2014)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사회불안을 더욱 높게 경험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욱 위축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재난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집단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며,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단절되어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된다.

청소년기의 경우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심리·사회적으로 발달해 나가는데,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가해지면서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낮아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불확실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높을 수 있으며(이래혁, 2021), 이로 인해 사회활동에 소극적이고 위축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재난의 발생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예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개입 방안이 필요하며, 사회재난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상담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여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회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상준과 양혜정(2020)의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공격성이 사이버 불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공격성이 높은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분노나 긴장감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폭력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반지윤, 오인수, 2020). 청소년기의 경우 사춘기를 겪으면서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고 기능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미성숙하다는 점(Chambers, Taylor, & Potenza, 2003)과 사이버 세계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 죄책감이 덜하다는 점으로 인해 자신의 공격적인 본능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온라인을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사이버폭력을 행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공격성 수준에 대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공격성의 수준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학생이 스스로 자

신의 공격적 성향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 향상과 이러한 공격성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자신에게 맞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상담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는 사이버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rshi(2017)의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자신의 정서나 행동 등을 사회적인 규범에 맞게 조절하게 되지만, 유대감이 약화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해지면서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유대감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해 대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대면의 성격을 갖는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비대면의 형태를 보이는 사이버상의 범죄들이 더욱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기수, 2021)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온라인의 활용도가 높아진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기의 사이버폭력의 감소를 위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최근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이 미치는 직접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정서·행동적 어려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재난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심각성과 이러한 청소년기의 어려움은 사이버폭력이라는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재난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여기기보다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의 인과관계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해결 또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전체 값을 중심으로 하여 단일화된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기존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하위유형

에 따라 서로 다른 성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권진, 김보람, 2019; 류성진, 2013).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하나의 단일 변인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사이버폭력의 하위유형을 분류한 후, 각각의 하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사이버폭력의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회재난에 속하는 코로나 19의 경우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최지옥, 2021)을 고려해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와 관련된 특성들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살펴본다면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변화양상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이버폭력의 보호 요인으로써 부모 변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준, 양혜정(2020). 청소년의 가족 및 학교 환경 스트레스가 사이버 불링, 온라인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격성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 조절효과 경쟁모델.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395-406.
- 교육부(2021).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 교육부.
- 권진, 김보람(2019).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52, 225-248.
- 김경호, 차은진(201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2(2), 364-401.
- 김선희, 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 하문선(2020). 청소년기 부모학대 경험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8(1), 97-133.
- 류성진(2013).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과 오프라인 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7(5), 297-324.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영숙, 임안나(2017). 공격성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을 매개효

- 과로. **교정복지연구**, 50, 57-86.
- 반지윤, 오인수(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31(1), 129-156.
- 오인수(2011). 초등학생 온라인 괴롭힘의 실태 및 오프라인 괴롭힘과의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3), 75-98.
- 유현주(2014).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및 휴대전화 의존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2), 417-446.
- 이기수(2021). 코로나19 시기 범죄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23(1), 167-187.
- 이기순(2020).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청소년, 보호자 체감도 조사 및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래혁(2021).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6), 71-80.
- 이민지, 정건희(2020).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 분석.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5), 329-337.
-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81.
- 장은옥(2017). 청소년의 성별, 학년 및 스트레스 관련 요인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 **교과교육연구**, 38(1), 57-76.
- 전혜영(2020.09.10.).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도 '코로나 블루' 겪는다? 헬스조선 뉴스. <http://m/health/chosun/com>. 2021.08.17. 인출.
- 정재훈, 이병도(2017). 체감안전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9(1), 121-148.
-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2014). 중학생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6(2), 29-54.
- 조봉환,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최은영(2020).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5), 433-459.
- 최지욱(2021). 코로나 19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0(1), 2-10.
- 황성현, 이강훈(2017).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의 심리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4(1), 157-175.
- Agnew, R. (2006). General strain theory: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ches. In Cullen, F. T., Wright, J. P., Blevins, K. R. (Eds.), *Taking stock: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pp. 121-123).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Al Majali, S. A., & Alghazo, E. M. (2021). Mental health of individuals who are deaf during COVID-19: Depression, anxiety, aggression, and fear.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21, 1-10.
- Barnes, V. A., Treiber, F. A., & Ludwig, D. A. (2005). African-American adolescents' stress responses after the 9/11/01 terrorist attack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6(3), 201-207.
- Chambers, R. A., Taylor, J. R., & Potenza, M. N. (2003). Developmental neurocircuitry of motivation in adolescence: a critical period of addiction vulnerabi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6), 1041-1052.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 Doey, L., Coplan, R. J., & Kingsbury, M. (2014). Bashful boys and coy girls: A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 childhood shyness. *Sex Roles*, 70(7-8), 255-266.
- Hirschi, T. (2017). On the compatibility of rational choice and social control theories of crime. In Clarke, R. V. (Eds.), *The reasoning criminal* (pp. 105-118). London: Routledge.
- Imran, N., Zeshan, M., & Pervaiz, Z. (2020). Mental health considerations for children & adolescents in COVID-19 Pandemic. *Pakist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 36, 67-72.
- Richman, J. A., Shannon, C. A., Rospenda, K. M., Flaherty, J. A., & Fendrich,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terrorism and distress and drinking. *Substance Use & Misuse*, 44(12), 1665-1680.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nell, P. A., & Englander, E. (2010).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behaviors among girls: Applying research findings in the field. *Journal of Social Sciences*. 6, 510-514.

ABSTRACT

A structural analysis among adolescent's sensitivity of safety about social disaster,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and cyber-violence: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gender

Sung, JungHye and Kim, ChoonKyung

The study's purpose is to examine how sensitivity of safety about social disaster,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affect cyber-violence and how these variables were related to adolescent's gender. The data of this study is KCYPS 2018 3th data by NYPI.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sensitivity of safety about social disaster,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and cyber-violence ha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adolescent's gender. Second, the influence of sensitivity of safety about social disaster and social withdrawal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adolescent's gender. Also, the influence of aggression and cyber-violence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adolescent's gender.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difference in influence by gender of adolesc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that influence cyber- violence,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number of problems. Through this,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and conduct counseling and programs to prevent and reduce the problem of cyber-violence among adolescents.

Key Words: sensitivity of safety about social disaster,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cyber-violence, multi-group analysis

‘청소년의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에 대한 토론문

장윤선

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

본 발표논문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패널의 3차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탐색하였습니다. 최근 COVID-19라는 사회적 재난을 겪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주제는 매우 흥미로웠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그 결과 또한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연구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연구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성별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구조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서론에서 인용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를 비롯한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이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 역할 또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이의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연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은 성별에 따른 고유한 특성과 개인의 환경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가정적 요인(예: 반지윤, 오인수, 2020), 학교환경 요인(예: 김동하, 2021), 사이버환경(예: 김경은, 윤혜미, 2012) 등이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와 이 구조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적절한 통제변수 함

게 고려되었을 때,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결과가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연구진이 논의 및 결론 부분에 제안한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과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과 상담적 접근도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자 청소년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이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성별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더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질문 2: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는 실질적으로도 의미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본 연구논문의 제목을 보면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가 어떠할지가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COVID-19라는 사회재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청소년들이 이전에 비해 사이버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에 증가한 것을 사실이나, 과연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가정 및 학교환경, 혹은 공격성, 사회적 위축과 같은 개인적 성향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큰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 있었으나,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사이버폭력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진의 가설은 다소 과한 일반화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구결과로 제시된 <표 5>의 경로계수 추정치에서도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표준화계수 남학생 - 0.86, 여학생 -1.42)은 다른 경로계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여학생의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간의 경로를 제외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의 다른 변인간의 경로계수 추정치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크기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에 있어 통계적 의미성과 함께 실질적 의미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3: 측정모형에서 제시된 측정변수의 의미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로 제시된 측정모형 분석과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구진이 연구방법에 기술한 바에 따르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는 하위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림 2]에 제시된 측정모형 검증결과에서는 잠재변인인 안전체감도의 측정변인으로 ‘사회재난 1’과 ‘사회재난 2’가 제시되어있고, 다른 잠재변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잠재변인별 2개의 측정변인으로 측정모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변인들에서는 하위문항에 대한 평균을 사용한 것인지, 별도의 하위구인으로 묶어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어 정확하게 [그림 2]에 제시된 측정모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별에 따른 모형 동일성 검증을 위해 ‘각 측정변인 1, 2가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도 생각해보았으나, <표 2>에 제시된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행렬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값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남녀의 측정변인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이 추가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의 이해 측면에서 사소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의견을 더 드리자면, 연구에 사용한 변인의 기술통계가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표 1>에 제시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정보보다는 각 변인의 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본 연구결과로 제시된 연구모형에 대한 결과를 이해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행렬에 잠재변인인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의 상관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 제목 또는 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본 발표연구에 대한 토론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해보았습니다.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김동하 (2021).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효과와 학교 효과 비교 연구: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청소년복지연구**, 23(1), 187-209.
- 김영은, 윤혜미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관련된 생태체계변인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1), 213-238.
- 반지윤, 오인수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31(1), 129-156.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의 매개 효과 분석

박봉환*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의 2차년도 중학생 2,590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주의집중문제와 학업무기력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주의집중문제와 학업무기력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일상화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 학업무기력을 극복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학업무기력의 보호·동기 요인으로 매개할 수 있는 주의집중문제를 고려한 교육과 중재가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스마트폰 과의존, 학업무기력, 주의집중문제, 청소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가톨릭관동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bh444@hanmail.net

I. 서론

최근 들어 학교에서 적지 않은 수의 초등,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외면하는 비중이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이는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실패에 의한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스트레스의 반복으로 정신적 부담, 긴장, 근심, 공포, 우울 및 초조감 같은 불편한 심리상태를 겪고 있다(안태용, 2016; 장윤옥, 정시린, 2017; 조선휘, 2019).

지속적인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동기와 의욕이 상실되고, 다른 학교활동들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학업 관점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상태로는 학업무기력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과 과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집중하여 높은 학업 성취를 보여준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무기력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 요인들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 부모의 양육 태도,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과 학업,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습관 및 태도 등의 개인적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미숙, 2014; 김도희, 김혁진, 2021; 문두식, 최은실, 2015; 장유진, 이승연, 장유나, 홍세희, 2021; 전향신, 박분희, 2020;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Miller & Norman, 1979). 이러한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서 가정이나 학교 요인들도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재윤, 한희수, 박은영, 강민주, 2020).

또한, 학습과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정서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우울 등과 같은 동기 요인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신현아, 2021; 우연경, 노연경, 2021; 전향신, 박분희, 2020; 주소망, 2020; 조안나, 2021).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학업무기력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태도적 요인이지만 유해요인인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과 주의집중문제(우연경, 노연경, 2021; 전향신, 박분희, 2020)와 학업무기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은 스마트폰 중독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스마트폰의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이는 이용자의 일상생활 가운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생활방식이 다른 생활의 형태보다 더 두드러지고, 다른 어떤 행동보다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매김된 것이고, 개인의 주관적 목표와 비교해 볼 때,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최근 스마트폰의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연구 필요성과 이미 개발된 척도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신건강, 우울, 불안을 높이며(손성민, 2021; 정선경, 장은희, 안권순, 2021; 정승민, 정경미, 2021), 인터넷 과다 이용, 컴퓨터 게임 중독,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고재량, 변상해, 2014; 이주연, 지명원, 이지영, 2021; 최진오,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과 주의집중문제를 설정하였다. 스마트폰의 과의존과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는 주의집중 문제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를 위한 에너지를 끌어내는 방안,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의 매개 효과,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과 무기력 학업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의 과의존, 학업무기력, 주의집중문제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스마트폰의 과의존과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은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로 구분된다. 스마트폰의 현저성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활동이 되고, 조절 실패는 스마트폰의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겪는 상태인 문제적 결과를 의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 비율은 20.0%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연령별로 나타난 결과는 만 3~9세 이하 유아 및 아동 22.9%, 청소년 30.2%, 성인 18.8%와 60대 이상의 14.9%

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청소년(30.2%)의 과의존 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더욱 우려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은 생애 발달 중인 청소년에게 불안, 사회적 위축, 강박, 공격성, 의존, 수면의 질, 환청, 금단 및 내성 등의 정서행동 문제를 유발하며, 주의력, 학업, 학교적응, 학업무기력 등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방글, 신혜정, 2014; 김정민, 송수지, 2015; 신성철, 백석기, 2013;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장윤재, 2020; 조은정, 김예진, 권은비, 이동훈, 2020; Demirci, Akgonul, & Akpınar, 2015).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사용 시간 조절 교육, 과다사용에 대한 안내, 학교 및 상담기관의 치료 및 예방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과의존 양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불면, 우울, 불안과 정서적 불안정성을 높이며, 사회성 발달과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경호, 2016; 김유미, 임동호, 2016; 윤영제, 2018; 최진오, 2015). 인터넷 과다이용, 컴퓨터 게임 중독,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연구가 다수 확인된다(고재량, 변상해 2014; 권순희, 권순녀, 2008).

2. 학업무기력

학업무기력은 학업 측면에서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겪게 되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의미하고 학업의 부담감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야기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상태로서 학업무기력을 들 수 있다. 실패경험이 지속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통제불능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Seligman의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을 학업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Maier와 Seligman(1976)는 무기력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인 결손 상태가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즉, 학업무기력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저하되고, 정신건강 상태가 취약하고, 자해나 자살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김희수, 2006; 박시현, 2014).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생활 태도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면의 질 저하와 불안 등 신체적, 심리·정서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고(김경호, 2016; 최진오, 2015), 인터넷의 과다 사용과 컴퓨터 게임 중독 및 스마트폰의 과의존은 학업무기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선행연구들(고재량, 변상해, 2014; 권순희, 권순녀, 2008; 김도희, 김혁진, 2021)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 이외에 다른 변인을 매개한 간접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3. 주의집중문제

개인적인 정서문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는 주의집중문제는 비교적 단기간동안 목표달성이나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식을 시키는 능력으로,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지속시키며 외부의 다른 자극으로 주의를 이동시키는 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정민, 송수진, 2014; 여태철, 이대식, 황매향, 임효진, 2013). 주의집중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의집중문제, 주의력 결핍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외현적인 문제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이 낮은 집중력, 주의산만성이나 부주의한 태도 등으로 측정되어 부정적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고은희, 김은정, 2015).

주의집중문제는 인지 및 학습의 사고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며, 낮은 주의집중력을 학생은 부주의하며, 주어진 과제를 온전히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김정민, 송수진, 2014). 또한 주의집중문제는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호작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춘성, 홍경화, 2011). 특히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은 공격적 성향과 함께 주의집중 부족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김희숙, 유준옥, 정창숙, 형나겸, 2018; 박영숙, 2018; 손신영, 2013; 하문선,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업무기력에 주의집중문제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주요한 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2차년도 자료의 중학생 2,590명 데이터를 연구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 문항이 있는 표본 206건을 제외하고 2,384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학생은 1,278명(53.6%)이고, 여학생은 1,106명(46.4%)이다.

2. 측정도구

1)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동일 외(2016)가 개발한 간략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에 해당하는 도구로서 총 15개 문항(예: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공부가 손에 안 잡힌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 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 범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과 중독 수준이 높다고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로 나타났다.

2) 학업무기력

본 연구를 위한 학업무기력 척도는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2015)이 개발한 16개의 문항(예: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에 신경쓰고 싶지 않다.”,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으로 구성되었다. 학업무기력 척도는 통제신념 결여 4문항, 학습동기 결여 4문항, 긍정정서 결여 4문항, 능동수행 결여 4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 범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높다는 결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무기력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다.

3) 주의집중문제

주의집중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자기보고형 검사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총 7문항(예: “칭찬을 받거나 별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 범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문제가 강하게 드러나는 의미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주의집중문제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고, 스마트폰 과의존, 주의집중문제, 학업무기력의 신뢰도를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주의집중문제,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주의집중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표준화 계수와 비표준화 계수 간의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Sobel, 1982).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업무기력에 대해 스마트폰의 과의존과 주의집중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 과의존, 학업무기력과 주의집중문제 간의 관계

스마트폰의 과의존, 학업무기력과 주의집중문제 간의 평균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스마트폰의 과의존, 학업무기력과 주의집중의 평균과 상관관계 (N= 2,384)

	하위 요소	1	2	3	4	5	6	7	8	9	10	11
스마트폰 의 과의 존	1. 일상생활 장애	1										
	2. 가상세계 지향성	.45**	1									
	3. 금단	.52**	.60**	1								
	4. 내성	.62**	.40**	.61**	1							
	5. 전체	.80**	.79**	.83**	.80**	1						
학업 무기 력	6. 통제신념 결여	.14**	.31**	.24**	.15**	.27**	1					
	7. 학습동기 결여	.19**	.26**	.22**	.17**	.26**	.53**	1				
	8. 긍정정서 결여	.21**	.31**	.24**	.18**	.30**	.50**	.64**	1			
	9. 능동수행 결여	.26**	.28**	.22**	.18**	.30**	.42**	.62**	.65**	1		
	10. 전체	.25**	.35**	.28**	.20**	.34**	.73**	.86**	.84**	.83**	1	
11. 주의집중문제		.40**	.25**	.30**	.34**	.40**	.28**	.44**	.38**	.48**	.48**	1
	M	2.28	1.77	2.08	2.31	2.11	1.90	2.00	1.99	1.96	1.96	2.14
	SD	.55	.65	.46	.53	.44	.58	.68	.57	.66	.51	.56

*p<.05, **p<.01

〈표 1〉과 같이 청소년들이 인식한 스마트폰 과의존의 평균은 2.11(SD=.44)로서 보통 이상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학업무기력의 평균은 1.96(SD=.51)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주의집중문제의 평균은 2.14(SD=.56)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 간 상관계수 $r = .34(p < .01)$ 로 정적 상관, 스마트폰 과의존과 주의집중문제 간 상관계수 $r = .40(p < .01)$ 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학업무기력과 주의집중문제 간 상관계수 $r = .48(p < .01)$ 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의 매개효과

스마트폰의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주의집중문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스마트폰의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주의집중의 매개효과 (N= 2,384)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β	t	R2	F
1	스마트폰의 과의존	주의집중	.51	.40	20.74***	.16	444.11** *
2	스마트폰의 과의존	학업무기력	.40	.34	17.57***	.17	308.68** *
3	스마트폰의 과의존	학업무기력	.21	.18	9.09***	.26	413.13** *
	주의집중		.38	.41	21.40***		

*p<.05, **p<.01, ***p<.001

먼저, 주의집중문제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투입된 독립변수, 종속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Durbin-Watson의 통계치는 1.79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기준값인 2에 근접하여 잔차 상관이 낮음을 의미하는 가정을 충족하였으며(황해익 외 3명, 2016), VIF도 1.19로 나타나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폰의 과의존이 주의집중문제에 16%의 설명력을 보였고, 학업무기력에 1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스마트폰의 과의존과 주의집중문제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학업무기력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26%로 증가하였으며($F=413.13$, $p<.001$), 학업무기력에 대한 스마트폰의 과의존의 표준화 계수(β)는 2단계에서는 .34였고, 3단계에서는 .18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변수 간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1.40$, $p<.001$).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Sobel, 1982)를 실시한 결과 Z값은 14.90($p<.001$)로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학업무기력에 대해 스마트폰 과의존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의집중문제가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된 결과를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하위 요소인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이 학업무기력과 직접적으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업무기력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미숙, 2014; 김재윤, 한희수, 박은영, 강민주, 2020; 장유진, 이승연, 장유나, 홍세희, 2021).

이러한 학업무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부처들과 공조하여 2019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협력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사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역량을 모으고,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확대 및 윈스톱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를 중심으로 영아부터 고령층까지, 가정에서 지역사회까지 촘촘한 예방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및 바른 스마트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해결 차원에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사회혁신과 포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그리고, 학업무기력에 주의집중문제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장유진, 이승연, 장유나, 홍세희, 2021; 장윤재, 2020). 한편 학업무기력과 하위 요소인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와 주의집중문제 간에도 상호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유의미한 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의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였다.

둘째, 주의집중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업무기력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며, 주의집중문제를 매개로 학업무기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휴대전화 의존도와 주의집중문제 관계의 선행연구(강경미 외 2014; 김광수, 2020; 이진희, 2017; 장유진 외, 2021; 허균, 2013)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업무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학업무기력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Maier와 Seligman(1976)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인 결손상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학습된 무기력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의 삶의 주된 영역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충동적이며 강박적으로 통제할 수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중학생들의 학업 생활이 무기력한 상태로 진화되도록 할 것이라는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은 학업 상황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지니게 하며, 학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학업의욕이 저하된 상태가 되며, 행복감, 즐거움 기쁨, 성취감을 갖지 못하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업 수행 활동이 저하된다.

이렇게 스마트폰 과의존의 영향으로 학업무기력에 빠져있더라도 주의집중문제가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므로 주의집중문제의 매개 효과를 통해 학업무기력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상담과 예방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학생들의 주의집중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가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나 사용량에만 규제를 가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스스로 주의집중문제를 조절 및 완화함으로써 자율적인 과의존 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이끌어준다면 학업에 대한 동기의 내재화가 촉진되고 주의집중력도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는 학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업 유능성을 북돋아 주고 학업무기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토론 참여, 체험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개발 적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일률적 규제보다는 훨씬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엄격한 규제와 처벌보다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학습의 보조 매체로 사용하며,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현장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조절하여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의집중력의 향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다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그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미, 장정임, 김성봉.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395-416.
- 강방글, 신혜정.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8), 213-241.
- 고미숙. (2014).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대처 모델의 적용**.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은희, 김은정. (2015). 우울, 주의집중의 어려움, 인터넷 사용빈도 및 교사/친구관계

- 가 청소년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3), 1-25.
- 고재량, 변상해. (2014).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및 학습된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1(7), 27-5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2019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결과**.
- 권순희, 권순녀. (2008). 부모의 양육태도, 학습된 무기력이 컴퓨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3(4), 59-69.
- 김광수. (2020).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주의집중 문제, 학습활동의 구조적 관계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653-675.
- 김경호. (2016).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을 매개로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5), 379-404.
- 김도희, 김혁진. (202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 학업무기력,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다중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443-451.
-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민, 남지은.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 김유미, 임동호. (2016). 스마트폰 중독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5(1), 63-81.
- 김재윤, 한희수, 박은영, 강민주. (2020).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중학생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의 순차적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4), 601-611.
- 김정민, 송수지. (2015). 청소년의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2(6), 389-408.
-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공격성, 충동성, 우울, 부모-자녀관계, 주의집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83-393.
- 김희수. (2006).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이 정신건강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4(2), 77-93.
- 김희숙, 유준옥, 정창숙, 형나겸. (2018).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 : 다양한 여가시간의 매개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7(4), 406-414.
- 문두식, 최은실.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0), 213-236.
-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

- 육, 24(4), 5-29.
- 박시현. (2014). 청소년의 학습된 무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행동연구**, 19, 99-125.
- 박영숙.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우울을 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55, 23-48.
- 박춘성, 홍경화. (2011). 집중력이 부족한 중학생의 학업성취발달 분석연구. **한국학습장애연구**, 8(1), 141-166.
- 손성민. (2021). 고등학생들의 라이프 케어를 위한 스마트폰 과의존과 우울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15(4), 309-315.
- 손신영. (2013).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이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4(1), 1-12.
- 신성철, 백석기.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위기관리논집**, 9(11), 345-362.
- 신현아. (202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정서문제, 스마트폰 의존도, 학업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태용. (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및 부정적 부모 양육행동, 과외학업스트레스 및 학습된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16(4), 133-160.
- 여태철, 이대식, 황매향, 임효진. (2013). 초등학교 저학년용 학습저해요인 진단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초등상담연구**, 12(2), 243-259.
- 우연경, 노연경. (2021).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잠재프로파일 : 영향요인 탐색 및 집단별 특성 차이. **한국교육학연구**, 27(1), 281-304.
- 윤영제. (2018).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의 보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1), 247-252.
- 이주연, 지명원, 이지영. (2021).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8(3), 135-147.
- 이진희. (2017). 휴대전화 의존도가 남녀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건강상태와 애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135-157.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장유진, 이승연, 장유나, 홍세희. (2021). 청소년의 그릿,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간의 관계 :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학연구**, 27(1), 377-405.
- 장윤옥, 정시린. (2017).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 열의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65(1), 195-223.

- 장윤재. (2020). 오락, 편의, 정보 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이용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 주의집중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1(2), 321-342.
- 정선경, 장은희, 안권순. (2021). 청소년들의 자아강도와 정신건강이 학교생활적응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8(1), 171-194.
- 정승민, 정경미. (2021). 우울 증상과 수준에 따른 패시브 센싱의 패턴 조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4), 807-833.
- 전향신, 박분희. (2020). 어머니 그릿, 자녀 그릿,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8), 329-355.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선휘. (2019).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7, 145-169.
- 조안나. (2021). 비대면-대면 수업 후 학생들의 학업무기력 및 우울의 양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김예진, 권은비, 이동훈. (2020).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불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193-203.
- 주소망. (2020). 대학생의 정서신념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오. (2015). 스마트폰중독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공감능력결함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2), 43-54.
- 하문선.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종단적 변화의 잠재집단유형과 심리정서적 특성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4), 313-336.
- 황해익, 송연숙, 최혜진, 손원경. (2016). 쉽게 배우는 SPSS 자료분석. 경기: 공동체.
- 허균. (2013). 고차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휴대폰 의존도 변화와 자기조절능력 및 주의집중의 구조관계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861-879.
- Abramson, L. Y., Seligman, M. E. P, & Teasdale, J.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gy*, 51(6), 1173-1182.
- Demirci, K., Akgönül, M., & Akpınar, A. (2015). Relationship of smartphone

- use severity with sleep quality, depression, and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2), 85-92.
- Maier, S. F., & Seligman, M. E. (1976). Learned helplessnes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5(1), 3-46.
- Miller, I. W., & Norman, W. H. (1979).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Experimental Psychology*, 105, 3-46.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pp.290-312). San Francisco: Jessey-Bass.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주의집중문제의 매개 효과 분석에 대한 토론문

이미애

대구한의대학교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가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삶의 질이 풍요로워졌으며,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다양한 사회와의 접촉 및 대인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과 동시에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끌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잘못된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은 인식 되지 못한 채 인터넷의 무분별한 사용은 빠르게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신혜영, 2020).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회와의 접촉이 제한되고, 또래와의 관계 및 바깥놀이의 제한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시간 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연구는 시기절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학업무기력을 주의집중문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한다.

우선 연구자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주의집중문제를 조절 및 완화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과의존 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스마트폰이 갑자기 고장났을 때 난감함을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고, 약속시간을 굳이 수첩에 적어 놓지 않더라도 캘린더를 통해서 알려준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에서도 스마트폰 캘린더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온택트로 빠르게 전환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방법은 구태의연하게 규제나 통제로 다가간다면 청소년들의 반항에 대처하기에는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한 규제보다는 과의존의 매개요인인 주의집중문제의 향상을 통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둘째, 스마트폰을 사용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스마트폰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을 떼고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규제를 한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에서도 기존의 학습방법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스마트폰의 기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수많은 어플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어플들 중에는 학습을 위한 어플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학교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활용한다면 학업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방법의 개발과 적용은 학업능력은 높일수 있겠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과 놀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의 경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본 토론자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의 경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한다.

셋째, 스마트폰의 활용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 예방교육을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로 교육전환 및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활용하기위해서는 우선 교사와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와 부모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높여 청소년과의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와 부모가 스마트폰 활용의 경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청소년 지도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과 교사, 부모의 스마트폰 예방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사용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을 배제하고 살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과의존의 문제를 스마트폰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대안으로 주의집중문제를 검증함으로써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신혜영(2020).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 자아탄력성,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재선(2021).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식생활 및 건강행태. **대한보건연구**, 47(2), 167-177.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건강행태, 심리정서, 사회환경

노미화⁺ · 신재은^{**} · 황인성^{***}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행태, 심리정서, 사회환경 요인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KCYPS 2018) 3차 테이터의 중1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SPSS와 R를 통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91.2%는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신체활동, 수면의 질, 아침식사,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그릿,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좌식행동,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신체활동이며 우울, 수면의 질, 또래관계, 좌식행동, 자아존중감, 아침식사, 교사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부모관계는 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밝혔다.

주제어 : 청소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행태, 심리정서, 사회환경

⁺ 사과나무의료재단 miwha6708@naver.com

^{**} 사과나무의료재단

^{***} (주) 닥스메디기업부설연구소

I. 서론

청소년들에게 건강은 현재의 삶의 만족을 구성하는 토대이자, 이 시기 형성된 건강 행동과 생활습관 등을 통해 미래의 성인기 건강과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나 노년기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해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자아 정체성 확립이나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 및 진로와 직업선택 등과 같은 다양한 발달적 요구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 건강은 질병의 치료와 문제 발생 후 해결보다는 예방과 관리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과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환경 영역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성적 성숙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 느끼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배우고, 사회적 행동 및 건강 인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 시기 경험한 비만, 정신장애 및 부상과 담배 사용, 알코올 사용 및 신체활동 부족과 건강 행동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성인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WHO, 2009). 더불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만성 질환 대부분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성인기에 발현되며, 성인의 조기 사망 70%가 공통적인 위험 요소를 공유하는 청소년기에 시작된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습득하였던 건강 행동 및 건강 관련 생활습관은 청년기와 중,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변화하기는 또한 매우 어렵다(김미선, 강현숙, 조결자, 2004; McGue, Iacono & Krueger, 2006; Perry, 1999). 결국 청소년기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 시기 자신이 경험하는 건강행동, 생활습관, 심리정서 그리고 사회환경에 따라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과 평가 기준의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강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주관적 건강점수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20).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낮아져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의 43.5%, 60세 이상 성인의 28.5%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하고 있다(통계청[사회조사], 2020).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타인과 지나친 비교 성향(김민혜, 강영호, 2019)이라는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인 건강 수준 성과지표보다 낮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보고는 현재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 형성이라는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 과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평가를 표현하는 건강지표로서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적 건강 수준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건강(overall health)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이다(Li et al, 2006; Lundberg & Manderbacka, 1996). 다른 건강지표에 비해 현재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위험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동안 많은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청소년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이환율, 사망률, 학교 중퇴, 건강관리서비스 및 사회복지에 대한 필수적인 예측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며(Fylkesnes & FØrde, 1991), 근력 강화 운동, 중등도 신체활동, 수면시간에 대한 만족감, 스트레스, 경제적 수준, 우울감 등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건강 외에 가족, 또래 및 사회적 지원, 심리적 행복, 사회환경, 행동 및 생활 방식 요인을 포함하는(Foti K & Eaton, 2010; Meireles et al., 2015) 다차원적인 척도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는 건강 행동과 생활양식, 심리와 정서적 상태, 그리고 사회환경을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상당수는 성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청소년 대상 연구는 운동, 비만, 음주, 흡연, 수면의 질, 비행, 미디어 시간 등과 관련한 건강행태(권현진 외, 2012.; 이자형, 이기혜, 2015; 안진상, 김희경, 2013; 노은경, 박종, 최천호, 2010), 우울, 행복, 스트레스(채인석, 장효열, 2021; 민지희, 정인경, 2018) 등의 심리정서, 그리고 건강 불평등, 사회적 자본(안진상, 김희경, 2013; 박성준, 2018)과 같은 사회환경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개별 변수들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건강을 깊이 이해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과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건강증진 행동들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과 교육 및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영향요인들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수준을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개념이다.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마다 달라서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질병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남연희, 남지란, 2011). 즉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때는 현재의 건강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한 객관적 조건과 동시에 건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의 건강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에 따라 다르며, 사회적 위치, 교육, 직업, 소득, 성, 인종 등에 따라 한 사회 내의 물질적 조건, 사회적 응집력, 사회 심리적 수준, 보건행태와 생리학적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WHO, 2010).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질병의 유무와 더불어 운동 및 신체활동, 음주와 흡연 여부, 근력 강화 운동, 중등도 신체활동, 수면시간에 대한 만족감(유인영, 이정애, 2013)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주관적 체형인지(박미라, 양현주, 2018)와 같은 인지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우울감이나 행복감(황성희, 계승희, 2018)과 같은 심리 정서적인 영향을 받고,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박성준, 2018)와도 관련성이 높다. 선행연구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최경원, 2014), 두통, 신경과민 또는 수면 장애와 같은 더 많은 건강 문제를 가지며, 건강 행동의 이행 정도에서도 차이(박남희, 이해정, 2002; 김원경, 2015)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15~34세까지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한국노동연구원, 2009)는 상반된 의견도 다수 제시되고 있다.

2. 건강행태 요인

올바른 식생활 및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요인(오선영, 2016)으로 작용한다. 신체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향상되거나 비만 위험이 감소하고, 학교 체육 시간에 땀을 흘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 인식 수준이 높아진다(이자형, 이기혜 2015).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여 행복감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으며(서경현, 김은경, 조성현, 2012; 유진영, 김기만, 2014), 신체활동 부족과 과도한 좌식행동은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이은영, 이경준, 2016; 정인경, 김정현, 2016). 우리나라 청소년은 다른 나라 청소년보다 학업으로 인해 앞서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공부하는 시간 이외의 여가조차도 없어서 보내는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좌식행동 시간이 길다(Lee, Yi, Walker & Spence, 2016). 과도한 좌식행동은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우울 등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은 학습과 기억, 정신 및 육체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다(Verlander, Benedict & Hanson, 1999). 미국 국립수면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에 따르면, 성인은 7~9시간, 청소년 시기인 10~17세는 8.5~9.25의 수면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6.3 시간으로 74.4%의 학생들은 수면이 부족하다고 한다. 적절한 수면의 시간과 더불어 수면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하다. 수면의 질이란 수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 수면 중 깨는 횟수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수면은 외로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적 상태(Johnson & Spinweber, 1983; Pilcher, Ginter & Sadowsky, 1997)와 인지적인 행복감(Paunio et al., 2009)과 연관성이 높으며, 단순한 심리적 안녕을 반영하는 지표를 넘어 심리적 안녕을 예측하는 변수이기도 하다(김정기, 조경자, 2010).

신체와 성의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에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생활은 건강의 기본요인이 된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성인기 만성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39.5%는 아침 식사를 결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0). 청소년의 부적절한 아침 식사는 점심 및 저녁 식사 시 과도한 열량 섭취로 이어져 비만 발생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배변습관, 월경이상, 만성피로와 더불어 인지능력, 집중력 저하, 학업 수행능력(Tanaka, Mizuno, Fukuda, Shigihara & Watanabe, 2008; 박기영, 2011 재인용)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3. 심리 정서 요인

청소년기 가장 흔한 심리정서 문제는 우울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할수록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25.2%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학생(30.7%)이 남학생(20.1%)보다 1.5배 높은 비율을 보인다(보건복지부, 제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www.kdca.go.kr>).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7년 44.6%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청소년의 13.8%(NSDUH, 2019)와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은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이며, 학업성적, 경제상

때, 행복감, 수면충족 등이 영향을 미친다(임은미, 정성석, 2009; 오선영, 2016; 맹성준, 한창근, 2017). 청소년 우울은 성인과는 달리 우울 자체의 증상보다는 식욕의 증가, 수면 장애, 무단결석, 집중력 저하, 학업부진, 태만, 문란한 이성 관계, 공격적인 성격, 거친 행동, 약물 남용 등 다양한 부정적 행동 증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우울은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또래 관계에서의 부적응, 비행 등을 초래하며(강혜원, 김영희, 2011; 김재엽, 최선아, 전지수, 2016),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울은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자살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형수, 2002; 박봉길, 전석균, 2006).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청소년 우울함에 대한 예방과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태형, 2014; 김정민, 송수지, 2017),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조절 효과를 가지며, 심리자원으로서 건강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혜원, 정일현, 2010; 손애리, 이연숙, 양미영, 2011).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Daane, 2003)을 주며 성인기 폭력, 비행 등의 위험 행위에 빠질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Trzesniewski et al., 2006).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중단 의식, 행복감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와 자살 생각 사이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한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사는 문화 내에서 삶의 만족에 대해 느끼는 지극히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이다. 성별, 경제적 상태 및 가구 소득(박주영, 신윤정, 김지연, 2011; 김태형, 2015),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신승배, 2016) 등의 개인의 외적인 영역과 자아존중감, 삶의 목표, 자기효능감 등의 내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다. 수명, 긍정적인 건강행동, 주관적 건강상태와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정신질환 이환율 및 사망률과는 부적인 관련이 있다(Koivumaa-Honkanen et al., 2000). 낮은 삶의 만족감은 정상적인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김영미, 2011), 자살, 좌절감, 비행 등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행복감을 낮추고(한세영, 한아름, 2018),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준다(Wanger & Short, 2014).

그릿(grit)은 '장기간에 걸쳐 목표를 위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투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흥미 유지(consistency of interest)와 노력 지속(perseverance of effort)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수행과 성공에 이르는데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청소년에게 그릿은 학업성취, 학업 적응, 학교만족도에 관련된 중요한 영향요인이며(이정림, 권대훈, 2016; 전향신, 2018), 청소년과 밀접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친구, 교사와

의 관계 등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솔, 2015; 한수연, 박용한, 2018; 정혜원, 2020),). 그러나 그릿의 연구는 초기 단계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4. 사회환경 요인

청소년의 건강은 가족, 또래, 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체계에서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요인으로는 가정과 학교가 대표적이다(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부모로부터 정서적, 심리적인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과 가정의 분위기가 청소년에게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사회환경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박금희, 박영수, 2000; 박남희, 이해정, 2002).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 관계와 가족 구성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 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것으로 알려져 있다(McPherson et al., 2013). 양친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나, 모의 교육수준이 낮을 때, 주관적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 때, 부정적인 영향 관계를 갖는다.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청소년 시기는 또래와의 관계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래관계가 원만한 학생일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거나 더 많은 건강행동을 하게 되고(서효정, 2009; 안진상, 김희정, 2013),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자형, 이기혜, 2015). 남녀 학생 모두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운동을 많이 하고, 또래의 지지를 통해 운동 행위를 고무시키며, 신체건강을 유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선순환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또래 관계는 음주와 같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과도 관계성이 높다(Koutra et al., 2014).

한편, 교사관계는 청소년에게 건강과 관련된 올바른 규범을 형성,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황문선, 조희숙, 2004), 부모갈등이나 가족유대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는(김성수, 2013) 연구결과와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자형, 이기혜, 2015)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일관되지 않다. 소득 불평등과 같은 사회환경도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Wilkinson, 1997; Wilkinson & Pickett, 2007) 요인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3차 자료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성장 및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다단계화집락 표집방식(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통해 추출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 연구자료이다. 본 연구는 중1 패널 2,590명 중 결측치를 제외한 2,384명(남학생 1,278명, 여학생 1,106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주관적 건강상태는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4점 척도로 응답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별하였으며 건강행태, 심리정서, 사회환경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1) 건강행태

건강행태는 신체활동, 좌식행동, 수면의 질, 아침식사로 구성하였다. 신체활동은 여가시간 중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학교 수업시간 외)’을 이용하였으며, 좌식행동은 여가시간 중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에 대해 각각 평일, 주말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수면의 질은 ‘평소 잠을 잘 잡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평일, 주말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수면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아침식사는 ‘지난 일주일간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단일문항에 응답

한 내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수면의 질 .791, 신체활동 .846, 좌식행동 .580 이다.

(2) 심리정서

심리정서는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그릇으로 구성하였다. 우울은 '기운이 별로 없다.' 등 4점 척도로 구성된 총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등의 긍정 문항과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만족은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등의 총 5문항, 그릇은 부정적 내용을 묻는 흥미유지 4문항과 긍정적 내용을 묻는 노력지속 4문항이며, 문항 중 모든 부정문항은 역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우울 .915, 자아존중감 .837, 삶의 만족 .823, 그릇 .701 이다.

(3) 사회환경

사회환경은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로 구성하였다. 부모관계는 부모의 양육 태도 중 파스함(4문항), 자율성지지(4문항), 구조제공(4문항)과 부정내용인 비밀관성(4문항)을 사용하였다. 또래관계는 총 13문항으로, 교사관계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모든 부정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모관계. 895, 또래관계. 826, 교사관계. 898이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26 통계프로그램과 R version 4.1.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각 변수 내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와 변수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하였다. 문항의 신뢰도가 확인된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성별과 11가지의 독립변수 중 주관적 건강상태를 예측하는 변수의 종류와 예측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선택에 의한 다중회귀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1,278명(53.6%), 여학생 1,106명(46.4%)으로 총 2,384명이다. 이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 0.84%,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8.01%, 건강한 편이다 54.66%, 매우 건강하다 36.49%’로 조사대상자의 91.2%는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점수는 3.27점이며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많지만($t=12.56$, $p=.000$),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와 같은 좌식행동($t=15.60$, $p=.000$)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심리정서 영역에서 자아존중감($t=4.915$, $p=.000$)과 그릿($t=3.08$, $p=.002$)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우울($t=-4.99$, $p=.001$)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환경 영역에서 부모관계와 교사관계의 성별 차이는 없으나 또래관계($t=0.390$, $p=.000$)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인다.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는 <표1>과 같다.

표 1.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및 변수별 평균 차이

(N=2,384)

아홉 분	평균(M)		표준편차(SD)		t	p
	M	F	M	F		
주관적 건강상태	3.298	3.233	0.643	0.631	2.478	.013
신체활동	3.013	2.325	1.433	1.220	12.556	.000
좌식행동	4.699	4.136	0.959	0.798	15.598	.000
수면의 질	3.227	3.233	0.572	0.559	.257	.797
아침식사	4.760	4.438	2.297	2.340	3.353	.001
우울	1.733	1.866	0.581	0.625	-4.991	.001
자아존중감	2.968	2.877	0.449	0.456	4.915	.000
삶의 만족	2.652	2.599	0.557	0.538	2.385	.017
그릿	2.600	2.543	0.413	0.423	3.079	.002
부모관계	3.098	3.108	0.430	0.428	-.587	.557
또래관계	3.078	3.143	0.387	0.390	-4.012	.000
교사관계	2.775	2.787	0.4517	0.429	-.663	.506

* $p<.05$, ** $p<.01$, *** $p<.001$

2.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2>와 같다.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심리정서($r = .36, p < .001$), 건강행태($r = .30, p < .001$), 사회환경($r = .29,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행태에서 신체활동($r = .20, p < .001$), 수면의 질($r = .21, p < .001$), 아침식사($r = .12, p < .0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좌식행동($r = -.13, p < .001$)에서 부적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심리정서 영역에서 우울($r = -.33, p < .001$)은 부적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아존중감($r = .30, p < .001$), 삶의 만족($r = .22, p < .001$), 그릿($r = .26, p < .001$)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사회환경 영역에서 부모관계($r = .22, p < .001$), 또래관계($r = .27, p < .001$), 교사관계($r = .19, p = .003$)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2.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203											
3	-.133	.095										
4	.205	-.012	-.128									
5	.122	-.026	-.163	.086								
건강행태	.304	.403	-.419	.413	.738							
6	-.326	-.002	.156	-.238	-.164							
7	.300	.061	-.090	.235	.155	-.579						
8	.222	.105	-.094	.189	.118	-.365	.517					
9	.258	.148	-.204	.134	.128	-.402	.423	.373				
심리정서	.360	.079	-.174	.259	.179	-.803	.811	.724	.659			
10	.223	.084	-.050	.142	.167	-.375	.434	.378	.343			
11	.268	.059	-.075	.149	.073	-.420	.432	.280	.256	.434		
12	.187	.072	-.099	.132	.100	-.213	.318	.344	.345	.368	.296	
사회환경	.292	.097	-.101	.177	.155	-.430	.506	.439	.418	.795	.720	.713

* $p < .05$, ** $p < .01$, *** $p < .001$

1: 주관적 건강상태, 2: 신체활동, 3: 좌식행동, 4: 수면의 질, 5: 아침식사, 6: 우울, 7: 자아존중감, 8: 삶의 만족, 9: 그릿, 10: 부모관계, 11: 또래관계, 12: 교사관계

3. 주관적 건강상태 영향요인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공차 한계값은 0.1 이상, VIF 값은 10보다 작아 다중 공산성 문제와 Durbin-Watson 값 1.851로 독립

변수 간의 자기 상관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설명하는데 21%의 설명력을 갖는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베타계수를 비교한 결과, 신체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우울 > 수면의 질 > 또래관계 > 좌식행동 > 그릿 > 자아존중감 > 아침식사 > 교사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정서 요인 중 삶의 만족과 사회환경 요인에서 부모관계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결과는 <표-3> 과 같다.

1) 건강행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신체활동($\beta=.19, p<.001$), 수면의 질($\beta=.12, p<.001$), 좌식행동($\beta=-.08, p<.001$), 아침식사($\beta=.05, p<.00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을수록, 좌식행동이 적을수록, 아침식사를 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심리정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심리정서 요인은 우울($\beta=-0.16, p<.001$), 자아존중감($\beta=.07, p<.004$), 그릿($\beta=.07, p<.00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지만, 우울 점수가 높으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사회환경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 요인은 또래관계($\beta=.10, p<.001$), 교사관계($\beta=.04, p<.042$)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주관적 건강상태 다중선형회귀 분석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상수)	1.86	0.19	0.00	9.81(<0.001)***		
신체활동	0.09	0.01	0.19	10.33(<0.001)***	0.95	1.05
우울	-0.17	0.03	-0.16	-6.52(<0.001)***	0.57	1.75
수면의 질	0.14	0.02	0.12	6.28(<0.001)***	0.91	1.10
또래관계	0.16	0.03	0.10	4.56(<0.001)***	0.75	1.34
좌식행동	-0.06	0.01	-0.08	-4.41(<0.001)***	0.90	1.11
그릿	0.10	0.03	0.07	3.11(0.002)**	0.68	1.46
자아존중감	0.10	0.04	0.07	2.90(0.004)**	0.53	1.88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아침식사	0.01	0.01	0.05	2.59(0.009)**	0.93	1.08
교사 관계	0.06	0.03	0.04	2.03(0.042)*	0.79	1.26
F(df)	71.84(9, 2374)***					
adj. R2	0.2111					
Durbin-Watson	1.851					

*p<.05, **p<.01, ***p<.001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행태, 심리정서, 사회환경은 [그림 1]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1. 주관적 건강상태 영향 요인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건강행태, 심리정서, 사회환경 영역에서 그 요인들을 탐색하여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행동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교육 및 사회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점수는 3.27이며 전체의 91.2%가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1, 2차 패널 자료에서 보이는 3.16~3.20(박성준, 2018)보다 높은 점수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어 이윤정, 박문경(2020)의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2.85점으로 일반 청소년들보다 낮은 점수를 보고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낮은 주관적 건강상태는 음주나 흡연,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신체적 건강 문제와 사회적 낙인에 의해 우울, 무력감, 자살 충동 등의 정신적 건강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청소년뿐 아니라 건강 및 생활환경이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이러한 성별 차이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높은(Haugland, Wold, Stevenson, Aaroe & Woynarowska, 2001; Jerdén, Burell, Stenlund, Weinehall & Bergströmet, 2011; Woynarowska, Tabak & Mazur, 2004)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성별 차이가 없거나, 남학생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Zullig, Ward, Huebner & Daily, 2018)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 남성은 여성보다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흡연의 비율도 높지만,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Sood, Jenkins, Sood & Clark, 2019).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은 현재 몸을 활발히 움직이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여성들은 운동하는 것, 또는 활동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미래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역시 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가족 정책(김민혜, 강영호, 2020)이 주관적 건강 궤적의 성별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평가하는데 성별 차이가 존재하고 특정 건강 행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성별의 차이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운동습관, 건강에 대한 자신감,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강에 대한 성별 차이 등을 고려한 가운데 해석되어야 한다.

신체활동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수면의 질, 좌식행동, 아침식사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체활동과 좌식행동은 건강행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생활습관들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실천율과 스포

츠 활동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2).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교 체육수업 활동뿐 아니라 방과 후 학교 이외의 생활체육 활동의 참여율에서도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체활동 부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남학생(3.01)은 여학생(2.33)에 비해 많은 운동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만, 핸드폰, 인터넷, TV 시청과 같은 좌식행동에서 여학생(4.14, 남학생 4.70)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의 좌식행동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의 사용이다. 그러나 미디어는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 사회적 및 교육적 요인일 수 있다. 모바일 환경의 진화로 운동 및 식생활 개선 등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를 활용한 건강증진 활동 및 교육 등에 적용할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과 장시간에 걸친 좌식행동은 비만과 과체중 같은 신체 건강 및 삶의 질과 우울 등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운동과 신체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그것이야말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모두를 증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수면의 질이 높고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8~10시간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수면의 질 또한 48.1%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질병 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0). 청소년들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정서적 불안, 우울, 과잉행동과 연관성을 가진다(이정진, 강정희, 이선경, 채규영, 2013). 더욱이 5시간 미만 수면을 하는 학생들의 자살 생각 경험률이 약 2배 정도 높아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박현주, 2015). 청소년들이 하루 5시간 이상의 수면과 적절한 수면의 질을 취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TV 시청, 인터넷 이용, 게임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아침식사와 수면의 질은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학업능률을 향상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또래 관계나 교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선순환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량을 늘리거나 학습 관련 지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은 신체적 조건이나 건강행태와 같은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성인은 질환의 유무, 삶의 만족감, 활기참 등과 같은 건강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청소년은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생활양식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reidablik, Meland & Lydersen, 2008). 심리정서 영역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건강행태와 사회환경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기능이나 객관적인 지표 외에 전반적인 사회정서적 기능을 반영한다((Vingilis, Wade,

& Adlaf, 1998; 최경원 2014 재인용)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심리정서 요인 중 우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우울함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Wanger & Short, 2014; 박신영, 임선아, 2018)와도 일치한다. 우울은 신체활동 다음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력이 큰 변수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예방,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희정과 신윤희(2002)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관심이 바람직한 건강 행위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낮다(Trzesniewski et al., 2006).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갖으므로 자아존중감 향상이 선행(신재은, 1998)되거나 병행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그것이 심리적 안녕감(진종임, 김남초, 2017; Credé, Tynan & Harms, 2017), 행복감, 긍정정서(정현, 장성배, 탁진국, 2018; 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등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목표를 위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투지’인 그릿이 전문적인 수행과 성공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삶의 만족 혹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일관적인 연구결과가 있었으나(김명숙, 고종욱, 2013; 유재남,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성인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청소년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회환경 요인 중 하나는 학교이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업성취와 더불어 사회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개인의 건강 행동을 예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남희, 이해정, 2002;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특히 또래관계나 선생님과 관계는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청소년비행과 건강 위험 행동에서도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이정환, 2010; 황성현, 2010).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는 신체활동과 수면의 질에 이어 주관적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또래관계가 청소년기의 다차원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안진상, 김희정, 2013; 이자형, 이기혜, 2015)를 지지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래관계의 평균점수는 남학생(3.078), 여학생(3.143)으로 여학생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문제 행동에서 남학생보다 가족관계, 교사 관계, 친구 관계의 영향력

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 (김미영, 조윤정, 박병금, 2012)를 보더라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그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도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교사관계는 청소년의 정신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학생 집단의 경우에만 교사지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다(이형순, 김은향, 2018)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론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부모관계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청소년기는 부모라는 보살핌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여 또래와의 상호 작용이 증가하고,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최진희, 2010)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또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의 건강증진 행위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또한 제시하고 있어(남영옥, 2008) 이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고 건강증진 행동과 생활습관을 습득함으로써 건강한 성인기와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정기적인 건강교육, 다양한 신체활동의 장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건강증진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고려되고 개인, 가정, 학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은 적절한 운동과 신체활동, 청결한 위생생활, 가정에서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식단, 학교에서는 건강교육과 체육활동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신체활동 및 스포츠 활동 등이 필요하며, 심리정서적 지원과 또래관계를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육 시간과 이와 연관된 학교 활동시간을 보장하며,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과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건강교육 및 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건강의 주체로서 건강에 대한 자기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균형 있는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습관,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 등을 시도하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미디어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 신체활동 시간을 늘리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거나,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돌보며 감정과 기분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시 상담과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나 학교 내 교육 및 시설 마련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요인을 건강행태, 심리정서, 사회 환경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KCYPS(2018) 3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 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상관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인과관계는 규명할 수 없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기 평가적 차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변수이나, 이차자료의 특성상 단일문항으로 측정되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1학년에 국한되어 있어 청소년 전체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원, 김영희. (2011). 생의 의미 수준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5(2), 27-50.
- 권현진, 조강욱, 오정우, 이온, 김연수. (2012). 한국청소년들의 신체활동과 주관적 건강인지의 연관성. **한국체육학회지**, 51(5), 253-261.
- 김미선, 강현숙, 조결자. (2004). 고등학교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0(4), 496-503.
- 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슬. (2015). 초· 중· 고 학생의 그릿 (Grit)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및 성별· 학년별 특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297-322.
- 김미영, 조윤정, & 박병금. (2012). 가족, 교사 및 친구관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학교사회복지**, 22, 49-77.
- 김민혜, 강영호. (2019). Why do Japan and South Korea record very low levels of perceived health despite having very high life expectancies? **Yonsei Medical Journal**, 60(10), 998-1003.
- 김성수. (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 / 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343-364.
- 김영미. (2011). 이웃환경과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가족과정의 매개효과와

- 성별간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18(11), 209-237.
- 김원경. (2015). 한국청소년건강행동 관련 변인의 성별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2(1), 131-154.
- 김재엽, 최선아, 전지수. (2016). 청소년의 가족구조, 우울, 학교적응의 관계-부모-자녀 간 TSL의사소통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학연구**, 23(9), 207-231.
- 김정기, 조정자. (2010). 일주기성 유형과 우울수준간의 관계: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 355-370.
- 김정민, 송수지. (2017). 청소년활동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359-373.
- 김태형. (2015). 가구풍요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건강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3), 1692-1698.
- 김형수.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9-172.
- 김혜원, 정일현. (2010). 청소년 부적응행동의 유형·정도와 자아건강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1(1), 225-244.
- 남연희, 남지란. (2011).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16(4), 145-162.
- 남영옥. (2008).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6(3), 117-126.
- 노은경, 박종, 최천호. (2010).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인식과 주관적인 수면 질과의 관련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3), 67-74.
- 맹성준, 한창근. (2017).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4), 238-268.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3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민지희, 정인경. (2018). 여자 청소년의 좌식행동양상과 학교체육활동 및 건강요인과의 관련성-제 12 차 (2016 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6(1), 79-92.
- 박금희, 박영수. (2000). 중학생의 가정환경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2), 73-86.
- 박기영. (2011). 아침식사와 청소년 건강.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14(4). 340-349.
- 박남희, 이해정(2002). 청소년 건강행위에 대한 국내연구동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1), 98-114.
- 박미라, 양현주. (2018).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차년도 자료 (2013-2016) 활용.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논문**

- 문지, 8(10), 745-753.
- 박봉길, 전석균. (2006).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을 매개로 한 관련요인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2(1), 58-90.
- 박성준. (2018).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9(2), 241-269.
- 박신영, 임선아. (2018). 청소년의 주관적 우울경험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융합 요인. **융합정보논문지 (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8(4), 45-53.
- 박용호. (2018). 역량에 대한 재탐구: 개념 이해 및 활동에서의 혼동 뛰어넘기. **평생교육·HRD**, 14(3), 89-113.
- 박주영, 신윤정, 김지연. (2012). 건강교실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체력 및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3), 433-442.
- 박현주. (2015).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8(1), 1-9.
- 보건복지부. (2012).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영양조사와.
- 보건복지부. (2018). **2017 국민건강통계 제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www.kdca.go.kr>).
- 서경현, 김은경, 조성현.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과 행복감에 대한 체육활동 및 인터넷 게임중독의 역할. **한국청소년학 연구**, 19(5), 115-135.
- 서효정. (2009). 한국청소년의 건강행동과 사회적지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237-1,258.
- 손애리, 이연숙, 양미영. (2011). 고등학생의 음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2(1), 113-122.
- 신승배. (2016).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135-184.
- 신재은. (1998).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인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진상, 김희정. (2013). 아동·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2), 205-231.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20). **2019년도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 오선영. (2016). 청소년의 식생활 및 영양상태와 정신건강.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집**, 10(5), 235-250.

- 오지은. (2018).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 신체활동과 정신건강문제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체형인식의 매개효과: 성별 간 다집단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 8(1), 471-481.
- 유인영, 이정애. (2013). 다문화 가족 환경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정도.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0(5), 699-707.
- 유진영, 김기만. (2014). 우리나라 중학교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395-405.
- 유진영, 김기만. (2014). 우리나라 중학교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395-405.
- 이윤정, 박문경.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중독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5(3), 321-332.
- 이은영, 이경준. (2016).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좌식행동, 수면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제시. **보건과 사회과학**, 42(8), 59-84.
- 이자형, 이기혜. (2015).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영향요인분석: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21(2), 217-243.
- 이정림, 권대훈.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1245-264.
- 이정진, 강정희, 이선경, 채규영. (2013). 수면시간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한소아신경학회지**, 21(3), 100-110.
- 이정환. (2010). 청소년 음주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2), 61-72.
- 이형순, 김은향. (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친구, 부모, 교사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7), 897-916.
- 임은미, 정성석.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및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16(3), 99-121.
- 장희정, 신윤희. (2002). 청소년이 지각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가간호역량간의 관계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2), 182-195.
- 전향신. (2018). **대학생의 성장 마인드셋, 그릿, 내재적 미래지향목표 및 학업적응 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인경, 김정현. (2016).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소**, 34(4), 193-211.
- 정혜원. (2020). 청소년의 그릿 및 행복감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개인, 부모, 친구, 교사요인 영향 검증. **중등교육연구**, 68(1), 135-167.

- 정현, 장성배, 탁진국.(2018). 그릿(Grit)과 직무개선(Job Crafting)의 관계에서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21(1), 31-51.
- 질병관리본부. (2016). 2015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6) 및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채인석, 장효열. (2021).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35(2), 257-274.
- 최경원. (2014).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인식 관련 요인: 한국청소년패널 자료 활용.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3), 39-50.
- 최진희. (2010).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0). 2019년 국민건강통계 <https://knhanes.cdc.go.kr/>
- 한국노동연구원. (2009). **한국노동패널조사 보고서 KLIPS**.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에서 2017~2018년 조사.
- 한수연, 박용한. (2018). 중학생의 그릿 변화와 관련된 가정· 학교 환경요인 탐색. **열린교육연구**, 26(4), 175-201.
- 황성현. (2010). 부모와 친구요인이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7, 81-103.
- 황성희, 계승희. (2018).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가정환경, 건강행태, 심리적 요인 및 식습관.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9(1), 27-45.
- Breidablik, Hans-Johan, Eivind Meland, and Stian Lydersen. (2008). "Self-rated health in adolescence: a multifactorial composite."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6(1), 12-20.
-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 Daane, D. M. (2003). Child and adolescent violence. *Orthopaedic Nursing*, 22(1), 23-29.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Foti K, Eaton D. (2010). Associations of selected health risk behaviors with self-rated health status among U.S. High School students. *Public*

- Health Rep*, 125(5), 771-781.
- Fylkesnes, K., & FØrde, O. H. (1991). The TromsØ Study: Predictors of Self-Evaluated Health-Has Society Adopted the Expanded Health Concep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2(2), 141-146.
- Haugland, S., Wold, B., Stevenson, J., Aaroe, L. E., & Woynarowska, B. (2001). Subjective health complaints in adolescence. *Th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1), 4-10.
- Jerdén, L., Burell, G., Stenlund, H., Weinehall, L., & Bergström, E. (2011). Gender differences and predictors of self-rated health development among Swedish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8(2), 143-150.
- Johnson, L. C., & Spinweber, C. L. (1983). Good and poor sleepers differ in Navy performance. *Military Medicine*, 148, 727-731.
- Koivumaa-Honkanen, H., Honkanen, R., Viinamäki, H., Heikkilä, K., Kaprio, J., & Koskenvuo, M. (2000). Self-reported life satisfaction and 20-year mortality in healthy Finnish adul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52(10), 983-991.
- Koutra, K., Kritsotakis, G., Orfanos, P., Ratsika, N., Kokkevi, A., & Philalithis, A.(2014). Social capital and regular alcohol use and binge drinking in adolescence, a cross-sectional study in Greece. *Drugs, Education, Prevention and Policy*, 21(4), 299-309.
- Lee, E. Y., Yi, K. J., & Walker, G. J., & Spence, J. C. (2016). Preferred leisure type, value orient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ast Asian youth. *Leisure Sciences*, 1-21.
- Li, Z. B., Lam, T. H., Ho, S. Y., Chan, W. M., Ho, K. S., Li, M. P., Leung G.M., & Fielding, R. (2006). Age versus time-comparative self-rated health in Hong Kong Chinese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1(8), 729-739.
- Lundberg, O., & Manderbacka, K. (1996). Assessing reliability of a measure of self-rated health.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Medicine*, 24(3), 218-224.
- Matricciani L, Olds T, Williams M., A review of evidence for the claim that children are sleeping less than in the past, *Sleep*, 34(5), 651-659, 2011.

- McGue, M., Iacono, W. G., & Krueger, R.(2006). The association of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adult psychopathology: A multivariate behavioral genetic perspective. *Behavior Genetics*, 36(4), 591-602.
- McPherson, K. E., Kerr, S., Morgan, A., McGee, E., Cheater, F. M., McLean, J., & Egan, J. (2013). The association between family and community socialcapital and health risk behaviours in young people, an integrative review. *BMC Public Health*, 13(1), 971.
- Meireles, A. L., Xavier, C. C., Andrade, A. C. D. S., Friche, A. A. D. L., Proietti, F. A., & Caiaffa, W. T. (2015). Self-rated health in urban adults, perceptions of th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and reported comorbidities: The BH Health Study. *Cadernos de Saúde Pública*, 31, 120-135.
- Paunio, T., Korhonen, T., Hublin, C., Partinen, M., Kivimäki, M., Koskenvuo, M., & Kaprio, (2009). Longitudinal study on poor sleep and life dissatisfaction in a nationwide cohort of twin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9, 206-213.
- Pilcher, J. J., Ginter, D. R., & Sadowsky, B.(1997). Sleep quality versus sleep quantity: Relationships between sleep and measures of health, well-being and sleepines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2, 583-596.
- Pilcher, J. J., & Huffcutt, A. J. (1996). Effects of sleep deprivation on performance: A metaanalysis. *Sleep: Journal of Sleep Research and Sleep Medicine*, 19, 318-326.
- Sood, R., Jenkins, S. M., Sood, A., & Clark, M. M. (2019). Gender Differences in Self-perception of Health at a Wellness Center.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43(6), 1129-1135.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19). 2018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https://www.samhsa.gov/data>
- Tanaka M, Mizuno K, Fukuda S, Shigihara Y, Watanabe Y.(2008). Relationships between dietary habits and the prevalence of fatigue in medical students. *Nutrition*, 24, 985-9.
- Trzesniewski KH, Donnellan MB, Moffitt TE, Robins RW, Poulton R, Caspi

- (2006). A. Low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s poor health, criminal behavior, and limited economic prospects dur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381-391.
- Verlander, L. A., Benedict, J. O., & Hanson, D.P. (1999). Stress and sleep patterns of college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88, 893-898.
- Vingilis, E., Wade, T. J., & Adlaf, E. (1998). What factors predict student self-rated physical health?. *Journal of Adolescent*, 21, 83-97.
- Vingilis, E. R., Wade, T. J., & Seeley, J. S. (2002). Predictors of adolescent self-rated health.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3), 193-197.
- Wanger, D. C., Short, J. L. (2014). Longitudinal Predictors of Self-Rated Health and Mortality in Older Adults. *Preventing Chronic Disease*, 5(11), 1-8.
- WHO. (2009). Global Health Risks: Mortality and Burden of Disease Attributable to Selected Major Risks. Geneva.
- WHO. (2010). Global recommendations on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 Wilkinson, R. G. (1997). Health Inequalities: Relative or Absolute Material Standards?. *British Medical Journal*, 31, 591-595.
- Wilkinson, R. G., & Pickett, K. E. (2007). The Problems of Relative Deprivation: Why Some Societies do Better than Othe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5(9), 1965-1978.
- Woynarowska, B., Tabak, I., & Mazur, J. (2004). Self-reported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n school-aged children in Poland and other countries in 2002. *Medycyna Wieku Rozwojowego*, 8(3 Pt 1), 535-550.
- Zullig, K. J., Ward, R. M., Huebner, E. S., & Daily, S. M.(2018).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school climate and perceived quality of life. *Child Indicators Research*, 11(6). 1737-1753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건강행태, 심리정서, 사회환경’에 대한 토론문

정은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공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 3차 데이터 중 「중1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행태, 심리정서, 사회환경 요인을 탐색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 건강을 깊이 이해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건강증진 행동들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토론자는 본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자에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지각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 점수는 3.27점이며, 전체의 91.2%가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1, 2차 패널 자료보다 높은 점수이고, 패널 조사 결과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논의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매우 긍정적이고, 점수가 매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를 간략하게 언급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이 없었는데, 결과 논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변인들 중 부모관계 변인이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연구자께서 논의하였듯이 가정의 기능과 역할은 청소년의 건강증진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입니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표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부모관계의 상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모관계의 경우 요인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경우가 결과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요인을 건강행태(행동), 심리·정서적 측면, 사회환경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들의 긍정적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논의를 이끄는 자료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청소년의 긍정적 건강 발달을 위한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사회환경을 조성할 위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Session 2

제6주제

학업/학교 1

중학생들의 학업열정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과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변인의 영향

하아영²⁾, 조한익³⁾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 학생들의 학업열정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은 어떠한지,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변인들의 영향은 어떠한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KCYPS 2018 중학생 패널의 1, 2, 3차년도 2,590명으로 남학생 1,405명, 여학생 1,185명이다. 연구결과 중학교 1학년~3학년 시기 학업열정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은 3개로 나타나 저수준 증가집단, 중간수준 유지집단, 고수준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저수준 증가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였을 때 중간수준 유지집단은 학업성취도, 그릿이 높고 학업 무기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수준 감소집단은 학업성취도, 그릿, 삶의 만족도가 높고 학업 무기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별 초깃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저수준 증가집단의 초깃값에는 학업성취도가, 변화율에는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간수준 유지집단 초깃값에는 학업성취도, 그릿, 학업 무기력, 우울, 삶의 만족도가, 변화율에는 학업성취도, 그릿, 학업 무기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고수준 감소집단의 초깃값에는 학업성취도, 그릿, 사회적 위축, 우울, 삶의 만족도가, 변화율에는 학업 무기력,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의 학업열정 잠재집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학업열정, 종단적 변화,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2)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3)⁺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h1652@gnu.ac.kr

I. 서론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관심과 열정이 높으면 학업성취도는 높아진다. 청소년들은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시간 또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학업열정을 통해서 학업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업열정은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한 활력, 헌신, 몰입 등의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Schaufeli, Salanova, González-Romá, & Bakker, 2002)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학업에 노력을 기울이는 의지를 말한다(이자영, 이상민, 2012; Schaufeli et al., 2002). 또한, 특정 대상이나 사건,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정서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이자영, 이상민, 2012; Schaufli et al., 2002) 학업열정이 높은 학생은 학업에 완전히 몰입하여 학업 외의 행동들을 잘 통제하며, 도전의식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Csikszentmihalyi, 1990; Salanova, Schaufeli, Llorens, Silla, & Grau, 2000; Schaufli et al., 2002).

학업열정과 관련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시점에서 학업열정과 청소년의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등의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권은경, 2020; 정혜원, 전현정, 김아름, 2021; 최정운, 임효진, 2021). 하지만 학업열정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고정된 것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이자영, 2013; Duhita, Brenda, Jennifer, & Amy, 2012).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열정에 대한 학년별 평균차에 관한 이자영(2013)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시기 학업열정이 가장 높고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 고등학교 학년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열정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는 중학교 시기로, 학업열정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이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종단적 발달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전반적인 변화 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개입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일시점에서 학업열정 집단의 이질성을 검토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열정은 다양한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었다(임효진, 2021; 정혜원 외,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학업열정의 종단적 변화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발달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발달양상의 이질성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임효진, 2021; 정혜원 외, 2021; Wang & Wang, 2012). 이러한 연구를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이라고 하는데 성장혼합모형은 전체집단 내에서 성장궤적이 다른 잠재집단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6; Grimm, Ram, & Estabrook, 2017).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 학업

열정의 종단적 변화에서 개인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잠재집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발달양상에 대한 이질성을 파악하여 교육적 처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과 관련하여 인지변인인 학업성취도가 밀접한 관련성을 맺을 것으로 본다. 학업적 영역에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학생들은 내적인 동기가 높고 자기통제력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학업열정이 높은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도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Howell, 2009). 또한, 학업에 대한 열정이 높을수록 학업적 영역에서 더 나은 수행능력을 보이며(Salanova, Llorens, Cifre, Martínez, & Schaufeli, 2003) 학생들이 스스로의 성적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열정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나영, 황혜영, 2020; 정혜원 외, 2021). 이렇게 볼 때 학업열정의 잠재집단에 학업성취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잠재집단별 교육적 처치를 다르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업열정의 잠재집단은 동기변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을 것으로 본다. 먼저,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과 열정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학업열정은 학업이 이루어지는 학업적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그것은 학업열정을 촉진하는 선행변인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최정윤, 임효진, 2021). 또한, 그것이 높은 학생은 학업열정이 높은 특성을 가지며, 특히 중학교 시기 그것은 학업열정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향신, 박분희, 2020; 최은영, 윤영, 2021; 최진수, 정혜원, 2021). 학업 무기력은 학업 관련 상황에서 실패경험의 누적으로 인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후에 다가올 부정적인 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각하여 학업과 관련한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이명진, 봉미미, 2013). 학업 무기력은 학업에 대한 통제신념과 학습동기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학업 무기력이 높은 학생은 학업열정이 낮은 특성을 가지며, 학업 무기력이 높을수록 학업열정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나영, 황혜영, 2020; 전향신, 박분희, 2020).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판단과 태도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학업적 영역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인내를 가지고 학업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eff, 2011).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학업열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권은경, 2020; 김나영, 황혜영, 2020; 남지영, 정혜원, 2021), 중학생의 학업열정 잠재집단 분류에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살펴본 임효진(2021)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열정이 높

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볼 때 학업열정의 잠재집단과 관련하여 그릿, 학업 무기력,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열정과 관련하여 동기적 요인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열정의 잠재집단과 관련하여 정서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우울은 왜곡된 시각으로 인한 무가치, 근심, 무력감 등의 부적인 정서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Beck, 1967) 우울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적 능력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며 학업수행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uris, Meesters, & Van den Berg, 2003). 또한, 열정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 고갈이 낮으며(Hallberg, Johansson, & Schaufeli, 2007) 우울은 학업열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권은경, 2020). 낮은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수줍음과는 달리 사회적 위축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자발적인 사회적 고립 및 회피를 의미한다(Rubin & Burgess, 2001). 사회적 위축이 높은 학생은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학업 관련 변인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신윤임, 강태석, 2020) 사회적 위축은 학업열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종건, 홍지영, 2021; 신윤임, 강태석, 2020). 이렇게 중학생들의 학업열정과 관련하여 우울, 위축 등의 정서적 요인들은 학업열정의 잠재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학업열정의 잠재집단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안녕감 변인들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행복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중학생들은 자신의 정서적 경험에 관한 판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Diener, Sandvik, & Gallagher, 1991; Veenhoven, 2009).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인지와 행동을 촉진하며,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김종백, 김남희, 2014; Cacioppo, Gardner, & Berntson, 1999). 행복감은 학업열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권은경, 2020; 조홍식, 정병근, 2016).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행복에 대한 인식임과 동시에 삶의 질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의미한다(김명자, 손은령, 2018). 삶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우수한 학습습관을 가지며(이유리, 박은정, 이성훈, 2015), 삶의 만족도는 학업열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은경, 2020; Datu & King, 2018). 이러한 연구를 볼 때 학업열정의 잠재집단별 정신건강의 지표인 행복감,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들의 잠재집단별 정신건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종단적 궤적에서 잠재집단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잠재집단의 종단적 변화에 있어서 학생의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업열정의 잠

잠재집단에 따른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적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잠재집단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잠재집단 분류에 있어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들의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중1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중1 패널자료는 2018년 기준 전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추출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잠재집단에 따른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1차(중1)~3차(중3)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1,405명, 여학생 1,185명 전체 2,590명이다.

2. 측정도구

1) 학업열정

학업열정은 이자영과 이상민(2012)의 학업열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열정은 헌신 4문항, 활기 4문항, 효능감 4문항, 몰두 4문항의 전체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헌신 문항의 예로는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활기 문항의 예는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효능감 문항의 예는 ‘나는 공부를 잘한다’, 몰두 문항의 예는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등이다. 학업열정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를 살펴본 결과 1차년도(중1) .929, 2차년도(중2) .922, 3차년도(중3) .926으로 나타났다.

2)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변인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학업열정 종단적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들은 1차년도(1학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1)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는 인지 변인으로 학업성취도를 살펴보았다. 학업성취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에 대하여 ‘매우 못함’ 1점, ‘못함’ 2점, ‘보통’ 3점, ‘잘함’ 4점, ‘매우 잘함’ 5점으로 되어 있으며, ‘잘 모르겠음’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2) 그릿

그릿은 김희명과 황매향(20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릿 척도는 전체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등이다. 그릿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일부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그릿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를 살펴본 결과 .712로 나타났다.

(3) 학업 무기력

학업 무기력은 박병기 외(2015)의 학업 무기력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통제신념 결여 4문항, 학습동기 결여 4문항, 긍정정서 결여 4문항, 능동수행 결여 4문항의 전체 16문항 척도이다. 통제신념 결여 문항의 예로는 ‘실력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습동기 결여 문항의 예는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긍정정서 결여 문항의 예는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능동수행 결여 문항의 예는 ‘시험기간이라도 공부하지 않는다’이다. 학업 무기력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형태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학업 무기력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924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

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부정문항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67로 나타났다.

(5)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를 살펴본 결과 .874로 나타났다.

(6) 우울

우울은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의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를 살펴본 결과 .922로 나타났다.

(7) 행복감

행복감은 이정림 외(2015)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행복감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나는~’의 문항에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1점, ‘불행한 사람이다’ 2점, ‘행복한 사람이다’ 3점,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4점의 Likert 형태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행복감 척도에서 일부 문항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95로 나타났다.

(8)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 Griffin(1985)의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이상에 가깝다’ 등의 5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를 살펴본 결과 .85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 학업 열정의 성장궤적을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으로 분류하는데 있어서 3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Duncan, Duncan, & Strycker, 2006). 연구문제 1에서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성장궤적의 수를 탐색하면서 1학년 시기 독립변인들을 보조변인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Log-likelihood, AIC, BIC, Entropy, LMR-LRT 및 BLRT를 고려하였다(Collins & Lanza, 2013; Wang & Wang, 2012).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학업열정의 잠재집단 분류에 대한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들의 영향력은 분류오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단자료는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MLR(Maximum Likelihood Estimator with Robust Standard Err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SPSS 25.00과 Mplus 8.6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의 검증: 중학교 학업열정 종단적 변화의 잠재집단

1) 주요 변인의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3학년 시점의 학업열정과 더불어 인지 변인으로 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동기 변인으로 그릿, 학업 무기력, 자아존중감, 정서 변인으로 사회적 위축과 우울, 안녕감 변인으로 행복감,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변인	학업 열정 (중1)	학업 열정 (중2)	학업 열정 (중3)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학업 성취도	그릿	학업 무기력	자아 존중감	사회적 위축	우울	행복감	삶의 만족도
학업열정(중1)	1.000										
학업열정(중2)	.479**	1.000									
학업열정(중3)	.379**	.488**	1.000								
학업성취도(중1)	.523**	.342**	.314**	1.000							
그릿(중1)	.494**	.289**	.216**	.280**	1.000						
학업 무기력(중1)	-.630* *	-.372**	-.301**	-.363**	-.531**	1.000					
자아존중감(중1)	.434**	.257**	.184**	.265**	.534**	-.546**	1.000				
사회적 위축(중1)	-.267**	-.225**	-.147**	-.171**	-.372**	.352**	-.416**	1.000			
우울(중1)	-.313**	-.226**	-.150**	-.214**	-.483**	.482**	-.659**	.552**	1.000		
행복감(중1)	.367**	.211**	.164**	.185**	.446**	-.475**	.717**	-.359**	-.585**	1.000	
삶의만족도(중1)	.424**	.235**	.162**	.217**	.441**	-.423**	.660**	-.289**	-.499**	.671**	1.000
평균	2.472	2.461	2.398	3.420	2.659	1.888	2.994	2.152	1.799	3.131	2.776
표준편차	.552	.513	.533	.925	.438	.534	.504	.749	.638	.546	.604
왜도	.053	-.111	.015	-.191	.333	.283	-.203	.152	.618	-.326	-.150
첨도	.315	.451	.147	-.241	.380	.018	-.205	-.607	.034	.291	.064

**p<.01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과 인지 변인인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은 .314($p<.01$) ~.523($p<.01$)로 나타났으며, 동기 변인인 그릿과의 상관은 .216($p<.01$) ~.494($p<.01$), 학업 무기력과의 상관은 -.630($p<.01$)~-.301($p<.01$),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은 .184($p<.01$)~.434($p<.01$)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과 정서 변인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위축은 -.267($p<.01$)~-.147($p<.01$), 우울은 -.313($p<.01$) ~-.150($p<.01$)으로 나타났으며, 안녕감 변인과의 상관은 행복감 .164($p<.01$) ~.367($p<.01$), 삶의 만족도는 .162($p<.01$)~.424($p<.0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326~.618, 첨도는 -.607~.451로 나타나 정규분포곡선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보았다. 중학교 1학년 시기 학업 열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 .335~.851, 분산팽창계수 1.176~2.987로 중학교 2학년 시기의 학업열정을 종속변인으로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 .333~.841, 분산팽창계수 1.189~3.00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 학업열정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살펴본 결과도 공차한계 .332~.845, 분산팽창계수 1.184~3.013으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Grimm & Yarnold, 2000).

다음으로 중학교 시기(1학년~3학년) 학업열정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학업열정의 무성장모형, 선형변화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성장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여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선형변화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90%CI)
무성장모형	69.621	4	.000	.952	.927	.080(.064~.097)
선형변화모형	8.558	1	.003	.994	.967	.054(.025~.090)

2) 잠재집단의 수 결정

본 연구에서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며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 모형비교검증의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와 잠재집단에 대한 추정치는 표 3과 같다.

표 3. 잠재집단의 적합도 지수

분류기준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정보지수	AIC	10356.866	10342.179	10310.338	10269.651	10231.742
	BIC	10403.742	10406.633	10392.370	10369.262	10348.930
	SABIC	10378.323	10371.683	10347.888	10315.248	10285.384
분류의질	Entropy	-	.945	.780	.758	.765
모형비교 검증	LMR(p)	-	.000	.004	.227	.000
	BLRT(p)	-	.000	.000	.000	.000
분류율	class1	100.000%	.579%	3.205%	84.131%	3.784%
	class2		99.421%	92.510%	3.320%	83.398%
	class3			4.286%	8.456%	3.784%
	class4				4.093%	4.556%
	class5					4.479%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 잠재집단의 정보지수를 비교한 결과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의 값은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잠재집단의 수가 2개일 때 .9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MR-LRT의 유의도를 보았을 때, 잠재집단의 수가 4개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LRT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의 수가 2개일 때 Entropy 값이 가장 높은 반면, 한 집단의 분류율이 .579%로 1%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가능성과 정보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집단의 사례수가 25명 이상이면서 정보지수, 분류의 질의 수준이 양호하고 LMR-LRT와 BLRT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3개의 잠재집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Berlin, Williams, & Parra, 2014; Jung & Wickrama, 2008).

3) 학업열정의 잠재집단 유형

본 연구에서 구분된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잠재집단은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잠재집단의 변화합수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학업열정의 잠재집단 모수추정치

학업열정 (중1~중3)	집단 1 저수준 증가집단 (83명)	집단 2 중간수준 유지집단 (2396명)	집단 3 고수준 감소집단 (111명)
초깃값	1.745(.066)**	2.477(.018)**	3.125(.108)**
변화율	.493(.065)**	-.029(.012)*	-.551(.059)**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잠재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의 3.205%를 차지하는 첫 번째 집단의 초깃값 평균은 1.745($p < .01$) 변화율의 평균은 .493($p < .01$)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초깃값의 평균이 가장 낮고,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 열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저수준 증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의 92.5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깃값의 평균이 2.477($p < .01$), 변화율의 평균이 -.029($p < .05$)로 유의하지만 완전한 부정 기울기를 보였다. 이 집단은 초깃값의 평균이 중간수준을 유지하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평균이 완전한 감소를 보이고 있어 ‘중간수준 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의 4.286%를 차지하는 세 번째 집단은 초깃값의 평균이 3.125($p < .01$), 변화율의 평균이 -.551($p < .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초깃값의 평균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업열정의 평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수준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잠재집단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

으며 이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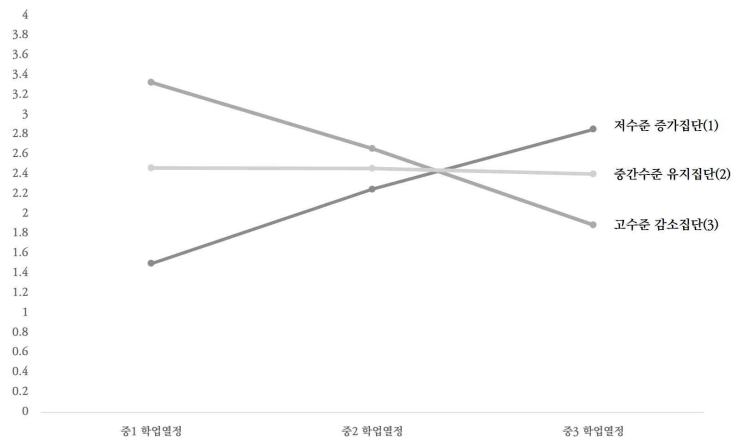


그림 1.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잠재집단별 변화 양상

2. 연구문제 2의 검증: 잠재집단 분류 영향변인 검증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발달양상이 개별 잠재집단으로 구분되는 데 있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중간수준 유지집단(2)				고수준 감소집단(3)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인지	학업성취도	.450	.136	10.929**	1.568	.621	.186	11.147**	1.860
	그릿	.877	.370	5.612*	2.405	1.348	.462	8.519**	3.848
동기	학업무기력	-1.236	.273	20.544**	.291	-2.795	.422	43.937**	.061
	자이존증감	.242	.383	.401	1.274	-.336	.529	.403	.715
정서	사회적 위축	.105	.189	.308	1.110	-.239	.261	.836	.787
	우울	.265	.285	.866	1.304	.617	.366	2.834	1.853
안녕감	행복감	.025	.333	.006	1.025	.067	.458	.021	1.069
	삶의만족도	.306	.280	1.200	1.359	1.661	.389	18.281**	5.266

*p<.05, **p<.01

준거집단 : 저수준 증가집단(1)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 잠재집단의 분류에 미치는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

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저수준 증가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중학교 시기 저수준 감소집단에 비해 중간수준 유지집단은 학업성취도($B=.450, p<.01$), 그릿($B=.877, p<.05$), 학업 무기력($B=-1.236, p<.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 저수준 증가집단에 비해 고수준 감소집단은 학업성취도($B=.621, p<.01$), 그릿($B=1.348, p<.01$), 학업 무기력($B=-2.795, p<.01$), 삶의 만족도($B=1.661,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시기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들이 학업열정 잠재집단의 초깃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학업열정 잠재집단의 초깃값과 기울기에 대한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의 영향력

독립변인		저수준 증가집단		중간수준 유지집단		고수준 감소집단	
		초깃값	변화율	초깃값	변화율	초깃값	변화율
인지	학업성취도	.089*	-.018	.169**	-.017**	.110**	-.011
	그릿	.080	.048	.156**	-.041**	.207*	-.020
동기	학업 무기력	-.085	-.002	-.387**	.071**	-.103	-.121*
	자아존중감	.034	.025	.014	-.017	.117	-.084
정서	사회적 위축	-.037	-.001	-.021	-.011	-.152*	.034
	우울	.127	-.004	.054**	-.009	.196**	-.064
안녕감	행복감	.114	.008	-.031	.008	-.190	.085
	삶의 만족도	.078	-.077*	.118**	-.024	.311**	-.117**

* $p<.05$, ** $p<.01$

저수준 증가집단의 초깃값에는 학업성취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89, p<.05$), 변화율에는 삶의 만족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77, p<.05$). 중간수준 유지집단의 초깃값에는 학업성취도($B=.169, p<.01$), 그릿($B=.156, p<.01$), 우울($B=.054, p<.01$), 삶의 만족도($B=.118, p<.01$)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 무기력($B=-.387, p<.01$)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수준 유지집단의 변화율에는 학업 무기력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B=.071, p<.01$), 학업성취도($B=-.017, p<.01$), 그릿($B=-.041, p<.01$)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준 감소집단의 초깃값에는 학업성취도($B=.110, p<.01$), 그릿($B=.207, p<.05$), 우울($B=.196, p<.01$), 삶의 만족도($B=.311, p<.01$)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위축($B=-.152, p<.05$)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준 감소집단의 변화율에는 학업 무기력($B=-.121, p<.05$), 삶의 만족도($B=-.117, p<.01$)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학생 시기 학업열정의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잠재집단에 미치는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들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은 발달양상에 따라 저수준 증가집단, 중간수준 유지집단, 고수준 감소집단의 세 개 잠재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저수준 증가집단에 속하는 학생은 전체의 3.205%를 차지하며 학업열정 초깃값이 가장 낮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의 92.510%를 차지하는 중간수준 유지집단으로 학업열정 초깃값이 중간 정도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업열정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의 4.286%를 차지하며, 학업열정의 초깃값이 가장 높지만,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열정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집단이다.

저수준 증가집단은 학업열정의 초깃값이 낮은 반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인 기울기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는 이들의 학업열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간수준 유지집단은 비록 기울기가 완만하게 부적인 형태를 보이지만 학업열정이 중간값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며 대부분의 중학생들에게서 나타난다. 이 집단은 학업열정이 보통수준인 집단으로서 이 집단에 대한 교사의 관심, 수업의 효과를 고려한 교육적 처치는 학업열정 기울기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수준 감소집단은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업열정이 가장 높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열정이 감소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의 변화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학업열정의 초깃값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수업시간에 학업열정을 높일 수 있도록 돌보는 교육과 더불어 긍정적인 피드백은 이들의 학업열정을 유지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집단별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저수준 증가집단보다 중간수준 유지집단, 고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시기 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업열정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관련된다(정혜원 외, 2021). 동기 변인과 관련하여, 중학교 1학년 시기 그릿이 높을수록 저수준 증가집단보다 중간수준 유지집단과 고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학업열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전향신, 박분희, 2020;

최은영, 윤영, 2021; 최정윤, 임효진, 2021; 최진수, 정혜원, 2021; Hodge, Wright, & Bennett, 2018)와 관련된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시기 학업 무기력이 높을수록 저수준 증가집단보다 중간수준 유지집단과 고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무기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열정이 낮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나영, 황혜영, 2020; 전향신, 박분희, 2020)와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 시기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저수준 증가집단보다 고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만족도가 학업열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와 관련된다(권은경, 2020; Datu & King, 2018). 이러한 연구를 볼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그것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 무기력이 낮을수록 학생들은 중간수준 유지집단과 고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록 중간수준 유지집단과 고수준 감소집단이 부적 변화율을 보이지만 중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높은 그릇을 유지하도록 하면 학생들은 높은 학업열정을 갖고 학업성취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준 증가집단에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도는 저수준 증가집단의 초깃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저수준 증가집단의 초깃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수준 증가집단의 변화율에는 삶의 만족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적 변화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교 1학년 학업성취도, 그릇, 우울, 만족도는 중간수준 유지집단의 초깃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그릇, 우울,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중간수준 유지집단의 초깃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교 1학년 학업성취도, 그릇은 변화율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학교 1학년 학업성취도, 그릇이 높을수록 부적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업 무기력은 중간수준 유지집단의 기울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업 무기력이 높을수록 부적 변화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 그릇, 우울, 삶의 만족도는 고수준 감소집단의 초깃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학업성취도, 그릇, 우울,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수준 감소집단의 초깃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적 위축은 부적으로 나타나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고수준 감소집단의 초깃값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무기력, 삶의 만족도는 고수준 감소집단의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1학년 시기 학업 무기력,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적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종단적 변화에서 다양한 잠재집단 유형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학업열정과 관련한 연구들은 단일시점에서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하거나, 종단적 관점에서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집단을 가정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이자영, 2013; 임효진, 2021; 정혜원 외, 2021). 하지만 본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학업열정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저수준 증가집단, 중간수준 유지집단, 고수준 감소집단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업열정은 중간수준 유지집단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고수준 감소집단, 저수준 증가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열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에서는 학업 열정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1학년 시기에 학업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학업성취도, 그릿이 높을수록 저수준 증가집단에 비해서 중간수준 유지집단과 고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저수준 증가집단보다 고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무기력이 낮을수록 중간수준 유지집단과 고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준 증가집단의 초깃값은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적 변화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그릿, 삶의 만족도는 중간수준 유지집단과 고수준 감소집단의 초깃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그릿이 높을수록 중간수준 유지집단의 부적변화율은 감소하지만, 학업 무기력이 높을수록 중간수준 유지집단의 부적변화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무기력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수준 감소집단의 부적변화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업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들의 영향을 집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 시기 학업열정의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변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업열정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업열정의 종단적 궤적에 따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권은경. (2020). 중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관련 변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1), 123-127.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나영, 황혜영 (2020). Lasso 별점회귀모형을 적용한 중학생의 학업열의 관련 변수 탐색. **교육문화연구**, 26(6), 337-355.
- 김명자, 손은령. (2018).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9), 1-20.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종건, 홍지영. (2021). 우울과 지연행동(학업, 일반)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1187-1211.
- 김종백, 김준엽. (2014). 교사와 학생의 교사-학생 관계 지각이 학생의 수업이해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직무만족과 학생의 또래 및 부모신뢰를 배경으로. **한국교원 교육연구**, 31(3), 245-267.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 척도의 타당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 원 교육논총**, 35(3), 63-74.
- 남지영, 정혜원. (2021). 중학생의 친구 및 교사관계와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1279-1298.
-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 신윤임, 강태석. (2020).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0(11), 911-932.
- 이명진, 봉미미. (2013).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연구**, 51, 77-105.
- 이유리, 박은정, 이성훈. (2015). 중학생의 학습습관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도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621-641.
- 이자영, 이상민. (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 이자영. (2013). 학년에 따른 학업열의의 잠재평균 차이 검증. **청소년학연구**, 20(2), 1-21.
- 이정림,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소아. (2015). **한국아동패널 2015(2015-3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임효진. (2021). 그릿과 학업열의의 유형 및 자존감의 예측력. **교육학연구**, 59,

79-104.

- 전향신, 박분희. (2020). 어머니그릿, 자녀그릿,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8), 329-355.
- 정혜원, 전현정, 김아름. (2021). 청소년의 그릿 및 학업열의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1), 117-146.
- 조홍식, 정병근. (2011). 체육수업의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의 도움요청과 수업참여 태도와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0(2), 661-675.
- 최은영, 윤영. (2021).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업 열의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35(1), 121-148.
- 최정윤, 임효진. (2021).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921-950.
- 최진수, 정혜원. (2021). 청소년 체험활동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1299-1318.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1(3), 329-341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and Row.
- Berlin, K. S., Williams, N. A., & Pe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 Cacioppo, J. T., Gardner, W. L., & Berntson, G. G. (1999). The affect system has parallel and integrative processing components: Form follows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5), 839-855.
- Collins, L. M., & Lanza, S. T. (2013).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York: John Wiley.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1), pp. 93-94
- Datu, J. A. D., & King, R. B. (2018). Subjective well-being is reciprocally associated with academic engagement: A two-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9, 100-110.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Sandvik, E., Pavot, W., & Gallagher, D. (1991). Response artifac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35-56.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hita, M., Brenda, J. L., Jennifer, L. M., & Amy, F. F. (2012). Engagement across developmental periods. In L. C. Sandra, L. R. Amy, & W. Cathy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tudent Engagement* (pp. 45-63). New York: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 Duncan, T. E., Duncan, S. C., & Strycker, L. A. (2006).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 York: Lawrence Erlbaum.
- Grimm, K. J., Ram, N., & Estabrook, R. (2017). *Growth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and multilevel modeling approaches*. New York: Guilford Press.
- Grimm, L. G., & Yarnold, P. R. (2000).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llberg, U. E., Johansson, G., & Schaufeli, W. B. (2007). Type A behavior and work situation: Associations with burnout and work engagement.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8(2), 135-142.
- Hodge, B., Wright, B. J., & Bennett, P. (2018). The role of grit in determining engagement and academic outcomes for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9, 448-460.
- Howell, A. J. (2009). Flourishing: Achievement-related correlates of students' well-being.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1), 1-13.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Muris, P., Meesters, C., & van den Berg, S. (2003).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s correlates of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in normal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2(2), 171-183
- Muthén, B., & Muthén, L. (2017). *Mplus user's guide*. CA: Muthén & Muthén.
- Neff, K. D. (2011). Self-compassion, self-esteem, and well-be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1), 1-1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K. H., & Burgess, K. B. (2001). Social withdrawal and anxiety. In M. W. Vasey & M. R. Dadds (Eds.),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pp. 407-43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lanova, M., Llorens, S., Cifre, E., Martínez, I. M., & Schaufeli, W. B. (2003). Perceived collective efficacy, subjective well-being and task performance among electronic work groups: An experimental study. *Small Group Research*, 34(1), 43-73.
- Salanova, M., Schaufeli, W. B., Llorens Gumbau, S., Silla, P., & Grau Gumbau, R. M. (2000). Desde el burnout al engagement.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2), 117-134.
- Schaufeli, W. B., Salanova, M., González-Romá, V., & Bakker, A. B. (2002).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1), 71-92.
- Veenhoven, R. (2009) How do we assess how happy we are? In A. K. Dutt, & B. Radcliff(Eds.),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Toward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pp. 45-69). UK: Edward Elger Publishers.
- Wang, J., & Wang, X.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New York: Wiley.

‘중학생들의 학업열정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과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변인의 영향’에 대한 토론문

이 은 주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학업열정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물론이고 다양한 학업적,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열정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비록 많은 학생들이 학업열정의 감소를 나타낼지라도, 학업열정이 감소하지 않거나 또는 학업열정이 오히려 증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업열정 변화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학업열정의 감소를 막고, 더 나아가 학업열정의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의 학업열정의 변화 양상에 따라 잠재집단을 구분하고, 이러한 집단 구분과 관련된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등의 예측효과를 검증하였다.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업열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열정의 감소를 나타낼지라도 학업열정의 증가를 보이는 학생들도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점에서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리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잠재집단을 3개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저수준 증가집단, 중간수준 유지집단, 고수준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런데 중간수준 유지집단의 경우, 변화율의 평균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여 학업열정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런데 연구자는 이 집단의 초기값 평균이 중간수준을 유지하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평균이 완만한 감소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 집단을 ‘중간수준 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물론 세 잠재집단 간 대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는 감소의 폭이 미미하기에 이 집단을 유지집단으로 명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결과와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집단의 학업열정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연구자는 논의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열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연구자가 93%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업열정 변화양상을 “중간수준 유지집단”이라고 명명하며 이들의 학업열정이 유지된다고 해석한 점과 배치된다.

둘째, 학업열정의 발달양상에 따라 구분된 세 집단의 특징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저수준 증가집단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는 이들의 학업열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중간수준 유지집단에 대한 교사의 관심, 수업의 효과를 고려한 교육적 처치는 학업열정 기를기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수준 감소집단은 수업 시간에 학업열정을 높일 수 있도록 돌보는 교육과 더불어 긍정적인 피드백은 이들의 학업열정을 유지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각 집단별 학업열정을 높이기 위해서 왜 저수준 증가집단에게 칭찬과 격려가, 중간수준 유지집단에게 교사의 관심과 수업효과를 고려한 교육적 처치가, 그리고 고수준 감소집단에 학업열정을 높일 수 있도록 돌보는 교육과 긍정적 피드백이 중요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결과에 기반한 것인가?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 각 집단별 영향요인으로 인지, 동기, 정서, 안녕감 등의 예측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본 연구의 검증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접근일 것이다.

셋째, 연구자가 제시한 이 연구의 의의 중 하나로 “본 연구는 학업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들의 영향을 집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의 의의는 다양한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의 영향을 학업열정 변화양상 집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본 점 그 자체에 있는 것일까? 그보다는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구자가 확인하고 검증한 내용과 의미를 통해 연구의 의의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인지, 동기, 정서 및 안녕감 변인들 중에서 집단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나타낸 변인, 또는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변인이 다르게 나타난 점 등에 대해 연구자의 해석과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학업열정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현장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열정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학업열정이 오히려 증가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연구결과는 매우 희망적이다. 이들은 어떻게 학업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무엇이 이들의 학업열정을 키워주는지 추가적인 탐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종단적 분석

권순달*

〈국문 초록〉

학교 교육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특정 몇 개 교과목이 아닌 학교 학습 전체 결과로 정의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KCYPS에서 수집한 2018(1차 년도), 2019(2차 년도), 2020(3차 년도)종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기평가 변화의 추세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수의 변화 차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이 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2,3학년의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한 문항의 자기평가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업성취도 자기평가를 위한 다양한 문항을 활용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초빙교수, sdkwon@ewha.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시험 결과 얻어진 원점수(raw score)에 대한 스스로 판단보다, 같은 학년 또는 또래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을 때 성취감을 가진다. 즉 다른 친구들의 성적과 비교하여 점수가 높고 등수가 앞서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해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성적이 낮게 되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하여 나타내는 규준참조평가는 진정한 학습 효과를 평가하기보다 경쟁만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권순달, 2016). 그리고 상대적 서열에 의한 학생평가는 학습의 성공자보다 실패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권순달, 2020).

규준참조평가 비판과 함께 최근 학교 현장에서 성취기준에 의한 준거참조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물론 성취 목표의 도달 기준에 의한 준거참조평가를 통해 규준참조평가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규준참조평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준거참조평가도 설정된 성취기준에 의해 목표 도달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판단에 의한 평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학교 현장의 평가는 평가 목적, 준거 등이 외부에서 주어지게 되고, 평가 결과 또한 수량화되어 비교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수업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학습량을 조절해가는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 또는 자기조정학습 등이 이러한 학습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에서는 학습자 중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습에 대한 평가는 기존 교사 중심의 외부 평가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수업은 수준을 고려하여 하고 있으나, 평가는 학습자 개인의 수준을 무시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평가 방법으로 중간 및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학생들이 학습계획 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기평가를 하게 되면 학업성취도와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평가에 의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고무적이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공부할 때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자기평가를 하게 되면서 모르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문소정, 2020). 이와 같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스스로 공부를 하려는 학습동기 또한 향상될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자기평가(self assessment)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목적은 학령기의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한 집단은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다른 집단은 청소년인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일부 교과목이 아닌 전체적인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2. 연구문제

- 1)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변화는 어떠한가?
- 2) 성별은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학습하고 성취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라 교육목표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결과는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한 국가의 교육 성취 파악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국가 교육 비교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PISA가 대표적인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의 예이다. 최근에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는 단순한 교육과정의 달성도를 확인하는 지식보다는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 중고등 학생들이 성취도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상의 성취도 평가(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도 몇몇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학업성취도 연구는 크게 2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와 같이 국가, 지역이 자료를 가지고 실시하는 국내·외의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와 학업성취도에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연구들은 학업성취도를 독립 및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상관 및 인과 관계를 밝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수행한 최근 연구로 박혜연(2021), 추소영(2021),

유지원(2020), 서진아(2019) 등이 있으며, 학업성취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수행한 연구는 전자에 비하여 많지는 않으나 김민성(2005), 임선형(2012) 등이 있다. 최근 학업성취의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곽수란·이기중, 2017).

그런데 학업성취도 관련 대부분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교육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있다. 즉 종합적인 학업성취도가 아니라, 단위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학업성취도라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란 넓은 의미에서 학교에서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교육의 목표 달성도이며, 학생이 취득한 성적과 더불어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신세호, 1983). 학업성취도는 학생, 교사 또는 기관이 장단기 교육 목표를 달성한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중등학교 졸업장 및 학사 학위와 같은 교육 기준의 완료를 의미하기도 한다(Wikipedia, 2021).. 한편 학업성취도는 개인이 주어진 수업 환경에서 활동의 핵심인 구체적인 목표를 나타내주는 수행결과라고 할 수 있다(Oxford Bibliographies, 2021). 결국 학업성취도란 공식적 교육 경험의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Moore, 2019). 대부분의 학업성취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국제학업성취도 과목(예 수학, 과학)을 활용하거나(박혜연, 2021),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부 과목(국어, 영어, 수학)을 학업성취도 구성 변수로 선택하여 분석하고 있다(김은진, 2013). 이는 학업성취도에 지적, 행동적, 심리운동적 영역을 포함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일부 몇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학습 목표의 도달을 의미하며,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교육에서 배운 총체적인 학습 결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자기평가

학교 교육에서 성취나 수행에 관한 평가에서 평가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스스로 평가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와 외부의 평가자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사 또는 외부의 제3자가 제작한 문항이나 방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제작된 평가 도구가 사용되고, 평가 결과 또한 대부분 양적으로 표기되며 비교에 의하여 해석되고 있다. 비교에 의한 평가는 규준에 의하여 해석되기 때문에, 상대적 순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점수를 가지고 비교하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표기되는 점수와 등급은 규준참조평가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학습의 과정

및 결과 평가에서 학생들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하는 자기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자기평가(self assessment)는 자체평가(self evaluation)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체평가란 프로그램 평가에서 피평가기관이 외부에서 주어진 평가 영역, 준거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달리, 전자의 자기평가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권순달, 2020). 주어진 과제의 난이도, 자신이 사용한 학습 전략,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의미한다(구인환, 2006).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인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자기평가로 사용하고 있다(박정, 2019; 홍소영, 2018; 황은희·백순근, 2008; 김민성, 2005).

한편, 자기평가를 학습의 진행과정을 평가하여 도움을 주는 자기평가(self assessment)와 학습이 종료되었을 때, 즉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자기평가(self evaluation)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윤주, 2008). 자기평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으나, 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자기보고 기술 형태의 자기평가는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에게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기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척도형 자기평가와 기술형 자기평가를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권순달, 2020).

표 1. 자기평가 유형 비교

	척도형	기술형
특징	양적 방법	질적 방법
장점	간단하게 할 수 있음	평가결과가 구체적임
단점	구체적인 평가 불가능	언어 및 문장력에 좌우
활용	체크리스트, 평정법	성찰일지, 학습일기(지)

위의 표 1에서 척도형에는 자기 평정(self-rating), 자기 채점(self-marking), 채점 기준표(rubric) 등이 사용되고 있다(Brown & Harris, 2014).

3. 학업성취도와 자기평가

자기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홍소영, 2018).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평가를 독립변인,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문소정, 2020; 이민지, 2018; 김윤주, 2008). 물론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기평가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의적 행동 특성에

서 특히 불안이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다(박지숙, 2009).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의 자기평가 형태는 대부분 척도형이며, 이러한 척도는 교사나 외부의 전문가에 의해서 제작되어 실시되고 있다(문소정, 2020). 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자기평가는 자기평가라고 하기 어렵다. 외부에서 제작된 자기평가 문항이나 척도에 응답하거나, 사전에 제작된 채점 기준표(rubric)에 따라서 채점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를 수행할 때, 참된 의미의 자기평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특정 교과가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적, 정의적, 심리운동적 영역을 포함하고, 학교 생활에서 학습한 모든 교과 학업성취 정도에 대한 자기평가를 간단한 척도형으로 실시하였다. 언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성찰일지 등을 활용한 질적인 기술형 자기평가 유형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연구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를 스스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의 특성상 자기평가에 대한 훈련이나 사전 학습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분석 대상은 KCYPS의 종단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18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다단계화집락표집 방법으로 표집되었으며, 개별 면접으로 수집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2019년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2020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조사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 대상이 감소한 이유는 응답 거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패널 자료의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KCYPS 2018-2020 원패널

년도 성 구성	2018			2019			2020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초등학생	1313	1294	2607	1221	1216	2437	1211	1200	2411
중학생	1405	1185	2590	1318	1120	2438	1278	1106	2384

위의 표 2에서 학업성취 문항의 척도 ‘잘 모르겠음’에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하여, 실제 자료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대상

년도 성 구성	2018			2019			2020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초등학생	1128	1110	2238	1128	1123	2251	1128	1110	2238
중학생	1196	1019	2215	1228	1060	2288	1230	1062	2292

2. 연구모형

자기평가 3년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된 잠재성장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모형에서 2019년과 2020년에 공분산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 모형으로 개발하였다. 본 모형은 무조건잠재성장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분석결과 초기값과 기울기가 유의미하다면, 성별을 추가하여 조건잠재성장모형으로 확대할 것이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학업성취도 측정도구는 KCYPS에서 제공된 패널 자료에서 학업성취도 관련 조사 내용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의 대영역은 개인발달과 발달 환경이며, 개인발달의 중영역은 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신체발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지적발달의 소영역인 학업성취 및 학업태도 중에서 학업성취 항목을 선택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위의 조사 내용과 항목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학업성취도 조사항목의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문항을 선택하였다.

표 4. 측정 영역 및 내용 구성 체계

조사영역			조사항목	포함여부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초등	중등
개인발달	지적발달	학업성취	전교과 성취도의 주관적평가	●	●
			학업성취만족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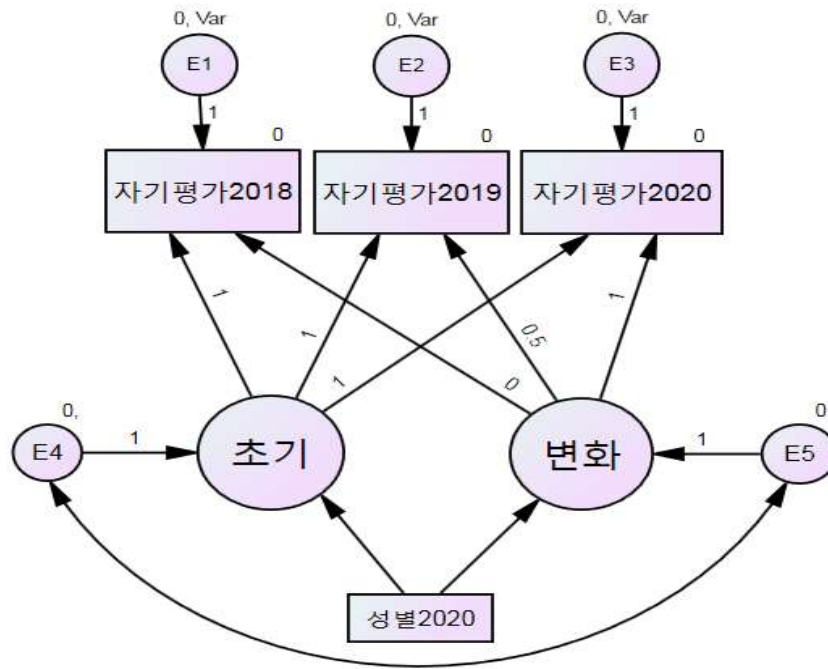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잠재성장모형

위의 표 4의 조사 항목 중 전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문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동일하게, “지난 학기 전 과목의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되어 있으며, 응답은 6점 척도 - “매우 못함 1”, “못함 2”, “보통 3”, “잘함 4”, “매우 잘함 5”, 그리고 “잘 모르겠음 6”- 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여기서 “잘 모르겠다”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4. 분석방법

동일 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실험연구의 반복측정설계 분석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복측정설계에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ANOVA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ANOVA분석은 오차분산이 동일하고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실험 설계가 엄격하지 않다면 이러한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런데 잠재성장모형은 오차변수에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기평가의 3년 간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초등학생, 중학생의 3년 간 자기평가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여 변화

추세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자기평가 점수 변화를 학년(2018년→2019년→2020년)에 따른 무조건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여 초기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면 성별을 고려한 조건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여 적합도(goodness of fit)를 비교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1. 초등학교 자기평가 변화

2018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2019년 초등학교 5학년 2020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자기평가 점수 변화는 다음과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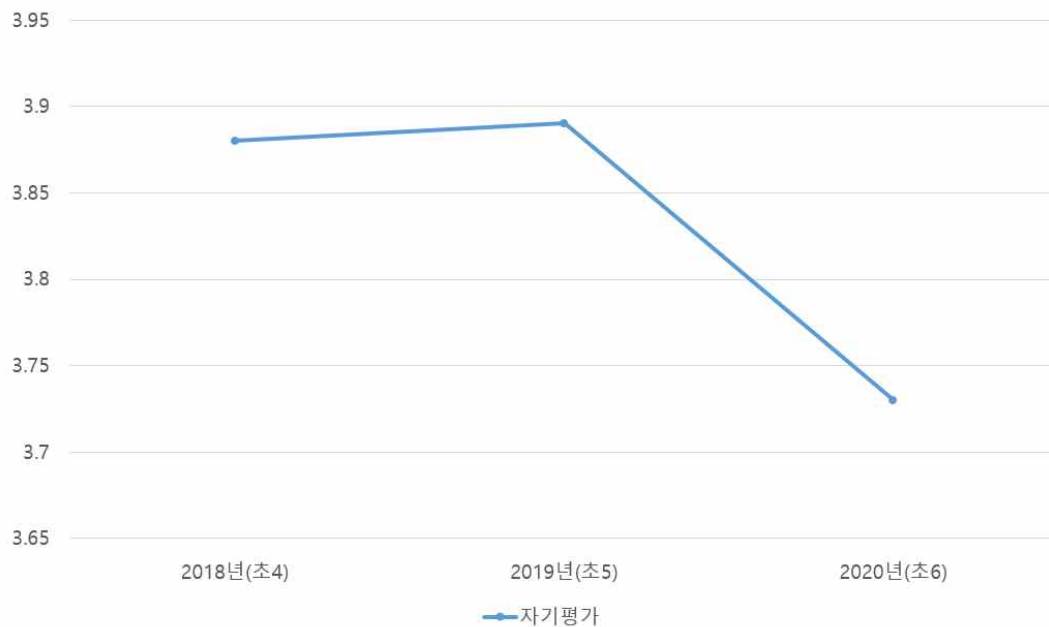


그림 2. 초등학교 3년 간 자기평가 변화

위의 그림 2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점수는 3.88, 1년 후 5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점수는 3.8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그리고 2년 후 6학년 학생들의 자기평가 점수는 3.73으로 크게 낮아졌다. 초등학교 4학년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점수의 차이를 무조건잠

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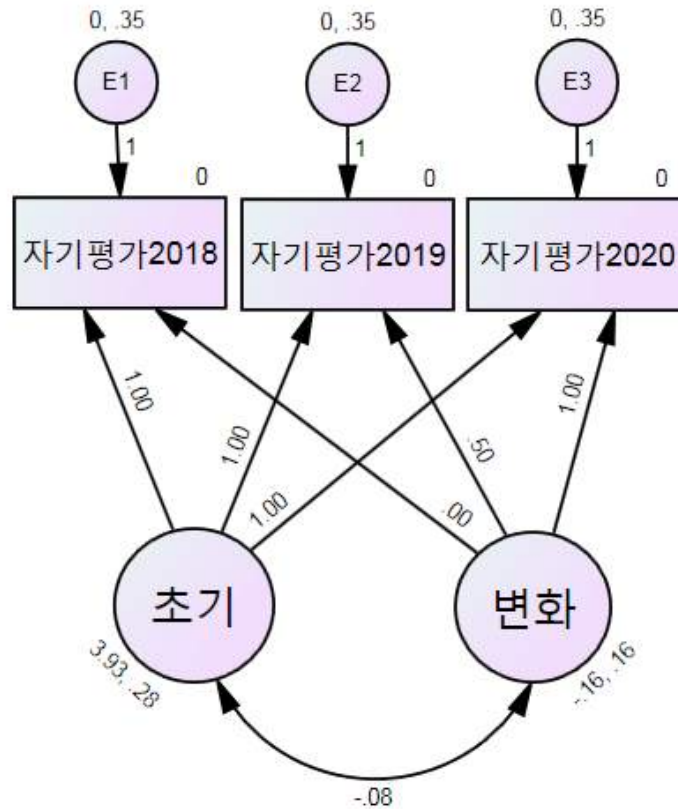


그림 3. 초등학교 자기평가 무조건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그림 3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초등학교 자기평가 무조건잠재성장모형 적합도 평가

모형	χ^2	df	p	NFI	CFI	TLI	RMSEA	초기치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조건잠재성장모형	24.399	3	.000	.97	.97	.97	.06	3.93*	.28*	-.16*	.16*	-.08*

주) * $p < .05$

위의 표 5에 의하면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자기평가 점수는 3.93이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화율의 평균과 공분산이 모두 음수로 나타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χ^2 값을 제외한 다른 적합도 지수는 모두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조건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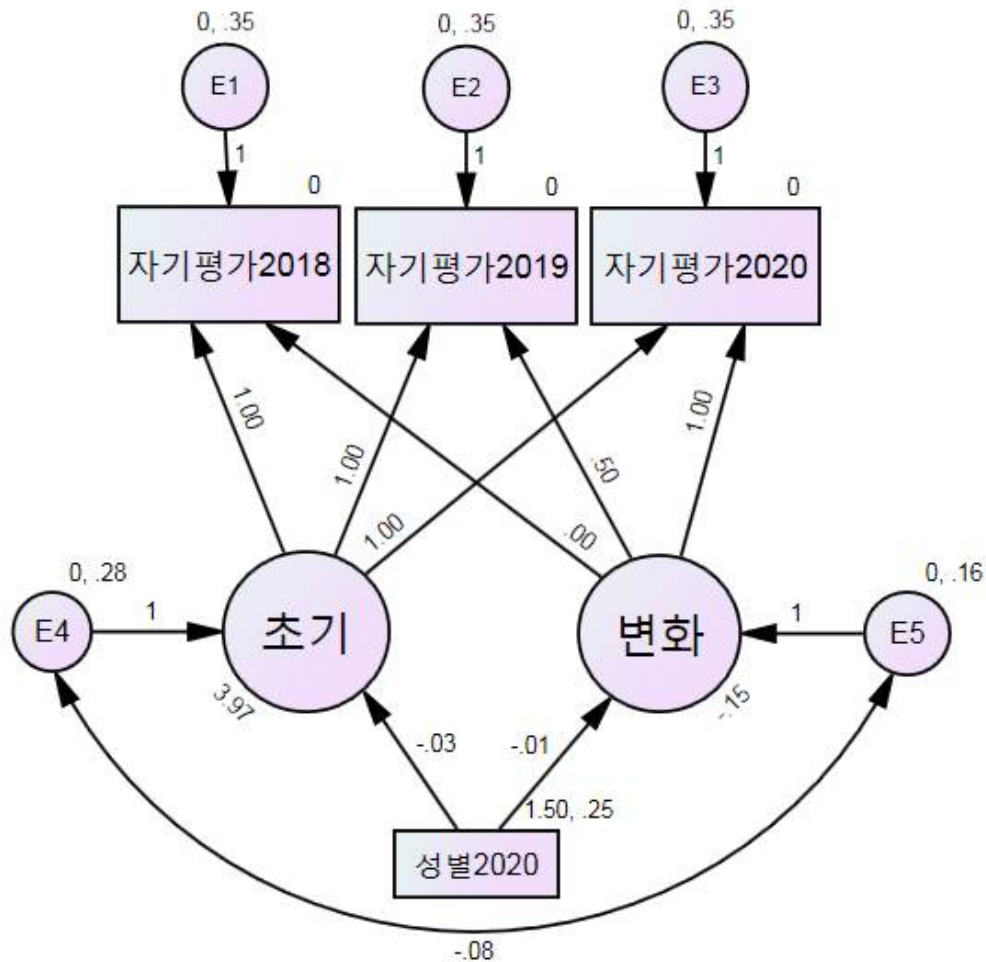


그림 4. 초등학생 자기평가 조건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그림 4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6. 초등학생 자기평가 조건잠재성장모형 적합도 평가

모형	χ^2	df	p	NFI	CFI	TLI	RMSEA
조건잠재성장모형	31.229	4	.000	9.58	9.63	9.44	.058

위의 표 5에 의하면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자기평가 점수는 3.93이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화율의 평균과 공분산이 모두 음수로 나타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χ^2 값을 제외한 다른 적합도 지수는 모두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초등학생 자기평가 조건모형 분석 결과

	경로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초기값 ← 성별	-.026	.034
기울기 ← 성별	-.007	.042

표 7의 결과를 보면 성별은 학업성취도 자기평가의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 중학생 자기평가 변화

2018년 중학교 1학년, 2019년 중학교 2학년, 2020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기평가 점수 변화는 다음과 그림 4와 같다.

위의 그림 5에 의하면 중학교 학생들은 1학년의 경우 학업성취도의 자기평가 점수가 3.41로 나타났으나, 2학년이 되면서 3.31로 낮아졌으며, 3학년이 되어서도 더 낮아진 3.28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중학교 1학년이 경우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어 초등학교처럼 지필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2학년이 되면서 여러 교과에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가 실시되어 전체적으로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성적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점수의 차이를 무조건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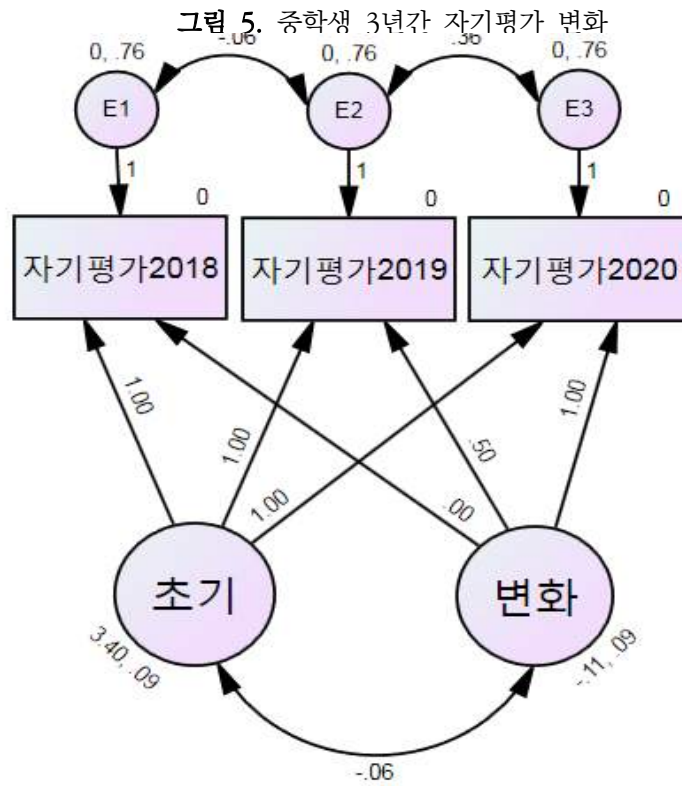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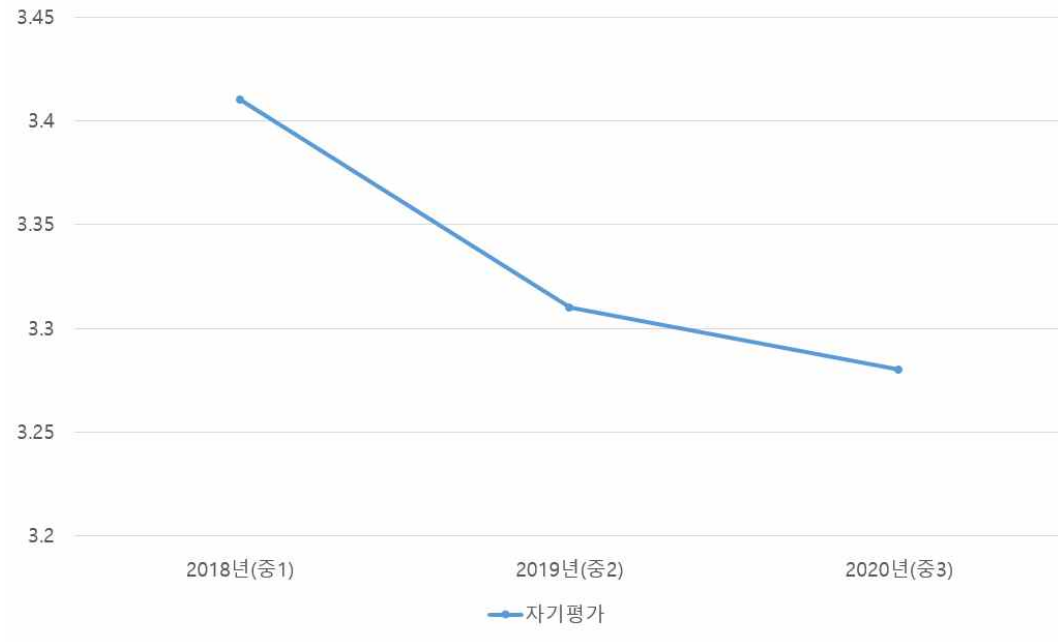


그림 6. 중학생 자기평가 무조건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표 8. 중학생 자기평가 무조건잠재성모형적합도 평가

모형	χ^2	df	p	NFI	CFI	TLI	RMSEA	초기치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조건잠재성장모형	1.74 5	1	.187	.99	.99	.99	.01	3.40*	.09*	-.11*	.09*	-.06*

주) * $p < .05$

위의 표 8에 의하면 2018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자기평가 점수는 3.40이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화율의 평균과 공분산이 음수로 나타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학생의 자기평가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조건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표 9. 중학생 자기평가 조건잠재성모형적합도 평가

모형	χ^2	df	p	NFI	CFI	TLI	RMSEA
조건잠재성장모형	1.746	2	.418	.997	1.00	1.00	.000

위의 표 9에 의하면 2018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자기평가 점수는 3.40이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화율의 평균과 공분산이 음수로 나타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학생의 자기평가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중학생 자기평가 조건모형 분석 결과

	경로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초기값 ← 성별	-.065	.035
기울기 ← 성별	.139*	.052

주)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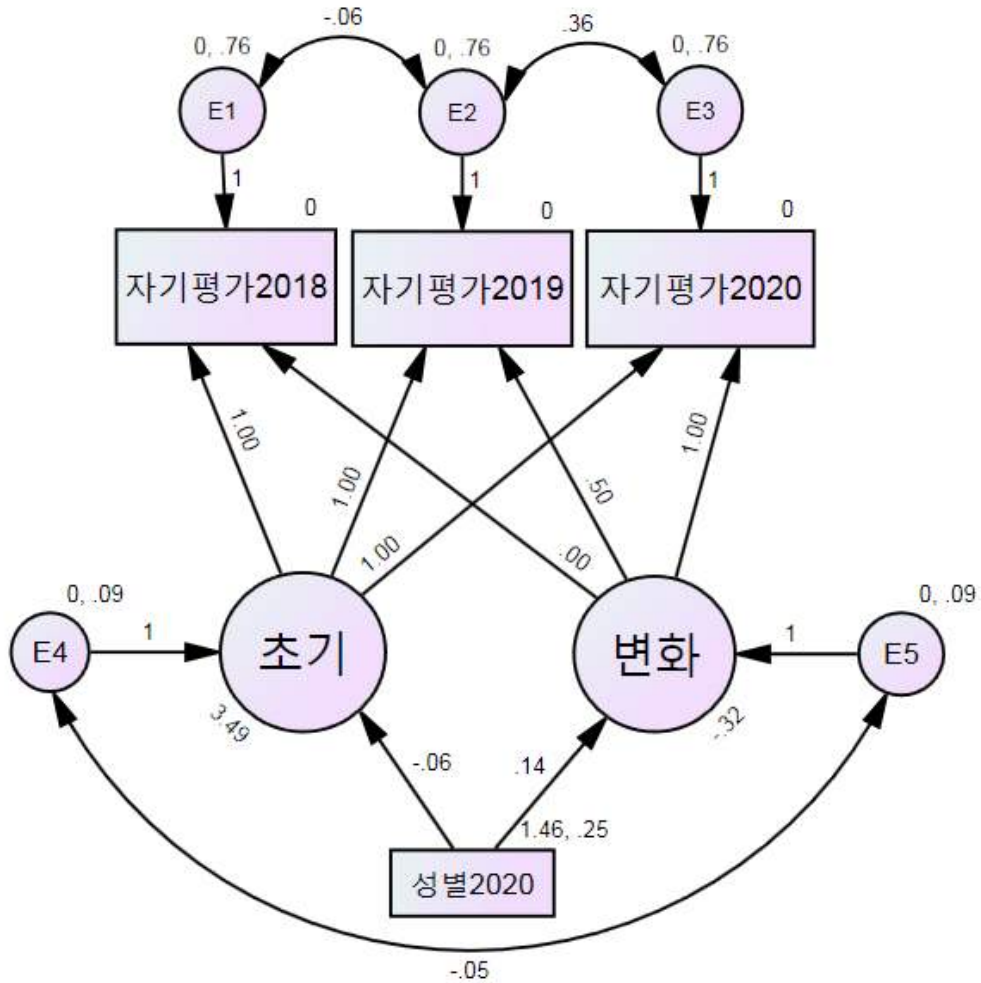


그림 7. 중학생 자기평가 조건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표 10의 결과를 보면 성별은 학업성취도 자기평가의 기울기에서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 한 반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학급편성이 매우 다양하다. 최근 중학교의 경우 대부분 남녀공학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남중, 여중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그리고 남녀공학이라고 하지만, 실제 학급 편성은 남학생, 여학생을 구분하여 학급을 편성하기도 한다.

V. 결론

1. 논의

학업성취도는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업성취도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학업성취도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이다. 대부분의 학업성취도 연구에서는 일부 몇 교과(국어, 수학, 과학 등)의 성취도 점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자유학기제)에서는 지필검사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교과의 학업성취도 점수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학업성취도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아닌 초·중학교 학생들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 결과의 총체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학업성취도를 위하여 별도 제작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에 대한 간단한 5단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도 척도형 자기평가(self assessment)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CYPS에서 수집한 종단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의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2019년 초등학교 5학년, 2020년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2018년 중학교 1학년, 2019년 중학교 2학년, 2020년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문항을 사용하였다. 3년 간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의 차이를 ANOVA가 아닌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는 학년이 증가될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자기평가 점수는 3.93이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 역시 학년이 증가될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기평가 점수는 3.4이었으나 학년이 증가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의 자기평점수가 낮았으며, 중학생들의 2,3학년이 되면서 급격하게 낮아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들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교과목 지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학기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지필고사로 실시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성취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교과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

수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건잠재모형 분석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기평가에 성별은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학교 학생들의 분석에서 성별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즉 자기평가가 학년이 증가함에 어떻게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종단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요한 것은 동의하지만, 무엇을 학업성취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교과목이 아닌, 총체적인 학교 학습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학업성취도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과목의 성취도를 사용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평가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기준이나 준거를 사용하여 비교하여 평가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자기평가를 간단하게 척도형태로 할 수 있고, 성찰 일지, 학습 일기와 같이 질적인 방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상 간단한 척도의 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자기평가 장면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진술하거나 평가한다면 의미있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수란·이기종(2017).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학업성취 변화 추정**.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제8주제.
- 권순달(2020). 자기평가와 공부요인의 구조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33(4), 945-966.
- 권순달(2018). **평가 의미 분석**. 한국교육평가학회 2018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15.
- 권순달(2016). **교육평가**. 경기:양서원.
- 권순달(2013). 평가의 오용과 남용. **교육평가연구**, 26(4), 739-754.
- 권예지(2016). **초등영어 학습자의 학습 진단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

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은실(2020). **초등학생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 관여가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동기의 매개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인환(2006).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서울: 신원문화사.

김민성(2005).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가 쓰기 학습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주(2008). **자기평가 보고서가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지(2013). **학업상황의 정서조절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와 학습전략을 매개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동해인(2019). **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학업적 스트레스 및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소정(2020). **자기평가를 통한 과정중심 평가가 수학학업 성취도와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수백(2015).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박 정(2019).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수업과 학생 자기평가 의미 탐색**. *교육평가연구*, 32(3), 421-440.

박지숙(2009). **수학학습에서 반성적 사고를 수반한 자기평가학습이 수학 불안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연(2021).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생 및 교사변인들의 비선형 영향 분석: 다변량 적응 회귀스플라인 모형의 적용**. 성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미영(2012).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 측면에서 RME 학습교재 사용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진아(2019). **학습자 변인이 일반계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세호(1983). **교수요인과 학업성취**. 서울: 교육출판사.

양숙녀(2019). **중학생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은실(2005). **자기평가 중심 학습이 초등학생의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지원(2020). **대학생의 학습공동체 참여 양상에 따른 학업성취 변화 분석: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1(1), 29-52.

이민지(2018). **학습목표 기반의 자기평가가 초등영어학습자의 정의적 영역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선영(2012). **학업성취도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비례 추론 능력 및 전략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윤희·봉초운·홍세희(201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5(1), 181-210.

조은진(2018). **아동의 성취목표와 학업적 자기모니터링,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연희(1999). 자기평가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한국 대학생의 영어 청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5(2), 73~90.

추소영(2021). **객관적·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KCYPS 2018 조사개요/데이터**.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홍소영(2018), 학생 자기평가의 학습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평가연구**, 31(1), 309-331.

황은희·백순근(2008). 중등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비교연구, **교육평가연구**, 21(2), 53-74.

황은경(2002). **초등영어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www.oed.com.

www.wikipedia.org.

Boud, D. (1995). *Enhancing learning through self assessment*. London: Kogan Page.

Brown, G. T. L., & Harris, L. R. (2014). Student self-assessment. In J. H. McMillan (ed.). *Research on Classroom Assessment* (pp.367-393). California: Sage Publication.

Fitzpatrick, J. L., Sanders, J. R., & Worthen, B. R. (2003). *Program Evaluation: Alternative Approaches and Practical Guidelines*. 3d ed. Boston: Allyn and Bacon.

Brown, G. T. L., & Harris, L. R.(2014). *Student self-assessment*. In J. H McMillan (ed.). *Research on Classroom Assessment*. California: Sage Publication

Moon, J. & Schulman, L. (1995). *Finding the connections: Linking assessment, instruction and curriculum in elementary mathematics*. Portsmouth, NH: Heinemann.

Moore, P. J.(2019).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Psychology*, 39;8, 981-983,DOI: 10.1080/01443410.2019.1643971

Stufflebeam, D. L. & Shinkfield, A. J. (2007). *Evaluation Theory, Models, and Applications*..CA:Jossey-Bass. <http://tutorials.istudy.psu.edu/testing/testing2.html>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종단적 분석’에 대한 토론문

이현주

배재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KCYPS에서 3개년(2018, 2019, 2020년도)에 걸쳐 수집한 종단자료를 통해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학습결과의 총체에 대하여 학생 자신이 평가하는 자기평가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하고 있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변화 양상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의 선정 등 학교 급 간의 교육과정 운영 상 특징 등 문제점과 차이점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외부 평가 기준에 맞춘 수동적, 상대적 평가가 아닌 자신이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자기평가를 통해 3년간 스스로의 학습전략이나 성공과 실패의 경험 등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학업성취능력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연구자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 교과가 아닌 학교 교육과정 전반(지적, 정의적, 심리운동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을 통합적으로 진단한 결과의 추이를 학년별 흐름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자기점검을 통한 자기평가 역시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을 품고 있는 연구결과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안과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집단의 3개년 종단연구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겠다는 뚜렷한 연구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

나 궁극적으로 이 연구가 지향하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 즉 개별 교과가 아닌 교육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를 왜 분석해야 하는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자면, 초, 중학교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한다든지, 평가방법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학생들의 자기평가 변화의 원인을 규명한다든지 등이다.

둘째, 두 집단의 3개년 변화추이를 비교, 분석하겠다는 연구의 목표 외에 2단계 모형에서는 성별을 포함시켜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성별이 초등학교 자기평가의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아니었고, 중학교의 경우 유의미한 예언변인이었다. 그런데 남녀학생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자기평가가 초기값과 달리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기울기의 차이를 생략하고 있다.

셋째, 초등학교의 경우 4, 5학년에 비해 6학년의 자기평가 점수가 확연히 낮아졌고, 중학교의 경우 역시 1, 2, 3학년 지속적으로 학업성취도 자기평가 점수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은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학업성취도 저하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자기평가 점수 하락 원인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는 수학학습을 포기하는 학생이 평소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가는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영준, 2018). 최근 보고된 연구(정윤희, 2018)에 따르면, 수학학업성취의 성장패턴 형태에 대한 종단연구 결과 합의된 결론은 아니지만 최근 연구를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시기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성장률이 떨어지는 비선형 곡선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오태현, 2018)에서는 2014, 2015 경기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통해 중학교 국어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성적 분위로 구분하여 자유학기제 경험여부에 따라 비교했을 때,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학업성취도를 개별 교과목이 아닌 총체적인 학교학습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점수를 활용했다는 측면은 학생들이 인식하는(혹은 체감하는) 교육과정 난이도를 평가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따라서 원론적인 이야기 일 수도 있으나 교육과정 개발 시 충분한 요구분석부터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대한 논의 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 참고문헌

·오태현(2018). **중학교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 효과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윤희(2018). **교실수업환경, 자기효능감 및 수학학업성취의 종단적 구조모형 검**

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영준(2018). **수포자의 실태 분석 및 학생의 시점으로 해결방안 탐색**.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잠재전이분석을 통한 중학생의 학년별 학업 무기력 변화 및 영향요인 검증

노언경*·송주연**·우연경+***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년별 학업 무기력 유형 분류와 전이 양상을 확인하고, 전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2018의 중학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는 2,325명이다. 잠재전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별 잠재프로파일은 ‘무기력 저수준 집단’,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 ‘무기력 고수준 집단’,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3학년의 경우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의 4개가 각각 도출되었다. 둘째,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학업 무기력 집단의 약 70%가 유형 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학업 무기력 유형의 전이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업 무기력의 유형과 전이 양상 및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학업 무기력, 잠재전이분석,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서울신학대학교 교직부 조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ykwoo@kice.re.kr

I. 서론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학업 무기력은 청소년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발달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연경, 노연경, 2021; Ziegert, Kistner, Castro, & Robertson, 2001). 따라서 예방과 처방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현상이다. 무기력에 빠지게 된 학생들은 학습에 참여하지 않거나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등의 부적응적 행동을 하게 되고(백혜경, 양명환, 2018), 무기력 상태가 길어지면 학업성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김아영, 주지은, 1999; 여태철, 임효진, 황매향, 2017),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 문제로도 이어지게 된다(강혜원, 김영희, 2004; 황미영, 윤미선, 2016). 이와 같이 학업 장면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학업 무기력의 영향력과 예측요인을 검증하는 변인 중심 접근의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 학업 무기력과 관련된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을 분석한 메타연구도 수행되었다(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 2016).

하지만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학업 무기력 현상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학업 무기력은 통제신념 결여와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와 같이 다양한 하위 요인을 가진 개념으로(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하위 요인의 수준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 학생들의 무기력을 유형화하고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 적극적인 예방과 중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 무기력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학업 무기력의 다차원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유형 분류를 시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우연경, 노연경, 2021; 장희선, 2020a). 그러나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인해 평가가 없는 중학교 1학년을 거쳐 교육 제도 안에서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시기를 경험하는 중학생들의 학업 무기력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연구의 수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중학생들의 학년별 학업 무기력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한 개인 중심 접근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업 무기력을 발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업 무기력은 지속적인 실패경험을 통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무기력에 빠지면 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명진, 봉미미, 2013). 그렇지만 사람 중심 접근(Bergman & Magnusson, 1997)을 통해 한 개인의 무기력 유형의 변화 양상을 밝히는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 무기력이 발생되고 심화될 수 있는 중학교 시기 학생들의 무기력 유형의 변화 양상과 변화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시기 학년별 학업 무기력의 잠재집단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둘째, 학업 무기력 잠재집단의 전이는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가?

셋째, 학업 무기력의 전이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업 무기력의 개념과 유형

학습된 무기력은 자신의 행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지각하는 현상이다(Hiroto & Seligman, 1975). 학습된 무기력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자신의 반응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 한다고 믿는 반응-결과 독립성을 지각하게 되면서 형성된다. 즉, 반응-결과 독립성 기대로 생기는 통제신념 결여는 학습된 무기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된 무기력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중에서도 학업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학습된 무기력을 학업 무기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박병기 외 (2015)는 학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된 무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학업 무기력의 하위요인을 통제신념 결여와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의 4가지로 구성하였다. 통제신념이 결여된 학생은 학업상황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무기력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로 이어진다고 본다. 통제신념 결여는 학생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학업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신념이다. 학습동기 결여는 학업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여 학업의욕이 낮은 상태를 일컫는다. 긍정정서 결여는 학업의 과정과 결과에서 즐거움이나 행복감 등 긍정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능동수행 결여는 학업상황에서 자발적이거나 적극적인 수행을 보이지 않는 행동적 특징을 일컫는다. 네 가지 하위요인은 서로 구별되지만 정적으로 높은 상관관을 보인다(박병기 외, 2015).

최근 학업 무기력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통제신념 결여와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 4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학업 무기력을 유형화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는 무기력 상, 중, 하에 해당하는 3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장희선, 2020a). 이는 학업 무기력의 4가지 지표가 구별은 되지만 서로 관련성이 높아 비슷한 수준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학교 2학년 때는 무기력 상, 중, 하 집단 외 1가지 유형이 더 있음을 발견한 연구도 있다(우연경, 노연경, 2021). 4가지 유형을 상세히 살펴보면, 모든 지표에서 낮은 정도를

보이는 학습의욕 집단은 23.7%로 나타났으며, 평균집단은 47.9%였다.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무기력 상 집단은 24.9% 였으며, 통제신념 결여와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는 무기력 상 집단과 비슷한 정도를 보이면서 학습동기 결여가 유독 더 높게 나타난 무기력 상-동기결여 집단은 3.7%로 나타났다. 즉, 2학년 때는 특별히 학습동기 결여를 높이 지각하는 학업 무기력 집단이 소수이지만 등장한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년이 달라짐에 따라 학업 무기력의 유형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종단적 관점에서 개인의 무기력 유형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 학년 별로 학업 무기력 프로파일의 유형이 변화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2. 학업 무기력의 변화

학습된 무기력은 전 생애에 걸쳐 발견되는 현상으로 주로 아동 중·후기에 발달된다고 알려져 있다(이명진, 봉미미, 2013).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 학습된 무기력 성향은 5년 후 학습된 무기력 성향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도 한다(Ziegert, Kistner, Castro, & Robertson, 2001). 이러한 결과는 학업 무기력의 유형 또한 시간이 지나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차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은 1학년과 2학년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학습된 무기력을 보였다고 한다(김민희, 2007). 이 연구의 결과는 학업 무기력을 유형화 했을 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무기력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업 무기력은 어린 시기부터 발현될 수 있지만 중학교 시기 학습된 무기력이 더욱 심화되거나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업성취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대평가가 기준이 되는 상황이 증가하며,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환기 무동기 전이에 대해 살펴본 연구를 보면, 이 시기에 무동기 유형으로 진입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권예지, 이은주, 2019).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업 무기력의 유형 간 전이를 살펴본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 무기력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며, 유형 간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발달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려고 한다.

3.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환경 요인

학업 무기력은 개인 및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학업 무기력과 관련된 개인, 가정, 학교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메타연구 결과를 보면, 학업 무기력은 효능감이나 자신감, 통제성과 같은 개인 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 요인, 교사관계나 교

우관계, 학급풍토와 같은 학교 요인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문주 외, 2016).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개인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자기효능감이다(문은식, 배정희, 2010; 배정희, 강승호, 2008; 우연경, 노언경, 2021). 학업 무기력은 학업에서 지속된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학업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지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는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결여는 무기력을 유발하기도 하며, 자기효능감은 무기력을 보호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김아영, 1997). 기존 학업 무기력 프로파일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학업 무기력의 유형을 구별하는데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이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연경, 노언경, 2021).

가정과 학교에서의 다양한 환경 요인 역시 청소년기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메타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물리적 환경보다는 양육태도와 같은 심리적 환경이 무기력과 상관이 높았다(정문주 외, 2016).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충족 여부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고 있다(김태명, 이은주, 2017).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을 충족시켜주는 자율성 지지와 관계성을 충족시켜주는 따스함, 유능성을 충족시켜주는 구조제공은 긍정적 양육태도로 정의한다. 반대로, 자율성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강요, 관계성을 저해하는 거부, 유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일관성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볼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긍정적 양육태도는 무기력을 낮추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무기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유정옥, 정문경, 2016; Xin, 신태섭, 2021). 학업 무기력 프로파일 연구에서도 긍정적 양육태도 중 하나인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무기력 평균집단이나 높은 집단보다는 무기력이 낮은 학습의욕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연경, 노언경, 2021).

가정 외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 학교를 간과할 수 없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교사관계와 친구관계가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하고도 교사와의 관계는 무기력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Xin, 신태섭, 2021). 교사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는 효능감이나 그릿과 같은 동기를 통해서 무기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배정희, 강승호, 2008; 장수연, 정제영, 2020).

학업 무기력과 다양한 개인, 가정, 학교 요인 간 상관을 살펴본 메타연구를 보면, 학업 무기력은 개인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문주 외, 2016). 그 다음으로 가정 요인과 학교 요인 순서로 이어졌다(정문주 외, 2016). 그렇지만 선

행연구의 대부분이 변인 중심의 연구로, 학업 무기력에 대한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의 예측력을 살펴본 것이다. 최근 무기력을 유형화하는데도 자기효능감이나 부모의 양육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으로 보여주었지만(우연경, 노연경, 2021), 이 연구 역시 학업 무기력의 유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것일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력 유형의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아 발달적 관점에서 유형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중학교 1, 2, 3학년 시점에서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를 지표변수로 하여 각 학년에서의 학업 무기력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학년별 잠재프로파일의 전이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시점 간 잠재프로파일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를 선정하였다. 전이의 영향요인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으로의 전이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값의 평균을, 중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으로의 전이에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값의 평균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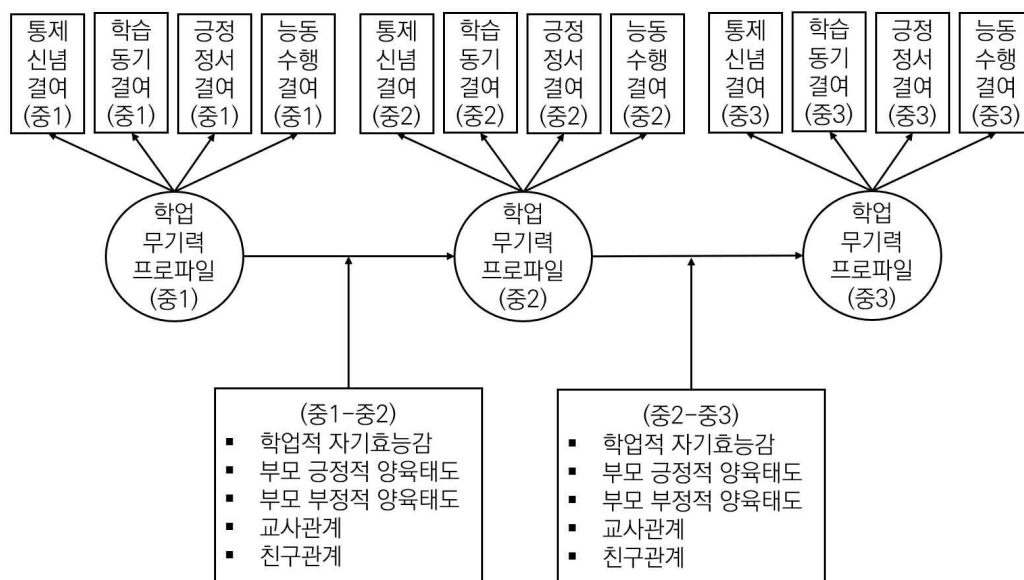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자료 중 중학교 패널 1~3차년도 학생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추출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표본을 매년 반복 추적 조사하는 자료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적합하다. 전체 중학생 2,590명(남학생 1,405명, 여학생 1,185명) 중 세 시점에서 지표변수 하나라도 응답한 학생들 2,325명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설문에 포함된 학생 설문 중 중학교 1, 2, 3학년 시기의 학업 무기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부모 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변인별 문항 수와 문항 예시, 기초통계, 신뢰도 정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지표변인인 학업 무기력은 통제신념 결여 4개 문항, 학습동기 결여 4개 문항, 긍정정서 결여 4개 문항, 능동수행 결여 4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업 무기력 척도(박병기 외, 2015)를 활용하였다. 전이의 영향요인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이자영과 이상민(201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업 열의 척도 중 효능감 요인에 해당하는 4개 문항 평균을 활용하였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 중 부모의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과 관련된 12개 문항 평균을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부모의 거부, 강요, 비일관성과 관련된 12개 문항 평균을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활용하였다. 교사관계는 학생-교사애착관계척도(김종백, 김남희, 2009)의 접근가능성, 민감성, 수용성, 신뢰성과 관련된 14문항을 평균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관계를 의미하도록 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친구관계는 긍정적 관계 8문항, 부정적 관계 5문항으로 구성된 또래관계 질 척도(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에서 부정적 관계 문항을 모두 역채점한 후, 13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모두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5~.92로 모든 측정도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에 활용한 문항 정보

변인	문항 예시	평균			표준편차			α			
		중1	중2	중3	중1	중2	중3	중1	중2	중3	
지표 변인	통제신념 결여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79	1.90	1.90	0.59	0.56	0.58	.87	.83	.85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학습동기 결여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관심도 없다	1.96	2.02	1.99	0.74	0.70	0.68	.91	.89	.88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긍정정서 결여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수업을 듣거나 모둠활동을 하면서 유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1.85	1.94	1.99	0.58	0.57	0.57	.76	.75	.75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능동수행 결여	점수가 잘 나온다 해도 기쁘지 않다									
		시험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지 않는다	1.95	1.97	1.96	0.64	0.66	0.67	.79	.82	.83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학습계획을 짜본 적이 없다										
영향 요인	학업적 자기 효능감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2.43	2.40	2.33	0.73	0.64	0.67	.91	.86	.89
	부모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3.26	3.15	3.16	0.49	0.47	0.45	.92	.91	.90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1.99	2.01	2.03	0.53	0.53	0.54	.87	.88	.89
	교사관계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2.80	2.76	2.78	0.50	0.48	0.44	.91	.91	.90
	친구관계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3.13	3.11	3.11	0.43	0.43	0.39	.85	.85	.83

주. 지표변인의 경우 모든 문항을 제시하였음.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지나 3학년이 되는 과정에서 학년별 학업 무기력의 잠재프로파일 전이 양상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전이분석을 위한 학년별 잠재프로파일 분류 시 시점 간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영향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하며, 영향요인 검증 시 분류 오류율을 통제하는 3단계 접근법(three-step approach)(Nylund-Gibson,

Grimm, Quirk, & Furlong, 2014; Vermunt, 2010)을 적용하였다. 3단계 접근법은 첫 번째 단계에서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각 잠재프로파일에 개인들을 할당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전이분석을 위해서 각 시점에서 3단계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여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개인들을 할당한 후, 시점 간 잠재프로파일 전이를 추가하여 결합하는 세 번째 단계를 실행하였다(Nylund-Gibson et al., 2014). 두 시점의 잠재프로파일 형태가 유사한 경우 두 시점의 잠재프로파일 형태가 동일하도록 제약한 모형이 그렇지 않은 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지 카이제곱 차이 검정(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을 통해 측정 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을 확인한다. 그 이후, 세 시점 간 전이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은 분류 오류율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다항 로짓 계수(multinomial logit coefficient)로, 최종모형에서 동시에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 방법 중 첫 번째 단계에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할 때 하나의 완벽한 통계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정보지수, 모형비교 검증, 분류의 질, 집단별 소속비율의 다양한 통계적 기준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보지수는 AIC(Akaike, 1974), BIC(Schwarz, 1978), SABIC(Sclove, 1987)의 값이 낮을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해석하며, 모형비교 검증인 조정된 차이검정(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LRT)(Lo, Mendell, & Rubin, 2001)과 모수적 부츠트랩 우도비 검정(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BLRT)(McLachlan & Peel, 2000)은 K개 모형에서의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 모형을 지지한다. 분류의 질 entropy(Ramaswamy, DeSarbo, Reibstein, & Robinson, 1993)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며, .8 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한다(Muthén, 2004). 집단별 소속비율은 너무 소규모 집단인 경우에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Jung과 Wickrama(2008)의 기준에 따라 1% 미만인 잠재집단이 존재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통계분석 결과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론적 근거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한다(Nylund-Gibson et al., 2014). 분석은 Mplus 8.6 프로그램(Muthén & Muthén, 1998-2017)을 활용하였고,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Arbuckle, 1996)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학년별 학업 무기력 유형 분류

1)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학업 무기력 유형 전이를 파악하기 이전에 각 시점의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잠재프로파일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증가시키며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 중학교 1, 2, 3학년 모두 정보지수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낮은 값을 보였으며 4개와 5개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고). 모형비교 검증 결과, BLRT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LMRLRT는 중학교 1, 2, 3학년 모두 잠재프로파일 수가 5개일 때 유의하지 않으므로 잠재프로파일이 4개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ntropy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시점에서 잠재프로파일이 2개인 모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8 이상으로 적절하며, 집단별 소속 비율은 모두 1% 이상이므로 적절했다. 통계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세 시점 모두 4개인 모형이 가장 적합하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2.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통계분석 결과

	1학년 잠재프로파일				2학년 잠재프로파일				3학년 잠재프로파일			
	2개	3개	4개	5개	2개	3개	4개	5개	2개	3개	4개	5개
AIC	16866	15368	14964	14795	15509	14284	13961	13818	15417	14220	13887	13759
BIC	16942	15473	15099	14959	15584	14388	14095	13980	15492	14324	14020	13920
SABIC	16901	15416	15026	14870	15543	14331	14022	13891	15451	14267	13947	13831
LMRLRT	0.000	0.000	0.014	0.354	0.000	0.000	0.010	0.680	0.000	0.000	0.000	0.114
BLRT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Entropy	0.81	0.86	0.91	0.88	0.77	0.82	0.85	0.86	0.70	0.82	0.83	0.85
집단1	39.6	32.2	30.7	30.5	39.4	24.8	23.2	23.5	47.8	25.6	23.2	24.0
소속 집단2	60.4	56.5	46.9	6.0	60.6	53.0	24.8	4.4	52.2	58.6	53.5	2.2
비율 집단3		11.3	18.6	13.4		22.2	48.6	21.2		15.8	20.9	50.4
(%) 집단4			3.9	46.7			3.5	3.0			2.4	21.1
집단5				3.5				47.9				2.4

주. 모형비교 검증(LMRLRT, BLRT)은 p 값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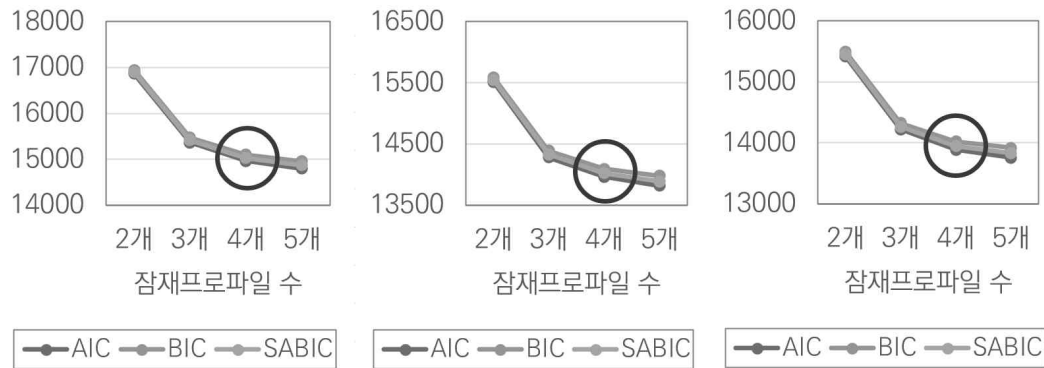


그림 2. 잠재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 1학년(좌), 2학년(중), 3학년(우)

2) 잠재프로파일의 형태

세 시점의 학업 무기력 잠재프로파일은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각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그 형태는 유사했다.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 시점 잠재프로파일 4개에 대한 하위요인들의 평균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한 제약모형과 그렇지 않은 비제약모형 간 카이제곱 차이 검정 결과, χ^2 이 유의하므로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08.13$, $df=32$, $p<.001$). 이에 더해 표 3과 같이 세 가지 정보지수의 값은 동일화 제약을 하지 않은 비제약모형이 제약모형에 비해 더 작고, entropy는 큰 것으로 보아 비제약모형이 더 적절하므로 측정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 측정 동일성 검증 결과

	제약모형	비제약모형
AIC	42550.8	42041.6
BIC	42867.2	42542.0
SABIC	42692.4	42265.6
entropy	0.972	0.976
LL	-21220.4	-20933.8
# of parameter	55	87
correction factor	1.2586	1.2106

두 시점의 잠재프로파일은 학업 무기력의 4가지 하위요인의 수준에 따라 ‘무기력 저 수준 집단’,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 ‘무기력 고수준 집단’, 그리고 무기력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학년별 특징을 반영하여 중학교 1, 2학년은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 중학교 3학년은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으로 각각 다르게 명명하였다. 무

기력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은 학습동기 결여의 차이 폭이 다른 결여에 비해 매우 컸던 반면, 3학년은 학습동기 결여 이외의 결여에서도 집단별 차이의 폭이 약간 커지는 특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무기력 저수준 집단의 비율(30.6%→24.1%→23.5%)과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3학년의 경우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의 비율(3.9%→3.6%→2.5%)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었다.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의 비율은 증가했으며(47.0%→47.6%→52.7%), 무기력 고수준 집단의 비율은 증가했다가 감소하였다(18.4%→24.7%→21.4%). 이는 각 시점의 학업 무기력 유형의 수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잠재프로파일의 비율 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유형 간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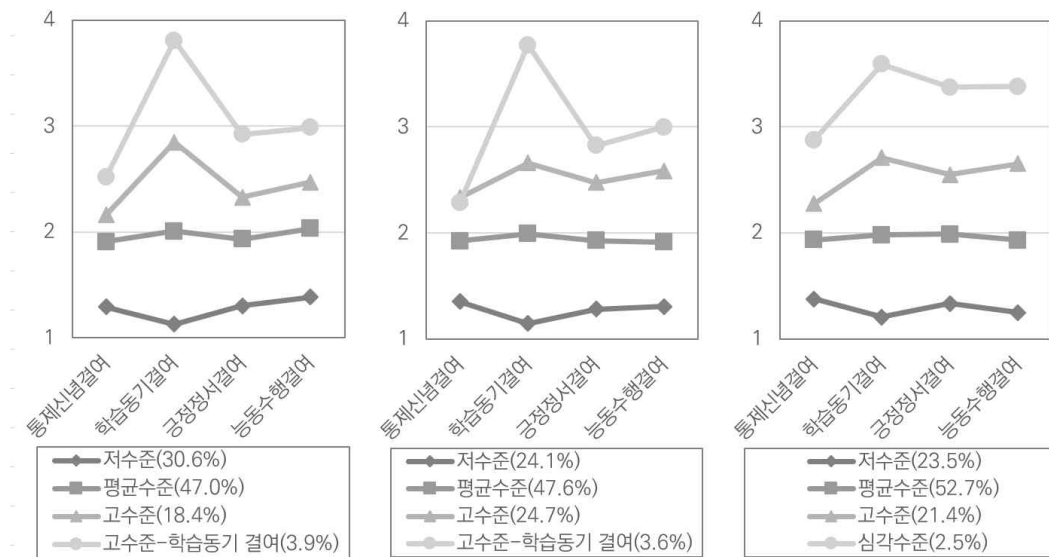


그림 3. 학업 무기력 잠재프로파일의 형태: 1학년(좌), 2학년(중), 3학년(우)

시점별 학업 무기력 잠재프로파일의 하위요인별 평균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무기력 저수준 집단,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 무기력 고수준 집단,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3학년의 경우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의 순으로 무기력의 하위요인 수준이 높아졌다.

표 4. 학업 무기력 잠재프로파일의 하위요인별 평균

학년	하위요인	학업 무기력 유형			
		저수준	평균수준	고수준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 심각수준
1학년	통제신념 결여	1.291	1.907	2.159	2.515
	학습동기 결여	1.129	2.007	2.846	3.808
	긍정정서 결여	1.302	1.931	2.325	2.922
	능동수행 결여	1.382	2.031	2.468	2.986
2학년	통제신념 결여	1.351	1.925	2.335	2.282
	학습동기 결여	1.145	1.993	2.659	3.774
	긍정정서 결여	1.281	1.928	2.476	2.823
	능동수행 결여	1.305	1.914	2.586	2.996
3학년	통제신념 결여	1.374	1.933	2.277	2.876
	학습동기 결여	1.206	1.980	2.708	3.592
	긍정정서 결여	1.332	1.989	2.549	3.376
	능동수행 결여	1.246	1.930	2.651	3.382

2. 학업 무기력 유형의 전이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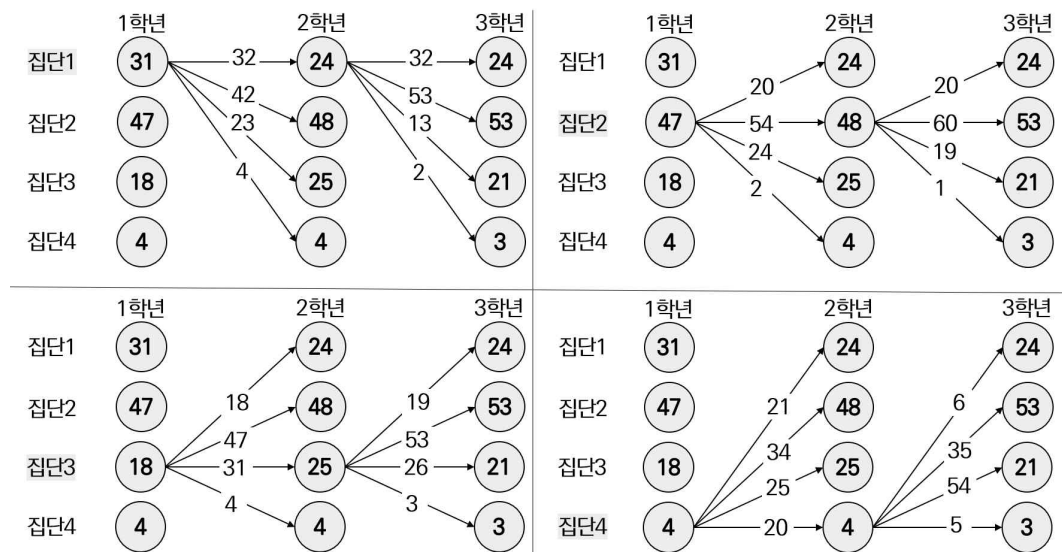
중학생의 학년 변화에 따라 학업 무기력 유형의 전이확률을 표 5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5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른 유형으로 전이되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유형으로 유지되는 확률로,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도 될 때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 중 54.4%가 동일 집단으로 유지되는 반면, 무기력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은 가장 적은 확률인 20.3%가 유지되었다.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이 될 때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은 더 많이(60.1%), 무기력이 가장 높은 집단(2학년 때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 3학년 때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은 더 적게(4.5%) 유지되었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윗부분(빛금표시)의 전이는 학업 무기력의 수준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위험한 현상이며, 아랫부분(음영표시)의 전이는 학업 무기력의 수준이 낮아지는 부분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표 5. 중1-중2, 중2-중3 학업 무기력 유형의 전이확률

(단위: %)

		2학년						3학년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1학년	집단1	31.7	42.2	22.9	3.3	2학년	집단1	32.0	53.1	13.4	1.5
	집단2	20.2	54.4	23.5	1.9		집단2	19.9	60.1	18.8	1.3
	집단3	17.6	46.6	31.4	4.4		집단3	19.1	52.5	25.5	2.8
	집단4	20.6	33.8	25.3	20.3		집단4	6.4	35.0	54.1	4.5

주. 집단1: 무기력 저수준 집단, 집단2: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 집단3: 무기력 고수준 집단, 집단4: (1,2학년)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 (3학년)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



주1. 집단1: 무기력 저수준 집단, 집단2: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 집단3: 무기력 고수준 집단, 집단4: (1,2학년)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 (3학년)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

주2. 원 안에 제시한 값은 각 잠재프로파일의 소속비율(%)이고, 화살표에 제시한 값은 전이확률(%)임

주3. 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제시함. 따라서 잠재프로파일별 또는 시점별 값의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그림 4. 학업 무기력 잠재프로파일별 소속비율 및 전이확률

세 학년의 유형이 각각 4개이므로 전이양상은 총 64가지($=4 \times 4 \times 4$)로 구분된다. 학생들이 각 학년에 소속될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에 할당한 후, 전이양상을 표 6에 요약해 보았다. 세 시점 모두 전이하지 않고 동일 집단에 속하는 유형(유지), 무기력이 낮은 집단으로 전이하는 유형(감소), 무기력이 높은 집단으로 전이하는 유형(증가), 무기력이 낮아졌다 높아지는 유형(감소 후 증가), 높아졌다 낮아지는 유형(증가 후 감소)으로 기술적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학생 중 중학생 기간 내내 무기력

유형이 같은 학생들은 29.6%이고, 약 70% 이상의 학생들은 다른 집단으로 전이되었다. 구체적으로 무기력이 감소하는 유형은 전체의 20.0%, 증가하는 유형은 24.9%, 감소 후 증가하는 유형은 9.4%, 증가 후 감소하는 유형은 16.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학생은 학업 무기력 유형이 전이되고 있으므로, 전이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6. 세 시점 전이 패턴에 따른 유형별 비율

유형	전이 패턴	빈도(명)	비율(%)
유지	111, 222, 333, 444	688	29.6
감소	211, 221, 311, 321, 322, 331, 332, 411, 421, 422, 431, 432, 433, 441, 442, 443	464	20.0
증가	112, 113, 114, 122, 123, 124, 133, 134, 144, 223, 224, 233, 234, 244, 334, 344	578	24.9
감소 후 증가	212, 213, 214, 312, 313, 314, 412, 413, 414, 323, 324, 423, 424, 434	219	9.4
증가 후 감소	121, 131, 141, 132, 142, 143, 231, 232, 241, 242, 243, 341, 342, 343	376	16.2
전체		2,325	100.0

주. 전이 패턴에서 1, 2, 3, 4는 각각 집단을 의미함(집단1: 무기력 저수준 집단, 집단2: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 집단3: 무기력 고수준 집단, 집단4: (1,2학년)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 (3학년)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 예를 들어 111은 3개 학년 모두에서 무기력 저수준 집단에 속하는 패턴을 의미함.

3. 학업 무기력 유형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학년의 학업 무기력 유형이 2학년의 학업 무기력 유형으로 전이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를 표 7에, 2학년 학업 무기력 유형이 3학년 학업 무기력 유형으로 전이되는 데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1학년에서 2학년으로의 전이 영향요인 검증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중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친구관계이며, 그 밖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1학년 때 무기력 저수준 집단에 속했던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2학년 때 무기력 저수준 집단이나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보다는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에 전이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때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에 속했던 학생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2학년 때 무기력 저수준 집단보다는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에,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무기력 고수준 집단보다는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1학년 때 무기력 고수준 집단인 학생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2학년 때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보다는 무기력 저수준 집단으로 전이되기 쉬웠다.

표 7. 1학년-2학년 학업 무기력 유형 전이의 영향요인 검증 결과

1학년 학업 무기력 유형	영향요인	2학년 학업 무기력 유형								
		저수준			평균수준			고수준		
		계수	표준 오차	승산 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 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 비
저수준	학업적 자기효능감	1.71	0.92	5.52	1.68	0.90	5.39	1.69	0.90	5.39
	부모 긍정적 양육태도	-1.19	1.23	0.31	-1.11	1.19	0.33	-1.72	1.23	0.18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	-2.09 *	0.90	0.12	-1.71 *	0.85	0.18	-1.09	0.85	0.34
	교사관계	0.39	1.37	1.48	-0.04	1.34	0.96	0.43	1.36	1.53
	친구관계	1.26	0.91	3.52	1.01	0.89	2.74	0.44	0.88	1.55
평균 수준	학업적 자기효능감	1.46 *	0.68	4.32	0.93	0.64	2.54	0.87	0.64	2.39
	부모 긍정적 양육태도	-1.28	0.93	0.28	-0.88	0.86	0.42	-0.98	0.85	0.37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	-1.79 *	0.89	0.17	-1.53	0.84	0.22	-0.70	0.84	0.50
	교사관계	-0.49	0.90	0.62	-0.14	0.84	0.87	-0.48	0.87	0.62
	친구관계	-0.82	1.20	0.44	-1.87	1.17	0.15	-2.41 *	1.19	0.09
고수준	학업적 자기효능감	1.58 *	0.78	4.85	1.12	0.67	3.05	1.33	0.68	3.77
	부모 긍정적 양육태도	-0.80	1.19	0.45	-0.14	0.92	0.87	-0.84	0.90	0.43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	-0.21	1.00	0.81	0.31	0.78	1.36	0.46	0.80	1.58
	교사관계	-0.24	0.94	0.78	0.19	0.75	1.21	-0.19	0.76	0.83
	친구관계	-0.12	0.96	0.89	-1.02	0.76	0.36	-0.89	0.80	0.41
고수준- 학습동기 결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0.39	0.96	1.47	0.93	0.70	2.53	0.41	0.70	1.50
	부모 긍정적 양육태도	-3.02	1.72	0.05	-1.02	1.06	0.36	-0.81	1.09	0.44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	-2.99	1.67	0.05	-0.24	0.98	0.79	0.97	0.97	2.65
	교사관계	0.83	1.55	2.30	-0.28	0.75	0.75	-0.09	0.79	0.92
	친구관계	2.11	1.54	8.24	0.30	1.00	1.35	0.57	0.95	1.76

주1. *p<.05, **p<.01, ***p<.001

주2. 2학년 학업 무기력 유형의 준거집단(reference class)은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임.

2학년에서 3학년으로의 전이 영향요인 검증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2학년 때 무기력 저수준 집단이었던 학생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거나 친구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3학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으로 전이되기 쉬웠다. 2학년 때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이었던 학생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교사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3학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으로 전이되기 쉬웠으며, 2학년 때 무기력 고수준 집단이었던 학생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낮

을수록 3학년 때 무기력 저수준 집단보다는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때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인 학생들은 친구관계나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3학년 때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보다는 무기력 평균 수준 집단으로 전이되기 쉬웠다.

표 8. 2학년-3학년 학업 무기력 유형 전이의 영향요인 검증 결과

2학년 학업 무기력 유형	영향요인	3학년 학업 무기력 유형								
		저수준			평균수준			고수준		
		계수	표준 오차	승산 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 비	계수	표준 오차	승산 비
저수준	학업적 자기효능감	-0.27	1.08	0.77	-1.33	1.07	0.26	-1.71	1.09	0.18
	부모 긍정적 양육태도	-0.80	1.44	0.45	-1.36	1.42	0.26	-1.04	1.47	0.35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	-1.97 *	0.79	0.14	-0.90	0.74	0.41	0.29	0.82	1.34
	교사관계	1.21	1.09	3.34	0.95	1.06	2.58	1.30	1.10	3.65
	친구관계	4.40 ***	1.37	81.70	3.67 ***	1.36	39.13	2.98 *	1.37	19.75
평균 수준	학업적 자기효능감	2.02 *	0.94	7.51	1.27	0.92	3.55	0.69	0.93	2.00
	부모 긍정적 양육태도	0.30	1.97	1.35	-0.07	1.95	0.93	0.41	1.97	1.51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	-1.22	1.74	0.30	-0.64	1.72	0.53	0.39	1.75	1.47
	교사관계	4.18 ***	1.39	65.50	3.69 ***	1.35	40.17	3.64 ***	1.40	38.21
	친구관계	-0.70	1.36	0.50	-1.76	1.33	0.17	-2.92 *	1.35	0.05
고수준	학업적 자기효능감	2.68 ***	0.78	14.51	0.96	0.61	2.62	0.08	0.58	1.08
	부모 긍정적 양육태도	-1.29	1.19	0.27	-0.76	1.00	0.47	-0.27	0.99	0.76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	-2.42 *	1.01	0.09	-1.53	0.89	0.22	-0.77	0.87	0.46
	교사관계	3.52 ***	1.00	33.68	1.86 *	0.78	6.39	0.72	0.77	2.05
	친구관계	3.27 ***	1.04	26.29	3.18 ***	0.82	24.14	1.66 *	0.79	5.28
고수준- 학습동기 결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2.60	2.08	13.41	2.10	1.92	8.15	2.15	1.83	8.59
	부모 긍정적 양육태도	2.10	1.27	8.13	-0.25	1.03	0.78	-1.15	0.82	0.32
	부모 부정적 양육태도	-0.20	0.99	0.82	0.82	1.08	2.27	-0.03	0.96	0.97
	교사관계	0.83	1.22	2.30	3.02 **	1.04	20.55	1.92 *	0.85	6.79
	친구관계	2.50 *	1.20	12.16	2.77 *	1.21	15.96	1.36	1.07	3.90

주1. *p<.05, **p<.01, ***p<.001

주2. 3학년 학업 무기력 유형의 준거집단(reference class)은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임.

세 시점 전이의 영향요인 특징을 변수별로 정리해 보자면, 무기력이 평균 수준이거나 높은 수준인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무기력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무기력 전이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무기력 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무기력이 높은 집단으로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요인은 이전 시점이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인 경우에

다른 집단과 결과가 반대로 나와 전체적으로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교사관계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의 전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2학년에서 3학년으로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 때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인 경우에는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2학년 때 무기력 고수준 집단인 경우에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 친구관계, 부모관계, 교사관계 모두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년별 학업 무기력 유형을 분류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학업 무기력의 잠재전이확률을 세 시점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학업 무기력의 전이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변인을 검증하여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 변화 양상에 있어 주요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학교 시기의 학업 무기력은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4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4개 집단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무기력의 하위 요인이 모두 평균 수준인 집단(47.0%~52.7%)이었으며, 이는 약 절반의 중학생들이 평균 수준의 학업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무기력 낮은 집단에 속하는 학생 비율은 중학교 1학년 30.6%, 2학년 24.1%, 3학년 23.5%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기력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무기력 집단 비율은 중1시점 22.3%, 중2시점 28.3%, 중3시점 23.9%로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무기력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 2학년 시기는 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학생들이 경쟁적인 분위기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무기력을 수준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업 무기력 집단은 하위요인의 전반적인 수준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중1시점과 중2시점의 학업 무기력은 저수준, 평균수준, 고수준, 고수준-학습동기 결여의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중3시점의 학업 무기력은 저수준, 평균수준, 고수준, 심각수준의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전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무기력의 잠재집단은 하위 변인의 독립적인 특성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지 않고, 하위 요인의 전반적인 수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는 경향을 보고하였으며(우연경, 노연경, 2021; 장희선, 2020a), 본 연구에서는 이 경향이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학업 무기력은 통제신념, 학습동기, 긍정정서 및 능동수행의 결여 수준에 따라 집단이 구분되기 보다는 무기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학교 시기의 학업 무기력 잠재집단을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기력 집단의 특성에 변화가 있었다. 중1-중2시점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 수준의 무기력 유형은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 집단’으로, 무기력 고수준 집단과 다른 하위요인의 수준은 유사한 데 비해 학습동기 결여 수준이 특히 높은 특징을 가졌다. 반면 중3시점에서는 무기력 고수준 집단에 비해 전체적인 하위요인이 더 높은 수준인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이 나타났다. 무기력 심각수준 집단에 속한 학생의 수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들기는 하나,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는 무기력 고수준 집단과 유사하면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결여된 특징을 가졌으나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모든 하위 요인에서 무기력 고수준 집단보다 심각하게 무기력을 경험하는 집단이 발견되었다. 이는 학습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실패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며 통제, 동기, 정서, 행동적인 차원에서 모두 심각한 수준으로 무기력에 빠지는 집단이 생기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걸쳐 학업 무기력 잠재집단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라 학업 무기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중1시점에서 중2시점 간 무기력 유형을 유지하는 집단의 비율은 무기력 평균수준(54.4%), 무기력 저수준(31.7%), 무기력 고수준(31.4%), 무기력 고수준-학습동기 결여(20.3%) 순서로 나타났고, 중2시점에서 중3시점 간 이동 중 유지하는 집단의 비율은 평균수준(60.1%), 무기력 저수준(32.0%), 무기력 고수준(2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시점의 학업 무기력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기력 집단으로 전이하는 양상은 무기력 저 집단에서 무기력 평균수준 집단으로 이동(중1-2: 42.2%, 중2-3: 53.1%)할 때 두드러졌으며, 다음은 무기력 평균에서 무기력 고수준 집단으로 전이(중1-2: 23.5%, 중2-3: 18.5%)할 때 나타났다. 반면, 이전 시점의 학업 무기력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의 무기력 집단으로 전이하는 양상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교 1-3학년에 걸쳐 학업 무기력의 전이 양상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 시점 전이 양상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거치는 동안 학업 무기력 유형이 유지되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29.6%로, 이들을 제외한 약 70% 이상의 학생들은 다른 유형의 학업 무기력 집단으로 이동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전 시점의 학업 무기력 수준보다 더 낮은 집단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20.0%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수준의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24.9%로 나타났으며, 학업 무기력이 감소 후 증가 또는 증가 후 감소하는 집단으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각각 9.4%, 16.2%로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시기 내에서 무기력의 프로파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보다는 변화하는 속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는

변인 중심의 연구를 통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 무기력의 수준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Ruthig, Perry, Hall, & Hladkyj, 2004; 옥일남 2004).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 접근을 통해 중학생들의 학업 무기력은 학년별로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전이 양상은 증가 또는 감소, 증가 후 감소, 감소 후 증가 등 다양하게 이동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 무기력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전이 양상에 어떠한 요인이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세 시점에서 나타난 중학생들의 학업 무기력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이 양상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무기력이 낮은 집단으로 전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구체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무기력 평균 수준과 높은 수준 집단에서 학업 무기력이 낮은 수준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학업 무기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유지영, 김춘경, 2014; 정문주 외, 2016). 우연경과 노연경(2021)의 연구에서는 학업 무기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실제 학업성취수준 자체보다도 학생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더 높은 수준의 무기력 집단으로 이동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노력할수록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유익적인 관계를 학습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주도록 하는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무기력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전이하는 데 있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학습된 무기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유정옥, 정문경, 2016, 장희선, 2020a). 특히, 무기력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전이 양상에 개인적인 요인이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보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기력의 하위요인들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다음 시점에 무기력 고수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학생들의 학업 무기력을 강화시켰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통제, 억압, 비난의 방식으로 전달되면서 자녀 스스로 자기결정성을 갖기 어렵게 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되는 결과이다(장희선, 2020b). 그러므로 학업 무기력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데 있어 부모 교육 또는 상담을 통해 강요와 통제가 높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부모 교육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다음 시점에 더 낮은 수준의 무기력 집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학생의 경우 무기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고, 교사와 부정적 관계를 형성할수록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고 보고되었다(강승호, 문은식, 배정희, 2008; 임경희, 2004). 학생들의 무기력은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통해서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사회적 맥락으로서 교사의 지원과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가 학생들의 무기력 변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구관계는 무기력의 전이 양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평균 수준의 무기력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시 친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부정적인 무기력 전이 양상을 보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 시기는 또래로부터 다양한 영향력을 받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친구관계의 영향력은 일관적이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애착형성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문은식, 2012), 교우관계로부터 형성된 사회적 자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이재훈, 김경근, 2007), 범죄 환경에 노출된 친구의 존재는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Burdick-Will, 2018). 그러므로 학업 무기력의 전이에 있어 친구관계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3학년의 세 시점에 걸쳐 학생들의 무기력 집단 유형 변화에 대한 전이 확률을 분석했다는 점에 주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은 자유학년제 도입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평가가 없는 중학교 1학년 시기를 거쳐 중학교 2학년부턴 본격적인 교과별 평가가 시작되고, 학습 결과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학습 환경의 변화를 겪는 중학교 시기의 학업 무기력에 대해 세 시점에 걸쳐 종단적인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 무기력의 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무기력 완화를 위한 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정책을 제안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학술적·실제적인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잠재전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업 무기력 수준에 따른 이동과 예측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학업 무기력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학생, 지속해서 감소하는 학생 등 수준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임의로 유목화하여 학생들의 비율을 기술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쳤다. 후속연구에서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학업 무기력의 전반적인 수준 변화 양상에 대해 잠재집단으로 유형화하고 예측요인을 파악한다면 본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변화 유형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기의 학업 무기력 유형과 전이 양상을 살펴보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학교급 전환에 따른 무기력의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됨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무기력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승호, 문은식, 배정희. (2008). 인간관계, 학습사, 동기적 변인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22(4), 723-742.
- 강혜원, 김영희. (2004). 학업스트레스 및 성적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883-897.
- 권예지, 이은주. (2019). 학습 무동기 변화 양상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부모의 합리적 설명,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의 변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환기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50(4), 189-213.
- 김민희. (2007). **중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와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종백, 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697-714.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 주지은. (1999).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9, 157-176.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문은식, 배정희. (2010). 학습사 및 사회적·동기적 변인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남고생과 여고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24(1), 183-205.
-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 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배정희, 강승호. (2008).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 학습사 및 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평가연구**, 21(1), 99-125.
- 백혜경, 양명환. (2018). 희망과 학습된 무기력이 운동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코치의 자율성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체육학회지**, 57(6), 69-86.

- 여태철, 임효진, 황매향. (2017). 중학생의 자기통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습된 무기력과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3(1), 315-341.
- 옥일남. (2004).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 연구: 사회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6(2), 105-139.
- 우연경, 노연경. (2021).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잠재프로파일: 영향요인 탐색 및 집단별 특성 차이. **한국교육학연구**, 27(1), 281-304.
- 유정옥, 정문경.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0), 73-95.
- 유지영, 김춘경. (2014).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0(1), 83-102.
- 이명진, 봉미미. (2013).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연구**, 51(1), 77-105.
- 이자영, 이상민. (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 이재훈, 김경근. (2007). 가족 및 학교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한국교육학연구**, 13(2), 175-208.
- 임경희. (2004). 가정, 학교 및 개인변인과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5(2), 473-507.
- 장수연, 정제영. (2020). 교사 및 친구 관계, 그릿, 학업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교육연구논총**, 41(4), 203-234.
- 장희선. (2020a). 중학생의 학습무기력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차이 분석. **학부모연구**, 7(4), 1-22.
- 장희선. (2020b).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자기결정성동기 잠재전이분석 및 부모 변인 예측효과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21(2), 373-407.
- 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 (2016).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5), 31-65.
- 황미영, 윤미선. (2016). 중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교실목표구조 지각, 학습된 무기력, 성취정서의 인과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4), 169-192.
- Huang Xin, 신태섭. (202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교사-학생 관계, 자존감 및 학업 무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교육연구논총**, 42(1), 163-198.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243-27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 Burdick-Will, J. (2018). Neighborhood Violence, Peer Effect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hicago. *Sociology of education*, 91(3), 205-223.
- Hiroto, D. S., & Seligman, M. E. P. (1975). Generality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11-327.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Wiley.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uthén, B., & Asparouhov, T. (2020).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random intercepts (RI-LTA). *Psychological Methods*.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37/met0000370>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7). *Mplus User's Guide*(8th Edition).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Nylund-Gibson, K., Grimm, R., Quirk, M., & Furlong, M. (2014). A latent transition mixture model using the three-step specification.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439-454.
- Ramaswamy, V., DeSarbo, W. S., Reibstein, D. J., & Robinson, W. T. (1993). An empirical pooling approach for estimating marketing mix elasticities with PIMS data. *Marketing Science*, 12(1), 103-124.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Schloz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Ziegert, D. I., Kistner, J. A., Castro, R., & Robertson, B. (2001). Longitudinal study of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challenging achievement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72, 609-624.

‘잠재전이분석을 통한 중학생의 학년별 학업 무기력 변화 및 영향요인 검증’에 대한 토론문

정송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1~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뿐 아니라 정서적, 행동적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업 무기력을 4가지 하위 요인의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중학교의 경우 학년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이 다소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잠재전이 분석을 통해 중학교 3년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검증한 것은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한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학업 무기력의 예방과 중재를 위한 중요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좋은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추후 연구를 보완하는 과정에 고려하면 좋을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 무기력의 잠재프로파일 도출을 위해 사용된 4가지 하위 요인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 무기력을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의 4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이는 학업 무기력의 개념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보다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학업 무기력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서 ‘통제신념이 결여된 학생이 학업 상황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무기력 양상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학습동기, 긍정정서, 능동수행 결여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독자로서 통제신념 결여가 다른 세 가지 요인의 선행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4가지 하위 요인을 동일 층위에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관련하여 하위 요인 간 관계 및 특성에 대해 보완이 된다면 독자들의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학업 무기력 유형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친구 관계는 이전 시점 ‘무기력 평균 수준 집단’에서 다른 집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

이며, 무기력의 전이 양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 관계와 부정적 관계로 조사된 친구 관계의 측정 문항을 역채점하여 하나의 평균점수로 사용한 것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 측정되는 문항이 질적으로 구분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같이 각각 독립적인 변수로 투입하여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의 전이 영향요인 검증 결과에서, 중2 '고수준 집단'의 교사 요인에 대한 서술이 논의에서 종합하고 있는 교사와의 관계의 방향성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업 무기력이 지속적인 실패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이며, 연령이 높아 질수록 벗어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예방과 개입은 빠를수록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도 사교육 등을 통해 이른 시점부터 다양한 평가 상황에 노출되고 이를 통해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급에서의 변화 양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환기 시기의 변화 양상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Session 3

제7주제

역량

청소년의 그릿 종단적 변화 양상 및 영향 변인 탐색

정혜원*·김아름**·백예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그릿 하위요인인 노력지속, 흥미유지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초4 코호트(초4~초6), 중1 코호트(중1~중3) 1~3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초4, 중1 코호트 각각의 중요도 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주요 변인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변인을 다층성장모형 독립변인으로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4, 중1 코호트 모두 노력지속과 흥미유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력지속, 흥미유지 하위요인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초4 코호트의 경우 노력지속 초기값에 특징적으로 ‘학업열의-헌신, 효능감, 몰두’, ‘삶의 만족도’, ‘협동심-집단축진, 팔로워십’, ‘교사관계-신뢰도’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노력지속 변화율에 ‘학업열의-활기’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흥미유지의 초기값에 특징적으로 ‘부모양육태도-강요’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흥미유지 변화율에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없었다. 중1 코호트 결과의 경우, ‘학업열의-헌신’, ‘삶의 만족도’, ‘협동심-갈등문제해결, 집단축진’, ‘교사관계-신뢰성’이 특징적으로 노력지속 초기값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노력지속 변화율에 ‘학업열의-활기’,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흥미유지 초기값의 경우 ‘학업열의-헌신’, ‘사회적 위축’, ‘부모양육태도-비일관성’, ‘친구관계’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흥미유지 변화율에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의 그릿을 함양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초기 청소년, 그릿,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다층성장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byeunn7@gmail.com

I. 서론

청소년의 학업, 진로와 관련한 과업 성취를 설명, 예측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교육·심리·사회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열정과 끈기를 의미하는 그릿은 청소년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성공과 수행을 예측하는 비인지적 특성으로 주목받아왔다(Duckworth et al., 2007). 이러한 그릿은 흥미유지(consistency of interest)와 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이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지는데 흥미유지란 흥미와 관심의 대상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을, 노력지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청소년의 과업 성취나 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그릿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인지적 성취 중 하나인 학업 성취도와 그릿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탁하연과 조규판(2021)의 연구에서는 그릿의 하위요인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모두 중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정림과 권대훈(2016)의 연구를 통해서도 그릿이 학업 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성취를 비롯하여 학업탄력성, 학업열의와 같은 정의적 성취에도 그릿의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효진, 이소라, 2020; 최정윤, 임효진, 2021).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정의적 성취 중 하나인 행복감 또한 그릿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지는데 박현린, 표정민, 김누리(2019)의 연구에서는 그릿의 하위요인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미옥(2019)의 연구에도 또한 그릿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높은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렇듯 그릿이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학업 성취나 진로와 같은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초기 청소년에게 그릿은 습득되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개인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학업열의,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등의 변인과 환경적 변인에 해당하는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그릿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윤미라, 2021; 임효진, 2021; 정혜원, 김예림, 박소영, 2020; 한수연, 박용한, 2018; 한정옥, 박선미, 2018). 윤미라(2021), 임효진(2021)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혜원 외(2020)의 연구를 통해 학업열의, 우울 또한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교사, 친구와의 관계가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

수연, 박용한, 2018; 한정옥, 박선미, 2018).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단일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릿은 학년,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또한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릿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그릿이 학년에 따른 변화 양상과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그릿의 영향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 분석(Breiman, 2001)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도출된 주요 변인을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그릿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함과 더불어 그릿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Duckworth와 동료들의 연구(2007)에서 그릿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발달 과정 속에서 향상되고 길러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의 그릿은 학년,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외, 2015; 임효진, 류재준, 2020; 한정옥, 박선미, 2018). 한정옥과 박선미(201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김미숙 외(2015)의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그릿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년과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심리·정서적 변화와 더불어 학교 환경, 사회적 관계와 같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초기 청소년의 그릿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릿의 학년에 따른 변화를 탐색함과 동시에 그릿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함에 있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릿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을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그릿을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 따른 연구 결과의 차별성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2015; 한수연, 유향은, 박용한, 2021; Credé et al., 2016; Hwang, Lim, Ha, 2018). 이와 더불어 그릿의 요인 구조를 탐구한 임효진(2018)에서는 그릿의 개념적 정의를 반영한 모형인 2요인 모형에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두 요인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또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두 요인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릿을 단일요인이 아닌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할 때 기존의 구인들과 구분되는 그릿에 대한 보다 면밀한 탐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서적,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학교급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그릿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는 학년 변화(초4 코호트: 초4~6학년, 중1 코호트: 중1~3학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도출된 주요 변인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그릿

그릿을 처음 소개한 Duckworth와 동료들의 연구(2007)에서는 그릿을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열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초기의 국내 학자들에 의해 그릿은 ‘투지’나 ‘끈기’와 같은 용어로 번역되거나 ‘성실성’, ‘자기조절’과 같은 구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릿은 단순히 근면성을 의미하는 성실성과 구분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열정과 인내를 갖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작용하는 자기조절의 개념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임효진, 2019).

Duckworth와 동료들의 연구(2007)에서는 그릿을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두 요인에 대한 명명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목표에 대해 노력을 지속하고, 흥미를 유지하는 측면으로 나뉜다(김미숙 외, 2015; 임효진, 2017; 임효진, 류재준, 2020). 구체적으로, 그릿의 하위요인은 각각 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과 흥미유지(consistency of interest)로 명명되었으며 노력지속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흥미유지란 흥미와 관심의 대상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한편, 최근 그릿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그릿의 요인 구조를 2요인으로 보는 것이 지지되고 있는 추세이다(임효진, 2018). 또한 그릿을 2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한 Credé(2016)는 두 하위요인이 수행 결과에 대한 서로 다른 예측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외의 선행연구에서 또한 그릿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각각의 하위요인에 따라 연구 결과의 차별성을 보였다(신민, 안도희, 2015; 유영란 외, 2015; 주영주,

김동심, 2016; 한수연, 유향은, 박용한, 2021; Hwang, Lim, Ha, 2018; Muenks et al., 2016). 이는 그릿을 단일요인으로 보기 보다는 노력지속과 흥미유지로 구성된 2요인으로 보고 각각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릿을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그릿의 영향 변인을 청소년의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

청소년의 그릿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 요인을 생활시간, 지적발달, 사회정서역량 발달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그릿을 단일요인으로 탐색한 연구와 2요인으로 탐색한 연구를 각각 확인하였다. 우선, 생활시간과 관련한 변인에 해당하는 여가활동과 그릿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그릿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최효선, 양수진, 2018; Duckworth, 2016).

지적발달과 관련한 변인 또한 그릿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열의가 초등학생의 그릿의 하위요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경우 학업열의가 그릿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윤성혜, 유지원, 유영란, 2017; 정혜원 외, 2020). 반면, 학업열의와 상반된 개념인 학업무기력과 그릿과의 관계를 탐색한 백승원, 정진희, 이예진과 윤채영(2020)에서는 학업무기력이 중학생의 그릿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과 지적발달과 더불어 사회정서역량발달에 해당하는 변인 또한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행복감, 삶의 만족도,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등이 사회정서역량발달에 해당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그릿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효진, 2017; 정혜원, 전현정, 김아름, 2021). 그릿의 하위요인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를 구분하여 탐구한 정혜원 외(2020)에서 또한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성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그릿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유진, 이승연, 장유나, 홍세희, 2021; 조제성, 2020).

3.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 외에도 환경 요인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요인을 매체, 가정, 학교 변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매체 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매체 요인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의존도의 경우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릿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유진 외, 2021).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미치는 영향 변인을 탐구한 정혜원 외(2020)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스마트폰 의존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학생의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서도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매체 요인과 더불어 가정 요인 또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 요인으로 연구되어지는데 부모와의 애착, 부모 관계 등이 가정 요인에 해당한다(임효진, 이소라, 202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수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높은 그릿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유정, 최혜정, 김형관, 2021). 또한 부모에게 지지받는다고 인식하고 가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중학생의 그릿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정옥, 박선미, 2018).

한편 또래, 교사 관계를 포함하는 학교 요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또래 관계가 그릿 흥미유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원 외, 2020). 중학생 또한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수록 높은 그릿을 형성한다고 보고되었다(김미숙 외, 2015; 박신영, 정혜원, 2021). 교사 관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경우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효진, 이소라, 2020).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1~3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계하여,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해마다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패널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4, 중1 코호트 1차~3

차년도 자료(초4~초6, 중1~중3)를 활용하였다. 또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모든 조사에 참여한 학생만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분석에 투입된 학생 수는 1차년도 설문에 참여한 초4 코호트 2,607명 중 2,327명, 중1 코호트 2,590명 중 2,325명이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는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를 활용하였다. 그릿은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각각 4문항씩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구인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한 연구인 정혜원 외(2020)을 참고하여 하위요인별로 3문항씩 총 6문항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흥미유지 3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분석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초1 코호트와 중1 코호트의 3개년 간의 측정 문항 및 신뢰도(Cronbach's α)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측정도구

측정 도구	측정문항	척도	신뢰도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그릿	노력 지속	4점 리커트 척도**	.686(1차)	.682(1차)
	나는 노력가이다		.697(2차)	.646(2차)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688(3차)	.669(3차)
	나는 부지런하다		.722(1차)	.705(1차)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698(2차)	.688(2차)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728(3차)	.705(3차)
흥미 유지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주1) *표시한 문항은 역문항 처리 하였음

주2)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설문 문항은 개인 발달 영역과 발달 환경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개인 발달 영역의 경우 생활시간, 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정서역량발달, 진로 변인으로, 발달 환경 영역의 경우 매체, 가정, 학교, 활동/문화환경 관련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발달 영역과 발달 환경 영역을 각각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릿 노력

지속과 흥미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랜덤 포레스트에서 초 4 코호트와 중1 코호트 분석에 활용한 설명 변인은 다음과 같다.

초4 코호트의 경우 31개의 개인 요인 중 성별 1개, 생활시간 변인 12개, 지적발달 변인 6개, 진로 변인 1개, 사회정서역량발달 변인 11개이며, 18개의 환경 요인 중 매체 변인 3개, 가정 변인 8개, 학교 변인 7개로 총 49개의 변인이 활용되었다. 중1 코호트의 경우 74개의 개인 요인이 활용되었으며 이때 성별 1개, 생활시간 변인 12개, 지적발달 변인 10개, 진로 변인 3개, 사회정서역량발달 변인 41개, 비행 관련 변인 2개, 신체발달 변인 3개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30개의 환경 요인 중 매체 변인 3개, 가정 변인 8개, 학교, 활동/문화 환경 변인 각각 7개, 12개로 총 102개의 변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때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잠재변인의 경우 해당 문항을 합산한 후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를 조사한 변인과 키, 몸무게와 같은 단일 변인은 개별적으로 활용하였다. 청소년 활동 관련 변인, 동아리 활동 관련 변인, 선호 연예인, 운동선수 유무, 팬덤활동 빈도, 학업무기력, 목표 학업수준, 장래직업결정여부, 창의적 성격, 비행경험 관련 변인, 사이버비행경험 관련 변인, 건강상태, 운동시간, 아침 식사 횟수, 키, 몸무게 등은 중학교에서만 측정되어 중1 코호트에서만 분석에 투입하였다.

3. 분석 방법

1)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모형은 랜덤 포레스트 모형과 혼합모형을 결합한 기법으로 자료가 다층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보다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Hajjem, Bellavance, Larocque, 2014). 랜덤 포레스트 기법의 경우 조율 모수에 해당하는 ‘각 노드에서 고려한 설명변인(mtry)’과 ‘붓스트랩 표본의 수(ntree)’를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Breiman(2001)에 따라 반응 변인이 연속변인인 경우 mtry를 $\text{floor}(\frac{p}{3})$ 으로 설정하여, 초 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의 mtry를 각각 49를 3으로 나눈 16, 102를 3으로 나눈 34으로 조정하였고, ntree의 경우 300개로 조율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경우 훈련용, 검증용을 각각 7:3의 비율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값인 중요도 지수(variable importance)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각각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중요도 지수에서 상위 20%인 10위, 20위 안에 드는 변인을 확인하여 다층성장모형에 투입하였다.

결측치는 1회 대체하여 활용하였고, 1차~3차년도 데이터를 병합하고 tidy data 접근을 통해 시간 변인을 생성하여 세로로 긴 형태의 데이터(long format)로 변환하여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에 투입하였다(Wickham, 2014). 이에 결측치 대체에는 R 4.0.2버전에서 mice(Ver, 3.12.0)패키지를, tidy data 구성에는 tidyverse(Ver,.1.3)와 tidymodels(Ver, .1.3)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Kuhn & Wickham, 2020; Wickham et al., 2019),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에는 Python의 merf 패키지를 활용하였다(Hajjem et al, 2014).

2) 다층성장모형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그릿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고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도출된 주요변인이 이러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다층성장모형 분석에 있어서 1수준 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함수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2수준에서는 변화의 개인차를 추정하였다. 연구 모형 분석에 있어서 다른 독립변인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고정효과 회귀계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더미변인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에 대하여 전체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text{-수준 모형(시간수준): } y_{ti} = \pi_{0i} + \pi_{1i}(\text{년도}) + e_{ti} \sim N(0, \sigma^2) \quad (1)$$

$$2\text{-수준 모형(학생수준): } \pi_{0i} = \beta_{00} + \sum_{k=1}^K \beta_{0k} X_{ki} + r_{0i} \quad (2)$$

$$\pi_{1i} = \beta_{10} + \sum_{k=1}^K \beta_{1k} X_{ki} + r_{1i}$$

$$\begin{bmatrix} r_{0i} \\ r_{1i} \end{bmatrix} \sim N \left(\begin{bmatrix} 0 \\ 0 \end{bmatrix}, \begin{bmatrix} \Gamma_{00} & \Gamma_{01} \\ \Gamma_{10} & \Gamma_{11} \end{bmatrix} \right)$$

이때 수식(1)에서 제시된 1-수준 모형의 y_{ti} 는 t 년도 학생 i 의 그릿을 뜻하고 $t = 0, 1, 2$ 로 코딩하였다. π_{0i} 는 학생 i 의 절편, π_{1i} 는 년도에 따른 학생 i 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e_{ti} 는 개인 내에 존재하는 오차로 평균 0, 분산 σ^2 인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수식(2)에서 제시된 2-수준 모형에서 β_{00} 과 r_{0i} 은 각각 전체 학생 그릿의 평균과 개인차 분산을 의미하고 β_{01} 과 r_{1i} 는 그릿 변화율의 평균과 개인차 분산을 뜻한다. 또한 X_{ki} 는 그릿의 하위요인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 투입한 학

생 수준 독립변인이다. 2-수준에 투입되는 독립변인의 경우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하여 변인들이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 의존적(time-dependent)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술 통계는 SPSS 26.0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모형은 R 4.0.2 버전에서 lme4(Ver. 1.1-27), lmerTest(Ver. 3.1-3)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 결과

초4 코호트(초4~초6)과 중1 코호트(중1~중3)을 대상으로 그릿의 하위영역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대하여 랜덤 포레스트 분석한 결과, 두 개의 중요도 지수인 평균제곱 오차 백분율증가와 노드 순도 증가 모두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초4, 중1 코호트 각각 10위, 20위 안에 포함된 변인을 확인하였다.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의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대한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에 기술하였다.

1) 초4 코호트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 결과

초4 코호트(초4~초6)의 그릿 노력지속, 흥미유지의 랜덤 포레스트 분석 결과, 노력지속의 경우 개인 요인에서 지적발달 변인 4개, 사회정서역량발달 변인 5개가 도출되었으며 환경 요인에서 학교 변인 1개가 도출되었다. 흥미유지의 경우 개인 요인에서 지적발달 변인 1개, 사회정서역량발달 변인 6개를 확인하였으며 환경 요인에서 매체 변인 1개, 가정 변인 2개가 중요도 지수 상위 20%에 해당하였다. 이때 ‘학업열의-활기’, ‘자아존중감’이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공통적으로 도출된 변인에 해당한다. 반면 각각의 하위 요인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 변인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력지속의 경우 특징적으로 ‘학업열의’ 하위변인에 해당하는 ‘헌신’, ‘효능감’, ‘몰두’가 주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와 ‘협동심’의 하위변인인 ‘갈등문제해결’, ‘집단촉진’, ‘팔로워십’, ‘교사관계-신뢰성’ 또한 주요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흥미유지의 경우 ‘주의집중’,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 ‘신체증상(건강)’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의존도’,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변인인 ‘강요’, ‘비일관성’이 상위 20% 안에 드는 주요 변인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2) 중1 코호트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 결과

중1 코호트(중1~중3)의 그림 노력지속, 흥미유지의 랜덤 포레스트 분석 결과, 노력지속의 경우 개인 요인에서 생활시간 변인 1개, 지적발달 변인 7개, 사회정서역량발달 변인 8개가 도출되었으며 환경 요인에서 매체 변인 2개, 학교 변인 2개가 도출되었다. 흥미유지의 경우 개인 요인에서 생활시간 변인 2개, 지적발달 변인 6개, 사회정서역량발달 변인 7개를 확인하였으며 환경 요인에서 매체 변인 2개, 가정 변인 2개, 학교 변인 1개가 중요도 지수 상위 20%에 해당하였다.

이때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공통적으로 도출된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열의’ 하위변인인 ‘활기’, ‘효능감’, ‘몰두’ 그리고 ‘학업무기력’ 하위변인인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 ‘학습동기 결여’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우울’, ‘공격성’, ‘협동심-집단축진’,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의존도’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각의 하위 요인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력지속의 경우 특징적으로 ‘학업열의-헌신’, ‘삶의 만족도’ 그리고 ‘협동심’의 하위변인인 ‘갈등문제해결’, ‘팔로워십’이 도출되었으며 ‘교사관계-신뢰성’, ‘친구관계-긍정’ 또한 노력지속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주요 변인이었다. 흥미유지의 경우 ‘여가시간-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시간’,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건강)’을 비롯하여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강요’, ‘비일관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부정’ 또한 특징적인 주요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표 2.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에서 선택된 주요 변인

구분	변인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노력 지속	흥미 유지	노력 지속	흥미 유지
생활시간	진로관련 대화 빈도			◆	◆
	여가시간-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시간				◇
지적발달	학업열의-헌신	○		◇	
	학업열의-활기	●	●	◆	◆
	학업열의-효능감	○		◆	◆
	학업열의-몰두	○		◆	◆
	학업무기력-긍정정서 결여			◆	◆
	학업무기력-능동수행결여			◆	◆
	학업무기력-학습동기결여			◆	◆
개인	삶의 만족도	○		◇	
	자아존중감	●	●	◆	◆
	주의집중		○	◆	◆
	우울		○	◆	◆
사회정서 역량발달	사회적 위축		○		◇
	공격성		○	◆	◆
	신체증상(건강)		○		◇
	협동심-갈등문제해결	○		◇	
	협동심-집단촉진	○		◆	◆
	협동심-팔로워십	○		◇	
매체	스마트폰 사용 빈도			◆	◆
	스마트폰 의존도		○	◆	◆
가정	부모양육태도-강요		○		◇
	부모양육태도-비일관성		○		◇
환경	교사관계-신뢰성	○		◇	
	친구관계-긍정			◇	
	친구관계-부정				◇

주2)

●: 초4 코호트에서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모두 도출된 변인

○: 초4 코호트에서 노력지속 또는 흥미유지에서 특징적으로 도출된 변인

◆: 중1 코호트에서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모두 도출된 변인

◇: 중1 코호트에서 노력지속 또는 흥미유지에서 특징적으로 도출된 변인

2. 다층성장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는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도출된 주요 변인이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자료의 종단적 다층구조를 고려한 다층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다층성장모형 분석에서 많은 수의 변인이 독립변인으로 투입되는 경우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이 높은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정확한 계수 추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에서 도출된 변인 중 다른 변인들과의 높은 상관으로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변인은 다층성장모형의 독립변수 투입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초4 코호트의 경우 11개, 중1 코호트의 경우 14개의 변인이 선택되었다. 또한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의 그릿 노력지속 및 흥미유지의 기술통계 결과, 학년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2) 초4 코호트 다층성장모형 분석 결과

초4 코호트의 기초모형을 통해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변화율을 확인한 결과, 노력지속($\beta_{10} = -.081, p < .001$)과 흥미유지($\beta_{10} = -.138, p < .001$)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4 코호트의 그릿 하위요인 노력지속, 흥미유지의 랜덤 포레스트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공통 변인 중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변인을 제외하고 독립변인을 투입하였으며 다층성장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분석에 포함된 11개의 변인 중,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초기치에 유의했던 변인은 각각 10개, 4개 로 이 중 3개의 변인이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초기치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초4 코호트(초4~초6)의 변화율의 경우 노력지속($\beta_{10} = -.081, p < .001$)과 흥미유지($\beta_{10} = -.138, p < .001$)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요인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지속, 흥미유지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을 살펴보면, 노력지속의 변화율에 ‘학업열의-활기’ 1개의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유지의 경우 유의한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두 하위 요인에 공통적으로 초기치에 영향을 미친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요인에서 ‘학업열의’ 하위

변인에 해당하는 ‘활기’($\beta_{02}=.044$, $p=.019$, $\beta_{02}=.082$, $p<.001$)가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beta_{06}=.159$, $p<.001$, $\beta_{06}=.212$, $p<.001$), ‘주의집중’($\beta_{07}=.083$, $p<.001$, $\beta_{07}=.452$, $p<.001$) 또한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노력지속 초기치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열의’ 하위 변인에 해당하는 ‘헌신’($\beta_{01}=.080$, $p<.001$), ‘효능감’($\beta_{03}=.084$, $p<.001$), ‘몰두’($\beta_{04}=.057$, $p=.005$)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도’($\beta_{05}=.055$, $p=.008$), ‘협동심’의 하위 변인에 해당하는 ‘집단촉진’($\beta_{08}=.084$, $p<.001$), ‘팔로워십’($\beta_{09}=.161$, $p<.001$) 그리고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교사관계-신뢰성’($\beta_{011}=.134$, $p<.001$)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유지의 초기치의 경우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변인인 ‘강요’($\beta_{010}=-.118$, $p<.001$)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화율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흥미유지의 경우 유의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력지속에서만 특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열의-활기’($\beta_{12}=.030$, $p=.029$)가 노력지속 변화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 노력지속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학업열의-활기’가 노력지속이 감소하는 폭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초4 코호트 다층성장모형 결과

구분	변인	노력 지속					흥미 유지					
		계수	표준 오차	자유도	t	유의 확률	계수	표준 오차	자유도	t	유의 확률	
고정효과												
상수 π_0												
초기치 β_{00} 2.864*** .009 2310 317.853 <.001 2.859*** .010 2312 287.568 <.001												
개인	지적발달	학업열의-헌신 β_{01}	.080***	.021	4033	3.820	<.001	.007	.023	4029	0.318	.751
		학업열의-활기 β_{02}	.044*	.019	4047	2.345	.019	.082***	.021	4043	3.955	<.001
		학업열의-효능감 β_{03}	.084***	.018	3685	4.668	<.001	.034	.020	3676	1.683	.093
		학업열의-몰두 β_{04}	.057**	.020	4010	2.842	.005	.006	.022	4007	0.287	.774
	사회정서역량발달	삶의 만족도 β_{05}	.055**	.021	3987	2.672	.008	.019	.023	3984	0.812	.417
		자아존중감 β_{06}	.159***	.026	3940	6.155	<.001	.212***	.029	3935	7.357	<.001
		주의집중 β_{07}	.083***	.019	3839	4.475	<.001	.452***	.021	3829	21.910	<.001
		협동심-집단축진 β_{08}	.084***	.022	4071	3.845	<.001	.012	.024	4067	0.485	.628
		협동심-팔로워십 β_{09}	.161***	.021	4075	7.535	<.001	.028	.024	4074	1.202	.230
환경	가정	부모양육태도-강요 β_{010}	-.028	.015	3906	-1.917	.055	-.118***	.016	3901	-7.313	<.001
	학교	교사관계-신뢰성 β_{011}	.134***	.019	4165	6.921	<.001	-.018	.022	4164	-0.856	.392
가울기 π_1												
변화율 β_{10} -.081*** .006 2310 -13.080 <.001 -.138*** .007 2311 -19.672 <.001												
개인	지적발달	학업열의-헌신 β_{11}	-.027	.016	5139	-1.677	.094	.005	.018	5266	0.256	.798
		학업열의-활기 β_{12}	.030*	.014	5037	2.180	.029	.019	.016	5162	1.194	.233
		학업열의-효능감 β_{13}	-.006	.014	4560	-0.438	.662	-.014	.016	4677	-0.881	.379
		학업열의-몰두 β_{14}	.030	.016	5100	1.942	.052	-.012	.017	5230	-0.674	.500
개인	사회정서역량발달	삶의 만족도 β_{15}	.009	.016	5121	0.561	.575	-.008	.018	5250	-0.439	.661
		자아존중감 β_{16}	-.008	.020	4933	-0.428	.668	.011	.022	5058	0.495	.620
		주의집중 β_{17}	-.002	.013	4602	-0.174	.862	-.023	.015	4713	-1.546	.122
		협동심-집단축진 β_{18}	<.001	.017	5042	0.019	.985	-.024	.019	5168	-1.278	.201
		협동심-팔로워십 β_{19}	-.024	.017	5257	-1.412	.158	-.013	.019	5388	-0.689	.491
환경	가정	부모양육태도-강요 β_{110}	.021	.011	4977	1.939	.053	-.006	.012	5102	-0.457	.648
	학교	교사관계-신뢰성 β_{111}	-.016	.016	5398	-1.005	.315	.014	.017	5532	0.815	.415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1수준(시간) e_{ti}		0.160	0.400				0.198	0.445				
2수준(학생)												
초기치 r_{0i}		0.055	0.235				0.065	0.255				
변화율 r_{1i}		0.008	0.091				0.015	0.122				

* $p<.05$, ** $p<.01$, *** $p<.001$

3) 중1 코호트 다층성장모형 분석 결과

중1 코호트의 기초모형을 통해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변화율을 확인한 결과, 노력지속($\beta_{10}=-.044$, $p<.001$)과 흥미유지($\beta_{10}=-.047$, $p<.001$)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그릿의 두 요인 모두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감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1 코호트의 그릿 하위요인 노력지속, 흥미유지의 랜덤 포레스트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공통 변인 중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변인을 제외하고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다층성장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분석에 포함된 14개의 변인 중,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초기치에 유의했던 변인은 각각 10개로, 이 중 6개의 변인이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초기치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1 코호트의 경우 시간의 흐름(중1~중3)에 따라 노력지속($\beta_{10}=-.044$, $p<.001$), 흥미유지 변화율($\beta_{10}=-.047$, $p<.001$)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그릿의 두 요인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각각의 하위요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을 살펴보면, 노력지속의 경우 3개의 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흥미유지의 경우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초기치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 요인에서 ‘학업열의’ 하위 변인인 ‘활기’, ‘헌신’, ‘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활기’와 ‘효능감’의 경우 노력지속($\beta_{01}=.050$, $p=.004$, $\beta_{03}=.052$, $p<.001$), 흥미유지($\beta_{01}=.101$, $p<.001$, $\beta_{03}=.041$, $p=.010$) 초기치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헌신’의 경우 노력지속 초기치에는 정적인 영향($\beta_{02}=.093$, $p<.001$)을 미친 반면 흥미유지 초기치에는 부적 영향($\beta_{02}=-.038$, $p=.048$)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beta_{05}=.153$, $p<.001$, $\beta_{05}=.102$, $p<.001$), ‘주의집중’($\beta_{06}=.101$, $p<.001$, $\beta_{06}=.374$, $p<.001$)이 두 하위 요인에 공통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 요인에서 ‘스마트폰 의존도’($\beta_{010}=-.089$, $p<.001$, $\beta_{010}=-.158$, $p<.001$)가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지속 초기치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요인의 ‘삶의 만족도’($\beta_{04}=.066$, $p<.001$), ‘협동심-갈등문제해결’($\beta_{08}=.141$, $p<.001$), ‘협동심-집단촉진’($\beta_{09}=.065$, $p=.005$)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 요인의 ‘교사관계-신뢰성’($\beta_{012}=.104$, $p<.001$) 또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흥미유지의 초기치에는 개인 요인에서 ‘사회적 위축’($\beta_{07}=-.074$, $p<.001$), 환경 요인에서 ‘부모양육태도-비일관성’($\beta_{011}=-.070$, $p<.001$), ‘친구관계-긍정’($\beta_{013}=-.059$, $p=.003$)과 ‘친구관계-부정’($\beta_{014}=-.063$, $p<.001$)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변화율의 경우 흥미유지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력지속에서만 특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요인의 ‘학업열의-활기’($\beta_{11}=.030$, $p=.021$), ‘삶의 만족도’($\beta_{14}=.051$, $p<.001$)가 노력지속 변화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변인이 그릿 노력지속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폭을 둔화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beta_{15}=-.080$, $p<.001$)의 경우 노력지속 변화율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력지속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증1 코호트 다층성장모형 결과

구분	변인	노력지속					흥미유지					
		계수	표준 오차	자유도	t	유의 확률	계수	표준 오차	자유도	t	유의 확률	
고정효과												
상수 π_0												
초기치 β_{00}												
		2.698***	.009	2305	291.608	<.001	2.629***	.009	2302	293.890	<.001	
개인	지적발달	학업열의-활기 β_{01}	.050**	.017	4090	2.917	.004	.101***	.017	3900	5.775	<.001
		학업열의-헌신 β_{02}	.093***	.019	3981	4.802	<.001	-.038*	.019	3788	-1.974	.048
		학업열의-효능감 β_{03}	.052***	.016	3615	3.301	<.001	.041**	.016	3432	2.595	.010
	사회적응	삶의 만족도 β_{04}	.066***	.020	4012	3.373	<.001	.018	.020	3820	0.884	.377
		자아존중감 β_{05}	.153***	.026	3890	5.932	<.001	.102***	.026	3699	3.925	<.001
		주의집중 β_{06}	.101***	.019	3776	5.435	<.001	.374***	.019	3586	20.015	<.001
		사회적 위축 β_{07}	.015	.013	3662	1.126	.260	-.074***	.013	3477	-5.466	<.001
	역량발달	협동심-갈등문제해결 β_{08}	.141***	.024	4045	5.879	<.001	.012	.024	3856	0.484	.629
		협동심-집단속진 β_{09}	.065**	.023	4141	2.820	.005	-.015	.023	3952	-0.657	.511
		환경	스마트폰 의존도 β_{010}	-.089***	.020	3762	-4.546	<.001	-.158***	.020	3570	-8.018
부모양육태도-비일관성 β_{011}	.013		.016	3889	0.823	.410	-.070***	.016	3700	-4.477	<.001	
학교	교사관계-신뢰성 β_{012}		.104***	.019	4010	5.520	<.001	.031	.019	3826	1.605	.109
	친구관계-긍정 β_{013}		.035	.019	3756	1.798	.072	-.059**	.020	3567	-3.025	.003
	친구관계-부정 β_{014}	.018	.019	4193	0.981	.327	-.063***	.019	4004	-3.335	<.001	
기울기 π_1												
변화율 β_{10}												
		-.044***	.006	2302	-7.181	<.001	-.047***	.006	2296	-7.614	<.001	
개인	지적발달	학업열의-활기 β_{11}	.030*	.013	4643	2.301	.021	.019	.013	4669	1.475	.140
		학업열의-헌신 β_{12}	-.026	.015	4759	-1.774	.076	-.014	.015	4786	-0.981	.327
		학업열의-효능감 β_{13}	.004	.012	4191	0.293	.770	.001	.012	4209	-0.024	.980
	사회적응	삶의 만족도 β_{14}	.051***	.015	4932	3.399	<.001	-.010	.015	4962	-0.662	.508
		자아존중감 β_{15}	-.080***	.020	4508	-4.033	<.001	.025	.020	4531	1.266	.205
		주의집중 β_{16}	.003	.014	4282	0.224	.823	-.017	.014	4303	-1.233	.217
		사회적 위축 β_{17}	-.007	.010	4166	-0.685	.493	-.016	.010	4186	-1.578	.115
	역량발달	협동심-갈등문제해결 β_{18}	-.034	.018	5058	-1.841	.066	-.003	.018	5085	-0.144	.885

구분	변인	노력지속					흥미유지				
		계수	표준 오차	자유도	t	유의 확률	계수	표준 오차	자유도	t	유의 확률
환경 교과	달 협동심-집단축진 β_{19}	.026	.018	5143	1.476	.140	-.007	.018	5171	-0.374	.709
	매체 스마트폰 의존도 β_{110}	.009	.015	4413	0.587	.557	.010	.015	4437	0.672	.502
	가 부모양육태도-비일관성 β_{111}	.008	.012	4689	0.703	.482	-.011	.012	4715	-0.896	.370
	교사관계-신뢰성 β_{112}	.011	.015	4830	0.702	.483	.002	.015	4853	0.137	.891
	친구관계-긍정 β_{113}	.012	.015	4520	0.769	.442	-.017	.015	4542	-1.100	.271
	친구관계-부정 β_{114}	-.004	.014	5129	-0.316	.752	.019	.014	5159	1.335	.182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1수준(시간) e_{ti}		0.143	0.378				0.167	0.409			
2수준(학생)											
초기치 r_{0i}		0.081	0.283				0.047	0.217			
변화율 r_{1i}		0.016	0.128				0.005	0.072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KCYPS 2018 1차~3차년도 자료에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적용하여 초4 코호트(초4~초6)와 중1 코호트(중1~중3)의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다양한 주요 변인을 확인하였으며, 랜덤 포레스트에서 도출된 주요 변인이 그릿의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탐색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결과, 초4 코호트의 경우 중요도 지수 10위 안에 도출되었던 변인 중 노력지속, 흥미유지에서 각각 특징적으로 8개 변인이 나타났으며, 1개의 변인이 공통적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1 코호트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도 지수 20위 안에 도출되었던 변인 중 노력지속, 흥미유지에서 특징적으로 6개의 변인을 확인하였으며, 공통적으로 14개의 변인이 도출되었다. 이처럼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변인을 다층성장모형의 독립변인에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4 코호트의 다층성장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생들이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노력지속과 흥미유지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의 변화를 살펴본 Duchworth와 Quinn(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그릿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초4 코호트의 노력지속, 흥미유지 각각 초기치(초4 시기)와 변화율(초4~초6)에 특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우선, 초4 코호트의 노력지속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 요인 중 지적발달 요인인 ‘학업열의-헌신’, ‘학업열의-효능감’, ‘학업열의-몰두’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그릿 노력지속 초기치(초4 시기)가 높았다. 또한 사회정서역량발달 변인 중 ‘삶의 만족도’, ‘협동심-집단촉진’, ‘협동심-팔로워십’이 높을수록 노력지속의 초기치(초4 시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교사관계-신뢰성’이 높을수록 그릿 노력지속의 초기치(초4 시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초등학교 시기에 노력지속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학업열의와 삶의 만족도, 협동심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노력을 지속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과의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초4 코호트의 노력지속의 변화율의 결과를 살펴보면, 노력지속의 변화율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노력지속의 변화율에 ‘학업열의’ 하위요인인 ‘활기’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열의-활기’가 노력지속이 감소하는 폭을 둔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시기 그릿 노력지속이 감소하는 폭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학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에너지와 활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부족함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릿 노력지속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초4 코호트의 흥미유지 초기치(초4 시기)와 변화율(초4~초6)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유의한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4 코호트의 흥미유지 초기치(초4 시기)에 유의하게 나타난 영향 변인을 살펴보면 환경 변인 중 가정 변인인 강요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이고 강요적인 태도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그릿 흥미유지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강요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그릿 흥미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임효진, 이소라, 2020). 가정에서 부모의 억압적인 태도는 자녀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자녀가 흥미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임효진, 이소라, 2020), 초등학생의 그릿 흥미유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관용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할 필요가 있다. 초4 코호트의 흥미유지의 변화율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년급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었다.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각각의 특징적인 결과와 더불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업열의-활기’와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변인이 초등학생의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초기치에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노력지속과 흥미유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은 주의집중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릿의 하위요인별 변화율에 대한 공통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중1 코호트의 다층성장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릿의 종단적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연구결과이다(김진구, 박다운, 2018; Duckworth & Quinn, 2009).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미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나라 학생에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중1 코호트의 노력지속, 흥미유지 각각 초기치(중1 시기)와 변화율(중1~중3)에 유의하게 나타난 특징적인 변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1 코호트의 그릿 노력지속 초기치(중1 시기)에 유의한 영향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 요인인 ‘삶의 만족도’, ‘협동심-갈등문제해결, 집단축진’의 초기치(중1 시기)가 높을수록 그릿 노력지속의 초기치(중1 시기) 또한 높았으며, 환경 요인인 ‘교사관계-신뢰성’이 높을수록 그릿 노력지속 초기치(중1 시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정혜원 외, 2021). 또한 그룹 활동에 있어 친구를 도와주고,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하고 협력하는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학습상황에서 그룹 활동을 구성하여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노력하는 태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혜원 외, 2020). 뿐만 아니라 교사는 학생을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끝까지 믿어주는 신뢰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1 코호트 노력지속의 변화율의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요인인 ‘학업열의-활기’와 ‘삶의 만족도’가 이러한 노력지속 변화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업을 대하는 태도가 활기가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그릿 노력지속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소폭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노력지속이 감소하는 폭을 더욱 급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치(중1 시기)가 높은 학생일수록 그릿 노력지속이 감소하는 폭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검증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여 추후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그릿 노력유지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중1 코호트의 흥미유지 초기치(중1 시기)와 변화율(중1~중3)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유의한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1 코

호트의 흥미유지 초기치(중1 시기)의 경우 노력지속에서 나타난 결과와 반대로 부정적인 변인들이 주로 유의한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인 요인인 ‘사회적 위축’이 높고 환경적 변인인 ‘부모양육태도’가 비일관적이며, ‘친구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릿 흥미유지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정혜원 외, 2020; 황매향, 2019). 또한 청소년이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나 행동을 극복하는 것이 그릿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황매향, 2019). 또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맺은 약속이 있다면 이를 지킨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중학생 자녀들의 흥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중학생의 시기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애착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가 이에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중학생의 그릿 흥미유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형석, 김재철, 2021). 한편, 중1 코호트 흥미유지의 변화율의 경우 학년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흥미유지의 변화율에 유의하게 나타난 영향 변인은 없었다.

중1 코호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두 가지 하위요인에 나타난 특징적인 결과와 더불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업열의-활기’, ‘학업열의-효능감’, ‘자아존중감’, ‘주의집중’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두 하위요인의 초기치(중1 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학생의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업에 목적과 에너지를 가지고 도전하며 자신을 가치있게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주의집중능력은 함양시키는 반면에 스마트폰의 과의존을 경계하고 적절한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이 필요하다(정혜원 외, 2020). 반면,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변화율의 경우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규모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종단적 다층구조의 성격을 가지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 각각의 주요 변인을 도출함으로써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을 탐색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더불어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에서 각각 도출된 주요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층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릿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증진 및 발달을 위한 시사점을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논의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슬. (2015). 초·중·고 학생의 그릿(Grit)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및 성별·학년별 특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5), 297-322.
- 김진구, 박다은. (2018). 청소년기 그릿과 시련극복역량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학교**, 15(1), 51-67.
- 김형석, 김재철. (2021). 중학교 1학년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8(5), 141-160.
- 박신영, 정혜원. (2021).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가 중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67-81.
- 박현린, 표정민, 김누리. (2019).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그릿과 행복추구경향이 대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6(3), 59-86.
- 백승원, 정진희, 이예진, 윤채영. (2020). 중학생의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교육발전**, 40(2), 407-428.
- 서미옥. (2019). 그릿(Grit)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학연구**, 57(1), 105-130.
- 신민, 안도희. (2015). 영재와 평재 고등학생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 Grit, 열망 및 성취목적 비교. **영재교육연구**, 25(4), 607-628.
- 원유정, 최혜정, 김형관. (2021). 빈곤 가정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학교사회복지**, 0(53), 107-128.
- 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2015). 학습에서의 그릿(Grit)의 중요성 탐색.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집**, 2015(1), 116-116.
- 윤미라. (2021). 중학생의 환경요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4), 411-428.
- 윤성혜, 유지원, 유영란. (2017).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 간의 관계에서 그릿(grit)의 매개효과 검증. **직업교육연구**, 36(3), 47-66.
- 이정림, 권대훈.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 임효진. (2017). 그릿(Grit)의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8(2), 169-192.
- 임효진. (2018). 단기 종단자료를 이용한 그릿 요인구조의 안정성 연구. **교육학연구**, 56(4), 77-102.
- 임효진. (2019). 그릿 개념의 재정립: 목적, 열정, 인내의 재검토. **교육심리연구**, 33(3), 317-339.

- 임효진. (2021). 그릿과 학업열의의 유형 및 자존감의 예측력. **교육학연구**, 59(1), 79-104.
- 임효진, 류재준. (2020). 그릿의 요인 및 성차와 연령차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58(4), 25-54.
- 임효진, 이소라. (2020). 그릿(Grit)을 매개로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부모, 교사, 교우 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초등교육**, 31(1), 109-127.
- 장유진, 이승연, 장유나, 홍세희. (2021). 청소년의 그릿,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간의 관계 :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27(1), 377-405.
- 정혜원, 김예림, 박소영. (2020). 초·중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673-693.
- 정혜원, 전현정, 김아름. (2021). 청소년의 그릿 및 학업열의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1), 117-146.
- 조제성. (2020). 부모의 양육태도, 그릿점수, 휴대폰 의존,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0(3), 83-103.
- 주영주, 김동심. (2016). 영재학생의 그릿(꾸준한 노력, 지속적 관심), 교사지원, 부모지원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영재교육만족도에 대한 예측력 검증. **특수교육**, 15(1), 29-49.
- 최정윤, 임효진. (2021).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921-950.
- 최효선, 양수진. (2018). 고등학생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2), 105-123.
- 탁하연, 조규판. (2021). 중학생의 그릿(노력지속, 흥미유지)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3), 329-348.
- 한수연, 유향은, 박용한. (2021). 그릿 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끈기와 흥미유지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33(1), 1-28.
- 한수연, 박용한. (2018). 중학생의 그릿 변화와 관련된 가정·학교 환경요인 탐색. **열린교육연구**, 26(4), 175-201.
- 한수연, 유향은, 박용한. (2021). 그릿 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끈기와 흥미유지에 미치는 효과: 숙달목표 수준에 따른 차이. **교육방법연구**, 33(1), 1-28.
- 한정욱, 박선미. (2018).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 지지와 학업성취압력이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165-182.
- 황매향. (2019). 학업상담에서의 그릿의 의미와 증진 방안 탐색. **초등상담연구**, 18(1), 1-21.

- Breiman, L. (2001). Random forests. *Machine Learning*, 45(1), 5-32.
-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6).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Duckworth, A.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Scribner/Simon & Schuster.
- Eskreis-Winkler, L., Duckworth, A. L., Shulman, E. P., & Beal, S.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5(36), 1-12.
- Hajjem, A., Bellavance, F., & Laroque, D. (2014). Mixed-effects random forest for clustered data. *Journal of Statistical Computation and Simulation*, 84(6), 1313-1328.
- Hwang, M. H., Lim, H. J., & Ha, H. S. (2018). Effects of grit on the academic success of adult female students at Korean Open University. *Psychological Reports*, 4(121), 705-725.
- Muenks, K. M., Wigfield, A., Yang, J., & O'Neal, C. (2016). *The factor structure of grit in two age groups and its relations with self-regulation and engage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Washington, DC.
- Kuhn, M., Wickham, H. (2020). *Tidymodels: a collection of packages for modeling and machine learning using tidyverse principles*.
- Wickham, H. (2014). Tidy data.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59(1), 1-23.
- Wickham, H., Averick, M., Bryan, J., Chang, W., McGowan, L., François, R., Grolemund, G., Hayes, A., Henry, L., Hester, J., Kuhn, M., Pedersen, T., Miller, E., Bache, S., Müller, K., Ooms, J., Robinson, D., Seidel, D., Spinu, V., & Hiroaki Y. (2019). Welcome to the tidyverse. *Journal of Open Source Software*, 4(43), 1686-1691, <https://doi.org/10.21105/joss.01686>

〈부록〉 기술통계

구분	변인	연도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지 적 발 달	그릿-노력지속	1차	2.874	0.609	154.097***	2.693	0.593	22.511***
		2차	2.765	0.579		2.663	0.553	
		3차	2.713	0.554		2.604	0.564	
	그릿-흥미유지	1차	2.862	0.670	68.445***	2.622	0.607	24.422***
		2차	2.716	0.609		2.598	0.575	
		3차	2.587	0.618		2.528	0.594	
	학업열의-헌신	1차	3.109	0.581	98.368***	2.891	0.628	31.359***
		2차	2.987	0.556		2.806	0.600	
		3차	2.921	0.568		2.786	0.593	
	학업열의-활기	1차	2.482	0.680	162.871	2.169	0.669	12.596***
		2차	2.637	0.654		2.216	0.668	
		3차	2.363	0.677		2.136	0.683	
	학업열의-효능감	1차	2.752	0.675	35.456***	2.434	0.734	25.995***
		2차	2.692	0.641		2.401	0.643	
		3차	2.631	0.637		2.332	0.672	
	학업열의-몰두	1차	2.579	0.615	17.875***	2.404	0.642	15.784***
		2차	2.505	0.579		2.429	0.595	
		3차	2.503	0.602		2.348	0.640	
개 인	삶의만족도	1차	3.103	0.566	168.504***	2.774	0.606	61.028***
		2차	2.957	0.549		2.696	0.545	
		3차	2.864	0.530		2.629	0.550	
	자아존중감	1차	3.219	0.469	203.773***	2.993	0.507	26.916***
		2차	3.080	0.468		2.936	0.454	
		3차	3.005	0.459		2.923	0.449	
	주의집중	1차	2.983	0.570	93.384***	2.832	0.562	3.863*
		2차	2.899	0.570		2.832	0.561	
		3차	2.806	0.585		2.862	0.560	
	우울	1차	1.532	0.534	136.323***	1.803	0.637	3.709*
		2차	1.651	0.555		1.766	0.606	
		3차	1.761	0.623		1.794	0.607	
	사회적위축	1차	2.012	0.739	57.855***	2.162	0.749	4.133*
		2차	2.044	0.701		2.131	0.718	
		3차	2.183	0.741		2.175	0.714	
	공격성	1차	1.752	0.561	85.762***	1.921	0.589	8.665***
		2차	1.831	0.574		1.897	0.593	
		3차	1.939	0.628		1.863	0.602	
	신체증상(건강)	1차	3.305	0.577	37.097***	3.141	0.606	1.681
		2차	3.234	0.585		3.143	0.606	
		3차	3.182	0.638		3.163	0.583	
	협동심-갈등문제해결	1차	2.961	0.601	.298	3.011	0.562	5.921**
		2차	2.953	0.562		2.981	0.532	
		3차	2.963	0.511		2.968	0.514	
	협동심-집단축진	1차	2.915	0.581	17.022***	2.895	0.570	14.667***
		2차	2.851	0.577		2.845	0.561	
		3차	2.842	0.540		2.827	0.541	
환 매 경 체	스마트폰 의존도	1차	1.771	0.534	386.802***	2.058	0.506	75.147***
		2차	1.989	0.503		2.145	0.485	
		3차	2.109	0.535		2.194	0.501	

구분	변인	연도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가정	부모양육 태도-거부	1차	1.627	0.526		1.764	0.625	
		2차	1.771	0.619	142.863***	1.826	0.620	11.402***
		3차	1.893	0.688		1.831	0.625	
	부모양육 태도 -비일관성	1차	1.882	0.608		2.042	0.640	
		2차	2.021	0.622	161.394***	2.054	0.630	.717
		3차	2.158	0.651		2.059	0.625	-
학교	교사관계- 신뢰성	1차	3.083	0.551		2.904	0.575	
		2차	2.986	0.562	36.981***	2.863	0.550	7.526**
		3차	2.980	0.484		2.858	0.518	1>2,3
	친구관계- 긍정	1차	2.985	0.525		3.114	0.536	
		2차	2.994	0.501	5.931**	3.079	0.490	15.820***
		3차	2.955	0.492		3.049	0.460	1>2>3
	친구관계- 부정	1차	1.802	0.483		1.854	0.518	
		2차	1.851	0.562	33.111***	1.840	0.565	7.411**
		3차	1.918	0.603		1.802	0.561	1,2>3

청소년의 그릿 종단적 변화 양상 및 영향 변인 탐색

김성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청소년 그릿의 하위 요인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대하여 그 초기 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입니다. 그릿은 Duckworth(2007)에 의해 제안되고 비교적 최근에 주목 받기 시작한 개념으로 탐구되어야 할 연구 영역이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릿과 관련된 변인 탐색, 그릿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그 결과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역시 그릿의 변화 경향과 그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특성을 이해하고 그릿을 규명하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연구는 그릿과 관련 있는 변인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탐구하고 이를 영향변인으로 투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 모형’이라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가 제안하는 관련 변인들을 모형에 투입하였고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릿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제안되어서 관련된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는 개념이나, 그간 연구 영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개념을 탐색하는데 있어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기에는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 자료가 제안하는 관련 변인을 연구모형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고, 연구모형 분석 이전에 관련 변인을 먼저 탐색해보는 이러한 절차를 제안한 것이 이 연구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강점이 더 잘 드러나도록 구성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차 백분율의 증가 경향이나 노드 순도 증가 값, 즉 결과를 어느 정도 제시해주거나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기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예를 들면 상관계수 파악 후 투입여부 결정 등)과는 어떻게 다르며 추가적인 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서술해주는 것 등입니다. 물론 반복 실험하는 방식으로 수치 자체를 보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점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접했던 랜덤 포레스트 모형 관련 연구와 달리 ‘혼합효과’ 모형을

활용하고 있는데 분석방법 소개부분에서는 혼합효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 독자로서 기존 모형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로서 도출된 내용들이 상세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노력지속과 흥미유지라는 두 개의 연구 대상이 되는 변인이 있고, 초4패널과 중1패널과 같이 두 개의 연구 대상 집단이 있으면서, 또 개별 모형에 대해서는 초깃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로 산출된 내용이 다양하고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결론의 구성은 독자들께서 아마 개별 결과는 ‘분석 결과’장에서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보고, 특정 결과에 초점을 두고 현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연구자께서 생각하는 이 분석의 결과로부터 학교 현장이나 가정, 후속연구자가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을 연구자가 제안해주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영향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학업열의의 활기라든지 자아존중감, 주의집중을 관계 지어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 가운데서도 패널 간 혹은 초깃값과 변화율 간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주는 특징적인 변수가 있다면 거기에 집중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마치며, 결론을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한 가지에 대한 짧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좋은 발표로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셔서 패널 연구팀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참고문헌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

장은지*, 김민석**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중1 패널 3차년도(2020년도) 중학교 3학년 2,384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사회정서역량의 주요 변수로 설정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협동심, 그릿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발달을 위해 다양한 인적·사회적 지원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성 향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 연결망, 청소년, 사회정서역량,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jej2064@naver.com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

I. 서론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 축소, 학원이나 도서관 같은 청소년 이용 시설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의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72%의 청소년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든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양시청소년재단(2020)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낮 시간을 주로 집에서 보낸 청소년이 82.9%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기간동안 가장 많이 한 활동은 동영상 시청(49.1%), 집에서 게임(20.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59.8%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걱정의 감정이 지배적이었으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일상생활 변화로 인한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5점 이상에서 5점 이하로 떨어지면서(김윤나, 이희연, 2020), 청소년에게 답답함, 우울, 두려움 등 부정적 감정이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이 가지는 네트워크의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건강한 사회정서역량발달을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적 연결망은 정보 습득,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유대감 등 내적·외적인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깊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는 것은 진로 관련 간접경험, 우울감 감소, 자신감 향상 등 청소년의 역량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지현, 한경혜(2012)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하면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밀도가 증가하면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너무 크거나 작은 사회적 연결망이 모두 높은 수준의 청소년 우울증과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김주연(2017)은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사회적 역할 영역의 증가를 초래하여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에 효과적으로 논의되던 강한 연대뿐만 아니라 ‘약한 연대의 힘(Granovetter, 1983)’이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선행연구이며, 본 연구에서 사회정서역량발달에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가 아닌 다양성을 분석하여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는 뒷받침이 된다.

이처럼 사회적 연결망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를 인식하고, 약하지만 다양한 연대가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는 노동시장에서부터 노인, 개인의 행복감 및 건강, 온라인 네트워크 상의 관계망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오인근, 2009; 이민아, 2013; 최규련, 2010).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강한 연결망을 통한 유대감과 지지체계의 중요성은 언급하고 있으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사회정서역량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뿐만 아니라 다양성 역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배경은 생태학적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발달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적 과정으로 전제한다.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Bronfenbrenner(1994)는 가족, 지역사회, 문화 등 개인이 몸 담고 있는 환경체계와 개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 발달의 주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이 변화할 때 개인적 발달과 행동 역시 변화한다(Bronfenbrenner, 1994). 즉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역시 가족과 학교, 친구, 지역사회 자원 등 외부 사회환경에 따라 발달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사회정서역량이 비교적 취약한 청소년의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사회정서역량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사회자본과 사회적 연결망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연결망은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자본 논의와 그 맥이 닿아있다(김상민, 김현호, 이성원, 2020). 사회자본을 논의한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자본이 발생한다고 이해한다. 이는 사회자본 논의에서 Bourdieu(1986)가 사회자본을 ‘제도화 여부와 상관없이 상호간에 존재하는 지속적인 관계의 연결망이 주는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개인이 갖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사람들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Bourdieu, 1986). 즉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이 풍부할수록 가질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이 많아지며, 이는 잠재적으로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의 형태를 가족 내 사회자본(social capital in the family)과 가족 외 사회자본(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으로 구분하였

다. 가족 내 사회자본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진로관련 대화·애착관계·결속력·가족 구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족 내 사회자본은 가족의 관심과 지원으로 연계되어 청소년의 교육 및 진로,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지원, 2006; 이재훈, 김경근, 2007). 가족 외 사회자본은 학교, 또래, 교사, 지역사회 등 가족을 제외한 외적인 환경을 포함하는 사회자본을 의미한다. Coleman(1988)은 가족 외 사회자본 중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며 가장 영향력있는 자본으로 학교 사회자본을 설명하였다. 특히 학교 사회자본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물리적 시설 및 환경, 분위기 등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존경하는 선생님, 나를 이해해주는 선생님, 친구 등 관계가 좋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윤경, 이상은, 2005).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가족 내·외의 긍정적인 관계망은 개인의 사회자본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미치는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를 인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연결망은 ‘강한 연결망’과 ‘약한 연결망’의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된다. 강한 연결망은 연결망의 밀도가 높아 높은 유대감과 깊은 신뢰를 가지지만, 크기는 작아 소수 관계망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연결망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종류와 질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의 이득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이재혁, 2007). 반면 약한 연결망은 구성원 간 연결망의 밀도가 낮아 유대감은 부족하나, 크기는 크기 때문에 많은 관계망을 가지게 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경우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획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이가영, 김신영, 2009), 구성원 간의 조율이나 유대감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이재혁, 2007).

사회적 연결망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노동시장에서부터 노인, 개인의 행복감 및 건강, 온라인 네트워크 상의 관계망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오인근(2009)은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접촉 빈도가 증가할수록 우울감과 고독감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타인과의 잦은 사회적 교류는 폭력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이민아, 2013), 친구관계가 양적 혹은 질적으로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최규련, 2010).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위의 두 가지 유형 중 약한 연결망 유형에 가깝다.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사회적 역할 유형의 총합’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개인이 최소한 한 명 이상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 영역에서 역할의 개수로 측정된다(김주연, 2017). 예를 들어 친구 5명과 정기적으로 대화한다면 연결망의 크기는 5이나 다양성은 친구 5명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아 1이 된다. 반면, 친구 3명·학원 선생님 2명과 정기적으로 대화한다면 연결망의 크기는 동일하게 5이나 다양성은 친구 3명이 한 영역, 학원 선생님이 또 다른 한 영역이 되어 총 2가 된다.

2.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측면에서 과도기를 경험하는 시기로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따라 사회정서적 특성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이다(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을 살펴보는 데 있어 개인 내적 특성, 가정환경요인, 학교환경요인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수준의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으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협동심, 그릿의 6가지 항목을 설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지의 인지적 측면과 삶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정서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최형임, 문영경, 2013). 삶의 만족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기효능감(김의철, 박영신, 2004), 가족의 지지(고영남, 2008), 교사와의 관계(이은주, 2003), 또래와의 관계(고영남, 2008), 사회적 지지(조아미, 2004) 등이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정과 학교 등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망이 긍정적일 경우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행복감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인지적 측면과 주관적·정서적 안녕감을 포괄하여 사용되고 있다(권세원, 이해현, 송인한, 2012). 김신영, 백혜정(2008)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리한 개념에 따르면, 행복감이 가장 협소한 개념이며 그 다음으로 주관적 안녕감,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주관적 삶의 질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김정연과 정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행복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김경민(2010)은 주변 상황에 대해 원만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의 경우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치있고 소중하며 긍정적이고 유능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이선미, 2021).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되며,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과 발달과정, 만나는 관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문은혜, 2019).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올바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생활하는 모든 단계와 장소에서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타인들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박정운, 2019).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외로움 등 여러 심리적 문제와 관련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뜻한다. 특히 만성적인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고립 및 회피성 성격장애, 학업실패, 자살시도, 범죄행동 등

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미설, 이동형, 2015). 박병선 외(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애탁이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민원홍과 손선옥(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은 개인의 기질적인 것보다는 발달맥락적인 환경과 대인관계적 요인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협동심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집단 공동체에서 보내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협동심은 청소년들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규범을 습득하며, 갈등과 경쟁을 줄일 수 있게 한다(김도희, 2020).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임양미, 2021), 또래관계(김도희, 2020), 집단의 목표 성취(이영효, 정주리, 2017) 등이 협동심의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그릿은 학업성취, 진로와 관련하여 장기적 발달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주로 성공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릿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의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여러 연구와 대중들은 그릿을 가르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정진리, 황성만, 2020).

3.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사회정서역량발달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요인을 강한 연결망과, 취업과 진로 및 빠르고 다양한 정보 습득을 약한 연결망과 연결시켜 언급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 및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 분석 연구(김수현, 강현정, 김윤정, 2008; 김경미, 2012), 청소년의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 분석 연구(김은경, 김경희, 2018), 사회적 연결망의 참여정도와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만족도 분석 연구(김혜연, 2011) 등은 사회정서적 요인과 강한 연결망을 강조한다. 반면 취업자의 사회 연결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김성훈, 2003),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적 연결망 관련 연구(강정환, 양유민, 2013) 등은 취업과 약한 연결망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서역량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가지는 중요성 역시 ‘약한 연결의 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Granovetter, 1983). 미국의 사회학자 Mark Granovetter(1983)에 따르면, 강한 연결보다 약한 연결이 어떠한 선택이나 결과에 더 큰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강한 연결망의 관계가 개인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약한 연결망은 서로에게 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행위자가 소속된 집단, 내부적으로 절친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집단의 경계를 뛰어넘게 되기 때문에 ‘약한 연결망의 강함’ 효과가 발생한다(이가영, 김신영, 2009). 이외에도 김주연(2017)은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사회적 역할 영역의 증가를 초래하며, 이는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다양한 연결망이 사회정서역량발달에 작용하는

효과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발달을 위해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강한 연결망이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다양한 연결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다양할 때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3차년도(2020년도) 중학교 3학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 조사에서는 전국의 중학교 3,213개교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 448,816명 중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162개교 2,59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그 중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청소년 응답자 2,38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로(진학, 직업 선택 등)와 관련하여 다음 분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또는 상담)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회자본을 가족 내·외 관계를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으로 본 선행연구의 개념에 따라(Bourdieu, 1986), 청소년에게 중요한 이슈인 진로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를 청소년이 구축한 사회적 연결망으로 보았다. 네트워크 다양성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 구축을 맺고 있을 경우 1로,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측정한 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 관련 대화 상대의 개수를 측정하여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으로 분석하였다(김민석, 정대용, 2010; 김복태, 이계만, 박범준, 2018; 이양복, 최항석, 2016).

대상자들은 7그룹의 대화 상대(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척·친지,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학원/과외 선생님)와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 각각 Likert 척도로 ‘자주 대화한다’, ‘가끔 대화한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그 중 각 대화 상대와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라고 응답

한 대화 상대를 ‘1’로,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대화 상대를 ‘0’으로 리코딩하였으며, 대화 그룹의 개수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 합을 계산하여 최고 7점, 최저 0점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연결망 문항에 대한 대상별 응답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24. 사회적 연결망 대상별 응답분포 (빈도수, %)

	자주 대화함(4)	가끔 대화함 (3)	별로 대화하지 않음 (2)	전혀 대화하지 않음 (1)	해당 없음 (0)
부	701(29.40)	1,049(44.00)	385(16.15)	133(5.58)	116(4.87)
모	1,437(60.28)	705(29.57)	128(5.37)	45(1.89)	69(2.89)
형제·자매	580(24.33)	605(25.38)	452(18.96)	403(16.90)	344(14.43)
친척·친지	143(6.00)	443(18.58)	813(34.10)	758(31.80)	227(9.52)
학교교사	245(10.28)	1,123(47.11)	725(30.41)	291(12.21)	0(0.00)
상담교사	87(3.65)	405(16.99)	612(25.67)	802(33.64)	478(20.05)
학원선생님	430(18.04)	900(37.75)	431(18.08)	341(14.30)	282(11.83)

2) 사회정서역량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역량으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협동심, 그릿’의 6가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삶의 만족도(5문항), 행복감(4문항), 자아존중감(10문항), 사회적 위축(5문항), 협동심(13문항), 그릿(8문항)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모든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수를 설명하는 의미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표 125. 사회정서역량 문항별 평균 점수 (4점 기준)

		N=2,384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삶의 만족도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2.54	0.67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2.79	0.67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2.89	0.70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2.56	0.71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2.36	0.83
행복 감	전반적으로 나는 ...	3.13	0.53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3.11	0.58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	2.95	0.62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	3.02	0.71

문항		N=2,384	
		평균	표준 편차
자아 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2.93	0.6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4	0.79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2.84	0.70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3.04	0.66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2.93	0.75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3.12	0.7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3.06	0.61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15	0.72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3.11	0.76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3.00	0.65
사회적 위축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2.06	0.90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2.21	0.88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2.04	0.83
	수줍어한다	2.26	0.82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2.29	0.90
협동심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2.80	0.65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2.98	0.64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2.90	0.72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2.82	0.72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2.69	0.76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76	0.71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3.14	0.63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97	0.65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3.02	0.65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3.01	0.67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2.95	0.67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2.90	0.68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3.00	0.63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97	0.63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2.48	0.73
그릿 (Grit)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2.63	0.74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2.50	0.76
	나는 노력가이다	2.72	0.73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2.55	0.72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2.60	0.76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2.62	0.71
나는 부지런하다		2.46	0.74

* 역코딩 문항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구요인(월 평균 가구 소득,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구원 수), 개인(학교)요인(친구관계, 청소년 활동, 교내외 동아리 활동, 학업성취 만족도,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학년은 중학교 3학년으로 동일하나 출생연도에 따라 15~17세로 구분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수도권 지역으로, 나머지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가구 요인의 4가지 변수는 모두 보호자 설문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관련 응답 값 중 결측치는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가정의 경제 수준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소득없음과 100만 원 미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범주로 응답하였다. 아버지·어머니의 학력은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석사·박사)으로 구분하여 응답하였다. 가구원 수의 경우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가구로 분류하였다.

셋째, 개인(학교) 요인으로 친구관계 13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모든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청소년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과학/정보 관련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자원봉사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 국제 교류 활동, 건강/보건 관련 활동,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환경 보존 관련 활동의 9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각각 연간 참여 경험 횟수에 대해 1점 ‘참여 경험이 없다’, 2점 ‘1~2회’, 3점 ‘3~4회’, 4점 ‘5회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교내외동아리 활동 역시 동일하게 연간 참여 경험 횟수로 응답하였다. 학업성취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는 1점 ‘매우 불만족’, 2점 ‘매우 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하였다. 성적은 전체 과목 학업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응답자들은 1점 ‘매우 못함’, 2점 ‘못함’, 3점 ‘보통’, 4점 ‘잘함’, 5점 ‘매우 잘함’으로 응답하였다.

3. 분석방법

모든 자료는 STATA v.14.1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는 각 변수들의 빈도(N)와 비율(%), 평균값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384명의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이 1,278명(53.6%), 여학생이 1,106명(46.4%)으로 유사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학력은 중학교 3학년이나, 연령은 15세(2006년 출생) 30명(1.3%), 16세(2005년 출생) 2,345명(98.4%), 17세(2004년 출생) 9명(0.4%)로 구분되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1,178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49.4%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206명으로 50.6%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인 476명(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9명(0.4%)이 소득없음으로 응답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 모두 4년제 대학 졸업(각각 40.5%, 33.2%)이 가장 많았다. 가구원 수는 4인 가구가 1,281명(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 가구(20.9%), 3인 가구(16.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표 126.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384	
구분		빈도 (N)	비율 (%)
성별	남	1,278	53.61
	여	1,106	46.39
출생연도	15세 (2006년)	30	1.26
	16세 (2005년)	2,345	98.36
	17세 (2004년)	9	0.38
거주지역	비수도권	1,206	50.59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178	49.41
월 평균 가구 소득*	소득 없음	9	0.38
	100만 원 미만	21	0.88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80	3.36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83	7.69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413	17.35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476	20.00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471	19.79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279	11.72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185	7.77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09	4.58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52	2.18
	1,000만 원 이상	102	4.29

구분		N=2,384	
		빈도 (N)	비율 (%)
아버지 학력	학교 안 다님	1	0.04
	초등학교 졸업	6	0.26
	중학교 졸업	25	1.10
	고등학교 졸업	653	28.72
	2~3년제 대학 졸업	448	19.70
	4년제 대학 졸업	920	40.46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221	9.72
어머니 학력	학교 안 다님	1	0.04
	초등학교 졸업	11	0.48
	중학교 졸업	25	1.08
	고등학교 졸업	716	30.96
	2~3년제 대학 졸업	657	28.40
	4년제 대학 졸업	767	33.16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136	5.88
가구원 수	2인	60	2.52
	3인	395	16.60
	4인	1,281	53.82
	5인	498	20.92
	6인	114	4.79
	7인 이상	32	1.34

2. 기술통계 분석 결과

주요 변수인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의 경우, 총 7점 만점에 평균 3.71점(표준편차 1.71)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로 활용한 사회정서역량의 6가지 변수는 모두 최소 1점, 최대 4점이었으며 삶의 만족도 평균 2.63점(표준편차 0.55), 행복감 평균 3.05점(표준편차 0.46), 자아존중감 평균 2.92점(표준편차 0.45), 사회적 위축 평균 2.17점(표준편차 0.71), 협동심 평균 2.92점(표준편차 0.47), 그릿 평균 2.57점(표준편차 0.42)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사용한 개인(학교)요인의 6가지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 활동 참여 횟수와 교내외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의 경우 점수는 참여 횟수가 아닌 응답 범주에 따른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 가구 관련 응답값 중 결측치는 평균값 대체

* 앞서 설명한대로 '참여 경험이 없다'는 1점, '1~2회' 2점, '3~4회' 3점, '5회 이상'은 4점으로 응답함.

표 127.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1	4	2.63	0.55
행복감	1	4	3.05	0.46
자아존중감	1	4	2.92	0.45
사회적 위축	1	4	2.17	0.71
협동심	1	4	2.92	0.47
그릿(Grit)	1	4	2.57	0.42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0	7	3.71	1.71
친구관계	1.38	4	3.11	0.39
청소년 활동 참여 횟수	1	3.67	1.38	0.43
교내외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	1	4	1.60	0.74
학업성취 만족도	1	5	3.21	0.94
성적	1	5	3.27	0.91
학교생활 만족도	1	5	3.27	0.99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의 주요 변수인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사회정서역량으로 설정한 6가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각 변수들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8.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7
1 사회적 다양성	1						
2 삶의 만족도	.190***	1					
3 행복감	.151***	.568***	1				
4 자아존중감	.104***	.570***	.679***	1			
5 사회적 위축	-.175***	-.237***	-.295***	-.356***	1		
6 협동심	.202***	.284***	.315***	.363***	-.240***	1	
7 그릿	.178***	.394***	.357***	.458***	-.356***	.356***	1

*p<.05, **p<.01, ***p<.001

4. 연구모형 분석 결과

중학교 3학년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정도가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6가지 종속변수의 회귀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을 확인해본 결과,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삶의 만족도($\beta=.045$, $p<.001$), 행복감($\beta=.026$, $p<.001$), 자아존중감($\beta=.012$, $p<.05$), 사회적 위축($\beta=-.062$, $p<.001$), 협동심($\beta=.036$, $p<.001$), 그릿($\beta=.030$, $p<.001$)의 6가지 사회정서역량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연결망이 다양할수록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사회정서역량에 따른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성별($\beta=-.082$, $p<.001$), 거주지($\beta=-.043$, $p<.05$), 친구관계($\beta=.362$, $p<.001$), 청소년 활동($\beta=.056$, $p<.001$), 학업성취 만족도($\beta=.137$, $p<.001$), 학교생활 만족도($\beta=.055$, $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행복감에는 ‘성별($\beta=-.110$, $p<.001$), 월 평균 가구소득($\beta=.013$, $p<.01$), 친구관계($\beta=.444$, $p<.001$), 청소년 활동($\beta=.064$, $p<.01$), 학업성취 만족도($\beta=.050$, $p<.001$), 학교생활 만족도($\beta=.025$, $p<.01$)’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변수는 ‘성별($\beta=-.130$, $p<.001$), 월 평균 가구소득($\beta=.008$, $p<.05$), 친구관계($\beta=.457$, $p<.001$), 학업성취 만족도($\beta=.046$, $p<.001$), 성적($\beta=.066$, $p<.001$), 학교생활 만족도($\beta=.026$, $p<.01$)’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 ‘성별($\beta=.117$, $p<.001$), 거주지($\beta=.093$, $p<.001$), 친구관계($\beta=-.516$, $p<.001$), 성적($\beta=-.095$, $p<.001$)’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심은 ‘친구관계($\beta=.434$, $p<.001$), 청소년 활동($\beta=.135$, $p<.001$), 교내외 동아리활동($\beta=.049$, $p<.001$), 성적($\beta=.091$,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그릿 변수에는 ‘성별($\beta=-.078$, $p<.001$), 친구관계($\beta=.244$, $p<.001$), 청소년 활동($\beta=.040$, $p<.05$), 성적($\beta=.104$, $p<.001$), 학교생활 만족도($\beta=.027$, $p<.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사회정서역량별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의 결과는 <표 7>에 정리하였으며, 6가지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친구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9.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삶의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위축	협동심	그릿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독립 변수	사회적 연결망	0.045*** (0.006)	0.026*** (0.005)	0.012* (0.005)	-0.062*** (0.008)	0.036*** (0.005)	0.030*** (0.005)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여자=1)	-0.082*** (0.020)	-0.110*** (0.017)	-0.130*** (0.016)	0.117*** (0.027)	0.019 (0.017)	-0.078*** (0.016)
	연령	-0.109 (0.079)	-0.062 (0.064)	-0.032 (0.062)	-0.061 (0.106)	0.037 (0.065)	0.042 (0.061)
	거주지(수도권=1)	-0.043* (0.020)	-0.024 (0.017)	-0.015 (0.016)	0.093*** (0.028)	0.013 (0.017)	0.003 (0.016)
	월 평균 가구소득	-0.001 (0.005)	0.013** (0.004)	0.008* (0.004)	-0.001 (0.007)	-0.003 (0.004)	0.000 (0.004)
가구 요인	아버지 학력	0.016 (0.013)	0.004 (0.011)	0.001 (0.010)	-0.021 (0.017)	0.019 (0.011)	0.002 (0.010)
	어머니 학력	0.003 (0.014)	0.002 (0.011)	-0.001 (0.011)	-0.025 (0.019)	0.013 (0.011)	0.002 (0.011)
	가구원 수	0.008 (0.012)	-0.008 (0.010)	-0.003 (0.009)	0.013 (0.016)	0.006 (0.010)	-0.009 (0.009)
	친구관계	0.362*** (0.026)	0.444*** (0.021)	0.457*** (0.021)	-0.516*** (0.036)	0.434*** (0.022)	0.244*** (0.020)
개인 (학교) 요인	청소년활동	0.056* (0.026)	0.064** (0.021)	0.029 (0.020)	0.026 (0.035)	0.135*** (0.021)	0.040* (0.020)
	교내외동아리활동	-0.022 (0.015)	0.017 (0.012)	0.021 (0.012)	0.026 (0.020)	0.049*** (0.012)	-0.005 (0.011)
	학업성취만족도	0.137*** (0.014)	0.050*** (0.011)	0.046*** (0.011)	-0.010 (0.019)	-0.010 (0.011)	0.020 (0.011)
	성적	-0.005 (0.015)	0.016 (0.012)	0.066*** (0.011)	-0.095*** (0.020)	0.091*** (0.012)	0.104*** (0.011)
	학교생활만족도	0.055*** (0.011)	0.025** (0.009)	0.026** (0.008)	0.020 (0.014)	-0.007 (0.009)	0.027** (0.008)
	상수항	0.733*** (0.141)	1.202*** (0.114)	0.995*** (0.110)	4.361*** (0.189)	0.711*** (0.116)	1.169*** (0.108)
R ²		0.204	0.238	0.271	0.148	0.263	0.186
수정된 R ²		0.200	0.234	0.267	0.143	0.259	0.181
F		43.49***	52.97***	63.05***	29.35***	60.48***	38.73***

* $p < .05$, ** $p < .01$, *** $p < .001$

표 130.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협동심	그릿
·사회적 연결망 ·성별(-) ·거주지(-) ·친구관계 ·청소년활동 ·학업성취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사회적 연결망 ·성별(-) ·월평균가구소득 ·친구관계 ·청소년활동 ·학업성취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사회적 연결망 ·성별(-) ·월평균가구소득 ·친구관계 ·학업성취만족도 ·성적 ·학교생활만족도	·사회적 연결망(-) ·성별 ·거주지 ·친구관계(-) ·성적(-)	·사회적 연결망 ·친구관계 ·청소년활동 ·교내외동아리 ·성적	·사회적 연결망 ·성별(-) ·친구관계 ·청소년활동 ·성적 ·학교생활만족도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사회정서역량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연결망이 다양할수록 풍부하고 의미있는 경험과 빠른 정보습득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정서역량발달을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협동심,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구에서 사회정서역량으로 설정한 6가지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한 연결의 힘을 강조한 Granovetter(1983)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인지기능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김주연(2017), 이가영, 김신영(2009), 이지현, 한경혜(2012)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로 활용한 변수 중 친구관계는 6가지 사회정서역량 모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최정미, 김미란, 2003), 삶의 만족도(조진만, 강정한, 이병규, 2012), 행복감(김경민, 2010), 사회적 위축(박병선 외, 2017) 등 다른 여러 요인들과의 관계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 있으며,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외에 성별 변수는 협동심을 제외한 5가지 변수(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분석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각 변수의 의미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요인에서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학교)요인에서는 청소년 활동이 삶의 만족도, 행복감, 협동심, 그것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내외 동아리 활동은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생활만족도는 그것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협동심, 그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뿐만 아니라 다양성 역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약한 연결망과 사회정서역량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증에 더하여서, 사회적 연결망의 밀도가 심리내적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통념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을 보완하여 건강한 사회정서역량발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이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자원의 부족은 사회관계망의 상호 협력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김성경, 2015; 김영애, 2018; 신원영, 강현아, 2008).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성은모, 2016; 양지훈, 김민아, 2016; 엄미선, 한상미, 2017). 결국, 부족한 사회적 연결망 및 사회적 자본은 인위적이고 프로그램화되어 시도되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형제자매, 친척, 학교교사, 학원선생님, 상담교사 등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사회적 연결망은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질과 양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에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갖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청소년 대상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확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양지훈, 김민아(2016)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 21편을 엄선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 상당한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자아존중감, 진로계획설정, 사회성 측면의 학교적응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충족되지 않았던 다양한 조언들을 멘토링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후속연구와 실천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어떤 형태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아쉽게도 양지훈·김민아(2016)의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시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떤 형태의 멘토링프로그램(예, 운영주체, 프로그램기간, 참여자 모집방법, 멘토조건, 멘티조건, 모니터링, 중간평가, 멘토멘티 참여율 유지전략, 수퍼비전 체계, 프로그램 지속성 등)이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으로는 우선,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 측정 도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은 응답자의 주변 대상별 진로 관련 대화 여부를 합산하여 활용하였으나, 이것이 응답자의 ‘사회적 연결’을 정확히 보여주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시기의 깊고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사회적 연결망에 초점을 맞춘 문항 개발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시점에서의 분석을 목표로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향후 다년간의 패널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연결망 다양성이 중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이 이후의 고등학교 생활, 나아가 졸업 시점 및 성인 시기까지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연결망 또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망 다양성의 효과성을 확인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주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사회적 연결망의 효용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정환, 양유민. (2013). 사회적 연결망의 동원이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3(2), 29-51.
- 고양시청소년재단. (2020). **코로나19,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결과**.
- 고영남. (2008).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5(2), 111-131.

- 권세원, 이애현, 송인한. (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모델 (Adolescent Resilience Model)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185-208.
- 김경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5, 40-74
- 김도희. (202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8(5), 485-495.
- 김민석, 정대용. (2009). 네트워크 다양성과 강도가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237-240.
- 김복태, 이계만, 박범준. (2018). 협동조합 네트워크 다양성이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1), 183-209.
- 김상민, 김현호, 이성원. (2020).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 :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공공정책부문 효과분석. **지방행정연구**, 34(1), 227-268.
- 김성경. (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1, 23-46.
- 김성훈. (2003). 취업에서 연결망이 활용되는 양상.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455-471.
- 김수현, 강현정, 김윤정. (2008). 농어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3), 51-71.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영애. (2018).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활동연구**, 4(1), 21-41.
- 김윤나, 이희연. (2020).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와 소년보호정책적 함의. **한국소년정책학회**, 33(2), 1-27.
- 김은경, 김경희. (2018). 앱 세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유형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9(3), 275-301.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정연, 정현주. (2008).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3, 171-190.
- 김주연. (2017). 한국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인지기능. **한구인구학회**, 40(4), 1-24.
-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

- 행정학, 13(3), 1-29.
- 문은혜. (2019). **청소년기 자존감 초기치, 변화율과 성인모색기 삶의 만족, 또래애착 사이의 종단적 관계**.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원홍, 손선옥. (2017).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의 발달 궤적에 대한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 부모지도감독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75-99.
-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 박정윤. (2019).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분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원. (2006).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1-14.
- 성은모.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서지원 멘토링프로그램 운영모형개발. **아시아교육연구**, 17(3), 221-251.
- 신원영, 강현아. (2008).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57-87.
- 양지훈, 김민아. (2016).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1), 65-94.
- 엄미선, 한상미. (2017).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31(4), 189-206.
- 오인근. (2009). 저소득 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관 서비스이용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44, 111-130.
- 윤미설, 이동형. (201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사회정서적 기능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2(9), 301-326.
- 이가영, 김신영. (2009). 청소년의 사회연결망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2(2), 21-45.
- 이민아. (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U자형 관계와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한국사회학회**, 47(4), 171-200.
- 이선미. (2021).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양복, 최항석. (2016). 지배구조 및 네트워크 다양성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독경상학회**, 34(3), 57-77.
- 이영효, 정주리. (2017).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기술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39(2),

- 85-101.
- 이은주. (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혁. (2007). 시민사회와 시민적 자본.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 이론**, 10, 213-261.
- 이재훈, 김경근. (2007).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한국교육학연구**, 13(2), 175-208.
- 이지현, 한경혜. (2012).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170-205.
- 임양미. (2021).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 및 그릿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1), 62-74.
- 정윤경, 이상은.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59-305.
- 정진리, 황성만. (2020).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교과외 활동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11), 263-312.
-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9(3), 87-98.
- 조아미. (2004). **청소년의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진만, 강정환, 이병규. (2012).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논집**, 43(1), 47-71.
- 최규련. (2010). 가족환경과 학업 및 친구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95-111.
- 최영임, 문영경.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189-209.
- 최정미, 김미란. (2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코로나19 이후 1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기록.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1 Vol. 02.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ohn G.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 3, 2nd. Ed. Oxford:

Elsevier.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Granovetter, M. (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Sociological Theory*, Vol. 1, 201-233. New York: Wiley.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문

서정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패널을 활용하여 학술적, 실천적으로 함의가 있는 충실한 논문을 작성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전체적으로 연구 전반에 걸쳐 학술논문으로써의 고민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특별한 흠결을 찾기 어려운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논문으로써 논리적이라고 느껴졌으며 연구의 제한점 또한 설득력 있었고 전반적인 가독성 또한 높았습니다.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하여 ‘느슨한 연결망’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 주관적 복지감의 하위변인인 행복감, 생활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한 점,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자본과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에 활용하려고 노력하신 점, 사회자본과 사회정서역량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다양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하신 점,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로 제시한 점 등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면 보다 더 내용과 논의가 풍부한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점을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로 (1) 사회적 연결망을 포괄하는 사회자본의 개념과 정의, 논의에 대한 사항, (2)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으로 활용하신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개념상, 설명상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3)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언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등이 중심이 됩니다. 분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도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관계망 시각의 대표적인 학자인 Bourdieu와 Coleman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자본의 개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자본을 구조적 측면(structural)과 인지적 측면(cognitive)으로 살펴보고 있으며(Yip et al., 2007)

사회연결망은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의 대표적 개념입니다. 본 연구가 이러한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고 있는 만큼 사회자본의 또 다른 축으로 대표적 학자인 Robert Putnam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Putnam은 인지적 사회자본인 신뢰, 규범과 더불어 구조적 사회자본으로써의 사회관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이며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연결망(관계망)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에 대한 참여수를 주된 척도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Tisenkopfs, Lace & Mierina, 2008에서 재인용). Putnam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면 사회자본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는 물론 사회연결망의 중요성과 이것이 사회정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이해하고 결과를 설명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사회자본의 두 가지 중요 유형으로 ‘가족, 지역사회, 종교조직 등의 정체성과 그룹 소속감에 기반한 강한 사회적 결속’을 의미하는 결합(bonding) 사회자본과 ‘사람 간의 보다 먼 연결로 보다 약하지만 보다 횡적인 결속으로 특징 지워지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개(Bridging)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Schuller, 2007)도 추가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이 둘 자본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 기존 연구결과를 보다 설득력 있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Woolcock과 Narayan(2000)은 결합자본은 삶에서 살아가는데(getting by), 중개사회자본은 삶에서 성공하는데(gettig ahead)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어 이 두 사회자본이 삶에 미치는 부분이 다름을 강조하는 동시에 각 자본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문헌 위주의 이론적 고찰이 아니라 사회자본에 대해 방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 해외 원문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 있는 ‘생태학적 이론’ 보다는 (다소 어렵더라도) ‘사회자본이론 또는 프레임워크’가 이론적 틀로 보다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둘째, 행복과 관련된 개념 또한 국내 문헌을 주로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복감, 삶의 만족도 등과 관련하여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지의 인지적 측면과 삶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정서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인용하셨는데 요, 이 표현은 방대한 주관적 복지감 관련 해외연구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유사한 개

념으로 혼용되어 (주로 국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 하위 개념이며 위 설명은 삶의 만족도가 아닌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지의 인지적 측면과 삶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정서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요약컨대 주관적 안녕감(또는 복지감)과 관련하여서는 서구의 다양한 연구들에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인지적 측면으로의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감정적 측면으로의 행복감(feeling of happiness)”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Pacek & Radcliff, 2008; Simsek, 2008). 행복에 대한 공신력 있는 국제비교연구인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는 물론 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도 해당 논의에 기반하여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생활만족도)를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둘을 합친 개념을 주관적 복지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청소년행복감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인지적 측면과 주관적·정서적 안녕감을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인용한 부분 또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유수의 해외 연구에서 주관적·정서적 안녕감=행복감(Diner et al., 1999; Frey & Stutzer, 2000), 인지적 측면=삶의만족도/생활만족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합친 것을 주관적 안녕감/복지감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을 국내문헌을 통한 재인용이 아니라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그릿을 동일 선상의 사회정서 “역량” 변수로 묶은 근거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족도나 행복감이 “역량”이 될 수 있는지요?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사회적 역량(competence)의 종속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즉 사회적 역량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독립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Ash and Huebner, 2001; Proctor, Linley, & Maltby, 2009에서 재인용) 행복감, 삶의 만족도를 사회정서역량으로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이 적절할까요? 전후관계, 인과관계가 상당부분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을 동일 선상에서 분석하는 것의 위험성 또는 한계점은 없는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석과 관련하여 표5 상관계 분석 결과에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에 상관계수가 0.679로 다중공선성을 나타낼 위험이 있는 수치에 상당히 가까운데 이로 인해 분석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관계수 분석 결과에는 통제변인간의 상관계수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학업성취만족도-성적, 아버지 학력-어머니 학력 또한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위험이 있는 변인

들로 통제변인 간의 상관관계계수 검토 결과도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변인(자아존중감, 협동심, 그릿) 간의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인을 구성하는 다수의 문항들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증을 실시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제안이 ‘멘토링 프로그램’인 것이 다소 어색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논문의 첫 부분에서도 코로나19 발생이후 등교 축소, 학원이나 도서관 같은 청소년 이용 시설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 등 다양한 중시-거시 체계가 사회적 연결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연구에서 이론적 틀로 미시-중시-거시 체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생태체계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또한 미시-중시-거시적 측면에서 개인적 측면의 제언, 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의 제언, 국가/제도적 측면에서의 제언 등으로 보다 다양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련하여 Schuller(2007)는 관계망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시민, 시장, 정부 행위자의 다양성과 더불어 사회자본 형성 및 활용에서 다양한 체계들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다양한 체계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보다 더 가치 있는 논문이 될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며 토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논문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Frey, B. S., &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 Pacek, A. C., & Radcliff, B. (2008). Welfare Policy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n Individual-Level Assess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1), 179-191.
- Proctor, C. L.,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83-630.
- Schuller, T. (2007). Reflections on the use of social capital. *Review of Social Economy*, 65(1), 11-28.
- Şimşek, O. F. (2008). Happiness Revisited: Ontological Well-Being as a Theory-Based Construc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05-522.

Tisenkopfs, T., Lace, I., & Mierina, I. (2008). Social capital. In J. D. van der Ploeg & T. Marsden (Eds.), *Unfolding Webs, the Dynamics of Regional Rural Development* (pp. 87–110). Van Gorcum.

Woolcock, M., & Narayan, D.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49.

Yip, W., Subramanian, S. V., Mitchell, A. D., Lee, D. T. S., Wang, J., & Kawachi, I. (2007). Does social capital enhance health and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64(1), 35–49.

부모의 그림이 자녀의 그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분석 : 부모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보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부모의 그림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림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부모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이 부모의 양육태도인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강요를 통해 자녀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 자료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4~6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그림 발달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장모형을 동원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부모의 그림,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그림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평균 그림 성장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부모의 그림과 양육태도는 아동의 그림을 증진시키는 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흥미유지는 자녀의 그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양육태도 강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유지와 달리 노력지속은 자율성지지를 통해서 자녀의 그림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동의 그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그림과 양육태도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이후 그림 발달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부모의 그림, 자녀의 그림, 부모의 양육태도, KCYPS 2018

〈대학원생 경진대회 우수논문 수상작〉

*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수료, gstar2288@pusan.ac.kr

I. 서론

그릿(GRIT)은 성공적인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요 특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성공 예측 요인으로서 그릿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아동의 그릿을 장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부모의 그릿과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규명한다. 그릿의 발달 양상을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 연구는 그릿의 이론적 논의의 틀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열정의 정도인 흥미유지와 인내의 정도를 의미하는 노력지속으로 구성된 개념이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높은 수준의 그릿을 보이는 사람들은 성취를 마라톤처럼 여기며 장애물이나 지루함을 겪더라도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장기 목표를 향해 높은 스테미나(stamina)를 유지한다. 실패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노력과 관심을 유지하는 성향을 보이는 이들은 높은 개인 성취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보은, 2021; Duckworth et al., 2007). 실제로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그릿은 개인의 학업성취도(이수란, 손영우, 2013; 이정림, 권대훈, 2016; 홍민성, 이수란, 2019; Bowman, Hill, Denson, & Bronkema, 2015, Duckworth et al., 2007), 삶의 만족도(류영주, 양수진 2017; 윤미리, 이현정, 홍세희, 2020)를 비롯하여 협동심(전란영, 2020)과 같은 타인 지향적 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성공적인 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그릿의 영향력이 확인되면서(홍민성, 이수란, 2019; Duckworth & Quinn, 2009) 그릿 형성을 촉진하는 선행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그릿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세대 간 이전되어 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그릿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혜원, 최진수, 이수란, 2021; 전향신, 박분희, 2020; Kevin, Veena, Aiswarya, & Vandana, 2020).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기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모델링하여 그릿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 관련 연구들은 부모의 그릿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그릿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윤기봉, 2020; 황용재, 김창겸, 2020).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문들은 종단 자료의 부재로 인해 아동의 그릿 발달과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횡단 자료를 분석하여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들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연구들은 다양한 영역의 양육태도가 그릿에 미치는 구조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릿을 단일 요인으로 분

석한 관련 연구들은 그림의 하위 구성 개념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발달에 미치는 부모 요인들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메타분석을 통해 기존 그림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Credé, Tynan and Harms(2017)는 그림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할 경우 예측 결과의 타당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그림의 이원적 개념의 틀을 반영하여 그림을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공헌을 확대하기 위해 아동의 그림 발달을 장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부모의 그림과 양육태도의 구조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로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대표성을 갖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을 활용하여 부모의 다양한 양육태도가 부모의 그림과 자녀의 그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이 종단 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주요 양육태도로 조사되고 있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강요가 자녀의 그림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예측하였다. 우선 아동의 그림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지 성장모형(growth curve model)을 동원하여 추정하였다. 이 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부모의 그림이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의 그림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위계적 데이터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Hubert -White 표준 오차 추정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모집단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지금까지 아동의 그림을 장기적으로 추적한 종단 자료가 없었던 만큼 이 연구는 다소 탐색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림의 발달 양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아동의 그림을 장기적으로 촉진하는 데 요구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이 논문은 학문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부모의 그림과 양육태도가 아동의 그림 발달에 미치는 장기 효과를 밝힘으로써 이 연구가 그림 발달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그림의 개념과 요인구조

그림은 장기적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며,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Duckworth et al., 2007). 흥미유지(consistency of interests)는 장기적 목표에 대해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열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며, 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인내의 정도를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그릿은 충동을 억제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과 열의 다한다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성실성, 자기통제와 같은 기존 개념들과의 유사성에 대해 지적 받아왔다(Credé, Tynan, & Harms, 2017; Muenks, Wigfield, Yang, & O’Neal, 2017). 그러나 그릿은 기존 개념들보다 장기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차이가 있으며, 성취변인들에 대한 예측력이 기존 개념 이상으로 나타나거나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 그릿이 독립적인 개념임이 확인된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Gross, 2014; Duckworth & Quinn 2009).

그릿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릿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자 한 연구들에 따르면 그릿을 별개의 두 하위 요인(흥미유지, 노력지속)으로 나누어 분석해야함을 강조한다(임효진 2017a, 2017b; Credé et al., 2017;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Muenks et al., 2017; Wolters & Hussain, 2015).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그릿을 단일 요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메타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Credé et al.(2017)은 그릿은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으로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일 요인으로 분석할 경우 수행에 대한 예측 정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의 요인구조를 탐색한 국내 연구에서도 2요인 모형이 그릿의 요인구조로 가장 적합함을 확인한 바 있다(임효진, 2017a, 2017b).

이상 선행 연구를 통해 그릿은 그릿의 개념과 요인구조를 기반으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두 가지 하위요인을 별개로 분석해야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릿의 두 하위 요인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그릿과 개인의 심리, 수행 및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그릿의 영향력이 입증되어왔다. 관련 연구들은 그릿이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강문선, 양수진, 2019; 최효선, 양수진, 2018), 학업성취(이수란, 손영우, 2013; 이정림, 권대훈, 2016; 홍민성, 이수란, 2019; Bowman et al., 2015), 또래관계(이영주, 김덕진, 2019)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양한 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그릿의 영향력이 실증적으로 확인되면서 그릿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림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왔다(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솔, 2015; 정진리, 황성만, 2020). 특히 아동의 그림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미숙 외(2015)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수준은 아동에게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가정에 많은 책을 구비하는 것과 같은 그림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제적 기반으로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수준은 비교과 활동 참여와 부모의 심리적 요인과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그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정진리, 황성만, 2020).

최근에는 부모의 그림이 자녀의 그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자녀의 그림 발달에 부모의 그림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부모의 그림이 자녀의 그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윤기봉, 2020; 이해원, 최진수, 이수란, 2021; 전향신, 박분희, 2020; 황용재, 김창겸, 2020; Kevin et al., 2020).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부모-자녀의 그림 간의 관계를 살펴본 Kevin et al.(2020)은 부모의 그림이 자녀의 그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그림이 자녀의 그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어머니의 학력보다는 어머니가 능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직업 활동에 임하는 것이 자녀의 그림 발달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장기 목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의 열정적인 태도를 모델링함으로써 그림을 발달시켜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녀의 그림에 미치는 부모의 그림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된다(윤기봉, 2020; 이해원, 최진수, 이수란, 2021; 전향신, 박분희, 2020; 황용재, 김창겸, 2020). 전향신과 박분희(2020)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그림, 자녀의 그림과 학업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수준의 그림을 가진 어머니를 둔 자녀일수록 그림 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그림은 자녀의 그림을 통해 학업열의를 높이고 학업무기력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진들은 자녀의 그림 발달에 어머니의 그림이 주요한 선행요인임을 밝히며 어머니의 그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아버지의 그림 역시 자녀의 그림과 정적관계를 가지며 자녀의 그림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해원, 최진수, 이수란, 2021).

3. 부모의 그림과 자녀의 그림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자녀의 그림 발달을 촉진하는 영향 요인으로서 부모의 그림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

운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그릿으로 전수되는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윤기봉, 2020; 황용재, 김창겸, 2020). 윤기봉(2020)은 그릿이 세대 간 전이되는 구체적인 경로를 밝히고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그릿과 자녀의 그릿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윤기봉(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그릿은 자녀의 그릿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한 간접 영향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그릿 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더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높은 그릿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는 달리 부모의 그릿과 자녀의 그릿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그릿이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자율성지지를 통해서 자녀의 그릿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적인 양육태도인 강요를 통한 간접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황용재, 김창겸, 2020). 연구진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강요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이 혼재된 한국형 그릿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그릿 발달을 돕기 위하여 자녀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들은 부모의 그릿,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그릿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힌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아동의 그릿 발달에 이론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종단 연구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횡단 연구에 그치고 있어 부모의 그릿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총점을 활용하여 한 측면으로만 분석하거나 일부분만 살펴보고 있어 양육태도의 다면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그릿과 부모의 양육태도인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강요가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그릿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그릿 발달에 미치는

장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 자료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4학년~6학년, 2018~2020)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초등학교 4학년 자료는 2018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다단계화집락표집 방식을 사용해 표본을 선정하여 2018년부터 1년 단위로 아동 발달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대규모 자료이다. 전국 단위를 모집단으로 한 대규모 종단 자료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다. 이 자료는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교육을 받은 조사자가 직접 조사 대상 가정에 방문하여 태블릿을 이용한 개별 대면 면접조사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또한 조사 대상자를 아동의 부모로까지 확대하여 부모-자녀 사이의 역동을 관찰할 수 있고 가정과 학생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독립변인(통제변인)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자료의 특성에 근거하여 한국아동·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4~6학년) 자료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대상 표집 크기는 1차년도(2018) 초등학교 4학년 2,607명(보호자 2,607명), 2차년도(2019) 5학년 2,437명(보호자 2,437명), 3차년도(2020) 6학년 2,411명(보호자 2,411명)이다.

2. 변인

1) 그릿

그릿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열정과 노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이 연구에서 부모의 그릿과 자녀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김희명과 황매향(2015)의 한국판 아동용 끈기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미국의 아동용 끈기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로 Grit-S 척도와 같이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으로 나누어 각 4문항씩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로 흥미유지는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등이 있으며, 노력지속은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다. 흥미유지 문항은 전체 부정문항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 결과 해석이 용이하도록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점수는 높을수록 각 그릿의 하위요인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동의 그릿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4학년 흥미유지 .70, 노력지속 .67, 5학년 흥미유지 .70, 노력지속

.68, 6학년 흥미유지 .73, 노력지속 .6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그릇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흥미유지 .67, 노력지속 .65로 확인되었다.

2) 부모의 양육태도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파스함,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이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Skinner, Johnson and Snyder(2005)가 만든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_A)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_KA)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각 요인별로 4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로 파스함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자율성지지는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강요는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구조제공은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등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이 더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부모의 양육태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파스함 .91, 자율성지지 .74, 강요 .71, 구조제공 .72로 나타났다.

3) 배경 변인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와 사전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 발달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알려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소득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을 배경 변인으로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배경 변인의 구체적인 정보와 기초통계는 부록 표 1에 제시하였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그릇이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그릇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에 앞서 초등학생의 그릇 변화 양상을 추정하였다. 지금까지 그릇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 연구가 없었던 만큼 그릇의 변화율 분석은 적절한 통계 모형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릇의 변화 양상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성장 모형(growth curve model)을 동원하여 아동의 그릇이 초등학교 4학년~6학년까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학년 변인(-2, -1, 0)을 투입하여 초등학생들의 평균 그릇 변화 추이를 추정하였다.

그릇의 평균 변화 양상을 살펴본 이후 분절형 성장모형(Piecewise growth curve model, PCGM)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그릇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절형 성장 모형에서는 두 개의 학년 변인인 학년A(0, 1, 1)와 학년B(0, 0, 1)를 동시에 투입하여 개별 학년에 따른 그릇 변화 양상을 독립적으로 추정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의 위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성장 모형 분석은 무선 효과(random effect model) 추정 방식을 활용하였다. 지금까지의 많은 그릇 관련 연구들이 분석 자료의 위계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해 표준오차를 과소 추정해왔을 가능성이 줄곧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 연구는 무선 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통해 표준오차 과소 추정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제공하는 종단 가중치를 활용하여 모집단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였다.

아동의 그릇 변화율을 추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그릇 하위 요인들에 대한 요인 분석을 학년 별로 실시한 이후 추정된 요인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성장 모형 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 평균값을 활용할 경우 측정 오류 및 표준오차 추정 오류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성장모형 분석 시 개별 시점 간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 점수를 활용할 것을 Raudenbush와 Bryk(2002)는 권장한 바 있다. 실제로 사전 분석 결과 학년별 평균 그릇 점수를 활용할 경우 그릇 점수 간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관된 변화 추이를 추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릇의 변화 양상을 추정한 이후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동원하여 부모의 그릇이 양육태도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그릇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lasting impact)을 분석하였다. 1차적인 성장 모형 분석을 통해 아동의 그릇이 초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 연구(분석 결과 1 참고)에서는 아동의 그릇 발달을 연구하는 데 있어 잠재 성장 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이 최적화되지 않은 분석 모델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성장 모형에서 종속변수의 변화율이 일정 수준의 유의미한 변량을 갖지 않을 경우 공분산행렬 간의 차이에 대한 F값이 최소화될 때까지 추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진은 사전 분석에서 잠재성장모형을 실험적으로 실시한 결과 최소 F값 추정이 어려웠으며 분석 모델의 강인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보호자의 그릇과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그릇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기초 모형에서는 보호자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릇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

* [성장 모형(Full Growth Curve model)]

$$Y_{ij} = \pi_0j + \pi_1j*(\text{학년: 4~6학년}) + \epsilon_{ij}$$

[분절형 성장 모형(Piecewise Growth Curve Model)]

$$Y_{ij} = \pi_0j + \pi_1j*(\text{학년A: 4~5학년}) + \pi_2j*(\text{학년B: 5~6학년}) + \epsilon_{ij}$$

을 추정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부모의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강요 등 다양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 변인들은 모두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자 양육 태도 선정은 선행연구와 사전 분석을 통해 그것과 밀접한 요인들을 기초로 사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별하였다. 보호자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6학년 그것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데 이어 최종 모형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와 자녀의 그것의 관계를 매개하는 확인하였다. 모든 추정 과정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소득, 학력 수준)을 통제 한 이후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모든 분석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의 위계적인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오차항과 독립 변인 간의 관련성을 가정하여 표준오차를 추정할 수 있는 Hubert-White 표준오차 추정방식을 동원하였다. 회귀 계수는 종단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는 CFI, TLI, RMSEA 지수로 평가하였다. CFI와 TLI는 .90이상 RMSEA는 .05이하인 경우 모델 적합도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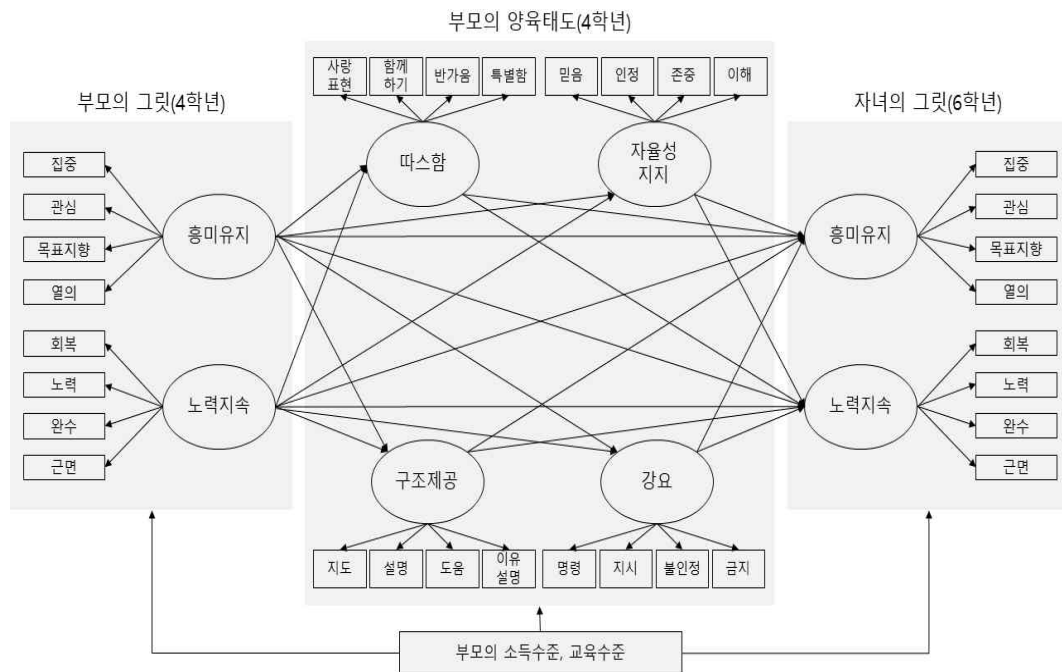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Hubert-White 표준오차 추정 방법을 통해 분석 자료의 위계적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음.

IV. 연구 결과

1. 아동의 그림 발달 추이 분석 : 성장모형 분석 결과

아동의 그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규명하기에 앞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그림의 변화 양상을 성장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그림의 평균 성장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평균 그림 성장률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분절형 성장 모델(PCGM)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그림 성장이 4학년부터 5학년,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성장 모형(Full Growth)이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변화율을 추정하는 데 비해 분절형 성장모형은 각각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 점수는 그림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각의 해당 요인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추정치를 종속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두 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의 GRIT과 하위 요인들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변화를 추정

	그림		흥미유지		노력지속	
	Full Growth	Piecewise	Full Growth	Piecewise	Full Growth	Piecewise
× 4~6학년	.002 (.014)		.003 (.014)		.001 (.014)	
× 4~5학년		.001 (.028)		-.002 (.028)		.004 (.028)
× 5~6학년		.003 (.028)		.007 (.028)		-.002 (.028)

※ 위 분석은 종단가중치(weight1w3)를 적용한 결과임. 분석 자료의 위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무선효과 모형을(random effect model) 적용하였음.

우선 성장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그림 평균 성장률은 (.002, $p > .05$)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의 학년별 성장 추이를 분석한 분절형 성장 모형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평균 그림 성장률은 (.001, $p > .05$), 5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성장률은 (.003, $p > .05$)을 보이며 초등학생들의 그림 점수가 학년이 올라 갈수록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릿의 하위 요인들인 노력지속과 흥미유지에 대한 성장 모형 분석 결과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성장 모형 분석 결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그릿의 성장률은 흥미유지 (.003, $p > .05$), 노력지속은 (.001, $p > .0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분절형 성장모형을 적용한 분석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5학년의 흥미유지 변화율은 (-.002, $p > .05$)와 노력지속은 (.004, $p > .05$)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5학년~6학년까지 성장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아동의 흥미유지 변화율은 (.007, $p > .05$)와 노력지속은 (-.002, $p > .05$)을 보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성장 모형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릿 총점은 물론 그릿의 하위 요인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모두 초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의 그릿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그릿 변화 추이보다 부모의 그릿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추정하는 데 집중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보호자의 양육태도가 6학년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이후 부모와 자녀의 그릿의 관계를 양육태도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그릿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 구조방정식 모형

이 장에서는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그릿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장기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하여 우선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아동의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6학년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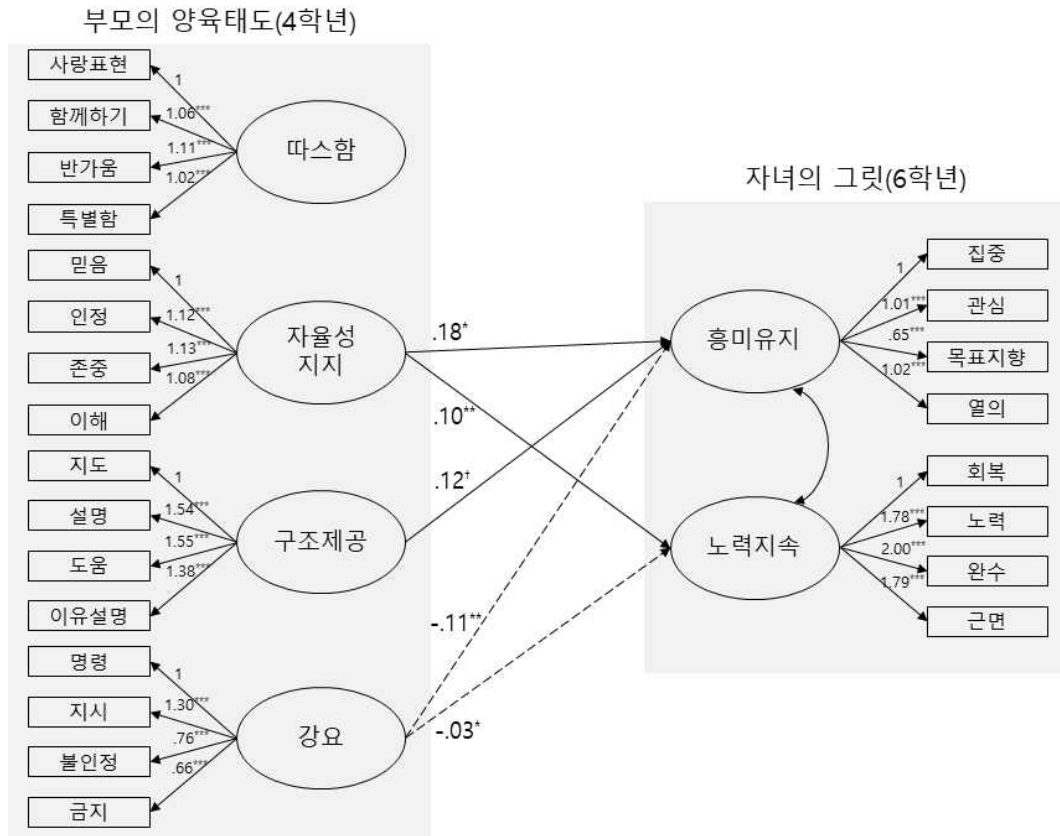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6학년 그림 하위 요인인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 미치는 장기 영향력 분석

※ CFI는 .963, TLI는 .957, RMSEA는 .035로 모형적합도가 확보됨. 부모의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위 모든 변인에서 통제하였음. 위 회귀계수 값은 종단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경로만 제시함(정적 영향은 실선, 부적 영향은 점선으로 표기함). 전체 결과는 부록 표 2 참고.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4학년 시기에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지지(.18, $p < .05$)와 구조제공(.12, $p < .10$)은 자녀의 6학년 시기의 흥미유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강압적인 지시적 태도를 보이는 강요(-.11, $p < .01$)는 자녀의 그림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부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가 4학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자녀의 생각과 결정을 지지해주면서도 적절한 지도를 통해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태도로 대할수록 아동의 흥미유지는 6학년 때까지 긍정적인 발달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따스함은 아동의 흥미유지에 유의한 장기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6학년 아동의 노력지속은 아동의 4학년 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지지(.10, $p < .01$)와 정적 영향 관계가 있으며, 강요(-.03, $p < .05$)와는 부적 영향 관계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모의 구조제공과 따스함은 아동의 노력지속에 유의한 장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지지해주고 자녀에게 부모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노력지속 발달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부모의 그릿,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그릿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 구조방정식 모형

부모의 그릿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이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부모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강요)를 통해 자녀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부모의 흥미유지는 자녀의 흥미유지(.15, $p < .01$)와 노력지속(.06, $p < .05$)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이 높을수록 자녀의 흥미유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의 흥미유지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강요(-.14, $p < .05$)에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 목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태도를 지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강요(-.03, $p < .10$)는 부모의 흥미유지와 자녀의 노력지속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부모의 흥미유지와 자녀의 흥미유지 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강요(-.11, $p < .01$)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흥미유지,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부모의 흥미유지가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하나인 강요를 통해 자녀의 흥미유지에 미치는 총 효과(-.26)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흥미유지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제약을 적게 가하며 이는 자녀가 장기적 목표에 대한 흥미와 노력을 지속하는데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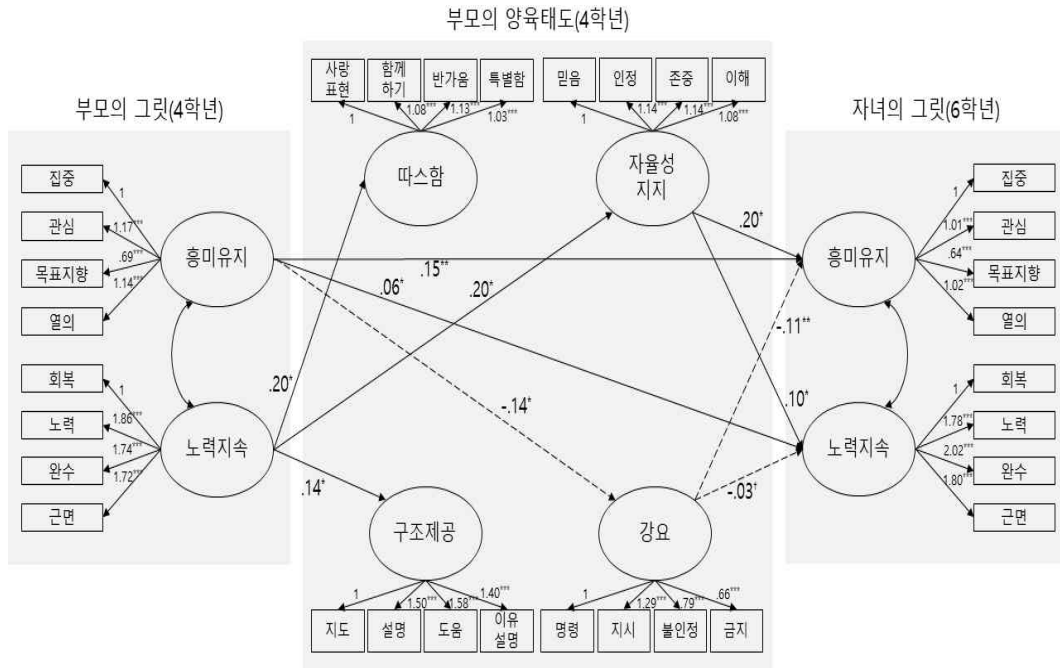


그림 3.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의 그림이 자녀의 그림에 미치는 매개 영향력 추정 결과 분석

※ CFI는 .936, TLI는 .928, RMSEA는 .037로 모형적합도가 확보됨. 부모의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위 모든 변인에서 통제하였음. 위 회귀계수 값은 종단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경로만 제시함(정적 영향은 실선, 부적 영향은 점선으로 표기함). 전체 결과는 부록 표 3 참고.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노력지속은 부모의 흥미유지와 달리 자녀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 장기적인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모의 노력지속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노력지속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스함(.20, $p < .05$), 자율성지지(.20, $p < .05$), 구조제공(.14, $p < .05$)에 영향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력지속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따뜻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자녀의 자율적 의사를 허용해주며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노력지속은 양육태도 중 자율성지지를 통해 자녀의 흥미유지(.20, $p < .05$)와 노력지속(.10, $p < .05$)에 간접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노력지속이 양육태도 자율성지지를 통해 자녀의 흥미유지에 미치는 총 효과(.40)가 부모의 그림,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그림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노력지속이 양육태도 자율성지지를 통해 자녀의 노력지속에 미치는 총 효과 크기(.30)가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노력지속은 자녀의 그릇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양육태도 자율적 지지를 통해 자녀의 그릇에 주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모일수록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주는 태도로 대하며 이는 자녀의 그릇 수준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자녀의 그릇 발달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종단적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의 그릇과 자녀의 그릇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는 아동과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연구가 가능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4~6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그릇을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으로 구분하고 다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양육태도를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강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종단 연구를 통해 부모의 그릇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릇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의 그릇의 평균 성장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그릇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그릇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부모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각기 다른 측면을 통해 자녀의 그릇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흥미유지는 자녀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강요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부모의 흥미유지 결과와 다르게 부모의 노력지속은 자녀의 그릇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모의 양육태도 자율성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흥미유지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강압적인 지시적 태도를 적게 보이고, 노력지속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녀의 그릇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노력지속이 부모의 양육태도인 자율성지지를 통해 자녀의 그릇을 증진시키는 데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한다(윤기봉, 2020; 황용재, 김창점, 2020). 그릇은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지

속적으로 임하는 과정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Duckworth, 2016). 이에 노력지속 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는 자신의 의견과 행동에 대해 인정과 지지받는 가정에서 성장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자신의 흥미를 찾고 지속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열정과 노력하는 태도로 발전하여 아동의 그릇이 촉진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 강요가 부모의 흥미유지와 자녀의 그릇을 매개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강요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황용재, 김창겸, 2020)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는 우선 연구 대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황용재와 김창겸(2020)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그릇간의 관계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이미라와 전향신(2020)은 부모가 아동의 특성과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양육태도를 통한 가정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그릇에 대한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의 영향력이 단기적 영향관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가 자녀의 그릇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영향력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가정의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가 아동의 흥미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한수연, 박용한, 2018). 이는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서구와 달리 가족의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에서 자란 사람은 강박열정과 조화열정이 혼재된 흥미유지를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김정은, 이수란, 양수진, 2018). 실제로 한정옥과 박선미(2018)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아동의 그릇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성취압력 중 부모의 성적기대는 노력지속에 정적 상관이 있지만, 생활압력은 흥미유지와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 결과에서 강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강박열정을 높여 아동의 흥미유지를 촉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아동의 흥미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가해지는 것은 아동의 흥미유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그릇 발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이 연구는 부모의 그릇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릇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을 세밀하게 확인하였으나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하여 이를 보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실험설계 연구가 아닌 구조모형을 동원하여 분석함으로써 자기선택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인과효과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그릿, 양육태도와 자녀의 그릿의 인과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보완된 방법을 통해 분석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아동의 그릿 발달에 대한 종단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아동의 그릿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그릿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노력지속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태도를 통해서 자녀의 그릿을 촉진하고, 흥미유지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강압적이지 않은 양육태도를 보이며 이는 자녀의 그릿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장기적인 부모의 그릿과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확인한 이 연구 결과가 추후 그릿 발달 연구에 이론적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문선, 양수진. (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조화·강박열정과 그릿(Grit)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79-101.
- 강보은. (2021). 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자녀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31(3), 409-435.
- 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술. (2015). 초·중·고 학생의 그릿(Grit)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및 성별·학년별 특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5), 297-322.
- 김정은, 이수란, 양수진. (2018). 한국형 그릿(Grit) 특성에 대한 고찰: 높은 그릿집단의 다차원적 유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131-151.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 류영주, 양수진. (2017). 내재적·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Grit)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4), 93-115.
- 윤기봉. (2020). 어머니의 끈기가 청소년의 끈기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간 대화시간을 통한 양육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8(2), 15-28.
- 윤미리, 이현정, 홍세희. (2020). 어머니와 자녀의 그릿(Grit)과 행복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교육문제연구**, 33(3), 1-24.
- 이미라, 전향신. (2020).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릿, 학업열

- 의, 학업성취도와 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779-805.
- 이수란, 손영우. (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끈기(Gri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 이영주, 김덕진. (2019). 초등학교 학생들의 마인드셋과 포래관계: 그릿,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2), 209-222.
- 이정림, 권대훈.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 이혜원, 최진수, 이수란. (2021). 아버지 그릿이 여고생 자녀 그릿에 미치는 영향: 자녀 성장 마인드셋을 통한 아버지 놀이참여의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4), 3-20.
- 임효진. (2017a). 그릿(Grit)의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8(2), 169-192.
- 임효진. (2017b). 그릿(Grit)의 요인구조 및 초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 나타나는 잠재평균의 차이. **교육학연구**, 55(3), 87-113.
- 전란영. (2020).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이 아동의 그릿을 매개로 아동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117-139.
- 전향신, 박분희. (2020). 어머니그릿, 자녀그릿,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8), 329-355.
- 정진리, 황성만. (2020).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교과외 활동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11), 283-312.
- 최혜선, 한세영. (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중학생의 그릿,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 간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3(1), 103-125.
- 최효선, 양수진. (2018). 고등학생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2), 105-123.
- 한수연, 박용한. (2018). 중학생의 그릿 변화와 관련된 가정·학교 환경요인 탐색. **열린교육연구**, 26(4), 175-201.
- 한정욱, 박선미. (2018).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 지지와 학업성취압력이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165-182.
- 홍민성, 이수란. (2019). 그릿과 성실성이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10), 143-151.
- 황용재, 김창겸. (2020). 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지지와 강요에 의한 다중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7(4), 27-47.
- Bowman, N. A., Hill, P. L., Denson, N., & Bronkema, R. (2015). Keep on Truckin' or Stay the Course? Exploring Grit Dimensions as

- Differential Predictors of Educational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Intention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6(6), 639-645.
-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 Duckworth, A. L.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Y: Scribner.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ckworth, A., & Gross, J. J. (2014).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19-325.
- Kevin. J., Veena. P., Aiswarya. P. R., & Vandana, V. S. (2020). Influence of parent's grit on student's grit and the effect of other social determinants upon the relation. *India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2), 71-74.
- Muenks, K., Wigfield, A., Yang, J. S., & O'Neal, C. R. (2017). How true is grit? Assessing its relations to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Regulation, engagemen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9(5), 599-620.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Sage.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 Practice*, 5(2), 175-235.
- Wolters, C. A., & Hussain, M. (2015). Investigating grit and its relations with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Metacognition and Learning*, 10(3), 293-311.

부록 표 1. 분석 변인 설명 및 기초통계 분석 결과

변인명			변인 설명	M(SD)
부모의 사회경제 적 변인	소득수준		1(소득 없음)	
			2(100만 원 미만)	
			3(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4(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5(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6(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6.596
			7(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2.236)
			8(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9(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10(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1(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2(1,000만 원 이상)	
	부의 교육수준		1(학교 안 다님)	
			2(초등학교 졸업)	
			3(중학교 졸업)	5.329
			4(고등학교 졸업)	(1.055)
			5(2~3년제 대학 졸업)	
			6(4년제 대학 졸업)	
			7(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모의 교육수준		1(학교 안 다님)	
			2(초등학교 졸업)	
			3(중학교 졸업)	5.160
			4(고등학교 졸업)	(1.019)
			5(2~3년제 대학 졸업)	
			6(4년제 대학 졸업)	
부모의 그림	흥미유지	집중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R)	2.654 (.664)
		관심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R)	2.651 (.633)
		목표지향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R)	2.699 (.609)
		열의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R)	2.770 (.670)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예측 값을 측정함)	
	노력지속	회복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2.879 (.605)
		노력	나는 노력가이다	2.931 (.639)
		완수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2.803 (.639)
		근면	나는 부지런하다	2.847 (.684)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예측 값을 측정함)	
부모의 양육태도	파스함	사랑표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3.578 (.591)

변인명	변인 설명	M(SD)
	함께하기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3.588 (.579)
	반가움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3.598 (.593)
	특별함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3.571 (.625)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예측 값을 측정함)	
자율성지지	믿음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3.579 (.615)
	인정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3.498 (.643)
	존중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3.428 (.660)
	이해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3.485 (.634)
구조제공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예측 값을 측정함)	
	지도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3.075 (.785)
	설명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 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3.354 (.683)
	도움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3.490 (.609)
	이유설명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3.305 (.710)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예측 값을 측정함)	
강요	명령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2.605 (.908)
	지시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2.202 (.925)
	불인정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1.979 (.891)
	금지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1.666 (.765)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예측 값을 측정함)	

부록 표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그림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그림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강요		흥미유지		노력지속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		.056**	.020	.058**	.018	.046**	.015	-.040†	.023	-.010	.021	.026*	.011
부모의 양육태도	따스함									-.070	.059	-.012	.025
	자율성지지									.178*	.078	.101**	.037
	구조제공									.119†	.069	.001	.043
	강요									-.108**	.041	-.033*	.017

† p < .10, * p < .05, ** p < .01

부록 표 3. 부모의 그림,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그림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

		부모의 그림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그림			
		흥미유지		노력지속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강요		흥미유지		노력지속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		.033†	.018	.048***	.012	.037†	.021	.039*	.018	.032*	.016	-.025	.025	-.014	.021	.021*	.011
부모의 그림	흥미유지					.034	.040	.023	.041	.016	.033	-.142*	.060	.146**	.055	.058*	.028
	노력지속					.202*	.079	.196†	.076	.145*	.061	.025	.122	.128	.106	-.017	.047
자녀의 양육태도	따스함													-.088	.063	-.007	.026
	자율성지지													.202*	.078	.096*	.038
	구조제공													.067	.074	.017	.043
	강요													-.112* *	.041	-.034 †	.017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Session 3

제8주제

심리/발달 2

청소년의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청소년 활동,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정세영*·김지영**·김은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청소년 활동,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3차년도 자료(1차년도 기준 중학교 1학년)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 조사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모두 참여한 학생 2,384명이다. 자료분석에는 본 연구의 주요 측정값에 모두 답하지 않은 응답자료를 제외한 2,293명의 응답자료를 SPSS 25.0과 Amos 22를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도구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모형적합도, 직·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측정모형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부합도 기준, 수렴적 타당도, 변별적 타당도 모두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부합도를 살펴본 결과 초기 연구모델의 부합도 지수가 $X^2=5.131$, $GFI=.972$, $TLI=.942$, $CFI=.953$, $RMSEA .042$, $SRMR .0352$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의적 성격과 학교생활 만족도, 청소년 활동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를 통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p=.001$)와 창의적 성격이 학업성취도를 거쳐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p=.001$)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주제어 :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청소년 활동, 학교생활 만족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계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경남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부산대학교 BK 교육의 사회적 책임 연구단, ep.kim@pusan.ac.kr

I. 서론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병이 되면서 전 세계 교육기관들은 대면 중심의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교육으로 전환하였다(Carrillo & Flores, 2020; Fpores & Gago, 2020; Moorhouse, 2020; Murphy, 2020). 국내에서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라는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교수학습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하였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학교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학교에서의 만족스러운 생활은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삶의 변화 중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이 ‘학교생활’(4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21). 학생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 참여활동 등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가지는 선호 감정으로 학교에서 체감되는 외부 경험에 대한 호의적인 혹은 비호의적인 느낌이나 태도라 할 수 있다(신지영, 2013). 학교생활에 대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선호 감정은 비대면이라는 환경 변화로 학교생활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험하게 된 온라인 학습활동에 대한 확대 여부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 학교 수업’에 대해 51.6%가 찬성하였고, ‘온라인 청소년 활동’에 대해 51.2%가 찬성하였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대부분을 구성하는 수업과 청소년 활동을 비대면으로 경험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대면 교육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학습시간이라 할 수 있다. 학교라는 통제된 공간이 아닌 개별 학습공간에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활동을 수업 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라 학습시간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학습시간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정예화, 정제영, 2017; 최준열, 정충대, 2017).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6; 최장호, 2010),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방식의 수업은 청소년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교수학습 환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의적 성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창의적 성격은 학교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과 관계되어 있다. 학교 교육에서 창의적 성격은 학교성과와 상관관계가 있고(김영채, 2001) 창의적 사고는 창의적 성격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월기, 2020). 또한 창의적 성격은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한성심, 2020).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학습습관,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정명순, 김태균, 2014), 또한 청소년 활동은 학습활동을 포함한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고관우, 남진열, 2011; 김태균, 2013) 청소년 활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개인 및 환경적 차원의 요인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청소년 활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학교생활 만족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용한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하며 설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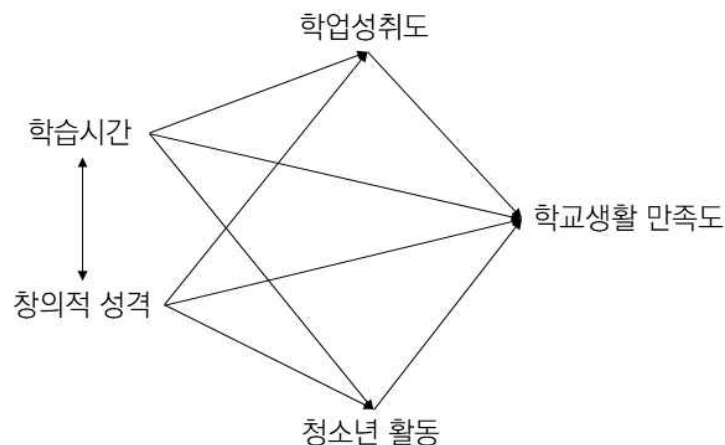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습시간과 창의적 성격은 학업성취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은 청소년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 만족도 개념과 영향 요인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개인의 내·외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삶에 대해 만족하기를 원하듯이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백은령, 손병덕, 2017).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호도라 할 수 있으며(신지영, 2013)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통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남궁지영, 김양분, 2015). 학교생활 만족도는 청소년 개인이 경험하는 학교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로서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개인 차원에서 학교 및 사회적 차원으로 영향 요인의 주요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최준열, 김지선, 2018).

표 1. 학교생활 만족도 영향 요인

구분	학교생활 만족도 영향 요인
김주연(2009)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대인관계 만족감, 수업·학습활동 만족감, 교육환경 만족감, 학교규칙·특별활동 만족감, 사회적지지 만족감
김경식, 이현철(2010)	자아개념, 부모학습지원, 학급풍토
이운구(2010)	학교환경, 학교행사, 수업과 학습, 인간관계, 학급분위기, 규칙,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느낌
장성민, 박종철, 서진희(2010)	학년, 담임교사의 교과, 담임교사의 교육경력, 거주지역
김두환, 김지혜(2011)	담임교사,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
곽선경(2012)	가정환경, 학교환경, 친구지원, 자기효능감
김효정, 이길재, 이정미(2013)	학교 규모, 학생 이탈 정도, 교사 지원
차성현, 김진미(2014)	자아효능감, 부모 학력 및 관계, 가정의 경제생활수준, 교우관계
이성주(2015)	심리상태, 교수학습, 교사행동, 생활지도, 학교 시설 요인
김서현, 김이경(2015)	교사효능감,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효능감
유진은, 노민정(2017)	자아인식, 정서문제, 양육방식, 전체성적 만족도, 지역사회인식, 성별, 가정경제수준

* 최준열, 김지선 (2018).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경기도 내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와의 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1), 25-50을 수정·보완

권순달, 이현주(2015)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에서 가정환경, 학교환경 및 지역사회와 같이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시키기 힘든 요인들의 경우 이 요인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변화 가능한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개인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통제하는 것이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 수준 변인이 주를 이루고 학생 수준의 변인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교에 직접 등교하지 않은 채 학교생활을 하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므로 학생 개인 수준의 변인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학습시간과 창의적 성격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수강 등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조혜영, 이경상, 2005; 허은정, 이재덕, 2014).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의 학습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 공부시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한 학업성적 향상 효과가 높으며(조혜영, 이경상, 2005)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최장호, 2010). 방과 후 진행되는 학습시간 중 학원 및 과외시간,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많은 집단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어정인, 임규연, 2021).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을 포함한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이 권장시간보다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학교생활 만족도, 주관적 삶의 수준, 학업성적 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현선, 2016).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통제하여 학습하는 동안 인지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학습하는 동안 인지 전략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게 자기주도학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시간이 길어질수록 효율적인 인지 전략의 수행이 가능하다(이주영, 2019; 조주연, 강문선, 2017). 이는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만족도로 이어질 것이다.

학습시간이 학교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원 및 과외시간, 인터넷 및 TV 강의시간, 방과 후 학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학습시간으로 하고,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평일과 그렇지 않은 주말 생활시간에 차이가 있음(정

익중, 정선영, 이수진, 정수정, 2019)을 고려하여 평일 학습시간, 주말 학습시간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생활 전반적인 변화로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특성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변화로 인해 적응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중요한 개인적 요인 중의 하나는 창의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창의성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유옥민, 조규판, 2020).

창의적 성격은 창의적 사고를 발현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향이나 성격적인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신동 외, 2015). 창의적 성격은 창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독립성, 자율성, 자기긍정성, 자기수용성, 모험성, 용기, 풍부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Guilford, 1959). 창의성은 자신감, 독립성, 열정, 호기심, 복잡성 등과 관련을 가지고(김기모, 박혜영, 이신동, 2017) 있으며 특히 일상의 창의성은 문제를 새롭게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하며 개인의 자아실현과 적응능력을 향상시킨다(정은이, 2002).

김혜지, 이신동(2019)의 연구에서는 창의적 성격이 과제집착력에 높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창의적 성격의 호기심과 과제집착력의 학습몰입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과제집착력과 학업흥미 간에 정적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의적 성격과 과제집착력, 학습몰입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을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창의적 성격은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고(한성심, 2020), 학업열의를 경험한 학생들은 학업성취를 경험하고, 품행 문제 및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Fredericks et. al., 2004). 이월기(2020)는 창의적 사고,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에서 창의적 사고력이 창의적 성격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창의적 성격은 학교성적과 정적 상관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김영채, 2001; Asah, 1980).

호기심, 흥미의 다양성, 관심 있는 일에 대한 몰입, 특성 선호, 탈규범성, 모험성, 개방성 등으로 설명되는 창의적 성격은 새로운 것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학습에도 집중하게 한다(한성심, 2020).

새로운 학습에 집중하는 것은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6; 최장호, 2010; 황여정, 김경근, 2006)를 기반으로 창의적 성격특성이 높은 학생은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만족도 또한 높을 것이다.

3. 학업성취도와 청소년 활동

학업성취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준거가 된다(서원석, 김석우, 2020). 학교에 대한 만족이 높으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고(박혜숙, 전명남, 2007; 신현대, 이정기, 2008), 역으로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김옥선, 오윤자, 최면구, 2006; 황여정, 김경근, 2006).

학업성취에 대해 개인, 가정 및 학교 요인 등이 학업성취를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김석우, 2018; 문정선, 2017; 송미영, 김성숙, 이현숙, 김준엽, 2011; 정예화, 정제영, 2017; 최준열, 정충대, 2017; Fan & Chen, 2001; Jeynes, 2007; Tremblay et al., 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다양한 요인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개인차에 의한 학업성취의 차이는 학교 수업이라는 공통적인 학습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공부의 양과 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전은옥, 2021, 재인용). 하지만 현재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학습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공부의 양과 질은 개인의 학습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습시간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조은별, 박수원, 2016)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외부활동의 제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접근하는 개인적인 성향인 창의적 성격(한성심, 2020) 또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봉주와 김광혁(2009)은 학교만족도와 학업성취와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두 변인 간의 종단적인 상호관계를 밝혀냈다. 학업성취는 학교생활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요인이므로(안지혜, 윤유동, 임희성, 2016) 학교생활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활동은 자신의 특기나 적성 계발 또는 취미·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학교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김진호, 2008)으로 외부 간섭이나 압력 없이 청소년들 스스로의 합의와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김민, 2005). 이러한 활동은 말 그대로 제약 없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문화예술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자원봉사활동, 직업진로활동, 국제교류활동, 건강보건활동, 인성계발 활동, 환경보존활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한성심, 2020).

청소년의 방과 후 학습활동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

은 긍정적 경험을 통해 학습태도와 학습습관을 길러주고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으며(정명순, 김태균, 2014), 자율학습과 같은 방과 후 학습이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데 도움이 되며(이윤자, 김응환, 2007),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임다희, 권기현, 2012).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학습습관,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전명순, 김태균, 2014). 청소년 활동은 학교생활을 보완하고, 청소년의 장점을 살려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킨다(전신현, 2019).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력을 증진시키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편, 1994). 그러므로 학교생활적응, 학습습관 형성에도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전명순, 김태균, 2014) 이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이하 KCYPS 2018)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조사원이 아동 및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개별 대면면접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2018-2020 초등4 코호트와 중1 코호트 자료를 수집하였고,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8년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원표본을 구축하였으며, 2018년 조사에 참여한 원패널에 대하여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에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2019년 2020년 3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2,384명의 패널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2,384명의 데이터 중 본 연구의 주요 측정값에 모두 답하지 않은 응답자료를 제외하고 2,293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청소년 활동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성을 밝히기 위하여 KCYPS 2018의 3차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단 기종단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KCYPS 2018의 3차년도(2020년) 조사 2,293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1) 학습시간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2013)의 2013년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에서 조사한 학습시간에 대한 문항을 KCYPS 2018에서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학기 중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하여 학원 및 피외시간, 인터넷 및 TV 강의시간, 방과 후 학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학교 및 학원 숙제 포함)을 각각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조사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7점 척도로 1점은 전혀 안함, 2점은 30분 미만, 3점은 30분~1시간 미만, 4점은 1시간~2시간 미만, 5점은 2시간~3시간 미만, 6점은 3시간~4시간 미만, 7점은 4시간 이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원 및 피외시간, 인터넷 및 TV 강의시간, 방과 후 학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의 평일 학습시간, 주말 학습시간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창의적 성격

Gough와 Heilbrun(1983)의 창의적 특성 척도(CPS.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원문항을 최인수, 표정민(2014)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0점), 그렇다(1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0점)에 해당하는 비창의적 성격문항 12개를 제외하고, 그렇다(1점)에 해당하는 창의적 성격문항 18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기반 문항 꾸러미 방법을 적용하여 세 개의 꾸러미로 사용하였다. Parcel1(1, 6, 7, 17, 19, 29번), Parce2(2, 4, 9, 15, 21, 27번), Parcel3(3, 4, 11, 13, 23, 25번)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 성격을 띄고 있음을 의미한다.

3) 학업성취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S 2010)의 학업성취 문항을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6점 척도로 1점은 매우 못함, 2점은 못함, 3점은 보통, 4점은 잘함, 5점은 매우 잘함, 6점은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잘 모르겠음에 응답한 값을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청소년 활동

여성가족부의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청소년 활동에 관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국제교류, 건강보건, 자기계발, 환경보존 9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간 참여 횟수와 만족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 절대값이 커서 정규성을 벗어난 국제교류와 환경보존 활동을 제외하고 7개의 청소년 활동의 연간 참여 횟수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1점은 없다, 2점은 1~2회, 3점은 3~4회, 4점은 5회 이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활동 횟수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5)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S 2010)의 학교생활 만족도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S 2018)의 1차년도, 2차년도까지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지난 학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을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3차년도부터는 지난 학기 온라인 개학 학교생활과 등교 개학 학교생활 만족도를 묻는 2문항이 추가되어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 3개의 문항을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3. 통계모형 및 자료 분석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의 원인변인으로 선정한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청소년 활동 간의 직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그림2와 같이 5개의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한 개의 구조적 모형(Structural model)로 이루어진 통계적 모델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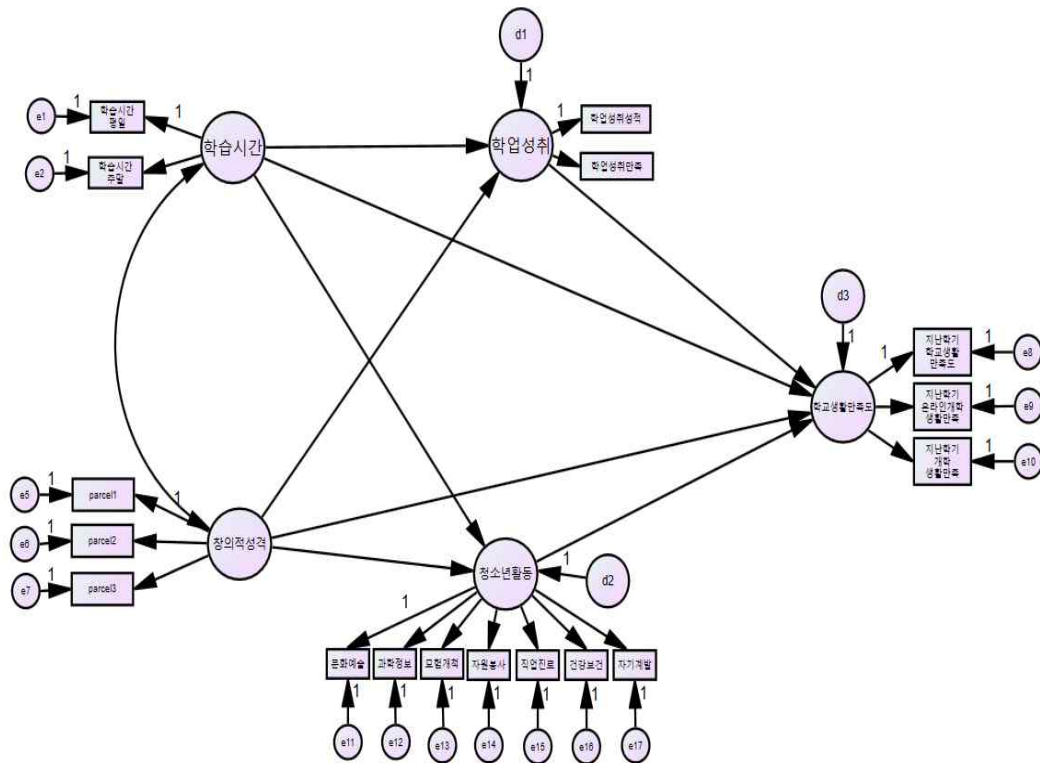


그림 2. 통계적 모델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우 지난 학기 학교생활 만족도, 지난 학기 온라인 개학 학교생활 만족도, 지난 학기 개학 학교생활 만족도를 하위척도 지표변수로 선정하였다. 학습시간의 경우 학원 및 피외시간, 인터넷 및 TV 강의시간, 방과 후 학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합한 값을 지표변수를 선정하였다. 창의적 성격의 경우 30문항 중에서 창의적 성격문항에 해당하는 18개의 문항을 요인부하량기반 문항꾸러미 방법을 적용하여 세 개의 꾸러미를 지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 지난 학기 학교성적 만족 수준으로 지표변수를 선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활동은 문화예술 활동, 과학정보 활동, 모험개척 활동, 자원봉사 활동, 직업진로 활동, 건강보건 활동, 자기(인성) 개발 활동의 연간 참여 횟수 7개를 지표변수로 선정하였다.

구조회귀모델의 2단계 분석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먼저 통계적 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을 확인적 요인분석(CFA)모델로 변환한 다음 AMOS 22.0를 이용하여 측정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Chi-Square (χ^2), 표준화된 Chi-Square(NC: Normed Chi-Square), GFI, TLI, CFI, RMSEA 그리고 SRMR 지수를 통해 평가하였고, 구조변인 간 상호상관계수와 각 구조변인별 지표들의 요인부하량을 통해 측정모델의 변별적 타당도와 수렴적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치 역시 AMOS 22.0를 이용하여 추정한 다음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는 Chi-Square(χ^2), 표준화된 Chi-Square(NC: Normed Chi-Square), GFI, TLI, CFI, RMSEA 그리고 SRMR 지수를 통해 평가하였고,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비표준화귀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hantom변인을 이용한 간접효과 추정 모델을 설정한 다음 AMOS 22.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한 다음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 행렬 및 기술 통계치

조사 대상자 2,293명을 대상으로 측정된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계수 및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를 추정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왜도가 3미만, 첨도가 10미만이므로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05).

표 2.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구분		A1	A2	B1	B2	B3	C1	C2	D1	D2	D3	D4	D5	D6	D7	E1	E2	E3
학습시간 (A)	평일	1																
	주말	.671**	1															
창의적 성격 (B)	Parcel1	0.032	.054*	1														
	Parcel2	.073**	.057**	.552**	1													
	Parcel3	.050*	0.031	.403**	.372**	1												
학업성취 (C)	성적	.247**	.235**	.170**	.089**	.156**	1											
	만족	.094**	.078**	.100**	0.028	.056**	.616**	1										
청소년 활동 (D)	문화예술	.156**	.132**	.149**	.159**	.110**	.053*	-0.001	1									
	과학정보	.185**	.223**	.125**	.106**	.078**	.109**	0.032	.294**	1								
	모험개척	.137**	.136**	.154**	.168**	0.039	.044*	0.013	.275**	.322**	1							
	자원봉사	.146**	.186**	.125**	.109**	.067**	.091**	.043*	.294**	.266**	.253**	1						
	직업진로	.143**	.181**	.135**	.146**	.088**	.068**	0.025	.376**	.345**	.298**	.436**	1					
	건강보건	.151**	.134**	.139**	.160**	.060**	0.027	0.021	.287**	.310**	.318**	.278**	.413**	1				
	자기계발	.116**	.140**	.141**	.135**	.097**	.069**	0.034	.306**	.361**	.293**	.295**	.453**	.488**	1			
학교생활 만족도 (E)	학교생활	-0.035	-0.010	0.041	-0.036	-0.035	.163**	.266**	-0.020	-0.012	-0.021	0.006	-.047*	-0.010	0.020	1		
	온라인생활	-0.032	0.002	.052*	0.018	-0.003	.110**	.201**	-.046*	0.008	-0.040	0.005	-0.025	0.008	0.011	.619**	1	
	개학생활	0.030	0.035	.071**	0.027	-.063**	.152**	.220**	.044*	0.030	0.021	.064**	.051*	.063**	.050*	.476**	.360**	1
Mean		12.661 1	10.071 5	1.3676	1.4243	0.9403	3.28	3.21	1.76	1.25	1.31	1.63	1.52	1.40	1.29	3.28	3.25	3.52
SD		3.7965 1	4.1439 1	1.2891 5	1.3968 5	1.0433 1	0.909	0.947	0.906	0.560	0.672	0.934	0.745	0.754	0.646	0.992	0.984	0.872
왜도		0.092	0.537	1.058	0.966	1.206	-0.134	-0.185	1.040	2.569	2.457	1.329	1.396	2.039	2.547	-0.405	-0.236	-0.507
첨도		0.001	-0.235	0.957	0.441	1.425	-0.110	-0.245	0.198	6.978	5.817	0.593	1.406	3.632	6.425	-0.180	-0.243	0.459

※ A1. 학습시간 평일, A2. 학습시간 주말, B1. 창의적 성격 Parcel1, B2. 창의적 성격 Parcel2, B3. 창의적 성격 Parcel3, C1. 학업성취 성적, C2. 학업성취기 만족, D1. 청소년활동 문화예술, D2. 청소년활동 과학정보, D3. 청소년활동 모험개척, D4. 청소년활동 자원봉사, D5. 청소년활동 직업진로, D6. 청소년활동 건강보건, D7. 청소년활동 자기계발, E1. 학교생활 만족도, E2. 온라인 학교생활 만족도, E3. 개학 학교생활 만족도

2.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1) 측정모델 설정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적 모델을 변환하여 그림 3과 같이 측정모델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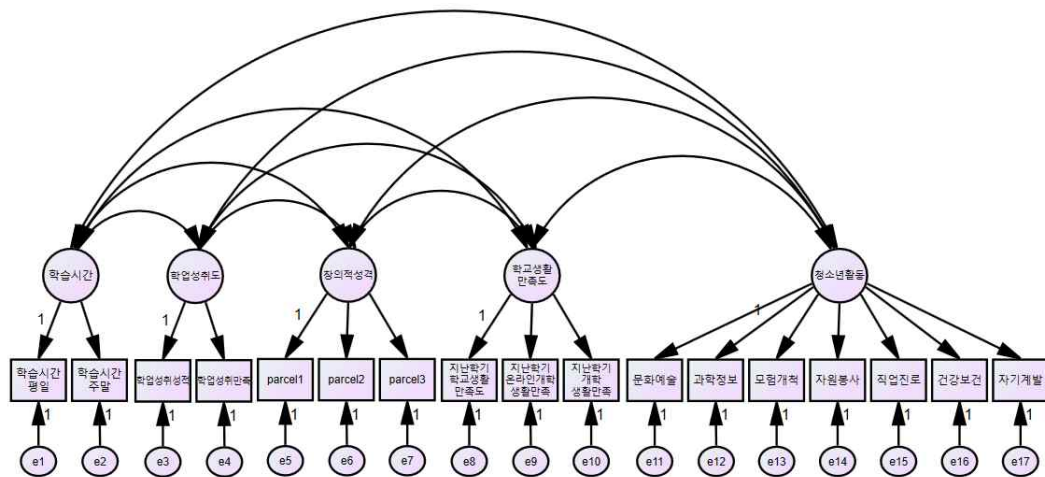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델

2) 측정모델의 부합도 추정 결과

그림 3의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모델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모델의 부합도 지수

모형	χ^2/DF	Normed χ^2	GFI	TLI	CFI	RMSEA	SRMR
측정모형	543.245/110	5.848	.968	.932	.945	.046 (.043-.049)	.0401

일반적으로 SEM 연구의 부합도 지수의 분석결과 보고는 최소한 절대부합도 지수인 Chi-Square(χ^2), 표준화된 Chi-Square(NC: Normed Chi-Square), 상대적 부합도

지수인 Tucker 지수(TLI; Tucker-Lewis Index)와 비교부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의 근사치오차평균제곱근(RMSEA) 그리고 비부합도 지수(SRM; Standized Root Mean Aquare Residual)를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문수백, 2009; Kline, 2011).

본 연구에서는 Chi-Square(χ^2), 표준화된 Chi-Square, GFI(goodness of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 SRMR을 살펴보고, 그 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측정모델의 변별적 타당도와 수렴적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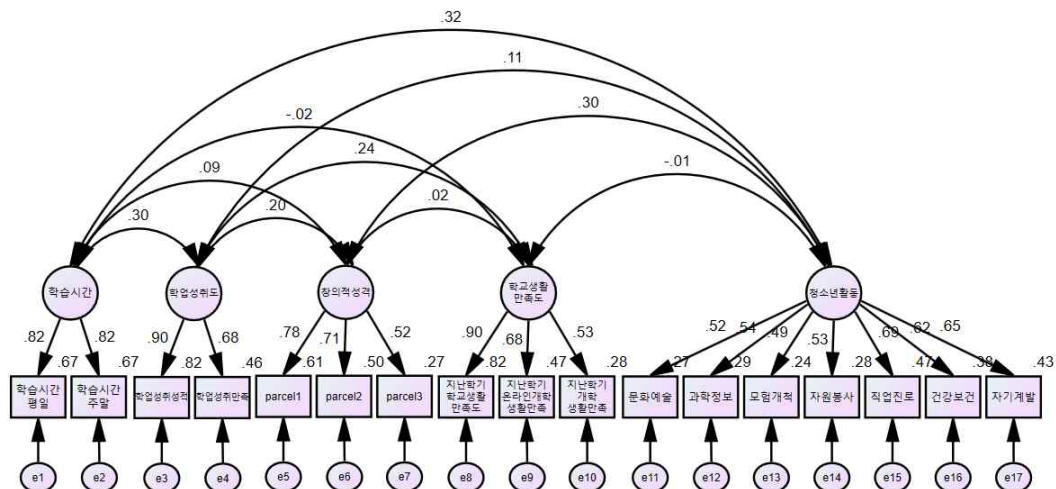


그림 4.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모델하의 잠재변인들은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된 변인이기 때문에 측정모델하의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85이하가 되어야 변별타당도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문수백, 2009; Kline, 2011).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잠재변인들 간의 상호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01~.32로 나타났다. 측정모델하의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85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모델의 변별적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관찰변인을 지표변인이라고 하며(문수백,

2009), 각 잠재변인의 지표로 설정된 지표변인들의 평균 요인부하량은 .50 이상 되어야 수렴적 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모델에서 각 잠재변인에 대한 지표변인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잠재변인 학습시간의 경우 .82, 학업성취도의 경우 .68~.90, 창의적 성격의 경우 .52~.78, 학교생활만족도의 경우 .53~.90, 청소년 활동의 경우 .49~.69로 나타났다. 측정모델의 각 잠재변인에 대한 지표변인의 요인부하량이 측정모델의 수렴적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구모델의 부합도 추정 결과

1) 초기 연구모델의 부합도 추정 결과

연구모델하의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설정된 통계적 모델의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2.0의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표 4과 같다.

표 4. 초기 연구모델의 부합도 지수

모형	χ^2/DF	Normed χ^2	GFI	TLI	CFI	RMSEA	SRMR
초기 연구모델	564.465/110	5.131	.972	.942	.953	.042 (.039~.046)	.0352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초기 연구모델의 부합도 지수가 GFI=.972, TLI=.942, CFI=.953, RMSEA .042(.039~.046), SRMR=.0352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기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초기 연구모델의 부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잠재변인간 직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그림 5와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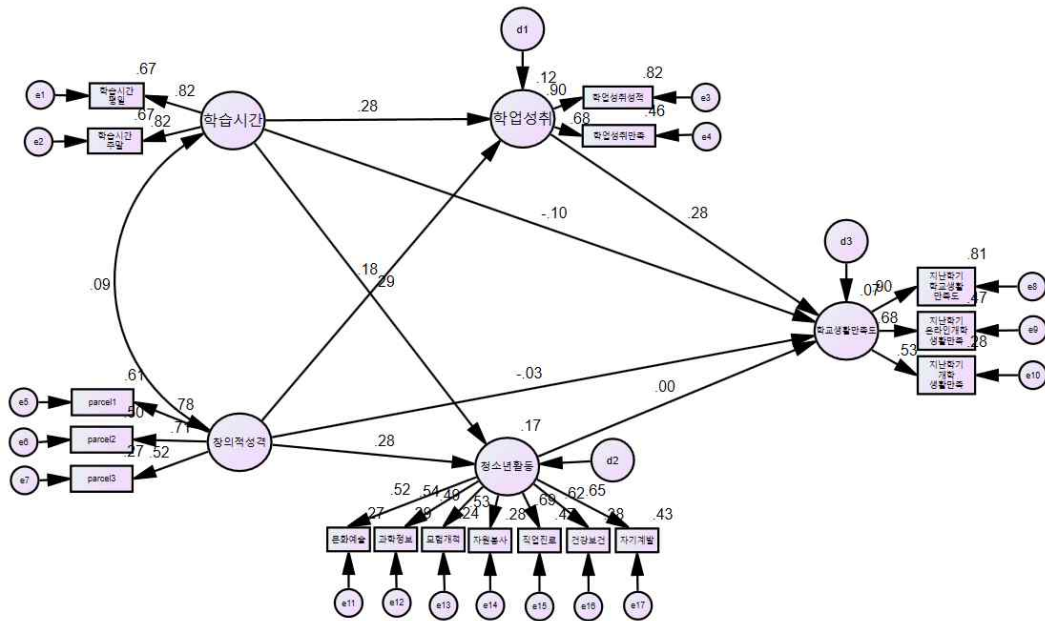


그림 5. 초기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표 5. 초기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직접효과	B	SE	C.R	P	β
학습시간 → 학업성취도	0.074	0.007	10.765	***	0.28
창의적 성격 → 학업성취도	0.145	0.021	6.847	***	0.178
학습시간 → 청소년 활동	0.044	0.004	10.172	***	0.289
창의적 성격 → 청소년 활동	0.13	0.014	9.582	***	0.278
학습시간 → 학교생활 만족도	-0.03	0.008	-3.611	***	-0.103
창의적 성격 → 학교생활 만족도	-0.027	0.025	-1.061	0.289	-0.03
학업성취도 → 학교생활 만족도	0.307	0.034	9.127	***	0.281
청소년 활동 → 학교생활 만족도	-0.007	0.054	-0.131	0.896	-0.004

4. 수정 연구모델의 부합도 추정 결과

1) 수정 연구모델의 부합도 추정 결과

초기 연구모델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은 창의적 성격에서 대학생 생활 만족

도 경로를 삭제하여 간명화한 수정 연구모형을 경쟁모델로 설정하여 부합도를 살펴본다. 수정 연구모형하의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설정된 통계적모델의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2.0의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표 6과 같다.

표 6. 수정 연구모형의 부합도 지수

모형	χ^2/DF	Normed χ^2	GFI	TLI	CFI	RMSEA	SRMR
초기 연구모형	564.465/110	5.131	.972	.942	.953	.042 (.039~.046)	.0352
수정 연구모형	.565.540/111	5.095	.972	.943	.953	.042 (.039~.046)	.0354

수정 연구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초기 연구모형의 부합도 지수와 차이가 크지 않고, TLI와 SRMR의 지수는 초기 연구모형이 수치가 더 적합하였다. 따라서 초기 연구모형을 최종 연구모델로 채택하였다.

5. 최종 연구모형의 간접효과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1) Phantom변인을 이용한 간접효과모델 설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각 변인 간의 직접효과의 유의성 여부이다. 그러나 간접효과가 연구자의 직접적인 관심 현상은 아니더라도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의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직접효과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 간접적인 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을 제시하면서 그 의의와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수적으로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Phantom 변수를 이용한 간접효과모델을 설정하였다.

간접효과 추정은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를 거쳐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학습시간이 청소년 활동을 거쳐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의적 성격이 청소년 활동을 거쳐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창의적 성격이 학업성취도를 거쳐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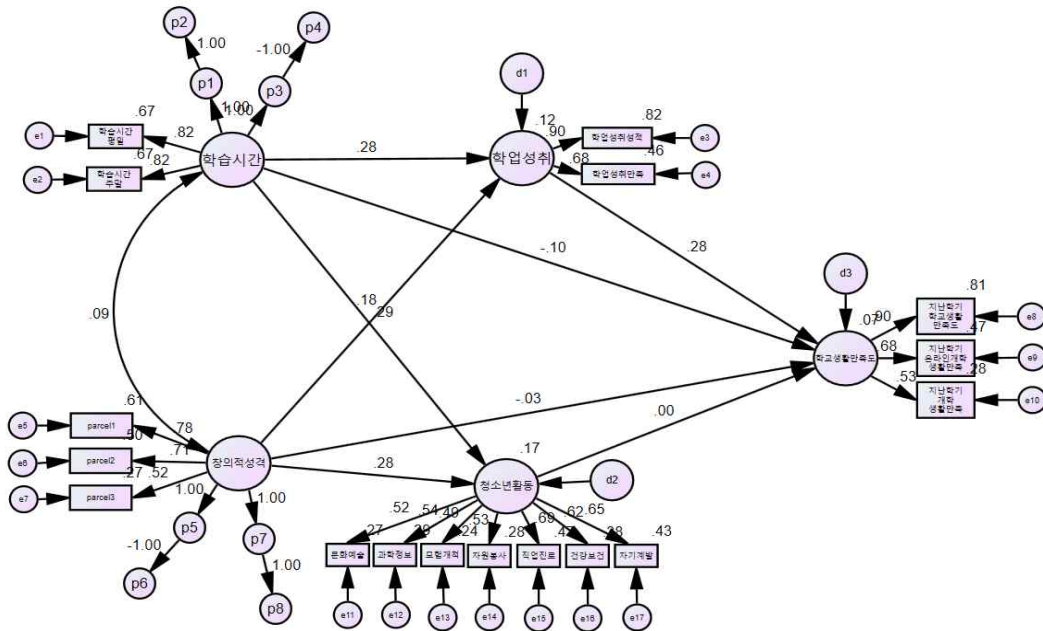


그림 6. Phantom 변인을 이용한 간접효과 모델

2)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한 간접효과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Phantom변인을 이용하여 설정한 간접효과모형을 AMOS 22.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한 다음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표 7과 같다.

표 7. 간접효과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간접효과	간접효과계수	
	B	P
학습시간 → 학업성취 → 학교생활 만족도	.023	.001
학습시간 → 청소년 활동 → 학교생활 만족도	.000	.931
창의적 성격 → 청소년 활동 → 학교생활 만족도	-.001	.931
창의적 성격 → 학업성취 → 학교생활 만족도	.045	.001

표 7과 같이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를 통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23$, $p=.001$). 창의적 성격이 학업성취도를 통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45$, $p=.001$). 그러나 학습시간이 청소년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00$, $p=.931$). 창의적 성격이 청소년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01$, $p=.93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3차년도 자료(중학교 3학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결과변인으로 하고, 원인변인으로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청소년 활동을 선정하여 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측정모델과 구조모델로 나누어 모델의 부합여부와 경로계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청소년 활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창의적 성격과 청소년 활동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연구에서 학습시간이 많은 집단에 속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어정인, 임규연, 2021)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공부를 잘하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의 결과(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6; 최장호, 2010; 황여정, 김경근, 2006)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업성적을 높일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집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습시간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시간은 학교교육 시간보다 감소했지만 미디어 노출시간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힌 것처럼(임수연, 2020) 청소년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학력격차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박영신, 김의철, 2009; 이주리, 2009),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Katja, Paivi, Marja-Terttu, & Pekka, 2002)를 볼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곧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학습시간 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평일과 주말의 학습시간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창의적 성격과 청소년 활동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과 학업성취 간에는 관련이 없으며(김영채, 2001; Edwards & Tyler, 1965), 창의적 성격은 친구관계적 측면에서 부적응적 특성이 있고 창의적 성격 특성이 강한 학생들이 또래로부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교사들이 지각한 연구 결과(임성택, 2007)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은 체험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체험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며 학업성취도가 높고(박진화, 2017), 동아리활동 및 여가활동 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비롯한 학교생활적응을 잘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고관우, 남진열, 2011; 김태균, 2013; 유광욱, 원유병, 2009; 유진이, 2007; 이학래, 김석규, 2003; 전재일, 천수혜, 2008; 최충식, 박문수, 2012; 한정규, 허원석, 2013)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과 동아리 경험 등이 줄어든 결과(여성가족부, 2021)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문화·예술관련 활동(35.7%)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는데(여성가족부, 2021),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관련 행사도 대폭 줄어들었고 그나마 열린 행사가 있어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부족으로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습시간과 창의적 성격은 학업성취를 매개로 학교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시간이 많고 창의적 성격 특성을 지닌 학생일수록 공부를 잘하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개인공부 시간이 많고(조혜영, 이경상, 2005), 공부를 잘하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밝힌 연구 결과(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6; 최장호, 2010; 황여정, 김경근, 2006)를 지지한다. 또한 창의적 성격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업성취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친 본 연구의 결과는 창의적 성격의 특징인 호기심과 열정을 학업열의로 이끌어내고(한성심, 2020),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높여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이미라, 전향신, 2020)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학습시간과 창의적 성격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학습시간과 창의적 성격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취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정제영, 정예화, 2015; 정예화, 정제영, 2017), 아동의 방과 후 학습시간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깊으며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정예화, 정제영, 2017; 조은별, 박수원, 2016; 최준열, 정충대, 2017)를 지지

한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학업성취 향상에는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하고 방과 후 학습시간 투자 정도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이 학업성적 향상 효과가 높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한다(조혜영, 이경상, 2005). 이러한 주관적 인식은 학업성취에 자신감을 심어주어 학업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13~18세)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늘어난 만큼(여성가족부, 2021) 학습시간을 확대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길러주고 그러한 결과가 학업성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창의적 성격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과 학업성취가 관련이 있고(Asah, 1980) 창의적 성격은 성적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 결과(김영채, 2001)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창의적 성격을 지닌 사람은 호기심이 있고(김기모, 박혜영, 이신동, 2017), 호기심은 과제집착력과 관련이 있으며, 과제집착력은 학업흥미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볼 때(김혜지, 이신동, 2018)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성격의 특성인 호기심이나 흥미를 길러 줄 필요가 있다. 흥미는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져 할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우연경, 2012).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러한 흥미가 궁극적으로 학습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시간과 창의적 성격이 청소년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학습시간과 창의적 성격은 청소년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학습시간과 청소년 활동 간의 직접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청소년들은 청소년 활동 자체를 학습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청소년 활동 중에서도 문화예술, 과학정보, 자원봉사, 직업진로, 자기계발 등과 같은 활동은 향후 진학이나 진로 선택과 관련 있기 때문에 방과 후 교육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활동 경험의 시간을 학습시간으로 인지하였다고 예측할 수 있겠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체험활동이 어렵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이 학업열의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한성심, 2020)에서 보듯이 학교교육 과정 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학업성취를 높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려되는 학력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창의적 성격이 청소년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성심(2020)이 창의적 성격과 청소년 활동참여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성격은 넘치는 에너지, 자신감, 호기심, 열정, 자율성 등의 특성과 관련되었다고(김기모, 박혜영, 이신동, 2017; 최인수, 1998) 볼 때 창의적 성격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성심(202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년 활동 참여가 창의적 성격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종합하면 창의적 성격과 청소년 활동은 상호 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열정이나 호기심, 흥미, 에너지, 자율성 등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20학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초유의 등교 중단이라는 특수한 경험 속에서 중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학습시간과 학업성취도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학습시간과 창의적 성격은 학업성취도와 청소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2018의 3차년도 자료만 사용하여 횡단 자료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변화도는 탐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시간과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 청소년 활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2020학년도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변화를 연구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본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 활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활동이 학교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곽선경. (2012). **경기도 혁신학교 중학생의 학습 동기와 학교생활 만족도 및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성과 인식**.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순달, 이현주. (2015). 중학생의 심리적 특성, 관계특성, 수업만족,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구조 분석: 2013년 서울소재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31(2), 287-314.
- 김경식, 이현철. (2010). 중학생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자아개념, 부모학습지원, 학급풍토의 영향: 학급풍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31(2), 37-52.
- 김기모, 박혜영, 이신동. (2017). 대학생의 연상위계유형 간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성

- 격 차이.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1, 1-19.
- 김두환, 김지혜. (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 45(4), 128-168.
- 김민. (2005). **청소년자치참여활동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청협
- 김서현, 김이경. (2015). 교사효능감이 중학생의 교사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3(3), 47-66.
- 김석우. (2018). 초등학교 영어 학업성취도 비교를 위한 검사동등화 연구. **교육과학연구**, 20(2), 51-67.
-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6).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아동교육**, 15(1), 195-207.
- 김영채. (2001). 창의적 성격특성: 학교교육을 통한 발달경향 및 교과 성적과의 상관. **교육학연구**, 33(1), 1-24.
- 김주연. (2009).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호. (2008).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몰입경험 결정요인 구조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1-25.
- 김태균. (2013).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공동체의식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 시설환경**, 11(2), 75-82.
- 김혜지, 이신동. (2018). 영재학생의 창의적 성격, 학업흥미, 부모양육태도가 과제집착력에 미치는 영향.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3(1), 37-58.
- 김효정, 이길재, 이정미. (2013). 학교 구성원별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비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 183-209.
- 남궁지영, 김양분. (2015).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3(2), 1-25.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정선.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교사의 기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진화. (2017). 청소년의 체험활동참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3(1), 29-50.
- 박현선. (201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수 개발연구-아동 균형생활시간지표의 활용을 중심으로-. **아동복지 연구소 보고서**, 2016(1), 45-83.

- 박혜숙, 전명남. (2007).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살펴 본 중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학생, 교사 및 학교특성의 예측력. **교육심리연구**, 21(1), 145-168.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백은령, 손병덕. (2017). 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 연구: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성적,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1), 157-176.
- 서원석, 김석우. (2020). 다층모형을 활용한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4), 199-226.
- 송미영, 김성숙, 이현숙, 김준엽. (2011).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결정요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4, 261-289.
- 신지영. (2013). **또래 칭찬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대, 이정기. (2008). 학교생활만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93-101.
- 안지혜, 윤유동, 임희석. (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한중학생 삶의 만족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197-208.
- 여정인, 임규연. (2021). 방과 후 생활시간 활용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중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39-58.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도자료.
- 우연경. (2012). 흥미연구의 현재와 향후 연구 방향. **한국교육심리학회**, 26(4), 1179-1199.
- 유광욱, 원유병. (2009).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3), 61-72.
- 유옥민, 조규판. (2020). 중국 중학생이 그릿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2), 219-245.
- 유진은, 노민정. (2017). Group lasso를 통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8(1), 127-149.
- 유진이. (2007). 학교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대회**, 129-144.
- 이미라, 전향신. (2020).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릿,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779-805.
- 이봉주, 김광혁. (2009). 학교생활이 즐거우면 성적도 오를까?: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

- 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4), 287-306.
- 이성주. (2015). 초·중·고 학생의 학교만족도 변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569-588.
- 이신동, 최익현, 김기명, 고운정, 홍종선, 김경은, 김소연. (2015). **지능과 창의성의 프레임**. 경기도: 학지사.
- 이월기. (2020). **한국과 중국 초등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창의적 성격 비교**.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구. (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일반지역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비교**.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자, 김응환. (2007). 중학생의 방과후 수학교과 학습활동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0(3), 323-340.
- 이주리. (2009). Data Mining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탐색. **아동학회지**, 30(1), 1-15.
- 이주영. (2019).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시간과 학습전략 간의 관계: 학습 동기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827-844.
- 임다희, 권기현. (2012). 서울시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절단형 (censored) 자료에 대한 tobit model의 적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2), 43-63.
- 임성택. (2007). 학생의 창의적 성격과 교우관계에 대한 교사의 지각: 학업성적과 성의 조절효과. **교육학연구**, 45(1), 51-70.
- 임수연. (2020). 2020년 현안연구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수업 방식의 변화가 교사 수업, 학생 학습, 학부모의 자녀 돌봄에 미친 영향: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서교연 2020-9).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장성민, 박종철, 서진희. (2010).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16, 94-108.
- 전신현. (2019). 학교적응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초, 중, 고 세학령별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73-97.
- 전은옥. (2021).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학습 시간, 여가시간의 매개효과.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11), 99-112.
- 정명순, 김태균. (2014).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 학습습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8, 71-90.
- 정예화, 정제영. (2017). 초, 중,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5(2), 1-20.
- 정은이. (2002).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익중, 정선영, 이수진, 정수정. (201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행복생활지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정제영, 정예화. (2015).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7), 73-93.
- 조은별, 박수원. (2016). 청소년의 학습시간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개인공부시간과 사교육시간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3(1), 115-139.
- 조주영, 강문선. (2017). 자기 결정성 동기와 학습전략, 자기관리능력,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31(1), 105-120.
- 조혜영, 이경상. (2005). 사교육시간, 개인공부시간, 학교수업참여도의 실태 및 관적 학업성적향상효과. **한국교육**, 32(4), 29-56.
- 차성현, 김진미. (2004). 중학생이 느끼는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특성 탐색. **한국교육**, 41(4), 103-122.
- 최인수. (1998).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 최인수, 표정민. (2014).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27-47.
- 최장호. (2010).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성별, 학년, 성적과 자아실현 및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1), 399-407.
- 최준열, 김지선. (2018). 중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6, 25-50.
- 최준열, 정충대. (2017). 학생이 사용하는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1), 511-530.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1994). **청소년활동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 한성심 (2020). 청소년의 활동참여와 자아존중감 및 창의적 성격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구조. **아동복지연구**, 18(2), 19-38.
- 한정규, 허원석. (2013). 중학생의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2), 63-75.
- 허은정, 이재덕. (2014). 고등학생의 학습유형별 참여 시간이 학업성취도 및 학업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학습 시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2(4), 121-139.
- 황여정, 김정근. (2006).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결정요인. **한국교육사회학회**,

16(3), 181-203.

- Asha, C. B. (1980). Creativ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secondary school children. *Asian Journal of Psychology and Education*, 6, 1-4.
- Assunção Flores, M., & Gago, M. (2020). Teacher education in times of COVID-19 pandemic in Portugal: national, institutional and pedagogical responses.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46(4), 507-516.
- Carrillo, C., & Flores, M. A. (2020). COVID-19 and teacher education: A literature review of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Europ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3(4), 466-487.
- Edwards, M. P. & Tyler, I. E. (1965). Intelligence, creativity and achievement in a non selective public junior high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6, 96-99.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1), 1-22.
-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 (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1), 59-109.
- Gough, H. G., Heilbrun, A. B. (1983).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Guilford, J. P. (1959). Three faces of intellect. *American psychologist*, 14(8), 469.
- Jeynes, W.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and urban secondary school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Urban education*, 42(1), 82-110.
- Katja, R., Päivi, Å. K., Marja-Terttu, T., & Pekka, L. (2002).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 subjective well-being, health behavior, and school satisfac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72(6), 243-249.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Moorhouse, B. L. (2020). Adaptations to a face-to-face initial teacher

- education course 'forced'onlin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46(4), 609-611.
- Murphy, M. P. (2020). COVID-19 and emergency eLearning: Consequences of the securitization of higher education for post-pandemic pedagogy.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41(3), 492-505.
- Tremblay, M. S., Inman, J. W., & Willms, J. D.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in 12-year-old children. *Pediatric exercise science*, 12(3), 312-323.

‘청소년의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청소년 활동,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토론문

강승희

부경대학교 교수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중심 교육에 나타난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학습시간, 창의적 성격, 학업성취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비대면 시대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 정책적 측면이나 학술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비대면 교육을 충분히 경험한 이후인 2020년도 자료를 통해 그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영향 변인들을 탐구하였으므로 최근의 교육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라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타당한 절차와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추가 논의 사항을 고려한다면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 패널 자료 중 3차년도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기관에서 수행한 패널 자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여러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나타난 비대면 교육과 그 이전의 대면교육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지, 그리고 관련 변인들의 영향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관련 인식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이 논문에서 흥미롭게 나타난 결과는 창의적 성격과 학교생활 만족도,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이다.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창의적 성격은 학업성취에는 직접 영향을 주었으나, 학교생활만족도에는 학업성취를 매개로 하여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의적 성격과 학업성취가 모두 높은 청소년들과 창의적 성격은 높지만 학업성취가 높지 않는 청소년들

간에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발달시키고자 할 때,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외의 관련 연구들을 함께 고찰하여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특수성인지, 아니면 다른 교육 환경과 유사한 결과인지를 함께 제시한다면 교육적 시사점을 더욱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논문의 변인 중 하나인 청소년 활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다. 논문에서는 여러 청소년 활동 중 참여횟수만을 변인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활동 횟수와 만족도는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논의에서 지적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참여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 활동을 학교생활 만족도의 원인변인으로 상정한 이유를 사전에 언급하면 좋을 것 같다.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 지는 여러 측면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학업과 관련된 변인들을 상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추후에는 비학업 관련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시기를 제안 드린다.

주의집중과 우울 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업 열의에 미치는 교사 효과

김성식*, 이동호^{***}, 현유정^{***}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맺음이 주의집중과 우울 문제가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난 원격학습 상황은 정서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취약한 교육환경이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 사회 속에서 교사의 역할과 학교의 교육지원을 다시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2018) 1~3차년도 자료를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하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맺음 종류는 접근성, 민감성, 신뢰성, 수용성이다. 분석 결과, 학생의 주의집중과 우울 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주의집중과 우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학업열의를 향상시켰으며, 학교급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사가 학생에 제공하는 신뢰성, 교사의 민감성과 수용성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한계, 추가적인 연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교사 효과, 학생-교사관계, 학업 열의, 주의집중, 우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서울서래초등학교 교사, dosam1026@sen.go.kr.

*** 서울신월초등학교 교사

I. 서론

학생의 우울, 주의집중 등의 정서문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에서 사려 깊은 관심이 필요한 문제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최근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은 기존보다 높은 우울감과 불안감,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KBS뉴스, 2020.07.06.), 늘어난 가정학습 상황은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취약한 교육환경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한영지, 이민혜, 2021). 그리고 학생의 정서문제는 가정 배경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의 정서문제는 주변의 도움과 지원을 통해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데(이대식, 2003; 김용석 외, 2008; 김태은 외, 2013), 배경 수준에 따라 부모의 관심, 정서 지원, 자원의 제공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경희, 황혜정, 1998; 임원진, 2011). 이와 관련하여 교사는 학교 교육에서 학생에게 개별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존재이자 학생의 사회적 자본으로, 주의집중과 우울 문제를 지닌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도움과 지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 앞선 연구들에 의하면 학생의 우울이나 주의집중과 같은 정서문제는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조한익, 2010, 김유정, 안선희, 2012; 김은자, 정구철, 2017). 학업은 크게 결과 측면의 성취도와 과정 측면의 수행이나 태도 등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여기서 학업 열의란,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열의(Engagement)라는 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된 개념으로(Schaufeli & Bakker, 2004)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학업수행의 의미를 내적으로 이끌어내며, 동시에 학업에 집중하게 하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의미한다(이자영, 이상민, 2012). 다수의 연구자들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학업열의를 보고하여 왔으며, 이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조수현 외, 2018; 김훈희, 황영신, 2019; 이미라, 전향신, 2020; 임효진, 이소라, 2020). 그러므로 정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열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과 방안에 주목하는 것은 학생의 학업적 성취의 향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학습에 대한 즐거움과 동기를 통해 정서행동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를 주목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타자(meaningful others)로, 학교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환경이자 정서적 환경을 구성해주는 주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지수, 박유미, 최나야, 2020). 따라서 교사는 교우 및 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학생의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과 심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조수현 외, 2018). 즉, 학업 상황에서 교사는 아동과 가장 밀

접하게 교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성인인 것이다(김종백, 김남희, 2014). 이러한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촉진시키며(이숙정, 2010),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끔으로써(Birch & Ladd, 1997; Murray, 2009), 그들의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Pianta & Stuhlman, 2004).

이처럼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교사 혹은 학생-교사 간 관계맺음에 초점을 두고 학생의 학업적 성장이나 변화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다. 특히 정서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개별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에 있어, 학생의 학업적 성장에는 교사의 도움이 보다 절실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정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는 특히나 주의 깊은 관찰과 상담, 수용과 인내적 관점이 필요하며, 정서적인 지원의 역할과 동시에 교과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업 지도 측면에서도 보다 섬세한 고민이 요구된다. 나아가 학생과 교사관계의 양상과 영향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연령에 따른 아동 특성과 국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운영방식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주의집중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학업열의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을 학생-교사 관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이하 KCYPS 2018)에서 수집된 제8~10차(2018~2020년) 데이터 중 초등학교 4학년~6학년과 중학교 1학년~3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교사 관계의 하위 요인인 교사 접근성, 신뢰성, 민감성, 수용성(김종백, 김남희, 2009) 차원에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한다. 분석에는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른 학생의 학업열의와 정서문제 정도 변화에 주목하며, 학생-교사 관계가 어떻게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사의 역할과 학교의 교육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탐색해볼 수 있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열의란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학업수행의 의미를 내적으로 이끌어내며, 동시에 학업에 집중하게 하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의미한다(이자영, 이상민, 2012).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학업열의는 청소년들이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업적·심리적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이시혜, 하문선, 2021). 또한 학업열의는 학생들을 학업에 보다 더 열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화요인으로 작용하며, 학생들을 동기화시키고 긍정적인 방안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이현아, 조한익, 2013). 이에 많은 연구들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학업열의를 보고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학업열의가 높으면 즉,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면, 인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기 때문에 학업성취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최권 외, 2013; 김솔비, 임효진, 2020; 김훈희, 황영신, 2019). 따라서 학업열의를 가진 학생은 학업이 전적으로 중요시되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도 긍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임효진, 이소라, 2020).

지금까지 학업열의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특성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사성향과 자기효능감(송윤희, 2015), 자기조절학습전략과 자아탄력성(조주연, 김명소, 2013)이 학생들의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권은경(2020)은 주의집중, 교사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모관계, 우울, 행복감순으로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와의 관계를 탐색한 신윤임·강태석(2020)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학업열의의 하위요인인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문명현·이운주(2016)의 연구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중학생들은 스스로 인식한 학업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중학생들은 자신의 학업태도에 대해 자책하며 낮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현 외(2018)는 교우, 교사 및 부모와의 관계가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혀 학업열의가 심리적으로 주요한 타자와의 우호적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 능력과 정서 등 다양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자녀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김현주, 이병훈, 2007; 김혜원, 장윤옥, 2016; 임효진, 이소라, 2020).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동기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높은 학업성취도 및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미라, 전향신, 2020; 김선정, 2020). 반면에,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학업에 대한 흥미와 내적 동기가 낮아지며 학업열의가 저하되어, 결국 학업성취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시혜, 하문선, 2021).

한편,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행동문제는 학업성취를 포함한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은주, 이승희, 2013). 특히 정서적 특성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우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조한익, 2010; 송연주 외, 2014; 김경령, 서은희, 2018). 김은자와 정구철(2017)은 낙관성과 우울이 학업성취도의 유의한 설명변수임을 발견하였는데, 우울의 경우 고우울군을 기준으로 일반군과 저우울군이 유의하게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여기서 우울은 슬픔, 좌절, 활동력의 저하, 무능력한 느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지각, 판단, 사고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Beck, 1976). 우울한 아동은 슬픔, 자기비난, 흥미 상실, 지속적인 외로움과 고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김선희, 1993).

또한, 아동의 주의집중문제 역시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아동이 경험하는 주의집중문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낮게 나타났으며(김은주, 이승희, 201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의집중문제가 전체 학업성취도 및 수학성취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정, 안선희, 2012). 여기서 주의집중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극에 초점을 맞추고, 과제 수행 도중 지루함을 느끼더라도 이를 관리하며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정민, 송수지, 2014). 주의집중문제는 주의력 결핍과 유사한 의미로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 행동을 하는 문제와 관련되며(조봉환, 임경희, 2003),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학생은 주의가 쉽게 분산되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교사-학생 관계의 중요성

교사는 학생들에게 있어 인지적 발달, 학문적 성장 및 사회·정서적 적응과 변화에 부모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의미 있는 타자(meaningful others)로, 학업 상황에서 교사는 아동과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성인이다(김종백, 김남희, 2014; 한영지, 이민혜,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촉진시키며,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숙정, 2010). 그리고 학생들이 인식한 교사 관계와 교사 애착은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최영미, 2020),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성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참여를 통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된 바 있다(안우환, 2007; 전윤지, 김경근, 2013).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열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이현아, 조한익, 2013; 도재석, 2018; 남지영, 정혜원, 2021) 등이 수행되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그들의 학교 적응 및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유봉애, 옥경희, 2013),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더욱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경희, 2009; 김소영, 김진숙, 2014; 정문경 2014).

이에 김종백과 김남희(2009)는 학생-교사 관계에 주목하여 교사애착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신뢰성, 민감성, 수용성, 접근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뢰성은 교사가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Bowlby, 1969). 수용성은 학생의 다양한 행동적인 신호 혹은 정서적인 표현에 민감해질 뿐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받아들이려는 행동특성을 의미한다(Howes, 1999). 접근가능성은 교사가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항상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Fairchild & Finney, 2006). 민감성은 학생의 학업과 정서적인 관심과 요구에 대한 교사의 자각과 그에 대한 반응의 양과 질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의미한다(Pianta, LaParo, & Hamre, 2008; 김종백, 김남희, 2009에서 재인용).

한편, 교사-학생관계의 중요성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한 교실 안에서 담임교사와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교과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사-학생관계의 중요성은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더 강조된다(권순구, 2018).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사-학생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배경, 학교 수준에서의 다양한 변인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특히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학업열의에 교사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이나, 학교급에 따른 영향력과 학생들의 배경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자료의 위계 수준을 고려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변인에 관한 통합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과 우울 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자료를 이용하였다. 2018년도 기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난 1~3학년도의 종단적 성격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유효자료는 3시점이 모두 확보된 자료로서 초등학생 2598명, 중학생 2588명의 3년 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분석변수

3년 간 학생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볼 종속변수는 학업열의이다. 학업열의란 학업에 집중하게 하는 열정의 정도이자 학업수행을 통해 얻는 내적 의미를 일컫는다. 학업열의는 4점 척도로 이루어진 총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학업열의의 문항내용은 학업에 대한 헌신 4문항, 학업을 통해 얻는 활기 4문항, 학업 효능감 4문항, 학업에 대한 몰두 정도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술통계 값은 각각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변인	초등학교 (n=7442)				중학교 (n=7410)			
		M	SD	Min	Max	M	SD	Min	Max
종속변수	학업열의	2.66	.52	1	4	2.44	.53	1	4

독립 변수는 1수준 독립변수와 2수준 독립변수로 구성되었다. 1수준 독립변수에는 주의집중, 우울이 투입되었다. 주의집중 정서문제는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 행동을 하거나 주의가 쉽게 분산되어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의집중 정서문제는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이루어진 총 7문항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우울 정서문제는 슬픔, 좌절, 활동력의 저하, 무능력한 느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문제 상태를 의미한다. 우울 정서문제 또한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0문항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2수준 독립변수에는 교사관계와 학생개인변수를 투입하였다. 교사관계는 학생과 교사의 애착관계 형성 정도를 의미하며, 하위변인으로 접근성, 민감성, 신뢰성, 수용성이 있다. 교사관계 문항은 김종백과 김남희(2009)의 연구에 근거한 도구이며, 4점 척도의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교사관계 접근성은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주신다.”, “선생님은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관계 민감성은 “선생님은 내가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아신다.”, “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신다.”, “선생님은 내가 수업에 흥미가 있는지를 잘 아신다.”, “선생님은 내가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금방 눈치 채신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관계 신뢰성은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 “선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

각하신다.”, “선생님은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신다.”,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관계 수용성은 “선생님은 질문에 대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신다.”,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신다.”,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주신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변인별로 구성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독립변수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학업성취, 긍정적 자아인식, 부모소득, 부모학력,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포함하였다. 학업성취는 학생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성취수준 정도로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6번 “잘 모르겠음”은 결측 처리하였다. 다만, 이 변수는 전년도 성적에 대한 주관적 견해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학업열의와 함께 종속변수로 활용하기 보다는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학업 요인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독립변수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업성취 수준에서 오는 학업열의 차이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3년 치 평균을 구하여 변수 값을 산출하였다. 긍정적 자아인식은 4점 척도의 자아존중감 10문항의 3년 치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부모소득과 부모학력은 학생의 사회·경제적지위(SES) 배경을 의미하며, 부모소득은 3년간 월 평균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소득 없음” 1점, “100만원 미만” 2점으로 시작하여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1점, “1000만원 이상” 12점까지의 이산변수로 조사되었으며 무응답은 결측 처리하였다. 부모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보호자의 학력 중 가장 높은 학력수준으로 변수 처리하였으며, “학교 안 다님” 1점부터 “대학원 졸업” 7점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잘 모르겠음” 8점과 “해당없음” 10점은 결측 처리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선행연구(서선숙, 백진아, 2020; 최혜선, 한세영, 2021)를 참조하여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였으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은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이 있으며, 4점 척도로 이루어진 총 12문항의 3년 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은 거부, 강요, 비밀관성이 있으며, 4점 척도로 이루어진 총 12문항의 3년 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위 변인은 2수준 모형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술통계 값은 각각 다음의 <표2>와 같다.

표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수준	변인	초등학교 (n=2598)				중학교 (n=2588)			
		M	SD	Min	Max	M	SD	Min	Max
1수준	주의집중	2.10	.58	1	4	2.16	.56	1	4
	우울	1.65	.58	1	4	1.79	.62	1	4
2수준	교사접근성	2.65	.43	1	4	2.51	.44	1	4
	교사민감성	2.97	.38	1	4	2.79	.39	1	4
	교사신평성	3.02	.39	1	4	2.87	.42	1	4
	교사수용성	3.10	.39	1	4	2.92	.41	1.11	4
	학업성취	3.82	.62	1.33	5	3.32	.75	1	5
	긍정적 자아인식	2.59	.17	1.8	3.5	2.58	.17	1.80	4
	부모소득	6.64	1.93	1.33	12	6.69	1.95	2	12
	부모학력	5.50	.97	2	7	5.36	1	1	7
	부모 긍정양육태도	3.34	.34	1.58	4	3.19	.37	1.56	4
	부모 부정양육태도	1.44	.30	.75	2.74	1.47	.31	.75	2.73

3. 분석 방법

주의집중과 우울의 정서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학업열의 변화에 미치는 교사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모형은 기초모형과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1수준에서는 3년 치 학생 개인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 자료를 통해 학생의 학업열의 점수가 정서문제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i 는 각각의 개인, t 는 시점을 나타내고, 1-수준의 A_{ti} 에는 i 학생의 t 시점의 주의집중이나 우울 정서문제 정도를 전체 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하여 투입하였다. 시간에 따른 학업열의 정도의 개인차 분산은 σ^2 으로 가정하였고, 2-수준에서 절편과 기울기는 각각 고유효과 β_{0i} , β_{1i} 와 무선효과 r_{0i} , r_{1i} 를 가정하였으며, 무선효과 r_{0i} , r_{1i} 은 분산-공분산행렬을 가진다. 연구의 기초모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초모형]

$$1\text{-수준} : Y_{ti} = \pi_{0i} + \pi_{1i}A_{ti} + e_{ti}, e_{ti} \sim N(0, \sigma^2)$$

(A_{ti} = i 학생의 t 시점의 정서문제[주의집중, 우울])

$$2\text{-수준} : \pi_{0i} = \beta_{00} + r_{0i}, \pi_{1i} = \beta_{10} + r_{1i}$$

$$\begin{bmatrix} r_{0i} \\ r_{1i} \end{bmatrix} \sim N \left(\begin{bmatrix} 0 \\ 0 \end{bmatrix}, \begin{bmatrix} \tau_{00} & \tau_{01} \\ \tau_{10} & \tau_{11} \end{bmatrix} \right)$$

연구모형에서는 정서문제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에 대해 교사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 기초모형의 절편(π_{0i})과 기울기(π_{1i})에 설명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하여 투입하였다. 여기서 π_{0i} 의 의미는 학생의 평균적인 학업열의 정도로, 이는 학생의 개인 특성과 배경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π_{1i} 의 의미는 정서문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학업열의 변화율로, 여기에 교사관계 변수를 투입하여 주의집중이나 우울의 정서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미치는 교사관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명세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연구모형]

$$1\text{-수준} : Y_{ti} = \pi_{0i} + \pi_{1i}A_{ti} + e_{ti}, e_{ti} \sim N(0, \sigma^2)$$

$$(A_{ti} = i\text{학생의 } t\text{시점의 정서문제[주의집중, 우울]})$$

2-수준

$$\pi_{0i} = \beta_{00} + \beta_{01}(\text{주관적성취수준}) + \beta_{02}(\text{긍정적자아인식}) + \beta_{03}(\text{부모소득}) + \beta_{04}(\text{부모학력}) \\ + \beta_{05}(\text{부모긍정양육}) + \beta_{06}(\text{부모부정양육})$$

$$+ \beta_{07}(\text{교사접근성}) + \beta_{08}(\text{교사민감성}) + \beta_{09}(\text{교사신뢰성}) + \beta_{010}(\text{교사수용성})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text{교사접근성}) + \beta_{12}(\text{교사민감성}) + \beta_{13}(\text{교사신뢰성}) + \beta_{14}(\text{교사수용성}) + r_{1i}$$

$$\begin{bmatrix} r_{0i} \\ r_{1i} \end{bmatrix} \sim N \left(\begin{bmatrix} 0 \\ 0 \end{bmatrix}, \begin{bmatrix} \tau_{00} & \tau_{01} \\ \tau_{10} & \tau_{11} \end{bmatrix} \right)$$

π_{0i} 의 절편인 β_{00} 는 학생의 학업열의 평균 점수를 의미하며, β_{0k} 는 학업열의 평균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영향력이다. π_{1i} 의 절편인 β_{10} 은 주의집중이나 우울의 정서문제에 따른 학업열의 변화율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며, β_{1k} 는 정서문제에 따른 학업열의 변화율을 조절하는 교사관계의 영향력을 설명한다.

III. 연구 결과

1. 기초모형 검증

시간에 따른 학생의 학업열의 변화와 정서문제에 따른 학업열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기초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의집중 문제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학생의 주의집중 정서문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열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고정효과 모수의 추정 값은 절편 2.651, 기울기 -.3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학교의 고정효과 모수의 추정 값은 절편 2.435, 기울기 -.3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정효과 모수 추정 값을 비교해보면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평균 학업열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주의집중 정서문제에 따른 학업열의 감소는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수준 무선효과의 χ^2 검정결과에 따르면, 정서문제에 따른 학생 개인 간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선에 개인차가 존재하며 왜 성장선이 개인에 따라 다른지 연구모형을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평균 학업열의 점수에 대한 무선효과 표준편차는 초등학생 .249, 중학생 .294이며 분산성분은 초등학생 .062, 중학생 .087로 나타났다. 주의집중 문제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편차는 초등학생 .266, 중학생 .310이며, 분산성분은 초등학생은 .071, 중학생 .096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학생 개인의 학업열의의 분포에서 몇%가 주의집중 정서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 집단 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였다. 초등학생 개인의 학업열의 점수 분포에서 약 26.9%가 주의집중 정서문제에 의한 차이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개인의 학업열의 점수 분포에서 약 30.5%가 주의집중 정서문제에 의한 차이의 영향으로 나타나, 주의집중 문제가 학생 개인의 학업열의에 끼치는 영향 정도는 중학교에서 약간 더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주의집중 문제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 기초모형 분석결과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정효과	B	SE	T ratio	p	B	SE	T ratio	p
절편	2.651	.007	391.942	***	2.435	.008	323.587	***
주의집중	-.359	.011	-32.676	***	-.307	.012	-24.697	***
무선효과	SD	Var	χ^2	p	SD	Var	χ^2	p
절편	.249	.062	4204.309	***	.294	.087	4996.700	***
주의집중	.266	.071	3041.402	***	.310	.096	3205.430	***
1-수준오차	.360	.130			.361	.131		

. *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으로 우울 문제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우울 정서문제는 학업열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 : ICC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ICC = \frac{Var(\pi_{1i})}{Var(Y_{ti})} = \frac{\tau_{11}}{\sigma_{0i} + \tau_{00} + \tau_{11}}$

등학교의 고정효과 모수의 추정 값은 절편 2.651, 기울기 -.1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학교의 고정효과 모수의 추정 값은 절편 2.441, 기울기 -.1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정효과 모수 추정 값을 비교해보면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평균 학업열의가 낮게 나타났으며, 우울의 정서문제에 따른 학업열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더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수준 무선효과의 χ^2 검정결과에 따르면, 정서문제에 따른 학생 개인 간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학업열의 점수에 대한 무선효과 표준편차는 초등학생 .294, 중학생 .312이며 분산성분은 초등학생 .087, 중학생 .098로 나타났다. 우울 문제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의 무선효과 표준편차는 초등학생 .265, 중학생 .296이며, 분산성분은 초등학생은 .070, 중학생 .088로 나타났다. 집단 내 상관관계수(ICC)를 통해 시간에 따른 학생 학업열의 점수 분산에서 우울 정서문제에 의한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본 결과, 개인의 학업열의 점수 분포에서 초등학생은 약 23.4% 중학생은 약 27.2%가 우울 정서문제에 의한 차이의 영향으로 중학교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 우울 문제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 기초모형 분석결과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정효과	B	SE	T ratio	p	B	SE	T ratio	p
절편	2.651	.007	353.512	***	2.441	.008	309.712	***
우울	-.196	.011	-17.431	***	-.170	.011	-14.834	***
무선효과	SD	Var	χ^2	p	SD	Var	χ^2	p
절편	.294	.087	4574.900	***	.312	.098	5036.438	***
우울	.265	.070	2951.604	***	.296	.088	3129.190	***
1-수준오차	.375	.141			.371	.137		

. * : $p < .05$, ** : $p < .01$, *** : $p < .001$.

2. 연구모형 분석

1)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

주의집중이나 우울의 정서문제 변수가 학생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교사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에서는 학생-교사관계 설명변수를 정서문제에 의한 학업열의 변화율에 투입하여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어떠한 개인요인이 학생의 학업열의 수준을 결정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개인요인을 통제 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교사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의집중의

정서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먼저, 학생 평균 학업열의 점수(π_{0j})에 대해 학생-교사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접근성, 교사민감성, 교사신뢰성이 학업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열의 평균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신뢰성(β_{09})의 계수가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접근성(β_{07})은 .094, 교사민감성(β_{08})은 .056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교사접근성, 교사민감성, 교사신뢰성, 교사수용성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교사신뢰성(β_{09})의 계수가 .2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접근성(β_{07})은 .126, 교사민감성(β_{08})은 .092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에서 교사수용성(β_{010})의 계수는 -.099로 학업열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수용성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평균적으로 학업성취수준(β_{01})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할수록(β_{02}) 학업열의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부모학력수준(β_{04})이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조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소득(β_{03})은 중학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의 크기는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적 양육태도(β_{05}), 부정적 양육태도(β_{06}) 모두 학업열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부정적양육태도보다 긍정적양육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주의집중 문제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열의 감소에 학생-교사관계 중 교사접근성과 교사신뢰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으로 인한 학업열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접근성(β_{11})의 계수는 초등학교에서 .066, 중학교에서 .084로 나타나 어느 정도 학업열의 감소를 완화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신뢰성(β_{13})는 회귀계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097, 중학교의 경우 -.162로 나타나 교사접근성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사신뢰성을 높게 인지될수록 주의집중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집중 하락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접근성과 교사신뢰성의 결과가 왜 상이하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민감성과 교사수용성이 주의집중 문제에 따른 학업열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5. 주의집중 문제 학생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 : 연구모형 분석결과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정효과	B	SE	T ratio	p	B	SE	T ratio	p
절편(β_{00})	2.651	.005	504.944	***	2.433	.006	426.885	***
학업성취(β_{01})	.215	.010	22.332	***	.219	.009	24.600	***
긍정적자아인식(β_{02})	.372	.033	11.325	***	.319	.036	8.976	***
부모소득(β_{03})	.004	.003	1.388		.008	.003	2.537	*
부모학력(β_{04})	.018	.006	2.992	**	.014	.006	2.257	*
긍정양육태도(β_{05})	.086	.021	4.016	***	.102	.022	4.608	***
부정양육태도(β_{06})	.066	.024	2.780	**	.089	.026	3.466	**
교사접근성(β_{07})	.094	.017	5.592	***	.126	.019	6.514	***
교사민감성(β_{08})	.056	.022	2.582	*	.092	.024	3.895	***
교사신뢰성(β_{09})	.204	.024	8.683	***	.203	.023	8.667	***
교사수용성(β_{010})	-.024	.023	-1.065		-.099	.024	-4.142	***
주의집중(β_{10})	-.282	.010	-27.615	***	-.223	.011	-20.090	***
교사접근성(β_{11})	.066	.029	2.283	*	.084	.034	2.490	*
교사민감성(β_{12})	.004	.038	.100		-.022	.041	-.540	
교사신뢰성(β_{13})	-.097	.038	-2.519	*	-.162	.037	-4.392	***
교사수용성(β_{14})	-.044	.041	-1.054		-.022	.042	-.523	
무선효과	SD	Var	χ^2	p	SD	Var	χ^2	p
절편(r_{0i})	.117	.014	2840.307	***	.157	.025	3258.657	***
주의집중(r_{1i})	.217	.047	2916.199	***	.230	.053	3013.582	***
1-수준 오차(e_{ti})	.363	.132			.368	.135		

. * : $p < .05$, ** : $p < .01$, *** : $p < .001$.

2) 우울 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

우울의 정서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학생-교사관계는 학생의 평균 학업열의 점수(π_{0j})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접근성, 교사신뢰성이 학업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민감성과 교사수용성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열의 평균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신뢰성(β_{09})의 회귀계수가 .274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접근성(β_{07})의 계수는 .132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교사접근성, 교사민감성, 교사신뢰성, 교사수용성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교사신뢰성(β_{09})의 계수가 .24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교사접근성(β_{07})은 .137, 교사민감성(β_{08})은 .050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수용성(β_{010})의 계수는 -.081로 학업열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평균적으로 학업성취수준(β_{01})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할수록(β_{02}) 학업열의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부모 소득수준(β_{03})과 학력수준(β_{04})이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조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β_{05})가 학업열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β_{0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학교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모두 학업열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긍정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 문제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열의 감소에 학생-교사관계 중 교사접근성과 교사신뢰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문제로 인한 학업열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접근성(β_{11})의 계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091, 중학교의 경우 계수는 .074로 어느 정도 학업열의 감소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신뢰성(β_{13})은 회귀계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080, 중학교의 경우 -.099로 나타나 교사접근성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사신뢰성을 높게 인지될수록 우울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집중 하락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접근성과 교사신뢰성의 결과가 왜 상이하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민감성과 교사수용성이 우울에 따른 학업열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6. 우울 문제 학생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 : 연구모형 분석결과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정효과	B	SE	T ratio	p	B	SE	T ratio	p
절편(β_{00})	2.651	.006	468.476	***	2.439	.006	420.386	***
학업성취(β_{01})	.246	.010	23.847	***	.237	.009	26.220	***
긍정적자아인식(β_{02})	.312	.035	8.843	***	.306	.036	8.462	***
부모소득(β_{03})	.006	.003	2.001	*	.009	.003	2.721	**
부모학력(β_{04})	.021	.006	3.320	**	.018	.006	2.706	**
긍정양육태도(β_{05})	.048	.023	2.085	*	.088	.023	3.888	***
부정양육태도(β_{06})	-.000	.025	-.000		.054	.026	2.062	*
교사접근성(β_{07})	.132	.018	7.344	***	.137	.020	6.974	***
교사민감성(β_{08})	.005	.023	.197		.050	.024	2.079	*
교사신뢰성(β_{09})	.274	.025	10.898	***	.242	.024	10.060	***
교사수용성(β_{010})	-.018	.025	-.736		-.081	.024	-3.297	**
우울(β_{10})	-.126	.011	-11.768	***	-.097	.011	-9.099	***
교사접근성(β_{11})	.091	.031	2.893	**	.074	.033	2.273	*
교사민감성(β_{12})	-.050	.040	-1.244		-.010	.040	-.240	
교사신뢰성(β_{13})	-.080	.040	-2.013	*	-.099	.035	-2.850	**
교사수용성(β_{14})	-.061	.042	-1.441		-.073	.040	-1.847	
무선효과	SD	Var	χ^2	p	SD	Var	χ^2	p
절편(r_{0i})	.147	.022	3031.375	***	.156	.024	3144.174	***
우울(r_{1i})	.207	.043	2813.920	***	.245	.060	3000.055	***
1-수준 오차(e_{ti})	.379	.144			.374	.140		

· * : $p < .05$, ** : $p < .01$, *** : $p < .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주의집중과 우울 정서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학업열의에 교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주의집중과 우울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관계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학생-교사관계별(접근성, 신뢰성, 민감성, 수용성)로 제시하고 학교급별로 비교하며 이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관계 접근성은 주의집중이나 우울 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업열의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사접근성은 학생의 학업열의 평균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주의집중 정서문제가 미치는 학업열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접근성은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항상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교사가 존재하며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사의 지원과 도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리적 거리를 넘어 심리적인 접근성(psychological availability)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김종백, 김남희, 2009). 학교에서 학생들의 접근성은 교사의 개인 특성과 관련지어 파악해볼 수도 있지만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특히 학급담임제로서 교사와 학생이 일과 시간 동안 주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는 교과담임제로서 교실에 담임이 상주하지 않는 구조이다. 이에 초등학교에 서보다 학생과 교사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쉬우며(권순구, 2018), 학생들이 교사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우미이자 권위자로 보다 체감하기 쉽다(김종백, 김남희, 2014; 한영지, 이민혜, 2021).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학생의 정서적인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유봉애, 옥경희, 2013)에서 정서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교사접근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교사관계 중 신뢰성은 학생의 학업열의를 향상시키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주의집중과 우울의 정서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반감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교사 신뢰성이란 교사가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지지와 도움, 믿음과 자신감을 제공할 때 형성된다(Bodlby, 1969)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학생의 긍정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다. 교사신뢰성 문항은 학생이 학습과 생활적 측면에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교사의 긍정적인 믿음과 신호를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평균적인 학업열의 향상에 높게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긍정적 성장의 믿음과 지지는 정서문제가 심해질 경우 학생의 평균적인 학업열의를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교사관계가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기존의 연구(남지영, 정혜원, 2021; 도재석, 2018; 이현아, 조한익, 2013; 최영미, 2020)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학생에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을 정서문제가 감소시키는 것으로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학생의 정서문제로 겪는 어려움의 대상이 곧 학업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김경령, 서은희, 2018; 송연주 외, 2014; 정구철, 2017; 조한익, 2010). 이러한 점에서 학생-교사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학업열의에 향상에 영향을 미치나, 주의집중·우울 정서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학업보다는 정서적·심리적 안정감과 관련지어 보다 긍정적인 교사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학생 개인 요인 중 긍정적인 자아인식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학생의 정서적·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교사관계 민감성은 학생의 평균 학업열의 성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주의집중과 우울 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업열의 변화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의 민감성은 학생들의 작은 변화나 요구와 같은 신호를 정확하게 지각(awareness)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높은 민감성이 있는 교사는 일관되게 학생들을 편안하게하고 안심할 수 있게 하며 용기를 북돋아주어 학생의 능력을 촉진할 수 있다(Pianta, La Paro, & Hamre, 2008). 이러한 점에서 중학교에서 교사의 민감성은 학업열의 평균 점수 향상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통계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민감성에서 지각과 함께 중요한 개념인 반응의 질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Dunst & Kassow, 2008). 게다가 정서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진단 후 지원방안에 대한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며(김용석, 모선영, 최현정, 이자영, 2008), 기존의 일관적인 교수학습방법이 아니라 학생의 맥락과 특성을 더욱 고려해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Rose, 2015).

마지막으로, 교사수용성은 정서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학업열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중학생의 학업열의 평균 점수를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수용성은 학생의 다양한 행동적 신호나 정서적 표현에 민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행동특성을 의미한다(김종백, 김남희, 2009).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중학교 시기의 교사의 수용적인 태도는 학업 자체보다는 생활, 진로, 다양성의 방향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학생 수준에서 이루어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학생-교사 관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교사관계의 하위요인은 변인 간 상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정되어 나타났을 수 있다. 셋째, 교사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계속 바뀌며 중학교의 경우 동시에 더 많은 교사와 교류하고 초등학교보다 교사 구성원의 성격이 균질적이지 않아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넷째, 인지적 영역인 학업열의에 초점을 두어 주의집중과 우울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관계의 효과를 밝히고자 했으나, 주의집중과 우울 등 정서 문제 자체나 심리·정서적 역량의 개선 여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사에 대한 접근성, 교사가 제공하는 정서적지지 등은 정서문제를 비롯한 학생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학업수행과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다. 코로나19가 만들어진 학교 또는 교사와의 공간적 단절 상황은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함께 만들어진 원격학습 경험이 학생-교사 간 새로운 방식의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순구. (2018). 교사-학생관계 교사효능감과 초등학생의 수업참여, 흥미,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24(1), 31-56.
- 권은경. (2020). 중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관련 변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1), 124-127.
- 김경령, 서은희. (2018). 대학생의 우울수준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정의적 특성의 차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237-257.
- 김경희, 황혜정. (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2-26.
- 김태은, 권점례, 노원경, 정은주, 김의정, 황은영. (2013).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지닌 초등학생 지원을 위한 수업 전략과 학습 환경 설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선정.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양육태도와 교사애착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 그릿(Grit)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식. (2019).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업수행에 대한 가정 배경, 유아시기 교육경험, 학생-교사 관계 변인의 영향, **초등교육연구**, 32(1), 15-36.
- 김소영, 김진숙. (2014).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정서조절이 아동기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5(3), 1257-1276.
- 김솔비, 임효진. (2020). 초등학생용 학업적 열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초등교육연구**, 33(3), 171-200.
- 김용석, 모선영, 최현정, 이자영(2008).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 현황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어린이재단.
- 김유정, 안선희. (2012).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지역효과 연구. **아동과 권리**, 16(2), 341-365.
- 김종백, 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697-714.
- 김종백, 김남희. (2014).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학생-교사 관계의 변화가 학생의 학교 행복과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285-315.
- 김정민, 송수지. (2014).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1), 5-27.
- 김은자, 정구철. (2017). 초등학생들의 낙관성과 우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8), 406-406?
- 김은주, 이승희. (2013).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학업성취수

- 준별 차이. **정서·행동장애연구**, 29(2), 25-44.
- 김현주, 이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김혜원, 장윤옥. (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5), 99-117.
- 김훈희, 황영신. (2019). 대학생들의 발달자산, 스트레스 및 위험행동의 구조적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2(6), 625-635.
- 남지영, 정혜원. (2021). 중학생의 친구 및 교사관계와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1479-1298.
- 도재석. (2018). **지각된 교사-학생의 관계 및 동료 간의 관계성지지와 중·고등학생의 성취목표성향, 심리적 욕구좌절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명현, 이윤주. (2016). 청소년의 우울/불안, 공격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6), 175-200.
- 백혜정, 황혜정(2005).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서선숙, 백진아. (2020).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6(4), 497-512.
- 송연주, 이상수, 김해련, 함경애, 이동훈(2014). 학업성취 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차이, **교육종합연구**, 12(1), 29-50.
- 송윤희. (2015). 대학생의 감사성향과 학업열의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109-128.
- 신윤임, 강태석. (2020).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911-932.
- 안우환. (2007). 교사-학생 관계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8(3), 269-289.
- 유봉애, 옥경희. (201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11-538.
- 이대식. (2003). 교사들이 지각한 초등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대처방안의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9(4), 283-302
- 이미라, 전향신. (2020). 가정의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릿,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779-805.

- 이숙정. (2010).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학생 관계와 학급풍토 및 학습몰입의 경로 분석. **초등교육연구**, 23(4), 207-227.
- 이시혜, 하문선. (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간 관계에서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169-181.
- 이자영, 이상민. (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 이현아, 조한익. (2013). 완벽주의와 학업열의 및 학업소진과의 관계: 동기와 목표과정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575-601.
- 임원신. (2011). 가정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우울 및 관계적 변인(사회적지지, 부부관계, 정서적 부모자녀관계)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5(4), 53-71.
- 임효진, 이소라. (2020). 그릿(Grit)을 매개로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부모, 교사, 교우 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초등교육**, 31(1), 109-127.
- 전윤지, 김경근. (2013). 가정배경, 교사 지지, 컴퓨터 이용 행태,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9(1), 5-34.
- 정문경. (2014). 청소년기 정서조절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49-72.
- 정은선, 정종원. (2017).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사-학생 의사소통과 학업성취의 관계: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매개효과, **교육문제연구**, 30(3), 77-102.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수현, 이민영, 이장희, 이상민. (2018). 고등학생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4(3), 1-26.
- 조주연, 김명소. (2013). 초등학생의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4), 477-497.
- 조한익. (2010).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희망 및 우울증의 구조적 관계 분석, **초등교육연구**, 23(2), 75-93.
- 최권 외. (2013).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 및 교우 관계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4(4), 281-306.
- 최영미. (2020). 부모의 긍·부정적 양육태도, 교사애착,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915-936.
- 최지수, 박유미, 최나야. (2020). 학교의 정서적 환경과 초등학생의 학업수행능력 간의

- 관계를 매개하는 다중요인: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집행기능 곤란, **초등교육 연구**, 33(3), 259-282.
- 최혜선, 한세영. (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중학생의 그릿,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 간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3(1), 103-125.
- 한영지, 이민혜. (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교사의 지원이 자기조절효능감을 매개로 온라인수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5(1), 217-236.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Rose, T. (2015). *The end of average: How we succeed in a world that values sameness*. HarperOne/HarperCollins.
- Quiroga, C. V., Janosz, M., Bisser, S., & Morin, A. J. S. (2013). Early adolescent depression symptoms and school dropout: moderating processes involving self-reported academic competence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5(2), 552-560.
- KBS. (2020.07.06). 코로나19 영향 청소년 우울 · 불안 증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87204> (2020.07.06. 인출)

‘주의집중과 우울 문제가 있는 학생의 학업 열의에 미치는 교사 효과’에 대한 토론문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여러 국면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제한됨에 따라 성인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32.4%가 코로나19로 더 우울함을 경험한다는 응답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학교 밖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2021.3.). 이러한 현실에서 이 논문은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보여진다. 특히, 주의집중과 우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학업열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점차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는 원격사회에서 교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한다. 학교에서의 원격수업 확대를 비롯한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면수업을 비롯한 학교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앞으로의 학교교육에서 있어 여전히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의집중결핍, 우울 등이 학업열의 혹은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밝힌 반면, 이 논문은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교사효과 변인을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한 층 진일보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논문도 이미 완성도가 높지만, 읽으면서 가진 몇 가지 의문점과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변수의 설명과 기술통계량에 있어 독자들을 위해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시간변수인 종속변수(학업열의)가 3개년 전체 사례수에 대한 기술통계로 제시되어 있는데, 세 시점의 기술통계가 제시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우울, 주의집중은 t시점에 대한 것이므로 3년치 기술통계로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아울러, 2수준 독립변수 중 학업성취, 긍정적 자아인식, 부모 배

경특성 등은 3개년 평균으로 구성했다고 되어 있지만, 교사관계 변수들은 -3개년 평균으로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하다. 이 외에도 심리적 변수들의 경우 서로 상관이 높을 수 있으므로 기술통계 부분에 상관계수와 같은 정보들이 추가되면 어떨까 싶다.

둘째, 모델링에서 주의집중 및 우울 변수를 전체 평균 중심화하여 투입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 모델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이 두 변수를 어떻게 센터링시켰느냐에 따라 전체 모델의 의미,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투입하는 변수들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이 변수들을 전체 평균 중심화시키면 1수준 절편의 의미가 ‘학생의 평균적인 학업열의 정도’가 되어, 변수들을 중심화시키지 않고 투입했을 때 볼 수 있는 초기값과 연차에 따른 변화 정도보다는 의미의 세밀함이 다소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모형을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셋째, 독립변수들의 투입과 관련하여 교사 관계 변수들은 1수준의 절편과 기울기에 대해 동시에 투입한 반면, 다른 독립변수들은 1수준 기울기에 대해서만 투입한 이유가 궁금하다. 물론, 이 연구에서 교사 관계가 학생의 주의집중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기울기에 교사관계 변수들만 투입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서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주의집중 및 우울 문제는 가정배경과 가정의 지원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분석이 본 연구의 중심 주제는 아니어도 부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넷째, 모형에 대한 기술과 관련하여 학업열의에 미치는 학업성취, 긍정적 자아인식, 부모 배경특성 등에 대해 절편에 미치는 계수들에 대한 기술이 “학업열의가 향상된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학업열의가 높게 나타난다” 정도로 수정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다섯째, 주의집중 및 우울에 대하여 교사신뢰성 계수가 ‘-’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향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러한 부적 관계가 나온 이유에 대해 결론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신뢰성의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 “선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선생님은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

하신다”,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등 교사의 기대와 유사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수업 장면에서 주의집중과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이와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적절한 반응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다. 본 연구에서 교사신뢰성 계수가 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항의 내용 특성으로 보여지므로 결론부분에서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 부여는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섯째, 후속 연구와 관련한 제언이다. 현재의 교사 관계 변수는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향후 다른 가용 데이터들이 있다면, 수업 외 활동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효과(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시도 되면 좋을 것 같다. 향후 학교에서의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금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충격이 발생하여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때, 수업 외에서의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김지혜(2021.3.). 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 교육저책포럼, 333. 4-9.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 친구관계, 삶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임선아*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에서 스마트폰의존도가 또래관계와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와 또래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변인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자료를 사용하여 종단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첫째, 스마트폰의존은 부정적 또래관계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정적 또래관계는 초기 청소년들의 삶만족도에 종단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의존과 삶만족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성이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삶에 대한 만족감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인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의 삶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조절력을 기르도록 지도 및 개입을 하여 청소년들이 원활한 사회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야 함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초기 청소년, 스마트폰의존, 친구관계, 삶만족도, 종단적 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sunahlim@jbnu.ac.kr

I. 서론

지난 2020년 유니세프는 전 세계 경제선진국 가입국 38개국의 15세 기준 청소년들의 신체, 정신 건강 및 학습능력 개발 등의 현황을 분석한 ‘Innocenti Report Card 16’을 발표하였다. ‘Innocenti Report Card 16’에서 정신건강의 주요 지표인 삶에 대한 만족도 결과 한국 청소년은 29위로 영국 일본 터키와 함께 최하위군에 속하였다(Gromada, Rees, & Chzhen, 2020). 향후 한국의 미래를 이끌 아동 및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올리는 경종으로 한국 사회가 이에 대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그런데 더 주목할 내용은 ‘Innocenti Report Card 16’ 보고서가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조사 집계된 데이터들로 향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웰빙 지수는 2020년 상반기 휴교와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현격히 떨어질 전망이기에 앞으로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럽다고 자각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Huebner, 2004).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에 따라 변화(김안나, 김효진, 2018; Danner, Snowdon, & Friesen, 2001)하는 특성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최근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삶의 만족도를 저하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13~18세 청소년 50만 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 청소년들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량이 적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 증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에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살시도에 대한 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wenge, Joiner, Rogers, & Martin, 2018).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스마트폰 중독지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낮았으며(남문희, 김혜옥, 권영채, 2013),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진희, 김상미, 2020).

한편, 많은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김보경, 백용매, 허창구, 2016; 주석진, 조성심, 2015; 최은숙, 김완일, 2017; 이영선 외, 2013; Lepp, Li, & Barkely, 2016).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증가는 또래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도

록 하여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민, 임영식, 2012). 즉,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실제적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의 감소를 가져와 또래들과의 대화부족, 갈등을 발생시켜 관계의 단절이나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조항민, 2011). 스마트폰은 가상세계에서의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높이지만 동시에 현실세계에서는 소외감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관계의 악화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김혜순, 변상해, 2015).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사회적 기술 발달과 조절력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또래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민, 임영식, 2012).

그런데 이러한 또래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 청소년이 맺는 사회적 관계 및 대인관계 능력은 삶의 만족도(Park & Huebner, 2005), 주관적 안녕감(Lee & Yoo, 2015; Workum, Scholte, Cillessen, Lodder, & Giletta, 2013) 등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친구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도 높으며(김의철, 박영신, 박금주, 1998),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안정적일수록 지각한 행복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주영, 도현심, 이선희, 신정희, 2015; 정혜원, 조옥귀, 2011; Gilman & Huebner, 2006; Konu et al., 2002).

지금까지 개관한 선행연구는 스마트폰 의존도와 또래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계성에 대한 개연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수행되어온 연구들은 주로 횡단연구로 진행되어 두 변인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횡단연구는 동일 시간 내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시도로 횡단적 연구설계로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파악하기 힘든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사용한 종단분석을 통해 세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의존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규명할 뿐 아니라, 스마트폰의존도와 삶만족도를 매개하는 또래관계의 종단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에서 스마트폰의존도가 또래관계와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또래관계 스마트폰 사용과 또래관계 증진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의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2017년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 집락표집 방식으로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총 5,197명 선정하였다. 이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학교 코호트는 원패널이 2,590명이었으며 2차년도에서는 원패널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438명(94.1% 유지) 조사하였으며, 3차년도에서는 2,384명(92.0% 유지)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차시에 모두 응답하고 본 연구의 관심 변인 측정에 응답한 학생들로 한정하여 이들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총 2,150명으로, 남학생 1,150명(53.5%), 여학생 1,000명(46.5%)이었다.

2. 측정도구

1) 스마트폰의존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동일 외(2012)가 개발한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스마트폰 의존도는 일상생활 장애(5문항), 가상세계 지향(2문항), 금단(4문항), 내성(4문항)의 4개 요인,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동일 외(2012)에서의 신뢰도는 .91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1차가 .876, 2차가 .868, 3차가 .877로 나타났다.

2) 부정적 또래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은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2015)가 개발한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관계의 질은 크게 2개의 요인(긍정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또래관계)과 6개의 하위요인(상호친밀감, 사회적지지, 또래

관계 만족, 갈등과 대립, 일반적 주도, 철회와 고립)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과 대립, 일반적 주도, 철회와 고립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부정적 또래관계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검자의 또래관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배성만, 홍진영, 현명호(2015)에서의 부정적 또래관계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부정적 또래관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1차가 .726, 2차가 .802, 3차가 .816으로 나타났다.

3) 삶만족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의 삶의 만족도(SWLS)를 변안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인지적인 판단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등의 다섯 문항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원척도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Diener et al., 1985),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1차가 .847, 2차가 .821, 3차가 .822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들이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도가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매개로 삶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M)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시도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특정 시점의 값(t)이 이전 시점의 값($t-1$)에 의해 설명되는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을 두 변인간의 상호 지연 효과(cross-lagged effect)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확장한 방법이다(Sher, Wood, Wood, & Raskin, 1996). 본 연구의 적합도 해석 기준은 RMSEA의 경우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1이하이면 보통 적합도로 해석하며(Browne & Cudeck, 1993), TLI와 CFI의 경우 그 값이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였다(Bentler, 1990).

Ⅲ. 연구결과

1. 상관 및 기술통계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은 세 시점 모두에서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 < .01$).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규분포가정(왜도 <2 , 첨도 <4)을 점검한 결과(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의 변수들은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인간 상관값 및 기술통계치

	SD_w1	SD_w2	SD_w3	NPR_w1	NPR_w2	NPR_w3	LS_w1	LS_w2	LS_w3
SD_w1	1								
SD_w2	.436***	1							
SD_w3	.356***	.477***	1						
NPR_w1	.285***	.184***	.180***	1					
NPR_w2	.150***	.317***	.174***	.297***	1				
NPR_w3	.148***	.187***	.256***	.192***	.269***	1			
LS_w1	-.318***	-.210***	-.170***	-.327***	-.179***	-.147***	1		
LS_w2	-.164***	-.329***	-.178***	-.201***	-.350***	-.190***	.440***	1	
LS_w3	-.166***	-.180***	-.260***	-.182***	-.188***	-.308***	.371***	.459***	1
평균	2.035	2.128	2.180	1.848	1.834	1.796	3.139	3.068	3.060
표준편차	0.488	0.467	0.492	0.514	0.561	0.562	0.541	0.476	0.455
왜도	.227	-.086	-.101	.408	.432	.575	-.307	.036	-.074
첨도	-.042	-.098	-.322	.749	.130	.386	.235	.464	.939

*** $p < .001$; SD: 스마트폰의존성; NPR: 부정적 또래관계; LS: 삶만족도

2. 변인 간 인과관계성 검증

1) 시간에 따른 동등성 검증

주요 변인들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분석을 위해서 9개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들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경로 동일성 → 오차공분산 동일성’의 순서로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모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모형 1은 기저모형, 모형 2에서 4까지는 스마트폰의존, 부정적 또래관계, 삶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 경로 동일성, 모형 5에서 6까지는 스마트폰의존, 부정적 또래관계, 삶만족도의 교차지연계수 경로 동일성, 모형 7에서 9까지는 오차공분산 동일성이다.

표 2. 동일성 검증 적합도

Model	χ^2	df	p	TLI	CFI	RMSEA
1	232.930	17	.000	.883	.925	.077
2	243.214	18	.000	.885	.927	.076
3	246.201	19	.000	.890	.932	.075
4	252.215	20	.000	.893	.932	.074
5	252.286	21	.000	.898	.934	.072
6	252.293	22	.000	.903	.935	.070
7	258.167	23	.000	.906	.937	.069
8	259.387	24	.000	.910	.937	.068
9	261.234	25	.000	.913	.939	.066

1: 기저모형; 2~6: 경로동일성; 7~9: 오차공분산동일성

표 2와 같이 모형 1의 기저모형과 모형 2에서 6까지 경로동일성, 모형 7에서 모형 9까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 모든 모형이 $\Delta CFI \leq -.01$ 합치도 기준에 충족하였으므로(Cheung & Rensvold, 2002) 경로 동일성과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검증됨에 따라 가장 간명한 모형인 모형 9를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모형 9의 적합도는 $\chi^2 = 261.234(25)$, $p < .001$, $TLI = .913$, $CFI = .939$, $RMSEA = .066$ 으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함에 따라 최종 모형 9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모형 분석 결과

스마트의존 1차에서 삶만족도 3차의 직접경로를 '0'으로 고정한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과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중 어떤 모형이 보다 적절한지 모형 적합도 지수와 합치도 기준을 통해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모형(TLI=.867, CFI=.937, RMSEA=.066)과 완전매개모형(TLI=.913, CFI=.939, RMSEA=.066)의 적합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Delta\text{TLI}=.000$, $\Delta\text{CFI}=-.002$, $\Delta\text{RMSEA}=.000$)으로 나타났으며, $\Delta\text{CFI} \leq -.01$ 합치도 내에서 변화가 없었으므로 기준에 충족하였다(Cheung & Rensvold, 2002). 따라서 스마트의존 1차와 삶만족도 3차 간의 직접경로를 '0'으로 고정한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이 간결성의 원리(parsimony principle)에 따라 좀 더 간명한 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Klin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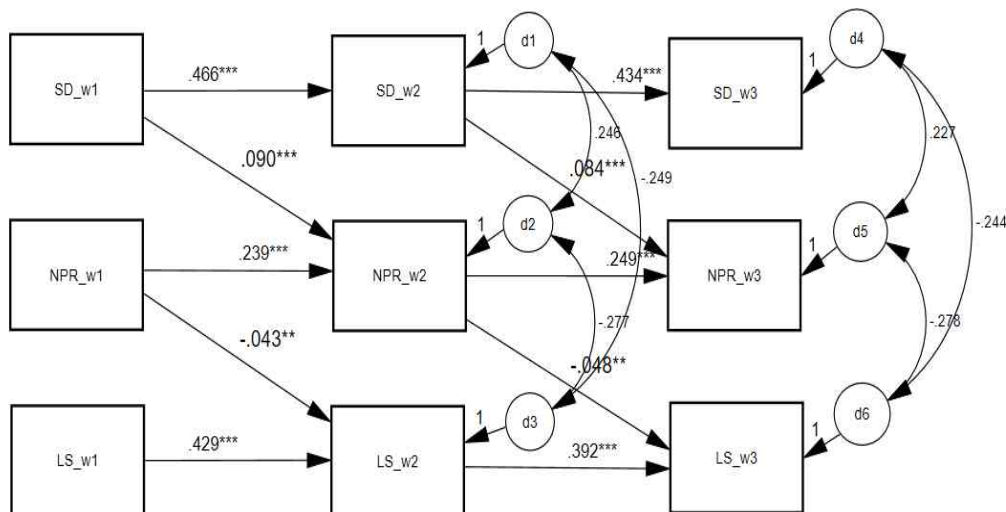


그림 1. 모형 분석 결과

최종모형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완전매개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최종 경로계수는 그림 1과 같다. 최종 모형의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이전 시점의 스마트폰의존과 부정적 또래관계, 삶만족도 각각은 이후 시점의 스마트폰의존과 부정적 또래관계, 삶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 < .001$)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교차지연계수를 살펴본 결과, 이전 시점의 스마트폰의존이 이후 시점의 부정적 또래관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에서 스마트폰의존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경과한 후에 부정적 또래관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전 시점의 부정적 또래관계는 이후 시점의

삶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에서 부정적 또래관계가 높을수록 이후 삶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Shout와 Bolger(2002)의 부트스트랩 방법(1000번 반복시행)을 통해 최종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의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차 스마트폰의존과 3차 삶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또래관계는 $-.043$ 으로 95% 신뢰구간에서 $-.082 \sim -.020$ 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1$). 이를 통해 스마트폰의존과 삶만족도 간에 부정적 또래관계의 매개효과가 시간이 경과에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의존도가 높을수록 부정적 또래관계가 높아지고 이러한 높은 부정적 또래관계는 삶만족도를 낮추게 됨을 의미한다.

IV. 논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이 지각하는 스마트폰 의존성이 삶만족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살펴볼 뿐 아니라, 스마트폰 의존성이 삶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매개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변인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종단데이터를 활용한 종단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관련 선행연구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스마트폰의존은 부정적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연구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의 사용량이나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나 긍정적 또래관계가 낮게 나타난 결과(김보경 외, 2016 이정숙, 명신영, 2007 주석진, 조성심, 2015 최은숙, 김완일, 2017 Lepp et al., 2016)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나친 스마트폰의 사용과 의존성이 또래관계의 악화를 야기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노출이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초기 청소년들이 조절력을 갖고 스마트폰을 적정시간의 양만큼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어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정적 또래관계와 삶만족 간의 관계는 부정적 또래관계가 높을수록 삶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긍정적 또래간의 관계와 삶만족도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Park & Huebner, 2005; 김선희, 백진아, 2018; 김승진 등, 2016)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는 삶만족에서 또래와의 사회적인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사회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부정적 또래관계를 매개로 삶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인 영향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의존은 부정적 또래관계를 통해 삶만족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성이 높을수록 또래 간의 관계가 악화되며 나빠진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삶만족도를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이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우울을 보인 연구(김소연 외, 2016)와 비슷한 맥락의 결과를 보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술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김영민, 임영식, 2012),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맺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되고 의존현상이 과해지면 초기 청소년이 지닌 주요한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스스로 삶에 대하여 불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만족감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삶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과의존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개입하거나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의존적 사용으로 인해 사회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도 및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고진희, 김상미 (2020).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5, 139-164.
-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민, 남지은 (2012) 성인용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pp.629-644.
- 김선희, 백진아 (2018).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6(9), 477-487.
- 김승진, 도현심, 이운경, 박보경 (2016).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이성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5), 83-100.
- 김문선 (2013).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삶의 만족도가 1년후 학 교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 백용매, 허창구 (2016). 애착과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483-502.
- 김소연, 노충래, 손유경 (2016).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이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3),

251-27.

- 김의철, 박영신, 박금주 (1998).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김안나, 김효진 (2018).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이행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가족과 문화**, 30(3), 70-94.
- 김영민, 임영식 (2012).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 의존과 자기 주도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
- 남문희, 김혜옥, 권영채 (2013). 건강행태, 스마트폰중독 및 자살생각지수가 주관적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10), 57-569.
- 배주영, 도현심, 이선희, 신정희 (201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6), 59-83.
-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윤태희, 조영일 (2014). 부모-자녀 애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중단적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61-90.
- 이영선, 김래선, 조은희, 이현숙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연구-중고생 이용자의 FGI 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1(1), 43-6.
- 이유리 (2013). 가족특성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0, 99-126.
- 정은혜, 이소연 (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3), 19-146.
- 정혜원, 조옥귀 (2011).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행복의 관계에서 몰입경험과 또래애착의 역할.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63-85.
- 조항민 (2011). 디지털미디어 등장과 새로운 위험유형: 융합매체로서 스마트폰의 위험특성과 이용자 위험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353-364.
- 주석진, 조성심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판별요인에 관한 연구: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충동성, 교우관계, 모의 권위주의형 부모양육태도, 학교부적응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97-18.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s models* (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464-504.
- Danner, D. D., Snowdon, D. A., & Friesen, W. V. (2001). Positive emotions in early life and longevity: findings from the nu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5), 804-813.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71-75.
- Gromada, A., Rees, G, & Chzhen, Y. (2020). *Worlds of influence: Understanding what shapes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16*. UNICEF.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Pres.
- Konu, Lintonen, & Rimpela, 2002 Konu, A. I., Lintonen, T. P., & Rimpelä, M. K. (202).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children's general subjective well-being. *Health Education Research*, 17(2), 15-165.
- Lee & Yoo, 2015; Le, B. J., & Yo, M. S. (2015). Family, schol, and community correlates of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Child Indicators Research*, 8(1), 151-175.
- Lepp, A., Li, J., & Barkley, J. E. (2016). College students' cell phone use and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4, 401-408.
- Ma, C. Q., & Huebner, E.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s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2), 177-190.
- Sher, K. J., Wood, M. D., Wood, P. K., & Raskin, G. (1996).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nd alcohol use: a latent variable cross-lagged pane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4), 561-574.
- Twenge, J. M., Joiner, T. E., Rogers, M. L., & Martin, G. N. (2018). Increases in depressive symptoms, suicide-related outcomes, and suicide rates among US adolescents after 2010 and links to increased new media screen time.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6(1), 3-17.

- Twenge, J. M., Martin, G. N., & Campbell, W. K. (2018). Decreas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merican adolescents after 2012 and links to screen time during the rise of smartphone technology. *Emotion, 18*(6), 765-780.
- Workum, Scholte, Cillessen, Lodder, & Giletta, 2013 Workum, N., Scholte, R., Cilesen, A., Loder, G., & Gileta, M., (2013), Selection, deselection, and socialization processes of happiness in adolescent friendship network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3*(3), 563-573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 친구관계, 삶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에 대한 토론문

도승이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과 갈망을 보이고, 사용하지 못할 때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여 일상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현재의 10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이용은 일상화되어 왔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성인보다 더 위험적이고 치명적이어서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 하에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과 우울, 스트레스, 또래 관계,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심리적 변인 간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체로의 결과들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은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에도 무관심하거나 또래관계가 나빠지고,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행복감이 낮다.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과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연관성을 넘어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연구들이 주로 횡단연구로 진행되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청소년 스마트폰의존이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종단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본 논문의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어떠한 면에서 문제가 되고 심각할 수 있는지를 잘 탐색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자면, 본 연구 결과에서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의존과 삶만족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결과는 청소년의 부정적 또래관계 역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사용의 조절과 함께 또래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응답자 중 30.2%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들과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되는 기기가 되었다. 청소년에게 본 논문의 결과인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또래관계 질을 높이고 자신의 삶에 만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교육자들은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 하는 방법으로 또래관계에 질을 높이거나 정서를 조절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혜준, 임규연. (2020). 양육태도의 일관성, 스마트폰 사용 빈도,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업열의의 관계: 학교급에 따른 차이. **미래교육학연구**, 34(2), 105-131.
- 여성가족부. (2020). **2020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Session 3

제9주제

학업/학교 2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사교육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인과관계 종단분석

곽수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아동청소년패널2018 중1패널 1차, 2차, 3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은 어느 시점까지 형성되어 일관되게 지속되기 보다는 학생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역동적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중1~중3까지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업열의는 학업성취와 직접적인 정적효과, 학업무기력은 직접적인 부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는 가정의 경제적 조건으로 자녀의 학업열의나 학업무기력 수준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요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학업활동이 주요 발달과업인 중학생의 학업성취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사교육비, 학업성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2018

* 고구려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ksrpeda@naver.com

I. 서론

한국사회에서 중등교육 기간 학업성취는 성인기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선발 등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중등교육 받는 학생들의 학업활동은 단지 현시점에서 학교교육 성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처럼 여겨진다. 또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자녀의 학업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등학교 학업활동이 교육의 본래 기능인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인간화 과정으로 수행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좋은 성과가 없으면 미래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중등학교 학생들은 예외 없이 학업열의가 높아야 되며, 학부모는 그런 자녀의 학업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접해있는 것이다.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 교육현상에 비추어 볼 때,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열의는 높아야 하며, 학부모는 자녀들의 학업성과를 위해 자녀의 학업열의 수준에 따라 학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나름대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업활동을 수행하거나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열의를 항상 뒷받침해 줄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 중학생의 학업열의가 어느 수준일까? 반면 학업열의와 상반되는 학업무기력은 어느 수준일까?라는 관심에서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열의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정도가 학업성취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학부모의 교육 지원을 사교육비 투입과 연계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학생의 학업열의가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종단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활동 수준과 학부모의 지원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중학생의 긍정적 학업활동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그리고 사교육과 학업성취 결정요인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열정이 높고 학업에 온전히 능동적으로 집중하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탄력성 및 자신감을 가진 상태이다(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이시혜, 하문선, 2021 재인용).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학업활동에 대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와 매우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학업무기력은 학업열의와는 상반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기력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업무기력은 학업활동에 대한 신념, 동기, 정서적 조건 그리고 수행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학업활동과 관련된 열의와 무기력은 학업 그 자체에 대한 열의와 무기력이라기보다는 학업활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 즉, 이전 학업성취의 성과에 따라 누적되는 특성이 있다. 즉, 학업활동과 관련된 열의와 무기력은 학습된 열의나 학습된 학업무기력이라는 맥락이 더 적절한 것이다. 학습된 열의는 이전 학업성취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효능감이 높고 더 나아가 학업활동을 활기있게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열의는 학업성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이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도 명백한 학업열의→학업성취의 정적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이시혜, 하문선, 2021; 이은경, 이선희, 2021).

반면, 박병기 외(2015)는 학습무기력은 학습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며,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심리적 특성이라 설명하고 있다(이시혜, 하문선, 2021 재인용). 이러한 학업무기력은 지속적으로 학업실패와 연계되어 결국에는 학업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학습된 무기력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학습된 학업무기력은 실패를 먼저 예상하게 하고 어떤 과제상황이 주어질 때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거나 학습과제를 완성하는데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부진과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지며 건전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같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Seligman, 1975; Abramson et al., 1978; 박병기 외, 2015 재인용). 학업열의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선행연구 결과는 학업무기력이 학업성취와 비교적 명확하게 부적 방향의 인과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이시혜, 하문선, 2021; 조현철, 2013; 유현숙, 설희연, 2017; Abramson et al., 1978; McKean, 1994). 그런데 학업무기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학업성취와의 인과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엄태순, 윤미선, 2020; 김영희, 강혜원, 2005; 옥일남 2004; 김아영, 주지은, 1999; Ficham, Hokoda, &

Sanders, 1989). 학습된 무기력에는 학업무기력이 포함될 수 있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좀더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는 학업 이외의 생활영역 전반을 나타내는 것이며, 학업무기력은 학업활동으로 제한된 무기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학습된 무기력과 학업무기력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했을 때, 학업과 관련된 요인 즉, 학업성취, 학교적응 등과 같은 인과관계 맥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과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기, 사춘기 등으로 일컬어지는 중학생들의 발달특성 상, 그들의 일상생활이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의 활동이든지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업열의를 가지고 학업에 몰입했던 학생들도 학업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학업열의는 있는데 학업동기가 부족하거나 학습방법이 미숙할 수도 있으며, 학업 이외의 환경 때문에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 교육문화는 협동보다는 경쟁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업성취 향상을 기대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압력은 학업열의를 소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사실상 상당한 역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역동성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학업성취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학업성취는 사교육비와 연계되어 있다는 축적된 선행연구(유지연, 박창순, 2015; 임천순, 박소영, 이광호, 2004; 김민선, 백일우, 2016; 이성림, 한윤선, 2016)는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과도 인과관계 맥락을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제한적이지만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사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안태용, 2016; 유지연, 박창순, 2015; 신종호, 황혜영, 서은진, 2010; 김민선, 백일우, 2016; 김현진, 김미혜, 2014; 노현경, 2006). 그러나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특히 경제적 지원은 학업열의나 학업무기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그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과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 초·중학생과 그 가족, 학교를 대상으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패널 1차~3차, 즉,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본은 1609명이다. 표 1은 잠재성장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분산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측정변수 공분산행렬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1학업열의(1)	.28											
중2학업열의(2)	.12	.25										
중3학업열의(3)	.10	.12	.26									
중1학업무기력(4)	-.17	-.09	-.07	.26								
중2학업무기력(5)	-.09	-.12	-.08	.10	.25							
중3학업무기력(6)	-.07	-.08	-.12	.09	.11	.25						
중1사교육비(7)	.04	.01	.03	-.03	-.02	-.03	.32					
중2사교육비(8)	.04	.03	.04	-.03	-.01	-.03	.15	.26				
중3사교육비(9)	.05	.04	.05	-.04	-.04	-.06	.13	.12	.29			
중1학업성취(10)	.21	.13	.12	-.15	-.08	-.08	.08	.05	.07	.62		
중2학업성취(11)	.09	.15	.11	-.08	-.10	-.07	.00	.00	.02	.29	.63	
중3학업성취(12)	.07	.10	.17	-.06	-.07	-.11	.04	.03	.06	.24	.30	.57

2. 측정변수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사교육비를 어느 정도 유인하는지, 학업성취와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2. 측정변수 내용 및 척도

변인		내용 문항	데이터
학업열의	중1학업열의 중2학업열의 중3학업열의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 12문항 평균, 4점척도(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4))	학생데이터
학업 무기력	중1학업무기력 중2학업무기력 중3학업무기력	통제신념결여, 학습동기결여, 긍정정서결여, 능동수행결여 12문항 평균, 4점 척도(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5))	
사교육비	중1사교육비 중2사교육비 중3사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단위: 만원)	보호자데이터
학업성취	중1학업성취 중2학업성취 중3학업성취	학생평가 성적수준, 보호자평가 성적수준 5점척도(매우못함(1) ~ 매우잘함(5))	학생데이터 보호자데이터

학업열의는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 4개의 하위변수로 측정된 16문항이며, 중1부터 중3까지 동일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4점 척도이다. 학업무기력은 통제신념결여, 학습동기결여, 긍정정서결여, 능동수행결여 하위변수 영역으로 측정된 16문항 4점 척도이며, 학업열의 동일하게 학업무기력은 중1부터 중3까지 학생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사교육비는 중1부터 중3 보호자 데이터이며 월평균 사교육비(단위: 만원)를 투입하였다. 학업성취는 학생과 보호자의 평가의 평균값을 투입하였다. 학업성취는 매우못함(1)에서 매우잘함(5)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 값이다. 표 2는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수 내용과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3.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의 변화와 사교육비 투입과의 관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한 특성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 때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사교육비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인과관계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검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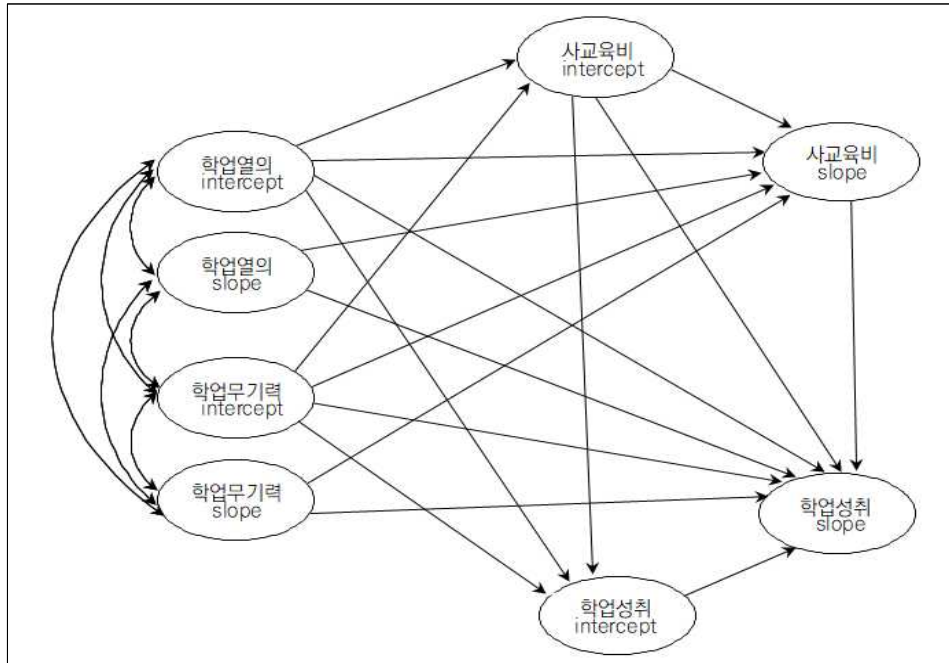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사교육비 그리고 학업성취 인과관계 연구 모형

먼저,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공분산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량은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의 특성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더불어 측정변수의 공분산행렬은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표본 자료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결과이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은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추정은 가중최소제곱법(WLS)이며, 전체모형 적합도 판정에는 χ^2 , GFI, RMSEA가 사용되었다. 그림 1은 구조방정식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측정변수 다중변수 정상성 검증 결과

모형	편포도			첨도			편포도와 첨도	
	추정값	Z값	p값	추정값	Z값	p값	χ^2	p값
중학생모형 (N=1,609)	722.64	337.729	.00	1516.28	78.41	.00	120208.51	.00

표 4. 기술통계량(n=1,609)

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중1학업열의	1.00	4.00	2.53	.53	.10	.45
중2학업열의	1.00	4.00	2.52	.50	-.10	.53
중3학업열의	1.00	4.00	2.46	.51	.03	.21
중1학업무기력	1.00	3.63	1.84	.51	.18	-.34
중2학업무기력	1.00	3.75	1.91	.50	.06	-.50
중3학업무기력	1.00	4.00	1.90	.50	.29	.11
중1사교육비	1.39	6.49	3.79	.57	-.18	1.22
중2사교육비	1.39	6.31	3.83	.51	-.36	2.06
중3사교육비	1.61	6.68	3.89	.54	-.03	2.12
중1학업성취	1.00	5.00	3.56	.79	-.16	-.29
중2학업성취	1.00	5.00	3.39	.80	-.08	-.35
중3학업성취	1.00	5.00	3.40	.75	.01	-.37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모수추정 방법은 가중최소제곱법(WLS)이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추정방법인 ML은 다른 추정방법보다 엄격한 다중변수의 정상성이라는 기본가정이 요구된다. 다중변수가 정상분포를 이룬다는 가정하에 모수값을 추정하고 이 모수값에 최대한으로 접근하는 값을 설정된 모형의 추정치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표 3은 LISREL PRELIS를 사용하여 다중변수 정상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다중변수 정상성 분석 결과, 다중변수의 편포도 및 첨도 그리고 편포도와 첨도를 동시에 검증한 χ^2 검증 통계량이 크게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값이 관찰될 확률은 $p=.000$ 으로 다중변수 정상성은 충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중변수 정상성이 검증되지 않을 때, 정상성 가정이 요구되지 않는 WLS와 같은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WLS는 표본이 정상분포에서 심하게 이탈되었더라도 표본자료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이기종, 2012).

표 4는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되는 12개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으로 개별 변수의 정상성을 확인할 수 있는 편포도와 첨도가 제시되어 있다. 다중변수 분포가 정상분포이면 각각의 개별변수 분포는 언제나 정상분포이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변수 분포가 정상분포일지라도 다중변수 분포가 반드시 정상분포이지는 않는 것이다. 즉, 단일변수 정상분포는 다중변수 분포 정상성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앞서 다중변수 정상성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중변수 정상성이 검증되지

않을 때, 특히 다중변수 정상성이 매우 이탈되어 있을 때, 정상성 가정이 요구되지 않는 WLS와 같은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이기종,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수추정은 WLS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표 5는 잠재성장모형 적합도를 제시하고 있다. 정량적 적합도 지수인 $\chi^2=131.19$ ($df=30$, $p=.00$)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근사합치도인 RMSEA가 .05 이하이고, 기타 정성적 지표들이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중학생의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사교육비 그리고 학업성취 간 인과관계, 특히 중1부터 중3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계열적 검증인 잠재성장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개별 추정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5.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구조방정식모형	$\chi^2(p)$	df	NC	GFI	RMSEA
중학생 모형($n=1,609$)	131.19(.00)	30	4.37	.98	.046

표 6은 구조방정식모형 측정모형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잠재변수인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사교육비,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중1부터 중3까지 측정변수 설명력(λ)은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잠재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선정된 측정변수가 그 잠재변수를 잘 대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는 잠재변수 중심의 구조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는 중학생의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사교육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인과관계를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기술하는데 있어 intercept와 slope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각각 초기값과 변화값으로 기술하였다. 표 7, 표 8은 잠재성장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표 6. 측정모형 추정치

추정 경로		intercept		slope	
		<i>B</i>	β	<i>B</i>	β
학업열의	중1학업열의	1.00	.37	-	-
	중2학업열의	1.00	.37	1.00	.15
	중3학업열의	1.00	.37	2.00	.30
학업무기력	중1학업무기력	1.00	.32	-	-
	중2학업무기력	1.00	.32	1.00	.14
	중3학업무기력	1.00	.32	2.00	.28
사교육비	중1사교육비	1.00	.42	-	-
	중2사교육비	1.00	.42	1.00	.11
	중3사교육비	1.00	.42	2.00	.22
학업성취	중1학업성취	1.00	.64	-	-
	중2학업성취	1.00	.64	1.00	.32
	중3학업성취	1.00	.64	2.00	.65

추정치(t-value), 측정모형 전체 λ 값은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함

학업열의가 사교육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학업열의 초기값이 학업성취 초기값($\beta = .40$, $t = 8.15$)과 변화값($\beta = .45$, $t = 3.38$)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중학생의 학업열의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학업열의 변화값이 학업성취 변화값에 미치는 영향($\beta = .55$, $t = 5.90$)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학업열의가 변화되면 학업성취 또한 정적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학생의 학업열의가 일정 시점까지 형성되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특성이 아니라 역동성을 갖는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학업열의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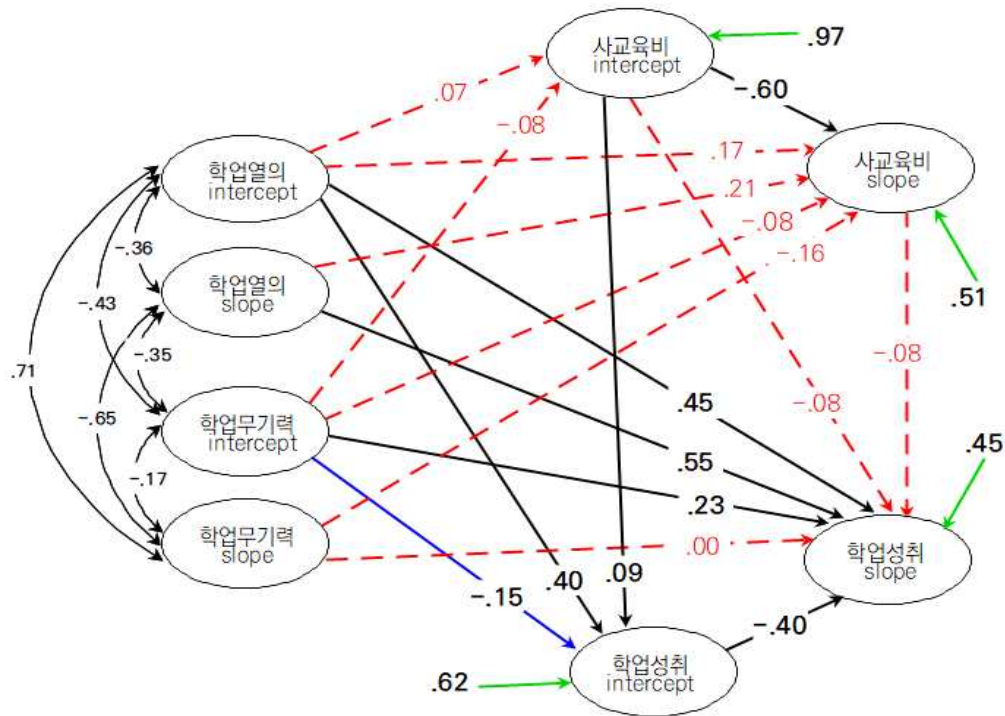


그림 2.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사교육비 그리고 학업성취 인과관계 연구 모형

학업열의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정적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학업열의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학업열의 초기값과 변화값이 사교육비 초기값과 변화값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중학생의 학업열의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학업열의가 높으며 그에 상응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녀의 학업을 지원할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은 가정의 경제적 조건에 근거하고 있고, 자녀의 학업열의 수준에 따라 선행적으로 지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언하면, 학업열의가 높아 사교육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경제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학업열의는 학업성취로 연계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업열의 초기값이 사교육비를 매개하여 학업성취 변화값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beta = -.18, t = -4.25$)을 나타내는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표 8 참조). 학업열의는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학업열의→사교육비→학업성취와 같이 사교육비를 매개하면 학업열의는 오히려 학업성취 변화에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교육비 초기값→학업성취 초기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beta=.09$, $t=2.84$)를 나타내는 결과와 연계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학생의 학업열의는 가정배경과 같은 학업지원 조건이 동질적일 때,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에서 중학생의 학업성취는 단지 학교 교육과정 즉, 수업과 학생의 학업 의지만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중학생의 학업열의 즉 학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능동적 노력은 학업성취 제고에 오히려 방해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학업열의가 높을수록 그 학업열의에 대응하는 지원 특히 추가적 사교육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학업성취 하락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가능성은 학업열의-사교육비-학업성취 요인만으로 인과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본 연구모형 한에서 추정되는 결과이다. 학업열의와 학업성취와의 인과관계에서 학생의 학업활동과 연계된 중요 변수를 투입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표 7. 구조방정식모형 직접효과 추정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학업열의 intercept	사교육비intercept	.08	.07	.05	1.45
	사교육비slope	.05	.17	.05	1.06
	학업성취intercept	.69	.40	.09	8.15***
	학업성취slope	.40	.45	.12	3.38***
학업열의 slope	사교육비slope	.15	.21	.08	1.92
	학업성취slope	1.19	.55	.20	5.90***
학업무기력 intercept	사교육비intercept	-.10	-.08	.06	-1.89
	사교육비slope	-.06	-.19	.05	-1.29
	학업성취intercept	-.29	-.15	.10	-2.95**
	학업성취slope	.23	.23	.11	2.06*
학업무기력 slope	사교육비slope	-.12	-.16	.07	-1.64
	학업성취slope	-.01	.00	.14	-.04
사교육비 intercept	사교육비slope	-.16	-.60	.04	-4.43***
	학업성취intercept	.14	.09	.05	2.84**
	학업성취slope	-.07	-.08	.06	-1.17
사교육비 slope	학업성취slope	-.23	-.08	.38	-.60
	학업성취intercept	-.21	-.40	.04	-5.85***

* $p<.05$, ** $p<.01$, *** $p<.001$

표 8. 구조방정식모형 간접효과 추정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학업열의 intercept	사교육비slope	-.01	-.04	.01	-1.36
	학업성취intercept	.01	.01	.01	1.32
	학업성취slope	-.16	-.18	.04	-4.25***
학업열의 slope	학업성취slope	-.03	-.02	.07	-.52
	사교육비slope	.02	.05	.01	1.80
학업무기력 intercept	학업성취intercept	-.01	-.01	.01	-1.57
	학업성취slope	.08	.08	.03	2.45*
학업무기력 slope	학업성취slope	.03	.01	.05	.59
	사교육비intercept	.01	.01	.06	.14

*p<.05, **p<.01, ***p<.001

학업무기력과 사교육비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인과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무기력 초기값이 학업성취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beta=-.15$, $t=-2.9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업무기력이 학업성취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학업무기력 초기값이 학업성취 변화값에 미치는 영향($\beta=.23$, $t=2.0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는 논리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학업무기력이 높으면 학업성취 변화가 긍정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결과 또한 사교육비 초기값→학업성취 초기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beta=.09$, $t=2.84$)를 나타내는 결과와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무기력은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결여, 긍정정서결여, 능동수행결여로 측정된 요인이다. 한국사회에서 중학생은 ‘학업에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기 보다는 어느 시점에서는 누구나 학교에 다니고, 진급하는 그래서 호불호가 아닌 의무처럼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에 학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개인의 역량 제고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나 학교 환경은 학생 의지와는 별도로 학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통제신념, 동기, 정서조절 그리고 능동적인 학업수행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학업성취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인 학교교육에서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개인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학부모는 학업성취 향상을 기대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통해 학업활동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정의 사교육비 투입은 학업무기력이 클수록 학업성취 향상 효과로 두드러지게 되는 맥락을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업무기력이 학업성취 초기값에 부적효과를 나타내지만 학업무기력이 학업성취 변화값에 긍정적 제고 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학업무기력→학업성취 초기값→학업성취 변화값으로 연계되는 간접효과에도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무기력은 학업열의와 달리 학업성취 초기값에는 부적영향을 미치지만 학업성취 변화값에는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학업열의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인 학업성취에의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학업무기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인과관계 맥락은 상당히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언하면, 학업무기력은 변화 불가능한 특성이 아니라 학업환경과 지원에 따라 변화 가능한 요인이라는 것을 본 연구 결과가 확인해 주고 있다.

학업무기력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열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학업무기력 초기값, 학업무기력 변화값이 사교육비 초기값과 사교육비 변화값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먼저 이 결과를 학업열의 결과와 동일하게 해석하면, 학부모는 자녀가 학업무기력으로 학업성취가 낮다고 판단될 때,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한 가정의 사교육비라는 경제적 조건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열의가 높아서 더 지원해 주고 싶더라도 어느 일정수준 외에는 지출할 수 없듯이, 학업무기력 때문에 학업성취가 낮은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여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가정 자원의 제한 때문에 지원에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학업무기력→사교육→학업성취로 연계되는 매개효과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사교육비 투입에 따라 학업무기력은 학업성취 제고에 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는 가정배경이 학업성취 결정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을 학업성취와의 인과관계로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유인하지는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는데 있어 확인해야 할 것은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정도 또는 오차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설명력은 방해오차(ζ)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방해오차는 수리적으로 $1-R^2$ 이며, 독립요인이 종속요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수준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교육비 초기값과 사교육비 변화값의 방해오차는 각각 .97, .51이며 이는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사교육비 초기값을 설명하는 정도가 3%, 사교육비 변화값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49%라는 것을

나타낸다.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사교육비 초기값을 유인하는 정도는 낮지만, 사교육비 변화값은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사교육비가 학업성취 초기값과 학업성취 변화값을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38%(방해오차=.62), 55%(방해오차=.4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사교육비는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실제 현장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그리고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중단 분석하였다. 먼저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학업열의나 학업무기력 수준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달라지는지 또는 사교육비 지출이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과 학업성취 간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열의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학업열의가 높아지면 학업성취 또한 긍정적으로 향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학업열의 초기값이 사교육비 초기값과 학업성취 초기값을 매개하여 학업성취 변화값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업열의는 학업성취에 직접효과 요인이며, 사교육비 지출과 같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외의 요인이 개입될 경우에는 학업열의 효과는 오히려 상쇄되거나 부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학업무기력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부적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이다. 그러나 학업무기력은 학업성취에 미치는 인과관계 맥락이 학업열의와 비교할 때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업무기력이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학업무기력이 변화된다고 하여 학업성취도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업무기력이 사교육과 같은 외부지원에 의해 변화된다면 긍정적인 학업성취 변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지원 즉,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 자녀의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과 독립적이라는 결론내릴 수 있다. 즉, 자녀의 학업열의가 높아서 또는 학업무기력으로 학업성취가 하락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을 늘이거나, 학업열의가 높아 스스로 학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거나, 학업무기력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이 쓸모없는 지출이 될 것으로 가정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자녀의 학업열의나 학업무기력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정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변화과정이 극적인 청소년기 중학생의 발달 특성과 더불어 학업에 대한 열의와 무기력 특성은 상당히 역동성 갖기 때문에 단편적인 횡단분석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학업열의는 학업성취에 정적효과, 학업무기력은 학업성취에 부적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학업성취와 인과관계에서 어떤 요인이 매개 또는 간접 영향으로 관여되느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고 가정의 경제적 지원인 사교육비를 매개요인으로 투입하여 확인하였다.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사교육비→학업성취 중단적 인과관계 맥락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에서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은 단지 학업성취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학령기 동안의 개인 역량 확보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후 연구는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학업성취 인과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민선, 백일우(2016). 사교육에 대한 시간 및 비용 투자에 따른 효과 분석: 서울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위별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5(3), 1-26.
- 김아영, 주지은(1999).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9, 157-176.
- 김영희, 강혜원(2005).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0, 1-16.
- 김현진, 김미혜(2014). 학년에 따라 증가하는 중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잠재성장모형(LGM)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2), 85-106.
- 노현경(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97-118.
-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2015). 학습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 신종호, 황혜영, 서은진(2010). 부모의 학업관리 및 학생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조절 효과에 따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1(4),

249-264

- 안태용(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및 부정적 부모 양육행동, 과외 학업스트레스 및 학습된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한국초등교육학회**, 29(4), 133-160.
- 엄태순, 윤미선(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그릿,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1151-1176.
- 옥일남(2004).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 연구: 사회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6(2), 105-139
- 유지연, 박창순(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6(1), 123-139.
- 이성림, 한운선(2018).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9(4), 119-138.
- 이시혜, 하문선(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간 관계에서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169-181.
- 이은경, 이선희(2021).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관계: 그릿에 의해 조절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1), 17-30.
- 임천순, 박소영, 이광호(2004).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13(1), 331-356.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 Ficham, F. D., Hokoda, A., & Sanders, R.(1989). Learned helplessness, test anxiety, and academic achievement: A longitudi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60(1), 138-145
-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1), 59-109.
- McKean, K. J.(1994). Academic helplessness: Applying learned helplessness theory to undergraduates who give up when faced with academic setbacks. *College Student Journal*, 28(4), 456-462.
- Pekrun, R., Goetz, T., Titz W., & Perry, R. P.(2002). Academic emotions in student's program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37, 91-106.
- Seligman, M. E. P.(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Freeman. 무기력의 심리: 우울증, 발달과정 및 죽음에 대하여(윤진, 조금호 공역, 1993), 서울: 탐구당.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사교육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인과관계 종단분석’에 대한 토론문

이기중
국민대학교

중학교에서 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으로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를 종단자료를 사용해 설명한 것은 참신한 시도이다. 다만 7쪽의 그림 1을 보면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의 절편과 기울기가 2개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 2개씩 나타나 있어 모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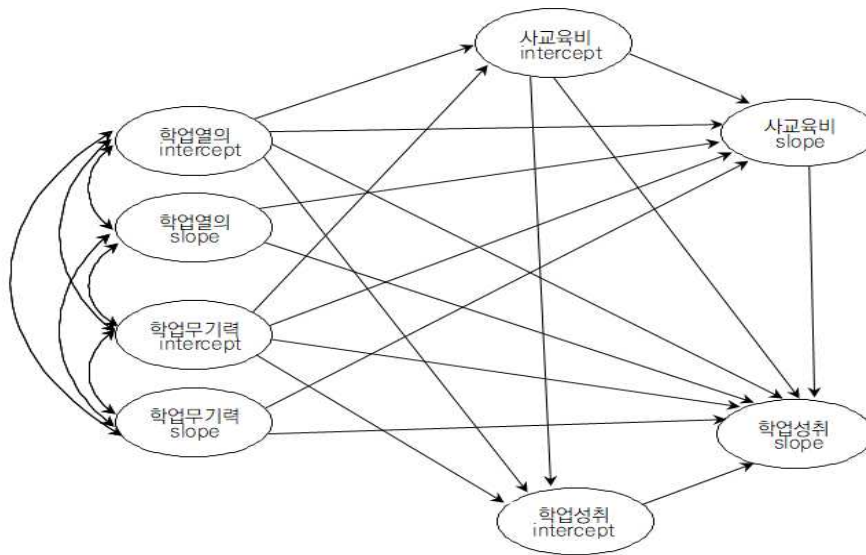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사교육비 그리고 학업성취 인과관계 연구 모형

그리고 9쪽의 표 5를 보면 RMSEA가 .046으로 나타난 것은 전체모형의 자료에 의 적합도를 판정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맞으나 사교육비와 학업성취에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지지 못하고 남아 있는 부분인 방해오차가 각각 .97, .62, .62, .45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정된 모형이 적합한 것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나 사교육비의 방해오차는 .97로 독립변수가 사교육비를 설명해주는 비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실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또한 사교육비에서 학업성취로 가는 계수값도 .0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0이다. 따라서 RMSEA만으로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규제화 MIMIC 모형을 통한 학업 무기력 예측 변수 탐색

박빛나*·유진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학업 무기력을 예측하는 변수를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중1 코호트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계학습의 기법 중 하나인 규제화 MIMIC으로 모형화하였다. 학업 무기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가정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적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된 교사 관계와 친구 관계 변수를 예측 변수로 투입하여 학업 무기력과 관련된 새로운 변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친구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 무기력이 낮았다. 둘째, 학업적 측면에서 교사의 능력에 대한 지지와 학생에 대한 격려가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이 낮았다. 반면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선생님께서 금방 아신다’고 학생이 인식할 때는 학업 무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격려,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이 낮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후속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학업 무기력, 친구 관계, 교사 관계, 규제화 MIMIC, regSEM, 기계학습,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부여초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jeyoo@knue.ac.kr

I. 서론

수업시간에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 때리는 학생, 앞드려 있는 학생 등 무기력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무기력 수준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옥일남, 2004; 이명진, 봉미미, 2013).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대처하기 힘든 부정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으로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어 수동적이 되고,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와 노력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상태를 말한다(Hiroto & Seligman, 1975). 학습된 무기력은 학업 성취 저하로 이어지고(김아영, 주지은, 1999; 강혜원, 김영희, 2004),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컴퓨터 중독이나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학습된 무기력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일관성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학업 측면에서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전미애, 임세영, 2010). 즉, 학습된 무기력과는 다르게 학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업 무기력(academic helplessness)은 학업 상황에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는 사실 인식과 자신이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신념의 누적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곤란하게 된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박병기 외, 2015) 또는 학교현장에서 무력감을 나타내는 심리적 상태(유현숙, 선혜연, 2017)로 정의할 수 있다. 학업 무기력에 대한 연구는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연구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고,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연구 또한 주로 가정환경 요인과 개인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실패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학업스트레스, 그것이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친구 관계나 교사 관계 변수와의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친구 관계나 교사 관계 변수는 학교 관련 변인으로 가정 환경 및 개인 심리적 변인에 비해 학생들의 학업 무기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나 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구 관계나 교사 관계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연구방법이 다중회귀나 구조방정식이었다. 구조방정식은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잠재변수와 관찰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어 측정오차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의 수가 변수의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구조방정식의 특성상 연구자가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해야하는 만큼 연구자의

관심과 사전지식에 따라 몇 개의 변수만이 모형에 포함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규제화 구조방정식(Regular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gSEM)은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측면과 중요한 예측변수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통합된 것으로 별점항을 통해 회귀계수를 축소함으로써 연구자가 모형 명세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표본의 수가 변수의 수에 비해 적은 경우에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는 학생의 개인 심리적 요인에 대한 변수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변수,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다각적인 관점에서 수집된 많은 변수를 한 모형에서 다룰 수 있으며, 학업 무기력 학생을 예측하는 변수를 탐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제화 방법 중 MCP(minimax convex penalty)를 사용하여 규제화 다지표 다원인 모형(Regularized Multiple-Indicators Multiple-Causes; Regularized MIMIC)을 통해 학업 무기력을 예측하는 교사 또는 친구 관계 변수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을 예측하는 교사 관계, 친구 관계 변수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업 무기력의 개념

학업 무기력(academic helplessness)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무기력이 학습될 수 있다는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이 학업 상황이라는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수업 시간에는 흥미를 갖지 못하지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무기력한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전미애, 임세영, 2010)나 학업 무력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정숙, 2013)에서 보듯 학업적 측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박병기 외(2015)는 학업 무기력을 ‘학업 상황에서 통제 불능성의 지각 및 반응-결과 간의 비유관성 기대의 누적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곤란하게 된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학업 무기력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학업 무기력의 구성요인은 크게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신념 결여는 학업 상황과 관련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기대 형성으로 인해 부정적 신념을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 학습동기 결여는 학업 상황과 관련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학업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 긍정정서 결여는 학업 상황과 관련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 유쾌함, 행복감, 기쁨 등의 긍정정서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 능동수행 결여는 학업 상황과 관련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행 활동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학습된 무기력 및 학업 무기력에 대한 선행 연구

학업 무기력에 대한 연구는 척도개발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를 RISS에서 검색한 결과 25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보다 일반화된 개념인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정환경 요인 연구와 개인 심리적 요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가정환경 요인과의 관계 연구들은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 양육태도와 같은 변수와 연구되었고, 개인 심리적 요인과의 연구는 실패공포, 학업적 실패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학업스트레스, 그릿과 함께 연구되었다.

가정환경 요인의 연구는 대부분 부모변수가 주를 이루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학업 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유현숙, 선혜연, 2017),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습된 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최현정, 이동기, 2019; 엄태순, 윤미선, 2020). 즉,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할수록,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학업 무기력 또는 학습된 무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심리적 요인과의 연구는 실패(학업 실패내성, 실패공포)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그릿이 있었다. 실패에 대한 공포는 학습된 무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양태연, 한기순, 박인호, 2018), 이와 반대로 학업적 실패경험에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학업 실패내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학업 무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유현숙, 선혜연, 2017). 학업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량해, 변상해, 2014). 즉, 실패에 대한 공포나 학업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높았고,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낮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무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양태연, 한기순, 박인호, 2018), 학업 실패내성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학업 실패 내성이 증가할 때 학습된 무기력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최현정, 이동기, 2019).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과 열정을 쏟는 것으로, 학습된 무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엄태순, 윤미선, 2020).

선행연구의 모든 연구방법이 구조방정식 또는 다중회귀를 통해 연구되었다. 이러한

많은 변수를 갖고 있는 대용량 데이터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다루게 되면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팽창하며 모형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모형의 예측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유진은, 노민정,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기계학습의 한 방법인 규제화 MIMIC 모형을 통해 중요한 예측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모형 설정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중1 코호트 3차 년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590명이 427개의 문항에 응답한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쳤다. 첫째, 반응 변수인 학업 무기력 변수(YINT2B01w3~YINT2B16w3)와 예측 변수로 활용될 친구 관계 변수(YEDU2A01w3~YEDU2A13w3), 교사 관계 변수(YEDU3A01w3~YEDU3A14w3)를 추출하여 총 2,590명의 43개의 문항에 응답한 자료로 필터링하였다. 둘째, 결측치는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ur; K-N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대체하였다. R 프로그램의 {regSEM} 패키지의 cv_regsem은 missing 옵션에서 완전제거(listwise)를 선택할 수 있지만, 완전임의결측(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 가정하에만 모수 추정이 편향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측값이 원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결측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결측값을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k-NN은 결측값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사용하여 결측값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서 각 관측값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은 후, 그 값들을 사용하여 대체값을 추정하는 방식이다(Lantz, 2015). 본 연구에서 완전관측치 2,384의 제공근인 49를 k값으로 사용하여 대체하였다.

2. 연구 변수

가. 종속변수: 학업 무기력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 무기력 측정문항은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등을 포함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으로 측정되었다. 신뢰도는 0.916로 높은 크기를 나타내었으며, 문항 간 상관은 0.234에서 0.737이었다. 학업 무기력의 기술통계치가 <표 1>, 상관은 <Appendix A>에 제시되었다.

나. 예측변수: 친구 관계 및 교사 관계

친구 관계 문항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등을 포함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신뢰도는 0.826였다. 교사 관계 문항은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등을 포함한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신뢰도는 0.898로 나타났다. 예측변수인 친구 관계 및 교사 관계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1>, 상관은 <Appendix A>에 제시되었다.

표 1. 연구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N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학 업 무 기 력	YINT2B01w3	2,384	2.086	0.705	1	4	0.180	-0.277
	YINT2B02w3	2,384	1.842	0.713	1	4	0.462	-0.201
	YINT2B03w3	2,384	1.903	0.706	1	4	0.390	-0.146
	YINT2B04w3	2,384	1.773	0.677	1	4	0.547	0.173
	YINT2B05w3	2,384	2.069	0.842	1	4	0.405	-0.484
	YINT2B06w3	2,384	1.895	0.769	1	4	0.590	-0.005
	YINT2B07w3	2,384	1.894	0.769	1	4	0.581	-0.037
	YINT2B08w3	2,384	2.123	0.827	1	4	0.244	-0.635
	YINT2B09w3	2,384	2.44	0.793	1	4	-0.098	-0.489
	YINT2B10w3	2,384	2.054	0.783	1	4	0.329	-0.399
	YINT2B11w3	2,384	1.827	0.739	1	4	0.586	-0.042
	YINT2B12w3	2,384	1.631	0.703	1	4	0.837	0.126
	YINT2B13w3	2,384	1.929	0.811	1	4	0.490	-0.455
	YINT2B14w3	2,384	2.016	0.821	1	4	0.379	-0.552
	YINT2B15w3	2,384	1.911	0.777	1	4	0.460	-0.408
	YINT2B16w3	2,384	1.98	0.852	1	4	0.514	-0.461
친 구 관 계	YEDU2A01w3	2,384	3.101	0.612	1	4	-0.377	0.867
	YEDU2A02w3	2,384	2.999	0.711	1	4	-0.355	-0.022
	YEDU2A03w3	2,384	2.951	0.749	1	4	-0.352	-0.172
	YEDU2A04w3	2,384	2.8	0.808	1	4	-0.242	-0.448
	YEDU2A05w3	2,384	3.139	0.567	1	4	-0.278	1.221
	YEDU2A06w3	2,384	3.102	0.578	1	4	-0.345	1.318
	YEDU2A07w3	2,384	3.102	0.565	1	4	-0.345	1.568
	YEDU2A08w3	2,384	3.213	0.547	1	4	-0.218	1.317
	YEDU2A09w3	2,384	1.968	0.794	1	4	0.510	-0.198
	YEDU2A10w3	2,384	1.733	0.741	1	4	0.805	0.323
	YEDU2A11w3	2,384	1.788	0.722	1	4	0.651	0.173
	YEDU2A12w3	2,384	1.725	0.729	1	4	0.742	0.127
	YEDU2A13w3	2,384	1.782	0.704	1	4	0.543	-0.111
교 사 관 계	YEDU3A01w3	2,384	2.302	0.737	1	4	-0.065	-0.480
	YEDU3A02w3	2,384	2.608	0.739	1	4	-0.377	-0.122
	YEDU3A03w3	2,384	2.914	0.665	1	4	-0.474	0.669
	YEDU3A04w3	2,384	2.917	0.645	1	4	-0.448	0.746
	YEDU3A05w3	2,384	2.839	0.648	1	4	-0.404	0.518

	N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YEDU3A06w3	2,384	2.799	0.654	1	4	-0.503	0.611
YEDU3A07w3	2,384	2.953	0.601	1	4	-0.528	1.404
YEDU3A08w3	2,384	3.013	0.568	1	4	-0.602	2.282
YEDU3A09w3	2,384	2.907	0.661	1	4	-0.386	0.478
YEDU3A10w3	2,384	2.8	0.683	1	4	-0.308	0.151
YEDU3A11w3	2,384	2.612	0.739	1	4	-0.092	-0.287
YEDU3A12w3	2,384	2.727	0.703	1	4	-0.260	-0.019
YEDU3A13w3	2,384	2.787	0.667	1	4	-0.485	0.507
YEDU3A14w3	2,384	2.754	0.688	1	4	-0.372	0.202

3. 분석 방법

규제화 구조방정식모형(Regular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gSEM)은 구조방정식모형과 규제화를 합한 기법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여러 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해 추출한 공통변량을 잠재변수로 활용하므로 변수의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규제화를 접목하여 벌점화된 최대우도 함수를 구조방정식모형에 도입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간명한 모형을 찾게 하고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변수 선택을 가능케 한다(Jacobucci, Brandmaier, & Kievit, 2019).

본 연구는 규제화 구조방정식모형 중 규제화 다지표-다원인 모형(Regularized Multiple-Indicators Multiple-Causes; 규제화 MIMIC)을 활용할 것이다. MIMIC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 공변수(covariate)가 더해져 잠재변수에 대한 연속형 또는 범주형 공변수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모형으로, 요인의 구조를 확인하고 공변수의 영향력을 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수영, 2016). 규제화 MIMIC 모형에서는 여러 공변수의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 부분에 벌점을 적용한다(Rho & Yoo, 2021).

본 연구에서 사용할 벌점모형은 MCP(minimax concave penalty)이다. 초기 벌점 회귀모형으로 유명한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는 회귀계수 추정치가 일치성을 충족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반면 MCP는 작은 회귀계수에 더 큰 벌점을 주는 오목 벌점함수를 사용하여 회귀계수 추정치의 일치성을 이끌어 내는 장점이 있다(Zhang, 2010). 식 (1)은 MCP의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이다. 첫 번째 항은 최소제곱법의 손실함수이고, 두 번째 항은 MCP의 벌점항으로, 벌점모수 λ 로 회귀계수를 얼마나 축소할지를 결정한다(유진은, 김형관, 노민정, 2020). 두 번째 조율모수 γ 는 회귀계수의 절댓값 크기에 따라 오목함(concavity)을 제어함으로써 벌점 속도(penalization rate)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디폴트 값으로 2를 쓴다(Zhang, 2010).

$$\hat{\beta}^{MCP} = \arg \min \left[\frac{1}{2n} \| Y - \sum_{k=1}^K X_k \beta_k \|^2 + \sum_{k=1}^K \mathcal{J}(\| \beta_k \| | \lambda, \gamma) \right] \quad (1)$$

$$\text{where } \mathcal{J}(x | \lambda, \gamma) = \begin{cases} -\frac{1}{2\gamma} x^2 + \lambda |x|, & |x| \leq \gamma \lambda. \\ \frac{1}{2} \gamma \lambda^2, & |x| > \gamma \lambda. \end{cases}$$

4. 평가 기준

구조방정식과 규제화 구조방정식으로 학업 무기력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를 8:2 비율로 훈련자료(training data)와 시험자료(test data)를 무작위로 분할하였다. 훈련자료로 모형 구축 시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기준으로 조율모수를 결정하였다(Jacobucci, Brandmaier, & Kievit, 2019). 다음으로 시험자료로 각 기법의 χ^2 , CFI, TLI, RMSEA, BIC를 구하여 구조방정식과 규제화 구조방정식 기법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자료와 시험자료 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통제하기 위해 100번의 모형 적합을 통한 선택계수(selection counts)를 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측정 모형 검증

전체 데이터를 적용하여 학업 무기력에 대한 단일 요인 모형과 이차 요인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단일 요인 모형은 관찰변수들을 지표변수로 이용하여 요인을 측정하는 모형이고, 이차 요인 모형은 측정된 일차 요인들을 지표변수로 이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요인을 측정한 모형이다. 각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차 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으나(CFI, TLI)=0.9, RMSEA=<0.08, Hu & Bentler, 1999; Browne & Cudeck, 1993) 16개의 측정변수 중 7번 변수(YINT2B07w3)와 12번 변수(YINT2B12w3)의 요인부하량이 각각 0.594와 0.370을 나타내어 해당변수를 제거하고(Kline, 2011, 요인부하량>=0.6) 9번(YINT2B09w3)과 15번 변수(YINT2B15w3)는 수정지수를 탐색하여 각각을 학습 동기결여 요인과 긍정정서 결여 요인으로 재지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14개의 측정변수의 잠재 변수에 대한 요인부하량도 모두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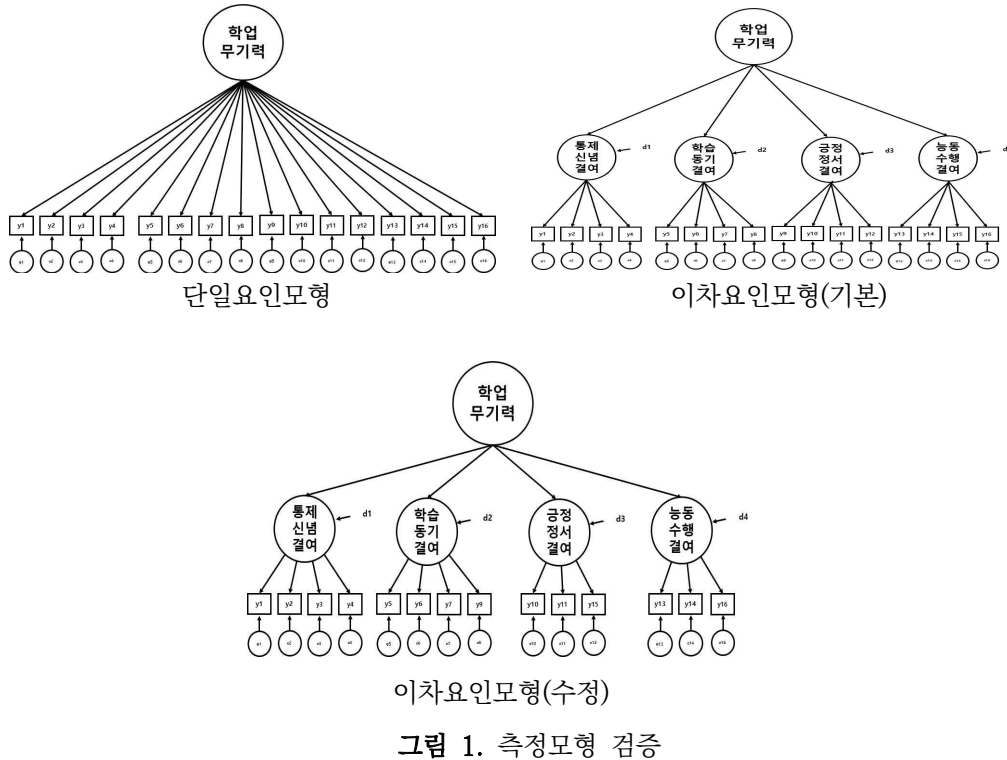


표 2. 단일 요인 모형과 이차 요인 모형의 비교(** $p < .001$, ** $p < .01$, * $p < .05$)

	χ^2	df	CFI	TLI	RMSEA
단일요인모형(기본)	5526.222***	104	0.745	0.705	0.142[0.139-0.145]
이차요인모형(기본)	1626.158***	100	0.928	0.914	0.077[0.074-0.08]
이차요인모형(수정)	940.339***	73	0.951	0.939	0.068[0.064-0.072]

2. 이차요인 MIMIC 모형과 규제화 이차요인 MIMIC 모형의 예측력 비교

측정모형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 관계와 교사 관계 27문항을 이차요인모형에 예측변수로 투입하여 이들 변수가 학업 무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그림 2). 이때, 이차요인 MIMIC과 규제화 이차요인 MIMIC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해 100번의 모형 구축을 통해 도출된 수렴률(convergence rate), 평균 χ^2 , 평균 CFI, 평균 TLI, 평균 RMSEA, 평균 BIC를 비교하였다. 구조방정식의 수렴률은 97%, 규제화 구조방정식의 수렴률은 86%로 나타났으나 둘 다 CFI, TLI, RMSEA 등 양호

한 적합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FI, TLI)=0.9, RMSEA=<0.08, Hu & Bentler, 1999; Browne & Cudeck, 1993). 모형 간명성(parsimony)을 고려하여 더 적은 변수로도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규제화 이차요인 MIMIC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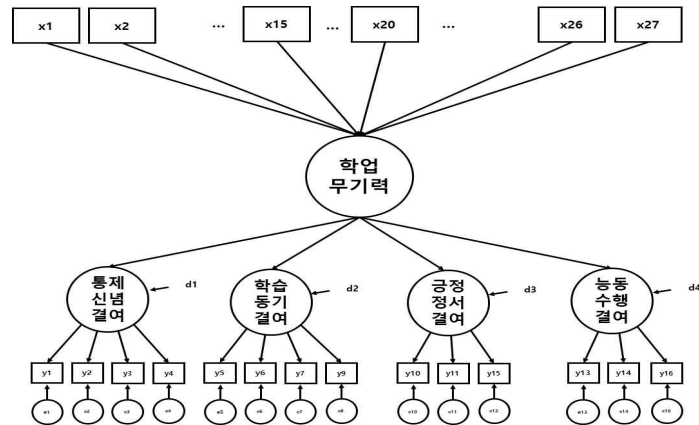


그림 2. 이차요인 MIMIC과 규제화 이차요인 MIMIC 모형

표 3. 이차요인 MIMIC과 규제화 이차요인 MIMIC 모형의 비교(***p<.001, **p<.01, *p<.05)

	수렴률	평균 χ^2 (SD)	df (SD)	평균 CFI(SD)	평균 TLI(SD)	평균 RMSEA(SD)	평균 BIC(SD)
이차요인 MIMIC	97	1755.692*** (40.736)	424 (-)	0.916 (0.003)	0.907 (0.003)	0.039 (0.001)	50797.635 (215.897)
규제화 이차요인 MIMIC	86	1783.877*** (41.75)	434 (1.5)	0.914 (0.003)	0.908 (0.003)	0.039 (0.001)	50748.868 (212.614)

3. 규제화 이차요인 MIMIC 모형의 예측변수

〈표 4〉는 모형 적합 100회에서 산출된 별점값(lambda)의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최소값은 0.02였고 중앙값은 0.125, 평균값은 0.15, 최대값은 0.22로 나타났다.

표 4. lambda 값의 분포

최솟값	Q1	중앙값	Q3	최댓값	평균(SD)
0.02	0.11	0.125	0.14	0.22	0.15(0.031)

〈표 5〉는 모형 적합을 100회 반복하여 실시한 후 선택된 변수 개수들의 분포이다. 100회 반복 실시 중 변수들이 가장 적게 선택된 경우는 14개였으며, 가장 많이 선택된 경우는 23개, 중앙값 17개, 평균 17.17개의 변수를 선택하였다.

표 5. 모형 적합 100회 반복 후 선택된 변수 개수의 분포

최소값	Q1	중앙값	Q3	최대값	평균(SD)
14	16	17	18	23	17.17(1.744)

모형 적합 100회 중 선택된 변수의 반복 포함 횟수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투입된 모든 변수가 한 번 이상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25번 이상 포함된 변수는 18개, 50번 이상 포함된 변수는 15개, 75번 이상 포함된 변수는 14개, 100번 모두 포함된 변수는 12개였다. 변수 개수들의 분포와 반복 포함된 횟수를 고려하여 중앙값 15, 평균 17.2에 가까운 50회 이상 반복 포함된 변수 15개를 최종 변수로 선택하였다.

표 6. 모형 적합 100회 중 선택된 변수의 반복 포함 횟수(단위: 개)

반복 포함 된 횟수	≥1	≥25	≥50	≥75	=100
선택된 변수 개수	27	18	15	14	12

50번 이상 뽑힌 변수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친구 관계 변수 중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YEDU2A06w3)’,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YEDU2A07w3)’,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YEDU2A08w3)’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할수록 학업 무기력은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YEDU2A09w3)’,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YEDU2A10w3)’,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YEDU2A11w3)’,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YEDU2A12w3)’,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YEDU2A13w3)’ 문항에 긍정적으로 대답할수록 학업 무기력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친구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장수연, 정제영, 2020)와 학교에서의 사회성 지지가 학업무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임경희, 2004)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 관계 변수 중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신다(YEDU3A03w3)’,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YEDU3A04w3)’, ‘선생님은 내가 수업에 흥미가 있는지를 잘 아신다(YEDU3A05w3)’, ‘선

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YEDU3A07w3)',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신다(YEDU3A08w3)', '선생님은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신다(YEDU3A10w3)',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YEDU3A14w3)'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할수록 학업 무기력은 낮았다. 교사의 격려가 학생의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나미연, 오익수, 2011)와 교사와 학생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생들의 동기, 유능성, 학교 참여를 높인다(김남희, 김종백, 2011; 김주영, 김아영, 2014)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선생님은 내가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아신다(YEDU3A02w3)'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할수록 학업 무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변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중생 자녀의 학습된 무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황은주, 윤선아, 2017)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강승호, 문은식, 배정희, 2008)에 비추어 볼 때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교사가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교사의 심리적 통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심리적 통제가 학업 무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후속 연구에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표 7. 최종 변수(50번 이상 뽑힌 변수)

	변수명	변수 내용	평균(SD)	최솟값	최댓값	횟수
친구관계	YEDU2A06w3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0.017 (0.007)	-0.033	-0.003	98
	YEDU2A07w3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0.018 (0.008)	-0.036	-0.001	100
	YEDU2A08w3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0.011 (0.006)	-0.029	-0.001	91
	YEDU2A09w3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0.024 (0.004)	0.015	0.034	100
	YEDU2A10w3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	0.023 (0.005)	0.01	0.035	100
	YEDU2A11w3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0.028 (0.005)	0.015	0.041	100
	YEDU2A12w3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	0.055 (0.005)	0.042	0.07	100
	YEDU2A13w3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0.046 (0.006)	0.029	0.065	100

변수명	변수 내용	평균(SD)	최솟값	최댓값	횟수
교	YEDU3A02w3 선생님은 내가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아신다	0.021 (0.005)	0.006	0.036	100
사	YEDU3A03w3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신다	-0.043 (0.008)	-0.072	-0.021	100
관	YEDU3A04w3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	-0.033 (0.007)	-0.048	-0.014	100
계	YEDU3A05w3 선생님은 내가 수업에 흥미가 있는지를 잘 아신다	-0.011 (0.006)	-0.03	-0.001	94
	YEDU3A07w3 선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0.062 (0.007)	-0.094	-0.043	100
	YEDU3A08w3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신다	-0.01 (0.007)	-0.03	-0.001	54
	YEDU3A10w3 선생님은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신다	-0.023 (0.005)	-0.039	-0.01	100
	YEDU3A14w3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0.067 (0.007)	-0.091	-0.049	100

※ likert -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학업 무기력의 예측 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중1 코호트 3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규제화 이차요인 MIMIC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 관계의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를수록, 나에게 관심이 많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았다. 반면 친구 관계의 부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인 친구와의 의견충돌이 잦거나,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을수록,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수록,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을수록,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느낄수록 학업무기력이 높았다. 이는 친구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장수연, 정제영, 2020), 학교에서의 사회성 지지가 학업무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임경희, 2004)와 일치된 결과이다. 친구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 무기력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신다고 인식할수록, 선생님이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느낄수록, 내가 수업에 흥미가 있는지 선생님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학업 무기력이 낮았다. 이들 문항은 다른 교사 관계 문항에 비해 학업 장면에서의 교사 전문성이나 학생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학업 무기력을 예측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선생님께서 금방 아신다고 학생이 인식할 때는 학업 무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에는 주변 어른의 지원을 ‘개입’과 통제 또는 ‘수용’과 지지의 양면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는 연구(Steinberg & Morris, 2001)에 근거할 때 해당 변수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자율성 욕구를 저해하는 변수로 작용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중생 자녀의 학습된 무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황은주, 윤선아, 2017)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강승호, 문은식, 배정희, 2008)에서처럼 교사의 심리적 통제를 나타낸 변수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해당 변수와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생님이 나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식할수록, 선생님이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말하게 한다고 생각할수록, 선생님이 나의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식할수록, 선생님이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식할수록 학업 무기력이 낮았다. 이들 문항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지와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교사의 격려가 학생의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고(나미연, 오익수, 2011), 교사와 학생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생들의 동기, 유능성, 학교 참여를 높인다(김남희, 김종백, 2011; 김주영, 김아영, 2014)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첫째, 학업 무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학업 무기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간 교류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포레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격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 무기력이 낮아지므로 교

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교사의 지지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교류가 적어진 학생들을 위한 원격 상담이나 학습 동아리,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원격 수업에서도 교사의 일방적 강의식 수업보다는 친구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활동 중심 수업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지지와 격려, 긍정적 인식이 학생의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수나 가이드라인, 학습공동체가 방법이 될 수 있다.

3. 연구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 적어지고 온라인 수업에 적응해야 하면서 결과적으로 교사 또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적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력 격차, 학업 무기력에 대한 문제와 교사 또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변수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학습된 무기력의 중요성에 비해 학습상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인 학업무기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대용량 자료를 활용하여 가능한 모든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여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조방정식의 특성상 연구자가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해야하는 만큼 연구자의 관심과 사전지식에 따라 몇 개의 변수만이 모형에 포함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많은 변인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모형을 구성하게 되면 비수렴 문제가 흔히 발생한다. 이때 규제화 구조방정식은 별점항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설명변수의 회귀계수를 축소함으로써 많은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수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연구자가 변수 및 모형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인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기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생소한 개념인 학업 무기력에 대한 예측 변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긍정적인 친구 관계 또는 교사 관계가 학업 무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장수연, 정제영, 2020)가 존재하지만 이 연구는 교사 관계 변수를 하위 요인별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통해 지표변수로 활용하고,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친구 관계 변수 13개 중 8개 변수만을 선택하여 검증한 것이었다. 문항묶음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쟁이 존재하나 문항묶음이 개별문항을 지표변수로 사용할 때에 비해 모형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김수영, 2016). 개별 문항이 상응하는 구인의 측정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없다(Bandalos & Finne

y, 2001). 또한 문항묶음은 문항들의 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가정하므로 높은 신뢰도를 만족해야하고, 개별문항의 실질적 의미나 특성이 문항묶음으로 인해 희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규제화는 이러한 제약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며 수렴 문제없이 중요변수를 선택할 수 있고 개별 변수의 효과를 선택된 변수의 계수로 식별할 수 있다(Yoo,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 또는 친구관계의 모든 변수를 개별로 투입함으로써 예측 변인으로 추출된 변수들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심도있게 해석할 수 있었다.

넷째, 기존 연구에서 심리측정학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단축형 검사지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연구자들은 문항 간의 상호 관계 및 검사의 요인구조 파악, 문항 축소와 축소된 검사의 타당도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서동기 외, 2019). 그러나 요인분석은 표본 수가 적은 경우에 결정되는 요인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규제화 MIMIC 모형을 이용하면 표본 수가 변수의 수보다 작은 상황에서도 모형화가 가능하다.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와 같이 매우 많은 문항을 포함하여 피검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보다 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보다 간명한 검사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학업 무기력을 예측하는 교사 또는 친구 관계 변수를 탐색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예측변인을 투입하여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용량자료 분석 시 수백 개의 변수를 하나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규제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 기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변수를 파악하게 된다면 기계학습 기법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화 구조방정식과 같은 기계학습을 통해 발견된 변수는 기존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에도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학업 무기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도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는 중1 패널의 3차년도 단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한 연구이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된 무기력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연구(옥일남, 2004; 이명진, 봉미미, 2013)에 따라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학업 무기력의 변화에 따른 예측 변인과의 역동적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승호, 문은식, 배정희(2008). 인간관계, 학습사, 동기적 변인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교. **한국교육심리학회**, 22(4), 723-742.
- 강혜원, 김영희(2004) 학업스트레스 및 성적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883-897.
- 고재량, 변상해 (2014).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및 학습된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1(7), 27-54.
- 권순희, 권순녀(2008). 부모의 양육태도, 학습된 무기력이 컴퓨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3(4), 59-69.
- 김남희, 김종백(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에착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사지지와 학생-교사 애착관계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5(4), 763-789.
- 김수영(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학지사.
- 김아영, 주지은(1999).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9, 157-176
- 김주영, 김아영(2014). 교사의 조건부 관심 및 자율성지지와 초등학생의 자기결정동기, 학업참여 및 성취도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8(2), 251-268.
- 나미연, 오익수(2011). 교사의 격려언어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10(2), 137-150.
-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 서동기, 정선호(2017). 모형명세화 오류와 소표본에서 구조방정식모형 모수추정 방법들 비교: 모수추정 정확도와 이론모형 검정력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8(5), 1153-1165.
- 서동기, 이순묵, 김종남, 최승원, 채정민, 정선호, ... Ebesutani, C. (2019). 단축형 심리검사 개발의 측정학적 방법과 타당화: 한국형 역기능우울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8(1), 75-102.
- 안명희(2011). 모의 심리적 괴롭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무기력감과 자기 부적절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2), 145-164.
- 양태연, 한기순, 박인호(2018). 과학영재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무기력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영재와 영재교육**, 17(3), 5-28.
- 엄태순, 윤미선(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그릿, 학습된 무기력의 관

- 계: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1151-1176.
- 옥일남(2004).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 연구: 사회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6(2), 105-139.
- 유지영, 김춘경(2014).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학습된 무기력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347-372.
- 유진은, 김형관, 노민정 (2020). Group Mnet 기계학습 기법을 통한 중학생의 끈기 (grit) 관련 변수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31(1), 157-182
- 유진은, 노민정(2017). Group lasso를 통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8(1), 127-149.
- 유현숙, 선혜연(2017).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업무기력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5), 223-239.
- 이명진, 봉미미(2013).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 연구**, 51(1), 77-105.
- 임경희(2004). 가정, 학교 및 개인변인과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5(2), 473-507.
- 전미애, 임세영(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관계.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5(1), 1-19.
- 최현정, 이동귀(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6(2), 189-205.
- 황은주, 윤선아(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3), 525-542.
- Bandalos, D. L., & Finney, S. J. (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69-296). Mahwah, NJ: LEA
- Hiroto, D. S., & Seligman, M. E. (1975). Generality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2), 311-327.
- Jacobucci, R., Brandmaier, A. M., & Kievit, R. A. (2019). A practical guide to variable selection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using regularized multiple-indicators, multiple-causes models.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2(1), 55-76.
- Jacobucci, R. (2017). regsem: Regular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rXiv. Retrieved from <https://arxiv.org/abs/1703.08489>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Press.
-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83-110.
- Rho, M., & Yoo, J. E. (2021, Apr). *Variable Selection by Regularized Multiple-Indicators Multiple-Causes Modeling with Missing Data: A Monte Carlo Simulation*. Paper presented at AERA 2021 Annual Meeting, Orlando, FL.
- Yoo, J. E. (2018). TIMSS 2011 student and teacher predictors for mathematics achievement explored and identified via elastic net. *Frontiers in Psychology*, 9, 317. doi:10.3389/fpsyg.2018.00317
- Zhang, C. H. (2010). Nearly unbiased variable selection under minimax concave penalty. *The Annals of Statistics*, 38(2), 894-942.

〈Appendix A〉 변수 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1	1																																														
2	0.567	1																																													
3	0.574	0.623	1																																												
4	0.517	0.614	0.607	1																																											
5	0.323	0.351	0.363	0.369	1																																										
6	0.364	0.430	0.420	0.447	0.645	1																																									
7	0.367	0.428	0.416	0.446	0.548	0.737	1																																								
8	0.319	0.305	0.362	0.329	0.639	0.649	0.624	1																																							
9	0.275	0.232	0.269	0.232	0.536	0.482	0.435	0.628	1																																						
10	0.338	0.344	0.353	0.304	0.419	0.444	0.423	0.472	0.533	1																																					
11	0.299	0.356	0.399	0.341	0.302	0.364	0.366	0.335	0.363	0.577	1																																				
12	0.276	0.345	0.312	0.378	0.280	0.373	0.382	0.284	0.246	0.417	0.445	1																																			
13	0.261	0.269	0.286	0.299	0.439	0.458	0.425	0.464	0.419	0.456	0.383	0.389	1																																		
14	0.276	0.283	0.300	0.313	0.447	0.457	0.411	0.493	0.468	0.455	0.355	0.312	0.634	1																																	
15	0.307	0.312	0.315	0.326	0.403	0.441	0.430	0.443	0.445	0.526	0.457	0.349	0.506	0.570	1																																
16	0.234	0.251	0.240	0.280	0.405	0.402	0.369	0.449	0.401	0.383	0.311	0.313	0.524	0.585	0.499	1																															
17	-0.102	-0.091	-0.092	-0.114	-0.047	-0.058	-0.065	-0.030	-0.013	-0.134	-0.212	-0.122	-0.080	-0.072	-0.084	-0.040	1																														
18	-0.075	-0.053	-0.086	-0.070	-0.080	-0.088	-0.084	-0.091	-0.079	-0.118	-0.167	-0.058	-0.146	-0.116	-0.116	-0.129	0.450	1																													
19	-0.067	-0.048	-0.051	-0.057	-0.093	-0.086	-0.063	-0.086	-0.080	-0.107	-0.119	-0.070	-0.095	-0.059	-0.088	-0.062	0.401	0.440	1																												
20	-0.084	-0.055	-0.071	-0.031	-0.114	-0.072	-0.046	-0.091	-0.092	-0.116	-0.116	-0.059	-0.091	-0.066	-0.063	-0.066	0.364	0.472	0.613	1																											
21	-0.150	-0.142	-0.160	-0.162	-0.138	-0.142	-0.132	-0.120	-0.084	-0.152	-0.215	-0.144	-0.171	-0.145	-0.179	-0.139	0.406	0.435	0.400	0.415	1																										
22	-0.177	-0.158	-0.185	-0.177	-0.170	-0.181	-0.170	-0.171	-0.153	-0.213	-0.214	-0.165	-0.202	-0.190	-0.193	-0.161	0.397	0.451	0.390	0.416	0.577	1																									
23	-0.169	-0.155	-0.192	-0.192	-0.163	-0.173	-0.163	-0.171	-0.140	-0.195	-0.228	-0.170	-0.188	-0.155	-0.184	-0.151	0.409	0.447	0.380	0.380	0.556	0.678	1																								
24	-0.166	-0.194	-0.190	-0.200	-0.126	-0.194	-0.182	-0.144	-0.092	-0.215	-0.295	-0.204	-0.156	-0.137	-0.180	-0.096	0.442	0.387	0.298	0.296	0.457	0.534	0.533	1																							
25	0.166	0.164	0.163	0.215	0.147	0.175	0.161	0.163	0.140	0.161	0.173	0.162	0.200	0.257	0.208	0.231	0.000	-0.053	0.019	0.033	-0.112	-0.122	-0.100	-0.086	1																						
26	0.193	0.232	0.213	0.230	0.169	0.206	0.211	0.175	0.131	0.218	0.218	0.217	0.226	0.219	0.253	0.185	-0.089	-0.076	-0.054	-0.038	-0.137	-0.165	-0.128	-0.186	0.414	1																					
27	0.199	0.194	0.201	0.231	0.168	0.221	0.220	0.212	0.180	0.191	0.213	0.182	0.231	0.237	0.244	0.196	-0.097	-0.074	0.001	0.026	-0.111	-0.133	-0.127	-0.159	0.441	0.513	1																				
28	0.187	0.205	0.185	0.204	0.204	0.223	0.206	0.203	0.178	0.261	0.264	0.235	0.253	0.245	0.258	0.228	-0.153	-0.111	-0.069	-0.063	-0.149	-0.184	-0.155	-0.209	0.365	0.489	0.506	1																			
29	0.183	0.170	0.194	0.245	0.206	0.190	0.215	0.208	0.158	0.253	0.272	0.224	0.292	0.297	0.265	-0.235	-0.214	-0.134	-0.150	-0.284	-0.281	-0.282	-0.257	0.424	0.508	0.505	0.568	1																			
30	0.061	0.137	0.098	0.119	-0.111	-0.098	-0.026	-0.126	-0.183	-0.109	-0.009	0.052	-0.049	-0.054	-0.046	-0.046	0.023	0.071	0.123	0.126	0.012	0.035	0.037	-0.013	0.066	0.046	0.036	0.005	0.007	1																	
31	-0.004	0.074	0.064	0.076	-0.077	-0.052	-0.022	-0.110	-0.101	-0.068	-0.075	0.044	-0.038	-0.028	-0.047	-0.030	0.076	0.130	0.149	0.158	0.105	0.128	0.109	0.071	0.011	0.023	0.015	-0.030	-0.028	0.356	1																
32	-0.169	-0.157	-0.156	-0.159	-0.189	-0.214	-0.204	-0.229	-0.204	-0.229	-0.230	-0.158	-0.208	-0.204	-0.232	-0.153	0.141	0.139	0.149	0.144	0.191	0.168	0.154	0.176	-0.046	-0.079	-0.086	-0.077	-0.095	0.260	0.291	1															
33	-0.222	-0.226	-0.220	-0.189	-0.224	-0.246	-0.225	-0.252	-0.258	-0.274	-0.274	-0.169	-0.222	-0.242	-0.289	-0.190	0.139	0.186	0.159	0.155	0.244	0.251	0.248	0.235	-0.086	-0.120	-0.089	-0.111	-0.110	0.241	0.263	0.488	1														
34	-0.164	-0.132	-0.131	-0.103	-0.203	-0.213	-0.199	-0.247	-0.240	-0.243	-0.228	-0.112	-0.175	-0.194	-0.241	-0.157	0.118	0.195	0.168	0.172	0.197	0.240	0.219	0.195	-0.065	-0.060	-0.096	-0.107	-0.088	0.266	0.377	0.493	0.570	1													
35	-0.118	-0.074	-0.094	-0.067	-0.121	-0.116	-0.126	-0.145	-0.181	-0.201	-0.164	-0.073	-0.157	-0.166	-0.201	-0.134	0.117	0.158	0.119	0.148	0.169	0.199	0.168	0.163	-0.043	-0.061	-0.078	-0.043	-0.100	0.285	0.311	0.449	0.473	0.479	1												
36	-0.173	-0.169	-0.204	-0.160	-0.246	-0.265	-0.250	-0.267	-0.257	-0.254	-0.250	-0.188	-0.264	-0.272	-0.291	-0.237	0.095	0.166	0.105	0.123	0.178	0.237	0.222	0.229	-0.114	-0.093	-0.095	-0.076	-0.118	0.222	0.218	0.400	0.543	0.453	0.465	1											
37	-0.194	-0.155	-0.178	-0.158	-0.169	-0.195	-0.184	-0.204	-0.212	-0.236	-0.270	-0.143	-0.190	-0.204	-0.249	-0.184	0.158	0.173	0.138	0.158	0.185	0.236	0.200	0.252	-0.083	-0.106	-0.116	-0.126	-0.116	0.227	0.217	0.433	0.476	0.423	0.465	0.518	1										
38	-0.160	-0.116	-0.157	-0.134	-0.143	-0.170	-0.163	-0.157	-0.160	-0.165	-0.182	-0.120	-0.130	-0.156	-0.183	-0.147	0.183	0.182	0.135	0.147	0.179	0.217	0.164	0.244	-0.061	-0.087	-0.105	-0.108	-0.116	0.221	0.237	0.425	0.422	0.379	0.458	0.381	0.568	1									
39	-0.166	-0.127	-0.166	-0.140	-0.222	-0.212	-0.219	-0.256	-0.259	-0.226	-0.190	-0.115	-0.222	-0.255	-0.275	-0.221	0.113	0.182	0.143	0.167	0.186	0.241	0.222	0.178	-0.071	-0.082	-0.085	-0.086	-0.121	0.254																	

‘규제화 MIMIC 모형을 통한 학업 무기력 예측 변수 탐색’에 대한 토론문

함은혜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규제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무기력을 예측하는 교사 관계와 친구 관계 변인을 탐색한 연구입니다.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중학생들의 학업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과 사회적 관계’라는 주제는 여러 연구자와 교육자에게 흥미로운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규제화 구조방정식모형’이라는 새로운 기계학습 기법을 소개·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는 강점입니다. 독자들이 연구의 강점과 유용성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 (1) 연구방법과 분석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규제화 구조방정식모형’이라는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이 연구가 해당 방법을 국내 연구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 배경에서 별도의 절로 ‘규제화 구조방정식모형’을 개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연구자가 분석방법 파트(7쪽)에서 일부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MIMIC 모형(이 모형도 상대적으로 국내에 덜 알려진 구조방정식 모형임)에 기계학습 방법이 어떻게 결합되어 규제화 MIMIC 모형이 작동하는지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한편, 연구방법에서는 실제 분석의 절차(단계별 의사결정의 근거와 과정 포함)를 좀 더 명확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쪽의 ‘3. 평가기준’ 부분은 독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훈련자료와 시험자료의 분할을 통한 모형 평가는 주로 기계학습 기법의 맥락에서 예측모형을 만들고 타당화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일반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해서 100회의 모형 적합과정이 모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율모수’는 규제화 구조방정식모형에만 적용되는 것 아닌지? 등의 질문

이 생깁니다.

둘째, 이 연구의 목표가 (1) ‘규제화 MIMIC모형’을 활용하여 학업 무기력 예측 모형을 탐색하는 것인지, (2) ‘규제화 MIMIC모형’의 기능이나 수행을 ‘일반 MIMIC 모형’과 비교하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구문제 진술 및 연구결과 구성의 초점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1)이 목표라면, 투입되는 독립변인을 교사관계와 친구관계 변수로 한정하기보다, 주요 배경변인(성별, SES 등)과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다른 변수들(가정요인, 심리적 요인 등)을 모두 모형에 포함하여, 최종변수로 선정된 변수들에 친구관계나 교사관계 관련 변인들이 얼마나 자주 포함되는지, 어떤 변수들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화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일반 MIMIC모형과의 비교 부분(연구결과 2.)은 다소 생략이 되는 반면, 규제화 MIMIC 모형이 얼마나 rigorous한가에 대한 지표(e.g., 시험자료에서의 예측력 등)나 관련 논의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2)가 목표라면,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두 모형의 수행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잠재변인에 대한 공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때 해당 공변인을 삭제하는 과정을 통해 간명한 모형을 만들어가는데, 이 과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간명성 측면에서 규제화모형이 우세한지, 일반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공변인과 규제화모형에서 선정된 변인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셋째, 교사와의 관계 관련 변인의 경우, 연구자가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은 ‘학생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믿음(정서적 지지)’을 의미하는 반면, ‘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신다’,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신다’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행동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이 교사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은 교사의 실질적 지원 행동(빈도나 지속성)에 근거하여, 자신에 대한 교사의 정서적 지지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서론(3쪽)과 연구 의의(15쪽)에서 새로운 분석기법 활용의 필요성과 그 의미가 다소 일반적으로 진술되어 있는데, 이 연구의 맥락에 맞추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된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표본의 수가 변수의 수보다 적을 경우’에 이 방법이 강점을 갖는다는 점은 2,509명의 표본, 총 27개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의 강점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항묵음’ 관련 논의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교사관계’와 ‘친구관계’ 문항들은 내적일관성 지수가 .8이상이어서 일차원성 가정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맥락에서 강점이라고 보기는 다소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덤활동과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지수*, 안현선^{†**}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학회의 KCYPS 2018 중학생 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에 대한 청소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팬덤활동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종단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1학년 때의 부모양육태도는 중학교 시기 동안의 학생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팬덤활동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의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가 같은 해 학업태도를 부적으로 예측한 것을 제외하고,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에 대한 주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가 학업태도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방향 및 정도는 부모양육태도의 종류(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수준(상·하)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다. 특히,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팬덤활동과 학업 관계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경우에는 온라인 팬덤활동과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 온라인 팬덤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같은 해의 학업태도뿐만 아니라 이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주류 문화활동인 팬덤활동이 이들의 학업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폭 또는 완화시키는 환경변인으로서 부모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 팬덤활동, 부모양육태도, 학업태도, 학업성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iris_ahn@korea.ac.kr.

I. 서론

팬덤활동은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하위문화로서(정민우, 이나영, 2009), 특정 대상과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몰입하는 문화를 가리킨다(정재민, 2010).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청소년들 사이에서 좋아하는 가수, 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 활동이며 중요한 또래 문화가 되었다(전수아, 한윤선, 2016).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팬덤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안은미 외, 2012; 전수아, 한윤선, 2016).

이처럼 팬덤활동은 오늘날 청소년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는 주요 문화활동(정재민, 2010)이며, 팬덤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으로써의 팬덤활동의 영향력(예, 안은미 외, 2012; 정현주, 2017)에 그 연구주제가 집중되어 있거나, 일부 청소년의 팬덤활동의 변화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빈도에 대한 비교분석 수준에 머물러 있다(황진구, 허효주, 2014). 더욱이, 청소년 대부분이 하루 중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교 및 학업영역에서 소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학업상황에서 팬덤활동 참여는 실제 이들의 학업관련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성취수준에 어떤 장·단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팬덤문화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팬덤문화의 중심점인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이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의 발달은 이러한 팬덤문화의 발달 및 확산에 탄력을 가하고 있어(이경상 외, 2013), 팬덤활동이 청소년 시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팬덤활동의 다양한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삶의 주요 영역인 학업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팬덤활동 참여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환경변인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청소년 시기 중 학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회·환경요인으로는 부모가 있으며,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학교적응 등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백진아, 2015). 특히, 애정과 관심, 자율적 및 수용적 태도와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 학업참여, 성취를 돕지만, 강요, 방임 및 비일관적 태도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열의를 낮추는 등 학업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

영신, 김의철, 2000; 조한익, 황정은, 2012). 이처럼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학업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은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태도와 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주요 문화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이 활동이 청소년의 학업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촉진 혹은 상쇄하는 환경 변인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자와 보호자가 청소년 시기 학생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효과적으로 학업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측면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팬덤활동 참여 정도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팬덤활동 참여 정도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학업

팬덤(fandom)은 fanatic(열정적인)의 준말인 ‘fan’과 ‘dom(집단의 세력권)’이 합쳐진 말로, 하나의 공통 대상에 열광하는 집합 공동체 및 이와 관련된 의식, 가치, 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Fiske, 1992; 정현주, 2017). 팬덤활동은 단순한 활동 참가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공동체적인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집단의 성향을 이해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적 성격을 보인다(박신의, 2012)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소년 취미활동과 구분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을 연예인의 우상화로 인한 맹목적인 추종 혹은 중독에 가까운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다(김고운, 2008). 팬덤활동을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동일시 현상으로 풀이하거나(최우신, 김영희, 1999), 현실도피(신가희, 2009)와 연결지어 이해하고자 했으며,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일상, 일탈행동, 자아발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안은미 외, 2013; 정재민, 2010). 한 예로, 나재은(2017)은 팬덤활동

참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 편,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 팬덤활동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Fiske, 1992)이 청소년 팬덤활동에 대한 연구의 또 다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팬덤활동이 또래 소통과 소속감 및 공감대 형성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돕고(조영임, 2011),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줌으로써 만족감과 활력을 준다고 강조한다(이윤정, 박성욱, 2001; 임영식, 2002). 서명석과 양혜진(2014)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팬덤활동, 매체활동, 청소년일탈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팬덤활동은 청소년일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관계는 일탈친구와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안은미와 동료들은(2013)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팬덤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팬덤활동 참여 빈도와 자아탄력성 간에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보다 최근에는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부분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학교 및 학업영역에 초점을 맞춰, 팬덤활동이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에 대한 태도 및 학업관련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예, 안은미 외, 2012; 전수아, 한윤선, 2016).

한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알아보고, 이 변화 정도와 양상이 학생들의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집단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팬덤활동 참여집단의 경우에 미참여집단에 비해 초기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았으나, 학년 증가에 따라 미참여집단보다 더 큰 상승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이정민, 정혜원, 201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학습시간 관리능력은 정적 관계를 나타내지만, 팬덤활동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학습시간 관리능력이 학년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정도가 더 작게 나타나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학습시간 관리능력 변화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전수아, 한윤선, 2016). 안은미와 동료들은(2012) 팬덤활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빈도는 등교시간 준수와 같은 학교규칙을, 오프라인 팬덤활동 참여빈도는 학습활동을 부정적으로 예측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팬덤활동의 영향력은

인터넷 사용 중 ‘오락활동’이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팬덤활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이 혼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팬덤활동과 학업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들은 빈번한 팬덤활동 참여로 인해 학교생활이 불성실하고, 학업을 소홀히 하게 되어 수업태도와 학교규칙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한다(안은미 외, 2012). 이러한 연구 흐름의 일환으로 이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2.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태도 및 성취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으로, 애정과 통제 수준에 따라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설명되는 다면적 구인이다(예, Baumrind, 1971). 다양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자녀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하여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과 양상을 확인하고(임정아, 조아미, 2018; 황혜영, 김나영, 2018), 자녀의 성격, 행동, 정서, 인지 측면의 발달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있다(노미화 외, 2015). 가장 대표적으로 참조되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Baumrind(1971)가 제안한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방임적 양육태도로 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허묘연(2004)의 8개의 부모양육태도 유형(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을 참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와 같이 양방향(임정아, 조아미, 2018)으로 구분지어 부모양육태도와 이 관계가 자녀의 다양한 발달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학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 유형은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 과정에 독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애정과 자율, 수용, 지원적 행동은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로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학업에서의 열의와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강요, 거부와 같은 부모의 행동은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학업열의는 악화되고 학업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0; 조한익, 황정은, 2012).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의 성취압력과 기대를 높이 지각할수록 오히려 성취동기를 긍정적으로 높이는 특이한 점이 확인되었으며(박영신, 김의철, 정갑

순, 2004), 이러한 특이점은 원지영(2009)의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5년간 수집된 청소년패널데이터가 활용된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부모의 경제력과 지위에 관계없이 부모의 애착과 통제 정도가 강할수록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참여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부모양육태도의 유형에 따라 학업참여와 학업성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 종단적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제한된 연구가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환경요인을 탐색해보는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성취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선숙, 고미선, 2007).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를 유형별로 구분 지어 학업성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단일요인으로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김선숙, 고미선, 2007), 대개 횡단적 연구가 진행되어 있기에 학업성취의 변화에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학업성취에 비해 학업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의 유형을 탐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로 구분 지어 중학교시기(중학교1학년~3학년)의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린 시절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는 그 시기에만 영향력이 제한되지 않고 이후에 학습자가 성장하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까지 그 영향력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에(Sroufe, 2005), 청소년기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이들의 학업 관련 특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부터 실시 중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KCYPS 2018은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초등학교 171개)과 중학교 1학년(중학교 162개) 두 개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개인의 발달 및 다양한 환경요인에 대해 추적하는 종단조사다. 이 연구에서는 2018년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중1패널) 2018년(1차), 2019년

(2차), 2020(3차)년에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2,579명(남학생 54.2%, 여학생 45.8%)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팬덤활동

팬덤활동은 1차년도 자료의 발달환경 영역 중 활동 및 문화환경에 포함된 팬덤활동 문항을 사용하였다. 팬덤활동은 ‘선호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유무’를 측정하는 1문항(있다=1, 없다=2)과 ‘팬덤활동 빈도’를 측정하는 9문항(전혀 없다=1, 1년에 1~2번=2, 1달에 2~3번=3, 1주일에 1번=4, 1주일에 여러 번=5)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안은미 외, 2012; 전수아, 한운선, 2016), 청소년 팬덤활동을 온라인 팬덤활동과 오프라인 팬덤활동으로 구분하였다(표 1). 총 9문항 중 각 팬덤활동 종류에 포함된 활동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온라인 팬덤활동과 오프라인 팬덤활동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각각 .73과 .69로 나타났다. ‘전혀 하지 않는다=0’, ‘1년에 1~2번=1(가끔)’, ‘1달에 2~3번부터 1주일에 1번=2(종종)’, ‘1주일에 여러 번=3(자주)’으로 변환하였으며, 선호 연예인/운동선수가 없는 경우 팬덤활동 빈도 점수에 0을 부여하였다(예, 전수아, 한운선, 2016). 각 팬덤활동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팬덤활동 참여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표 1. 청소년 팬덤활동의 구분 및 척도

구분	문항
온라인 팬덤활동	팬덤활동 1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하기
	팬leter 보내기 및 메시지 쓰기
	팬덤활동 3 SNS, 블로그, 트위터, 기사 등에 댓글 달기
	팬덤활동 4 사진과 동영상 감상 및 업로드 하기
오프라인 팬덤활동	팬덤활동 1 팬미팅(싸인회) 참석하기
	팬덤활동 2 방송국이나 공연장, 영화관, 경기장, 행사 가기
	팬덤활동 3 선물 보내기
	팬덤활동 4 책, CD, DVD, 화보집 구입하기
	팬덤활동 5 굿즈 만들기 또는 구입하기

* 이 연구에서 선호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총 2,579명 중 1,541(60%)명으로 과반 수 이상이었다.

2) 부모양육태도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1차년도 자료에서 발달환경의 가정 영역 중 부모양육태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의 하위양육태도를 각각 4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6개의 하위양육태도는 따스함(‘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자율성지지(‘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구조제공(‘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거부(‘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강요(‘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비밀관성(‘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이다. 이 중,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은 긍정적 양육태도로, 거부, 강요, 비밀관성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크게 구분된다(예, 임정아, 조아미, 2018). 이 연구에서도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12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로 측정되었으며,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각각 .92와 .87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학업태도

학업태도는 1~3차년도 자료의 학생 지적발달 영역 중 학업태도의 학업열의에 포함된 4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공부할 때 힘이나고 활기가 생긴다’와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이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로 측정되었으며, 4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모든 차시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학업태도1차년도=.88; 학업태도2차년도=.88; 학업태도3차년도=.90).

4) 학업성취

학업성취는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문항(‘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6점 척도(1=매우 못함, 2=못함, 3=보통, 4=잘함, 5=매우 잘함; 6=잘 모르겠음)로 측정되었으며, 6으로 응답한 경우 학업성취 변인에 대한 결측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주요 분석은 다음의 두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Mplus 8.4 프로그램을 사용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이하 LGM)을 적용하여 중학생의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추정하였다. LGM은 각 변인으로부터 잠재성장모형을 도출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의 개인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 변인에 대한 무성장 모형과 성장모형을 각각 추정하여 적합도 비교를 바탕으로 각 변인을 가장 잘 대표하는 모형을 선정하였다. 둘째, 시점별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팬덤활동,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각 팬덤활동과 부모양육태도 간 상호작용(즉, 팬덤활동 × 부모양육태도)의 예측경로를 포함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그림 1).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그래프를 통해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 때, 조절변수(부모양육태도)가 평균을 중심으로 ± 1 표준편차 떨어진 정도를 상하로 구분하여(즉, 긍정적 양육태도 상·하, 부정적 양육태도 상·하) Mplus 프로그램 내에서 그래프를 생성하였다(type=plot 2). 두 단계의 분석절차 모두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표본크기에 비교적 독립적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가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 수준이라 해석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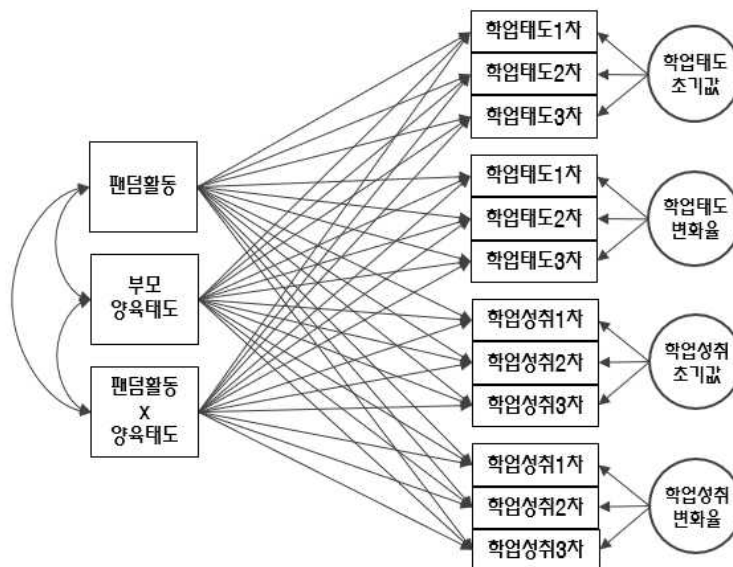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통제변인, 공변량, 오차변인은 생략함)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이변량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표 2).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8보다 작게 나타났으므로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05). 종속변인인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의 시간에 따른 평균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학업태도는 중학교 2학년 때 증가하나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학업성취의 경우 중학교 시기 동안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때의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r = -.05, p < .01$),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의 학업태도($r_s = -.10$ 과 $-.04, p < .001$ 과 $p < .05$),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업성취($r = -.04, p < .05$)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오프라인 팬덤활동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업태도($r = -.04, p < .05$)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04 \leq r_s \leq -.01, p_s > .05$). 두 종류의 팬덤활동은 서로 비교적 강한 관계를 나타냈다($r = .69, p < .00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중학교 시기의 학업태도($.09 \leq r_s \leq .30, p_s < .001$) 및 학업성취($.10 \leq r_s \leq .17, p_s < .001$)와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태도($-.17 \leq r_s \leq -.05, p_s < .05$), 학업성취($-.14 \leq r_s \leq -.11, p_s < .001$)와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두 종류의 양육태도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었으며($r = -.53, p < .001$), 학업태도와 학업성취는 각 시점 모두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냈다($.09 \leq r_s \leq .28, p_s < .001$). 성별은 두 종류의 팬덤활동과 모두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여($r_s = .31$ 과 $.33, p_s < .001$)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팬덤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이변량 상관계수

변인/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 성별(남=0, 여=1)	-										
2. 온라인팬덤활동	.33**	-									
3. 오프라인팬덤활동	.31**	.69**	-								
4. 긍정양육태도	-.04	-.05**	-.01	-							
5. 부정양육태도	-.04*	.02	.02	-.53**	-						
6. 학업태도1차	-.10**	-.10**	-.04	.29**	-.17**	-					
7. 학업태도2차	-.10	-.04*	-.01	.15**	-.11**	.35**	-				
8. 학업태도3차	.03	.00	.01	.09**	-.05*	.26**	.37**	-			
9. 학업성취1차	-.07	-.04*	-.04	.17**	-.14**	.20**	.14**	.10**	-		
10. 학업성취2차	-.00	-.01	-.01	.10**	-.13**	.10**	.24**	.14**	.35**	-	
11. 학업성취3차	.04	.01	.01	.10**	-.11**	.08**	.18**	.28**	.28**	.40**	-
평균	0.46	0.56	0.21	3.26	2.00	2.17	2.22	2.13	3.53	3.28	3.27
표준편차	0.50	0.75	0.36	0.46	0.52	0.67	0.66	0.68	0.96	0.86	0.87
왜도	0.17	1.24	2.23	-0.38	0.35	0.32	0.08	0.11	0.11	0.07	0.10
첨도	-1.97	0.51	5.87	-0.04	0.08	0.09	-0.18	-0.28	-0.09	-0.15	0.16
범위	0-1	0-3	0-3	1-4	1-4	1-4	1-4	1-4	1-5	1-5	1-5

*p < .05. **p < .01.

2. 주요 분석

1)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의 잠재성장모형

중학생의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 수준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각 변인의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표 3).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성취의 경우 무성장모형에 비해 성장모형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카이제곱차이검증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chi^2(df)=189.29(3)$, $p < .001$). 학업태도의 경우 적합도 측면에서는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카이제곱차이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chi^2(df)=27.017(3)$, $p < .001$), 성장모형이 무성장모형에 비해 연구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학업태도와 학업성취 모두 성장모형을 최종모형으로 택하였다.

표 3. 무성장모형과 성장모형 간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Delta\chi^2(\Delta df)$	CFI	TLI	RMSEA
학업태도						
무성장모형	52.28	1	27.017(3) ^{***}	.93	.95	.068
성장모형	25.263	4		.97	.90	.097
학업성취						
무성장모형	199.597	1	189.29(3) ^{***}	.75	.81	.138
성장모형	10.304	4		.99	.98	.06

***p < .001.

최종모형으로 선정한 성장모형을 바탕으로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 및 분산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 모두 변화율의 평균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4). 이는 학업태도와 학업성취 모두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017($p < .05$), .076($p < .001$)만큼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태도와 학업성취 모두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였으며, 이는 두 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성장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 및 공분산

모형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과 변화율 간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학업태도	2.189***	.195***	-.017*	.433***	-.038***
학업성취	3.4***	.043***	-.076*	.048**	-.038*

*p < .05, **p < .01, ***p < .001.

2)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에 대한 팬텀활동과 부모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앞서 제시한 단변량 잠재성장모형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팬텀활동 참여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시간 비의존적 변인으로써 각 시점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연구모형을 상정하고, 팬텀활동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검증하였다. 이 때, 모든 모형에서 성별(남=0, 여=1)의 설명력을 통제하였으며, 같은 차시에 측정된 관찰변수 사이의 오차 공분산을 가정하였다. 또한, 온라인 팬텀활동과 오프라인 팬텀활동을 각각 포함하는 두 개의 모형으로 검증하였으며, 두 모형은 모두 우수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온라인 팬텀활동 모형, $\chi^2(df)=29.525(6)$, $p < .001$, CFI = .99, TLI = .93, RMSEA = .039; 오프라인 팬텀활동 모형, $\chi^2(df)=30.526(6)$, $p < .001$, CFI = .99, TLI = .93, RMSEA = .039.

.001, CFI = .99, TLI = .93, RMSEA = .04. 종속변인에 대한 예측력은 각각 투입된 온라인 팬덤활동과 오프라인 팬덤활동을 제외하고는 다르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중학교 1학년 때의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는 같은 시기 학업태도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beta = -.07, p = .001$), 이후 시기의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에 대한 유의한 예측력을 나타내지 않았다($-.00 \leq \beta_s \leq -.03, ps > .10$). 오프라인 팬덤활동의 예측력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00 \leq \beta_s \leq -.02, ps > .10$). 중학교 1학년 때의 부모의 긍정양육태도는 중학교 시기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05 \leq \beta_s \leq .27, ps < .05$). 부정양육태도는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를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13 \leq \beta_s \leq -.07, ps < .001$).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에 대한 팬덤활동 참여와 부모양육태도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업태도에 대한 온라인 팬덤활동과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_s = -.07$ 과 $-.06, p < .001$ 과 $< .05$). 이는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가 학업태도를 예측하는 정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중학교 3학년 때의 학업성취에 대한 온라인 팬덤활동과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간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 = -.05, p < .05$), 이는 중학교 1학년 때의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정도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의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통해 그 양상을 확인하였다. 세 개의 상호작용에서 각 예측선이 나타내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그 기울기를 검증한 결과, 온라인 팬덤활동과 학업태도 간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상(그림 2) 및 부정적 양육태도 상(그림 3)의 기울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팬덤활동과 학업성취 간 상호작용(그림 4)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상의 기울기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 학생의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태도가 유의하게 낮아졌으나($r = -.09, p < .001$), 긍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경우에는 온라인 팬덤활동과 학업태도 사이에 유의한 예측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경우 온라인 팬덤활동과 학업태도는 유의한 예측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에는 학생의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태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r = -.08, p < .001$).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경우, 학생의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와 이후 학업성취 수준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의 부정양육태도가 높은 경우, 팬덤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이후의 학업성취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 -.09, p < .001$).

표 4.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에 대한 비표준화 및 표준화 경로계수

예측변수	종속변수									
	학업태도					학업성취				
	경로	B	S.E.	β	p	경로	B	S.E.	β	p
온라인팬덤활동	1차년도	-.04	.01	-.07	<.001	1차년도	-.01	.02	-.01	.78
	2차년도	-.02	.01	-.03	.11	2차년도	-.00	.02	-.00	.98
	3차년도	-.01	.02	-.01	.64	3차년도	.01	.02	.01	.66
오프라인팬덤활동	1차년도	-.01	.01	-.01	.50	1차년도	-.00	.02	-.00	.91
	2차년도	-.00	.01	-.00	.84	2차년도	-.00	.02	-.00	.97
	3차년도	-.00	.02	-.00	.87	3차년도	.02	.02	.02	.39
긍정양육태도	1차년도	.18	.02	.27	<.001	1차년도	.14	.02	.14	<.001
	2차년도	.09	.02	.13	<.001	2차년도	.05	.02	.05	.05
	3차년도	.06	.02	.09	<.001	3차년도	.06	.02	.06	.01
부정양육태도	1차년도	-.02	.02	-.03	.22	1차년도	-.08	.02	-.08	<.001
	2차년도	-.03	.02	-.05	.06	2차년도	-.13	.02	-.13	<.001
	3차년도	.00	.02	.00	.88	3차년도	-.10	.02	-.10	<.001
온라인팬덤활동 × 긍정양육태도	1차년도	-.05	.02	-.07	<.001	1차년도	-.03	.02	-.03	.19
	2차년도	-.02	.02	-.04	.13	2차년도	.01	.02	.01	.65
	3차년도	.02	.02	.03	.16	3차년도	-.01	.02	-.01	.81
온라인팬덤활동 × 부정양육태도	1차년도	-.04	.02	-.06	.01	1차년도	-.03	.02	-.03	.28
	2차년도	-.02	.02	-.03	.28	2차년도	.01	.02	.00	.90
	3차년도	-.00	.02	-.00	.96	3차년도	-.01	.02	-.05	.04
오프라인팬덤활동 × 긍정양육태도	1차년도	-.02	.02	-.03	.26	1차년도	-.01	.02	-.01	.72
	2차년도	-.02	.02	-.03	.33	2차년도	-.03	.02	-.03	.27
	3차년도	.03	.02	.04	.11	3차년도	.01	.02	.01	.82
오프라인팬덤활동 × 부정양육태도	1차년도	.00	.01	-.00	.98	1차년도	-.01	.02	-.01	.75
	2차년도	-.01	.02	-.01	.69	2차년도	.00	.02	.00	.92
	3차년도	.02	.02	.03	.20	3차년도	-.01	.02	-.02	.55
R2	1차년도		.54		<.001	1차년도		.45		<.001
	2차년도		.49		<.001	2차년도		.36		<.001
	3차년도		.59		<.001	3차년도		.47		<.001

주. 긍정양육태도와 부정양육태도의 경로계수는 온라인/오프라인 팬덤활동 모형 간 차이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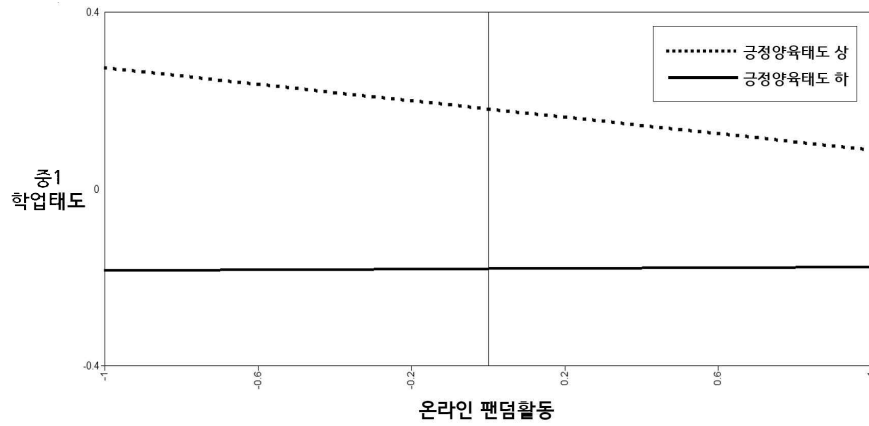


그림 2. 온라인 팬덤활동과 학업태도 간 관계에 대한 긍정양육태도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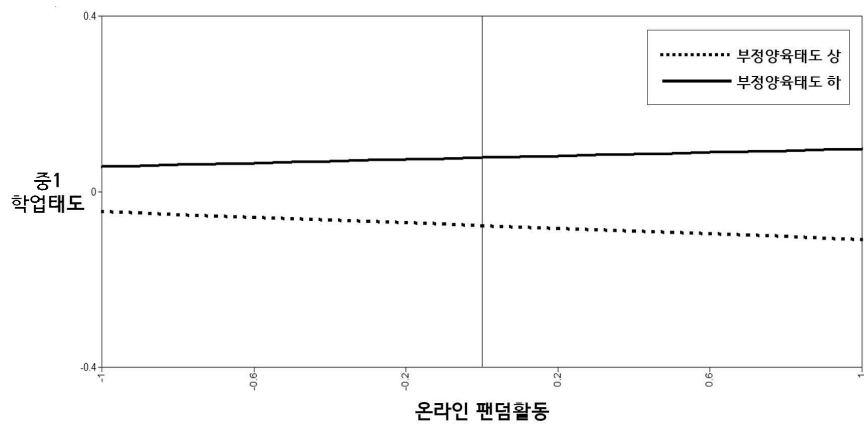


그림 3. 온라인 팬덤활동과 학업태도 간 관계에 대한 부정양육태도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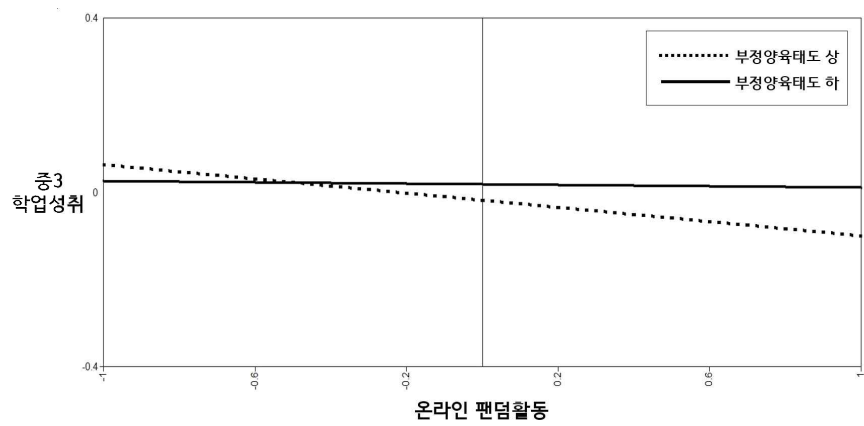


그림 4. 온라인 팬덤활동과 학업성취 간 관계에 대한 부정양육태도의 조절효과

V. 논의 및 결론

팬덤문화는 더 이상 소수의 극성집단 내에서만 공유하는 문화가 아니며, 청소년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팬덤활동 참여에는 시간과 열의가 소요된다. 이 점을 고려해볼 때,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학업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영향력을 촉진하거나 상쇄하는 환경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팬덤활동 참여와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 간의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았다. 특히, 팬덤활동 참여가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학생시기 동안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 수준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중학교 1학년 때의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는 같은 해 학업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오프라인 팬덤활동 참여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양육태도는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가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의 종류(긍정/부정양육태도)와 정도(상·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일상에 더욱 활기를 주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임영식, 2002), 수업태도나 학교규칙과 같은 학업 또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영역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안은미 외, 2012) 선행연구 결과의 흐름과 그 궤를 함께한다. 더불어, 팬덤활동의 부정적 영향력은 온라인 팬덤활동에서만 관찰되었고, 이는 온라인 팬덤활동의 영향력이 인터넷 사용유형 중 게임과 같은 오락활동이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유사하다는 안은미 외(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온라인 팬덤활동의 예측력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적정 수준의 팬덤활동 참여는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팬덤활동 참여 빈도가 매우 높으면 이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 소모로 인해 학업에 쏟을 관심과 노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에 유의한 종단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중학교 시기 동안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를 높였으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이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0; 조한익, 황정은, 2012).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영역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중학생의 팬덤활동 참여가 이들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방향과 정도가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지각하는 경우, 온라인 팬덤활동 경험을 빈번하게 할수록 학업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고, 이후의 학업성취 수준 또한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이 지각하는 경우, 온라인 팬덤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학업태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이 지각하는 학생들과 낮게 지각하는 학생들 간 학업태도 수준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학업태도 점수는 긍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학생들이 비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다시 말해, 시간 종속성이 낮은 구인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중매체를 통한 지식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중학생의 팬덤활동 경험 역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증하고, 이에 따라 중학생의 일상 및 학업관련 결과변인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학업성취 수준을 객관적 지표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나타냈으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평가 점수를 사용하여 학업성취에 대한 팬덤활동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관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청소년의 중요한 일상을 차지하는 팬덤활동과 청소년기의 중요한 환경요인인 부모양육태도 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중단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청소년기 학생을 둔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고운 (2008). **팬들의 특성 및 팬활동 참여 실태, 여가만족, 생활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1인 미디어 운영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 고미선 (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 나재은 (2017).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8), 396-405.
-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19-134.
- 박신의 (2012). 한류 글로벌 팬덤 현상을 통해 본 문화소통 및 교류의 전망. **문화예술경영**, 2(2), 23-37.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 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38, 109-147.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백진아 (2015). 융복합시대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9), 452-461.
- 서명석, 양혜진 (2014). 팬덤활동과 매체활동이 청소년일탈에 미치는 영향: 일탈친구접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8), 79-101.
- 신가희 (2009). **온라인 팬덤으로서의 팬동영상 연구: 동방신기 팬동영상 제작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은미, 김소희, 전선율, 진성미, 정익중 (2012).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2), 421-446.
- 안은미, 김지선, 전선율, 정익중 (2013).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4(2), 149-175.
- 원지영 (200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9), 125-150.
-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차한솔 (201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81.
- 이윤정, 박성욱 (2001). 청소년의 대중음악 인식과 수용에 관한 연구. **자연과학**, 12(2), 73-92.
- 이정민, 정혜원 (2018).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변화연구: 경향점수 매칭과 다층성장모형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9(2), 35-67.
- 임영식 (2002). 대중 스타에 대한 청소년의 이상화 현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9(3), 57-78.

- 임정아, 조아미 (2018).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이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삶의 목표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9(1), 323-346.
- 임혜림, 김서현, 정의중 (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 전수아, 한윤선 (2016). 청소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팬덤 활동이 청소년의 학습시간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층성장모형 적용. **한국아동복지학**, 56, 101-132.
- 정민우, 이나영 (2009). 스타를 관리하는 팬덤, 팬덤을 관리하는 사업. 미디어, **젠더 & 문화**, 12, 191-240.
- 정재민 (2010). 청소년 팬덤 현상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1(3), 91-119.
- 정현주 (2016). 청소년 팬덤문화에 대한 연구: 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4), 163-175.
- 정현주 (2017). 청소년 팬덤활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40, 109-133.
- 조영임 (2011). 중학생의 정서지능, 연예인 이상화 및 학교생활적응. 전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조한익, 황정은 (201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간의 관계: 정서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4), 27-52.
- 최우신, 김영희 (1999). 청소년의 연예인 이상화 현상의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10(2), 171-192.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황진구, 허효주 (20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43.
- 황혜영, 김나영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잠재프로파일 특성 및 변화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3), 679-702.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1-103.
- Fiske, J. (1992).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In L. A. Lewis (Ed.),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pp. 30-49). NY: Routledge.
- Sroufe, L. A. (2005). Attachment and development: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dultho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4), 349-367.

‘팬덤활동과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문

김승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대 시절에 미친 듯이 연예인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 때 개만 안 좋아했어도... 공부 좀 할 걸...’하고 후회하잖아요. 뭔가 벌써 그런 게 두려워요. 내가 지금은 오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무단결석 그까이 꺼 열 번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가짐인데 혹시나 만약에 언젠가 내가 오빠와 마주칠 생각이 없는 일반인으로 돌아갔을 때 이 일을 두고 후회하면 어찌죠? 깽... 그러니까 오빠는 내가 대학생 될 때까지 계속 계속 좋은 노래 하셔야 되구요, 쪽쪽 그 미모 유지하셔야 해요.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부문 초청작, 오세연 감독 ‘성덕’ trailer 중)

팬덤활동은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전 세대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생팬’과 같이 연예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나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굿즈나 음반 사재기, 생일이나 데뷔일에 버스나 지하철 광고 게시, 연예인 기살리기를 위한 조공문화 등 덕질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팬덤활동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기는 의미있는 타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일 수 있다. 팬덤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우상인 유명인의 외모나 행동을 모방하고,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배워나가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유명인을 좋아하는 또래들과의 각종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능력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부 연예인들은 자신의 팬덤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모범을 보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팬들이 이러한 사회적 가치나 책임을 공유해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주요 문화활동이고, 청소년기동안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많은 연

구들은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일상생활이나 자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여러 결과들을 제시해왔고,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적응문제나 학업성취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져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일상생활, 자아발달, 학교적응, 학업성취 등의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팬덤활동과 부모 양육태도의 상호관계에 따라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는지를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은 (당신들 자신도 팬덤활동에 참여하였던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청소년기 팬덤활동이 대부분 학교에서의 적응이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기 때문에 팬덤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매체의존, 게임의존 등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부모의 경우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태도나 방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가 온라인 팬덤활동으로의 몰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의 저하를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긍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팬덤활동을 많이 할수록 학업태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연구자들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이들의 학업태도 수준 자체에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들이 응답한 학업성취 수준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또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인을 모두 조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의 한계를 감안하면, 주어진 조사변인 내에서의 분석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가 1차년도의 팬덤활동 여부와 부모의 양육태도 자료를 기준으로 이후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후의 팬덤활동의 지속여부나 팬덤활동의 종류 변화,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나아가 팬덤활동으로 인한 부모와의 관계 변화 및 학업성취의 변화, 또는 팬덤활동 중단 후 학업성취의 변화를 야기하는 다른 변인들의 여부 등)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면 팬덤활동으로 인한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팬덤활동여부와 부모의 양육태도, 팬덤활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개인의 자아

정체감 및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추후 연구가 더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단순히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학업태도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팬덤활동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부모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오세연 감독 '성덕'

trailer <https://www.youtube.com/watch?v=AUuiP1DfEMI>

지지하는 부모와 강요하는 부모가 중학생의 학업태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종단 연구

박준상⁺, 이희재^{**}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중학생의 학업태도 유형을 확인하고, 잠재전이 분석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학년별 발달 궤적과 전이확률,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전이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1차-3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첫째, 중학생의 잠재프로파일은 무기력 프로파일, 일반 프로파일 그리고 열의 프로파일로 구분되었다. 전 학년에 걸쳐 일반 프로파일의 비율이 가장 컸으며, 무기력 프로파일의 비율이 가장 작았다. 둘째, 잠재전이분석 결과, 일반 프로파일의 잔류율이 약 70%로 가장 높았다. 셋째, 발달 궤적을 통해 열의 프로파일이 무기력 프로파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반 프로파일이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부모의 강요와 지지가 자녀의 학업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시기와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교육 및 정책적 함의를 밝혔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과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학업태도, 부모양육태도, 중학생, 잠재전이분석, 종단연구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수료, earth_js@snu.ac.kr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I. 서론

한국의 청소년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4)는 청소년들이 하는 고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학업 문제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 성적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40.7%에 달했다(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이렇듯 학업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자살 사고까지도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원경림, 이희중, 2019). 또한 두통, 복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통증 등과 같은 신체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Gaber, Walker & Zeman, 1991), 사회적 이탈과 같은 사회 병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모상현, 2010).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다각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에서,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을 이론적 틀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Williams, Dziurawiec 그리고 Heritage(2018)는 노력-보상 불균형(Effort-Reward Imbalance; ERI) 모델에 근거하여 호주 대학생들의 소진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설명하였다. 노력-보상 불균형(Effort-Reward Imbalance; ERI) 모델(Siegrist, 1996)에 따르면, 특정 대상에 기울이는 노력과 이로 인해 얻는 보상이 불균형하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소진을 경험하거나 무기력이 높아지고 행동을 계속하려는 열의가 감소할 수 있다(Lazarus, 1991). 즉, 학업에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소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보았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노력과 보상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이 학업에 기울이는 노력은 높은 반면, 학업에서 얻는 개인적인 만족감은 낮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무기력을 느끼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ERI에 의하면 노력과 보상의 불균형은 주관적 태도이기 때문에(Siegrist, 1996),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태도를 통해 노력과 보상의 불균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학업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청소년에게 높은 학업적 요구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실패를 자주 경험하게 되고, 스스로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통제불능감을 가지게 되면 이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기대나 동기가 감소하여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강혜원, 김영희, 2004).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와 황진숙(2015)은 학습된 무기력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학업 장면에서 경험하는 무기력감을 ‘학업무기력(academic helplessness)’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무기력은 한국 특유의 성취 위주의 학습환경, 극심한 경쟁과 교육열, 학력주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주된 관심이 됐다(이명진, 봉미미, 2013).

반대로, 실패경험 이후에도 여전히 학업에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학생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Salanova, Schaufeli, Martínez 그리고 Bresó(2010)는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가 학업적 실패 이후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학업 성취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는 학업에 대한 영감, 열정, 가치를 의미하며, 학업에 능동적으로 열중하게 하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탄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자영, 이상민, 2012; 조한익, 이현아, 2013; Schaufeli, Salanova, Gonzalez-Roma, & Bakker, 2002).

국내 연구에서는 학업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컨대, 완벽주의 성향(조한익, 이현아, 2010), 학업적 실패내성, 자기효능감(Yang, 2004)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임효진, 이소라, 2020), 부모 및 또래의 학업지지(조수현, 이민영, 이장희, 이상민, 2018), 교사와의 관계(이상섭, 조홍식, 2015), 그리고 부모의 성취에 대한 관여나 압력(김혜원, 장윤옥, 2016)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 특성들이 학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청소년들의 학업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학업태도를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입 방법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태도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학업태도 유형에 따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 방법과 강도가 구체화된다는 점에서(Liaupsin, Umbreit, Ferro, Urso & Upreti, 2006), 국내 청소년들이 갖는 학업태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예컨대, Liaupsin 등(2006)의 연구에서는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과 비참여적인 학생들에게 각각 행동 수정이나 교육 환경 개선 등의 방법을 달리하여 효과적으로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 특히, 중학교는 그 직전 단계인 초등학교에 비해 학업의 양과 수준이 모두 심화되는 시기인 만큼 이들의 학업적응을 돕기 위해 학업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시급하다(임경희, 2004). 더 나아가서, 중학생들의 학업태도가 종단적으로 어떤 궤적을 띄며 발달해 가는지를 파악한다면 중학생들을 위한 교육적·정책적 논의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지지해주는 자극이 하나의 보상이 될 수 있다(van Vegc

hel, de Jonge, Bosma, & Schaufeli, 2005; Kohls, Pletzer, Herpertz-Dahlmann, & Konard, 2009). 예컨대, 부모가 자녀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긍정적 보상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욕구를 무시하고 부모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보상 체계를 무너뜨려 학업무기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확인된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줄수록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반면(이상우, 2010; 손원숙, 배주현, 2014; Grolnick, Ryan, & Deci, 1991), 권위적이고 성취압력적인 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라온 자녀일수록 학업성취가 높다고 주장하는 연구(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은 횡단 연구였기 때문에, 부모 양육 태도가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와 강요하는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태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종단 데이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 패널 데이터 1차~3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해 중학생의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공변량으로 투입한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통해 시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전이확률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전이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건강한 학업태도 발달을 위해 중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중학생의 학업태도에서 노력과 보상의 불균형이 나타나는가? 2) 중학생의 학업태도 발달 양상에서 무기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가? 3)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강요가 자녀의 학업태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종단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노력-보상 불균형(Effort-Reward Imbalance) 이론

노력-보상 불균형(Effort-Reward Imbalance; ERI) 이론은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와 소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Siegrist, 1996). 근로자들이 일에 투입하는 노력과 그로 인해 돌아오는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에서 생기는 괴리가 클수록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이 일하는 수고와 노력에 비해 보상으로 주어지는 월급이나 직장에서의 대우가 적다면, 근로자들은 쉽게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전반적인 업무의 질이 하락한다는 것이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의 골자이다.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은 다양한 대상, 문화적 배경 그리고 맥락에서 연구됨으로써 이론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van Vegchel et al., 2005).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 소진에 대한 메커니즘을 ERI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교육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Fukuda et al., 2010). 예컨대, Williams(2018)와 그의 연구진들은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학업 소진이 높은 수준의 노력-보상 불균형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불균형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Ivancevic, Lvanovic, Maricic, and Cudanov(202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커질수록 소진될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개인이 지각하는 학업에 기울이는 노력과 보상의 정도는 학업열의나 학업무기력과 같은 학업에 대한 태도에 반영될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내적동기와 보상시스템은 학업에 대한 열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Durán, Extremera, Rey, Fernández-Berrocal, & Montalbán, 2006; Furrer & Skinner, 2003), 이러한 내적 동기와 보상 시스템의 불균형은 무기력을 촉진할 수 있다(Williams et al., 2018). 다시 말하면, 학업 열의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보상 수준은 적절한지 혹은 노력을 과도하게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불균형의 결과가 무기력에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업에 기울이는 노력이 클수록 실패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더욱 깊어지고, 이는 심한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병기 외, 2015). 따라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노력-보상의 불균형을 탐색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소를 짓거나,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하나의 보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Kohls et al., 2009). 예컨대, Anderson(2014)의 연구에서는 미소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이 물질적 보상만큼 인간의 행동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행동은 자녀에게 보상이 될 수 있고,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강요하는 행위는 보상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태도와 강요하는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ERI 모델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학업태도

1) 학업태도의 정의와 중요성

학업태도는 목표 설정과 같은 인지적 요인, 학습에 집중적으로 몰두하며 시간 관리 및 자기통제를 하는 행동적 요인, 그리고 학업에 대한 흥미, 관심, 호기심, 동기와 같은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 심리적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Koestner et al., 1984; Pintrich, 2000). 또한, 학업을 대하는 학생의 지적 호기심, 자기 주도성, 적극성, 열정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학습 장면에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를 반영한다(Rosenberg, 1960; 김태정, 장형심, 2020).

학업태도는 현재와 미래의 학업에 충실히 몰두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학업역량이자 학업성취의 동력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진다(김태정, 장형심, 2020). Demirbas와 Yagbasan(2006)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보인 학업태도가 과학 성취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만약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성공적인 학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스킬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Kuusinen & Leskinen, 1988), 학교 시스템에 대해 불만족하며(Williams, 2000),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김용래, 이혜원, 1996). 따라서 긍정적인 학업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학업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태도를 학업 열의와 학업 무기력이라는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 학업열의의 정의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선행 연구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내적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학업에 집중하게 해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을 의미한다(이자영, 2013). 따라서 학업열의가 높다는 것은 학업에 온전히 능동적으로 집중하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탄력성 및 자신감을 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선행연구자들은 학업열의가 학업에 대한 헌신(Dedication), 활기(Vigor), 효능감(Professional efficacy), 그리고 몰두(Absorption)로 구성된다고 보았다(이자영, 이상민, 2012; Fredricks et al., 2004). 학업열의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신은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가치있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활기는 학업을 향해 나타내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효능감은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몰두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신과 공부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체험을 의미한다(최영미, 2020; 권은경, 2020).

기존 연구들을 통해 그동안 학업열의 예측 요인들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자기효능감과 자존감(Danél, Karina, 2014), 성실성(Alarcon, Edward & Menke, 2011), 감사 성향(송윤희, 2015), 그리고 개인의 노력, 학업과 몰입, 교사 압력, 보상, 또래 지지, 교사 자율성 지지, 부모 학업적 지지 등(조수현 등, 2018) 다양한 요인들이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꼽혔으며, 학업열의에는 개인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환경 요인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미, 2020).

학업열의는 이처럼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학업 장면에서 보이는 태도 및 성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업열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이다(최혜선, 한세영, 2021). 염혜선과 이은주(2020)는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곧 중학생 자녀의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력을 주었음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또한, 김혜원과 장윤옥(2016)은 부모가 걱정성과 추구, 학습 선택권 부여의 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학업 진보 격려와 같은 학습관여행동을 적게 할수록 자녀의 학업열의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걱정성과 추구란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자녀를 참여시켜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데(조효제, 2020), 이는 곧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태도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거나 간섭하는 등 통제적인 태도를 적게 취할수록 자녀의 학업열의가 높아진다는 설명을 통해 학업열의와 부모의 양육 태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업무기력의 정의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선행 연구

학업무기력은 본인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 및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노력 자체를 그만두는 자포자기 상태를 의미한다(박병기 외, 2015). 학업무기력은 Seligman(1972)이 주장한 학습된 무기력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Seligman(1972)은 한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점차 무기력해지며 본인의 의지와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명명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박병기 외(2015)는 학습된 무기력을 더욱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학업 장면에서 경험하는 학습된 무기력을 ‘학업무기력(academic helplessness)’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학업무기력이란 다양한 학업 장면에서 지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여 학업에 대해 무력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재윤, 한희수, 박은영, 강민주, 2020).

학업무기력은 학교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복되는 실패경험으로 인해 무력감을 가지게 된 청소년은 부정적인 자아 형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며, 학교 밖에서도 음주 및 흡연 문제와 같이 다양한 비행행동들을 보인다(박시현, 2014). 또한 우울, 불안감, 대인기피증, 자신감 결여, 자기효능감 저하와 같은 정서 문제들을 유발하고 학업 중단, 약물 사용, 폭력 등과 같은 위험 행동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희수, 2006; 임경희, 2004; 전미애, 임세영, 2010; Määttä, Nurmi & Stattin, 2007; Washcbusch et al., 2003). 이뿐만 아니라, 학업무기력이 높을수록 학업적 스트레스가 높으며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강혜원, 김영희, 2004; 고재량, 변상해, 2014; 최효식, 신종호, 권수진, 최예은, 연은모, 2013; 정은, 2014).

그동안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에 비하면, 학업무기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조수현 외, 2018). 그러나 학업무기력을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학업 성취나 학업 부적응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금명자, 2008), 학업무기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업무기력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주소희, 2020),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 내적인 요인들부터 외부 환경적 요인들까지 매우 다양하다.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는 실패내성,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자아평가 그리고 자기효능감 등이 있다.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무기력 수준이 낮으며(서지혜, 이종숙, 2014; 유현숙, 선혜연, 2017; 최현정, 이동귀, 2019), 회복탄력성은 실패내성이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최현정, 이동귀, 2019). 또한, 자신의 능력을 낮게 지각하는 등 부정적인 자아평가가 이루어질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다(이경남, 1998).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이다(김성경, 우연경, 최영인, 2017; Grolnick et al., 1991). 부모는 청소년 자녀에게 중요한 지지체계이며, 이러한 지지체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따라 학업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에게 긍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주소희, 2020).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학업무기력과 상관이 있었으며, 부모와 자녀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자녀의 학업무기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유현숙, 설희연, 2017).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선택권을 많이 부여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해 줄 때에는 학습된 무기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정수자, 1997), 반대로 자녀에게 지시적이거나 엄격하게 대하는 등 통제력을 발휘하는 태도를 취할 때에는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금명자, 2008)가 보고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가 자녀의 학업과정에 과잉 통제나 과잉간섭을 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학업무기력도 유발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유정옥, 정문경, 2016).

3. 학업태도 프로파일에 관한 선행 연구

국내에는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한 연구는 없으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학업태도 프로파일에 대한 간접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 수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했다(전향신, 박분희, 2020; 최혜선, 한세영, 2021). Ki(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학업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강요-비일관성 유형의 부모를 둔 경우 학업열의가 낮고 학업무기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따스함-자율성 지지 유형의 부모를 둔 학생은 학업열의가 높고 학업무기력이 낮았다.

Ketonen(2016)과 그녀의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와 학업 비관여(Academic Disengagement)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열의 프로파일(Engaged), 비관여 프로파일(Disengaged), 미결정 프로파일(Undecided) 그리고 소외 프로파일(Alienated)로 구성되었다. 열의 프로파일의 경우 학업열의와 흥미가 높았으며, 비관여 프로파일의 경우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었다. 미결정 프로파일의 경우 학업에 대한 흥미는 존재하였으나 진로 미결정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외된 프로파일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학업 소진이 크게 나타났다. 자기 통제 능력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열의 수준과 진로 결정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4.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강요가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부모의 태도 및 행동 경향성으로,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김신정, 김영희, 2007). 이는 자녀의 성격, 가치관, 자아개념과 같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며(허묘연, 2004; Darling & Steinberg, 1993), 특히 자녀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일차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Rohner, 1986;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부모의 양육태도는 크게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일관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kinner, Johnson & Snyder, 2005).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녀의 학업태도, 구체적으로는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Lee & Jeon, 2020). 유정옥과 정문경(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환경적 변인이라고 설명하였고, 김종운과 김유진(200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 합리적, 성취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완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정희(2004)는 부모의 강제적이며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꼽았으며, 부모가 가정 내에서 과잉통제,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동기가 저하되며 결과적으로 학업무기력을 유발하는 반면(Vallerand, Fortier & Guay, 1997),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적절한 구조를 제공해주는 등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줄 때에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 수준과 학업 흥미 수준, 그리고 학업열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영미, 2020).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가 보이는 양육태도와 그로부터 비롯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 자녀의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것처럼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지에 따라 자녀의 학업태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이 모두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 또한 찾아볼 수 있었으며(권미나, 이진숙, 2020), 오히려 긍정적 양육태도보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수현, 이강이, 2017). 그러나, 이전 연구들이 횡단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 양육태도가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중학생의 학업태도 프로파일의 특징과 발달 궤적, 그리고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 패널 데이터 1차~3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설문에 응답한 중학교 패널 2,590명이다. 학년별 학업태도의 잠재 프로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각 차시의 학업태도 변수를 잠재 변수로 활용하였고, 공변인으로 투입된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로는 1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일 뿐만 아니라 (김진아, 2016; Bornstein, Putnick, & Suwalsky, 2019), 연구 모형의 간명함과 잠재 전이 분석에 적합한 모형 설정을 위해 1차년도 양육태도 점수만을 공변인으로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학업태도 중 학업열의를 측정하기 위해 이자영과 이상민(201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학업열의척도 16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업무기력은 박병기 등(2015)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업무기력 척도 16문항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 지지와 강요를 측정하기 위해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개발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하위 8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그리고 양육태도의 하위 척도는 4개의 문항이며,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네 문항의 합을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척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기술적 통계치, 그리고 문항 신뢰도를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학업태도 및 양육 태도 측정 문항

	척도	변수(문항수)	문항 예시
학업 태도	학업열의 (이자영, 이상민, 2012)	헌신(4)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활기(4)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효능감(4)	나는 공부를 잘한다.
		몰두(4)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
	학업무기력 (박병기 외,	통제신념 결여(4) 학습동기 결여(4)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2015)	긍정정서 결여(4)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능동수행 결여(4)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지 않는다.
양육태도	자율성 지지(4)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김태명, 이은주, 2017)	강요(4)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표 2.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계수 및 문항 신뢰도

변수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m1int1	11.56	2.51	(.840)																									
2. m1int2	8.68	2.69	.625**	(.885)																								
3. m1int3	9.70	2.93	.505**	.513**	(.905)																							
4. m1int4	9.61	2.59	.582**	.610**	.601**	(.827)																						
5. m1int5	7.17	2.36	-.414**	-.216**	-.336**	-.304**	(.867)																					
6. m1int6	7.85	2.96	-.625**	-.493**	-.416**	-.475**	.570**	(.904)																				
7. m1int7	7.38	2.32	-.528**	-.460**	-.401**	-.439**	.537**	.699**	(.753)																			
8. m1int8	7.80	2.57	-.522**	-.426**	-.426**	-.443**	.476**	.643**	.664**	(.783)																		
9. m2int1	11.20	2.38	.389**	.287**	.284**	.288**	-.193**	-.299**	-.291**	-.284**	(.819)																	
10. m2int2	8.85	2.66	.280**	.345**	.276**	.270**	-.106**	-.253**	-.259**	-.254**	.563**	(.887)																
11. m2int3	9.58	2.54	.294**	.290**	.520**	.343**	-.198**	-.290**	-.287**	-.318**	.499**	.531**	(.865)															
12. m2int4	9.69	2.38	.278**	.277**	.324**	.351**	-.137**	-.232**	-.238**	-.270**	.543**	.616**	.621**	(.802)														
13. m2int5	7.65	2.24	-.187**	-.118**	-.184**	-.138**	.275**	.224**	.223**	.210**	-.311**	-.031	-.202**	-.180**	(.835)													
14. m2int6	8.12	2.79	-.308**	-.252**	-.264**	-.235**	.208**	.354**	.326**	.333**	-.554**	-.371**	-.366**	-.389**	.542**	(.890)												
15. m2int7	7.80	2.28	-.268**	-.249**	-.236**	-.213**	.218**	.297**	.379**	.323**	-.469**	-.284**	-.323**	-.346**	.542**	.670**	(.754)											
16. m2int8	7.95	2.64	-.281**	-.208**	-.260**	-.230**	.204**	.283**	.309**	.409**	-.468**	-.273**	-.395**	-.373**	.434**	.640**	.665**	(.821)										
17. m3int1	11.15	2.35	.306**	.198**	.245**	.236**	-.182**	-.252**	-.233**	-.248**	.413**	.255**	.281**	.283**	-.190**	-.315**	-.271**	-.284**	(.808)									
18. m3int2	8.54	2.71	.181**	.260**	.199**	.225**	-.083**	-.191**	-.172**	-.216**	.296**	.370**	.301**	.274**	-.049*	-.221**	-.177**	-.218**	.537**	(.897)								
19. m3int3	9.30	2.67	.219**	.187**	.412**	.284**	-.187**	-.212**	-.219**	-.254**	.289**	.265**	.510**	.339**	-.171**	-.249**	-.226**	-.284**	.474**	.521**	(.886)							
20. m3int4	9.38	2.55	.236**	.219**	.286**	.304**	-.129**	-.186**	-.197**	-.231**	.284**	.250**	.324**	.390**	-.168**	-.258**	-.235**	-.267**	.561**	.611**	.640**	(.833)						
21. m3int5	7.61	2.31	-.174**	-.086**	-.155**	-.155**	.225**	.180**	.196**	.163**	-.198**	-.005	-.168**	-.159**	.326**	.232**	.256**	.229**	-.339**	-.0019	-.225**	-.190**	(.847)					
22. m3int6	7.98	2.74	-.247**	-.177**	-.209**	-.211**	.197**	.296**	.251**	.273**	-.333**	-.215**	-.264**	-.275**	.235**	.415**	.318**	.334**	-.526**	-.293**	-.344**	-.350**	.520**	(.876)				
23. m3int7	7.97	2.28	-.222**	-.163**	-.210**	-.201**	.195**	.223**	.265**	.234**	-.285**	-.190**	-.240**	-.250**	.223**	.330**	.385**	.330**	-.444**	-.272**	-.336**	-.346**	.490**	.629**	(.753)			
24. m3int8	7.86	2.65	-.218**	-.140**	-.244**	-.203**	.193**	.249**	.255**	.332**	-.274**	-.215**	-.276**	-.272**	.178**	.339**	.310**	.428**	-.409**	-.230**	-.352**	-.317**	.411**	.614**	.650**	(.831)		
25. m1fam3	13.39	2.32	.332**	.257**	.225**	.235**	-.303**	-.319**	-.339**	-.294**	.165**	.122**	.139**	.116**	-.120**	-.168**	-.165**	-.180**	.142**	.066**	.097**	.092**	-.131**	-.164**	-.137**	-.139**	(.884)	
26. m1fam4	8.72	2.61	-.187**	-.113**	-.105**	-.086**	.256**	.257**	.267**	.216**	-.104**	-.082**	-.086**	-.100**	.130**	.129**	.140**	.099**	-.086**	-.049*	-.052**	.090**	.104**	.113**	.130**	-.403**	(.776)	

Note. 각 차시 별 하위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계수. 대각선 괄호 안의 값은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를 나타냄. m1 = 중1; m2 = 중2; m3 = 중3; int1 = 현신; int2 = 활기; int3 = 효능감; int4 = 몰두; int5 = 통제신념 결여; int6 = 학습동기 결여; int7 = 긍정정서 결여; int8 = 능동수행 결여; fam3 = 자율성 지지; fam4 = 강요; E.g., m1int1 = 중학교 1학년 집단의 현신 척도.

* $p < .05$. ** $p < .01$.

1. 연구 모형

각 차시에서 확인된 잠재프로파일을 토대로, 시점에 따른 전이 확률을 추정하고 공변인이 각 시점의 전이 확률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Muthén, & Muthén, 1998-2017). 각 차시의 학업태도 하위 척도를 잠재 변인으로 활용하여 각 학년의 잠재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1차시에 측정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강요를 공변인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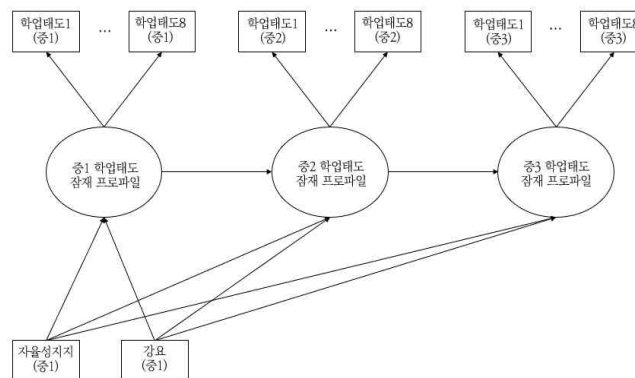


그림 1. 잠재전이분석 연구모형

2. 분석 방법

중학생의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고, 발달 궤적에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사용하였다. 혼합 모형 중의 하나인 잠재전이분석은 종단적으로 측정된 잠재 변수로 개인이 속한 잠재 집단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Collins & Wugalter, 1992; Reboussin, Reboussin, Liang & Anthony, 1998). 즉, 잠재 집단으로 분류된 개인이 시점에 따라 다른 집단에 속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각 시점에서 어떤 잠재집단에 개인이 속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잠재 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잠재전이분석은 범주형 변수를 잠재변수로 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종단적으로 확장한 연구이나(Muthén, & Muthén, 1998-2017),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속형 변수를 잠재 변수로 한 잠재프로파일(latent profiles)을 활용하기도 한다(Hickendorff, Edelsbrunner, McMullen, Schneider & Trezise, 2018; Kam, Morin, Meyer & Topolnytsky, 2016; Gillet, Morin, & Reeve, 2017). 본 연구에

서 잠재 변수로 활용하는 학업태도는 연속형 범주이므로, 잠재프로파일에 기반한 잠재전이분석을 수행하였다.

3-step LTA(Asparouhov & Muthén, 2014)는 보조 변수나 공변량을 투입하는 등의 특정 경우에서 모델을 추정할 때 표본의 잠재집단이 바뀌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Bakk & Vermunt,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 BCH LTA를 활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20; Bakk, Tekle & Vermunt, 2013; Vermunt, 2017). BCH LTA는 잠재 집단에 속할 확률 대신 각 케이스에 BCH 가중치를 할당한다는 점에서 3-step LTA와 차이가 있다. BCH LTA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각 시점에서 최적의 잠재 집단의 수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각 표본에 BCH 가중치를 부여한 뒤, 마지막으로 LTA 모델을 추정한다(Asparouhov & Muthén, 2020).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의 수에 따른 정보지수와 분류의 무질서도, 우도비 검정(Likelihood-ratio test; LR test) 결과를 비교하였다(Tein, Coxe, & Cham, 2013). 먼저, 정보지수로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3, 1998),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z, 1978), 그리고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Sclove, 1987)를 활용하였다. AIC¹⁾, BIC²⁾, 그리고 SABIC³⁾는 최대 우도 추정법에서 유도되는 정보지수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BIC와 SABIC가 더 선호된다(Tein et al., 2013). 정보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값은 계속해서 작아지기 때문에, 정보지수의 감소율이 줄어드는 엘보 포인트(elbow point)를 최적점으로 상정하였다(Kodinariya & Makwana, 2013; Shi, et al., 2021).

무질서도를 비교하기 위해 Entropy 지수를 활용하였다(Celeux & Soromenho, 1996). Entropy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높을수록 분류가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8 이상의 값일 때 분류 결과가 우수하다고 평가한다(Celeux & Soromenho, 1996).

우도비 검정으로는 Lo-Mendell-Rubin 우도비 검정(LRT; Lo, Mendell, & Rubin, 2001)과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정(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BLRT; McCutcheon, 1987; McLachlan & Peel, 2000)을 사용하였다. 우도비 검정은 잠재프로파일이 k개인 모형과 k-1개인 모형의 우도비 차이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LRT와 BLRT가 기각될 때 k-1개의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1) $AIC = -2LL - 2m$. LL = Log likelihood. m = 변수의 개수

2) $BIC = -2LL + m * \ln(n)$. n = 표본의 크기

3) $BIC = -2LL + m * \ln(n * ((n+2)/24))$.

무작위 결측임을 확인하여(Little's MCAR = .202), Schafer와 Graham(2002)의 제안에 따라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다. 다중대체법은 원자료와 보조 변수들의 분포를 활용해 결측치를 대체하기 때문에, 결측 사례를 삭제하거나 평균 값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추정이 효과적이다(Schafer, 1997). SPSS 25.0(IBM Corp., 2017)으로 데이터를 다루었고, Mplus 8.6(Muthén, & Muthén, 1998-2017)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잠재프로파일분석

1)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각 시점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시점별로 프로파일 수를 달리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엘보 포인트를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 시각화하였다. 중학교 1학년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정보지수의 엘보 포인트는 프로파일이 세 개일 때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RT와 BLRT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였으며 Entropy는 모든 분석에서 0.8 이상이었으나 프로파일이 세 개일 때 가장 높았다. 따라서, 정보지수와 Entropy를 고려하여 세 개의 잠재프로파일로 결정했다.

중학교 2학년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엘보포인트는 세 잠재프로파일에서 존재하였고, BLRT는 모두 유의하였으나 LRT는 프로파일이 다섯 개일 때부터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Entropy는 중학교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잠재프로파일에서 0.8 이상이었으나, 잠재프로파일이 세 개일 때 가장 높았다. 정보지수와 Entropy를 고려하여 세 개의 잠재프로파일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중학교 3학년의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는 엘보포인트가 잠재프로파일이 세 개일 때로 확인되었다. BLRT는 모두 유의하였으나, LRT는 잠재프로파일이 다섯 개일 때부터 유의하지 않았다. Entropy는 잠재프로파일이 네 개일 때 가장 높았다. Tein 등(2013)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AIC와 BIC가 Entropy보다 모델의 적절성을 더 잘 평가한다고 가정하였고 세 개의 잠재프로파일에서 BIC 엘보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세 개의 잠재프로파일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표 3. 학년별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학년	Profile	AIC	BIC	ABIC	LRT	BLRT	Entropy
중1 (2018)	2	92810.73	92957.22	92877.79	< 0.001	< 0.001	0.829
	3	90324.48	90523.7	90415.67	< 0.001	< 0.001	0.877
	4	89589.49	89841.44	89704.818	< 0.01	< 0.001	0.842
	5	88976.616	89281.305	89116.087	< 0.01	< 0.001	0.82
중2 (2019)	2	91622.023	91768.508	91689.076	< 0.001	< 0.001	0.832
	3	89738.199	89937.419	89829.392	< 0.001	< 0.001	0.875
	4	88632.899	88884.854	88748.231	< 0.001	< 0.001	0.844
	5	88095.604	88400.294	88235.075	0.07	< 0.001	0.814
중3 (2020)	2	92811.145	92957.630	92878.198	< 0.001	< 0.001	0.806
	3	91348.843	91548.063	91440.035	< 0.001	< 0.001	0.815
	4	90384.305	90636.259	90499.636	< 0.01	< 0.001	0.835
	5	89581.283	89885.973	89720.754	0.13	< 0.001	0.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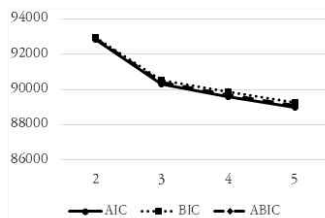


그림 2. 중1 정보지수
엘보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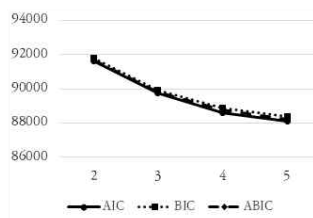


그림 3. 중2 정보지수
엘보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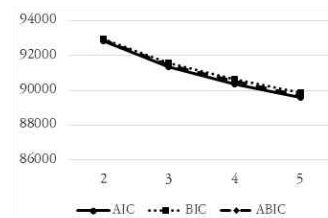


그림 4. 중3 정보지수
엘보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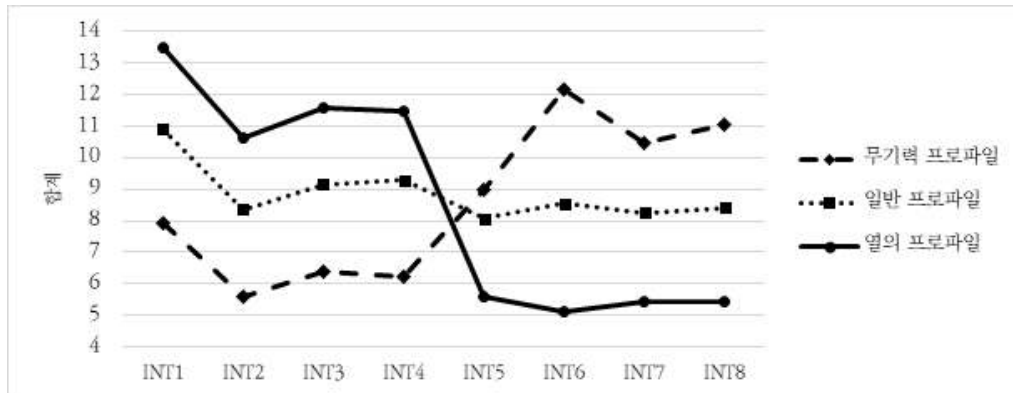
모든 시점에서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같아 측정동일성 검증(measurement invariance test)을 수행하였으나 측정동일성은 지지되지 않았다($\Delta\chi^2(48) = 393.54$). 다만 카이제곱 검정은 표본 수가 매우 크거나 범주형 변수가 많을 때 1종 오류가 높아질 수 있다(Bergh, 2014; McHugh, 2013). 따라서,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지수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제약모델의 Entropy가 더 높기 때문에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표 4.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의 정보지수와 무질서도

	AIC	BIC	ABIC	Entropy
비제약모델	271411.518	272009.178	271685.096	0.856
제약모델	271784.659	272101.067	271929.494	0.867

2) 중학생의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

제약모델을 통해 추정된 잠재프로파일에 대한 정보를 <표 5>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측정동일성 제약으로 모든 시점에서 평균과 표준오차는 동일하다.



Note. int1 = 헌신; int2 = 활기; int3 = 효능감; int4 = 몰두; int5 = 통제신념 결여; int6 = 학습동기 결여; int7 = 긍정정서 결여; int8 = 능동수행 결여

그림 5. 중학생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

첫 번째 프로파일은 학업열의 수준이 가장 낮고 무기력 수준이 높아 무기력 프로파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프로파일은 평균 수준의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수준을 보여 일반 프로파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프로파일은 높은 열의 수준을 보이고 낮은 무기력 수준을 보여 열의 프로파일로 명명하였다.

표 5.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 평균 및 표준오차

학업태도 변수	무기력 프로파일	일반 프로파일	열의 프로파일
	M (SE)	M (SE)	M (SE)
헌신	7.901(.16)	10.913(.05)	13.482(.07)
활기	5.577(.13)	8.358(.06)	10.638(.09)
효능감	6.402(.14)	9.150(.06)	11.567(.09)
몰두	6.239(.16)	9.296(.06)	11.482(.08)
통제신념 결여	8.985(.14)	8.080(.04)	5.606(.06)
학습동기 결여	12.139(.23)	8.554(.06)	5.135(.06)
긍정정서 결여	10.449(.15)	8.253(.05)	5.444(.06)
능동수행 결여	11.053(.17)	8.418(.06)	5.454(.06)

〈표 5〉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프로파일에서 학업열의 하위척도 중 헌신이 가장 높았으며($M_{\text{무기력}} = 7.901; M_{\text{일반}} = 10.913; M_{\text{열의}} = 13.482$), 활기가 가장 낮았다($M_{\text{무기력}} = 5.577; M_{\text{일반}} = 8.358; M_{\text{열의}} = 10.638$). 무기력 프로파일에서는 학업무기력 중 학습동기 결여가 가장 높았다($M = 12.139$). 다음으로 능동수행 결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M = 11.053$), 이를 통해 무기력 프로파일은 학업에 대한 동기가 결여되어 있고 학업에 대한 주도적인 태도가 다른 프로파일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학습무기력 하위 척도에 비해 통제신념 결여 정도는 낮다는 것이 특징적이다($M = 8.985$).

일반 프로파일은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의 정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일반 프로파일의 경우 통제신념 결여의 정도가 무기력 프로파일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M_{\text{무기력}} = 8.985; M_{\text{일반}} = 8.08$). 열의 프로파일은 학업에 대한 열의가 평균 이상이었으며, 학업무기력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또한 학업에 대한 헌신이 매우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학업에서 얻는 에너지 수준인 활기는 낮았다($M_{\text{헌신}} = 13.482; M_{\text{활기}} = 10.638$).

표 6. 학년에 따른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 비율

	무기력 프로파일	일반 프로파일	열의 프로파일
중1	12.0%	54.5%	33.4%
중2	11.0%	62.0%	27.1%
중3	11.2%	64.0%	24.8%

〈표 6〉에 각 시점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비율을 제시하였다. 모든 시점에서 일반 프로파일이 가장 많고(중1=54.5%; 중2=62.0%; 중3=64.0%), 열의 프로파일(중1=33.4%; 중2=27.1%; 중3=24.8%)과 무기력 프로파일(중1=12.0%; 중2=11.0%; 중3=11.2%)이 뒤를 이었다. 일반 프로파일의 비율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상승세는 낮아진다. 열의 프로파일의 비율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무기력 프로파일의 비율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2. 잠재전이분석

1) 학년에 따른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의 전이확률

표 7. 시점별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 전이확률

		중2		
		무기력 프로파일	일반 프로파일	열의 프로파일
중1	무기력 프로파일	39.7%	53.2%	7.1%
	일반 프로파일	9.1%	73.7%	17.2%
	열의 프로파일	3.1%	47.5%	49.5%
		중3		
		무기력 프로파일	일반 프로파일	열의 프로파일
중2	무기력 프로파일	48.4%	49.2%	2.4%
	일반 프로파일	7.9%	76.8%	15.3%
	열의 프로파일	3.8%	41.8%	54.4%

〈표 7〉은 학년에 따른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 전이 확률을 나타낸다. 중학교 1학년의 일반 프로파일이 중학교 2학년 때 일반 프로파일에 잔류할 확률이 73.7%였으며, 무기력 프로파일이 될 가능성(9.1%)보다 열의 프로파일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17.2%). 무기력 프로파일의 경우 일반 프로파일이 될 확률이 53.2%로 가장 높았고 무기력 프

로파일에 잔류할 확률이 39.7%로 열의 프로파일로 이동할 확률(7.1%)보다 컸다. 열의 프로파일은 열의 프로파일에 잔류할 확률이 49.5%로 가장 컸으나 일반 프로파일로 이동할 확률과 비슷하였으며(47.5%), 무기력 프로파일로는 거의 이동하지 않았다(3.1%).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일반 프로파일의 잔류율이 76.8%였고, 열의 프로파일과 무기력 프로파일로 전이될 확률이 각각 15.3%와 7.9%였다. 무기력 프로파일의 경우 잔류율이 48.4%로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증가하였고, 일반 프로파일로 전이 확률이 49.2%, 열의 프로파일로의 전이 확률이 2.4%였다. 열의 프로파일의 경우 잔류율이 54.4%였으며 일반 프로파일로 이동할 확률은 41.8%, 무기력 프로파일로 이동할 확률이 3.8%였다.

2) 학업태도 발달 궤적

〈표 8〉은 시간에 따라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이 변화하는 양상의 비율과 사례 수를 보여준다. 가장 일반적인 발달 궤적은 중학생 기간 동안 일반 프로파일에 머무는 것이다. 중학교에 있는 동안 일반 프로파일에 머물 확률이 30.7%로 열의 프로파일에 머물 확률(8.8%)과 무기력 프로파일에 머물 확률(2.2%)보다 높았다. 중학교 1학년 때 무기력 프로파일인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열의 프로파일이 될 확률은 전체에서 1.4%로 굉장히 드물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학업열의 프로파일 학생들이 무기력 프로파일로 이동하는 전체 집단 중에서 일반 프로파일을 거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이 중에서 약 11%는 일반 프로파일을 거쳐 다시 열의 프로파일로 돌아왔다. 이를 통해, 일반 프로파일이 학업무기력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의 발달 궤적

발달 궤적	비율 (사례 수)	발달 궤적	비율 (사례 수)	발달 궤적	비율 (사례 수)
2 - 2 - 2	30.7% (n = 795)	2 - 1 - 2	3.4% (n = 87)	3 - 3 - 1	0.5% (n = 14)
3 - 2 - 2	11.4% (n = 296)	2 - 2 - 1	3.0% (n = 77)	1 - 3 - 3	0.5% (n = 12)
3 - 3 - 3	8.8% (n = 227)	1 - 1 - 1	2.2% (n = 56)	1 - 3 - 2	0.4% (n = 10)
3 - 3 - 2	6.2% (n = 161)	1 - 1 - 2	1.9% (n = 49)	2 - 3 - 1	0.4% (n = 10)
2 - 2 - 3	6.1% (n = 157)	2 - 1 - 1	1.8% (n = 47)	2 - 1 - 3	0.3% (n = 7)
2 - 3 - 2	5.5% (n = 143)	1 - 2 - 1	1.4% (n = 35)	3 - 1 - 1	0.2% (n = 5)
1 - 2 - 2	4.6% (n = 120)	3 - 1 - 2	0.9% (n = 23)	1 - 1 - 3	0.2% (n = 4)
2 - 3 - 3	4.3% (n = 112)	3 - 2 - 1	0.9% (n = 23)	1 - 3 - 1	0.1% (n = 3)
3 - 2 - 3	3.8% (n = 99)	1 - 2 - 3	0.7% (n = 17)	3 - 1 - 3	0.0% (n = 1)

Note. 1=무기력 프로파일; 2=일반 프로파일; 3=열의 프로파일.

3)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강요가 전이 확률에 미치는 영향

〈표 9〉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시점에 따른 학업태도 전이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승산비(Odd Ratio; OR)로 나타낸 것이다. 승산비는 준거집단을 기준으로 승산비 만큼 더 많이 혹은 적게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예컨대, 부모의 자율성 지지 총점이 1점 높아질 때마다 중학교 2학년에서 무기력 프로파일인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열의 프로파일로 이동할 확률이 잔류할 확률보다 1.106배 커진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에 열의 프로파일인 학생이 중3에 열의 프로파일에 잔류할 확률보다 무기력 프로파일로 이동할 확률이 0.904배 낮아진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일 때, 일반 프로파일에서 중학교 3학년 열의 프로파일로 이동할 승산비가 1.107이고, 열의 프로파일일 때 일반 프로파일로 이동할 승산비가 0.90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강요가 전이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표 10〉에 제시하였다. 흥미롭게도 자율성 지지와는 달리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학교 1학년 때에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의 강요 총점이 1점 높아질 때마다 중학교 1학년에서 무기력 프로파일인 학생이 열의 프로파일로 이동할 확률이 잔류할 확률보다 0.923배 낮다. 일반 프로파일일 때 열의 프로파일로 이동할 승산비가 0.945로 유의하였다. 반대로, 중학교 1학년 때 열의 프로파일인 학생의 경우 부모의 강요가 1점 높아질 때마다 무기력 프로파일로 이동할 위험이 1.084배 커졌다. 또한 열의 프로파일에서 일반 프로파일로 이동할 확률이 1.059 높았다.

표 9.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학업태도 전이확률에 미치는 영향(승산비)

		중2		
		무기력 프로파일	일반 프로파일	열의 프로파일
중1	무기력 프로파일	1.000	1.036	1.052
	일반 프로파일	0.965	1.000	1.015
	열의 프로파일	0.951	0.985	1.000
		중3		
		무기력 프로파일	일반 프로파일	열의 프로파일
중2	무기력 프로파일	1.000	0.999	1.106*
	일반 프로파일	1.001	1.000	1.107*
	열의 프로파일	0.904*	0.904*	1.000

Note. * $p < .05$.

표 10. 부모의 강요가 자녀의 학업태도 전이확률에 미치는 영향(승산비)

		중2		
		무기력 프로파일	일반 프로파일	열의 프로파일
중1	무기력 프로파일	1.000	0.977	0.923*
	일반 프로파일	1.024	1.000	0.945*
	열의 프로파일	1.084*	1.059*	1.000
		중3		
		무기력 프로파일	일반 프로파일	열의 프로파일
중2	무기력 프로파일	1.000	1.035	0.996
	일반 프로파일	0.966	1.000	0.962
	열의 프로파일	1.004	1.039	1.000

Note. * $p < .0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시점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발달 궤적과 전이확률에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강요가 미치는 영향을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논의와 비교하여 의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중학생의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은 무기력, 일반, 그리고 열의 프로파일로 구성된다는 것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학업태도의 잠재 프로파일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특징적인 것은, 모든 프로파일에서 학업열의 중 현신이 가장 높고 활기가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 문제 1번에 대해 중학생 집단에서 학업에 대한 노력과 보상의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활기의 응답 문항을 살펴보면, 공부를 하면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얻거나 힘을 얻는지를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활기에서 낮은 점수로 응답했다는 뜻은 공부를 하면서 적절한 심리적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소진을 촉진하고 무기력을 악화시킬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노력-보상 불균형(Effort-Reward Imbalance; ERI; Siegrist, 1996; Siegrist et al., 2004) 모델에 따르면, 학습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보상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쉽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Fukuda et al., 2010).

실제로, 열의 프로파일은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중학생 전체 집단에서 무기력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 문제 2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학생들의 전반적인 무기력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열의 프로파일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변화할 때 학업열의가 높아지고 같은 학교급 내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업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밝힌

이전 연구를 지지한다(이자영, 2013).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업열의가 감소하는 패턴은 무기력이 증가하는 패턴과 동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논의했듯이, 이러한 경향성은 학업에 대한 소진과 피로감이 학년이 높아지며 증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Salmela-Aro, Kiuru & Nurmi, 2008). 또한, 열의 프로파일과 무기력 프로파일에서 학습동기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학업소진은 학업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Lee, Lee, Lee & Lee, 2020), 보상의 불충분함이 학업소진을 촉진하여 동기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학생들이 헌신적으로 공부에 몰두하지만 학업에 대한 심리적 보상 체계가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 쉽게 동기가 약화되고 심리적 피로감을 느끼며 소진될 수 있다는 설명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무기력 수준을 낮추고 열의를 유지시키기 위해 학업에 대한 심리적 보상 체계가 적절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잠재전이분석으로 중학생의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의 전이확률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모두 일반 프로파일에서의 잔류율이 70%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무기력 프로파일의 잔류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모든 프로파일에서 잔류율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중학생 시기에는 고학년일수록 학업태도 프로파일의 변화 가능성이 낮아진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학업에 대한 태도는 지남에 따라 더 공고화되고 안정화 된다는 이전의 종단 연구를 지지한다(Gottfried, Fleming, & Gottfried et al., 2001). 따라서, 무기력한 태도에 대한 개입은 빠른 시기에 이뤄질수록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Calear & Christensen, 2010).

세 번째로, 열의 프로파일에서 무기력 프로파일로 이동하는 학생들은 곧바로 무기력 프로파일로 이동하기보다는 일반 프로파일을 거쳐가는 경향이 보였으며, 이들 중에서는 다시 열의 프로파일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11%에 달했다. 즉, 발달궤적을 통해 열의 프로파일 학생이 무기력 프로파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반 프로파일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일반 프로파일과 열의 프로파일 학생들을 위한 선별적 개입을 통해 이들의 학업태도가 무기력해지는 것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예컨대, 열의 프로파일은 무기력 프로파일에 비해 동기와 통제신념이 높다는 점에서, 열의 프로파일과 일반 프로파일 학생들이 동기 수준을 유지하고 적절한 통제신념을 갖도록 도움 수 있다. 실제로, 동기가 학업열의를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뒷받침 된다(이현아, 조한익, 2013; 장윤옥, 정서린; 2017; Stober et al., 2011).

높은 통제신념은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 모두를 예측하기 때문에 통제신념 발달을 위한 개입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학습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며 수행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들이 학업열의를 높이고 우수한 학업 성취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Kirby, 1984; Lenz, Ellis, & Scanlon, 1996;

Zimmerman, Greenberg, & Weinstein, 1994). 반면에, 너무 높은 통제신념은 오히려 완벽주의를 통해 학업열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조한익, 이현아, 2009; 조한익, 이현아, 2010; Zhang, Gan, & Cham, 2007). 예를 들면, 적응적인 완벽주의는 부족함을 빠르게 수용하고 더 적극적인 학업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Enns, Cox, Sareen & Freeman, 2001),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의 경우 학업지연 행동이 잦아질 수 있다(Rice, Richardson, & Clark, 2012). 따라서, 열의 프로파일과 일반 프로파일 학생을 대상으로 통제신념이 지나쳐 학업에 방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통제신념 수준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이들이 적응적인 완벽주의를 발달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강요가 자녀의 학업태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기력 프로파일과 일반 프로파일 학생의 경우 부모의 자율성 지지 점수가 1점 높아질수록 중학교 3학년이 될 때 해당 프로파일에 잔류할 확률보다 열의 프로파일로 이동할 가능성이 약 1.1배 높아졌다. 또한, 열의 프로파일 학생은 무기력 프로파일과 일반 프로파일로 이동할 가능성이 약 0.9배 낮아졌다. 강요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 무기력과 일반 프로파일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강요가 1점 높아질수록 잔류할 확률보다 열의 프로파일로 이동할 확률이 각각 0.92배와 0.94배로 낮았다. 또한, 열의 프로파일 학생이 무기력이나 일반 프로파일로 이동하도록 촉진했다($OR_{\text{무기력}} = 1.084$; $OR_{\text{일반}} = 1.059$). 이는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주고 적절한 구조를 제공해주는 자율성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열의를 높이고 무기력을 낮추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부적응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열의를 낮추고 무기력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Ki, 2021; 최혜선, 한세영, 2021; 임효진, 이소라, 2020; 최영미, 2020). 특히, 지지적인 양육태도와 강요하는 양육태도가 학업태도 변화에 미치는 결정적인 시기가 달랐다는 점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때에 맞는 맞춤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부모들을 대상으로는 덜 강요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중학교 2학년 부모들을 대상으로는 건강하게 지지하는 방법을 교육해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부모 교육의 시의 적절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문옥, 심미영, 2011; 김지은, 2002), 이러한 결과는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열의 프로파일 학생들이 무기력 프로파일로 이동하는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서술했듯, 학업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에 비해 심리적인 보상이 적게 주어져 동기를 약화시키고, 이러한 결과가 학업 소진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질적·양적 방법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Eum 등(2007)이 개발한 한국형 노력-보상 불균형 척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또한,

열의 프로파일과 일반 프로파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제신념과 동기 발달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과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업태도 프로파일을 식별하여 열의 프로파일과 일반 프로파일을 식별한 뒤에, 각각을 대상으로 한 동기 및 통제신념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학업태도 프로파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효과성을 검증해볼 수 있다. 이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일반 프로파일이 열의 프로파일의 완충지대가 되는지도 추가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기력 프로파일 학생들의 정서적 특징과 진로 결정 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적응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나 진로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실제로 Ketonen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태도와 진로 결정 상태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학업에서 무기력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김희수, 2006; 임경희, 2004; Määttä et al., 2007),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업태도를 구성하는 학업열의와 무기력을 활용해 학업태도의 잠재프로파일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학생의 학업태도를 이해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업태도 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태도 발달 궤적을 추적하여 중학생 시기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으며, BCH LTA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전이확률과 이에 영향을 주는 양육태도 요인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도 크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교육과 부모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정책적 기여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학업태도가 실제 성취로 이어지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각 학업태도 잠재프로파일이 실제 학업 성취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외에도 학생의 정서와 같은 내재적 요인이 학업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을 고려한 연구 모형 설계가 필요하다. 혹은 Ketonen 등(2016)의 연구처럼 학업태도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진로 결정 변수 등을 추가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다시 수행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중학생의 학업태도 발달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데이터를 추가로 포함하며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혜원, 김영희. (2004). 학업스트레스 및 성적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883-897.
- 고재량, 변상해. (2014).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및 학습된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1(7), 27-54.
- 권은경. (2020). 중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관련 변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1), 123-127.
- 권미나, 이진숙.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그릿, 학업열의, 스마트폰 의존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및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29-44.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99-317.
- 김성경, 우연경, 최영인. (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주도성 및 학업성취의 종단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23(3), 199-223.
-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용래, 이해원. (1996). 평가적 차원의 태도 구조 탐색 및 적응과의 관계연구. **교육연구논총**, 13, 5-26.
- 김재윤, 한희수, 박은영, 강민주. (2020).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의 순차적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4), 601-611.
- 김종운, 김유진. (2009).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0(1), 455-468.
- 김지은. (2002). 영아기 부모교육 내용선정을 위한 요구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 0(28), 225-243.
- 김진아. (2016).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 **상담학연구**, 17(2), 303-326.
- 김태정, 장형심. (2020). 부모의 설명제공 및 과잉간섭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학업태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121-140.
- 김혜원, 장윤옥. (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4(5), 99-117.
- 김희수. (2006).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이 정신건강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4(2), 77-93.

모상현. (2010). 청소년 학업스트레스 유발변인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자아존중감과 의사결정 자율성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7(2), 49-66.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박시현. (2014), 청소년의 학습된 무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행동연구**, 19, 99-125.

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자살예방백서**.

서지혜, 이종숙. (2014).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429-457.

손원숙, 배주현. (2014),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와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253-272.

송윤희. (2015). 대학생의 감사성향과 학업열의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109-128.

여성가족부. (2014). **전국 청소년 상담 내용 및 대상현황**. 여성가족부.

염혜선, 이은주. (2020). 중학생의 학업열의, 또래관계 질, 공격성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의 시너지 효과. **교육심리연구**, 34(3), 521-541.

원경림, 이희종. (2019). 청소년기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끼치는 영향에서 학교유대감,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교사유대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9), 79-104.

유정옥, 정문경.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0), 73-95.

유현숙, 선혜연. (2017).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학업무기력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223-239.

이경님. (1998),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과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6, 35-58.

이명진, 봉미미. (2013).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연구**, 51, 77-105.

이문옥, 심미영. (2011). 예비부모의 자녀출산 및 양육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261-286.

이상섭, 조홍식. (2015). 체육수업에서 교사-학생관계 및 교우관계가 학생들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4(5), 1079-1090.

- 이상우. (2010).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지지,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심리욕구, 학업성취도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학논총**, 31(1), 45-68.
- 이수현, 이강이. (2017). 부모의 행동적,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성취가치 발달 궤적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2), 109-134.
- 이자영. (2013). 학년에 따른 학업열의의 잠재평균 차이 검증. **청소년학연구**, 20(2), 1-21.
- 이자영, 이상민. (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 이현아, 조한익. (2013). 완벽주의와 학업열의 및 학업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575-601.
- 임경희. (2004). 가정, 학교 및 개인변인과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473-507.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 임효진, 이소라. (2020). 그릿(Grit)을 매개로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부모, 교사, 교우 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초등교육**, 13(1), 109-127.
- 장윤옥, 정서린. (2017).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65(1), 195-223.
- 전미애, 임세영. (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관계.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5(1), 1-19.
- 전향신, 박분희. (2020). 어머니그릿, 자녀그릿,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8), 329-355.
- 정수자. (1997). 가정변인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11(3), 225-242.
- 정은. (2014). 무기력의 심리에 관한 신경과학적 접근. **교육의 이론과 실천**, 19(3), 115-145.
- 조수현, 이민영, 이장희, 이상민. (2018). 고등학생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연구: 직무요구-자원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3), 1-26.
- 조한익, 이현아. (2009).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 있어서 내외통제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6(11), 1-23.
- 조한익, 이현아. (2010).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2), 131-154.
- 조한익, 이현아. (2013). 완벽주의와 학업열의 및 학업소진과의 관계: 동기와 목표과정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5(3), 575-601.

- 조효제. (2020).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을 매개로, **한국교육논총**, 41(3), 51-73.
- 주소희. (2020).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비행에 관한 연구: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3), 955-964.
- 최영미. (2020). 부모의 긍정·부정적 양육태도, 교사애착,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915-936.
- 최현정, 이동귀. (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학업 실패 내성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2), 189-205.
- 최혜선, 한세영. (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중학생의 그릿,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 간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3(1), 103-125.
- 최효식, 신종호, 권수진, 최예은, 연은모. (2013). 연주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 및 경험 변인의 탐색: 연주불안과 학습된 무기력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2, 235-262.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4.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In: Parzen E., Tanabe K., Kitagawa G. (eds) *Selected Papers of Hirotugu Akaike*. Springer Series in Statistics (Perspectives in Statistics). Springer, New York, NY.
https://doi.org/10.1007/978-1-4612-1694-0_29
- Alarcon, G. M., Edwards, J. M. & Menke, L. E. (2011). Student burnout and engagement: A test of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The Journal of psychology*, 145(3), 211-227.
<https://doi.org/10.1080/00223980.2011.555432>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Asparouhov, T. & Muthén, B. (2020).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Using the BCH method in Mplus to estimate a distal outcome model and an arbitrary secondary model. *Mplus Web Notes*:

- No. 21. May 14, 2014. Revised February 4, 2021.
<https://www.statmodel.com/examples/webnotes/webnote21.pdf>
- Bakk, Z. & Vermunt, J. K. (2015). Robustness of Stepwise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ntinuous Distal Outcom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3(1), 20-31.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55104>
- Bakk, Z., Tekle, F.B., & Vermunt, J.K. (2013). Estim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latent class membership and external variables using bias adjusted three-step approaches. In T.F. Liao (ed.), *Sociological Methodology*. Thousand Oake, CA: SAGE publications.
<https://doi.org/10.1177/0081175012470644>
- Bergh, D. (2014). Sample size and Chi-Squared test of fit : A comparison between a random sample approach and a Chi-Square value adjustment method using Swedish adolescent data. *Presented at the Pacific-Rim Objective Measurement Symposium (PROMS 2014)* 4-6 Aug Gunagzhou, China. Retrieved from
<http://urn.kb.se/resolve?urn=urn:nbn:se:kau:diva-33367>
- Bornstein, M. H., Putnick, D. L., & Suwalsky, J. T. D. (2019). Continuity, stability, and concordance of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mothers and their sibling children. *Social Development*, 28(1), 90- 105.
<https://doi.org/10.1111/sode.12319>
- Calear, A. & Christensen, H. (2010). Systematic review of school-based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programs for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ce*, 33(3), 429-438.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9.07.004>
- Collins, L. M. & Wugalter, S. E. (1992). Latent Class Models for Stage-Sequential Dynamic Latent Variabl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7(1), 131-157.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2701_8
- Danél O., & Karina, M. (2014). Predictors of student burnout and engage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y in Africa*, 24(4), 342-350. <https://doi.org/10.1080/14330237.2014.978087>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

<https://doi.org/10.1037/0033-2909.113.3.487>

- Demirbas, M. & Yagbasan, R. (2006). An evaluative study of social learning theory based scientific attitudes on academic success, gender and socio-economical level. *Kuram Ve Uygulamada Egitim Bilimleri*, 6(2), 363. Retrieved from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evaluative-study-social-learning-theory-based/docview/236991219/se-2?accountid=6802>
- Durán, A., Extremera, N., Rey, L., Fernández-Berrocal, P. & Montalbán, F. M. (2006). Predicting academic burnout and engagement in educational settings: Assessing the incremental validity of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beyond perceived stress and general self-efficacy. *Psicothema*, 158-164. <https://reunido.uniovi.es/index.php/PST/article/view/8436>
- Enns, M. W., Cox, B. J., Sareen, J., & Freeman, P. (2001).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in medical studen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Medical Education*, 35(11), 1034-1042. <https://doi.org/10.1111/j.1365-2923.2001.01044.x>
- Eum, K. D., Li, J., Lee, H. E., Kim, S. S., Paek, D., Siegrist, J., & Cho, S. I. (2007).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effort-reward imbalance questionnaire: a study in a petrochemical company.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0(8), 653-661. <https://doi.org/10.1007/s00420-007-0174-3>
-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 (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1), 59-109. <https://doi.org/10.3102/00346543074001059>
- Fukuda, S., Yamano, E., Joudoi, T., Mizuno, K., Tanaka, M., Kawatani, J., Takano, M., Tomoda, A., Imai-Matsumura, K., Miike, T., & Watanabe, Y. (2010). Effort-Reward Imbalance for Learning is Associated with Fatigue in School Children, *Behavioral Medicine*, 36(2), 53-62, <http://doi.org/10.1080/08964281003774919>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48.

- <https://doi.org/10.1037/0022-0663.95.1.148>
- Gaber, J., Walker, L. S. & Zeman, J. (1991). Somatization symptoms in a community sampl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urther validation of the children's somatization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3, 588-595. <https://doi.org/10.1037/1040-3590.3.4.588>
- Gillet, N., Morin, A. J. S., & Reeve, J. (2017). Stability, change, and implications of students' motivation profiles: A latent transition analysi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51, 222-239. <https://doi.org/10.1016/j.cedpsych.2017.08.006>
- Gottfried, A. E., Fleming, J. S., & Gottfried, A. W. (2001). Continuity of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from childhood through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1), 3-13. <https://doi.org/10.1037/0022-0663.93.1.3>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517. <https://doi.org/10.1037/0022-0663.83.4.508>
- Hickendorff, M., Edelsbrunner, P. A., McMullen, J., Schneider, M., & Trezise, K. (2018). Informative tools for characteriz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learning: Latent class, latent profile,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66, 4-15. <https://doi.org/10.1016/j.lindif.2017.11.001>
- IBM Corp. Released 2017.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5.0. Armonk, NY: IBM Corp.
- Ivancevic, S., Ivanovic, T., Maricic, M. & Cudanov, M. (2020). Student Heavy Work Investment, Burnout, and Their Antecedents: The Case of Serbia. *Amfiteatru Economic*, 22(14), 1182-1205. <https://doi.org/10.24818/ea/2020/s14/1182>
- Kam, C., Morin, A. J. S., Meyer, J. P., & Topolnytsky, L. (2016). Are Commitment Profiles Stable and Predictable? A Latent Transition Analysis. *Journal of Management*, 42(6), 1462-1490. <https://doi.org/10.1177/0149206313503010>
- Ketonen, E. E., Haarala-Muhonen, A., Hirsto, L., Hänninen, J. J., Wähälä, K. & Lonka, K. (2016). Am I in the right place? Academic

- engagement and study success during the first years at universit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141-148.
<https://doi.org/10.1016/j.lindif.2016.08.017>
- Ki, P (2020).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influences of the interaction frequency with mothers versus fathers and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behaviou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0(7), 1123-1135.
<https://doi.org/10.1080/03004430.2018.1518904>
- Ki, P. (2021). Parenting Attitudes Profile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Influence of Parents'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Helplessness of the Adolescents Associated with the Profi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2), 151-231.
<https://doi.org/10.6115/fer.2021.016>
- Kirby, J. R. (1984). *Cognitive strategies and educational performance*. Orlando, FL: Academic Press.
- Kodinariya, T. M., & Makwana, P. R. (2013). Review on determining number of cluster in k-means cluste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 Research in Computer Science and Management Studies*, 1(6), 90-95.
- Kohls, G., Peltzer, J., Herpertz-Dahlmann, B. & Konrad, K. (2009). Differential effects of social and non-social reward on response inhibi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science*, 12(4), 614-625. <https://doi.org/10.1111/j.1467-7687.2009.00816.x>
- Kuusinen, J., Leskinen, E. (1988). Latent structure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on relations between intellectual abilities and school achievement. Retrieved October 4, 2014 from <http://www.editlib.org/p/139856/>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Lee, M. R. & Jeon, H. S.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style (warmth, autonomy support, structure provision), grit,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ulti-group analysis by school leve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 779-805. <https://doi:10.22251/jlcci.2020.20.14.779>

- Lee, M. Y., Lee, M. K., Lee, M. J. & Lee, S. M. (2020), Academic Burnout Profiles and Motivation Style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Japanese Psychological Association*, 62(3), 184-195.
<https://doi.org/10.1111/jpr.12251>
- Lenz, B. K., Ellis, E. S., & Scanlon, D. (1996). *Teaching learning strategies to adolescents and adul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ustin, TX: PRO-ED.
- Liaupsin, C. J., Umbreit, J., Ferro, J. B., Urso, A., & Upreti, G. (2006). Improving academic engagement through systematic, function-based intervention.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29(4), 573-591.
<https://www.jstor.org/stable/42900554>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https://doi.org/10.1093/biomet/88.3.767>
- Määttä, S., Nurmi, J. E. & Stattin, H. (2007). Achievement orientations, school adjustment, and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4), 789-812.
<https://doi.org/10.1111/j.1532-7795.2007.00547.x>
- McCutcheon, A. L. (1987). *Latent class analysis*. Newbury Park, CA: Sage.
<https://doi.org/10.4135/9781412984713>
- McHugh M. L. (2013). The chi-square test of independence. *Biochemia medica*, 23(2), 143-149. <https://doi.org/10.11613/bm.2013.018>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NY: Wiley. <https://doi.org/10.1002/0471721182>
- Muthén, L.K. & Muthén, B.O. (1998-2017). *Mplus User's Guide*. Eighth Edition.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Pintrich, P. R. (2000).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self-regulated learning. In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451-502).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B978-012109890-2/50043-3>
- Reboussin, B.A., Reboussin, D.M., Liang, K.L., & Anthony, J.C. (1998). Latent transition modeling of progression of health-risk behavio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3(4), 457-478.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3304_2
- Rice, K. G., Richardson, C. M. E., & Clark, D. (2012). Perfectionism,

- procrast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2), 288-302. <https://doi.org/10.1037/a0026643>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Sage Publications, Inc.
- Rosenberg, M. J. (1960). A structural theory of attitude dynamics. *Public Opinion Quarterly*, 24(2), 319-340. <https://doi.org/10.1086/266951>
- Salanova, M., Schaufeli, W., Martínez, I. & Bresó, E. (2010). How obstacles and facilitators predict academic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study burnout and engagement. *Anxiety, stress & coping*, 23(1), 53-70. <https://doi.org/10.1080/10615800802609965>
- Salmela-Aro, K., Kiuru, N., & Nurmi, J. E. (2008). The role of educational track in adolescents' school burnout: A longitudinal stud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 663-689. <https://doi.org/10.1348/000709908X281628>
- Schafer, J. L. (1997). *Analysis of incomplete multivariate data*. New York: Chapman and Hall.
- Schafer, J. L., & Graham, J. W. (2002). Missing data: Our view of the state of the art. *Psychological Methods*, 7, 147-177. <https://doi.org/10.1037/1082-989X.7.2.147>
- Schaufeli, W. B., Salanova, M. I., Gonzalez-Roma, V., & Bakker, A. B. (2002).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confirmative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71-92. <https://doi.org/10.1023/A:1015630930326>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https://doi.org/10.1214/aos/1176344136>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https://doi.org/10.1007/bf02294360>
- Seligman, M. E. (1972). Learned helplessness. *Annual review of medicine*, 23(1), 407-412. <https://doi.org/10.1146/annurev.me.23.020172.002203>
- Shi, C., Wei, B., Wei, S., Wang, W., Liu, H., & Liu, J. (2021). A quantitative discriminant method of elbow point for the optimal number of clusters in clustering algorithm. *EURASIP Journal on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 31.

- <https://doi.org/10.1186/s13638-021-01910-w>
- Siegrist, J. (1996). Adverse health effects of high-effort/low-reward condition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1), 27. <https://doi.org/10.1037/1076-8998.1.1.27>
- Siegrist, J., Starke, D., Chandola, T., Godin, I., Marmot, M., Niedhammer, I., & Peter, R. (2004). The measurement of Effort-Reward Imbalance at work: European Comparisons. *Social Science & Medicine*, 58, 1483-1499. [https://doi.org/10.1016/S0277-9536\(03\)00351-4](https://doi.org/10.1016/S0277-9536(03)00351-4)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502_3
- Tein, J. Y., Cox, S., &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4), 640-657. <https://doi.org/10.1080/10705511.2013.824781>
- Vallerand, R. J., Fortier, M. S. & Guay, F. (1997). Self-determination and persistence in a real-life setting: toward a motivational model of high school dropou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5), 1161. <https://doi.org/10.1037/0022-3514.72.5.1161>
- van Vegchel, N., de Jonge, J., Bosma, H., & Schaufeli, W. (2005). Reviewing the effort-reward imbalance model: drawing up the balance of 45 empirical studies. *Social science & medicine*, 60(5), 1117-1131.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4.06.043>
- Vermunt, J. (2017).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https://doi.org/10.1093/pan/mpq025>
- Williams, C. J., Dziurawiec, S. & Heritage, B. (2018). More pain than gain: Effort-reward imbalance, burnout, and withdrawal intentions within a university student popul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0(3), 378. <https://doi.org/10.1037/edu0000212>
- Williams, J. D. (2000). Student engagement at school: A sense of belonging and participat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trieved September 20, 2014,
- Yang, H. J. (2004). Factors affecting student burnout and academic

- achievement in multiple enrollment programs in Taiwan's technical-vocational colleg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4(3), 283-301. <https://doi.org/10.1016/j.ijedudev.2003.12.001>
- Zhang, Y., Gan, Y., & Cham, H. (2007). Perfectionism, academic burnout and engagement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6), 1529-1540. <https://doi.org/10.1016/j.paid.2007.04.010>
- Zimmerman, B. J., Greenberg, D., & Weinstein, C. E. (1994). Self-regulating academic study time: A strategy approach. In D.H. Schunk & B. J. Zimmerman (Eds.),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Issue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pp. 181-202).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